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의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련된 내용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의 회의록 공개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19. 2. 14.(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위원 : 신승운(위원장), 유창종, 곽노봉, 노혁진,
박은경, 박정혜, 배제호, 오용섭, 이호열, 장경희, 진화수,
한경순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3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1	보물 제1404호 봉사조선창화시권	공 개
2	보물 제1405호 비해당소상팔경시첩	공 개
3	보물 제929호 기사계첩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4	제진언집 목판	공 개
5	묘법연화경	공 개
6	고려 천수관음보살도	공 개
7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공 개
8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	공 개
9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	공 개
10	부산 북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	공 개
11	부산 북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12	보물 제1319호 '경진년대통력' 보존처리 현상변경	공 개
13	보물 제1482호 '이시방 초상' 초상함 보존처리 현상변경	공 개

【검토사항】 7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14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15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	공 개
16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	공 개
17	장응일 문과시권	공 개
18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	공 개
19	창녕 송현동 7호분 출토 금동투조안고	공 개
20	고령 지산동 518호분 출토 금은제귀걸이	공 개

【보고사항】 5건

21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 관련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 (2017·2018년 사업대상) 하반기 결과보고	공 개
22	2019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추진 및 현상변경 검토회의 운영 계획보고	공 개
23	2019년도 동산문화재보수정비(동산문화재 주변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 보고	공 개
24	2019년도 동산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 계획 보고	공 개
25	2019년도 불교회화 분야 국보·보물 지정명칭 개선 소위원회 운영 보고	공 개

심 의 사 항

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9-01-001

01. 보물 제1404호 봉사조선창화시권(奉使朝鮮倡和詩卷)

가. 심의사항

‘보물 제1404호 봉사조선창화시권’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보물 제1404호 봉사조선창화시권’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국보) 지정 신청(‘17.1.26)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8.4.25) 및 보완조사(‘18.5.1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6차 회의(‘18.08.09)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8.8.23~‘18.9.24) 하고,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1404호(2004. 5. 7 지정)
- 명 칭 : 봉사조선창화시권(奉使朝鮮倡和詩卷)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 1축
- 규 격 : 33.2×1,600.0cm
- 재 질 : 지본묵서(紙本墨書)
- 형 식 : 권자장(卷子裝)
- 조성연대 : 1450년(세종 32)

라. 조사자 검토 의견

(지정 가치 있음)

첫째, <봉사조선창화시권(奉使朝鮮倡和詩卷)>은 하나의 작품에서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의 오체(五體)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여기에 찍힌 전각의 인영들도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

둘째, 작품이 드물게 전하는 정인지·성삼문·신숙주의 기준작으로 삼을 수 있다. 이들은 집현전학사일 뿐만 아니라 당시 학문을 대표하기 때문에 친필로 쓴 이들의 목적은 더욱 의의가 있다.

셋째, 당시 대명외교(對明外交)와 한·중 서예교류의 생생한 실물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당시 외교적 교류의 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창화시의 내용은 한시문학(漢詩文學)의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쓴 글씨는 서예사적 가치가 충분하다.

이상을 근거로 삼아 <봉사조선창화시권>은 외교사·문학사·서예사적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국보로 승격시켜 보존해야 할 문화재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봉사조선창화시권』은 명나라 사신과 조선의 관료(접반사)가 문학 수준을 겨루며 창화를 통해 양국 간의 외교를 수행한 일면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 초기 관료이자 최고의 문인인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등의 친필 유목이 첨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선 초기 서예사 최고의 자료라고 하겠다. 더욱이 유일무이한 친필 원본자료라는 점에서 국보로 승격하여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봉사조선창화시권은 전체길이 16m의 두루마리이다. 사용된 종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이는 서간지로 만들어진 두루마리를 나누어 각각 필서하고 장황하였다.

두루마리의 장황은 중국식으로 본문의 상하부분은 얇은 미색비단으로 두루고 축수는 본체와 같이 폭을 맞추었다. 필서 되어 장황된 종이는 모두 중국지로 보이지만 마지막에 따로 부착된 종이는 한지(닥지)로 보인다. 즉 봉사조선창화시권은 사용된 재료와 제작기법으로 볼 때 중국에서 두루마리로 장황된 것이 확실하다.

□ (지정 가치 있음)

「봉사조선창화시권(奉使朝鮮倡和詩卷)」은 명나라 사신 예겸(倪謙)과 집현전학사였던 성삼문·신숙주·정인지 등이 창화(唱和)한 시문 37편을 모은 시책으로 후에 청의 당한제(唐翰題)와 나진옥(羅振玉)에게 수장되어 광서 을사년(1905)에 권축으로 재장정한 것이다.

이 유물은 15세기 중국과 조선의 외교 관계는 물론 양국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친필 시문이 담겨있는 유일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유일무이한 친필 원본자료라는 점에서 국보로 승격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보류 : 향후 명확한 승격가치 검토를 위한 보완조사·연구 필요

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봉사조선창화시권(奉使朝鮮倡和詩卷)>은 왕숙안(王叔安)이 전서로 ‘봉사조선창화시책(奉使朝鮮倡和詩冊)’이라 쓴 제전(題篆), 창화시(唱和詩) 본체, 청나라 당한제(唐翰題)·나진옥(羅振玉)이 쓴 발문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제(冊題)를 쓴 제전(題篆)이 143.0cm이고 수창한 본문이 1,376cm, 발문이 57,2cm, 제전(題篆)과 본문, 본문과 발문사이의 여백이 23.8cm로 전체길이는 1,600cm이고 폭은 33.2cm이다.

<봉사조선창화시권(奉使朝鮮倡和詩卷)>은 명나라 봉사(奉使) 예겸(倪謙)과 집현전학사(集賢殿學士) 성삼문·신숙주·정인지 사이에 창화(唱和)한 시문 37편을 모아 권축으로 만든 것을 광서 을사년(1905)에 개장한 것이다.

서예의 특징

왕숙안이 쓴 제전(題篆) ‘봉사조선창화시책(奉使朝鮮倡和詩冊)’은 당시 유행하였던 소전(小篆) 계통의 철사전(鐵絲篆)이다. 특징은 세로로 긴 형태의 장방형과 좌우의 대칭을 이루고, 필획은 철사처럼 가늘면서도 굵기가 일정하며, 둥글게 꺾는 원전(圓轉)을 운용하였다. 서사의 속도는 일정하여 처음 먹을 댄 기필(起筆) 부분은 짙은 먹색을 나타내고, 점차 갈수록 먹색이 옅어지면서 필획의 중간 이후부터 비백(飛白)을 나타내었지만 끝 부분은 붓끝을 눌러 회봉(回鋒)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짙은 먹색을 나타내었다. 2행의 관지(款識)는 예서로 썼는데, 단정한 법도를 갖춘 한나라 예서 필법을 본받았다.

작품 37편 가운데 예겸의 설제등루부(雪霽登樓賦)와 이에 차운한 신숙주의 화설제등루부(和雪霽登樓賦) 2편을 제외한 35편은 모두 시로 예겸은 16제(題), 신숙주는 7제, 정인지·성삼문은 각각 6제이다.

예검은 주로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로우며 방중한 행서와 초서를 구사하면서 필법을 중시하기보다는 붓을 믿고 자연스럽게 서사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신숙주의 해서는 단정함을 주로 하면서 자형은 크거나 작고, 가로획의 기울기와 행기(行氣)의 변화를 통하여 생동함을 나타내었지만, 글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작은 편이다. 행서는 해행서(楷行書)에 가까우나 근골은 굳세거나 강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자형은 간혹 가로로 넓은 형태를 나타내어 행기가 분명하지 않다.

정인지의 근엄하고 단정한 해서는 근엄한 필법과 단정한 자태를 나타내었고, 필획은 굳세며 고른 자형과 굳센 성정을 나타내었다. 행서는 해서에 가까운 해행서(楷行書)로 단정하고 수려한 왕희지 서풍과 붓을 누여 쓰는 언필(偃筆)로 인하여 자형이 약간 납작한 소식 서풍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성삼문의 해서는 정방형의 단정한 서풍이고, 필획 사이의 간격이 너그러워 군색하지 않으며 관대한 학자적인 면모를 나타내었다. 또한 필획의 기필(起筆)과 수필(收筆)이 분명하고, 행필(行筆)은 주저함이 없어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행서는 해서에 가까운 해행서(楷行書)와 행서에 가까운 행초서(行草書)가 있다. 해행서는 세로로 향한 행기를 중시하면서 자형의 크기와 필획의 굵거나 가는 대비를 통해 활발하고 생동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행초서는 자형이 약간 작으면서도 세로로 향한 행기가 분명하고 필획은 강하지 않아 부드러우며 자연스러운 서풍을 나타내었다.

이외에 청나라 서화가이면서 장서가인 당한제(唐翰題, 1816-1878)와 갑골학으로 유명한 나진옥(羅振玉, 1866-1940)의 발문은 이 작품의 유전경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서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기 타

<봉사조선창화시권(奉使朝鮮倡和詩卷)>은 늦어도 1985년 이전에 국내로 유입된 이후 ***이 소장하고 있다가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 내용 및 특징

奉使朝鮮倡和詩卷

筆寫本.

1軸 ; 33.2 × 1600.0cm

題籤: 明倪文僖公奉使朝鮮倡和詩卷光緒乙巳重裝唐風樓藏

印: 「倪謙」, 「靜存」, 「倪謙之印」, 「翰林侍講私印」, 「詞垣載筆」, 「東閣史官」, 「倪氏子子孫孫其永保之」. 「麟趾」, 「河東鄭氏」. 「叔舟」, 「泛翁」. 「謹甫」. 「陳驥德所寶名跡」. 「唐翰題審正」. 「松翁鑒藏」.

『봉사조선창화시권(奉使朝鮮倡和詩卷)』은 세종 32년(1450)에 명나라 경제(景帝, 1450~1457 재위)의 등극 조서(詔書)를 가지고 조선에 사신으로 온 한림원시강(翰林院侍講) 예겸(倪謙, 1415~1479)이 그해 윤 정월부터 2월 3일까지 원집사인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등과 창화(唱和)한 시 37편을 권축(두루마리)으로 장책해 놓은 것이다.

예겸은 명사(明史)에 전하지 않는다. 각종 기록에 따르면, 응천부(應天府: 현 하남성 상구) 상원현 출신이다. 그의 자는 극양(克讓), 별호는 정존(靜存),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그의 서재 이름은 정존헌(靜存軒)이었다. 그는 풍채가 준엄하고 전대(專對: 사신이 외교 현장에서 현안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하는 외교적 능력이 탁월하였다고 한다. 그의 저술은 『예문희공집(倪文僖公集)』 32권, 『조선기사(朝鮮紀事)』 1권, 『요해편(遼海編)』 등 다수가 전한다. 특히 『조선기사』는 예겸이 인솔하던 사행단의 62일간의 여정을 일기체로 기록한 글인데 『사고전서존목총서(四庫全書存目叢書)』와 『속수사고전서(續修四庫全書)』 등의 총서에 수록되어 전한다. 『요해편』은 예겸이 조선으로 파견되어 오는 동안 지었던 시부(詩賦)와 기행문, 지인들에게 받았던 시문 등을 편집해 놓은 글이다.

예겸이 세종 32년(1450)에 조선에 온 사실은 “사신 예겸과 사마순(司馬恂)이 경태제(景泰帝)의 등극을 알리는 조칙을 받들고 옵니다.”¹⁾는 우리 측의 기사에서도 확인이 된다. 또한 “예겸이 시 한 편을 지어 정인지에게 주니, 정인지도 즉시 운(韻)을 따라 지어 주었다. 이로부터 인지, 삼문(三問), 숙주(叔舟)와 더불어 창화(倡和)하기에 빈 날이 없었다.”²⁾고 하여 그들의 창화에 대한 사실도 확인된다.

그런데 명나라의 사신이 조선의 관료(접반사)들과 처음부터 창화를 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환관들이 주로 사신으로 선출되어 조선에 왔기 때문에 시부(詩賦) 외교는 진행되기가 어려웠다. 문관 사신인 예겸도 조선에 와서 수십 편의 기행시를 지었지만 처음에는 조선 관료들과 창화하지 않았다. 창화시는 예겸과 조선 관

1) 『세종실록』 31년 12월 22일, “通事 高用智 自京師來言…又言: 使臣倪謙, 司馬恂奉登極詔來.”

2) 『세종실록』 32년 윤1월 3일, “賦詩一篇, 贈鄭麟趾, 麟趾即次韻. 自是與麟趾, 三問, 叔舟倡和無虛日.”

료들이 성균관에 위치한 공자사당(文廟)을 참배했을 때부터였다. 예겸이 「알문묘(謁文廟)」를 짓자 이에 접반사인 정인지가 차운하면서 창화 외교의 막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문관사신인 예겸이 조선에 오면서 양국 간의 창화 형태의 외교가 본격화된 것이다. 또한 그들은 처음으로 기사사당, 단군사당, 기자무덤 등도 배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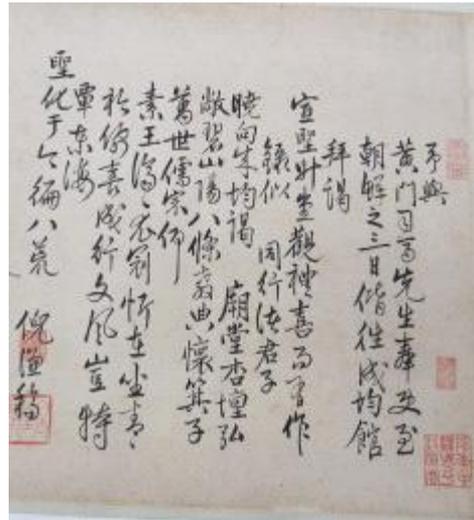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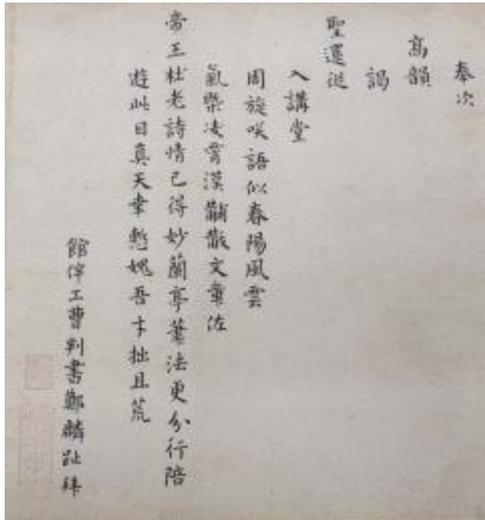
이어 예겸이 「설제등루부(雪霽登樓賦)」를 짓자 신숙주가 차운부(次韻賦)를 지으면서 한문학 종주국의 대표로 조선에 온 명사들은 더욱 창작에 중시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의 관료들이 예겸 등과 창화를 한 것은 개인의 문학 재주 과시 및 명사들과의 문학 대결을 통해 문명국으로서의 조선의 위치를 확고히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양국의 관료들은 창화를 통해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면서 마침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 시권(詩卷)은 왕숙안(王叔安)이 「봉사조선창화시책(奉使朝鮮倡和詩冊)」이라고 쓴 전관(篆冠), 본편인 창화시(唱和詩), 청나라 당한제(唐翰題)와 나진옥(羅振玉)이 쓴 발문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전(題箋)은 「명예문희공봉사조선창화시권(明倪文僖公奉使朝鮮唱和詩卷)」이라 쓰고, 이어 작은 자로 광서 을사(1905)년에 거듭 장책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당풍루장(唐風樓藏)”이라고 쓰여 있는데, 당풍루는 나진옥(1866~1940)의 서실 이름이다. 그렇다면 이 권축은 1905년에 거듭 개장되면서 나진옥이 소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내용은 전 37편의 작품 중에서 예겸의 「설제등루부(雪霽登樓賦)」와 이에 차운한 신숙주의 「화설제등루부(和雪霽登樓賦)」를 제외한 35편은 시다. 모두 지은 사람이 직접 쓰고, 자신의 도서(圖書)를 찍어 놓았다. 예겸의 작품이 16제(17편)로 가장 많고, 정인지와 신숙주는 7편, 성삼문은 6편이다. 편차는 부를 먼저 두고, 시는 지은 날짜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시권에 수록된 시들과 『황화집(皇華集)』이나 국내 문집에 수록된 것을 대비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그러나 이 시권에 수록된 시가 최초의 원본이라는 점에서 다른 자료의 것이 수정 혹은 착오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시권에는 시문의 찬자와 시권의 소장자의 도서 수십 과(顆)가 날인되어 있다. 예겸의 도서로는 「倪謙(예겸)」, 「靜存(정존)」, 「倪謙之印(예겸지인)」, 「翰林侍講私印(한림시강사인)」, 「詞垣載筆(사원재필)」, 「東閣史官(동각사관)」, 「倪氏子子孫孫其永保之(예씨자자손손기영보지)」 등이 있다. 조선의 정인지는 「麟趾(인지)」, 「河東鄭氏(하동정씨)」, 신숙주는 「叔舟(숙주)」, 「泛翁(범옹)」, 성삼문은 「謹甫(근보)」 등을 날인해 놓았다. 이후의 것으로는 진기덕(陳驥德)의 「陳驥德所寶名跡(진기덕소보명적)」, 당한제(唐翰題)의 「唐翰題審正(당한제심정)」, 나진옥의 「松翁鑒藏(송옹감장)」 등 이 책을 감정하고 소장한 사람의 도

서가 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이 시권은 예겸의 집안에 전하다가 진기덕과 당한제 그리고 나진옥이 차례로 소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나진옥은 1905년에 쓴 발문에서 이 책이 가흥 당씨(嘉興唐氏)에게서 입수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이 시권은 1958년에 김상기(金庠基), 이병도(李丙燾), 김두중(金斗鍾), 이용희(李用熙), 전형필(全鑿弼), 원충희(元忠喜) 등이 이 책을 감정한 결과를 적은 감정기가 있다. 그렇다면 이 시권은 1958년 이전에 국내에 입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88년경에 청명(靑溟) 임창순(任昌淳)이 입수하였다가 청명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해당소상팔경시첩(匪懈堂瀟湘八景詩帖)』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 매도한 것이다.

○ 참고문헌

辛承云, “倪謙의 『奉使朝鮮唱和詩卷』에 對한 研究”. 『서지학연구』 28집(2004)
 朴春燮, “韓中人들의 唱和詩에 나타난 箕子認識의 展開”,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5.
 안주혁, “조선 전기 명사의 사행과 영조·칙의례의 명례수용”,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6.
 詹杭倫·杜慧月, “倪謙出使朝鮮與《庚午皇華集》考述”, 『逢甲人文社會學報』第14期 (2007年 6月).



○ 서지사항

奉使朝鮮倡和詩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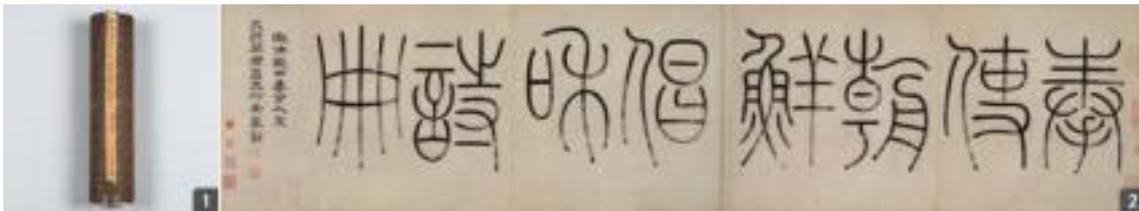
筆寫本. 1軸 ; 33.2 × 1600.0cm

題籤: 明倪文僖公奉使朝鮮倡和詩卷光緒乙巳重裝唐風樓藏

印: 「王氏」, 「叔安」, 「羅振玉」, 「唐翰題」, 「倪謙」, 「靜存」, 「倪謙之印」, 「翰林侍講私印」, 「詞垣載筆」, 「東閣史官」, 「倪氏子子孫孫其永保之」. 「麟趾」, 「河東鄭氏」. 「叔舟」, 「泛翁」. 「謹甫」. 「陳驥德所寶名跡」. 「唐翰題審正」. 「松翁鑒藏」.

○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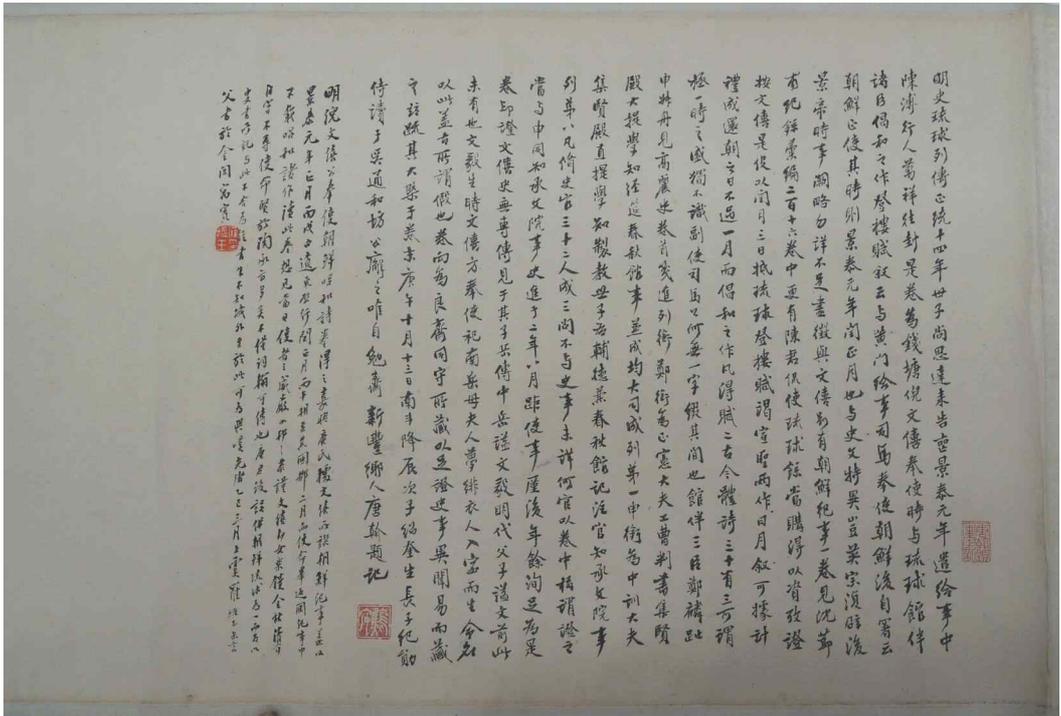
조사 대상 유물은 본래 청의 나진옥(羅振玉)이 소장하였던 것이다. 이 시권과는 별도로 1958년에 동빈(東濱) 김상기(金庠基)·두계(斗溪) 이병도(李丙燾)·일산(一山) 김두중(金斗鍾)·동주(東州) 이용희(李用熙)·간송(澗松) 전형필(全鏐弼)·동창(東滄) 원충희(元忠喜) 등 6인이 유물을 감정(鑑定)하고 그 평가를 작성한 감정기(鑑定記)가 있는데, 이를 통하여 1958년 이전에 국내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임**(任**)의 진장(珍藏)에 속해 있다가 1988년경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었다.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재인용

○ 내용 및 특징

「봉사조선창화시권(奉使朝鮮倡和詩卷)」은 1450년(세종 32년)에 명나라 경제(景帝, 1450~1457 재위)의 등극 조서(詔書)를 가지고 조선에 사신으로 온 한림원시강(翰林院侍講) 예겸(倪謙, 1415~1479)이 그해 윤 정월부터 2월 3일까지 원접사인 정인지(鄭麟趾, 1396~1478), 신숙주(申叔舟, 1417~1475), 성삼문(成三問, 1418~1456) 등과 창화(唱和)한 시 37편이 수록된 것이다. 시권의 마지막에 있는 청(淸)나라 때의 금석학자(金石學者)이자 화가였던 당한제(唐翰題, 1816~?)가 경오년(1870)에 쓴 기(記), 역시 청나라 때의 금석학자였던 나진옥(羅振玉, 1866~1940)이 을사년(1905)에 쓴 발문을 통하여 광서 을사년(1905)에 개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明倪文僖公奉使朝鮮唱和詩卷得之嘉興唐氏 據文僖所撰朝鮮紀事 蓋以景泰元年正月丙戌由遼東啓行 閏正月丙午朔至其國都 二月而使命畢返國 紀事中不載唱和諸作 讀此卷想見當日使者之威嚴 小邦之恭謹 文僖却女樂饋金 故清介自守 不辱使命 賢於陶承旨多矣 不僅詞翰可傳也 唐君跋誤併朝鮮琉球爲一 而反以史書所記與此不合爲疑 書生不知域外至於此 可爲興嘆 光緒乙巳三月 上黨羅振玉叔言 父書於金閭寓

명나라 예문희(倪文僖) 공이 조선에 사신으로 가서 창화(唱和)한 시권을 가흥 당씨(嘉興唐氏)에게서 얻었다. 문희가 지은 『조선기사(朝鮮紀事)』에 의거하면 대개 경태(景泰) 원년(元年) 정월 병술일에 요동(遼東)에서 출발하여 윤(閏) 정월 병오삭(丙午朔)에 그 국도에 이르렀고 2월에 사명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되어있다. 기사 중에는 창화한 작품들을 신지 않았다. 이 시권을 읽어보면 당시에 사자(使者)의 위엄과 소방(小邦)의 공손함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문희는 여악(女樂)과 돈을 주는 것을 물리쳤으므로 청렴한 것으로 자처하여 사명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니 도승지(陶承旨) 보다 훨씬 더 현명하였다. 비단 사한(詞翰)만이 전해질 것은 아니다. 당군의 발문에서 오인하여 조선과 유구를 하나로 여기고 도리어 사서(史書)에 기록한 것이 이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의심을 하였다. 서생(書生)이 역외(域外)에 대해 모르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가히 탄식할만하다.

광서(光緒) 을사년 3월에 상당(上黨) 나진옥(羅振玉) 숙언(叔言) 보(父)가 금창(金閭)의 우거(寓居)에서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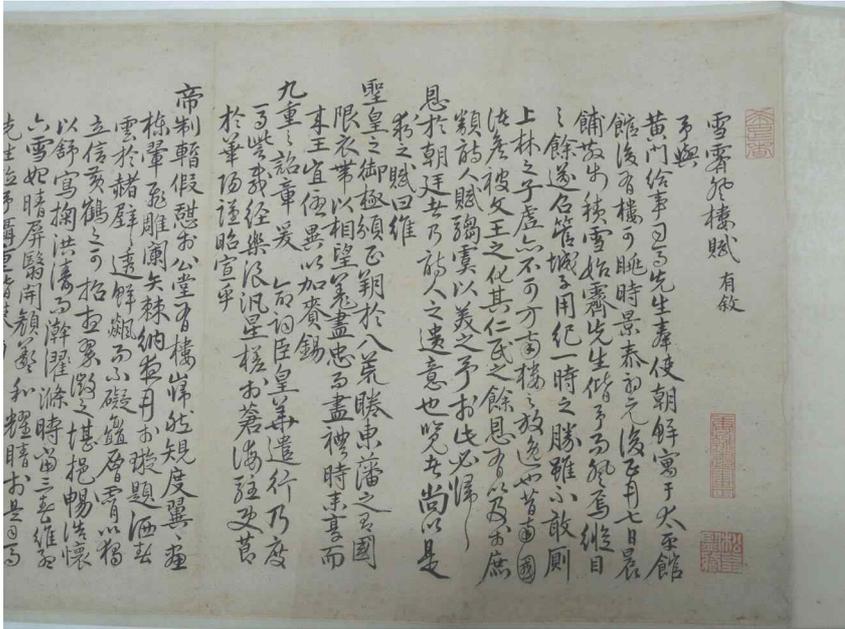
예겸은 역사서에는 전하지 않고, 그의 아들인 악(岳)의 전기 속에 일부 내용이 전한다. 또한 각종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응천부(應天府: 현 하남성 상구) 상원현 출신으로 자는 극양(克讓), 별호는 정존(靜存)이며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당한이 지은 글에는 아들인 악의 시호는 ‘문의(文毅)’로서 명대(明代)에 부자(父子)가 ‘문(文)’으로 시호를 받은 사례는 예전에는 이전에는 없었다고 한다. 풍채가 준엄하고 외교적 능력이 탁월하였다고 평가된다. 그의 저술은 『예문희공집(倪文僖公集)』

32권, 『조선기사(朝鮮紀事)』 1권, 『요해편(遼海編)』 등 다수가 전한다. 특히 『조선기사』는 예겸이 인솔하던 사행단의 62일간의 여정을 일기체로 기록한 글인데 『사고전서존목총서(四庫全書存目叢書)』와 『속수사고전서(續修四庫全書)』 등의 총서에 수록되어 전한다. 『요해편』은 예겸이 조선으로 파견되어 오는 동안 지었던 시부(詩賦)와 기행문, 지인들에게 받았던 시문 등을 편집해 놓은 글이다. 예겸과 관련된 사실은 『세종실록』에 전하고 있다. 31년 12월 22일 기사에서는 “사신 예겸과 사마순(司馬恂)이 경태제(景泰帝)의 등극을 알리는 조칙을 받들고 옵니다.”는 내용이 전하고, 32년 윤1월 3일의 기록에는 “예겸이 시 한 편을 지어 정인지에게 주니, 정인지도 즉시 운(韻)을 따라 지어 주었다. 이로부터 인지, 삼문(三問), 숙주(叔舟)와 더불어 창화(倡和)하기에 빈 날이 없었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다.

조사 대상 유물인 「봉사조선창화시권」의 내용은 왕숙안(王叔安)이 전서로 ‘봉사조선창화시책(奉使朝鮮倡和詩冊)’이라 쓴 제전(題篆), 창화시(唱和詩), 청나라 당한제(唐翰題)·나진옥(羅振玉)이 쓴 발문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부분의 크기는 제전(題篆)의 폭은 143.0cm이고 수창한 본문이 1,376cm, 발문이 57,2cm, 제전(題篆)과 본문, 본문과 발문사이의 여백이 23.8cm로 전체길이는 1,600cm이고 폭은 33.2cm이다.

겉표지에는 ‘명예문희공 봉사조선창화시권(明倪文僖公奉使朝鮮倡和詩卷)’이란 제목 [題籤]과 함께 ‘光緒乙巳重裝’, ‘唐風樓藏’이라고 표기되어 청(淸) 광서 31년(1905) ‘당풍루(唐風樓)’란 서실(書室)을 갖고 있었던 청말 금석학자 나진옥(羅振玉, 1866~1940)이 원본을 다시 꾸민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 37편의 작품 중에서 예겸의 「설제등루부(雪霽登樓賦)」와 신숙주의 「화설제등루부(和雪霽登樓賦)」 2편의 부를 제외하고 모두가 시로 지어진 날자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예겸이 16편, 신숙주가 7편, 정인지와 성삼문이 각각 6편을 지었다. 이 시들은 『황화집(皇華集)』이나 『성근보집(成謹甫集)』·『보한재집(保閒齋集)』·『박선생유고(朴先生遺稿)』·『동문선(東文選)』 등에 수록된 글과 대교(對校)해 보면 시제(詩題)와 본문에 약간씩의 이동(異同)이 산견되고, 우숙개성부유작(寓宿開城府有作)에 대한 성삼문의 경차고운봉정(敬次高韻奉呈) 등은 이들 문헌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예겸이 받은 시들을 가지고 귀국한 뒤 선별하여 권축(卷軸)으로 장정하였음이 짐작된다.



倪謙
雪霽登樓賦

予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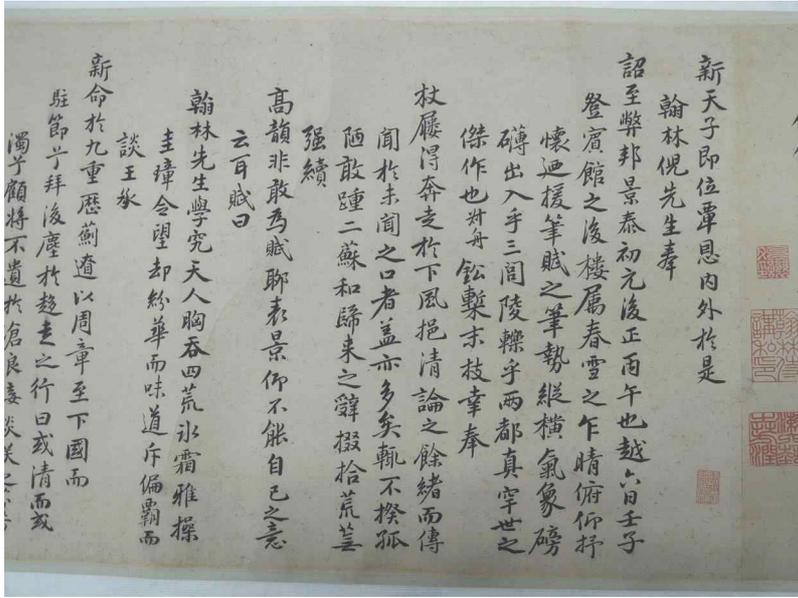
黃門給事司馬先生 奉使朝鮮 寓于太平館 館後有樓可眺 時景泰初元後正月七日 晨舖散步 積雪始霽 先生偕予而登焉 縱目之餘 遂召管城子 用紀一時之勝 雖不敢廁上林之子虛 亦不可方南樓之放逸也 昔南國諸侯 被文王之化 其仁民之餘恩 有以及於庶類 詩人賦騶虞以美之 予於此必歸恩於朝廷者 乃詩人之遺意也 覽者尚以是求之 賦曰 維

聖皇之御極 頌正朔於八荒 睽東藩之有國 限衣帶以相望 羌盡忠而盡禮 時來享而來王 宜優異以加賚 錫九重之詔章 爰命詞臣 皇華遣行 (하략)

내가 황문급사(黃門給事)인 사마선생(司馬先生)과 더불어 조선에 사신으로 와서 태평관(太平館)에 머물렀는데 관 뒤에 조망할만한 누대가 있었다. 그 때가 경태(景泰) 초원(初元) 후 정월(正月)이었다. 새벽에 식사를 하고 산보를 하자니 퍼붓던 눈이 비로소 개었다. 선생이 나와 함께 거기에 올랐다. 멀리까지 구경한 뒤에 마침내 관성자(管城子)를 불러 한 때의 승경(勝景)을 기록하게 하였다. 비록 감히 「상림부(上林賦)」와 「자허부(子虛賦)」에는 길 수 없겠지만 또한 「남루부(南樓賦)」의 방일(放逸)함과 다를 것이 없었다. 옛날 남국(南國)의 제후(諸侯)들이 문왕(文王)의 교화를 입어 그 백성에게 인자한 은혜의 나머지가 서류(庶類)에게까지 미칠 수 있었는데 시인(詩人)이 「추우(騶虞)」를 읊어 그것을 아름답게 여겼으니 내가 여기에 대해 반드시 조정에 대해 은혜를 돌리는 것은 바로 시인의 유의(遺意)인 것이다. 보는 자들은 부디 이것을 가지고 찾아보기를 바란다. 부(賦)는 이러하다.

성황께서 등극하시어(維聖皇之御極)

정삭(正朔)을 팔황에 반포하시었네(頌正朔於八荒)
동쪽 번방(藩邦)에 있는 나라를 돌아보니(睽東藩之有國)
의대(衣帶)를 한계로 하여 마주하고 있네(限衣帶以相望)
마침내 충성과 예의를 극진히 하여(羌盡忠而盡禮)
제 때에 와서 공물을 바치고 조회하였네(時來享而來王)
의당 하사품을 특별하게 우대하여(優異以加賚)
황제의 조서를 내려주어야 했네(錫九重之詔章)
이에 문장 하는 신하들에게 명하여(乃命詞臣)
사신으로 떠나가게 하였네(皇華遣行) (하략)



申叔舟
和雪霽登樓賦

新天子即位 覃恩內外 於是 翰林倪先生 奉詔至弊邦 景泰初元後正丙午也 越六日壬子 登賓館之後樓 屬春雪之乍晴 俯仰抒懷 洒援筆賦之 筆勢縱橫 氣像磅礴 出入乎三閭 陵轢乎兩都 眞罕世之傑作也 叔舟鉛槧末技 幸奉杖屨 得奔走於下風 挹清論之餘緒 而傳聞於未聞之口者 蓋亦多矣 輒不揆孤陋 敢踵二蘇和歸來之辭 掇拾荒蕪 強續高韻 非敢爲賦 聊表景仰不能自己之意 云耳 賦曰 翰林先生 學究天人 胸吞四荒 冰霜雅操 圭璋令望 却紛華而味道 斥偏霸而談王 承新命於九重 歷薊遼而周章 (하략)

새 천자(天子)께서 즉위하시어 내외에 성은(聖恩)을 퍼셨다. 이에 한림선생(翰林先生)이 조서(詔書)를 받들고 우리나라에 이르니 경태(景泰) 원년 정월 병오(丙午)일이었다. 그 옛새 뒤 임자(壬子)에 빈관(賓館) 뒤쪽 누대에 오르니 마침 봄눈이 잠깐 갠 때라 굽어보고 우러러보며 느낀 심회(心懷)를 붓을 들어 부(賦)를 읊조렸는데 그 필세(筆勢)가 온통 기상이 웅장하여 삼려(三閭)의 경지에 들 만하고 양도부(兩都賦)를 능가할 정도이니 참으로 세상에 드문 걸작이었다. 숙주(叔舟)가 말기(末技)를 연마한 탓에 다행히 장구를 받들고 뒤를 따라 분주하게 내달리면서 청론(淸論)의 일부를 들을 수 있었으니 또한 직접 귀로 듣지 못한 것을 전해들은 것도 또한 많았다. 이에 고루(孤陋)함을 헤아리지 않고 감히 이소(二蘇)가 「귀거래사(歸去來辭)」를 화답했음을 본떠 거친 글을 엮어 억지로 고운(高韻)을 차운해본다. 이는 감히 부(賦)를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경양(景仰)하여 마지않는 뜻을 표해볼 따름인 것이다. 부(賦)는 이러하다.

한림 선생의 학문은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궁구하였고(翰林先生學究天人) 가슴은 우주를 삼킬만하신 분이네(曾吞四荒) 얼음 서리 같은 맑은 지조에(冰霜雅操) 규장(圭璋) 같은 아름다운 명망이 있으셨네(圭璋令望) 화려함을 물리치고 도를 맛보며(卻紛華而味道) 패도를 배척하고 왕도를 말하였네(斥偏霸而談王) 구중궁궐에서 새 칙명을 받잡고(承新命於九重) 계수와 요동을 지나 행차하였네(歷薊遼以周章)

모두 지은 사람이 직접 쓰고, 자신의 도서를 날인하였다. 예겸의 도서로는 「倪謙(예겸)」, 「靜存(정존)」, 「倪謙之印(예겸지인)」, 「翰林侍講私印(한림시강사인)」, 「詞垣載筆(사원재필)」, 「東閣史官(동각사관)」, 「倪氏子子孫孫其永保之(예씨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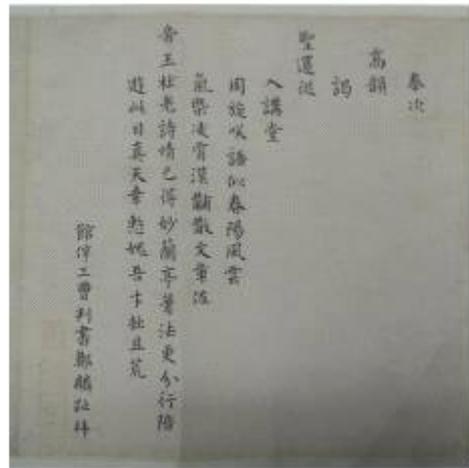
손순기영보지)」 등이 있다. 한편, 정인지는 「麟趾(인지)」, 「河東鄭氏(하동정씨)」, 신숙주는 「叔舟(숙주)」, 「泛翁(범옹)」, 성삼문은 「謹甫(근보)」 등을 날인하였다.

또한 후대에 소장한 이들의 도서도 날인되었다. 이후의 것으로는 진기종(陳驥德)의 「陳驥德所寶名跡(진기덕소보명적)」, 당한제(唐翰題)의 「唐翰題審正(당한제심정)」, 나진옥의 「松翁鑒藏(송옹감장)」 등 이 책을 감정하고 소장한 사람의 도서가 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이 시권은 예겸의 집안에 전하다가 진기덕과 당한제 그리고 나진옥이 차례로 소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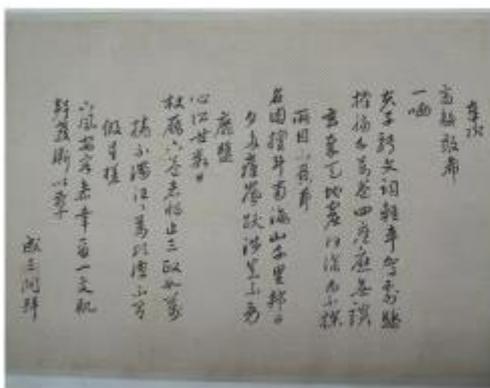
한편 이 시권과는 별도로 1958년에 동빈(東濱) 김상기(金庠基)·두계(斗溪) 이병도(李丙燾)·일산(一山) 김두중(金斗鍾)·동주(東州) 이용희(李用熙)·간송(澗松) 전형필(全瑩弼)·동창(東滄) 원충희(元忠禧) 등 6인이 유물을 감정(鑑定)하고 그 평가를 작성한 감정기(鑑定記)가 있다.



예겸



정인지





○ 참고문헌

辛承云, “倪謙의 『奉使朝鮮唱和詩卷』에 對한 研究”. 『서지학연구』 28집, 2004.

朴春燮, “韓中人들의 唱和詩에 나타난 箕子認識의 展開”,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5.

안주혁, “조선 전기 명사의 사행과 영조·칙의례의 명례수용”,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6.

詹杭倫·杜慧月, “倪謙出使朝鮮與《庚午皇華集》考述”, 『逢甲人文社會學報』 第14期 (2007年 6月).

【의견 접수】

- 접수 일 : 2018. 12. 13.
- 신청자 : ***
- 의견요지 : 보물로서 유지가 타당함

보물 제1404호 《봉사조선창화시권》

국보 지정예고에 대한 의견

* 보물 제1404호 《봉사조선창화시권》에 대한 문화재청의 국가지정 승급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봉사조선창화시권》의 내용적 가치

1450년(세종 32) 명나라 경제(景帝)의 등극조서(登極詔書)를 반포하기 위해 정사 한림원시강(翰林院侍講) 예겸(倪謙 1415~1479)과 부사 공과급사중(工科給事中) 사마순(司馬恂)이 내조했다. 당시 예겸이 조선 사신의 정사로 선발된 이유는 그가 유학과 문장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일류의 ‘문학지사(文學之士)’로 평가받았고, 황제의 최측근인 한림원시강으로서 양국관계를 잘 조정할 만한 인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예겸이 파견되기 전에는 주로 환관들이 사신으로 와서 갖은 횡포를 부렸기에 조선에서는 문학지사의 파견을 갈망하던 차였다.

예겸은 전당(錢塘) 출신으로 25세인 1439년 진사시에 갑과(甲科)로 급제하여 한림원 편수(編修)에 임명되었다. 일찍이 태학 생도 때부터 문명을 날렸는데, 즉석에서 운자를 내자마자 시를 이루는 속작(速作)에 뛰어났다. 기억력이 좋아 한번 본 글은 잊지 않았으며 풍채가 좋아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한다. 그는 1449년 12월 13일 황제의 칙명을 받고 명나라 도성을 출발하여 조선을 다녀오기까지 매일 시를 지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정인지(鄭麟趾 1396~1478)·신숙주(申叔舟 1417~75)·성삼문(成三問 1418~56)이 사신을 응대하는 관반(館伴)으로 나섰다. 예겸은 이들 관반과 창화한 시를 포함하여 작별할 때 지은 시부(詩賦)를 편집하여 귀국 후 『요해편 遼海編』을 편찬했다.³⁾ 이 책은 3권으로 구성되는데, 권1~2에는

3) 申叔舟, 『保閑齋集』 권12 「遼海編」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겸과 정인지·성삼문·신숙주가 서로 唱和한 22편 시문만 실려 있다.

시부(詩賦) 287수와 문(文) 8편을 실었고, 권3에는 그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쓴 「조선기사 朝鮮紀事」를 실었다.

예겸이 한양에 도착한 것은 그가 북경을 출발한 지 48일 만인 1450년 윤1월 1일이었다. 그는 한양에서 같은 달 19일까지 20일간을 머물렀는데, 거처한 곳은 중국 사신의 숙소이던 태평관(太平館)이었다. 서소문 근처에 있던 태평관은 본채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문이 있고 북으로는 누각이 있으며, 동서로는 행랑이 있었다. 북루(北樓)에서는 한양 성안의 경치가 한 눈에 들어왔다.

예겸과 조선 문사들의 본격적인 창화는 한양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부터였다. 그날 예겸은 성균관의 공자 사당인 선성묘(宣聖廟)를 배알하고 시를 지었는데, 당시 공조판서 정인지가 차운시를 지었다.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예겸은 정인지에게 다시 화답한 시의 소주(小註)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처음에 알묘시를 지은 것은, 본래 그들이 변방국이면서도 문학을 숭상하는 것을 가상하여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외로 공조(工曹: 정인지)가 연석(宴席)에서 화답하여 업신여기는 듯한 뜻이 있으므로, 바로 화답하는 시를 지어 돌려주었다. 이때부터 그의 시에 화답할 때에는 모두 그의 시를 보자마자 즉시 화답하여 순식간에 지으니, 비로소 모두들 나의 솜씨에 경탄했다.”⁴⁾

이때로부터 예겸과 정인지·신숙주·성삼문은 양국의 자존심을 건 시부의 창화를 시작했는데, 한양에 머물렀을 때뿐만 아니라 압록강에서 전별할 때까지 거의 매일 이루어졌다.⁵⁾ 이들이 만날 때는 단순히 시문의 창화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예물 형식을 빌린 문물의 교환, 학술적 토론을 통해 양국 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조선 문사의 높은 수준을 인식하는 계기도 되었다. 특히 예겸은 귀국한 뒤에 정인지·신숙주·성삼문과 창화한 것만을 모아서 《봉사조선창화시권 奉使朝鮮唱和詩卷》을 만들었다. 이 시권은 필시 세종조(世宗朝) 문학과 서예의 수준을 명나라에 알려주는 중요한 작품이었을 것이다.

2. 《봉사조선창화시권》의 현상

본건 《봉사조선창화시권》 두루마리는 제서(題書)·창화시부(唱和詩賦)·발문(跋文)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맨 앞에 청나라 왕숙안(王叔安)이 ‘봉사조선창화시책(奉使朝鮮唱和詩冊)’이란 전서로 쓴 제서가 있고, 이어 예겸과 조선의 세 문사들

4) 倪謙, 『遼海編』 권3, 「朝鮮紀事」 閏正月戊申, “鄭工曹見和卽席用韻以答題下(“初作謁廟詩, 本以嘉其夷而右文也. 意工曹席間吟和, 似有陵騁意, 隨和還之. 自此, 凡和其詩, 俱觀罷卽答, 頃刻而就, 始皆驚服.”)

5) 『世宗實錄』 32년 윤1월 3일 戊申, “倪謙賦詩一篇, 贈鄭麟趾, 麟趾卽次韻. 自是與麟趾三問叔舟倡和無虛日.”

이 창화한 시부가 실려 있으며, 뒤쪽에 당한제(唐翰題 1816~82)의 1870년 10월 발문과 나진옥(羅振玉 1866~1940)의 1905년 3월 발문이 있다. 크기는 전체 33.2cm×1600cm으로 제서 143cm, 수창시부 1,376cm, 발문 57.2cm이다. 두루마리 겹면에는 나진옥의 제첩(題簽)이 있는데, “명예문회공봉사조선 창화시권(明倪文僖公 奉使朝鮮 唱和詩卷) 광서을사중장(光緒乙巳重裝)”이라 하여 1905년에 다시 장황했다고 적었다.

왕숙안은 청나라 낭중서사인(郎中書舍人)으로 직문연각(直文淵閣)을 지낸 문인이다. 면재(勉齋) 당한제는 가흥(嘉興) 신평진(新豐鎭) 출신으로 향리에 머물면서 학업과 시화를 닦았던 은사이다. 설당(雪堂) 나진옥은 강소성 회안(淮安) 출신으로 중국 근대 농학의 개척자요 고고학의 기반을 다진 학자로 금석학·돈황학·목록학·교감학·고문자학 등에도 두루 박통했던 인물이다.

본 《봉사조선창화시권》에 실린 시부는 1450년 당시 창화시부에서 선별하여 수록한 것이다. 예겸의 것이 17편, 신숙주와 정인지가 각 7편, 성삼문이 6편으로 도합 37편이다. 시권의 편차는 지은 순서대로 했는데, 다만 첫머리만은 뒤에 지은 「설제등루부 雪霽登樓賦」와 신숙주의 「화설재등루부 和雪霽登樓賦」를 실었다. 이 부는 예겸이 도성에 도착한 지 7일째 지은 것으로 봄눈이 잠깐 개여 태평관 북루에 올라 한양의 정경을 내려다보며 회포를 서술한 것이다.

예겸이 살았던 당시 명나라에서는 잃어버린 한족(漢族)의 정통성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 이에 당나라 태조 이세민(李世民)과 송나라 태조 조경(趙昀)의 서예를 비롯한 역대 명품을 구해 임모(臨摹)하게 하고 석판이나 목판에 세계 널리 보급했다. 하지만 명나라 초기에는 원대 이래로 조맹부(趙孟頫) 서풍이 여전히 성행했고, 이후 점차로 왕희지·구양순·회소 등의 글씨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다. 예겸은 기본적으로 조맹부 서풍을 배운 듯하다. 하지만 그의 글씨에서 약간의 왕희지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그러한 시대적인 조류 때문인 듯하다. 그림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 예겸은 다음의 일화에서 그의 서예에 대한 안목을 짐작할 수 있다.

신숙주가 예겸을 만났을 때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그 표지에 작은 해서 글씨로 범옹(泛翁: 신숙주 字)이란 두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것은 비해당(匪懈堂: 안평대군 당호)이 쓴 글씨였다. 예겸이 그것을 보고, “필법이 아주 신묘한데 누가 쓴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신숙주가 거짓으로 “나의 벗 강경우가 쓴 것이오.”라고 답했다. 예겸이 종이를 꺼내주며 그 사람의 글씨를 받아 줄 것을 청했다. 문충이 인재(仁齋) 강희안(姜希顔)의 글씨를 받아주었더니, 예겸이 말하길 “같은 사람의 글씨가 아닙니다.”라고 했다고 전한다.⁶⁾

6) 金安老, 『龍泉談寂記』, “倪謙之來. 申文忠公叔舟與之遊. 嘗手把一集. 衣面以小楷書泛翁文忠之字也二字.

3. 《봉사조선창화시권》의 바탕과 인장 및 글씨

본 시권에 실린 시부는 모두 동일한 종이바탕을 사용하였다. 예겸은 1450년 윤1월 초 도착하여 그달 19일 떠나기까지 여러 번 장소를 달리하며 창화했는데, 본 시권에는 예겸의 원운시(原韻詩)와 조선 문사들의 차운시(次韻詩)가 자르지 않은 같은 종이바탕에 쓰인 예도 적지 않다. 이것은 본 시권이 창화 당시의 원적(原蹟)을 그대로 축으로 꾸민 게 아니라 당시의 원적을 바탕으로 뒤에 편집하여 베껴낸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점은 본 시권에 찍힌 인영(印影)에도 나타난다. 본 시권에는 예겸과 조선 문사들의 창화시부를 비롯하여 제서와 발문에 작자(作者)/서자(書者)의 인장이 찍혀 있고 청말의 심정인(審定印)·감상인(鑑賞印)도 곳곳에 찍혀 있다. 그중 예겸의 시부에 가장 많아 모두 9종의 인장을 여러 번씩 찍었다. 예겸이 귀국 후 시권을 만들었으므로 본 시권이 당시의 원적이 되려면, 예겸과 조선 문사들이 창화할 때마다 인장을 찍은 것이 된다. 아니면 예겸이 귀국할 때에 신숙주·정인지·성삼문의 인장을 가지고 가서 시권을 만들 때 각각 날인한 것이 된다. 이런 가정은 그 어느 것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예겸과 조선 문사들의 창화시부에 찍힌 인영을 보면 새김이 비슷하고 인주의 색상까지도 같아서 창화 당시의 원적을 모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봉사조선창화시권》의 인영(印影)

明 倪謙 시부(詩賦)	清 王叔安 제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倪謙</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克讓父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靜存</p>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南昌</p> </div>

乃匪懈堂筆也。倪謙見之曰。筆法甚妙。此誰氏作。文忠詭言吾友姜景遇也。謙出紙求書。文忠贈以仁齋書。謙曰非一筆也。”

			
<p>詞載筆垣</p>	<p>希足者</p>	<p>東閣史官</p>	<p>王氏 叔安</p>
			
<p>漱六藝之芳潤</p>	<p>白玉堂中人</p>		
			
<p>翰林侍講私印</p>			
<p>清 唐翰題 발문 등 심정인(審定印)</p>	<p>陳驥德 심정인(審定印)</p>	<p>倪氏 소장인(所藏印)</p>	
			
<p>唐翰題</p>	<p>唐翰題 審定記</p>	<p>陳季子驥德 平鼓眞賞</p>	<p>倪氏子子孫孫其永保之</p>



鷓安



唐翰題審定



鷓安平生眞賞
質肅公孫翰題印
長壽



良齋審定
陳驥德所寶名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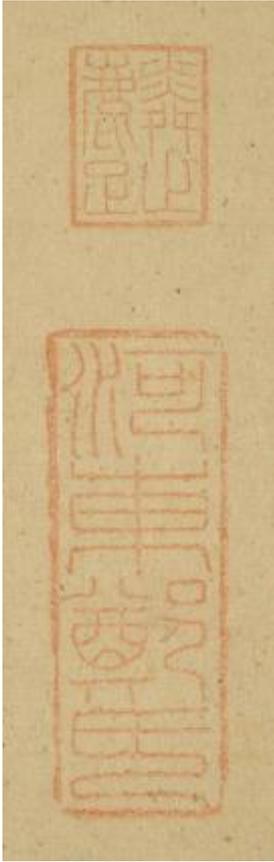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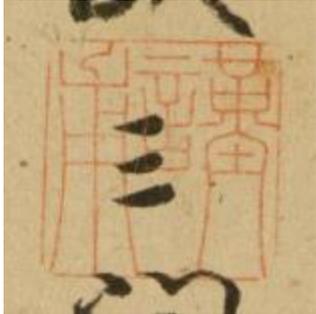
菊礪後人
陳驥德

羅振玉 跋



羅振玉印

* 조선 문자의 인영(印影)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p data-bbox="284 1339 501 1370">麟趾 / 河東鄭氏</p>	 <p data-bbox="687 1108 847 1140">叔舟 / 泛翁</p>	 <p data-bbox="1104 786 1166 817">謹甫</p>

이런 점에서 《봉사조선창화시권》은 창화 당시의 원적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뒤에 창화시부를 편집하여 베껴놓은 부분(副本)으로 여겨진다. 베낀 시기에 관해서는 언급하기 어려운데, 본 시권의 제첨(題簽)과 제서(題書)·발문(跋文)이 19세기 이전으로 올라가지 않아 1450년과는 사백년 이상의 긴 공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시권의 글씨를 살펴보면, 본 시권이 창화 당시의 원적이 아님을 더욱 알 수 있다. 즉 예점의 여러 행서는 비슷한 필치를 보이는 것에 비해 조선 문사들의 글씨는 서체가 여럿이고 서풍도 서로 다르며 특히 필력이 떨어진다. 여기서 본 시권의 신숙주·정인지·성삼문 글씨를 그들의 확실한 필적과 대조해보자. 1447년 4월 안평대군의 꿈을 계기로 만들어진 《몽유도원도권 夢遊桃源圖卷》에는 신숙주·정인지·성삼문의 필적이 모두 실려 있다.

먼저 신숙주의 행서 필적은 당시 유행하던 조맹부 서풍을 잘 보여주는데, 이에

비하여 본 시권의 신속주 글씨는 글자 형태는 어느 정도 따랐지만 필세에 있어서는 확실한 차이가 난다. 또 정인지와 성삼문의 필적은 서체가 같아 비교하기 좋다. 정인지의 행서 필적은 붓끝을 거뒀들이고 둥근 원필(圓筆)을 많이 사용한 것에 비하여 본 시권의 글씨는 직선적 경향이 많으며 점획이 무르다. 성삼문의 초서 필적은 조맹부 서풍을 바탕으로 차분한 필치를 보여주는 것에 비하여 본 시권의 글씨는 외형은 어느 정도 따랐지만 필획이 날카롭고 짜임에 허술한 곳이 많다.

* 신속주 · 정인지 · 성삼문의 글씨 비교

성명	봉사조선창화시권	몽유도원도권
신 속 주	<p> 遊刃操良刀詩成紫錦條清新 饒變態富艷足殘膏汲古看脩 便 領懷馮駭濤 高名傳海外仙籍記天曹 高陽後學申叔舟拜上 </p>	<p> 月殿徒勞誇誕妄業陰名乃歷窮然人 百唯有桃源夢便是道遙知外遊 高人雅尚厭純綺 至性清脩好滄幽 自多凡骨偏饒分 乃預神仙一夜遊 獲鬚蕭、案陌塵還冊無術兩毛新三 年一策將安用洞裏桃花笑斂人 高陽申叔舟 </p>
정 인 지		

雲歸日舒意自閑
流水碧山飛
酌來一、如掌指
風景盡入生綃
披看讀記神已適
宛然身在桃
何方可得脫樊籠
終悟杖屨遊

河東鄭

麟趾

清談上扶雲
澹分六入驪珠探

雲蹄汗血種

風翻鵬畜南
詎容生鄙吝

快哉披雲岫

交際淡若水
肯効多言甘世

致向之陪後者
為子未去以備
而玉是
可令人百勝乃
澁甘向五簷
葉又珠
於有桃源圖
令人能為
破教有桃源
記令人生
之氣集
物見圖
善讀記習
清風生
為翅青
冥轉肯
倘再遊
故鼎
攀飛亦可異

昌寧成

三問

白翰才華
天下
去文的
政值
歷奎

時三韓
遠松

且論詔
安日
身曠

非玉為使
良難留
其悵望
郵亭

相送
只甚詞
江東日
暎思
其於

巨耐
在風生
可離

昌寧成
三問拜

성
삼
문

4. 국가지정 승급에 대한 의견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보물 제1404호 《봉사조선창화시권》은 1450년 당시의 원적을 모은 게 아니라 그러한 원적을 바탕으로 하여 나중에 베낀 부분(副本)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시권의 내용은 2004년 보물로 지정할 때 공시되었듯이, 1450년 대명외교(對明外交)의 생생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 시권은 1450년의 원적을 바탕으로 베껴낸 것으로 여겨지며 그런 점에서 당시의 서풍을 어느 정도 전해주고 있어 필적이 드문 조선 초기 서예사 연구자료로서도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보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상에서 본 시권을 보물에서 국보로 승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02. 보물 제1405호 비해당소상팔경시첩(匪懈堂瀟湘八景詩帖)

가. 심의사항

‘보물 제1405호 비해당소상팔경시첩’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산문화재 국보 승격 소위원회에서 ‘보물 제1405호 비해당소상팔경시첩’에 대한 국보 승격 추천(‘17.3.14)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8.4.2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6차 회의(‘18.08.09)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8.8.23~‘18.9.24) 하고,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1405호(2004. 5. 7 지정)
- 명 칭 : 비해당소상팔경시첩(匪懈堂瀟湘八景詩帖)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 1첩
- 규 격 : 42.0×33.2cm
- 재 질 : 냉금전지(冷金箋紙)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첩장(帖裝)
- 조성연대 : 1442년(세종 24)

라. 조사자 검토 의견

(지정 가치 있음)

첫째, <비해당소상팔경시첩(匪懈堂瀟湘八景詩帖)>은 하나의 시첩에서 여러 서체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여기에 찍힌 전각의 인영들도 전각사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둘째, 이 시첩에 실린 19명의 집현전 학사들의 시문은 조선 전기 한시문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상을 살피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이 시첩은 <몽유도원도(夢遊桃園圖)>와 함께 당시 유명한 19명의 유묵(遺墨)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집현전이 혁파되어 그 곳에 소속된 학자들이 흩어지고 그들과 관계된 유물이 거의 전해지지 않는 실정에서 이 시첩에 남긴 19명의 글씨는 조선 전기 서예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상을 근거로 삼아 <비해당소상팔경시첩>은 전각사·문학사·서예사적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국보로 승격시켜 보존해야 할 문화재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비해당소상팔경시첩』은 문학과 예술의 절정기였던 세종시대인 1442년에 비해당 안평대군의 주도로 중국의 소상팔경을 소재로 삼아 당시 이름난 문인들에게 시를 짓게 한 것을 모아 엮은 서첩이다. 고려의 이인로와 진화의 시, 당시 대표적 인 문인이자 정치가 18명의 시 그리고 이영서의 서문으로 편성되어 있다. 각 시는 대개 작자의 친필이어서 이들의 유묵(遺墨)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의 문학수준까지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적, 문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더욱이 이 시첩이 완성된 이후 김종서 등이 피살되고, 사육신 등 많은 명사들이 희생됨으로써 당시 사람들이 남긴 진적(眞蹟)이 전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도 희귀성이 있는 자료가 된다. 또 중국문화를 수용하되 독자성을 갖춘 우리 문화로 창출하였다는 점과 왕실과 사대부 계층의 고급문화의 형성 등도 우리나라 문화사 연구에서도 주목을 받을 작품이다.

이렇게 이 시첩은 유일무이한 자료로서 다양한 측면의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국보로 지정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비해당소상팔경시첩(匪懈堂瀟湘八景詩帖)」은 1442년(세종 24)에 비해당(匪懈堂)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의 주도로 ‘소상팔경(瀟湘八景)’을 주제로 하여 고려 및 조선의 문인 21명의 시문과 서문을 모아놓은 시첩이다.

15세기조선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친필 시문이 담겨있는 유일한 유물이라는 점

에서 예술적, 문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하여 보존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보 류 : 향후 명확한 승격가치 검토를 위한 보완조사·연구 필요

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비해당소상팔경시첩(匪懈堂瀟湘八景詩帖)>은 세종 24년(1442) 이용(李瑢, 1418-1453,安平大君 匪懈堂)의 주선으로 송 영종(趙擴, 1168-1224, 재위 1194-1224)의 팔경시(八景詩)를 모탑(摹榻)하고 팔경도(八景圖)를 그려 판각한 뒤 고려의 이인로(李仁老, 1152-1220)·진화(陳灌, 약 1180-약 1220)의 팔경시를 이서(移書)하고 조선시대 19명의 시문을 받았으며, 이영서(李永瑞, ?-1450)에게 서문을 짓도록 하였다. 본디 두루마리로 꾸민 시권(詩卷)에서 팔경도와 송 영종의 팔경시가 일탈된 상태에서 45면(面)의 첩장(帖裝)으로 개장한 것이다.

<비해당소상팔경시첩> 첫머리에 옹정춘(翁正春, 1553-1626)이 냉금전지(冷金箋紙)에 ‘해우기관(海宇奇觀)’이란 4자를 큰 글씨의 예서로 제서(題書)하였다. 그는 『명사』에 의하면, 만력 20년(1592) 진사제일인(進士第一人)으로 합격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 세종 24년(1442)보다 150년 이후의 인물이니 후세의 소장가들이 개장할 때 첨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해당소상팔경시첩>의 제작과정은 시첩에 수록된 이영서의 서문과 신숙주의 『보한재집』을 통해 알 수 있다.

<비해당소상팔경시첩>의 내용은 현재의 시첩에 배열된 것으로 보면, 옹정춘(翁正春, 1553-1626)의 제서(題書), 이영서(李永瑞, ?-1450)의 서(序), 이인로(李仁老, 1152~1220)의 칠언절구 8수, 진화(陳灌, 생졸미상)의 칠언고시 8수, 하연(河演, 1376~1453)의 오칠언고시, 김종서(金宗瑞, 1390~1453)의 오언고시, 정인지(鄭麟趾, 1396~1478)의 칠언율시, 조서강(趙瑞康, ?~1444)의 오언배율, 강석덕(姜碩德, 1395~1459)의 칠언절구 10수, 안지(安止, 1367~1464)의 칠언율시, 안승선(安崇善, 1392~1452)의 칠언율시 1수와 칠언고시 1수, 이보흠(李甫欽, ?~1457)의 칠언율시 1수, 남수문(南秀文, 1408~1443)의 육언절구 4수, 신석조(辛碩祖, 1407~1459)의 장단구고시 1수, 유의손(柳義孫, 1398~1450)의 칠언고시 1수, 최항

(崔恒, 1409~1474)의 칠언율시 5수, 박팽년(朴彭年, 1417~1456)의 칠언절구 5수, 성삼문(成三問, 1418~1456)의 오언절구 8수,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오언고시, 윤계동(尹季童, ?~1453)의 칠언고시, 김맹(金孟, 1410~1483)의 칠언고시, 석 만우(釋卍雨, 1357~?)의 오언절구 10수의 순이다. 작자는 모두 21명(고려 2, 조선 19)인데, 조선시대 19명의 시문은 모두 자신이 직접 쓴 친필로 판단된다.

서예의 특징

현재의 <비해당소상팔경시첩>에 배열된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옹정춘의 제서 ‘해우기관(海宇奇觀)’은 비록 서체는 예서이나 아직 비학(碑學)이 발달하지 않았던 첩학기(帖學期)의 명나라 말기에 쓴 것이기 때문에 필법이 완전하지 않다. 특히 字·축자에서 갈고리의 적획(趯畫)은 예서의 필법과는 거리가 멀다. 이영서의 서문은 단정하고 수려한 조맹부의 송설체(松雪體)를 본받아 정성껏 서사하였으나 간혹 기울여 빠치는 약획(掠畫)이 너무 길거나 약한 흡이 보인다. 이인로·진화의 팔경시를 이서(移書)한 것은 해서에 가까운 송설체의 해행서(楷行書)로 서사하였는데, 이인로의 것은 자형이 대체로 고른 정방형이고 필획의 변화와 행기(行氣)가 없는 반면에 진화의 것은 자형이 세로로 긴 장방형이며 간혹 위아래를 글자를 연결하는 필세가 있어 행기를 나타내었다.

하연은 해행서로 먹색과 행기의 변화가 있고, 김종서는 해행서로 굳센 기상과 필획은 굵거나 가늘고 자형은 크거나 작으면서 거침없이 서사한 점이 돋보인다. 조서강은 단정하고 안온한 해서풍이며, 강석덕은 골력이 굳세고 날카로우나 안온함이 없으며, 안지는 너그러운 결구에 간혹 강한 필획을 더하여 단속함을 나타내었다. 안송선은 해서·행서·초서를 섞었으나 골력과 행기가 부족하고 흐르듯 유창한 흐름이 없으며, 이보흠은 해서로 자형은 단정하지만 골력이 부족하며, 이에 비해 남수문은 초서로 필획·자형·행기의 변화와 대비가 돋보인다. 신석조는 전형적인 송설체의 해서로 자형이 고르고 단정하며, 유의손도 전형적인 송설체의 행서로 단정하고 수려함을 나타내었다. 최항은 송설체이나 정확한 필법과 기필(起筆)·수필(收筆) 부분은 필획이 분명하여 단정하면서도 굳센 맛을 더하였고, 박팽년은 왕희지를 바탕으로 한 행서의 솜씨를 나타내었다. 성삼문은 부드러운면서도 결코 약하지 않고 단정함을 잃지 않는 행서이며, 신숙주는 당시 흔하지 않는 예서로 썼으나 자형은 세로로 긴 장방형이고 필획은 굵기가 일정하여 변화가 없으면서 과책도 분명하지 않아 정통적인 예서와는 거리가 있다. 윤계동은 동기창의 수려하고 유창함을 유감없이 나타내었으며, 김맹은 단정한 해서이다. 석 만우는 제첩(題簽)에 86세라 한 것처럼 연세가 든 만년의 인서구로(人書俱老)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노숙한 송설체의 해서를 썼는데, 비록 자형은 조금 납작한 편이지만 의

젓한 기품과 단정하고 굳센 성정이 돋보인다.



○ 내용 및 특징

【匪懈堂瀟湘八景詩帖】

筆寫本.

1帖 ; 42.0×33.2cm

包匣題: 匪懈堂瀟湘八景詩卷

題簽: 八景詩卷

印: 「李永瑞印」, 「錫類」, 「金坡雅詠」, 「河濱」, 「淵亮」, 「晉陽世家」, 「碩德」, 「姜氏子明」, 「崔恒」, 「貞父」, 「曠梁世家」, 「朴彭季印」, 「仁叟」, 「平陽世家」, 「成三問謹甫氏」, 「夏山樵夫」, 「泛翁」, 「與造化游」, 「千峯」, 「釋氏卍雨」, 「驪興人閔丙奭字景召號詩南」, 「翁正春印」, 「壬辰狀元」

『비해당소상팔경시첩(匪懈堂瀟湘八景詩帖)』은 세종 24년(1442)에 비해당(匪懈堂)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의 주도로 문인 21명의 시문과 서문을 모아놓은 시첩이다. 안평대군 이용(李瑢)은 세종의 셋째 아들로 자는 청지(淸之), 호는 비해당(匪懈堂), 매죽헌(梅竹軒), 낭간거사(琅玕居士) 등이다. 그는 문예방면에 뚜렷한 자취를 남겼으나 형인 수양대군과 세력다툼을 하다가 1453년 계유정난으로 유배되어 죽음을 당하였다.

남색 비단으로 된 포갑의 제명(題名)은 『비해당소상팔경시권(匪懈堂瀟湘八景詩卷)』이고, 제명아래에는 “성당제(惺堂題)”라고 쓰여 있다. 이 제명을 쓴 “성당”은 20세기 전후에 활동한 유명 서예가인 김돈희(金敦熙, 1871~1937)이다. 이 시첩의 제첨(題簽)은 『팔경시권(八景詩卷)』인데 누가 쓴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책을 펼치면 「해우기관(海宇奇觀)」이라는 대자의 전서(隸書)가 있고, 옹정춘(翁正春, 1553~1626)의 낙관과 주문방인(朱文方印)인 「翁正春印(옹정춘인)」, 백문방인(白文方印)인 「壬辰狀元(임진장원)」이 있다. 옹정춘은 명사(明史)에 그의 열전이 전하는데 만력 20년(1592)에 진사 제일인(第一人)으로 합격한 인물이다. 「해우기관」이라는 그의 글씨가 언제 어떤 이유로 이 시첩에 붙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찢겨나간 오른쪽 아래의 배접지에는 「驪興人閔丙奭字景召號詩南(여흥인민 병석자경소호시남)」이라는 주문방인(朱文方印)이 찍혀 있다. 이를 보아 조선 말기 정치가이자 서예가인 민병석(1858~1940)이 한때 이 시첩을 소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명중의 소상(瀟湘)은 소수(瀟水)가 상수(湘水)에 합류되어 동정호(洞庭湖)로 들어오는 곳의 물 이름이다. 동정호는 물론 그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은 일찍부터 시인 묵객과 화가의 소재로 이용되어 왔다. 이것을 여덟으로 나누어 팔경이란 명칭을 붙인 이 소상팔경은 북송 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명종이 문신들에게 소상팔경시를 짓게 하고, 이광필(李光弼)에게 이에 따라 팔경도를 그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시첩을 만들게 된 동기는 책머리에 있는 아래 이영서(李永瑞, ?~1450)의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비해당(안평대군)이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동서당고첩(東書堂古帖)』에서 송나라 영종(寧宗)의 「팔경시」를 보고 그 글씨를 보물처럼 여겼다. 그리고 그 경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침내 그 시를 베끼고, 그림을 그리게 하여 그 두루마리를 「팔경시」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려에서 시로 뛰어난 진(眞)과 이(인로)의 시를 붙였다. 또 당시 시로 뛰어난 사람들에게 오언·육언·칠언시를 지어 주기를 요청하였다. 승려인 우천봉(雨千峯) 또한 시를 지었는데 그는 시로써 불교계에 이름이 난 사람이다. (그리고 안평대군은) 그대(이영서)가 전말을 적어주기를 부탁한다.’고 하였다. 나는 문장이 보잘 것 없지만 오랫동안 인정을 받았고, 또한 부탁을 받았는지라 글을 못 짓는다고 사양할 수 없었다. … 다만 다행히 이 두루마리 끝에 내 이름을 붙여 놓으니 영원히 전해지기를 (바라며) 기쁘게 이 글을 쓴다. 임술년(1442) 가을에 선교랑 집현전부수찬 지제교 경연사경 노산 이영서 석류 삼가 쓰다.”⁷⁾

그러므로 이 시첩은 1442년에 안평대군이 『동서당고첩』에서 남송 영종(재위 1195~1224)의 「소상팔경시」를 얻은 것을 계기로 꾸미게 된 것이다. 『동서당고첩』은 명나라 태조의 손자인 주헌왕(周憲王) 주유돈(朱有燾)이 세자로 있을 때에 관각한 법첩이다. 먼저 영종의 「팔경시」를 베끼고 「팔경도」를 그린 다음 고려 시대 진화와 이인로의 시를 이어 붙인 뒤에 당시 시를 잘 짓는 사람들에게 오언·

7) 李永瑞 序文, “匪懈堂, 一日謂余曰, ‘我嘗於東書堂古帖, 得宋寧宗八景詩, 寶其宸翰, 而因想其景. 遂令撮其詩, 畫其圖, 以名其卷, 曰八景詩. 仍取麗代之能於詩者陳李二子之作, 系焉. 又於當世之善詩者, 請賦五六七言以譔之, 學佛人雨千峯, 亦詩之, 千峯盖亦以詩, 鳴於釋苑者也. 請子叙其顛末.’ 余以文句微識, 久蒙知待, 而又辱雅命, 敢以不文辭諸. … 但幸其掛名卷端, 而自托不朽, 樂爲之書. 壬戌仲秋, 宣教郎集賢殿副脩撰知製教經筵司經, 魯山李永瑞錫類謹叙.”

육언·칠언시를 짓게 하여 완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서문에 보이는 이 시첩의 제작 순서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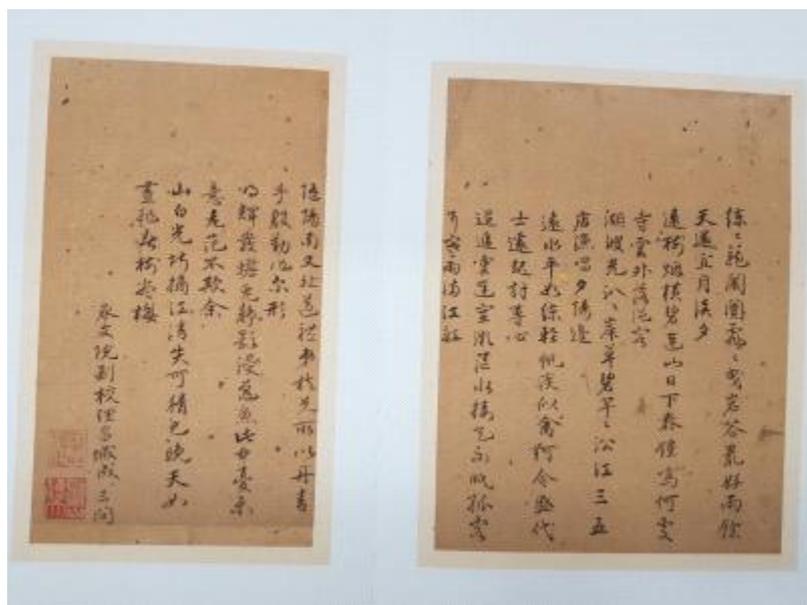
- ① 『동서당고첩』에 들어 있는 송나라 영종의 「팔경시」를 베끼
- ② 팔경도를 그림
- ③ 고려의 이인로와 진화의 시를 써넣음
- ④ 당시 시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시를 지을 것을 요청함
- ⑤ 이영서에게 서문을 짓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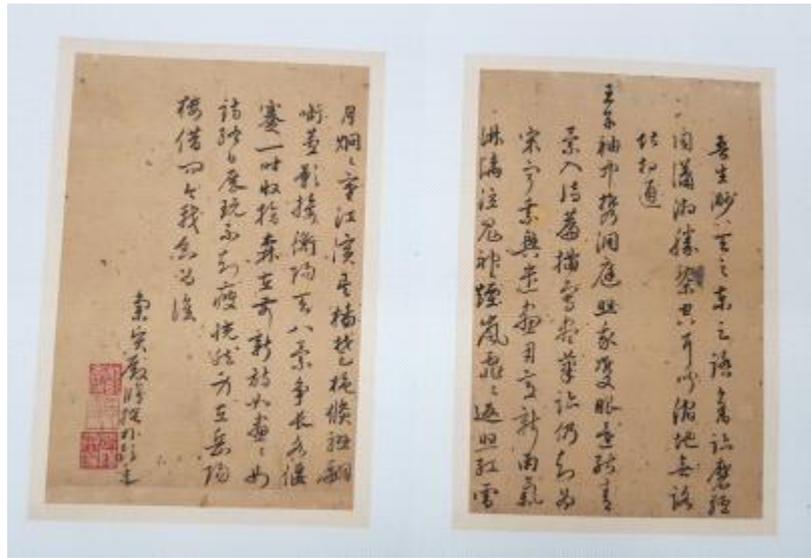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중에서 ①팔경시와 ②팔경도는 현재 전하지 않고, ③-⑤만 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장하면서 마지막에 위치해 있던 이영서의 서문을 시에 앞에 옮겨 장책해 놓은 점이다.



<사진1> 『비해당소상팔경시첩』

(상우: 포갑제, 상상: 표제, 중: 박팽년 시, 하: 성삼문 시)





작품이 수록된 시인을 시첩에 실린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의 이인로(1152~1220), 진화(陣灌) 그리고 당시 인물인 하연(河演, 1376~1453), 김종서(1390~1453), 정인지(1396~1478), 조서강(趙瑞康, ?~1444), 강석덕(姜碩德, 1395~1459), 안지(安止, 1367~1464), 안송선(安崇善, 1392~1452), 이보흠(李甫欽, ?~1457), 남수문(南秀文, 1408~1443), 신석조(辛碩祖, 1407~1459), 유의손(柳義孫, 1398~1450), 최항(1409~1474), 박팽년(1417~1456), 성삼문(1418~1456), 신숙주(1417~1475), 윤계동(尹季童, ?~1453), 김맹(金孟, 1410~1483), 천봉 만우(千峯 卍雨, 1357~1447?) 등 20명이다. 여기에 서문을 쓴 이영서까지 포함하면 모두 21명이다. 그런데 고려시대 시인 2명을 제외한다면 이 시첩에 수록된 당시 인물은 19명이 되는 셈이다.

시의 형식이나 표현 방식은 다양하다. 곧 이인로와 진화의 시는 팔경을 순서대로 나누어서 지었는데, 이인로의 시는 칠언절구이고, 진화의 시는 팔구체의 칠언고시이다. 이에 비해 당대의 시인인 하연은 오칠언고시, 김종서는 오언고시, 정인지는 칠언율시, 조서강은 오언배율, 강석덕은 칠언절구 10수(제1-2는 서시이고, 제3-10은 8경을 개별적으로 묘사함), 안지는 칠언율시, 안송선은 칠언율시 1수, 이보흠은 칠언고시 1수, 남수문은 육언절구 4수, 신석조는 장단구고시, 유의손은 칠언고시, 최항은 칠언율시 5수, 박팽년은 칠언절구 5수, 성삼문은 오언절구 8수(팔경을 개별적으로 묘사함), 신숙주는 오언고시, 윤계동은 칠언고시, 김맹은 칠언고시, 만우는 오언절구 10수(제 1수는 서시, 제2-9수는 팔경을 개별적으로 묘사함, 제10수는 종시(終詩)임) 등과 같다. 당시 작가들은 대부분이 팔경의 내용을 따로 나누지 않았으나 강석덕, 성삼문, 만우 등은 팔경을 나누어서 짓는 등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일정한 격식은 없는 것 같다.

고려시대 인물인 이인로와 진화의 글씨를 제외하더라도 이 시첩에 수록된 시들은 모두 작자의 친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것은 서문을 쓴 이영서와 최항의 글씨가 유사하다는 점 등에서 약간의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달리 부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시첩은 모두 45면으로, 시첩의 크기는 가로 42cm, 세로 33.2cm 정도이다. 각 개인의 작품 크기는 내용이 다르듯이 각각 다르다. 종이는 안평대군 측에서 준 것으로 추정되는 미립(微粒)의 금은점(金銀點)이 찍힌 유색(有色)의 중국산 금전지(金箋紙)의 일종이다. 다만 금박과 함께 은박을 뿌려서 만든 것이나 후대 은박은 검게 변색되어 버렸다. 다만 마지막에 수록된 만우(卍雨)의 시만은 담회색지(淡灰色紙)에 종횡으로 방격(方格)을 긋고 해서(楷書)로 단정하게 써 놓아 다른 종이와는 차이가 있다.

시첩의 완성에 참여한 인물들의 도장은 하연 3방(方), 강석덕 2방, 최항 3방, 박팽년 3방, 성삼문 2방, 신숙주 2방, 만우 2방, 이영서 5방 등 모두 8명이 22과(顆)를 사용하였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시첩을 매도한 임창순(1914~1999) 선생은 1988년경에 입수한 뒤에 이 시첩의 소장경위에 대해 기록해 놓았다. 그 기록에 따르면, 이 시첩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정치가이자 서예가인 민병석(1858~1940)이 이 시첩을 소장하였다가 이후 서화 중개인인 원충희, 김효식 등을 거쳐 1988년경에 자신이 입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후 청명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봉사조선창화시권』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 매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입수 당시의 장책 모습이 좋지 않아 개장하면서 맨 뒤에 있었던 이영서의 서문을 시문의 앞에 옮겼다고 하였다.

○ 참고문헌

임창순, “비해당 소장팔경 시첩 해설”, 『태동고전연구』 5,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989. 2.

『비해당소상팔경시첩』, 문화재청, 2008.

안휘준, “비해당 안평대군의 〈소상팔경도〉”(『비해당소상팔경시첩』, 2008).

이완우, “《비해당소상팔경시권》의 글씨”(『비해당소상팔경시첩』, 2008).



書誌事項

匪懈堂瀟湘八景詩帖

筆寫本. 1帖 ; 42.0×33.2cm

包匣題: 匪懈堂瀟湘八景詩卷

題簽: 八景詩卷

印: 「李永瑞印」, 「錫類」, 「金坡雅詠」, 「河濱」, 「淵亮」, 「晉陽世家」, 「碩德」, 「姜氏子明」, 「崔恒」, 「貞父」, 「嶗梁世家」, 「朴彭季印」, 「仁叟」, 「平陽世家」, 「成三問謹甫氏」, 「夏山樵夫」, 「泛翁」, 「與造化游」, 「千峯」, 「釋氏卍雨」, 「驪興人閔丙奭字景召號詩南」, 「翁正春印」, 「壬辰狀元」

○ 현 상

조사 대상 유물은 일제강점기 정치가이자 서예가인 민병석(1858~1940)이 소장하였다가 이후 서화 중개인인 원충희, 김효식 등을 거쳐 1988년경 임창순이 소장하였다고 전한다. 이후 「봉사조선창화시권」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 수장되었다. 현재 유물은 개장된 상태인데 이는 1988년 임창순이 입수 당시의 장책 모습이 좋지 않아 개장하였다. 서갑(書匣) 표제(表題)에 『비해당소상팔경시권(匪懈堂瀟湘八景詩卷)』이라 필서되어 있고, 본첩(本帖)의 표제(標題)에도 『팔경시권(八景詩卷)』이라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 권축(卷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보존상태는 매우 좋다.



○ 내용 및 특징

「비해당소상팔경시첩(匪懈堂瀟湘八景詩帖)」은 1442년(세종 24)에 비해당(匪懈堂)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의 주도로 문인 21명의 시문과 서문을 모아놓은 시

첩이다.

시첩은 남색 비단으로 포갑을 만들어 제명(題名)은 『비해당소상팔경시권(匪懈堂瀟湘八景詩卷)』이라 붙였고, 그 아래에는 “성당제(惺堂題)”라고 기록하였다. 제명을 쓴 ‘성당’은 서예가로 활동하였던 김돈희(金敦熙, 1871~1937)이다.

‘비해당(匪懈堂)’은 안평대군 이용(李瑢)의 호이다. 그는 세종의 셋째 아들로 자는 청지(淸之), 호는 비해당 외에도 매죽헌(梅竹軒), 낭간거사(琅玕居士) 등이 있다. 문예방면에 뚜렷한 자취를 남겼으나 1453년 계유정난으로 인하여 유배되어 죽음을 당하였다.

제명중의 ‘소상(瀟湘)’은 소수(瀟水)가 상수(湘水)에 합류되어 동정호(洞庭湖)로 들어오는 곳의 물 이름으로, 예전부터 동정호는 물론 그 주변의 경관이 아름다워 시인과 화가의 작품 소재로 많이 인용되었다. 북송 심괄(沈括)의 『몽계필담(夢溪筆談)』에 “탁지원외랑(度支員外郎) 송적(宋迪)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특히 평원산수(平遠山水)를 잘 그린다. 그 중에서도 득의작(得意作)은 평사낙안(平沙落雁)·원포귀범(遠浦歸帆)·산시청람(山市靑嵐)·강천모설(江天暮雪)·동정추월(洞庭秋月)·소상야우(瀟湘夜雨)·연사만종(煙寺晚鍾)·어촌낙조(漁村落照)인데, 이를 팔경(八景)이라 한다”라고 하여 ‘소상팔경(瀟湘八景)’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 시권을 만들게 된 동기는 책머리에 있는 이영서의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원문	역문
<p>匪懈堂 一日 謂余曰 我嘗於東書堂古帖 得宋寧宗八景詩寶其宸翰 而因想其景 遂令搨其詩 畫其圖 以名其卷 曰八景詩 仍取麗代之能於詩者陳李二子之作 系焉 又於當世之善詩者 請賦五六七言以調之 學佛人雨千峯 亦詩之 千峯蓋亦以詩鳴於釋苑者也 請子叙其顛末 余以文句微識 久蒙知待 而又辱雅命 敢以不文辭諸 余嘗觀自古貴介公子 能不爲紛華之所累者鮮矣 又能不爲荒宴之失所者寡矣 又能喜儒雅 好書史而超然有物外之想者 亦千百而無得焉 匪懈堂以英明之資 處富貴之地 乃能游意於文藝 而所以篤好之者 顧與韋布專一之士 較其分寸 其詩則得於唐律 其書則得於晉蹟 至於畫法 亦極其妙 雖</p>	<p>비해당 이용이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언젠가 『동서당고첩』에서 송나라 영종의 팔경시를 보고 그 글씨를 보물처럼 여겼다. 그리고 그 경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침내 그 시를 모사하라고 명을 내리고 그 경치를 그리게 하여 그 두루마리를 『팔경시』라 하였다. 그리고 고려에서 시로 뛰어난 진화·이인로의 시를 붙였다. 또 당시대에 시로 뛰어난 사람에게 오언·육언·칠언의 시를 지어주기를 요청하였다. 승려인 우천봉 또한 시를 지었는데 천봉은 대개 시로써 불교계에 이름이 난 사람이다. 그대에게 전말을 기록하기를 부탁한다.” 고 하였다. 나는 문장이 보잘것없지만 오랫동안 인정을 받았고 또한 부탁을 받았는지라 글을 못 짓는다고 하여 사양할 수 없었다. 내가 보건대 예부터 귀공자치고 화려한 모임에서 누를 끼치지 않는 자 드물었고 또 연회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자가 드물었다. 또 선비를 좋아하고 역사를 좋아하고 세상의 생각 밖에서 노는 이런 사람은 천년이라도 찾기가 어려웠다. 비해당 이용은 영명한 자질에 부귀하신 몸인데도 문예에서 놀며 돈독히 좋아하는 사람은 평범한 포의의 선비이다.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그의 시는 당시(唐詩)를 얻었고 그의 글은 진대(晉代)의 자취를 얻었고 그의 화법(畫法)은 또한 그 묘를 지극히 하여서 비록 삼절이라고 칭하던 자에게도 어찌 양보를 할 것인가? 또 생각을 불러일으키어 이 권(팔경시)을 만들어</p>

<p>古稱三絕者 豈肯多讓 又起遐 想 而作是卷 以爲把玩之資 余想夫燕閒之暇 圖以寄其興 詩以觀其志遠收湖海之景 寓 之於數幅之中 而樂之於方寸 之奧 此誠前代貴介之所未曾 其視爲紛華荒宴之所累所失者 不翅霄壤矣 雖然蕭灑出塵之 氣象 固不可以言語形容而至於 八景之佳致 則亦已盡於今 古人之作矣 余何復贅 但幸其 挂名卷端 而自托不朽 樂爲之 書</p> <p>壬戌仲秋 宣教郎 集賢殿副脩 撰 知製教 經筵司經 魯山 李 永瑞錫類謹叙</p>	<p>서 완상의 자료로 삼고자 한 것이다. 내가 생각건대 한가한 여가에 그림으로 흥취를 붙이고 시로써 그 뜻을 보며 아득히 호수와 바다의 경치를 거두어서 수폭의 비단 속에 갖다 두고서 마음의 조용함에서 즐긴다면 이것이 진실로 전대의 귀공자들도 누리지 못한 것이요 화려한 연회장에서 피해와 손실을 입히는 자들과 비교해보아도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의 속된 기운을 벗어난 깨끗한 기상은 진실로 언어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상팔경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서는 이미 옛사람 지금사람의 작품에서 극진히 표현하였다. 내가 다시 무어 쓸데없는 말을 하겠는가? 다만 소상팔경 시권의 끝에다 내 이름이나 걸어두고 영원히 전해진다면 다행이라 하겠으니 기쁘게 이 글을 쓴다.</p> <p>임술년 가을 선교랑 집현전부수찬 지제교 경연사경 노산 이영서 석류 삼가 씀.</p>
--	---

이 시권은 이영서의 서문을 통해 1442년에 안평대군이 『동서당고첩』에서 남송 영종(재위 1195~1224)의 「소상팔경시」를 얻은 것을 계기로 꾸미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동서당고첩』은 명나라 태조의 손자인 주헌왕(周憲王) 주유돈(朱有燾)이 세자로 있을 때에 관각한 법첩이다. 먼저 영종의 「팔경시」를 베끼고 「팔경도」를 그린 다음 고려시대 진화와 이인로의 시를 이어 붙인 뒤에 당시 시를 잘 짓는 사람들에게 오언·육언·칠언시를 짓게 하여 완성한 것이다.

「비해당소상팔경시첩(匪懈堂瀟湘八景詩帖)」은 모두 45면으로, 크기는 가로 42cm, 세로 33.2cm 정도이다. 각 개인의 작품 크기는 내용이 다르듯이 조금씩 다른데 이영서(李永瑞, ?~1450)의 서문은 가로 19.1cm, 세로 31.5cm, 승려인 만우[(卍)雨] 천봉(千峯)의 시는 가로 21.9cm, 세로 19.7cm 등 다양한 편이다. 종이는 미립(微粒)의 금은점(金銀點)이 찍힌 유색(有色)의 중국산 냉금전지(冷金箋紙)의 일종으로 금박과 함께 은박을 뿌려서 만든 것이나 후대 은박은 검게 변색되어 버렸다. 다만 마지막에 수록된 만우(卍雨)의 시를 적은 종이는 담회색지(淡灰色紙)에 중횡으로 방격(方格)을 긋고 해서(楷書)로 단정하게 써 놓아 다른 종이와는 차이가 있다.

내용은 첫머리에 옹정춘(翁正春)이 예서대자(隸書大字)로 쓴 ‘해우기관(海宇奇觀)’ 4자의 제서(題書)가 있으며, 이영서(李永瑞, ?~1450)의 서문 및 고려시대의 이인로(李仁老, 1152~1220), 진화(陣渾) 그리고 당시 인물인 하연(河演, 1376~1453), 김종서(金宗瑞, 1390~1453), 정인지(鄭麟趾, 1396~1478), 조서강(趙瑞康, ?~1444), 강석덕(姜碩德, 1395~1459), 안지(安止, 1367~1464), 안승선(安崇善, 1392~1452), 이보흠(李甫欽, ?~1457), 남수문(南秀文, 1408~1443), 신석조(辛碩祖, 1407~1459), 유의손(柳義孫, 1398~1450), 최항(崔恒, 1409~1474), 박팽년(朴彭年, 1417~1456),

성삼문(成三問, 1418~1456), 신숙주(申叔舟, 1417~1475), 윤계동(尹季童, ?~1453), 김맹(金孟, 1410~1483), 천봉 만우(千峯 卍雨, 1357~1447?) 등 모두 21명의 글이 수록되었다.



李仁老



陳灌



朴彭年



成三問

시첩에 수록된 시의 형식은 다양하다. 이인로의 시는 칠언절구이고, 진화의 시는 팔구체의 칠언고시이다. 이에 비해 당대의 시인인 하연은 오칠언고시, 김종서는 오언고시, 정인지는 칠언율시, 조서강은 오언배율, 강석덕은 칠언절구 10수, 안지는 칠언율시, 안승선은 칠언율시 1수, 이보흠은 칠언고시 1수, 남수문은 육언절구 4수, 신석조는 장단구고시, 유의손은 칠언고시, 최항은 칠언율시 5수, 박팽년은 칠언절구 5수, 성삼문은 오언절구 8수, 신숙주는 오언고시, 윤계동은 칠언고시, 김맹은 칠언고시, 만우는 오언절구 10수 등과 같다. 당시 작가들은 대부분이 팔경의 내용을 따로 나누지 않았으나 강석덕, 성삼문, 만우 등은 팔경을 나누어서 짓는 등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일정한 격식은 보이지 않는다.

○ 참고문헌

임창순, 「비해당 소장팔경 시첩 해설」, 『태동고전연구』 5,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989. 2.
『비해당소장팔경시첩』, 문화재청, 2008.

안휘준, 「비해당 안평대군의 <소상팔경도>」(『비해당소상팔경시첩』, 2008).
이완우, 「‘비해당소상팔경시권’의글씨」(『비해당소상팔경시첩』, 2008).

비교조사보고서

□

문화재청에서 2018년 8월 21일 게시한 ‘국보 지정예고’에서 보물 제1405호 <비해당 소상팔경시첩(匪懈堂 瀟湘八景詩帖)>(이하 국박본)에 수록된 이보흙의 작품과 같은 내용과 서체를 닮은 것이 영주 소수박물관(이하 소수본)에서 발견되어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올린다.

자세한 현지 조사에 의하면, 작품의 내용·체재·서체·자형·필의가 너무나 유사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모두 진본(眞本)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옛날 중요한 문건은 부분(副本)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작품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소수본은 배접을 하여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중요한 사람이 쓰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글씨가 아니면 어렵게 배접하여 보존하지 않고 새 종이에 다시 서사하는 관례를 보면, 소수본은 중요한 필적으로 인식한 진본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모두 모본(摹本)일 가능성이 있다.

초고로 보기에 두 작품 모두 정제되어 있어 원본을 보고 모본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두 작품의 내용·체재·서체·필의가 너무나 유사하여 원본을 보고 모본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박본은 소수본의 모본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소수본이 진본이라면 <비해당 소상팔경시첩>에 이보흙의 작품이 빠져 있어 소수본을 보고 모본으로 만들어 보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로 입증할 수 있다. 먼저 전체적 필세를 보면, 소수본은 자연스러운 반면에 국박본은 너무 정제되어 조금 경직된 필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먹색 또한 국박본은 진하고 소수본은 짙거나 열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든다. 마지막으로 주요 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미세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보면, 가로획 기필부분에서 소수본은 굵세고 끝은 반면에 국박본은 조금 길며, 가운데 부분은 채워지지 않아 약간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늘어진 느낌이 들

며, 수필부분에서 소수본은 자연스럽게 회봉(回鋒)을 한 반면에 국박본은 다시 한번 힘을 더해 잠두(蠶頭)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세로획에서 소수본은 곧은 듯하면서도 탄력성이 있어 부드러우나 국박본은 지나치게 곧아 정취가 서로 다르다.

필획	소수본			국박본		
가로획						
세로획						
전절 (ㄷ)						
삼수변 (ㄷ)						
초두변 (ㄷ) 과법(戈法)						
옥자 (玉字)						

가로획에서 세로획으로 전환하는 전절(轉折)을 보면, 필획의 굵기나 각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삼수변(ㄷ)을 보면, 소수본은 가는 실을 띤 견사(牽絲)가 보이는 반면에 국박본은 견사가 분명하지 않다. 초두변(ㄷ)에서도 소수본은 연결의 형태가 확실하지만 국박본은 그렇지 않다.

과법(戈法)을 보면, 소수본은 필력이 끝까지 이른 뒤 갈고리를 하였으나 국박본은 필력이 아직 끝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갈고리를 한 흔적이 보인다. 또한 옥(玉)자를 소수본은 오(五)자처럼 한 반면에 국박본은 분명한 옥(玉)자로 서사하였다. 이밖에도 비록 분명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아 서로 비교할 수 없지만 감각

적으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글자들이 보인다. 예를 들면, 가로획·세로획 처리로 말미암아 길이에서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 등이다. 두 작품은 한 사람의 필적이라도 이렇게 유사하게 쓰기 어렵고, 또한 모두 작은 글씨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상과 같이 미세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 세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또한 국보 지정예고에 대한 이완우씨 의견서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정부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한 것 같다. 따라서 현재 보물로 지정된 것 그대로 두고 앞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자료가 나와서 국보로 지정하여도 누구나 인정하고 손색이 없을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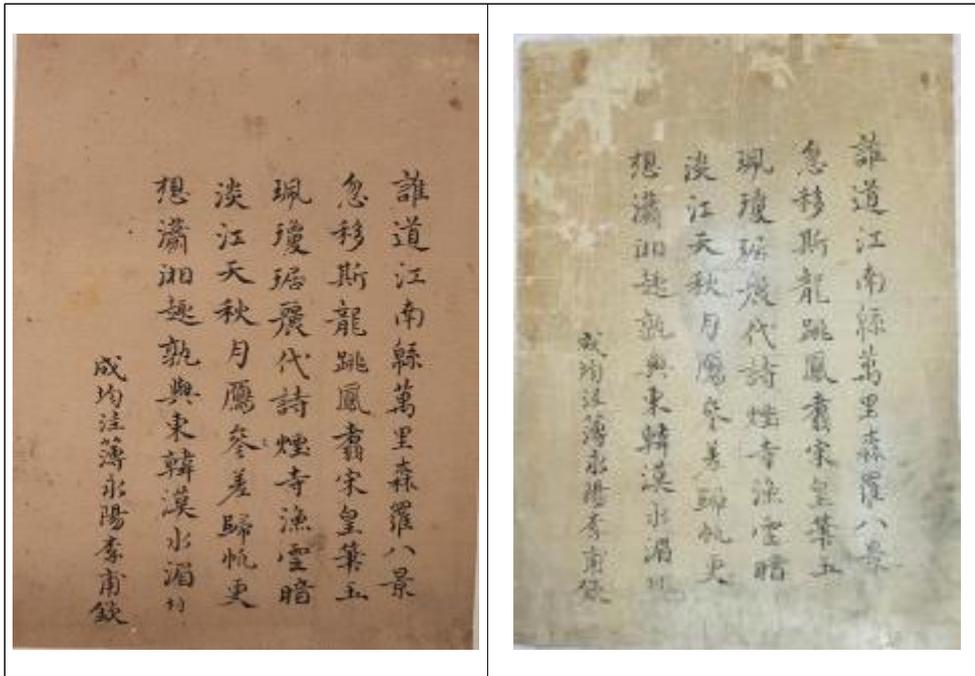
『비해당소상팔경시첩』은 문학과 예술의 절정기였던 세종시대인 1442년에 비해당 안평대군의 주도로 중국의 소상팔경을 소재로 삼아 당시 이름난 문인들에게 시를 짓게 한 것을 모아 엮은 서첩이다. 고려시대의 이인로, 진화 그리고 당시 인물인 하연, 김종서, 정인지, 조서강, 강석덕, 안지, 안승선, 이보흠, 남수문, 신석조, 유의손, 최항,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윤계동, 김맹, 천봉 만우 등 20명의 시와 이영서의 서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하연, 강석덕, 최항,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만우, 이영서 등 8명의 유묵에는 도장이 찍혀있다. 그러나 고려시대 인물로 친필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이인로, 진화 등 두 사람과 이보흠을 비롯한 당시 인물 10명의 유묵에는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 이러한 특징이 각 작품의 친필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는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함께 장책된 유묵 중에서 도장의 유무는 눈여겨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한편 이미 이 시첩에 장책된 시들 모두를 친필로 보기는 어렵다는 추정이 있었다. 그것은 고려시대 인물인 이인로와 진화의 글씨는 시대가 앞서기 때문이었고, 서문을 쓴 이영서와 최항의 글씨가 유사하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개개의 작품마다 친필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마침 『비해당소상팔경시첩』에 장책된 이보흠의 유묵과 흡사한 유물이 소수서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다.(<사진1>) 소수서원 박물관에 소장된 유묵은 한 장의 단품으로 전하는데, 이미 살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비해당소상팔경시첩』의 유묵과 대비하니 다음과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이보흠 유묵(좌: 『비해당소상팔경시첩』, 우:소수서원 박물관 소장)



○ 필적

두 유묵은 크기(소수박물관 소장유묵은 29.7×21.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묵은 29.7×21.8cm), 서체의 유사성, 행자수, 글자의 배치 등을 볼 때 어느 한 작품을 모

사한 작품으로 보인다. 그런데 『비해당소상팔경시첩』의 유묵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수서원 박물관 소장의 유묵에 비해 서체에 힘이 없고, 흥내를 낸 기교가 보인다. 그런 점에서 『비해당소상팔경시첩』의 유묵이 단품으로 전하는 소수서원 박물관 소장의 유묵을 모사한 작품으로 판단된다. 다만 모사가 당대의 부분(副本) 성격이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시첩의 완성을 위해 모사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표 참조)

○ 종이

소수서원 박물관 소장의 유묵은 한지에 쓴 작품으로 약간의 손상이 있으며, 현재 배접이 되어 있다. 중국산 금전지(金箋紙)에 쓴 『비해당소상팔경시첩』의 유묵보다 오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 도장

두 작품 모두 이보흠과 관련된 도장은 찍혀 있지 않다.



표. 동일자 대비(좌: 『비해당소상팔경시첩』, 우:소수서원 박물관 소장)

○ 기타

소수서원 박물관 소장의 유묵은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마지막으로 배접되었다. 소장이나 입수경위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임** 선생이 사망(1999)한 이후에 입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결과, 『비해당소상팔경시첩』에 장책되어 있는 이보흠 유묵은 소수박물관 소장의 단품 이보흠 유묵을 모사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그것이 당대에 부분으로 모사된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모사된 것인지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해당소상팔경시첩』의 여러 유묵 중에는 친필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유묵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인지되고 있었다. 향후 다른 인물들의 친필 유묵이 더 발견된다면 비해당소상팔경시첩』의 완성과 관련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1. 소수박물관 소장본 이보흠 시고의(30cm X 21.3cm) 필적은 사진으로 본 국립 박물관 소장본 비해당소상팔경시첩에 수록된 이보흠의 시고와 일견, 동일인이 쓴 것으로 보일 만큼 유사한 서예적 특성(자형, 필세, 필의 등)을 지니고 있다.

2. 소수박물관 소장본 이보흠 시고는 전폭이 배접되었고, 우측 하단부와 중앙부 등은 습윤으로 인하여 섬유질이 삭아 푸석푸석한 상태이며, 상단 일부는 박피되었고, 전반적으로 지면에 갈라짐 현상이 있다. 소수박물관 소장본 시고의 배접지 속에 “二十二” 라는 목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배접 당시 간찰지 여백부분을 배접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고 뒷면 상하단에는 첩에서 떼어낸 듯한 흔적이 있다.
3. 이상, 서예적 특성과 보존 상태로 보아, 소수박물관 소장본이 근래에 조성된 위작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예적 측면에서 볼 때, 국립박물관본과 소수박물관본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소수박물관 소장본 시고의 글씨가 보다 자연스럽고, 세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필사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글씨가 아니면 낡은 책을 어렵게 배접하여 보전하지 않고, 새 종이에 다시 쓴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수박물관 소장본은 첩장 당사자가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한 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본 위원은 십여년전 대구시 봉산동 소재 고서방에서 성희안을 위시한 15세기 후반에 활동한 저명인사 10여명의 시고를 수록한 시첩을 보았는데, 수록 시고와 체제가 흡사한 시첩이 영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대구 고서방 소재 시첩은 300여년전 원본 소장가문에서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사해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국립박물관 소장본 <비해당 소상팔경시첩> 은 복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외에도 국립박물관 소장본과 소수박물관 소장본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애초에 작가들이 각기 복본의 시고를 작성하여 별건의 시첩을 만들었을 수 있으며,(이 경우 시고 지질이 동일할 가능성이 다분함) 두 본 모두 후대에 모사한 것일 수도 있다.
5. 본 위원은 국립박물관 소장 ‘비해당 소상팔경시첩’과 소수박물관 소장 이보흠 시고는 모두 일정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소수박물관 소장 이보흠 시고의 존재가 확인됨으로써 국립박물관 소장 ‘비해당 소상팔경시첩’의 가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위원은 ‘비해당 소상팔경시첩’을 국보로 승격시키는 문제에 대한 결정은 보류함이 온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조선 전기의 문인 이보흠의 소상팔경시(사진 1)는 A, B, C부분의 손실이 육안으로 관찰되며, 배접되어 있다.

A 부분(사진 2)은 종이가 빛에 의해 열화되는 현상에 의해 손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B 부분(사진 1)은 습기에 의한 얼룩으로 종이와 먹이 손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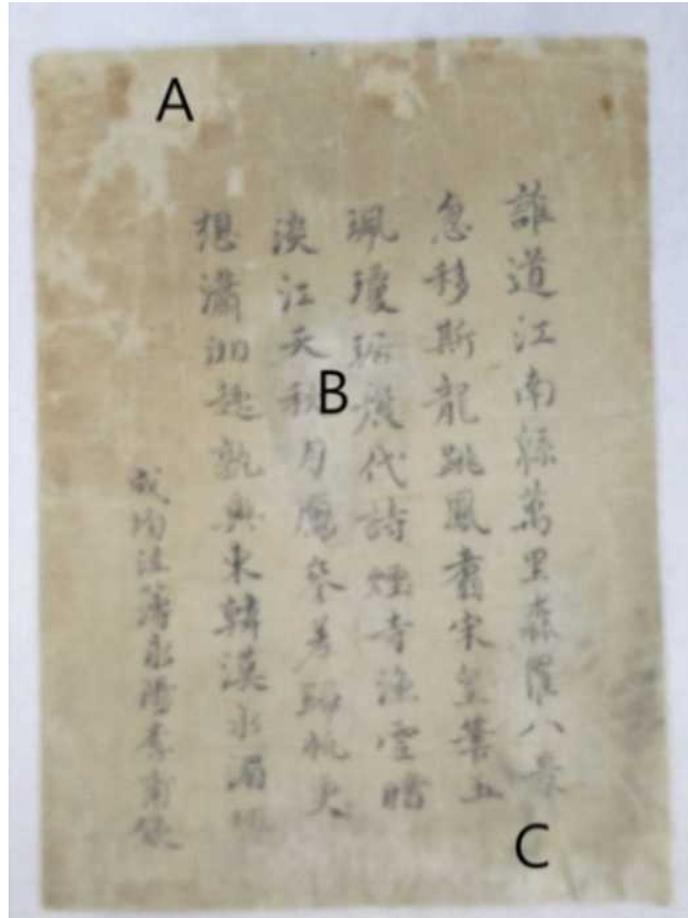


사진 1. 이보흠의 소상팔경시

C 부분은 습기에 의한 섬유 결합의 붕괴로 섬유 개개가 관찰되어 A 부분의 열화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부분에서 얇은 두 겹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우리 전통 한지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배접지는 사용된 종이의 한 부분에 글씨 모양(사진 4)의 것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소상팔경시를 보수하기 위해 사용된 종이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이보흠의 소상팔경시는 우리의 전통 한지로 되어 있고, 손상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상태에서 발생하는 종이의 열화작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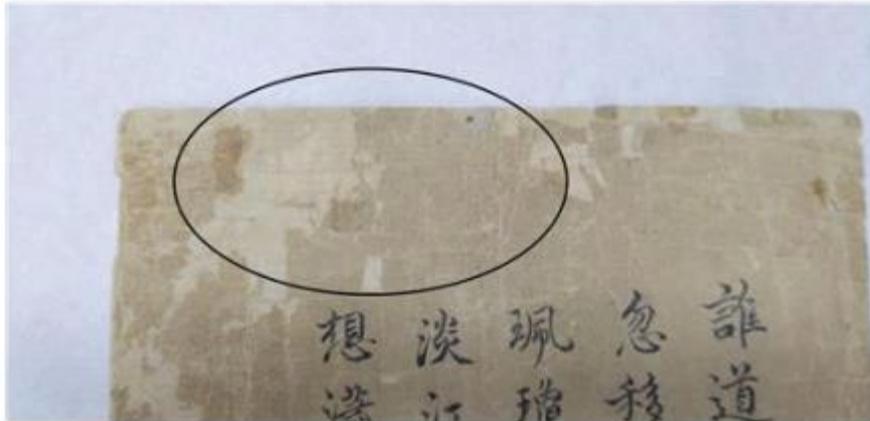


사진 2. 이보흠의 소상팔경시의 A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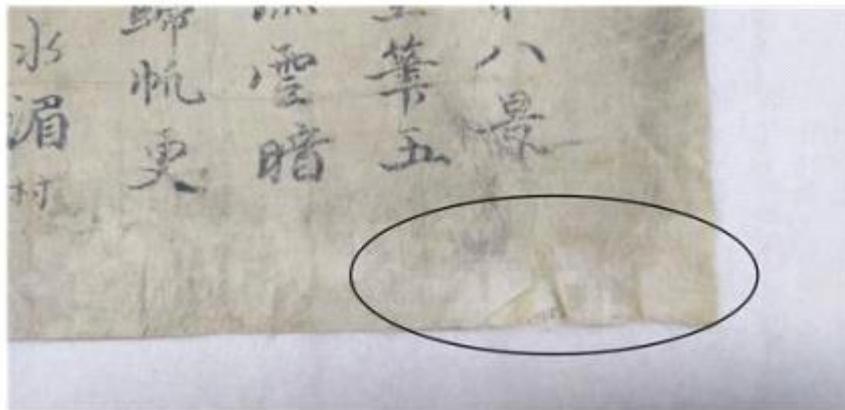


사진 3. 이보흠의 소상팔경시의 C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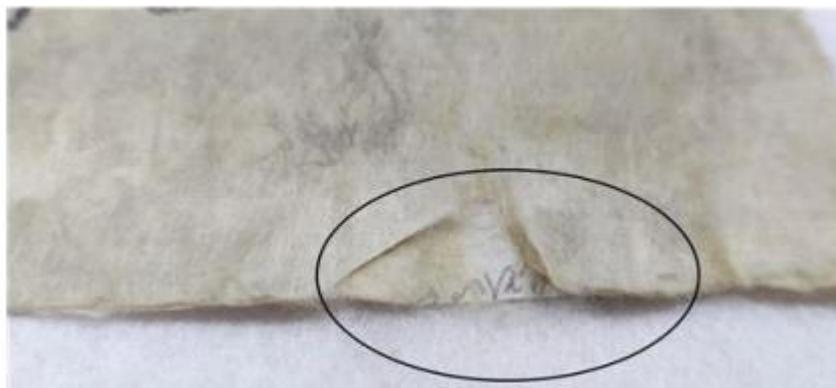


사진 4. 이보흠의 소상팔경시의 C 부분의 배접지

【의견 접수】

- 접수 일 : 2018. 12. 10.
- 신청자 : ***
- 의견요지 : 보물로서 유지가 타당함

보물 제1405호 《비해당 소상팔경시첩》

국보(國寶) 지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문화재청에서 2018년 8월 21일 게시한 ‘국보 지정예고’ 2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당시 공시했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에 수정할 사항이 있어 붉은 글자로 표시합니다.

□ 비해당 소상팔경시첩(匪懈堂瀟湘八景詩帖)

- 현 지정번호 : 보물 제1405호(2004. 5. 7 지정)
- 지정명칭 : 비해당 소상팔경시첩(匪懈堂瀟湘八景詩帖)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량 : 1첩
- 규격 : 42.0×33.2cm
- 재질 : 냉금전지(冷金箋紙)
- 판종 : 필사본
- 형식 : 절첩장 → **첩장(帖裝)**
- 조성연대 : 1442년(세종 24)
- 사유

‘비해당 소상팔경시첩’은 1442년(세종 24)에 비해당(匪懈堂) 안평대군 이용(安平大君 李瑢, 1418~1453)이 주도하여 ‘소상팔경(瀟湘八景)’을 주제로 당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문인 21명의 글(→ **시문**)을 모아놓은 시첩이다. 첩의 앞부분에 수록된 이영서(李永瑞, ?~1450)의 서문에 의하면, 이 시첩은 1442년에 안평대군이 남송 대 영종(寧宗, 재위 1195~1224)의 「소상팔경시(瀟湘八景詩)」를 얻은 것을 계기로, 영종의 시를 옮겨 적고 화공으로 하여금 「팔경도(八景圖)」를 그리게 한 다음 고려시대 진화(陳渾)와 이인로(李仁老)의 시를 붙인 뒤에 당시 시를 잘 짓는 문인들에게 오언·육언·칠언시를 짓게 하여 완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팔경시’와 ‘팔경도’는 전하지 않고 있다. (하략)

1. 《비해당소상팔경시첩》의 문제

《비해당소상팔경시첩》(이하 《팔경시첩》으로 약칭)의 제작과정에 관해서는 시첩 앞쪽의 이영서(李永瑞)의 서문에 밝혀져 있다. 1442년 8월 안평대군 이용이 《동서당집고첩 東書堂集古帖》(1416년 明 왕자 朱有燾 편)에서 남송 영종(寧宗)의 팔경시를 얻어 그 신한(宸翰 : 어제어필)을 보배로 여겨 그 경치를 상상하다가 마침내 영종의 시를 베끼게 하고 팔경을 그리게 하여 ‘팔경시권(八景詩卷)’이라 이름 하였고, 이에 고려의 진화(陳湑)와 이인로(李仁老)의 시를 뒤에 잇고, 한참 있다가 당세에 시를 잘 짓는 사람들(18명)에게 오육칠언으로 지을 것을 청했다는 내용이다.

《팔경시첩》에는 모두 22명의 시문 필적이 수록되어 있다. 그중에서 명나라 옹정춘(翁正春)의 ‘해우기관(海宇奇觀)’이란 예서(隸書) 제서(題書)와 고려시대 이인로와 진화의 팔경시를 베낀 필적을 제외한 조선 문사 19명의 필적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447년에 안평대군에 의해 제작된 《몽유도원도권 夢遊桃源圖卷》에 실린 문사들의 시문 필적과 대조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몽유도원도권》에는 안평대군 시문을 제외한 모두 21명의 시문이 실려 있는데, 그중에서 《팔경시첩》과 중복되는 사람은 모두 9명이다. 이들의 필적을 서로 비교해본 결과를 요약한다면 아래와 같다.

- ① 하 연: 비슷함.
- ② 김종서: 같음.
- ③ 정인지: 다름. 《몽유도원도권》의 것은 圓筆이 많고 붓끝을 숨김.
- ④ 강석덕: 비슷함. 《팔경시첩》의 것이 필세가 약함.
- ⑤ 최 향: 전혀 다름. 《팔경시첩》 이영서 서문, 이인로 팔경시와 같은 필치.
- ⑥ 박팽년: 행서와 해서로 서체가 달라 비교에 부적합.
- ⑦ 성삼문: 다름. 《팔경시첩》의 것이 날카로움.
- ⑧ 신숙주: 행서와 예서로 서체가 달라 비교에 부적합.
- ⑨ 만 우: 같음.

* 《팔경시첩》의 시작(詩作)과 《몽유도원도권》의 同一人 필적

작자	생졸	팔경시첩 서체 印數	몽유도원도권 서체 印數
翁正春	1553~1626	‘海宇奇觀’ 題書 隸 印3	·
李永瑞	? ~1450	서문 楷 印3	·
李仁老	1152~1220	팔경시 칠언절구 8수 楷行 印1	·
陳 漣	1200 文科	팔경시 칠언고시 8수 行草 印2	·
河 演	1376~1453	오칠고시 1수 楷行 印3	칠언잡시 1수 行 印3
金宗瑞	1390~1453	오언고시 1수 行草	오언율시 1수 楷行
鄭麟趾	1396~1478	칠언율시 1수 楷行	칠언장시 1수 行
趙瑞康	? ~1444	오언고시 1수 楷行	·
姜碩德	1395~1459	팔경시 칠언절구 10수(제1, 2수 序詩) 楷行 印2	칠언율시 1수 楷
安 止	1377~1464	칠언율시 1수 行草	·
安崇善	1392~1452	칠언율시 1수, 칠언고시 1수 行草	·
李甫欽	? ~1457	칠언율시 1수 楷行	·
南秀文	1408~1443	육언절구 4수 草	·
辛碩祖	1407~1459	長短句古詩 1수 楷	·
柳義孫	1398?~1450 ?	칠언고시 1수 行	·
崔 恒	1409~1474	칠언율시 5수 (원래 팔경시, 3수 결락된 듯) 行 印3	칠언장시 1수 楷行
朴彭年	1417~1456	칠언절구 5수 草 印3	夢桃源序 1편 楷
成三問	1418~1456	팔경시 오언절구 8수 行 印2	長短古詩 1수 行草
申叔舟	1417~1475	오언고시 1수 隸 印2	칠언절구 20수 行
尹季童	? ~1453	칠언고시 1수 草	·
金 孟	1410~1483	칠언고시 1수 楷	·
卍 雨	1357~1447 ?	팔경시 오언절구 10수 楷 印2	칠언율시 1수 楷
計	明人 1인 高麗 2인 朝鮮 19인	印 : 조선 문사 19명 중 8명 (이인로 · 진화 시에도 찍힘)	印 : 22명 중 3명 (안평대군 · 안견 · 하연)

* 《팔경시첩》과 《몽유도원도권》의 同一人 글씨 비교

성명	팔경시첩	몽유도원도권
河演	<p>匪懈雅亮縣銀河 山智此性情靜對 逸蔚藍天黼黻潤</p>	<p>半輪明月掛孤桐 瀛趣依舊詞宗 匪懈翁</p>
金宗瑞	<p>二樂吾以尚夙昔 中為圭組系後 誰作八景圖令我</p>	<p>高軒瓊琚映詞 披圖且讀記樂以 金石百歲如電在</p>

雲歸日舒意自閑
明來一、如掌指風
披看讀記神已通

玉軸生綃景新
神珠璣奎壁堪為
真俯仰情懷迥造

鄭麟趾

桃源之詩見遺編
之圖今試展髣髴
虛無間落花流水

清蘊極浦迥連天
日落風輕蘋滿水
孤舟千里思悠、掩

姜碩德

桃源縹渺隔東峰

梅竹何從驀地看
忘我天

高依香、耽奇勝
逸思飄、

兩餘山態轉淨
縹細
淡籠苑肆
幽還明林
去向此間
棲大隱自
點、峯
出霄數稜
暝

崔恒

作夢遊桃源記
其川原窈窕之
詩文無異而僅

蹇一時收拾
森在奇
詩終日展
玩不知疲
樓借問
今我念為
誰

朴彭年

相見桃源圖著讀
古有桃源神仙之說
源不神仙古自豈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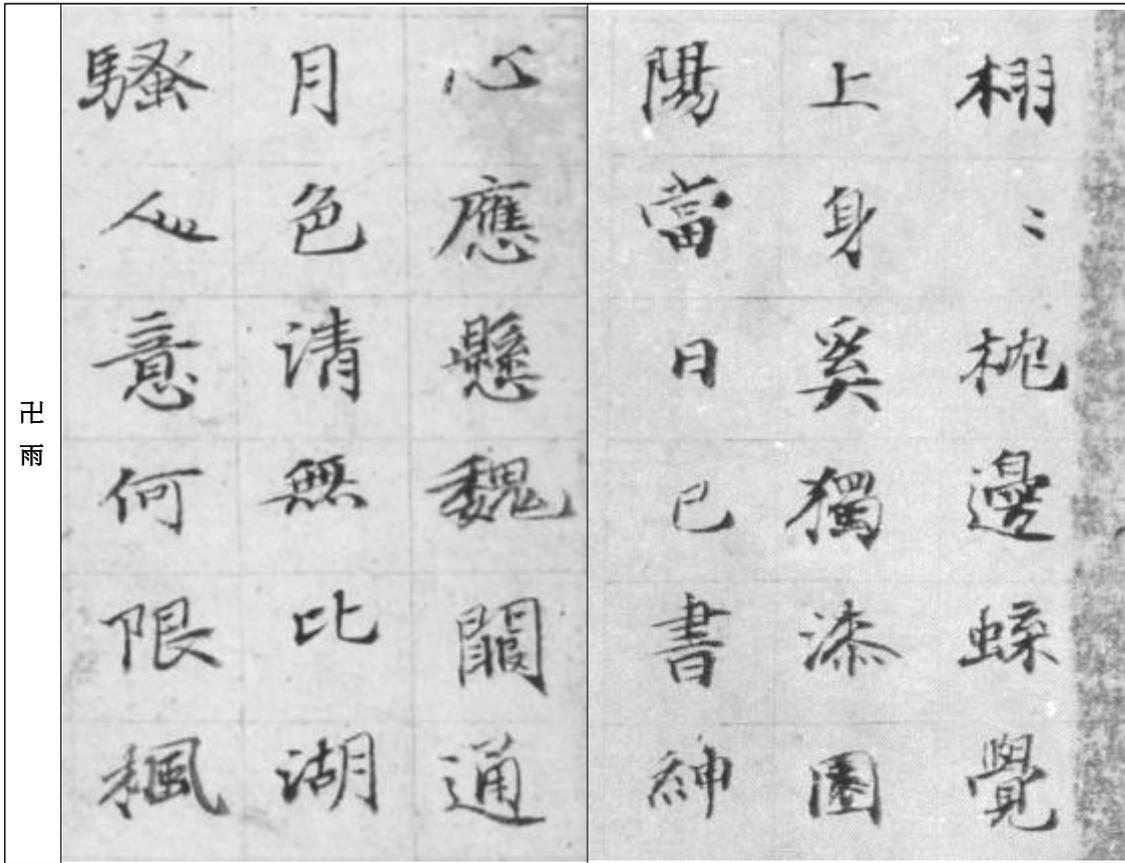
練以乾闥闔飛曳
天還宜月淡夕
遠柯烟橫碧連山日

成三問

消息盈虛一理
育不必論因想
萬事擾神常役

詩炎有聲畫画
誣畫狀物窮妍
句研其辭始覺

申叔舟



2. 《팔경시첩》의 글씨 문제

《팔경시첩》에 실린 조선 문사 21명의 필적 가운데 아래 비교표에 보이듯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글씨가 12명이나 된다. 이 점은 《팔경시첩》의 서예사적 가치와 진적 여부를 논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사안이다. 또 시작자(詩作者)의 글씨로 여겨지는 예도 몇몇 있고, 시작자의 글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예도 있다. 이 가운데 같거나 비슷한 경우를 정리하면 아래 네 무리가 된다.

- ① 이영서 서문, 이인로 팔경시, 최항 시
- ② 진화 팔경시(앞쪽 행서), 정인지·조서강·강석덕·안송선·유의손 시
진화 팔경시(뒤쪽 초서), 박팽년 시
- ③ 안지 시, 남수문 시
- ④ 신석조 시, 김맹의 시 (이인로·진화의 팔경시를 제외한 전체 12명)

* 《팔경시첩》에서 같거나 비슷한 글씨들의 비교

<p>匪懈堂一日謂余曰此 宋寧宗八景詩實其 榻其詩畫其圖以名</p>	<p>千回石徑白雲封巖 蓮坊藏翠鏡好風吹 草屋半依垂柳岸板</p>	<p>兩餘山態轉淨縹細 淡籠苑肆幽還明林 向此間棲大隱自</p>
<p>① 李永瑞 序</p>	<p>① 李仁老 詩</p>	<p>① 崔恒 詩</p>
<p>青山宛轉如佳人雲 更教橫嵐學眉黛春 朝隨日脚卷還空</p>	<p>玉軸生綃八景新可 神珠珠奎壁堪為玩 真俯仰情懷迨造物</p>	<p>數幅生綃上森羅八景 鍾聲煙外落帆影浦頭 夕照明漁店輕嵐帶</p>
<p>② 陳湑 詩 앞쪽</p>	<p>② 鄭麟趾 詩</p>	<p>② 趙瑞康 詩</p>

玉翰照曜丹青間，景
鋒斫取震州地墨池寫
遊河必疊壯觀萬里須

② 柳義孫 詩

命工豪氣貫虹霓，八
鐘度洞庭秋月靜雨
孤帆遠帶斜陽過落雁

② 安崇善 詩

茂陵宸翰照蒼旻，
却憶當時共割晚玉虹
解衣盤礴問何人意

② 姜碩德 詩

小袖中携洞庭照家
系入詩篇描寫盡
宋字系無半畫用之

② 朴彭年 詩

多頃湖波秋更闊
滑江上高樓迫入雲
如濃像少聲櫓鳧

② 陳澹 詩 斗琴

<p>石書忘朝夕仁樂山智以 樂難與說嗚呼此中之 欲訝詩愧蕪拙</p>	<p>光焰至今遙相傳陳李亦 揮毫朗詠留短篇我今地 悠然興逸羲皇前 詩</p>	
<p>③ 申碩祖 詩</p>	<p>③ 金孟 詩</p>	
<p>慶州異景未曾知一幅 惚移皓月初升鐘更響 五兩遙奇日斜浦帆</p>	<p>涵素彩蓮自如流 心方隨管絃 照少紅漁店暮雲洒白江</p>	
<p>④ 安止 詩</p>	<p>④ 南秀文 詩</p>	

(1) 필치가 같거나 비슷한 글씨들

① 《팔경시첩》에서 필치가 같은 예로 이영서 서문, 이인로 팔경시, 최항의 시를 들 수 있다. 서문 글씨는 해서를 바탕으로 간간이 흘렸고 이인로·최항의 시는 행서를 바탕으로 간간이 초서를 섞었으나 누가 봐도 한 사람의 필적처럼 짜임과 운필이 같다. 안평대군이 시권(試卷)을 만들 때 이인로와 진화의 팔경시를 베끼게 했는데, 만약 서문이 이영서 본인 필적이라면 이영서가 이인로의 팔경시를 베껴 쓰고 최항이 시를 대필한 것이 된다. 아니면 최항이 이영서의 서문을 대필하고 이인로의 팔경시를 베낀 것이 되는데, 《몽유도원도권》에 실린 최항의 필적을 보면 이와는 전혀 다른 필치이므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

② 여러 필적이 서로 비슷한 예로 정인지·조서강·강석덕·안승선·유의손의 시를 들 수 있다. 그중 정인지 경우, 《몽유도원도권》의 필적은 붓끝을 거둬 둥근 원필을 사용했지만 《팔경시첩》의 필적에는 그런 필치가 전혀 없다. 이에 비해 유의손의 경우, 그의 시문집 『회현일고 檜軒逸稿』 부록에 그의 팔경시 필적이 모각되었는데 《팔경시첩》의 그것과 흡사하다. 또 강석덕의 필적도 《몽유도원도권》의 그것과 흡사하다. 그렇다면 유의손이나 강석덕이 나머지 사람들의 글씨를 썼을까? 확증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들 5명의 필적은 진화 팔경시의 앞쪽 행서와 비슷하고, 또 진화 팔경시의 뒤쪽의 초서는 박팽년(朴彭年)의 초서 필적과 비슷하다. 박팽년의 초서는 《몽유도원도권》의 필적이 해서라서 비교하기에 부적절하다. 다른 필적으로 《해동명적 海東名迹》에 실린 〈왕안석시〉와 비교해보면, 일단 외형은 비슷하여 그의 서풍 범위에 들어간다. 그런데 진화의 팔경시는 앞쪽에서 해행으로 쓰다가 점점 행초로 변해가고 뒤쪽에서는 초서로 마무리했는데, 그중 뒤쪽의 초서가 박팽년의 초서와 흡사하다. 그렇다면 박팽년이 진화의 시를 베낀 것일까? 고故 임창선 선생은 이 박팽년 필적에 대해 “여기에 실린 초서는 이조시대 어느 서가도 능가하기가 어려운 명적이다”라고 평했지만, 일반의 눈으로 보아도 그런 필력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진화의 시나 박팽년의 시 모두 영성한 짜임에 머뭇거린 운필이 곳곳에 나타난다. 이상에서 진화의 팔경시와 정인지·조서강·강석덕·안승선·유의손·박팽년의 필적은 유사한 글씨 무리가 된다.

③ 신석조와 김맹의 해서는 위 ②의 필적들과 유사한 경향이면서 짜임이 좀 더 평정한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 ④ 안지의 초서와 남수문의 행초도 좀 기울여 쓰는 운필법과 굵은 획을 간간이 구사한 점에서 매우 흡사하다.

(2) 시작자(詩作者)의 글씨로 여겨지는 예들

위에서 말한 12명 이외에 《몽유도원도권》에 실린 해당 필적과 비교했을 때

서풍이 서로 근접하는 경우는 하연·김종서·성삼문·만우 4명 정도이다.

하연(河演)의 필적은 《몽유도원도권》의 것과 필사법이 비슷하나 자세히 보면, 필력이 좀 떨어지고 짜임이 미숙하며 머뭇거린 운필이 적지 않다. 특히 낙관 글씨가 그렇다. 또 《팔경시첩》의 다른 글씨에 비해 먹색이 흐려 더욱 기세가 없다. 김종서(金宗瑞)의 필적도 《몽유도원도권》의 것과 서풍 상으로 같으며 운필도 자연스럽고 글자도 커서 필세가 잘 나타나 있다.

성삼문(成三問)의 필적은 《몽유도원도권》의 것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어 그의 필적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말한 ② 무리의 글씨와 유사한 점도 보이므로 그의 필적이란 확신이 들지 않는다. 만우(卍雨)의 필적은 《몽유도원도권》의 시와 동일한 필치이고 《팔경시첩》의 다른 글씨에 비해서도 개성이 뚜렷한 점에서 진적(眞蹟)으로 여겨진다.

(3) 시작자(詩作者) 글씨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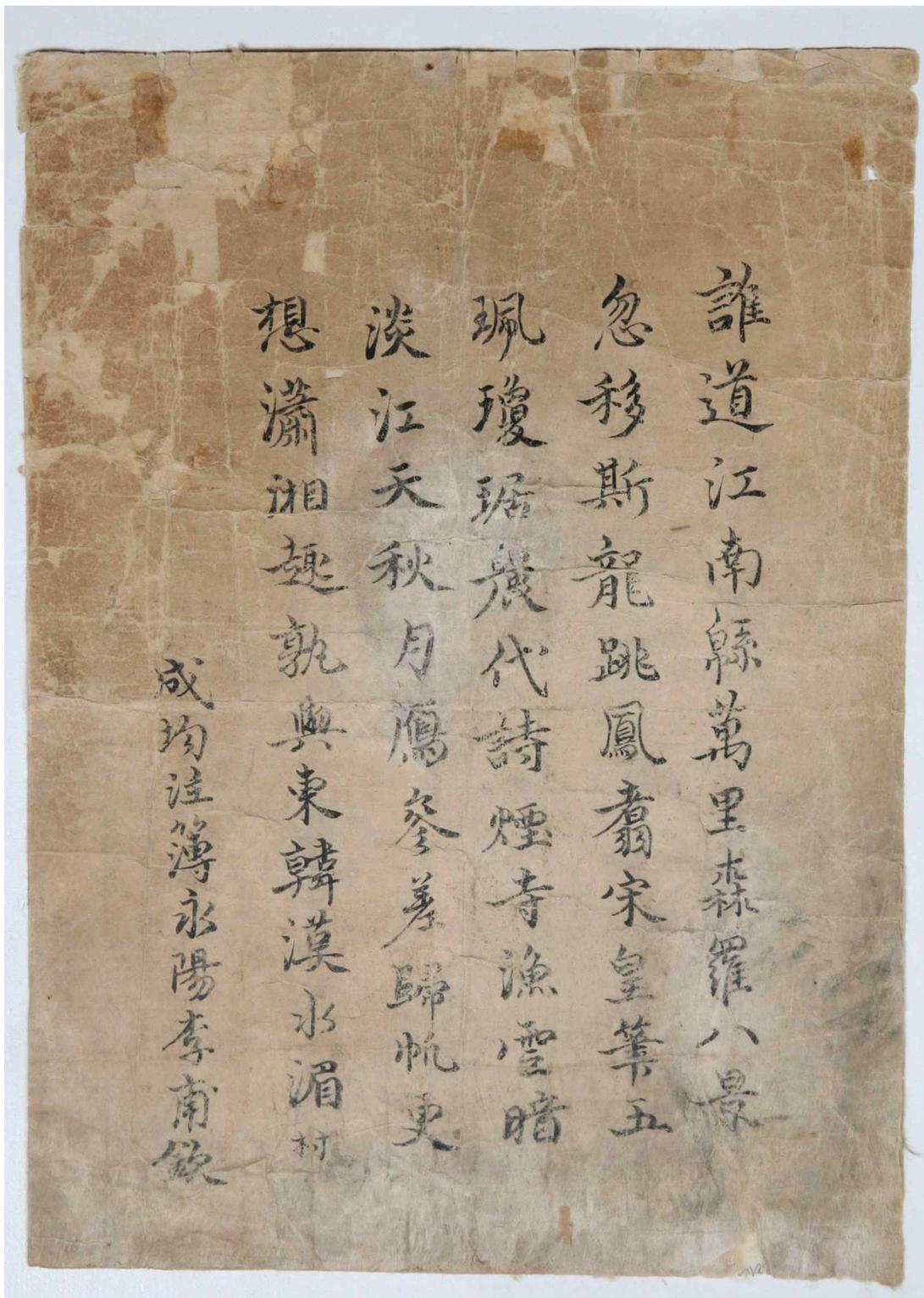
앞서 언급된 16명을 뺀 나머지 3명은 이보흠·신숙주·윤계동이다. 이들 글씨는 신빙성 있는 비교대상이 없어 그들의 필적인지 여부를 논하기 어렵거나 필적이 있어도 서체가 너무 달라 비교하기 부적절한 경우이다.

이보흠(李甫欽)의 필적은 그동안 찾지 못했는데, 최근에 한 연구자로부터 이보흠 필적의 사진을 제공받았다. 바로 《팔경시첩》에 실린 이보흠의 시와 같은 시인데⁸⁾ 크기도 《팔경시첩》의 그것과 거의 같다. 이 필적은 경북 영주의 소수박물관(紹修博物館)에서 수년전 매입한 것으로서 종이 바탕의 낱장 필적인데 겉면이 군데군데 떨어졌다. 아래 비교표에 나타나듯이 두 필적은 형태상으로 거의 같은데, 다만 먹이 진한 《팔경시첩》의 것에 비해 소수박물관의 것이 먹색이 옅어서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8) 誰道江南縣萬里 森羅八景忽移斯 龍跳鳳翥宋皇筆 玉珮瓊裾麗代詩

煙寺漁村雲暗淡 江天秋月鴈參差 歸帆更想瀟湘趣 孰與東韓漢水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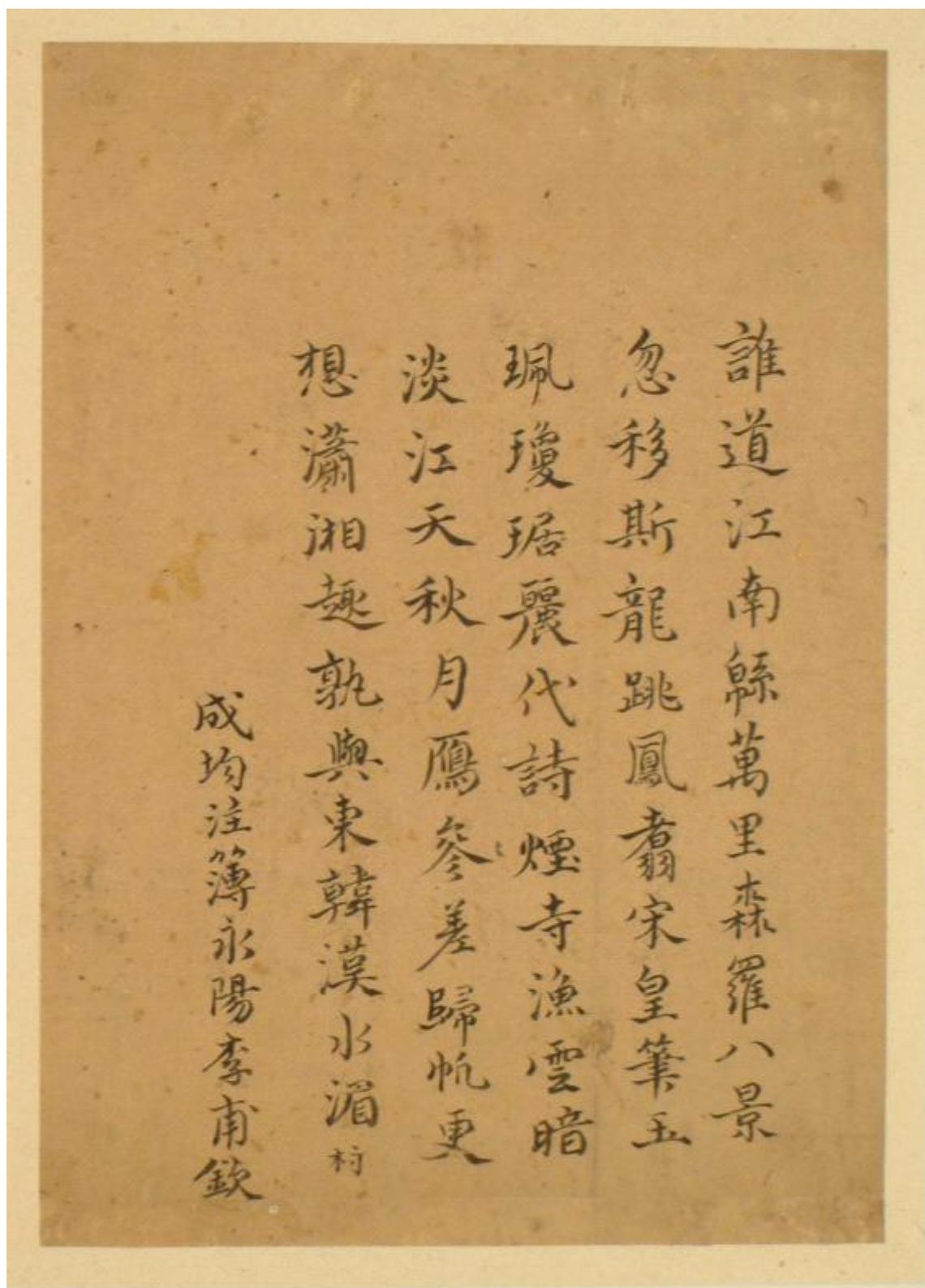
詩作 끝에 작게 쓴 ‘村’ 자는 제5구 4번째 글자 ‘雲’을 ‘村’ 자로 고치라는 뜻이다.



誰道江南縣萬里森羅八景
 忽移斯龍跳鳳翥宋皇筆五
 珮瓊瑤幾代詩煙寺漁雲暗
 淡江天秋月鴈參差歸帆更
 想瀟湘趣孰與東韓漢水湄村

成均注簿永陽李南欽

이보흠, 〈소상팔경시〉, 紙本 29.7×21.2cm 未장황, 영주 소수박물관.



이보흠, 〈소상팔경시〉, 紙本 29.7×21.8cm 《瀟湘八景詩帖》, 국립중앙박물관.

* 《팔경시첩》과 소수박물관 소장 이보흠의 필적 비교

팔경시첩	소수박물관	팔경시첩	소수박물관	팔경시첩	소수박물관



《팔경시첩》의 이보흠 필적과 소수박물관 소장 필적에 대해서는 차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팔경시첩》의 이보흠 필적과 흡사한 예가 공존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앞서 《팔경시첩》의 필적 가운데 서로 같거나 비슷한 예가 상당수이고 몇몇은 시작자(詩作者)의 필적으로 여겨지는 예도 있듯이, 현재 《팔경시첩》에서 시작자의 필적이 아닌 것들은 어떤 원적을 보고 모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형이 똑같고 필치가 흡사하면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즉 하나는 친필이고 다른 하나는 임모서(臨摹書)인 경우와 둘 다 임모서인 경우이다. 이보흠의 두 필적은 점획의 형태와 운필하는 버릇까지 매우 흡사한 점에서 모두 친필일 가능성은 적다. 이들 가운데 어느 것이 친필에 가까우냐가 관건인데, 《팔경시첩》의 것보다는 소수박물관의 것이 운필과 먹색에 있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음, 시작자의 필적인지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서예사적으로 가치 있는 예로 신

숙주의 예서와 윤계동의 초서를 들 수 있다. 먼저 신숙주(申叔舟)의 예서는 조선 초기로는 매우 드문 예이다. 15세기 예서 필적으로 비문에 새겨진 것이 몇몇 있으나 이처럼 작은 글자로 쓴 것은 1445년 안평대군이 《비해당집고첩 匪懈堂集古帖》의 왕희지 필적 말미에 새긴 제기(題記) 외에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이들 글씨는 자형과 획법에서 예서의 전형인 한예(漢隸)에서 상당히 떨어져 별자(別字)·이자(異字)가 곳곳에 보이고 정방형 틀에 마치 해서를 쓴 듯하다. 이런 현상은 이황(李滉 1501~70)의 1554년작 〈성리군서발 性理群書跋〉에도 여전히 나타난다는 점에서 조선 전기 예서 자료로서 소중하다.

다음 윤계동(尹季童)의 초서는 《팔경시첩》의 필적 가운데 행간이 너르고 필력도 상당한 점에서 주목된다. 중봉세의 획을 구사한 원필은 당나라 회소(懷素)의 초서에 기반한 듯하고, 짜임을 홀쭉하게 하여 편측(偏側)을 가미한 점은 원대(元代) 개성풍으로 유명한 강리노노(康里巎巎 1295~1345)나 이를 따른 명나라 초의 초서풍에 가깝다. 강리노노는 왕희지의 고법을 추구한 조맹부(趙孟頫) 등과 달리 회소 초서를 바탕으로 독특한 서풍을 구사했다. 윤계동의 글씨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아 그의 서풍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논할 수는 없지만, 조맹부 등의 북고주의 서풍이 주류를 이루었던 조선 초기 서예사에 있어 이례적인 예로 주목된다. 이 계열의 초서로 여말선초에 활동한 최흥효(崔興孝)의 필적과 중종연간의 문신이던 이태(李迨 1483~1536)의 필적을 들 수 있다.

3. 《소상팔경시첩》의 인장(印章)

《팔경시첩》의 22점 필적 중 11점에 인장이 찍혀 있다. 그중 명나라 옹정춘의 제서(題書)에 찍은 인장과 그 아래쪽에 찍은 민병석(閔丙奭 1858~1940)의 수장인(收藏印) 및 이인로와 진화의 팔경시에 찍은 인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조선 문사의 필적 8점에 인장이 찍혀 있다.

먼저 이인로·진화의 팔경시에 각각 [비해당인 匪懈堂印]으로 판독되는 인영(印影)이 흐릿하게 남아 있다. 이인로·진화의 팔경시는 비해당이 사람을 시켜 베끼도록 했지만 여기에 그의 인장이 찍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날인한 위치도 이인로의 팔경시 제2면 말미와 진화의 팔경시 제2·4면 말미인데, 그곳은 날인 위치도 아니고 특히 진화 팔경시의 제2면은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인장의 새김도 안평대군의 인장이나 당시의 것들과 전혀 다르다. 이런 점에서 [비해당인]은 시첩으로 장황된 뒤 찍은 위관(僞款)으로 여겨진다.

다음 《팔경시첩》에 실린 조선인 19명의 필적 가운데 8명의 필적에 인장을 찍은 것은 전체의 4할을 넘는 수치인데 당시로는 매우 드문 예이다. 왜냐하면 이 시

첩보다 5년 뒤 제작된 1447년의 《몽유도원도권》의 경우 비해당의 〈몽유도원기 夢遊桃源記〉에 찍힌 두 인장 [낭간 琅玕] [청월이장 淸越以長]과 안건(安堅)의 〈몽유도원도 夢遊桃源圖〉에 찍힌 [가도 可度]라는 자인(字印)을 제외하면, 21명의 시문 중 오직 하연(河演)의 제시에 [진양세가 晉陽世家] [하연 河演] [연량 淵亮]이란 인장 3과(顆)만 찍혀 있기 때문이다. 즉 두루마리의 중심인 〈몽유도원기〉와 〈몽유도원도〉 외에는 인장을 거의 찍지 않은 경우이다.

여하튼 《팔경시첩》에 찍은 인장은 성명·자·아호·본관이나 명구(名句)를 새긴 것들이다. 그중 명구인으로 이영서 필적의 [옥온산휘 玉蘊山輝]와 신숙주 필적의 [여조물유 與造物游]이 있다. 그중에서 하연·박팽년·성삼문의 인영을 살펴보자. 먼저 하연의 3인장 [河演] [淵亮] [晉陽世家]는 《몽유도원도권》에 찍힌 것과 찍힌 위치와 순서가 다를 뿐 크기와 새김이 비슷하다. 다음 박팽년의 3인장 [朴彭年印] [仁叟] [平陽世家]은 오세창(吳世昌)이 편집한 『근역인수 楨域印藪』에 실린 것과 음양만 다를 뿐 크기도 비슷하고 글자체도 비슷한데, 그중 [박팽년인]은 간송미술관 소장 〈무본제시권서 務本齋試卷序〉에 찍힌 인장과도 크기와 새김이 비슷하다. 그 다음 성삼문의 2인장 [成三問謹甫氏] [夏山樵夫]는 『근역인수』에 실린 것과 크거나 글자체가 비슷한데 다만 [하산초부]의 음양이 다를 뿐이다.

*** 《팔경시첩》에 찍힌 인장(印章)**

No	성명	印文	크기cm	비고
1	翁正春	[○○署] [翁正春印] [壬辰壯元]	4.0×2.0 2.75×2.75 4.1×4.0	? 姓名印 1592년 進士試 장원
		[驪興閔丙奭字景召號詩南]	3.3×3.3	閔丙奭(1858~1940)의 收藏印
2	李永瑞	[玉蘊山輝]	3.4×1.0	名句印
		[李永瑞印]	1.9×1.9	姓名印
		[錫類]	1.9×1.9	字印
		[平昌世家] [金坡雅詠]	2.0×2.0 2.15×2.15	本貫印 雅號印
3	李仁老	[匪懈堂印] 필적 제2면	2.0×2.0	(僞款)
4	陳 濬	[匪懈堂印] 필적 제2, 4면		
5	河 演	[河演]	1.85×1.85	성명인
		[淵亮]	2.0×2.0	자인
		[晉陽世家]	2.2×2.2	본관인

6	姜碩德	[碩德] [姜氏子明]	1.9×1.9 1.8×1.8	名印 姓字印
7	崔 恒	[崔恒] [貞父] [嶂梁世家]	1.5×1.5 1.85×1.75 2.1×2.1	성명인 자인 본관인
8	朴彭年	[朴彭年印] [仁叟] [平陽世家]	2.0×2.0 2.1×2.1 2.3×2.3	성명인 자인 본관인
9	成三問	[成三問謹甫氏] [夏山樵夫]	2.2×2.2 2.4×2.4	姓名字印 別號印
10	申叔舟	[泛翁] [與造物游]	1.7×1.7 2.15×2.15	字印 名句印
11	卍 雨	[千峯] [釋氏卍雨]	1.6×1.5 2.2×2.15	雅號印 法名印

이들 3명의 인장은 세간에 알려진 것과 크거나 인문이 비슷하고 새김과 글자체도 비슷하다. 이를 좀 더 세밀히 보면, 인장의 가장자리나 각선(刻線)에 닳거나 떨어진 마손(磨損)이 거의 없으며 인주(印朱)의 색상도 너무 선명하여 오백여년 전의 것으로 보기에 주저된다. 게다가 이영서·강석덕·최항·박팽년·신숙주 필적에서 인장을 글씨에 바짝 붙여 찍은 점도 어색하다. 이러한 점에서 《팔경시첩》의 인영(印影)은 좀 더 확증할 만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신빙성이 유보될 수밖에 없다.

4. 문헌 검토

《팔경시첩》의 시작(詩作)들은 당시 시회(詩會)에 참여했던 유의손(柳義孫)의 시문집 『회헌일고』에 이인로와 진화의 팔경시를 제외한 참여자 18명의 시가 모두 실려 있다. 「화비해당안평대군소상팔경시 和匪懈堂安平大君瀟湘八景詩」란 제목으로 유의손의 시를 싣고, 이어 「부첩중제시 附帖中題詩」란 제목으로 나머지 17명의 직함과 성명을 달고 시를 수록했다.⁹⁾ 유의손의 시문집은 간행연대를 알

9) 柳義孫, 『檜軒逸稿』(奎1699) 詩 「和匪懈堂安平大君瀟湘八景詩」(壬戌), 按集賢殿副修撰李永瑞序, 匪懈堂嘗於東書堂集古帖, 得宋寧宗八景詩, 寶其宸翰, 搨其詩畫其圖, 以名其卷曰八景詩. 仍取麗代之能於詩者陳澹李仁老二子之作, 系焉. 又於當世之善詩者, 請賦五六七言以譔之. 學佛人兩千峯亦詩之, 千峯蓋亦以詩名於釋苑者也. 云云. ○詩各親筆, 中人翁正春以八分書其首曰海宇奇觀. ○尹判書暉家藏. (유의손 시); 「附帖中題詩」 左贊成晉陽河演(이하 17명 각자의 시)·節齋金宗瑞·知中樞河東鄭麟趾·都承旨銀川趙瑞康·右承旨姜碩德·藝文提學耽津安止·刑曹判書竹溪安崇善·成均注簿永陽李甫欽·直集賢殿鐵

수 없으나 12대손 유범휴(柳範休)가 유의손의 「유사 遺事」를 지은 것으로 보아 19세기쯤 간행된 듯하다. 시(詩)·계주문(戒酒文)·서(序)·기(記)·발(跋)·명(銘) 등을 실었고, 권말의 유묵(遺墨)에 유의손의 팔경시 필적을 모각했는데, 원래 시권(詩卷)이던 것을 『회헌일고』에서 ‘첩(帖)’이라 한 것을 보면 당시 19세기쯤 이미 첩으로 개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팔경시첩》의 시작(詩作)들은 『동문선 東文選』에도 몇몇 실려 있고 시회 참여자의 몇몇 문집에도 실려 있다. 그중 박팽년의 『박선생유고』에는 「제비해당소상팔경시권 題匪懈堂瀟湘八景詩卷」이란 제목의 주(註)에 이영서(李永瑞)의 서문을 약술하고 시회 참여자 18명의 직함과 성명을 적어놓았다.¹⁰⁾ 『회헌일고』와 『박선생문집』의 제목에 딸린 주(註)를 보면, 당시의 소장자가 판서를 지낸 장주(長洲) 윤휘(尹暉 1571~1644)의 가문이라고 하였다.¹¹⁾ 그의 문집으로 『장주집』이 있으나 안평대군의 ‘소상팔경시권’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이밖에 하연(河演)의 『경재집 敬齋集』 권4 부록에 실린 연보를 보면, 하연이 67세이던 1442년 8월 비해당의 시첩에 화운했는데, 당시 시를 잘 짓는 문사 17인과 함께 지어 시첩을 만들고 명나라 옹정춘이 ‘해우기관’이란 제서를 썼다고 적혀 있다.¹²⁾ 또 유의손의 후손인 유범휴(柳範休)의 문집 『호곡집 壺谷集』 권12 「선

城南秀文·直集賢殿鷲山辛碩祖·集賢殿修撰朴彭年·集賢副校理嶂梁崔恒·承文院副校理成三問·集賢修撰高陽申叔舟·鈴平君尹季童·校書校勘益城金孟·千峯釋卍雨,

10) 朴彭年, 『朴先生遺稿』 詩 「題匪懈堂瀟湘八景詩卷」, 判書尹公暉家藏親筆, 匪懈堂得宋寧宗八景詩於東書堂古帖, 寶其宸翰, 因令搨其詩畫其圖, 名其卷曰八景詩. 取麗代詩人李仁老陳澹之作, 係焉. 又請當世之善於詩者, 賦五六七言以歌之, 集賢殿副修撰魯山李公永瑞爲之序, 都承旨銀川趙公瑞康·右承旨姜公碩德·右副承旨柳公義孫·鈴平君尹公季童·藝文提學耽津安公止·直集賢殿鐵城南公秀文·釋千峯·成均注簿永陽李公甫欽·直集賢殿鷲山辛公碩祖·承文院副校理昌寧成公三問·校書校勘益城金公孟·集賢殿副校理嶂梁崔公·知中樞院事河東鄭公麟趾·刑曹判書竹溪安公崇善·集賢修撰高靈申公叔舟·左贊成晉陽河公演·節齋金公宗瑞及先生, 咸作詩, 皆親筆. 中朝人翁正春, 以八分書其首曰海宇奇觀云. ○時先生爲集賢殿修撰. 正統七年壬戌八月也.

11) 尹暉: 본관 海平, 자 靜春. 증찬성 尹希琳의 증손, 군자감정 尹怵의 손자. 아버지는 영의정 尹斗壽, 어머니는 참봉 黃大用의 딸. 成渾 문인으로 1589년(선조 22) 진사, 1594년 별시문과 문과 급제, 史官이 되었다가 1596년 병조좌랑이 됨. 이듬해 병조정랑이 되고 이어 사서·장령·필선·사간 등을 거쳐, 전라도·경상도 관찰사로 나가 치적을 올림. 1613년(광해군 5) 계축옥사에 관련, 벼슬에서 쫓겨났다가 뒤에 다시 기용되고, 1618년 冬至兼陳奏使로 명에 다녀옴. 그 뒤 공조·예조의 참관을 거쳐, 1623년 인조반정 때 장흥·아산 등지에 유배됨. 1627년 정묘호란 때 기용되어 한성부좌윤·청주목사, 호조와 형조의 참관을 지냈고,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왕을 남한산성에 호종하고, 특명전권대사로 적진에 출입하면서 강화조약을 체결함. 환도 후 도승지에 임명되어 청나라와 외교를 전담했고, 한성부좌윤·형조판서를 거쳐 1639년 우찬성으로서 奏請使가 되어 淸에 다녀왔고 1641년 공조판서가 됨. 글씨를 잘 썼고 죽은 뒤 아들 尹勉之의 공훈으로 영의정에 추증됨. 시호 章翼.

12) 河演, 『敬齋集』 권4 附錄, 「年譜」, “(正統)七年壬戌 先生六十七歲, 三月, 扈從伊川溫井之幸, 聯和匪懈堂詩帖.(匪懈堂, 安平大君瑑號也. 大君於東書堂古帖室, 得宋英宗宸翰八景詩, 搨其詩畫其圖, 仍

조희헌선생유사 先祖檜軒先生遺事」에도 1442년 8월 유의손이 안평대군의 소상팔경시에 화운했는데 선조의 수필이 첩에 실렸다고 적혀 있다.¹³⁾

* 《소상팔경시첩》에 실린 시작(詩作)과 수록문헌

No	詩作者	시 형식	『檜軒逸稿』 외 수록문헌
1	李永瑞 ? ~1450	序文	『檜軒逸稿』와 『朴先生遺稿』에 부분적으로 실림
2	李仁老 1152~1220	팔경시 칠언절구 8수	『동문선』 권20 「宋迪八景圖」
3	陳 湣 1200 文科	팔경시 칠언고시 8수	『梅湖遺稿』 「宋迪八景圖」 『동문선』 권6 「宋迪八景圖」
4	河 演 1376~1453	오칠고시 1수	•
5	金宗瑞 1390~1453	오언고시 1수	•
6	鄭麟趾 1396~1478	칠언율시 1수	•
7	趙瑞康 ? ~1444	오언고시 1수	•
8	姜碩德 1395~1459	팔경시 칠언절구 10수 (제1, 2수 序詩)	『동문선』 권22 「瀟湘八景圖有宋眞宗宸翰」
9	安 止 1377~1464	칠언율시 1수	『동문선』 권17 「題八景圖」
10	安崇善 1392~1452	칠언율시 1수, 칠언고시 1수	•
11	李甫欽 ? ~1457	칠언율시 1수	•
12	南秀文 1408~1442	육언고시 4수	•
13	申碩祖 1407~1459	長短句古詩 1수	•
14	柳 義 孫 1398?~1450?	칠언고시 1수	•
15	崔 恒 1409~1474	칠언율시 5수 (원래 팔경시였던 듯)	•
16	朴彭年 1417~1456	칠언절구 5수	『朴先生遺稿』 「題匪懈堂瀟湘八景詩卷」
17	成三問 1418~1456	팔경시 오언절구 8수	『成謹甫集』 권1 「瀟湘八景」
18	申叔舟 1417~1475	오언고시 1수	『保閑齋集』 권10 「題匪懈堂八景圖詩卷」

名其堂曰八景，請當世之善詩者賦以歌之。先生與集賢藝文諸學士成三問·崔恒·鄭麟趾·南秀文等十七人咸作詩親筆，聯成一帖。中朝人翁正春以八分書其首曰海宇奇觀云.)”

13) 柳範休, 『壺谷集』 권12 「先祖檜軒先生遺事」, “(世宗二十四年壬戌) 八月, 和匪懈堂安平大君瀟湘八景詩, 手筆在帖中.”

19	尹季童 ? ~1453	칠언고시 1수	•
20	金 孟 1410~1483	칠언고시 1수	•
21	卍 雨 1357~1447?	팔경시 오언절구 10수 (제1수 序詩, 제10수 終詩)	•

위 문헌에 나오는 《팔경시첩》의 소장자는 윤희 또는 윤희 집안으로 적혀있어 19세기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팔경시첩》 앞쪽 옹정춘의 제서에 찍힌 수장인(收藏印)으로 알 수 있듯이 친일파 시남(詩南) 민병석(閔丙奭 1858~1940)의 수중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다시 시중에 나왔던 것을 고(故) 임창순(任昌淳 1914~99) 선생이 1960년대 후반에 《봉사조선창화시권》과 함께 수장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처럼 《팔경시첩》에 실린 시작(詩作)들의 원문은 유의손의 『회헌일고』에 모두 실려 있고, 또 『동문선』이나 『박선생유고』 등의 시문집에도 실려 있어서 전체의 시작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본 《팔경시첩》에 서로 같거나 비슷한 필적이 여럿이란 점과 관련하여 시첩에 빠진 필적을 이들 시문집을 통해 필사하여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

5. 《팔경시첩》의 국가지정 등급 상향에 대해

《팔경시첩》은 보물로 지정된 바 있다. 이것이 국보로 승격되려면 연대성, 역사성, 유일성, 원형 보존성, 미술품의 신빙성(authenticity)과 작품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팔경시첩》은 이런 점을 두루 확보하지 못했다.

첫째, 이 시첩의 시작(詩作)들은 조선 초기의 문인 19명이 지은 것들이지만 필적은 모두 그들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문화재청이 본건(本件)에 대한 ‘지정예고(指定預告) 사유’에서 아래와 같이 공시한 바 있다.

“각 시는 대부분 작자의 친필 글씨로서, 이들의 유묵(遺墨)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의 문학 수준까지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적, 문학적인 의의가 매우 높다. 더욱이 이 시첩에 글을 남긴 성삼문(成三問), 박평년(朴彭年) 등 사육신(死六臣)을 비롯해 많은 명사들이 1426년(세조 2)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사사(賜死)됨으로써 이들의 진적(眞蹟)이 전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희소가치가 크다.

‘비해당 소장팔경시첩’은 중국 문물을 수용하되 독자성을 갖춘 우리문화로 승화시켰다는 점, 왕실과 사대부 계층의 문화향유 양상, 15세기 서예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 온 작품이다. 조선 전기 명가들의 친필 유작을 모은 유일한 자료이자 전래 경위도 분명한 만큼 국보로 승격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위 공시문에서 “각 시는 대부분 작자의 친필 글씨로서…” 했는데, 대부분이라면 십중팔구여야 하나 《팔경시첩》에서는 그 정도의 친필을 확보할 수 없다. 즉 여러 필적이 같거나 비슷해 신빙성에 의문이 들며, 특히 소수박물관 소장의 이보흠 필적은 그런 의문을 증가시킨다. 《팔경시첩》 필적들의 이런 유사성을 두고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시작(詩作)을 대필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진화의 팔경시와 비슷한 필적이 여럿이었듯이 후대에 탈락된 시작들을 써서 보충했거나 부분(副本)의 의미로서 원적을 보고 모사했을 가능성도 있을 듯하다.

둘째, 《팔경시첩》은 원형을 유지하지 못한 점이다. 즉 이영서의 서문에 적혀 있듯이 이들 필적은 처음에 시권(詩卷)으로 장황되었으나 언젠가 첩으로 개장되면서 종이바탕이 분할되었다. 또 안평대군이 팔경시권에 베껴 신도록 했다는 남송 영종(寧宗)의 <소상팔경시>도 없으며 화공에게 그리게 한 <소상팔경도>도 없다는 것이 이 시첩의 미비점이다.

셋째, 《팔경시첩》에 실린 조선 문사 19명의 필적 가운데 8명의 필적에 인장이 찍혀 있는 점인데, 당시로는 지나치게 많다. 일례로 1447년에 안평대군이 제작한 《몽유도원도권》에는 안평대군의 <몽유도원기>와 안건의 <몽유도원도> 그리고 문사 22명의 시문 중 하연의 제시에만 인장이 찍힌 것과 사뭇 다르다. 더욱이 《팔경시첩》에 남아 있는 인영(印影)들은 아직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많으며, 각법(刻法)·자체(字體)나 인주(印朱)의 색상 등에서도 기존에 알려진 인장을 모각하여 찍은 후낙(後落)의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이와 같이 《비해당소상팔경시첩》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여럿이다. 그렇지만 이 시첩의 몇몇 필적(최소한 4점)은 시작자(詩作者)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로서는 확증하기 어려운 필적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선전기 15세기의 귀중한 서예사료로 안평대군이 제작한 팔경시권의 원형을 얼마간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물로서의 가치는 유효하다. 차후 이 시첩에 관하여 여러 분야의 연구가 축적되고, 이에 따라 수록 필적들의 신빙성을 확보할 때까지 국가지정 등급상향을 보류하는 것이 적절한 듯하다.

03. 보물 제929호 기사계첩(耆社契帖)

가. 심의사항

‘보물 제929호 기사계첩’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7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5차 소위원회('17.5.2)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조사 대상으로 추천된 ‘보물 제929호 기사계첩’에 대해 관계전문가 조사('18.8.3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9차 회의('18.11.8)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8.11.22~'18.12.24)하고,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929호(1987.12.26 지정)
- 명 칭 : 기사계첩(耆社契帖)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 1첩
- 규 격 : 전체 79.0×59.5cm, 화면 53.2×37.3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조성연대 : 1719~1720년(숙종 45~숙종 46)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기사계첩》은 18세기를 대표하는 궁중기록화의 하나로 꼽힌다. 숙종이 기로소에 들어간 사실과 이 계첩을 제작하게 된 경위 등이 그림과 글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5장면의 기록화는 모두 사실적인

묘사와 생동감 있는 필치로 그려져 있으며 최규서를 제외한 기로신 10명의 반신 초상화는 18세기 초의 전형적인 화법으로 그려졌다. 이에 그림의 예술적 가치도 높게 인정된다. 경현당 석연에서 차운한 기로신들의 축시는 모두 자필(自筆)로 쓰여 있어서 각자의 개성적인 서풍도 확인할 수 있다.

보통의 기록화가 제작자를 알 수 없는 반면에 《기사계첩》은 그림을 그린 5명의 화원 김진여(金振汝), 장태흥(張泰興), 박동보(朴東普, 1663-1735 이후), 장득만(張得萬, 1684-1764), 허숙(許倣, 1688-?) 이외에도 감독 역할의 감조관(監造官)과 글씨를 쓴 서사관(書寫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점도 이 화첩의 가치를 더욱 높여 주는 요소이다.

이처럼 국립중앙박물관 《기사계첩》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모두 갖추었을뿐 아니라 제작시기, 제작자가 분명하고 그림의 완성도나 수준도 매우 높다. 따라서 국보로 승격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서화첩은 숙종이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된 작품이다. 1719년 숙종이 즉위한지 45년 되는 해이고, 다음 해인 1720년은 숙종의 연세가 60이 되는 해이므로 이를 계기로 숙종이 기로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본 화첩은 숙종이 이를 기념하여 배푼 연회에 참석한 10인의 기로신(耆老臣)들과 그들이 지은 시문 등을 수록한 서화첩이다. 궁중의 주요한 행사를 당시의 대표적인 화원(畫員)들이 그린 기록화와 여러 주요한 관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실적인 초상화가 수록되어 있고, 여러 신하들이 짓고, 자필로 쓴 시를 보여주고 있어서 회화적, 서예적,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작품이다. 당시 함께 제작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보물 제638호 <기사계첩>에 비하여 회화 작품의 수준이 높고,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가치가 더욱 높다. 그러나 기록에서도 동시에 여러 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작품의 내용과 화풍, 서체, 재질 등이 이화여대박물관과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함께 국보로 승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지정 가치 있음)

- <기사계첩>은 국왕이 기로소에 들어간 일과 기로연을 배푼 일을 기록과 그림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 행사 장면을 화려하고 상세하게 그림으로 재현했으며, 참석자의 초상화를 극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 참석자들이 지은 시가 거의 모두 자필로 적혀있어 문학사, 서예사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화재이다.

- 더군다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에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작품의 제목은 <기해기사계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정 가치 있음)

국립박물관 소장 기사계첩은 그 학술적, 역사적, 미술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 제929호로 이미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일한 시기에 같이 제작된 기사계첩 중 이화여대박물관본과 개인소장본이 각기 보물 제638호, 제639호로 지정되어 있다. 비록 개인소장본은 정밀조사하지 못했으나 이화여대본과 국립박물관을 정밀 조사한 결과 국립박물관 소장 기사계첩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국보로 승격 지정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었다.

첫째, 국립박물관 소장 기사계첩은 화첩의 원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첩서, 숙종어제, 기록화 5폭, 참석자 좌목, 초상화, 기로신들의 자필 축시, 감조관, 서사관, 화원의 목록 등 내용 전체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다. 특히 契帖序 중 延祔君(영조)의 이름 부분을 붉은색의 방형 비단조각을 붙여 忌諱한 점은 이본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을 더욱 잘 보여준다.

둘째, 국립박물관 소장 기사계첩은 표지의 제첩에 ‘己亥耆社帖’이라고 쓰여 있어 이화여대본에 ‘耆社契帖’이라고 쓰여 있는 점과 구분된다. 이 점은 국립박물관본이 기로소 보관본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밖에 이 보고서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화첩 내용상 세세한 많은 점에서 국립박물관본은 이화여대본에 비해 보존상태가 월등한 점을 볼 때 기사계첩 중 대표적 예로 국보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송성문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여 2003년 3월 19일 박물관에 입수되었으며 전시를 위해 2010년 간단하게 보존처리를 했다.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표지는 모란당초문이 있는 청색 비단으로 꾸며졌으며 미색 비단의 제첩에는 “己亥耆社帖”이라고 쓰여 있다.

-별도의 보관상자 없이 한 권의 첩(帖)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접장 형태로 한 장씩 넘기면 좌우 양면이 펼쳐진다. 앞뒤 표지는 연꽃넙쿨무늬가 있는 쪽빛 비단으로 장식했다. 앞표지에는 화초문이 있는 흰 비단에 “己亥耆社帖”이라고 먹으로 적은 제첩이 붙어 있다. 표지는 낡아서 가장자리가 닳았으며 수침에 의한 얼룩이 있다.

-화첩은 전체 54면으로 서문, 축시, 발문, 좌목, 기록화, 초상화, 시, 서화가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의 기록화는 좌우 양면에 걸쳐 이어진다. 회장은 흰 비단을 사용했는데, 열화되어 담황색이다.

-전체의 구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앞표지 “己亥耆社帖” (36.7x5.9cm)

1-2면: 空欄

3-4면: “契帖序” 좌우 각 면에 붉은 패선을 그어 15열을 구획하여 서문을 적었다. 맨 뒤에 “庚子季冬上浣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任陞謹序”라고 적혀 있어 1720년 12월 상순에 임방(1640-1724)이 지었음을 알 수 있다.

5-6면: “肅宗大王御製” 홍색 비단으로 우면은 황색 패선으로 테두리만 그었고 내용은 없다. 좌면은 황색 패선으로 9열을 구획하여 1열에서 6열까지 숙종어제를 적었는데, 경현당에서 연회를 베푸는 날에 직접 참석하여 지은 것이다. 나머지 3열에는 割註처럼 작은 글씨를 두 줄로 적었는데, 숙종 승하 후 왕대비가 내린 글에 이 어제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7-8면: “御帖跋” 좌우 각 면에 붉은 패선을 그어 15열을 구획하여 발문을 적었다. 당시 이조참판 겸 대제학이었던 김유(金樛, 1653-1719)가 글을 지었다. 좌면 12열의 “延祔君 吟”의 글자 吟은 위에 붉은 비단을 붙여 가렸다. 영조로 즉위한 1721년 이후에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9-10면: 어첩봉안시 참석자 명단을 좌우 각 면에 붉은 패선을 그어 17열을 구획하여 기록했다.

11-12면: <御帖奉安圖> 이하 5점의 그림은 모두 좌우 양면에 걸쳐 이어지도록 그렸다. 크기는 약 43.7x67.5cm 내외이다.

13-14면: <崇政殿進賀箋圖>

15-16면: <景賢堂錫宴圖>

17-18면: <奉盃歸社圖>

19-20면: <耆社私宴圖>

21-22면: “座目” 좌우 각 면에 붉은 패선을 그어 6열을 구획하여 참석자 11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었다.

23면: <領府事鹿川李公七十五歲眞> 이유(李濡, 1645-1721)의 반신초상. 이하 10명의 초상화 모두 상단에 별도의 구획이 없이 전서로 인물정보를 적었다.

24면: <領議政夢窩金公七十二歲眞>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의 반신초상

25면: <行判府事甲峯金公七十一歲眞> 김우항(金宇杭, 1649-1723)의 반신초상

26면: <行知事黃公八十歲眞> 황흙(黃欽, 1639-1730)의 반신초상

27면: <行知事白閣姜公七十歲眞> 강현(姜覲, 1650-1733)의 반신초상

28면: <行司直晚退洪公七十五歲眞> 홍만조(洪萬朝, 1645-1725)의 반신초상

29면: <行副司直六松李公七十四歲眞> 이선부(李善溥, 1646-1721)의 반신초상

30면: <判尹丈巖鄭公七十二歲眞> 정호(鄭澹, 1648-1736)의 반신초상

31면: <右參贊竹里申公八十一歲眞> 신임(申銍, 1639-1725)의 반신초상

32면: <知事水村任公八十歲眞> 임방(任墜, 1640-1724)의 반신초상

33면: 붉은 패선으로 13열을 구획하고, 김창집이 칠언시 <耆社志喜>, <賀班>, <謹次洪尙書賀班韻> 3수를 지어 자필로 적음.

34면: 붉은 패선으로 7열을 구획하고, 이유의 칠언시 <敬次耆社志喜韻>을 적음.

35면: 붉은 패선으로 11열을 구획하고, 김우항의 칠언시 <謹次領相金公耆社志喜韻>과 <謹次洪上書賀班韻>을 적음.

36면: 붉은 패선으로 7열을 구획하고, 황흙의 칠언시 <謹次首相耆社志慶韻>을 적음.

37면: 붉은 패선으로 11열을 구획하고, 강현의 칠언시 <敬次耆社志喜韻>, <敬次賀班韻>을 적음.

38면: 붉은 패선으로 11열을 구획하고, 홍만조의 칠언시 <敬次首相耆社韻>, <陳賀日口占志喜錄呈求和>를 적음.

39면: 붉은 패선으로 11열을 구획하고, 이선부의 칠언시 <敬次> 두 수를 손자 이해운(李海運)이 대신 적음.

40면: 붉은 패선으로 11열을 구획하고, 정호의 칠언시 <敬次元輔夢窩金公耆社志慶韻>과 <敬次賀班韻>을 적음.

41면: 붉은 패선으로 17열을 구획하고, 신임의 칠언시 4수를 적음.

42면: 붉은 패선으로 10열을 구획하고, 임방의 칠언시 <耆老錫宴後> 2수를 “己亥孟夏下浣” 즉 1719년 4월 하순에 적음.

43면: 붉은 패선으로 10열을 구획하고, 이유의 칠언시 <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를 적음.

44면: 붉은 패선으로 10열을 구획하고, 김창집의 칠언시 <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을 자필로 적음.

45면: 붉은 패선으로 10열을 구획하고, 김우항의 칠언시 <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을 적음.

46면: 붉은 패선으로 10열을 구획하고, 황흙의 칠언시 <謹此耆社諸公韻>을 적음.

47면: 붉은 패선으로 10열을 구획하고, 강현의 칠언시 <敬次>를 적음.

48면: 붉은 패선으로 10열을 구획하고, 홍만조의 칠언시 <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을 적음.

49면: 붉은 패선으로 10열을 구획하고, 이선부의 칠언시 <敬次>를 손자 이해운이 대신 적음.

50면: 붉은 패선으로 10열을 구획하고, 정호의 칠언시 <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을 적음.

51면: 붉은 패선으로 10열을 구획하고, 신임의 칠언시 <親臨錫宴後次任知樞詩韻>을 적음. “伊日儀章十老眞像並畫帖中(이날 거행한 절차와 열명 노신들의 초상화는 모두 그림첩에 있다)”라고 덧붙임.

52면: 화첩 제작 참여자 명단: 監造官 高挺參, 書寫官 李義芳, 畫員 金振汝, 張泰興, 朴東普, 張得萬, 許倣,

53-54면: 空欄

뒷표지

○ 내용 및 특징

《기사계첩》은 숙종이 59세 된 1719년 태조의 고사를 따라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것을 기념해 제작한 계첩이다. 기로소는 정2품 이상 실직을 가진 문관으로 나이가 70세 이상 되면 들어갈 수 있는 노신들을 우대하는 기관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보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기사계첩》은 모두 54면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공면 2면, ②기로신 중의 한 명인 좌참찬 임방(任墜, 1640-1724)이 쓴 계첩의 서문[御帖序] 2면, ③경현당 사연(賜宴) 때 숙종이 지은 어제[肅宗大王御製] 2면(홍색 비단이며 우측면은 공란이고 좌측면에만 어제가 쓰여 있다), ④기로소에 봉안된 어첩(御帖)에 쓴 대제학 김유(金樛, 1653-1719)의 발문[御帖跋] 2면, ⑤각 의식에 참여한 기로신들의 명단 2면, ⑥5쪽의 기록화 10면, ⑦기로신 11명의 좌목(座目) 2면, ⑧기로신들의 반신상 초상화 10면, ⑨그들의 축시 18면, ⑩계첩을 제작한 실무자(감조관, 서사관, 화원) 명단 2면, ⑪공란 2면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화는 경희궁 흥정당에서 기로소로 어첩을 봉안하러 가는 행렬을 그린 <어첩봉안도(御帖奉安圖)>, 이튿날인 2월 12일 기로신들이 경희궁 숭정전에서 진하례를 올리는 장면을 그린 <숭정전진하전도(崇政殿進賀箋圖)>, 4월 18일 경현당에서 기로신들에게 내린 친림사연의 광경을 그린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 경현

당 석연에서 하사받은 은배(銀盃)를 받들고 기로소로 돌아가는 기로신들의 행렬을 묘사한 <봉배귀사도(奉盃歸社圖)>, 기로신들이 기로소에서 연회를 이어가는 모습을 그린 <기사사연도(耆社私宴圖)> 등 5장면이다. 각 화면 우측에 그림의 제목이 단정한 해서체로 쓰여 있다.

좌목의 순서대로 기로신들을 적어보면 이유(李濡, 1645-1721), 김창집(金昌集, 1648-1722), 김우항(金宇杭, 1649-1723), 황흠(黃欽, 1639-1730), 최규서(崔奎瑞, 1650-1735), 강현(姜覲, 1650-1733), 홍만조(洪萬朝, 1645-1725), 이선부(李善溥, 1646-1721), 정호(鄭澮, 1648-1736), 신임(申銍, 1639-1725), 임방 등 모두 11명이다. 특이사항이라면 임방은 당시 도승지로서 80세였는데 숙종이 어첩을 기로소에 봉안한 후에 특명으로 지중추부사로 품계를 올려 주어 뒤늦게 기로당상이 되었다는 것과 최규서는 당시 은퇴하여 지방에 있었으므로 모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반신초상화도 그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화첩은 모두 12부를 제작하여 1부는 기로소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기로신 11명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임방이 서문을 쓴 일시가 1720년 12월 상순인 것을 보면 계첩도 그 즈음 완성되었다고 본다. 숙종은 1720년 6월에 승하하였으므로 완성된 계첩을 보지 못하였다.

《기사계첩》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이외에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본(보물 제929호), 개인소장본(보물 제639호), 삼성미술관 Leeum 소장본, 연세대학교 소장본이 있다.

○ 참고문헌

『기사계첩』,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76.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pp. 168-266.



○ 현 상

2003년3월19일 송성문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함. 2010년 가단한 보존처리 하였음. 전반적으로 보존상태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이 화첩은 숙종이 1719년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된 작품이다. 1719년 4월 18일 당시 은퇴하여 지방에 있던 최규서(崔奎瑞)를 제외한 10명의 당상관 기로신들이 초청되어 경덕궁(慶德宮) 경현당(景賢堂)에서 숙종과 함께 연회를 가졌는데, 당상관 기로신들의 자손도 일부 참석하였다. 연회가 끝난 뒤 기로신들은 이 성대한 행사를 기념하자는 발의를 하였고, 참석자의 진영(眞影)

을 제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다음해인 1720년 서화첩이 완성되었다. 내용은 계첩서(契帖序) 2면, 숙종의 어제(御製) 2면, 이조참판 대제학 김유가 지은 어첩발(御帖跋) 2면, 계획 때의 배진인명(陪進人名) 2면, 어첩봉안도(御帖奉安圖)·숭정전진하전도(崇政殿進賀箋圖)·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봉배귀사도(奉盃歸社圖)·기사사연도(耆社私宴圖)등의 그림 각 2면, 11명의 기신을 기록한 좌목 2면, 기신의 진영(眞影) 10면, 기신의 축시(祝詩) 19면, 이 계첩을 작성한 감조관(監造官)·서사관(書寫官)·화원(畫員)의 명단 1면 등으로 되어 있다.

계첩에 기록된 서문에 의하면, 계첩은 모두 12부를 만들어 1부는 기로소(耆老所)에 보관하고, 11부는 기신에게 1부씩 나누어 준다고 하나, 그 중 최규서는 서울에 없었으므로 진영과 축시가 수록되지 않았다. 각 면의 글씨와 그림의 바탕은 비단을 썼는데, 어제(御題)는 붉은 색으로 기록되었고, 모든 그림들은 채색을 하였다. 행사 장면을 기록한 작품들은 엄정하고 균형잡힌 구도로 행사의 주요한 장면을 재현하였다. 계첩에 수록된 그림들은 김진여(金振汝)·장태흥(張泰興)·박동보(朴東普)·장득만(張得萬)·허숙(許倬) 등 당시 궁중에서 활동하던 대표적인 5명의 화원들이 제작하였음을 수록된 화원 명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행사도들은 전반적으로 정교한 필선과 묘사, 화려하면서도 격조가 있는 채색을 사용하면서 궁중회화의 특징과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실린 기신들의 초상화는 여러 화원들이 나누어 그렸던 듯 각기 화풍과 기법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적인 수법을 구사하여 궁중 초상화의 수준과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기신이 직접 짓고, 쓴 축시들은 각자의 개성적인 서체가 잘 반영되었다. 그 외의 글씨는 서사관이 해자(楷字)로 쓴 것으로 당시 궁중에서 사용된 서체의 특징을 보여준다.

□

- 별도의 보관상자 없이 한 권의 첩(帖)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접장 형태로 한 장씩 넘기면 좌우 양면이 펼쳐진다. 앞뒤 표지는 연꽃넙쿨무늬가 있는 쪽빛 비단으로 장식했다. 앞표지에는 화초문이 있는 흰 비단에 “己亥耆社帖”이라고 먹으로 적은 제첩이 붙어 있다. 표지는 낡아서 가장자리가 닳았으며 수침에 의한 얼룩이 있다.
- 화첩은 전체 54면으로 서문, 축시, 발문, 좌목, 기록화, 초상화, 시, 서화가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의 기록화는 좌우 양면에 걸쳐 이어진다. 회장은 흰 비단을 사용했는데, 열화되어 담황색이다.
- 전체의 구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앞표지 “己亥耆社帖” (36.7x5.9cm)

1-2면: 空欄

3-4면: “契帖序” 좌우 각 면에 붉은 패션을 그어 15열을 구획하여 서문을 적었다. 맨 뒤에 “庚子季冬上浣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任墜謹序”라고 적혀 있어 1720년 12월 상순에 임방(1640-1724)이 지었음을 알 수 있다.

5-6면: “肅宗大王御製” 홍색 비단으로 우면은 황색 패선으로 테두리만 그었고 내용은 없다. 좌면은 황색 패선으로 9열을 구획하여 1열에서 6열까지 숙종어제를 적었는데, 경현당에서 연회를 베푸는 날에 직접 참석하여 지은 것이다. 나머지 3열에는 割註처럼 작은 글씨를 두 줄로 적었는데, 숙종 승하 후 왕대비가 내린 글에 이 어제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7-8면: “御帖跋” 좌우 각 면에 붉은 패선을 그어 15열을 구획하여 발문을 적었다. 당시 이조참판 겸 대제학이었던 김유(金樛, 1653-1719)가 글을 지었다. 좌면 12열의 “延祊君吟”의 글자 吟은 위에 붉은 비단을 붙여 가렸다. 영조로 즉위한 1721년 이후에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9-10면: 어첩봉안시 참석자 명단을 좌우 각 면에 붉은 패선을 그어 17열을 구획하여 기록했다.

11-12면: <御帖奉安圖> 이하 5점의 그림은 모두 좌우 양면에 걸쳐 이어지도록 그렸다. 크기는 약 43.7x67.5cm 내외이다.

13-14면: <崇政殿進賀箋圖>

15-16면: <景賢堂錫宴圖>

17-18면: <奉盃歸社圖>

19-20면: <耆社私宴圖>

21-22면: “座目” 좌우 각 면에 붉은 패선을 그어 6열을 구획하여 참석자 11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었다.

23면: <領府事鹿川李公七十五歲眞> 이유(李濡, 1645-1721)의 반신초상. 이하 10명의 초상화 모두 상단에 별도의 구획이 없이 전서로 인물정보를 적었다.

24면: <領議政夢窩金公七十二歲眞>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의 반신초상

25면: <行判府事甲峯金公七十一歲眞> 김우항(金宇杭, 1649-1723)의 반신초상

26면: <行知事黃公八十歲眞> 황흠(黃欽, 1639-1730)의 반신초상

27면: <行知事白閣姜公七十歲眞> 강현(姜鉞, 1650-1733)의 반신초상

28면: <行司直晚退洪公七十五歲眞> 홍만조(洪萬朝, 1645-1725)의 반신초상

29면: <行副司直六松李公七十四歲眞> 이선부(李善溥, 1646-1721)의 반신초상

30면: <判尹丈巖鄭公七十二歲眞> 정호(鄭澹, 1648-1736)의 반신초상

31면: <右參贊竹里申公八十一歲眞> 신임(申鉞, 1639-1725)의 반신초상

32면: <知事水村任公八十歲眞> 임방(任墜, 1640-1724)의 반신초상

- 33면: 붉은 패선으로 13열을 구획하고, 김창집이 칠언시 <耆社志喜>, <賀班>, <謹次洪尙書賀班韻> 3수를 지어 자필로 적음.
- 34면: 붉은 패선으로 7열을 구획하고, 이유의 칠언시 <敬次耆社志喜韻>을 적음.
- 35면: 붉은 패선으로 11열을 구획하고, 김우항의 칠언시 <謹次領相金公耆社志喜韻>과 <謹次洪上書賀班韻>을 적음.
- 36면: 붉은 패선으로 7열을 구획하고, 황흙의 칠언시 <謹次首相耆社志慶韻>을 적음.
- 37면: 붉은 패선으로 11열을 구획하고, 강현의 칠언시 <敬次耆社志喜韻>, <敬次賀班韻>을 적음.
- 38면: 붉은 패선으로 11열을 구획하고, 홍만조의 칠언시 <敬次首相耆社韻>, <陳賀日口占志喜錄呈求和>를 적음.
- 39면: 붉은 패선으로 11열을 구획하고, 이선부의 칠언시 <敬次> 두 수를 손자 이해운(李海運)이 대신 적음.
- 40면: 붉은 패선으로 11열을 구획하고, 정호의 칠언시 <敬次元輔夢窩金公耆社志慶韻>과 <敬次賀班韻>을 적음.
- 41면: 붉은 패선으로 17열을 구획하고, 신임의 칠언시 4수를 적음.
- 42면: 붉은 패선으로 10열을 구획하고, 임방의 칠언시 <耆老錫宴後> 2수를 “己亥孟夏下浣” 즉 1719년 4월 하순에 적음.
- 43면: 붉은 패선으로 10열을 구획하고, 이유의 칠언시 <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를 적음.
- 44면: 붉은 패선으로 10열을 구획하고, 김창집의 칠언시 <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을 자필로 적음.
- 45면: 붉은 패선으로 10열을 구획하고, 김우항의 칠언시 <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을 적음.
- 46면: 붉은 패선으로 10열을 구획하고, 황흙의 칠언시 <謹此耆社諸公韻>을 적음.
- 47면: 붉은 패선으로 10열을 구획하고, 강현의 칠언시 <敬次>를 적음.
- 48면: 붉은 패선으로 10열을 구획하고, 홍만조의 칠언시 <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을 적음.
- 49면: 붉은 패선으로 10열을 구획하고, 이선부의 칠언시 <敬次>를 손자 이해운이 대신 적음.
- 50면: 붉은 패선으로 10열을 구획하고, 정호의 칠언시 <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을 적음.
- 51면: 붉은 패선으로 10열을 구획하고, 신임의 칠언시 <親臨錫宴後次任知樞詩韻>을 적음. “伊日儀章十老眞像並畫帖中(이날 거행한 절차와 열명 노신들의 초상화는 모두 그림첩에 있다)”라고 덧붙임.

52면: 화첩 제작 참여자 명단: 監造官 高挺參, 書寫官 李義芳, 畫員 金振汝, 張泰興, 朴東普, 張得萬, 許倣,

53-54면: 空欄

뒷표지

○ 내용 및 특징

- 1719년 숙종은 59세의 나이가 되자 세자, 왕자 등의 요청으로 태조의 고사를 따라 60세가 되기 한해 전이지만 한 해를 앞당겨 2월 11일에 기로소에 들어갔다. 이는 조선왕조 개창 후 300년 만에 두 번째 있는 경사였다. 그리고 그해 4월 18일에 숙종은 경희궁 경현당에서 기로소 원로대신 10명을 초대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숙종은 연회에 직접 참가했고 대신들에게 은배를 하사했다. 이 화첩은 이를 기려 제작되었는데, 숙종이 그해 6월에 승하했기에 그 후에 완성되었다.
- 화첩에는 기로회의 전말을 기록한 서문과 발문, 참석자를 기록한 좌목, 행사를 생생하게 재현한 기록화, 참석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초상화, 그리고 잔치에서 서로 화답하여 친필로 쓴 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히 화첩을 제작한 감조관, 서사관, 화원들의 명단도 덧붙여져 있다.
- 화첩은 모두 12부를 제작하여 1부는 기로소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원래 최규서(崔奎瑞, 1650-1735)도 참석 대상자였으나 시골집에서 은거하고 있어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이외에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본(보물 제638호), 개인소장본(보물 제639호), 삼성미술관리움본이 있다. 이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원형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참고문헌

『기사계첩』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76)

『빛나는 옛 책들: 혜전 송성문 기증 국보』 (국립중앙박물관, 2003)

김문식, 「1719년 숙종의 기로연 행사」, 『사학지』 40권, 2008

『삼성미술관 리움소장 고서화 제발 해설집 III』 (삼성미술관리움, 2009)

『조선시대 초상화 III』 (국립중앙박물관, 2009)

○ 기 타

- 1987년 12월 26일에 보물 제929호로 지정되었으며, 2003년 전 소유자 송성문(宋成文)씨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다.

□

○ 현 상

기사계첩은 국립중앙박물관본 이외에 보물 제638호로 지정된 이화여대박물관본과 보물 제639호로 지정된 개인소장본이 있음. 이화여대박물관본은 원래의 화첩의 좌우 2면을 펼쳐서 1면으로 만든 형태의 화첩으로 개장되어 있는데 비해 국립박물관본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 표지는 녹색이 가미된 연한 청색 비단(모란당초문)으로 표장되었으며 미색 비단으로 제첩을 붙이고 ‘己亥耆社帖’이라고 墨書하였다. 화첩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열람 및 전시로 인해 화첩 가장 자리의 비단이 닳아 울이 드러나 있어 장래 보존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화첩을 펼치면 연한 하늘색 비단으로 된 공백면이 좌우로 펼쳐진다. 내표지라 할 수 있는 이런 공백면은 화첩의 마지막, 즉 뒤쪽 내표지에도 있다. 그 다음부터 契帖序를 시작으로 내용이 이어진다. 국립박물관본 기사계첩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은 처음 나오는 좌참찬 任墜(1640~1724)이 쓴 契帖序 중 延祔君(영조)의 이름 부분을 붉은색의 방형 비단조각을 붙여 가린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후일의 왕(영조)의 이름을 忌諱하여 가린 것이다.

○ 내용 및 특징

기사계첩은 1719년(숙종 45) 숙종이 59세로 耆老所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 제작한 契帖임. 기로소에서 주관하여 그해 11명의 기로신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고 기로소 보관용을 별도 제작하여 총 12건을 제작함. 계첩의 완성은 이듬해인 1720년(숙종46) 12월 임. 현재 기사계첩은 6건이 알려져 있으며, 이중 3건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음. 편의상 화첩의 내용을 번호를 붙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1. 기로신 중의 한 명인 좌참찬 任墜(1640~1724)이 쓴 契帖序(좌우 펼쳐서 2면)
2. 경현당 賜宴 때 숙종이 지은 御製 1면
3. 기로소에 봉안된 御帖에 쓴 대제학 金櫟(1653~1719)의 御帖跋 2면
4. 각 의식에 참여한 기로신들의 명단 2면
5. 행사도 5폭(御帖奉安圖, 崇政殿進賀箋圖, 景賢堂錫宴圖, 奉盃歸社圖, 耆社私宴圖)
- 화첩 좌우면을 이어 한 화면으로 사용하여 가운데 세로로 접힌 자국 생김.
6. 기로신들의 좌목(座目) 좌우 2면
7. 기로신의 半身像 초상화 10폭(최규서는 在外여서 빠짐)
- 화첩의 한 면에 두 폭씩 배치함.
8. 기로신들의 축시 19면
9. 계첩을 제작한 실무자(감조관, 서사관, 화원) 명단 1면

- 화원 : 종4품 전만호 김진녀, 장태홍, 종6품 부사과 박동보, 장득만, 허숙
- 감조관 약방 부사용 고정삼, 서사관 상호군 이의방

이상 국립박물관 소장 기사계첩은 원래의 화첩 내용이 빠짐없이 잘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화첩의 원래형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契帖序 중 延祔君(영조)의 이름 부분을 붉은색의 방형 비단조각을 붙여 忌諱한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 화첩 제첩에 ‘己亥耆社帖’이라고 써서, 이화여대 본이 ‘耆社契帖’이라고 쓴 점과 차이를 보인다. 이 점은 국립박물관본이 기로소 보관본으로 추정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私家와는 달리 기로소에서는 같은 성격의 계첩이 여러 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干支를 붙여 구분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기 타

보물 제929호로 1987년 12월 26일 지정시와 동일.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9-01-004

4. 제진언집 목판(諸眞言集 木板)

가. 심의사항

‘제진언집 목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원도지사로부터 ‘속초 신흥사 경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5.11.4), 관계전문가 조사(’18.2.2) 및 보완조사(’18.8.20)를 실시한 결과, ‘제진언집 목판’만 보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보고서 의견이 제출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9차 회의(’18.11.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8.11.22~’18.12.24)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호(1971.12.16 지정)
- 명 칭 : 제진언집 목판(諸眞言集 木板)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
- 수 량 : 44판
- 규 격 : 불정다라니심경 18.0×13.2cm, 제진언집 목록 18.0×13.2cm, 진언집 18.0×28.2cm
- 재 질 : 나무
- 판 종 : 목판
- 조성연대 : 1658년(효종 9)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제진언집 목판’만 지정 가치 있음)

강원도 지역의 사찰에서 간행된 불경과 불서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북한 측을 제외한 우리 측 강원도에 소장된 목판으로는 신홍사 소장목판이 가장 많다. 지리적으로 볼 때 해안을 끼고 있는 탓에 수록재 의식과 연관된 불서와 밀교경전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문화재로 신청한 『신홍사경판』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목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가문화재는 사찰소장의 목판 전체를 지정하지 않고, 개별 불경이나 불서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신홍사에서 신청한 목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중에서 국가문화재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진언집』 한 종만을 선별하였다.

1658년에 설악산 신홍사에서 개판한 『제진언집』은 「불정다라니심경」, 「제진언집목록」, 「진언집」 등 3종을 합편한 불교의례집이다. 이 목판은 일부 결판이 있고 조성시기도 늦다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현존 목판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불교기록유산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보존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다. 한자·범어와 함께 한글도 표기되어 있으므로 16~17세기 당시의 국문학 연구에서 원천자료로서의 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더구나 강원도 지역사회와 함께 신홍사가 동해연안을 끼고 있어 수록재 등과 관련된 불교의례가 빈번하게 설행되었던 지역사회의 역사성과 지리 문화적인 특성 그리고 불교신앙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원천정보가 된다. 그러므로 조사대상의 신홍사 중간 『제진언집』 44판을 먼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신홍사는 신라 진덕여왕 6년(652)에 자장(慈藏)이 창건하였다. 처음 사명은 향성사(香城寺)였으나 효소왕 10년(701)에 의상(義湘)이 중창하면서 선정사(禪定寺)라

고 하였다. 이후 조선 인조 22년(1644)부터 3년간 영서(靈西), 연옥(蓮玉), 혜원(惠元) 등이 중창하고 “神興寺”라 하였으며, 1994년에 “新興寺”로 개칭하였다.

신흥사에서는 17세기 중기이후 여러 종류의 불경과 불서를 보관하였는데, 이 목판들은 일부 망실이 있으나 대체로 현재까지 잘 보관되고 있다. 소장 목판들은 1) 경전류 2) 의식집류 3) 승가일용 의식집류 4) 문집류 등으로 구분되는데, 『제진언집』, 『부모은중경』, 『묘법연화경』,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수설수륙대회소』, 『운수단가사』, 『승가일용식시목언작법』, 『대전화상주심경』, 『불설광본대세경』, 『불정지심다라니경』, 『천지팔양신주경』, 『불설조왕경』, 『불설환희조왕경』, 『불설안택신주경』, 『불설백살신주경』, 『불설금신칠살경』, 『불설용왕삼매경』, 『불설패목신주경』, 『불설도액경』, 『불설오성반지경』, 『불설돌굴경』, 『불설명당신경』, 『불설구호신명경』, 『불설우마장생경』 등의 불경과 『제반문』, 『대원대사문집』, 『청음선생집』, 명판 등이다.

한편 신흥사 소장 목판들은 1971년 12월 16일에 『신흥사경판』(280매)이라는 명칭으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이 목판들은 사내(寺內) 보제루(普濟樓)에 보관되어 있다가 2016년에 사찰입구에 있는 유물전시관의 건립과 함께 이곳에 옮겨졌다. 유물전시관으로 옮기기 직전인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속초시와 (사)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다시 소장목판을 조사한 결과는 <표1>¹⁴⁾과 같이 모두 269매라고 하였다. 이 숫자는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280매보다 11매가 적다. 그 이유에 대해 사찰 측과 속초시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은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소장목판이 1971년 이후 망실된 것인지 아니면 1971년에 잘못 조사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이 있다.¹⁵⁾ 마침 2019년에는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강원도를 대상으로 “전국사찰소장목판” 조사사업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그 사정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조사는 목판이 보관되어 있는 유물전시관에서 진행하였고, (사)한국미술사연구소의 조사결과보고서인 “속초 신흥사:극락보전 학술조사보고서”(2015.01)에 수록된 결과를 바탕으로 삼았다.

14) “속초 신흥사:극락보전 학술조사보고서”(2015.01) 참조하여 수정보완.

15) 1974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조선후기의 불전간행 경향”, 『佛敎經板 調査研究報告』, 1974)에서 조사한 매수는 277매였다고 함.

그런데 (사)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2014년에 조사한 『地藏經』(1매)은 『지장경』이 아니라 『제반문』 말미의 地藏請(천도재 의식문)이다. 그렇다면 총 목판 수는 268매로 볼 수 있음.

<표> 신흥사 소장 목판

제명	목판 수	간행 연도	간기	비고	
묘법연화경. 권1	28	1661	順治十八年辛丑(1661)四月日江原道襄陽地雪岳山神興寺開刊	결판(전7권중 1권)	
부모은중경	8	1658	順治十五年戊戌(1658)梧秋下澣日江原道襄陽府雪岳山神興寺開刊	결판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33	1661	順治十八年辛丑(1661)五月日江原道襄陽地雪岳山神興寺開刊	33판(완질)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17			결판	
수설수륙대회소	5	1661	順治十八年辛丑(1661)六月日江原道襄陽地雪岳山神興寺 開刊	결판	
다라니경판	1				
제진언집	불정심다라니경	416)		4판(제1-8장) 소장	
	제진언집목록	117)		1판(제11-12장) 소장	
	진언집	3918)	1658	順治十五年戊戌(1658)六月下澣日江原道襄陽都護府地雪岳山神興寺重刊 진언집 38판(제1-36, 39-73, 76-80장) 및 발문간기 1판(제1-2장)	
불설광본대세경	40	1670	康熙九年庚戌(1670)五月日原襄道襄陽府雪岳山神興寺開刊	1-23장 (완질)	40판(완질)
불정지심다라니경				24-53장 (완질)	
천지팔양신주경				54-80장 (완질)	
불설조왕경, 불설환희조왕경, 불설안택신주경, 불설백살신주경, 불설금신칠살경, 불설용왕삼매경, 불설패목신주경, 불설도액경, 불설오성반지경, 불설돌굴경, 불설명당신경, 불설구호신명경, 불설우마장생경	21		[1670]	21판(완질)	
운수단가사	13	1661	順治十八年辛丑(1661)四月日江原道襄陽地雪岳山神興寺刊	완질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	4	1666	康熙五年(1666)丙午首夏雪岳山神興寺大德靈瑞板成	1판(7-8장)결판	
제반문	14			결판 많음	
대전화상주심경	20	1666	康熙五年丙午(1666)四月日江原道襄陽都護府地雪岳山神興寺開刊	완질	
대원대사문집 (大圓대사문集)	15		序: 辛酉復月下澣翠松居士書		
청음선생집	4				
명판	1				

지금까지 국내사찰 소장목판은 임진왜란(1592년) 이전 개간목판 또는 이후에 개간된 것이라도 병자호란(1636년) 이전의 것 중에서 완본을 대상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였다. 다만, 보물 제1754호 용주사의 「불설대보부모은중경판」은 정조의 명에 의하여 조성되었다는 역사성은 물론 변상도 등 학술적 가치 그리고 목판, 동철판, 석판 등 재료의 다양성이 고려되어 지정된 바 있기는 하다.

신흥사 소장의 목판은 개간연도로 볼 때는 국가문화재 지정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과거 남한 쪽 강원도 소재 사찰에서 개간한 목판의 종수가 적고 보존된 목판도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로 볼 때, 타 지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조사자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우선 완전성, 희귀성, 보존성을 중점적으로 적용하여, 다른 사찰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독자성을 가진 목판 또는 완본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목판은 『제진언집』, 『대전화상주심경』,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등 3종이었다.

3종의 목판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결과, 『제진언집』이 돋보였다. 『제진언집』은 효종 9년(1658) 6월에 신흥사의 영서(靈瑞) 등이 간행한 것으로 신흥사 소장 목판 중에서 가장 앞선 시기의 것이다. 『제진언집』의 내용은 「불정심다라니경(佛頂心陀羅尼經)」, 「제진언집목록(諸眞言集目錄)」, 「진언집(眞言集)」 등이 합편되어 있다. 이 목판은 “順治十五年 戊戌(1658), 六月下澣日, 江原道襄陽都護府地, 雪岳山神興寺, 重刊”이라는 간행사실과 같이 신흥사에서 중간한 목판이다. 원간본은 선조 2년(1569)에 안심사(安心寺)에서 개간되었으나 안심사본 목판은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목판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목판에는 한글, 한자, 범어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 16-17세기 한글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인정받고 있으며, 『제진언집』 인본은 국립중앙도서관, 동국대학교 도서관 등 여러 곳에 전한다. 혹 『진언집』이라는 이름의 목판이 경기도 망월사(60판 완판, 1800년 개간)와 경상남도 운흥사(16판 완판, 연대미상)에 소장된 것이 있으나 이 목판들은 신흥사소장 목판보다 개간연대가 늦거나 내용이 소략한 것이다.

나머지 『대전화상주심경』과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는 완본으로 전한다. 이 중에서 1666년에 간행된 『대전화상주심경』은 국내에 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선 시기의 목판이고, 1661년에 간행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는 신흥사 개간본보다 이전에 개간된 목판이 여러 사찰에 전하고 있음¹⁹⁾을 확인하였다. 이 중에서

16) 「불정심다라니경」은 제1-9장임. 이 중에서 제9장에 해당하는 한 장 결락.

17) 「제진언집목록」은 제10-17장임. 이 중에서 제10, 13-17장 등 6장 결락.

18) 「진언집」은 제1-78장임. 이 중에서 제37-38장, 제74-75장 등 4장 결락.

19)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는 현전하는 목판이 경상남도 운문사(완판, 1515년 개간), 충청남도 개심사(1판 결판, 1566년 개간), 하동군(32판 완판, 1604년 개간) 등에, 연대미상의 완판도 경상북도 은혜사(33판 완판)에 소장되어 있다.

『대전화상주심경』 목판은 개간 시기는 1666년 5월로 늦으나 현전하는 국내 유일의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서 논의할 가치는 있어 보인다. 그런데 2019년에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신흥사 목판도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 있으므로, 『대전화상주심경』을 포함한 나머지 목판들은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1> 『진언집』 권수제면(좌)과 간기면(우)



<사진2> 신흥사 간본 『제진언집』 (우측부터 「불정심다라니경」, 「제진언집목록」, 「진언집」, 간기)

○ 참고문헌

『속초 신흥사:극락보전 학술조사보고서』 (서울: 속초시·한국미술사연구소, 2015.01)

『속초 신흥사 경관 사진자료』

유근자, “신흥사 경관의 조성 배경과 사상”, 강좌 미술사 45호, 2015.

5.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가. 심의사항

‘묘법연화경’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으로부터 ‘묘법연화경’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2.14)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8.1.25)를 실시하고 ‘보물 제959호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복장전적’, ‘보물 제1306호 묘법연화경’과 비교조사(’18.10.2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9차 회의(’18.11.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8.11.22~’18.12.24) 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범장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숙선동 69
- 수 량 : 7권 2책
- 규 격 : 26.8×18.0cm(반곽 21.5×14.2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조성연대 : 1405년(태종 5) 경 판각, 후쇄본(後刷本) 개장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 지정 가치

조사대상의 법장사 소장 『묘법연화경』 7권 2책은 표지와 체점이 최근 개장·수리되었고, 본문과 변상도의 일부도 훼손되어 후대 수리된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불복에서 수습하여 개장하는 과정에서 인출시기가 다른 일부의 장이 혼재되어 있는 듯하다. 특히 요해서의 전체 2장 가운데 제1장이 보물 제1306호와 비교하여 서체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권7의 제54장 이하에 새겨진 시주정보도 탈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가운데 요해서의 제1장의 경우는 다른 경판 종류의 인출본인지 후대 보각경판의 인출본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면서 거의 완질본의 상태로 현존하고 있으며, 더구나 동일 경판에서 인출한 7권 2책 가운데 권1~3은 현재까지 보물 제1306호의 경우에서만 확인되므로, 자료적 회소가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대 안심사의 출판인쇄역량과 당대 변상도의 각수 실체를 진단하고, 고려말기 우왕 때와 태종 때의 불교사상적 경향도 추적할 수 있는 원천정보를 함축하고 있는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때문에 조사대상의 『묘법연화경』 7권 2책을 현재까지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근거 기준

조사대상의 『묘법연화경』 권1~7 2책은 동일 경판에서 인출한 완질본 1종과 영본 5종(일괄 지정 1종 포함)이 보물 제961호와 제971호 및 제1306호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왕 때와 조선 태종 때의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보완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 현재까지 자료적 회소가치와 학술적 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더구나 조사대상본은 현재까지 동일경판의 인출본과 비교하여 거의 완질본으로서의 가치에서도 크게 뒤지지 않는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기록유산이라 판단된다.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사대상본을 보물로 지정하여 동일 인출본과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 대상본 『묘법연화경』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의 한역을 계환(戒環)이 요해(要解)한 주해본을 저본(底本)으로 조선 태종 5년(1405) 전라도 고산 안심사에서 판각하여 간행한 목판본이다. 권수(卷首)에는 급남(及南)의 서문과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어 저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에는 묵서(墨書)로 쓴 구결(口訣)과 두주(頭註)가 있으며 권말에 있는 권근(權近, 1352~1409년)의 발문에 조선 초기 명필가로 이름난 성달생(成達生)과 성개(成概) 형제가 쓴 정서본으로 판각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발문에 이어 토

산군(兪山郡) 부인(夫人) 김씨(金氏), 전사헌시사 송결(前司憲侍史 宋潔)의 처(妻) 영인(令人) 원씨(元氏) 등의 시주자(施主者) 명단이 있다. 이 자료는 7권 2책으로 제작된 완질본으로 권4에는 변상도가 6면에 걸쳐 수록되어 있으며 판각도 정교하다. 특히 안심사판 『묘법연화경』의 변상도 안에 그려져 있는 신중상(神衆相)은 구도가 크고 정교한 판각으로 다른 법화경에 있는 변상도 보다 미술사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능화문이 들어있는 감지(紺紙)로 장황된 것은 근래에 개장한 것으로 보이며 제침의 글씨도 품격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면에 손상이 있어 배접된 상태이며 전반적인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지정본과 비교하여 자료가 완질이며 비교적 초기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발문을 통하여 조선 초기 불경의 간행 방식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등 서지학과 불경 연구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어 지정의 가치는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대상 『묘법연화경』은 1405년(태종 5) 명필가인 성달생과 성개 형제가 선친의 명복을 기원할 목적으로 법화경을 정서한 판하본(板下本)을 바탕으로 전라도 고산 안심사(安心寺)에서 도인 신문(信文)의 주관으로 간행한 불경이다. 표지가 새로 개장되었고, 본문과 변상도의 일부도 훼손되어 후대 수리된 흔적을 보이고 있으나, 안심사 판본은 희소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대체로 온전하며, 완질본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본문에 구결(口訣)이 거의 전체 부분에 묵서되어 있으며, 두주(頭註) 형태와 한글 현토 등 국어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이 보인다. 따라서 지정 보존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조사대상본의 7권 2책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을 원전으로 채택하여 송나라의 임제종(臨濟宗) 승려 계환(戒環)이 주해한 주석본을 저본으로, 성달생(成達生)·성개(成概) 형제가 정서하여 1405년(태종 5) 전라도 안심사(安心社)에서 조성한 경판을 후대 인출한 기록유산으로, 현재 법장사에서 소장하고 있다.

조사대상본은 표지와 제침이 최근에 개장되고 수리되어 있으며, 변상도와 서문 및 본문의 일부 장이 훼손되어 수리되어 있다. 특히 조사대상본은 보물 제1306호로 지정된 동일 인출본의 「묘법연화경요해서(妙法蓮華經要解序)」 전체 2장 가운데 제1장과 서체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시주정보 가운데 권7의 제54장 이하 내용도 탈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온존하게 보존되어 있다.

서지사항

목판본(木板本 : 1405년)

상하단변/ 반곽 21.5m×14.2cm/ 무계(無界)/ 반엽 10행 20자/ 무어미(無魚尾)

권 수 제 : 妙法蓮華經卷第一

요해정보 :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

판 심 제 : 法一 一

권 미 제 : 妙法蓮華經卷第一

발 문 : 無上妙法……前大護軍成君達生……乃與弟概同書呈經道人信文持往全羅道雲梯縣兜率山安心社倩工鉸梓以壽其傳……永樂三年春三月下澣陽村權近跋(권7, 제53장)

시주정보 : 兎山郡夫人金氏 前司憲侍史宋潔妻令人元氏……隨喜施主(권7, 제53장 : 제54장 이하 내용 탈락)

○ 내용 및 특징

조사대상의 『묘법연화경』 7권 2책은 1405년(태종 5) 음력 3월 하순 도인(道人 : 승려) 신문(信文)이 전라도 운제현(雲梯縣)의 도솔산(兜率山)에 위치한 안심사(安心社)에서 조성한 경판을 후대 인출하여 오침안정의 선장본으로 장정한 기록유산이다. 조사대상의 인출본은 책1이 앞표지를 이어 요해서-권수제-요해정보-본문-권미제-뒷표지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책2의 경우는 권4의 권수제 앞부분에 변상도가 위치하며, 7권의 권미제 다음에 발문-시주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앞표지는 감지(紺紙)에 능화문이 새겨진 후지로 최근 개장하였으며, 왼쪽 부분에는 닥종이에 ‘묘법연화경권일~삼(妙法蓮華經卷一~三)’과 같이 최근 묵서된 제침이 있다. 1책의 권수제 앞 부분에는 ‘묘법연화경요해[서](妙法蓮華經要解[序])’라는 요해서문의 제목이 표기되어 있으며, 그 다음 행에는 ‘전주복주상[생선원]사조사문 급남 찬(前住福州上[生禪院]嗣祖沙門 及南 撰)’이라는 요해서문의 찬술정보가 훼손된 형태로 남아있다.

권수제 및 권미제는 묘법연화경권일(妙法蓮華經卷第一)·묘법연화경권일(妙法蓮華經卷第一)처럼 경전이름+권+제(第·第)+권차의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권수제 다음 행에는 ‘온릉개원련사비구 계환 해(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라는 요해 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그 다음의 본문에는 구결(口訣)이 거의 전체 부분에 묵서되어 있으며, 두주(頭註) 형태와 한글 현토도 일부분에 먹으로 필사되어 있다. 판심제는 ‘법일 일(法一 一)’과 같이 약경명+권차+장차의 형태로 표기되어 있다. 책2의 권수제 앞부분에는 ‘묘법연화경 변상(妙法蓮華經 變相)’이라는 변상제목을 이어 변상도가 인출되어 있고, 변상도의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히 복위합니다. 돌아가신 우왕께서 선가를 타시고 서방정토에서 태어나길 염원합니다. 이에 화공에게 변상도를 그려 관각하여 유통하는 이는 시주 정씨입니다(特爲亡禩王昇仙駕超生淨土之願倩畫變相鈔梓流通者施主鄭氏)’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으며, 2번째 변상도의 앞면 하단에는 ‘각수 현이 새겼다(玄刀)’라는 내용도 표기되어 있다. 권미제 다음 행에는 1405년 음력 3월 하순 양촌(陽村) 권근(權近)이 원판의 간행정보를 밝혀놓은 발문이 있으며, 발문을 이어 시주정보가 새겨져 있다.



표지



요해서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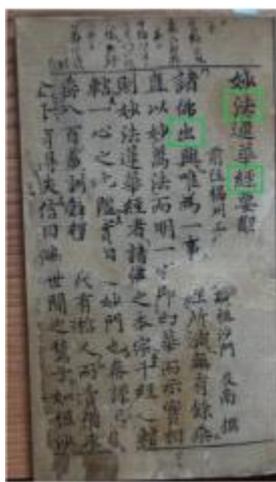
변상도(책2 앞부분)



발문 및 시주정보(권7, 제53장)

조사대상본의 인출지에는 발문이 없으나, 자획(字劃)과 변란 부분이 부분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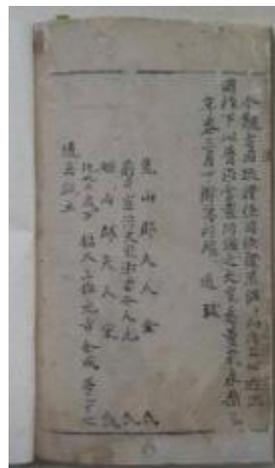
완결(剋缺)을 보이므로 후쇄본으로 짐작된다. 표지도 최근 선장본으로 개장되었고 제첩도 최근의 것으로 판단되며, 본문과 변상도의 일부도 훼손되어 후대 수리된 흔적을 보인다. 그리고 불복에서 수습하여 개장하는 과정에서 인출시기가 다른 일부의 장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다. 더구나 조사대상본의 요해 서문은 전체 2장 가운데 제1장이 보물 제1306호로 지정된 제1장과 비교하여 서체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보물 제961-1·2호 및 제971호 등에서 확인되는 시주정보 가운데 ‘대공덕주 서원길(大功德主 徐元吉)’이라는 내용이 새겨진 권7의 54장 이하 장이 탈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가운데 조사대상본의 요해서문 제1장은 후대 보각경관의 인출본인지 다른 경관 종류의 인출본인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새로운 원천 자료의 발견으로 해명되길 기대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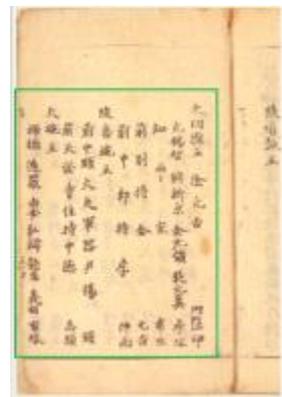
법장사 소장본
요해서



직지사 소장본
제1장 앞면



법장사 소장본



원명사 소장본
시주정보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대체로 온전하며, 거의 완질본의 상태이기도 하다. 특히 동일 경관에서 인출한 권1~3은 현재까지 보물 제1306호의 경우에서만 확인되므로, 자료적 희소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문헌자료

보물 제1306호 『묘법연화경』 권1~7 2책(직지사 소장)

박광연, 「고려후기 '法華經 戒環解'의 유통과 사상사적 의미 : 고려후기 天台宗의 사상 경향에 대한 일고찰」 『佛敎研究』 38, 韓國佛敎研究院, 2013.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지정사례

보물 제961-1호 『묘법연화경』 권4~7(원명사 1988년 12월 지정)

보물 제961-2호 『묘법연화경』 권4~7(법화사 2013년 11월 지정)
 보물 제961-3호 『묘법연화경』 권4~7(동화사 2014년 01월 지정) 미확인
 보물 제971호 『묘법연화경』 권5~7(국립중앙박물관 1988년 12월 지정)
 보물 제1306호 『묘법연화경』 권1~7 2책(직지사 2001년 01월 지정)
 보물 제1607호 대구 동화사 목조약사여래좌상 복장전적(동화사 2009년 02월 일괄 지정, 1417년 후쇄의 『묘법연화경』 권4~7)



○ 현 상

서지목록기술 * 목록작성 기준 : 한국목록규칙 제4판, 한국도서관협회, 2003

妙法蓮華經. 卷 1-7 / 鳩摩羅什 譯 ; 戒環 解. -- 木板本. -- [全羅道] : [無等山安心寺], 太宗 5(1405).

7卷 2冊 : 四周單邊 半郭 21.5×13.5 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26.8×16.1 cm

楮紙

線裝

冊1: 卷1-3 ; 冊2: 卷4-7

跋: 永樂三年(1405)春三月下澣陽村權近跋

○ 내용 및 특징

통칭 ‘법화경’으로 약칭하는 조사 대상본 『묘법연화경』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의 한역을 계환(戒環)이 요해(要解)한 주해본을 저본(底本)으로 조선 태종 5년(1405) 전라도 고산 안심사에서 판각하여 간행한 목판본이다. 권수(卷首)에는 급남(及南)의 서문과 ‘濶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어 저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에는 묵서(墨書)로 쓴 구결(口訣)과 두주(頭註)가 있으며 권말에 있는 권근(權近, 1352~1409)의 발문에 조선 초기 명필가로 이름난 성달생(成達生)과 성개(成概) 형제가 쓴 정서본으로 판각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발문에 이어 토산군(兎山郡) 부인(夫人) 김씨(金氏), 전사헌시사 송결(前司憲侍史 宋潔)의 처(妻) 영인(令人) 원씨(元氏) 등의 시주자(施主者) 명단이 있다. 이 자료는 7권 2책으로 제작된 완질본으로 권4에는 변상도가 6면에 걸쳐 수록되어 있으며 판각도 정교하다. 특히 안심사판 『묘법연화경』의 변상도 안에 그려져 있는 신중상(神衆相)은 구도가 크고 정교한 판각으로 다른 법화경에 있는 변상도 보다 미술사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능화문이 들어있는 감지(紺紙)로 장

황된 것은 근래에 개장한 것으로 보이며 제침의 글씨도 품격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또한 冊1의 前 5장이 배접되어 있고 冊2에도 일부면에 손상이 있어 배접된 상태이며 전반적인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간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권근의 발문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조선 초기 불경의 간행 방식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등 서지학과 불경 연구에 있어 참고가 될 만한 자료로 평가된다.

○ 지정사례

지정번호	지정명칭	권책수	지정일	소장자
보물 961-1호	妙法蓮華經 卷四~七	4권 1책	1988.12.28	경남 김해시 원명사
보물 961-2호	妙法蓮華經 卷四~七	4권 1책	2013.11.13	부산 법화사
보물 961-3호	妙法蓮華經 卷四~七	4권 1책	2014.01.20	대구 동화사
보물 971호	妙法蓮華經 卷五~七	3권 1책	1988.12.28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306호	妙法蓮華經	7권 2책	2001.01.02	대구 직지사
보물 1607호	대구 동화사 목조약사여래좌상 복장전적 (大邱 桐華寺 木造藥師如來坐像 腹藏典籍) 妙法蓮華經 卷四~七	4권 1책	2009.02.23	대구 동화사

전라도 안심사에서 태종 5년(1405)에 간행한 묘법연화경의 지정 사례는 위 표와 같다. 이 중에서 완질의 형태를 갖춘 것은 보물 1306호 직지사 소장본이며 직지사 판본의 경우에도 급남(及南) 화상(和尚)의 서문 앞에 변상도가 있으나 직지사본을 비교 조사한 결과 심의 대상본은 직지사본에 비하여 변상도 일부 등에 결실(缺失)이 있는 등 직지사본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완질의 현존본이 없는 상황에서 자료적인 가치는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書誌事項

妙法蓮華經 卷1-7 / 鳩摩羅什(344-413) 譯 ; 戒環(宋) 解 ; 成達生(1376~1444), 成概(?~1440) 書. -- 木板本. -- [全羅道 雲梯縣] : [兜率山 安心社], [太宗 5(1405) 推定].

7卷2冊(417장) : 上下單邊, 上下欄高 21.8cm 內外, 無界, 10行20字, 無魚尾 ;

26.8×16.1cm. 楮紙. 線裝.

卷頭題: 妙法蓮華經

卷末題: 妙法蓮華經

板心題: 法

跋 文: 無上妙法取譬蓮華授記證果固無漸次乃諸佛/ 之本宗也戒環疏解精深簡切觀者
瞭然易曉其/ 義故歷代奉此法者皆重之今曹溪宗大選信希/ (6字隔間)等信奉此經誦持
既久其於/ 無量義處固已深造而妙悟矣將推利澤廣霑無/ 垠欲以中字繕寫利[刊]行使其
者老至欲觀而眼昏/ 者皆得便於披閱其設心亦可謂弘矣前大護軍/ 成君達生時喪嚴君方
在衰經間師此志欲爲先/ 君追福乃與弟概同書是經道人信文持往全羅/ 道雲梯縣兜率山
安心社倩工鉸梓以壽其傳自// 今觀者因疏證經因經證果繼繼而出上以延洪/國祚下以普
溱含靈功德之大豈易量哉永樂三(을유, 태종 5, 1405)/ 年春三月下澣陽村權近
(1352-1409)跋

施主秩: 兎山郡夫人金氏/ 前司憲侍史宋潔妻令人元氏/ 礪山郡夫人宋氏/ 岱三 成万
福大 上佐 元吉 金成 彗尔之/ 隨喜施主// 大功德主 徐元吉 內隱伊/ 元錫智 韓新京
金元鎮 裴元眞 李玆/ 知印宋扁生/ 前別將金元吉/ 前中郎將李伸雨/ 隨喜施主/ 前中
顯大夫軍器尹楊鎮/ 前天涯寺住持中德 志頰/ 大施主/ 禪德 達嚴 志安 弘辯 能惠 義
明 希珠// 前靈泉寺住持 大選 慶喜/ 同願施主 惣持宗大選 慈玉/ 禪和 德恬 芝粹
尙義/ 禪德 覺禪 鏡明 一沉 信然/ 禪師 覺雲 信了 行禪 信玄/ 大化主 禪師 明會/
前正山寺住持 大選 信沉/ 前五色寺住持 禪師 仁坦/ 前覺林寺住持 禪師 行湖/ 勸緣
墨書: 上段部 頭註 및 本文部 口訣

○ 현 상

법장사 소장본은 2015년 현 주지스님 퇴후 스님의 은사 수혜 큰스님으로부터 전
승된 경전이라 함.

현재 표지는 최근에 개장되고 수리되었다. 감지(紺紙)에 능화문이 새겨진 후지로
최근 개장하였으며, 왼쪽 부분에는 닥종이에 최근 묵서된 제침이 있다. 서문과 본
문의 일부 장이 훼손되어 수리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좋은 상태임.



묘법연화경 요해



표지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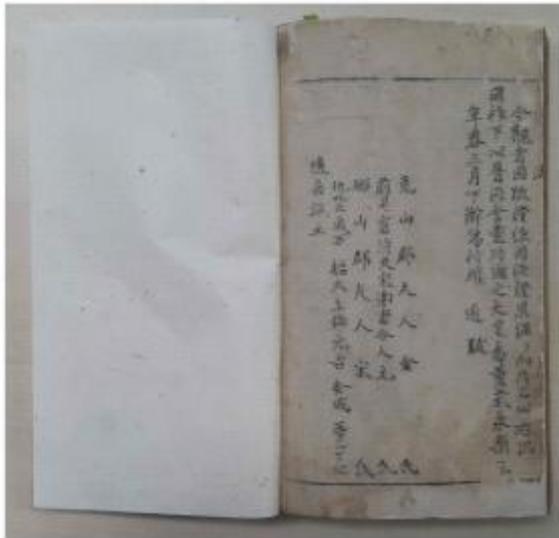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범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화엄경·금강경과 더불어 불교의 대표적 대승경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화경(法華經)’으로 약칭하여 불리고 있다. 이 경전의 원서명은 “saddharma-pundarika-sutra”로서 그 의미는 ‘백련꽃과 같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경전’으로 풀이한다.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묘법연화경』의 대부분은 요진(姚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한 역본에 송(宋)의 계환(戒環, ?~?)이 1126년(고려 인종4, 靖康1)년에 주해(註解)한 7권본이다. 계환의 주해본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통된 것은 문장이 간결하여 비교적 이해하기 쉬웠던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략 150여종의 판본(版本)이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판본의 계통은 참여 주체나 간행 수단에 따라 크게 성달생판본계(成達生版本系)와 갑인자판본계(甲寅字版本系), 을해자판본계(乙亥字版本系), 정희왕후판본계(貞熹王后版本系), 간경도감판본계(刊經都監版本系) 등으로 나누어진다.

조사대상 『묘법연화경』은 구마라집(鳩摩羅什) 한역본으로 1405년(태종 5)에 당시의 명필이었던 성달생(成達生, 1376~1444)과 성개(成概, ?~1440) 형제가 선친의 명복을 기원할 목적으로 서사(書寫)한 정서본을 판하본(板下本)으로 하여 도인신문(信文, ?~?) 등의 주관 아래 전라도 운제현(雲梯縣) 도솔산(兜率山) 안심사(安心社)에서 간행된 불경이다.

상책은 권1~권3, 하책은 권4~권7로 구성되었다. 요해 서(了解序) 2장 및 권1(62장), 권2(68장), 권3(59장), 권4(60장), 권5(57장), 권6(57장), 권7(52장) 그리고 발문과 시주질 2장으로 구성되었다. 권수에는 변상도가 없으나 권4의 앞에 ‘묘법

연화경 변상(妙法蓮華經 變相)’이라 하고 변상도를 그렸고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히 복위합니다. 돌아가신 우왕께서 선가를 타시고 서방정토에서 태어나길 염원합니다. 이에 화공에게 변상도를 그려 판각하여 유통하는 이는 시주 정씨입니다(特爲亡禍王昇仙駕超生淨土之願倩畫變相鉸梓流通者施主鄭氏)’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권근 발문 / 시주질



변상도 / 권4 권수

판식의 특징을 보면 일반적으로 고려 권자본(卷子本)에서 나타나는 형식을 답습하고 있으며, 광곽의 상하간은 21.8cm이다. 반엽에 10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한행의 경문은 20자씩으로 배자되어 있다. 변란이 상하단변인 까닭에 중앙에 별도의 판심부는 마련되지 않고, 또한 어미도 없다. 다만 판심제만은 위에 ‘법’(法)이란 약서명이 표기되어 있다.

본문에는 구결(口訣)이 거의 전체 부분에 묵서되어 있으며, 두주(頭註) 형태와 한글 현토도 일부분에 먹으로 필사되어 있다. 권미제 다음 행에는 1405년 3월 하순 양촌(陽村) 권근(權近)이 원판의 간행정보를 밝혀놓은 발문이 있으며, 발문을 이어 시주정보가 새겨져 있다.

권7의 말미에 있는 권근의 발문은 다음과 같다.

無上妙法取譬 蓮華授記證果固無漸次 乃諸佛之本宗也 戒環疏解精深簡切 觀者瞭然 易曉其義故歷代奉此法者皆重之 今曹溪宗大選信希 等信奉此經 誦持既久其於「無量義處 固已深造而妙悟矣 將推利澤廣霑無」 垠欲以中字繕寫利行 使其耆老至欲觀而眼昏」者 皆得便於披閱 其設心亦可謂弘矣 前大護軍 成君達生時喪嚴君方在衰經間師 此志欲爲先 君追福 乃與弟概同書是經 道人信文持往全羅 道雲梯懸樂兜率山 安心杜倩工鋟梓 以壽其傳 自今觀者 因疏證經因經證果繼繼而出上 以延洪 國祚下 以普滲含靈功德之大 豈易量哉 永樂三年春三月下澣 陽村權 近 跋

권근 발문

높음이 없는 오묘한 법이 「妙法蓮華經」만 한 것이 있겠는가. 기록을 주고 因果를 證驗함이 실로 漸次가 없으니 이는 모든 佛法의 근본이요 으뜸인 것이다. 戒環 스님의 註解는 精深하고 簡切하여 讀者들이 쉽게 그 뜻을 깨우칠 수 있었으므로 역대로 이 법을 받드는 자들은 모두 중히 여겼다. 오늘날 曹溪宗의 大選인 信希 스님 등이 이 經을 정성스레 信奉하며 讀誦하고 守持한지 이미 오래 되어 그 한량없는 뜻까지도 참으로 조예가 깊고 妙한 진리도 깨우쳤다. 장차 利로운 혜택이 넓게 번지고 끝이 없기를 기대하며 중간 글자로 繕寫하고 [刊]行하여 耆老들도 볼 수 있고 눈이 어두운 자들도 모두 펼쳐 볼 수 있도록 하였으니, 참으로 그 마음의 배움이 크도다. 大護軍을 역임한 成君 達生이 마침 先親의 喪을 당하여 巴야흐로 衰經(喪服)을 입고 있을 사이에 成君이 이런 뜻으로 先親을 위하여 冥福을 빌고자 이에 동생 概와 함께 이 經을 썼으며, 道人 信文이 全羅道 雲梯懸 兜率山 安心社에 住持하면서 工人들을 초청하여 木板으로 새겨 그 傳함을 오래토록 하였다. 지금부터 讀者들이 註解로써 經을 증명하고 經으로써 課業을 증명함이 계속되어, 위로는 國祚를 크게 드날리며 아래로는 含靈까지도 넓게 스미게 한다면 그 功德의 큼을 어찌 쉽게 헤아릴 것이겠는가. 永樂 3(태종 5, 1405)年 春3月 下澣에 陽村 權近(1352~1409)은 발문하다.

역문

조사대상 『묘법연화경』은 전라도 운제현 도솔산 안심사에서 간행된 목판본의 인출본이 현재 희소하게 전한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 문헌자료

정왕근,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박광연, 「고려후기 '法華經 戒環解'의 유통과 사상사적 의미 : 고려후기 天台宗의 사상 경향에 대한 일고찰」 『佛敎研究』 38, 韓國佛敎研究院, 2013.

○ 지정사례

보물 제961-1호 『묘법연화경』 권4~7(원명사, 1988.12.28 지정)

보물 제961-2호 『묘법연화경』 권4~7(법화사, 2013.11.13 지정)

보물 제961-3호 『묘법연화경』 권4~7(동화사, 2014.01.20 지정)

보물 제971호 『묘법연화경』 권5~7(국립중앙박물관, 1988.12.28 지정)

보물 제1306호 『묘법연화경』 권1~7 2책(직지사, 2001.01.02 지정)

6. 고려 천수관음보살도(高麗 千手觀音菩薩圖)

가. 심의사항

‘고려 천수관음보살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고려 천수관음보살도’에 대한 국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6.8.8), 관계전문가 조사(’17.11.2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9차 회의(’18.11.8)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8.11.22~’18.12.24) 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고려 천수관음보살도(高麗 千手觀音菩薩圖)
- 소유자(관리자)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176.0×72.8, 화면 93.8×51.2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조성연대 : 고려 14세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불화는 현재 국내 유일의 고려시대에 제작된 천수관음도이다. 고려시대에 크게 성행하였던 수월관음도의 연장적 개념으로 천수관음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며, 법화경 보문품의 제난구제의 내용과 화엄경의 입법계품의 내용까지 수용한 양상

을 보여준다. 화기는 없으나 보살의 얼굴과 세부표현, 예리한 필선과 금니 및 장식적인 표현 등 고려불화의 양식 특징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불화는 고려불화가 지니는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지니며, 국내 유일의 <고려 천수관음보살>라는 점에서 희소성도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리움 소장품의 <천수관음보살도>는 종교화로서 동아시아에서 제작된 천수관음보살도 중에서도 도상적·양식적으로 고려시대 제작된 불교회화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작품으로 희귀성과 시기성, 그리고 그 예술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리움본 천수관음살도의 도상은 천수관음·선재동자·수락난·보타락가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의경전은 『천수경』, 『화엄경』 입법계품, 『법화경』 보문품 여러 경전의 중요한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도상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한 화면에 교화와 실천위주 관음신앙과 제난구제라는 현세이익적인 관음신앙을 절묘한 구성과 배치로 종교성과 예술적 감성을 극대화 시켰다.

이 불화는 국내 소장 유일의 고려시대 천수관음보살도로서도 중요하며, 도설 내용상으로도 중요하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28部衆과 功德天, 婆藪天, 餓鬼, 窮叟 등의 권속들과 함께 묘사되는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대표적인 관음신앙인 『화엄경』의 입법계품의 장면인 선재동자가 관음보살에게 청문하는 장면과 『법화경』 보문품의 관음보살의 諸難救濟 장면을 선별적으로 배치하여, 관음신앙의 本質과 方便을 모두 시각화한 작자의 독창성이 돋보인다.

현재 화면이 탈·변색되고 손상된 부분이 곳곳에 있어 원래의 모습을 정확히 유추할 수 없지만, 그윽한 감색의 바탕색 위에 맑고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선묘를 조화롭고 오묘하게 배풀어 고귀한 고려불화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 특히 천수관음보살도는 다른 존격의 도상에 비해 11면 千手라는 많은 얼굴과 팔, 그리고 수많은 지물을 정확하게 표현해야하기 때문에 자칫 난잡하고 균형 감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작품은 존상의 이지러짐 없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형태미와 세련된 조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고, 장신구와 지물, 바위와 연화 대좌 등 세부 표현과 필력도 섬세하고 뛰어나다. 고려 불화는 전 세계적으로 희귀할 뿐만 아니라 작품성도 인정받고 있다. 이 작품은 高麗 유일의 천수관음보살도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현 상

현재 족자로 장황되어 있는데 광배의 형태와 화면 하단의 선재동자의 모습으로 보아 표구과정에서 화면의 가장자리가 약간 잘려나간 상태이다. 제작된지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가로로 꺾임현상이 군데군데 보이고, 전반적으로 바탕재의 열화와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 채색층이 박락된 부분도 여러군데 눈에 띈다. 전체적으로 어둡게 변색되어 있어 필선 등이 명료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도상은 온전한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천수관음보살은 천수천안관세음보살(千手千眼觀世音菩薩)이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손이 천개이고 손 마다 눈이 달려있는데 이는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의 자비력을 최대한 확장한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비관음(大悲觀音)이라고도 일컫는다. 천수관음의 도상은 대부분 11면의 얼굴과 40 혹은 42개의 큰 손으로 각기 다른 지물을 잡고 있고 이들 사이에 눈이 그려진 작은 손들이 뺨뺨하게 나있는 형상으로 표현된다. 자비의 화신으로 일컬어지는 관음보살신앙은 모든 불교국가에서 가장 많이 제작되고 신앙되어지는 보살이다. 『삼국유사』 「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에 눈이 먼 아이가 분황사에 그려진 대비관음벽화를 예배하였더니 눈이 떠졌다는 설화도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천수관음상의 성행을 짐작할수 있으나 실제 작품의 수는 많지 않다. 특히 불화로 그려진 천수관음도는 고려시대의 것으로는 본 리움소장 천수관음도가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예이고, 조선 초기 불화로써는 일본 지코지(持光寺) 소장 천수관음도(1532년)가 알려져 있다.

본 리움소장본은 화면 가운데 바위 위에 놓인 연화좌에 관음보살이 정면관을 취하고 앉아 있으며 화면을 가득 채운 원형의 광배 안에는 천수가 표현되어 있다. 천수는 지물을 든 44개의 大手와 각 대수 사이에 눈만 그려진 小水가 배치된 형상이다. 머리 위로 11개 얼굴이 새겨진 보관을 쓰고 있으며, 광배 정상에는 원형 안에 아미타불이 표현되어 있다.

관음보살은 둥근 얼굴에 활처럼 휘어진 눈썹과 반개한 눈, 작은 입과 수염이 표현되어 있는데 전형적인 고려 불화에서 보여지는 공통된 얼굴 표현 양식을 보여준다. 또한 각종 지물을 잡은 손목에는 금팔찌가 채워져 있으며, 관음의 천의에도 금니로 꽃무늬가 가득 새겨져 있고 대좌 표면에는 연잎 마다 영락으로 장식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금니의 장식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준다.

화면 왼쪽 아래에는 중년부인처럼 표현한 선재동자가 무릎 꿇고 합장한 채 관음보살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모습과 함께 울퉁불퉁하게 표현한 바위와 꽃 등이 표현되어 있어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찾아간 관음의 거주처인 보타락가산의 정경을 표현하였다. 한편 그 맞은편은 화면 오른쪽 아래에는 금강산에서 머리를 아래로 향해 거꾸로 떨어지는 사람과 관음의 자비력을 상징하는 큰 손이 떨어지는 사람을 받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이는 『법화경』 「보문품」의 타락난(墮落難)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이처럼 이 천수관음도는 밀교적 도상인 천수관음보살 도상과 법화경 및 화엄경의 일부 내용이 결합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고려시대에 많이 제작된 수월관음도에서 관음의 모습만 천수관음으로 표현하였고, 세부 표현 양식은 전형적인 고려불화의 양식을 보여준다.

□

○ 현 상

현재 화폭에 上下 축이 있고 상축에 풍대가 달린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화면 좌측 아래 부분에 그려진 선재동자의 모습이나 천수천안이 그려진 관음보살의 둥근 광배의 형태로 미루어 보아 원래 제작 당시의 화면에서 바깥쪽이 세로로 약간 잘려나간 듯하다. 고려시대의 회화작품인 만큼 화면이 전체적으로 어둡게 변색되긴 하였으나 존상의 형태와 섬세한 표현을 잘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 내용과 특징

리움 소장의 <千手觀音菩薩圖>는 千手千眼의 十一面을 한 관음보살이 정면을 향해 암반 위 연화대좌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관음보살을 향해 합장한 선재동자를 함께 그렸다. 천수관음은 관음보살의 자비성을 극대화시킨 존상으로, 문헌기록을 통해 천수관음을 그린 그림이 통일신라 때부터 제작되었고 고려시대에도 망자의 追福과 왕실의 안녕, 호국 등 개인적·국가적 목적으로 신앙되고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고려시대의 천수관음보살도는 이 작품이 유일하다. 고려시대의 채색불화가 160여 점이고 그 중 흔히 ‘水月觀音圖’라도 부르는

그림이 단일 도상의 작품으로서는 수적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리움 소장의 <천수관음보살도>는 희소성을 띤 도상으로 가치가 높다.

화면 속 천수관음보살은 정면향의 얼굴 양쪽으로 옆모습의 얼굴이 각각 표현되어 3면이 그려졌고 그 위로 5면, 2면, 1면이 그려져 11면을 표현하였다. 손은 大手가 총 41종 44수로, 중앙부의 정면에 합장을 한 손과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선정인을 결한 손, 그리고 머리 위로 아미타화불을 높이 올려 받든 두 손을 제외하고 양쪽으로 각각 다양한 지물을 든 손이 19수씩 표현되었다. 오른손은 위로부터 月精摩尼手, 寶鏡手, 金輪手, 錫杖手, 俱尸鐵鉤手, 寶鉢手, 金剛杵手, 伐折羅手, 紅蓮華手, 靑蓮華手, 寶戟手, 寶螺手, 寶篋手, 寶箭手, 楊柳枝手, 數珠手, 軍遲手, 施無畏手, 왼손은 위로부터 日精摩尼手, 宮殿手, 防牌手, 如意珠手, 髑髏杖手, 白拂手, 寶印手, 寶劍手, 寶鐸手, 白蓮花手, 紫蓮花手, 鉞斧手, 五色雲手, 寶經手, 寶弓手, 葡萄手, 羅索手, 寶瓶手, 玉環手로 보고 있다.(송은석, 「高麗千手觀音圖圖像에 대하여」, 『호암미술관연구논문집』 4, 호암미술관, 1999) 그 뒤로 원형의 광배에 붉은 주선으로 작은 손들을 치밀하게 그려 넣고 각 손마다 눈을 표현하였다.

多面多臂의 천수관음은 밀교의 도상이지만 합장한 선재동자의 등장은 이 관음보살도가 선재동자의 구법 여정과 관련된 『華嚴經』 「入法界品」의 내용을 함께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월관음도와 마찬가지로 선재동자가 관음보살을 만나기 위해 찾은 관음보살의 住處인 補陀洛迦山の 암산을 이 그림의 배경으로 한 점도 특징적이다. 또한 화면의 우측 아래 부분, 즉 선재동자의 맞은편에는 金剛山에서 떨어지는 사람과 이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관음보살의 영험한 손이 표현되어 『法華經』 「普門品」의 내용 중 「墮落難」을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천수관음에 『화엄경』과 『법화경』적 요소가 결합된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구성은 중국과 일본에서 제작된 천수관음보살도가 婆藪仙과 功德天, 二十八部衆, 餓鬼와 窮叟 등 다양한 권속을 표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전통을 보이고 있어 고려적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다.

표현기법에 있어서는 방형에 가까운 둥근 얼굴에 근엄한 표정, 수염의 표현과 먹선으로 그은 입술선 등은 전형적인 고려불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천수관음의 장신구와 지물, 치마의 문양, 섬세하고 화려한 대좌, 암반의 표현에 쓰인 금니의 적절한 활용이 압권이다. 특히 금속성의 장신구나 지물에 금니로 선을 강조한 점은 재료적 속성을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시각적 효과도 증진하고 있으며, 암반의 윤곽선을 중심으로 한 금니의 섬세한 표현은 고려시대 채색산수화의 양식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관음보살의 머리에 두른 아름다운 금속 띠나 지물인 금강저와 정병 등 공예품의 표현 역시 섬세하고 치밀하여 제작자의 역량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관음보살의 양쪽 팔위로 드리워진 투명하고

넓은 띠로 된 천의 자락의 표현이 특이하다.



그림 149. 고려 천수관음보살도

□

○ 현 상

리움본 천수관음보살도는 1989년 가나화랑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며, 고려 후기에 제작된 작품이다. 주지하다시피 천수관음보살은 천 개의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응시하고 천 개의 자비로운 손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로, 흔히 천수천안관음이라고도 부른다. 관음보살의 千手와 天眼은 관음의 자비력을 최대한 강조한 것으로, 이로 인해 천수관음을 大悲觀音으로 부르기도 한다. 산스크리트어로는 “Sahasrabhuja - sahasākṣa - avalokiteśvara”이며, 한자로 음역할 때는, 千手天眼觀世音·天眼千臂觀世音·千手聖觀自在·千臂觀音·千光觀自在·天眼千臂千足千舌千臂觀自在 등 다양하게 불린다.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은 천 개의 팔과 천 개의 눈을 다 표현해야 하지만, 모두 다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지도 적지도 않으면서 불상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길수인 30의 손과 40의 눈을 나타내고 그 위에 本尊 상의 두 손과 두 눈을 합하면 42手와 42眼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의 천수관음신앙은 통일신라 초에 관련경전이 수용된 이후 천수관음 신앙이 널리 성행하였고, 이에 따른 천수관음상의 조성도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기록상으로는 신라 때 분황사 左殿의 북벽의 천수대비 벽화가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며, 굴불사지 사면불상 중 북면에는 천수관음은 아니지만 11면 6비의 變化 觀音菩薩이 선각으로 새겨져 있다. 고려시대 작품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과 프랑스 파리 국립기메동양미술관에 각 1구씩 소장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1구가 남아 있으며, 그림으로는 고려 후기 작품인 리움미술관 소장 천수관음보살도와 조선 1532년에 제작된 일본 持光寺(지코지) 천수관음보살도가 전하고 있다. 지코지 천수관음보살도는 리움본 천수관음보살도의 도상을 잘 계승하고 있는 작품이다. 천수관음 신앙은 크게 성행하였으나, 그에 준하는 조상 사례는 이렇듯 매우 드문 편이다. 아마도 조상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신앙보다는 천수다라니 자체를 더욱 신봉하였던 것이 조상활동을 제한했던 요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천수관음상의 소의경전은 『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呪經』(智通 譯), 『千光眼觀自在菩薩秘密法經』(唐 蘇縛羅釋), 『千手千眼觀世音菩薩姥陀羅尼身經』(菩提流志 譯),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不空 譯), 『金剛頂瑜伽千手千眼觀自在菩薩修行儀軌經』(不空 譯),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伽梵達摩 譯)등이다. 『千光眼觀自在菩薩秘密法經』(唐 蘇縛羅釋)에는 천수관음상의 특징과 지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불상이나 불화로 표현될 때는 지물의 위치나 순서 등이 경전의 내용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천수관음보살은 도상으로 표현될 때는 보통 11면 40비 또는 11면 42비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면 42비로 표현된 경우도 많이 있다. 리움미술관 천수관음보살도는 11면의 얼굴과 44개의 大手로 구성되어 있고, 둥근 광배에는 수많은 작은 손과 눈을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44개의 大手는 頂上化佛手·合掌手·定印手를 비롯하여, 오른쪽(향좌)에는 위에서 아래로 月精摩尼手·化佛手·寶鏡手·金輪手·錫杖手·俱尸鐵鉤手·寶鉢手·金剛杵手·拔折羅手·紅蓮花手·寶戟手·寶螺手·寶篋手·寶箭手·楊柳枝手·數珠手·軍遲手·施無畏手 등 19手を 나타내었으며, 왼쪽(향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日精摩尼手·宮殿手·傍牌手·如意珠手·觸髻杖手·白拂手·寶印手·寶劍手·寶鐸手·白蓮花手·紫蓮花手·鉞斧手·五色雲手·寶經手·寶弓手·葡萄手·縑索手·寶瓶手·寶環手 등 19手を 좌우 대칭으로 표현하였다. 리움본 천수관음보살도의 얼굴은 11면을 갖추고 있는데, 『千光眼經』 “정상에 십일면을 갖추고 있다” 라든가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십일면을 구족하고 있다.” 등과 같은 경전을 근거로 들 수 있다.

화면의 구성은 둥근 광배를 등지고 그 중심에 관음보살 연꽃대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대좌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단은 백련이며 중단은 바위, 상단은 홍련으로 구성하여 마치 바위가 백련에서 피어나는 듯한 극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중단을 기묘한 바위대좌로 구성한 것은 이곳이 관음보살의 常住處인 보타락가 산임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한 것이고, 그것은 화면 좌측 아래쪽 합장하고 있는 선재동자와도 절묘하게 연결된다. 관음보살의 머리에는 문양이 시문된 금띠 형태의 보관을 착용하였다. 얼굴은 양감이 풍부하고 이목구비는 단정하게 묘사하였다. 화면이 변색되어 어둡지만 붉은 빛이 도는 곱상한 피부색과 살집이 오른 이목구비는 고려 후기 불화의 양식적 특징을 잘 담고 있다. 신체의 윤곽선은 옅은 먹 선으로 잡았으며, 윤곽선을 따라 다시 붉은색 계통으로 얇게 바림질하여 입체감을 부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붉은색 천의와 치마를 걸쳤으며, 표면에는 금물로 점문과 꽃무늬를 시문하였다. 천의는 가슴의 중앙에서 ‘T’자형으로 교차시켜 멋을 부렸는데, 고려시대 보살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착의방식이다. 연꽃대좌는 3중의 올림연꽃으로 표현되었으며, 꽃잎마다 섬세한 금니로 연맥을 섬세하게 표현하였고, 표면에는 꽃잎모양을 따라 한 겹 더 장식모양을 덧그리고, 그 위에 법륜 형태의 연주문을 올렸다. 이와 같은 연꽃 대좌는 조각 작품에서도 확인되는데, 즉 예산 수덕사에 남아 있는 고려 후기 연꽃좌도 거의 같은 모습이다.

화면의 좌측하단에는 무릎을 구부리고 합장하고 있는 선재동자를 배치하여 『大方廣佛華嚴經』 「入法戒品」의 내용을 도상화하였고 그 반대쪽에는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의 제난구제의 장면 중 하나인 바위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큰 손바닥이 받는 ‘墮落難’ 장면을 도설하였다. 위신력이 극대화된 천수관

음보살을 중심으로, 『화엄경』의 중생교화와 실천위주의 관음신앙과 재난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현세 이익적인 관음신앙을 한 화면에 담아 불교의 본질과 방편을 모두 담았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관점의 주제를 좌우에 배치시켜 화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더불어 좌우 화면의 구도적 안정감도 동시에 확보하였다.

○ 참고문헌

- 송은석, 「高麗 千手觀音圖 圖像에 대하여」, 『호암미술관 연구논문집』 4, 1999.
김정희, 「한국의 千手觀音 信仰과 千手觀音圖」, 『정토학 연구』 17, 한국정토학회, 2012.

07.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가. 심의사항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7.26)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8.7.16)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10차 회의('18.12.13)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8.12.26~'19.1.28)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28호(2016.7.7 지정)
- 명 칭 :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묘덕사
- 소재지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산단4로 98-69
- 수 량 : 3권 1첩
- 규 격 : 12.5×5.5cm(전곽 9.6×42.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板本; 袖珍本)
- 형 식 : 절첩장(折帖裝)
- 조성연대 : 1425년(세종 7)

라. 조사자 검토 의견

○(지정 가치 있음)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은 신비하고 영험한 힘을 지니고 있어 이 經을 書寫(刊行)·受持·讀誦하면 災厄을 없앨 수 있다는 다라니의 신통력을 설파한 밀교의 경전이다.

지정신청본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은 세종 7(1425, 洪熙 乙巳)년에 소매에 넣어 다닐 수 있도록 휴대용으로 간행된 3권 1첩의 木板 袖珍本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판본이며, 卷上에는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이 수록되고 卷中에는 <佛頂心觀世音菩薩療病大催產方>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下에는 <佛頂心觀世音菩薩救難神驗>이 수록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은 세종 7(1425)년에 지방의 호족이 호신용으로 관각하여 휴대하였던 袖珍本으로, 조선시대 초기의 불교학연구에는 물론 木板印刷文化 및 袖珍本의 정황 등을 窺見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만큼 서지학연구에도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정신청본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根據 基準

지정신청본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과 유사한 조선시대의 판본은 국가문화재 보물 제1108호와 제1129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동일한 판본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지정 가치 있음)

<지정 가치>

신청대상의 묘덕사 소장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3권 1첩은 1425년(세종 7) 8월 경 장사감무(長沙監務)를 지낸 전직 관료와 함중현의 객씨 및 불교계 등 교속(敎俗)이 협력하여 조성한 원판을 원천텍스트로 삼아 후대 인출하여 절첩본으로 만든 기록유산이다. 앞뒤 표지가 최근 개장되었으며, 본문 글자와 상·하 변란의 일부가 마모·훼손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 신청대상본은 본문의 인출상태와 보존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며, 세종 때 출판인쇄문화의 역량, 그리고 해당 경판 조성 주체들의 실체·현실인식·불교신앙 등 당대의 역사·문화적인 성격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를 담고 있다. 아울러 신청대상본은 완질의 휴대용 수진본으로 15세기 초기 조성된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의 새로운 판종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지표로서의 자료

적·학술적 회소가치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신청대상의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3권 1첩을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근거 기준>

조사대상의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3권 1첩은 목판 수진본으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국보·보물 등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 기록유산이다.

그러면서 완질본으로 1425년 조성된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의 원형을 진단·복원할 수 있는 원천텍스트로서의 자료적 회소가치와 학술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더구나 조사대상본보다 후대인 1485년(성종 16) 조성된 판본의 경우도 1991년 9월 보물 제1108호로 지정된 상태에 있다. 때문에 조사대상본은 현재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인 가치와 근거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은 1첩으로 전체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 권말의 발문과 시주질에 의하여 1425년(세종 7)인 홍희(洪熙) 을사(乙巳)년에 장사감무(長沙監務) 윤희(尹希)와 석주(石柱) 등에 의해서 돌아가신 부모의 왕생극락과 자신 및 가족의 수복과 사후에 정토에 태어날 것을 발원하여 판각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3권 1첩의 목판(木板) 수진본(袖珍本)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판본으로서 조선 초기의 불교 신앙과 사회사 그리고 목판인쇄문화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본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書誌記述 및 現狀

□ 書誌記述

지정신청본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의 서지기술은 다음과 같다.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 [撰·譯者不明]. -- 木板本(袖珍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世宗 7(1425) 板刻·印出 推定].

3卷1帖: 上下單邊, 全匡 9.6×42.0cm, 無界, 每折 5行12字 内外; 12.5×5.5cm. 楮紙. 折帖裝(改裝).

卷頭題: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卷上), 佛頂心觀世音菩薩療病大催產方(卷中), 佛頂心觀世音菩薩救難神驗(卷下)

卷尾題: 佛頂心觀世音菩薩經(卷上·中), 佛頂心陀羅尼經(卷下)

內 容: -卷上,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卷中, 佛頂心觀世音菩薩療病大催產方. -卷下, 佛頂心觀世音菩薩救難神驗

卷 末: 一字項輪王陀羅尼 唵 齒臨/ 自在王治溫毒陀羅尼 唵 部臨/ 一氣念二十一遍/ □ □ □(符籙 3字) 能救產難.

奉爲先亡父母往生西方己身眷/ 屬現增福壽當生淨刹之願/ 發財請工彫板印施無窮者/ 洪熙乙巳(世宗 7)八月日開板/ 施主前長沙監務尹希 石柱/ 咸從縣郭 氏/ 同願 梁汝 尹氏 牛糞 宋浩 金氏/ 隨喜閑樂居士 剛之/ 同發願比丘 志環/ 隨喜釋禪師 信環.

現 狀: 前後의 表紙는 두꺼운 壯紙로 改裝되었으며, 인출상태나 보존상태 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차후에 지류문화재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傳來歷: 현재의 소장자인 妙德寺 주지 釋 宗호가 1985년경 八公山 把溪寺 聖殿菴 거주하던 恩師僧 철웅으로부터 물려받아 현재까지 소장하고 있는 것이라 함. (遺物取得經緯書 參看)

既指定: 無.

□ 現 狀

지정신청본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의 현상은 前後 表紙는 두꺼운 壯紙로 改裝되었으며, 인출상태나 보존상태 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차후에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 內容 및 特徵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은 신비하고 영험한 힘을 지니고 있어 이 經을 書寫(刊行)·受持·讀誦하면 災厄을 없앨 수 있다는 다라니의 신통력을 설파한 밀교의 경전이다.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은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各卷에는 佛菩薩을 비롯한 여러 인물이 나타나 이 經을 지니고 다녀야 하는 이유와 그 영험력을 설명하고 있다.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을 믿는 신앙은 밀교 신앙의 보급과 함께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어 조선시대까지 행하여졌으며, 경전은 조선시대 말기까지 간행된 판본들이 전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판본인 崔忠獻 3父子의 기록이 있는 고려 小字本과 仁粹大妃의 발원으로 성종 16(1485)년에 간행된 왕실 발원본 등은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에 의한 신앙심이 권력 계층에 깊숙이 파고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의 編纂과 傳來에 관하여는 확실한 기록이 없으나, 대체로 중국에는 10세기 말기부터 11세기 초기 이전에 이미 전래되고 우리나라에는 늦어도 13세기 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간행된 판본은 10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지정신청본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은 세종 7(1425, 洪熙 乙巳)년에 소매에 넣어 다닐 수 있도록 휴대용으로 간행된 3권 1첩의 木板 袖珍本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판본이다.

지정신청본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의 卷頭題는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卷上), ‘佛頂心觀世音菩薩療病大催產方’(卷中), ‘佛頂心觀世音菩薩救難神驗’(卷下)’이며 卷尾題는 ‘佛頂心觀世音菩薩經’(卷上·中), ‘佛頂心陀羅尼經(卷下)’ 등이다. 版式의 邊欄은 上下單邊이며 全郭의 크기는 세로 9.6cm 가로 42.0cm이고 每折의 行字數는 5行12字이며, 經帖의 크기는 세로 12.5cm 5.5cm이다. 紙質은 韓紙(楮紙)이며, 前後의 表紙는 改裝되었다.

지정신청본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卷上·中·下에는 卷上에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이 수록되고 卷中에는 <佛頂心觀世音菩薩療病大催產方>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下에는 <佛頂心觀世音菩薩救難神驗>이 수록되어 있다. 卷上의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에는 관세음보살이 고뇌에 처한 중생을 위하여 일체의 질병을 구제하고 악업과 중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발원하여 이 다라니를 설하면서 여러 가지 공덕을 설명하고 있다. 卷中의 <佛頂心觀世音菩薩療病大催產方>에는 임신한 부인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들면서 產難을 구제하는 방안에 관한 여러 가지 비방을 소개하고 있다. 卷下의 <佛頂心觀世音菩薩救難神驗>에는 유행하는 질병 등 여러 가지 재앙을 퇴치하는 이야기 등 이 다라니의 신령한 영험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을 퇴치한 이야기 등 다라니의 신령스런 영험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一字頂輪王陀羅尼>의 ‘唵齒臨’과 <自在王治溫毒陀羅尼>의 ‘唵部臨’ 등을 일념으로 21편씩 암송하면 難産을 구제할 수 있다는 符籙을 제시하며 끝을 맺고 있다.

지정신청본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의 권미에는 “奉爲先亡父母往生西方己身眷/ 屬現增福壽當生淨刹之願/ 發財請工彫板印施無窮者/ 洪熙乙巳(세종 7)八月日開板/ 施主前長沙監務尹希 石柱/ 咸從縣郭 氏/ 同願 梁拔 尹氏 牛糞 宋浩 金氏/ 隨喜閑樂居士 剛之/ 同發願比丘 志環/ 隨喜釋禪師 信環” 등의 發願秩과 施主秩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에 의하면 前長沙監務 尹希와 (尹)石柱가 咸從郭氏와 함께 돌아가신 부모의 왕생극락과 자신 및 가족의 수복과 死後에 정토에 태어날 것을 발원으로 閑樂居士 剛之, 比丘 志環, 信環 등이 참여하여 세종 7(1425, 洪熙 乙巳)년에 板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정신청본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은 세종 7(1425)년에 지방의 호족이 호신용으로 판각하여 휴대하였던 袖珍本으로 이와 유사한 조선시대의 판본이 국가문화재 보물 제1108호와 제112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보물 제1108호는 성종 16(1485)년에 판각된 판본이다.

지정신청본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은 조선시대 초기의 불교학연구에는 물론 木板印刷文化 및 袖珍本의 정황 등을 窺見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만큼 서지학연구에도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정신청본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文獻資料

- 전라남도지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광주 : 전라남도지사, 2016. 07.
- 장흥군수,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장흥 : 장흥군수, 2016. 07.
-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 편, <장흥 묘덕사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국가지정문화재 정정(승격)신청 심의서>. 광주 :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 2016. 06. 24.
-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 편, <장흥 묘덕사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박상국·김희태·노기춘 등의 보고서). 광주 :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 2015.

○ 其 他 (소장경위 등)

지정신청본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은 소장자인 묘덕사 주지 釋 宗皓가 1985년경 八公山 把溪寺 聖殿庵 거주하던 恩師僧 철옹으로부터 물려받아 현재까지 소장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

지정신청본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과 유사한 조선시대의 판본은 국가문화재 보물 제1108호와 제1129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동일한 판본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 현 상

신청대상의 묘덕사 소장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1첩은 1425년(세종 7) 8월 경 조성한 경판을 후대 인출한 전체 3권의 기록유산으로, 현재 전라남도 장흥군 묘덕사에 소장되어 있다.

신청대상본은 본문의 인출상태와 보존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며, 완질본의 상태이다. 그러면서 앞뒤 표지가 최근 개장되었으며, 본문 글자와 상·하 변란의 일부가 마모·훼손되어 있기도 하다.

<서지사항>

목판본(木板本 : 1425년 경)

사주단변/ 전곽 9.6×42.0cm/ 무게(無界)/ 전엽 60행 12자(제1장 45행 12자)/ 난고(欄高) 12.5cm/ 절폭(折幅) 5.5cm/ 1장 12절(제1장 1장 9절)/ 1절 5행 12자

권 수 제 :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권상)/ 佛頂心觀世音菩薩療病催產方(권중)/ 佛頂心觀世音菩薩救難神驗(권하)

판 심 제 : 二

권 미 제 : 佛頂心觀世音菩薩經(권상·중)/ 佛頂心陀羅尼經(권하)

간행정보

[跋文] :奉爲先亡父母往生西方己身眷/ 屬現增福壽當生淨刹之願/ 發財請工彫板
印施無窮者/ 洪熙乙巳八月 日開板/ 施主前長沙監務尹希 石柱/ 咸從縣
郭 氏/ 同願 梁拔 尹氏 牛糞 宋浩 金氏/ 隨喜閑樂居士 剛之/ 同發願
比丘 志環/ 隨喜釋禪師 信環

○ 내용 및 특징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은 해당 경전을 필사·간행하고 지니며 읽으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밀교계열의 불교경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이래 조선후기까지 최씨무인집권자와 왕실 및 개인·사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이미 간행하여 널리 유통하였다.

신청대상의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1첩은 해당 경전을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수진본(袖珍本)으로, 전체 5면의 원판에서 상·중·하 3권을 인출하여 만든

절첩본이다. 인출본은 완질이므로, 전체 구성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앞뒤의 표지 사이에 권수제-본문내용-권미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권하의 권미제 다음에는 다라니-부적(符籙)-간행정보 등이 새겨져 있기도 하다.

권수제는 권상이 제1~2행에 걸쳐 ‘불정심관세음보사대다라니경권상(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卷上)’처럼 경전이름+권+권차의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권중이 ‘불정심관세음보살료병최산방권중(佛頂心觀世音菩薩療病催產方卷中)’으로, 권하가 ‘불정심관세음보살구난신험권하(佛頂心觀世音菩薩救難神驗卷下)’로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판심제는 제2장이 제15~16행 사이에 ‘이(二)’, 제3·5장이 제30~31행 사이에 ‘삼(三)·오(五)’, 제4장이 제20~21행 사이에 ‘사(四)’와 같이 작은 글자로 각각 새겨져 있다. 권미제는 권상·중이 ‘불정심관세음보살경권상(佛頂心觀世音菩薩經卷上)’과 같이 새겨져 있는데 비해, 권하는 ‘불정심다라니경권하(佛頂心陀羅尼經卷下)’로 권상·중의 경우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권하의 권미제 다음 행에는 ‘일자정륜왕다라니(一字頂輪王陀羅尼)-자재왕치은독다라니(自在王治溫毒陀羅尼)’ 등과 같은 진언을 이어 부적(符籙) 3자가 새겨져 있으며, 부적의 아래에는 ‘능구산란(能救產難)’이라 표현되어 있다. 부적의 다음 행부터는 장사현(長沙縣 : 지금의 전라북도 고창군 일대)의 감무(監務)를 지낸 윤희석주(尹希石柱) 및 함종현(咸從縣 : 지금의 평안남도 증산군 및 강서군 일대)의 곽씨(郭氏) 등이 시주하여 1425년(세종 7) 8월 어느 날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과 가족들의 수복 등을 기원하면서 경판을 판각하고 인출하여 널리 보급하였다는 간행정보가 새겨져 있다. 간행정보에는 한락거사(閑樂居士) 강지(剛之)와 비구지환(志環) 및 선사(禪師) 신환(信環) 등과 같은 불교지식인이나 승려들이 해당원판의 조성사업에 함께 참여한 사실도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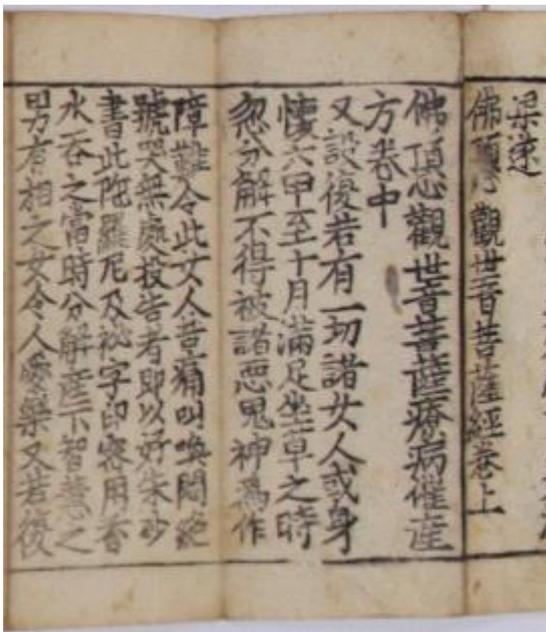
이로써 조사대상본의 원판은 전직 관료와 불교계 등 교속(敎俗)이 협력하여 1425년 8월 경 조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대상본은 인출발문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출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면서 본문 글자와 상·하 변란이 마모된 상태에 있으므로, 초쇄본이기보다는 후대의 인출본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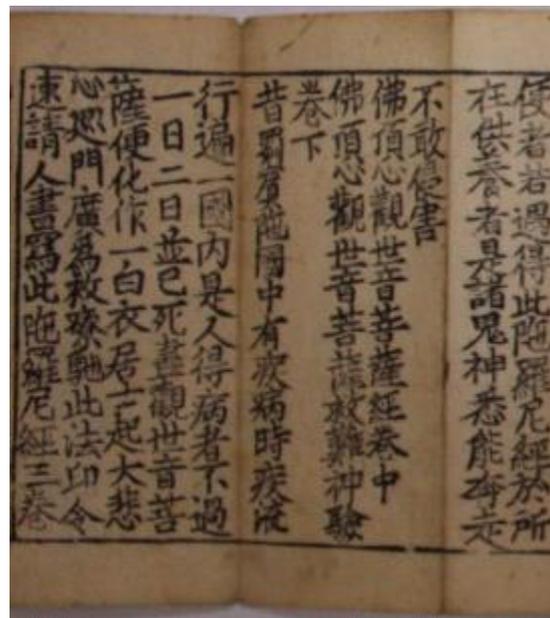
앞뒤 표지



권상의 권수제 부분



권중의 권수제 및 권상의 권미제 부분



권하의 권수제 및 권중의 권미제 부분



간행정보와 권하의 권미제 및 판심제 부분

○ 문헌자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書誌事項>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 [撰·譯者不明]. -- 木板本(袖珍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世宗 7(1425) 板刻·印出 推定].

3卷1帖 : 上下單邊, 全匡 9.6×42.0cm, 無界, 每折 5行12字 內外 ; 12.5×5.5cm. 楮紙. 折帖裝(改裝).

卷頭題: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卷上), 佛頂心觀世音菩薩療病大催產方(卷中)
佛頂心觀世音菩薩救難神驗(卷下)

卷尾題: 佛頂心觀世音菩薩經(卷上·中), 佛頂心陀羅尼經(卷下)

跋 文: 奉爲先亡父母往生西方己身眷/ 屬現增福壽當生淨刹之願/ 發財請工彫板印施
無窮者/ 洪熙乙巳(세종 7)八月日開板/ 施主前長沙監務尹希 石柱/ 咸從縣
郭氏/ 同願 梁汝 尹氏 牛糞 宋浩 金氏/ 隨喜閑樂居士 剛之/ 同發願比丘
志環/ 隨喜釋禪師 信環”

○ 現 狀

지정신청본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은 현재의 소장자 종호스님이 1985년경 팔공산(八公山) 파계사(把溪寺) 성전암(聖殿菴)에 주석 하던 은사인 철용스님으로부터 물려받아 현재까지 소장하고 있는 것이라 전해짐.

현재 앞뒤의 표지(表紙)는 두꺼운 장지로 개장되었으며, 일부 본문의 글자와 변란 등이 마모, 훼손된 상태이나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권상 권수



표지

○ 內容 및 特徵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은 서사(書寫)·간행(刊行)하거나, 수지(受持)·독송(讀誦)하면 재앙과 액운을 피할 수 있다는 다라니의 신통력을 설파한 밀교의 경전이다. 다라니(dhāraṇī)는 ‘총지(摠持)’, ‘능지(能持)’, ‘능차(能遮)’ 등으로 번역되는데, 총지란 하나를 기억함으로써 다른 것까지 연상하며 다 기억한다는 뜻이고, 능지란 여러 선법(善法)을 능히 지니고 있다는 뜻이며, 능차란 악법을 능히 막아 준다는 의미이다. 다라니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첫째는 지혜 또는 삼매(三昧)를 뜻하며, 둘째는 진언(眞言)을 뜻한다. 진언은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지 않고 음 그대로를 적어서 외우는데 이는 원문이 지닌 비밀스러운 영험을 제한하지 않고자 함이다. 대승불교 초기부터 다라니가 채택되어 많은 이들에게 신앙되었고, 후에는 주법(呪法)만을 역설하는 독립적인 경전이 만들어졌다.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은 우리나라에는 늦어도 13세기 초기에는 간행되어 성행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판본으로는 최충헌(崔忠獻)과 최우(崔瑀)·최향(崔珦) 등 삼부자가 당시 겪었던 어려운 난을 빨리 해소하고 수복(壽福)을 누릴 것을 발원(發願)하여 판각한 소자본(小字本)이 있으며, 조선시대에 간행된 판본 역시 상당수 알려져 있다.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보물 제691호, 국립중앙박물관

조사본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은 1첩으로 전체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상의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이 고뇌에 처한 중생을 위해 모든 일체의 질병을 구제하고 악업과 중죄에서 벗어나도록 발원하여 이 대다라니를 설하고 여러 가지 공덕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며, 권중의 ‘불정심관세음보살요병대최산방’은 임신한 부인이 산고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여러 비방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권하의 ‘불정심관세음보살구난신험’은 질병 등 여러 가지 재앙을 퇴치한 이야기 등 다라니의 신령스런 영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뒤이어 일자정륜왕다라니(一字頂輪王陀羅尼)인 ‘옴 치림(唵 齒臨)’과 자재왕치온독다라니(自在王治溫毒陀羅尼)인 ‘옴 부림(唵 部臨)’을 수록하고, ‘일기념이십일편(一氣念二十一遍)’이라 하여 한 가지 기운으로 온마음을 다해 21편씩 암송해야한다고 적고 있다. 책의 마지막에는 난산을 구제하는 부적(符籙)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각 권의 권두제와 권미제를 보면 약간 내용이 달라 흥미롭다. 권상(卷上)의 권두제(卷頭題)는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이며 권미제(卷尾題)는 ‘佛頂心觀世音菩薩經’으로 약간 다르게 표현되었다. 또한 권중의 권두제는 ‘佛頂心觀世音菩薩療病大催產方’으로 기록하고 권미제는 상권과 같이 ‘佛頂心觀世音菩薩經’으로 적어 놓았고, 권하의 권두제는 ‘佛頂心觀世音菩薩救難神驗’이며 권미제는 ‘佛頂心陀羅尼經’이라 하였다. 정식 경명과 관칭되었던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판식(版式)을 보면 변란(邊欄)은 상하단변(上下單邊)이며 전곽(全郭)의 크기는 세로 9.6cm 가로 42.0cm이다. 각 절 5행 12자의 구성을 갖고 있다. 전체 5장이 연접되었는데 제1장은 45행, 제2장은 60행, 제3장은 60행, 제4장이 60행, 제5장이 55행으로 되어 있다. 판제에는 경명(經名)없이 장차에 해당하는 ‘二’ 등 숫자만 새겨져 있는데, 제2장은 25행과 26행 사이에, 제3장은 30행과 31행 사이에, 제4장은 20행과 21행 사이에, 제5장은 30행과 31행 사이에 두었다.

조사본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의 권미에는 “奉爲先亡父母往生西方己身眷 / 屬現增福壽當生淨刹之願 / 發財請工彫板印施無窮者 / 洪熙乙巳(세종 7)八月日開板 / 施主前長沙監務尹希 石柱 / 咸從縣郭 氏 / 同願 梁拔 尹氏 牛糞 宋浩 金氏 / 隨喜閑樂居士 剛之 / 同發願比丘 志環 / 隨喜釋禪師 信環” 등의 發願秩과 施主秩이 수록되어 있다.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권하 권미제 / 다라니 / 부적 / 발문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보물 제691호, 국립중앙박물관

이를 살펴보면 이 경전은 전 장사감무(長沙監務) 윤희(尹希)와 석주(石柱)가 함중곽씨(咸從郭氏)와 함께 돌아가신 부모의 왕생극락과 자신 및 가족의 수복과 사후에 정토에 태어날 것을 발원으로 ‘한락거사(閑樂居士) 강지(剛之)’, ‘비구(比丘) 지환(志環)’, ‘신환(信環)’ 등이 참여하여 1425년(세종 7)인 홍희(洪熙) 을사(乙巳)년에 판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사본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과 유사한 조선시대의 판본은 이미 지정된 사례가 일부 확인되나, 동일한 판본이 지정된 사례는 현재 없다.

○ 文獻資料

-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 편, <장흥 묘덕사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국가 지정문화재 정정(승격)신청 심의서>. 광주 :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 2016. 06. 24.
-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 편, <장흥 묘덕사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관계 전문가 조사의견서>(박상국·김희태·노기춘 등의 보고서). 광주 :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 2015.

8.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 (慶山 新垞里 一號 木棺墓 出土 青銅虎形 帶鉤)

가. 심의사항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08년도 (재)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하고 국립대구박물관에 국가귀속된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가 2015년도 동산문화재분과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중요 매장문화재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15.2.3), 관계전문가 조사(’18.10.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10차 회의(’18.12.13)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8.12.26~’19.1.28)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
(慶山 新垞里 一號 木棺墓 出土 青銅虎形 帶鉤)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대구박물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21 국립대구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전체 6.3×18.8cm, 고리 길이 7.36cm, 고리 측면 높이 1.84cm
- 재 질 : 청동
- 조성연대 : 1세기 후반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지금까지 호형대구 10여점과 마형대구 100점이 알려져 있으며, 삼한지역의 철기 시대의 목곽묘와 목곽묘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신대리유적의 경우, 1호와 94호에서 호형대구 각 1개씩과 80호에서 마형대구 1개가 출토되었는데, 94호 출토 호형대구는 발굴당시 매우 불량한 잔존상태로 인하여 지정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다. 80호에서 출토된 마형대구도 잔존상태가 지정대상으로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잔존상태가 매우 좋은 1호 출토 호형대구 1점만을 지정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호형대구 중에서 신매리 1호예에 비견되는 우수한 형태와 잔존상태를 보여주는 예로서는 비산동, 사라리, 어은동의 호형대구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1956년에 대구비산동에서 우연히 발견수습된 비산동의 호형대구는 그 일괄유물(세형동검5, 동모3, 동과2 등)과 함께 국보 137호로 지정된 바 있으며, 1918년에 우연히 발견된 호형대구와 마형대구 한 set는 한국 선사시대의 청동기 가운데 대표적인 걸작품으로 학계와 민간에서 교육자료로서 널리 활용되어오고 있다.

한편, 1995년에 공사중 긴급발굴된 사라리유적에서는 철기시대 목관묘 7기가 삼국시대의 목곽묘와 적석목곽묘 등과 함께 발굴되었는데, 그중 130호 목관묘에서 호형대구 2점이 발굴되었다.

지금까지의 발견정황과 조사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호형대구와 마형대구는 영남지역에서는 동시기에 사용되었고,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중서부지역에서는 마형대구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전파의 선후에 대하여는 영남지방 마형대구가 앞서고 따라서 영남지방의 마형대구가 중서부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우세하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는 호형대구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는 아직 뚜렷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호형대구는 영남지역 철기시대(삼한시대) 주민의 독창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남지역에서도 가장 이른 단계의 호형대구와 마형대구가 형태적으로 가장 완성된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마형대구는 한반도 중서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형태적으로 퇴화, 편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이 그 기원과 영남지역출현 이전 단계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추정이나 설명이 부족하지만, 넓게 보면, 진변한과 낙랑군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삼한사회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고고학적 사례로 볼 수 있다.

1994년 평양시 중화군 마장리의 낙랑계 목곽묘(나무곽무덤)에서 호형대구 한 점이 발굴되었는데, 향후 평양과 대동강유역을 포함한 서북지방의 낙랑군권역에서

추가적인 발견이 기대된다. 그러나 영남지역의 호형대구와 마형대구는 당시 진변한 지역의 각종 청동기 제작기술의 수준에 비추어볼 때, 수입품이라기보다는 자체 제작품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주지하다시피, 호형대구는 마형대구와 함께 철기시대의 각 지역정치집단의 최고위 지배집단이 패용했던 청동제 위신제이다. 특히 마형대구의 출토사례의 증가와 제작기법수준과 형태의 완벽성의 차이에 비추어볼 때, 지배층 안에서 범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최상품의 경우는 당시 삼한사회의 최고위 지배자만이 패용하였다고 보아야하며, 이런 의미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신대리 1호 출토 호형대구는 어은동, 비산동, 사라리의 사례와 함께 그 정치적인 상징성과 시대적인 의미는 삼국시대 신라의 금관이나 조선왕실의 어보에 버금가는 문화재로서의 등가성과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됨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할만한 시대적 대표성과, 희소성 및 공예기술적인 완벽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경북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제 호형대구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경에 해당하는 초기철기시대, 혹은 원삼국시대의 중요한 청동제 장신구이다. 호형대구, 혹은 마형대구 등으로 분류되는 동물형 띠고리는 북방계 청동기 문화와의 관련성이 일찍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중요한 위세품(威勢品)으로 주목되어 왔다.



도 7. 전 영천 어은동 출토 호형대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지금까지 유사한 형식의 호형대구는 국내에서 출토된 예가 약 10여점에 불과하여 매우 희소한데, 아직까지 이러한 호형대구들이 국보, 혹은 보물로 지정된 예가 없다. 특

히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의 대표적 청동기로 알려진 영천 어은동 출토 호형대구(도 7)는 꼬리 부분의 파손이 심하며, 정식 발굴품이 아니어서 출토 위치 및 부장상태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경주 사라리 고분이나 김해 대성동 고분, 그리고 경산 신대리 출토품과 같이 무덤내의 피장자 허리에서 발견된 예들인 이러한 동물 모양의 장식품들이 피장자의 허리띠 띠고리 장식으로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당시 최고 지배계층의 위세품

이자 복식품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호형대구는 유사한 양식의 호형대구 중에서 현재의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으며, 뛰어난 주조기법으로 제작된 금속공예 작품이자, 정식 발굴조사에 의해서 출토 위치와 공반유물 등이 모두 밝혀진 중요한 예로서, 문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물이다. 초기철기시대, 혹은 원삼국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이 호형대구는 보물로 지정 및 보호될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 문화재 지정을 통해서 향후 한국 고대 문화의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지정 가치 있음)

호형대구가 출토한 신대리유적 1호 목관묘는 유적의 주능선 서쪽 경사면 중위에 위치한다. 길이 308cm 너비 119cm, 깊이 97cm의 말각장방형 묘광 내부에 길이 179cm, 너비 46cm의 목관을 안치한 구조이다. 목관 내부에서 호형대구와 편구소호, 철모 각 1점씩 출토되었고, 목관 외부에서 주머니호·단경호·조합우각형과수부호·불명철기·재갈 등이 출토되었다.

호형대구는 현재 대구·경산·영천·경주·밀양 등 영남의 동남부지역에 한정 분포하며, 현재까지 모두 8점 출토되었다. 호형대구는 기원 전후부터 2세기 전반의 시기에 집중되었고, 한경 또는 방제경, 세형동검이나 도모 등과 공반된 예가 많다. 현재까지 출토한 8점의 호형대구 중 경산 신대리 목관묘 1호 출토품과 영천 어은동유적 출토품이 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장식이 화려하다.

경산 신대리 목관묘 1호에서 출토한 호형대구는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전체적인 모습은 물론 세부적인 부분까지 알 수 있고, 안면 및 잘록한 허리, 발목관절을 구부려 움추리고 있는 등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허리머리·몸통·꼬리·걸이부 등이 잘 조화된 비율을 이루며, 매우 건장한 모습의 호랑이를 연상시켜준다. 아가리 내부에 14개의 이빨을 표현하였고, 머리·목·고리 등에 세로선과 가로선을 교차시켜 문양을 새겼다. 꼬리는 위로 세우고 끝을 감아올려 고사리문양으로 만들었다.

이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호형대구는 출토 유구의 구조와 유물의 공반관계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상태가 양호하고, 문양 장식이 화려하여 진한 지배층을 상징하는 유물일 뿐만 아니라 복식의 구성 요소 복원 및 청동 제작기술을 밝힐 수 있는 등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유물이므로 국가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경북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의 평지와 사면에 고분군이 자리잡고 있다. 2007년에 영남문화재연구원이 발굴하였다. 1,2차 조사에서 총 112기의 목관묘가 조사되었다. 목관은 먼저 묘광을 판 후 판재로 조성한 것이 대부분이다. 묘광과 목관의 크기에 따라서 부장유물이 차이를 보이는데, 대형일수록 부장유물의 양과 종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구조와 형식을 지닌 목관묘는 영남지역 철기시대(삼한시대, 원삼국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무덤양상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전시기인 청동기시대의 토광묘와 목관묘를 이어받은 것으로서 철기시대 후기에 목곽묘로 발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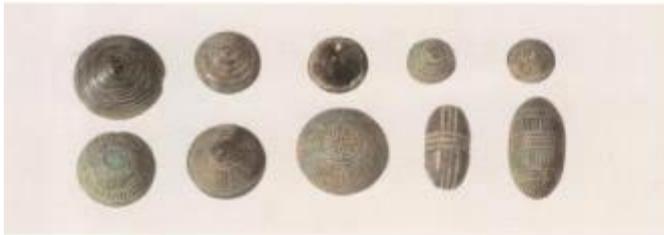
유물도 전반적으로 영남지역 철기시대의 목관묘에서 보편적으로 출토되는 토기, 철기, 일부 청동기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 주머니호, 대부우각형과수부호 등 전형적인 영남식 철기시대 고식 와질토기류가 주류를 이룬다. 철기도 철도자, 철모, 철검, 철부 등의 철제 무구와 농공구 또한 이 시기의 일반적인 철기들에 해당한다.

청동유물로는 문제의 호형대구와 마형대구 뿐만 아니라 곡봉형대구, 방제경과 휘룡문경 등의 중국계 청동거울 등이 출토되었다. 호형대구는 1호외에 94호에서도 한 점이 출토되었으며, 80호에서는 마형대구 한 점이 출토되었다.

한국 철기시대의 동물형대구를 대표하는 호형과 마형대구 가운데 신매리 1호의 목관묘에서 출토된 호형대구 완형 1점으로 전체적인 형태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상세설명은 도판으로 제시됨)



217
218
219



217 | 호형대구(虎形大鼓) 길이 19.2~19.5cm,
1. 호형 머리줄 2~4, 강주 사다리 150호를
고정해 대반통 13호본
218 | 마형대구(馬形大鼓) 길이 13.3cm, 강주 사다리
219 | 호구(虎口) 길이 2.9cm, 호반 머리줄

218

그림 162. 동물형대구 대표사례



그림 163. 어은동 출토 호형대구



그림 164. 어은동 출토 마형대구



그림 165. 사사리 출토 호형대구

□

○ 형 식



도 1.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호형대구 앞면.

청동을 주조해서 제작한 동물 모양의 허리띠 장식인 띠고리로서, 동물 형상과 기능을 위한 띠고리(帶鉤)가 하나로 결합된 형식이다(도 1). 이러한 형식의 동물형 띠고리는 청동기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까지 한반도 지역에서 널리 유행했던 것으로, 유사한 예들이 경주 사라리 고분 및 경북 영천 어은동, 경남 김해 대성리 고분 등에서 출토된 바 있다. 이번에 조사한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호형대구는 2008년 5월 9일 경북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新垓里) 1호 목관묘(木棺墓)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었다.

동물의 형태는 입을 벌리고 꿰어얹은 호랑이 형상이며, 가슴 앞쪽에 약간 삐딱하게 달린 띠고리는 끝부분이 앞쪽으로 둥글게 구부러져 있다. 주조기법으로 제작된 호랑이의 몸은 얇은 판형으로 만들어졌으며 얼굴과 목, 허리 부분에 음각 문양이 새겨져 있다. 굽은 봉 모양의 띠고리 윗부분에는 음각선문 3곳과 양각의 타원형(혹은 번데기형) 장식 2개가 장식되어 있으며, 띠고리의 뒷부분은 납작하고 아무런 문양이 없다. 호랑이의 몸 뒤쪽 부분 중앙에는 윗면 지름 1.76cm의 단추형 꼭지가 달려있는데, 꼭지의 높이는 1.62cm, 꼭지 안쪽 기둥 지름은 0.67cm이다(도 2). 이 꼭지는 아마도 직물이나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에 띠고리를 부착시키기 위한 연결고리로 추정된다.



도 2.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호형대구의 뒷면.

○ 조성연대

신대리 1호 목관묘는 초기철기시대의 고분으로서, 공반 유물은 와질의 흑회색 조합우각형과수부호를 비롯한 각종 와질토기들과 철모, 철제재갈, 수정 등이 출토되었다.²⁰⁾ 또한 이 호형대구와 유사한 형식의 동물형 띠고리들은 대체로 기원전 2세기-기원후 1세기경에 해당하는 초기철기 시대 고분들에서 종종 출토되고 있다. 공반 유물 및 호형대구의 형식 등으로 볼 때, 신대리 1호 목관묘에서 출토된 호형대구는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경인 원삼국시대에 제작 및 매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현 상

이 호형대구는 신대리 1호 목관묘의 목관 중앙부에서 출토된 것으로, 발견 당시에는 허리 부분이 다소 파손되어 비정상적으로 접합된 상태였다(도 3). 이것은 호랑이의 허리 부분이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재사용하다가 무덤에 부장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²¹⁾ 지금은 이 부분이 이후 보존처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붙은 형태로 복원되었다.

호랑이 몸체와 뒷부분의 단추형 꼭지, 몸체 앞부분의 띠고리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주조할 때에는 모두 하나로 주조한 일체식이다. 호랑이 뒷부분의 두께를 보면, 머리 부분은 두께 2.4mm, 앞발 부분은 1.3mm, 꼬리 부분은 3.2mm

20) 신대리 1호 목관묘의 구조 및 공반 유물, 출토 상태 등에 대해서는 嶺南文化財研究院, 2010, 『慶山 新垓-夫迪地區 都市開發事業敷地內 慶山 新垓里遺蹟 I』, 嶺南文化財研究院, pp. 24-33 참조.

21) 위의 책, p. 33 참조.



도 3.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호형대구의 허리 부분 세부. 발굴 보고서, 원색사진 14에서 전재.
심한 청록색 녹이 나 있다.

등 부분마다 모두 두께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 꼬리 부분은 납작한 띠 모양을 역S자 형태로 말아 놓은 형상인데,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한 편이다. 머리 앞 부분과 고리, 그리고 꼬리 부분에 일부 부식 흔적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매우 좋으며 문양의 표현이 매우 확실한 우수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푸른 녹이 나 있으며, 호랑이의 눈, 목, 엉덩이 등에는 다소

○ 내용 및 특징

꿰어얹은 동물 모양의 띠고리는 보통 호랑이 모양과 말 모양의 두 종류가 있다. 이 띠고리에 표현된 호랑이는 꿰어얹어 있는 형상이지만, 앞발을 살짝 들어 가슴 쪽으로 향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앞발과 뒷발은 모두 음각선으로 긴 발톱을 표현했다.

입은 벌리고 있으며, 입 주변에는 돌아가며 14개의 이빨을 거치문 형상으로 표현한 후, 침선문과 횡선문을 이용하여 얼굴 주위에 문양을 표현해 놓았다(도 4). 음각으로 표현된 눈은 밝은 청록색의 녹이 심하게 나 있다. 목과 허리 부분에는 짧은 가로선과 세로선을 연이어 장식한 형태의 띠를 돌아가며 장식해 놓았는데, 이러한 장식선문대는 원삼국시대 동물형 띠고리에서 종종 찾아 볼 수 있는 문양 형식이다(도 5).

이와 유사한 형식의 호형대구, 즉 호랑이 모양의 동물형 띠고리는 원삼국시대 고분에서 종종 출토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호형대구는 ①대구 비산동 수습품, ②영천 어은동 수습품, ③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및 ④신대리 94호 목관묘 출토품, ⑤경주 사라리 130-1호 및 ⑥130-2호 출토품, ⑦경주 탑동 출토품, ⑧경주 덕천리 127호분 출토품, ⑨김해 대성동 11호 및 ⑩67호분 출토품, ⑪밀양 제대리 9호분 출토품 등 모두 11점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²²⁾ 이러한 동물형 띠고리는 일제



도 4. 호형대구의 머리 부분 세부.



도 5. 호형대구의 허리 부분 문양 세부.

강점기에 영천 어은동 및 대구 비산동 등에서 발견되면서 한국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청동제 장신구이자 위세품으로 알려져왔다. 최근 발굴조사들에 의하면, 이러한 호형대구는 청동기시대보다는 다소 늦은 초기철기시대의 영남지역 고분에서 대부분 출토되고 있어서, 원삼국시대 초기의 대표적인 금속공예품이며 위세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신대리 1호 출토 호형대구는 같은 형식의 호형 대구 중에서는 출토지와 공반 유물이 확실하며, 현존 상태가 매우 우수한 중요한 작품으로서, 호형대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또한 신대리에서는 1호분 뿐만아니라 94호분에서도 유사한 호형대구가 출토되어 주목되었는데, 94호분 출토 호형대구는 1호분 출토에 비해 부식이 매우 심하며 파손되어, 보존 상태가 매우 나쁘다(도 6).

22) 박장호, 2012, 「한반도 중남부 출토 動物形帶鉤의 전개와 그 의미」, 『嶺南考古學』 62, p. 52, <표 1>에서 인용.



도 6. 신대리 94호분 출토 호형대구.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 기 타

경산 신대리 유적은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657번지 일대로, 금호강과 그 지류인 오목천 주변에 펼쳐진 충적지와 그 남쪽의 구릉지에 위치한 곳이다. 이 유적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 조사과정에 의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영남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하였다. 신대리 유적의 1차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신대리에서는 원삼국시대의 목관묘 112기와 옹관묘 47기, 통일신라시대의 석실묘 1기, 석곽묘 5기 및 고려 조선시대의 분묘 및 근대의 옹관묘 및 생활유구 등 총 599기의 다양한 유구가 발굴조사되었다. 호형대구가 출토된 목관묘 1호는 유적의 주능선 서쪽 경사면 중위 부분인 해발 56.5m 내외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목관묘의 북서 모서리 부분은 다소 교란되었으나, 평면 말각장방형의 묘광과 목관은 거의 교란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목관 내부에서는 북서쪽의 편구소호 1점, 중앙의 호형대구 1점, 동단벽에 남장벽쪽에서 철모 1점이 출토되어 부장품은 매우 소략하다. 한편 충전토에서 각종 토기들이 발견되었으며, 봉토부에서는 재갈 1점과 수정 2점이 발견되었다. 2010년 발굴보고서가 간행된 이후, 2011년 5월 19일 국가귀속되었으며, 이후 같은해 9월 22일 국립대구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이 유물은 현재 유물번호 경산 4523번으로 등록되어 국립대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 현 상

고리 걸이부 끝 일부 결실. 둔부 부분적 부식. 허리 중앙부에 균열 현상이 X-ray 촬영에 의해 확인됨. 전체적으로 보존된 상태가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머리·몸통·걸이·꼬리 등 4부위로 이루어졌음. 안면 및 잘록한 허리 등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음. 안면부는 'C'자 모양이고, 아가리 내부에 14개의 이빨 표현. 입 위쪽에 동심원을 2줄 돌려 눈 표현. 입가에 '<'·'>'·三 등의 문양. 목 부위에 가장자리 선 내부에 三자 문양을 가로와 세로로 반복하여 배치. 고리 걸이부는 길이가 7.36cm이고, 단면은 둥근 형태. 끝을 ㄱ자 모양으로 구부려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었음. 고리 걸이부에 일정 간격으로 '三'자 무늬 3곳 배치. 복부에도 세로방향으로 三자 문양을 가로와 세로로 반복하여 배치. 꼬리는 엉덩이 위로 치켜올려 끝을 고사리문양으로 마감. 앞·뒤 발의 발목 관절은 각이 지고, 발톱을 간략하게 표현.

○ 문헌자료

財)嶺南文化財研究院, 2010, 『慶山 新岱-夫迪地區 都市開發事業敷地內 慶山 新岱里遺蹟』 I

박장호, 2012, 「한반도 중남부 출토 動物形帶鉤의 전개와 그 의미」 『嶺南考古學』 62, 嶺南考古學會

○ 기 타

호형대구는 2008년 재)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慶山 新岱-夫迪地區 都市開發事業敷地內 慶山 新岱里遺蹟의 발굴조사 시, 목관묘 1호에서 출토한 국가귀속 매장문화재임.

9.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 (高靈 池山洞 三十二號墳 出土 金銅冠)

가. 심의사항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978년 경남 고령 지산동에서 출토되어 국립대구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된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이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되어(’18.2.26), 2018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2차 소위원회에서 가야문화권 중요 매장문화재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18.3.28) 관계전문가 조사(’18.7.1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10차 회의(’18.12.13)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8.12.26~’19.1.28) 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高靈 池山洞 三十二號墳 出土 金銅冠)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대구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전체 높이 19.6cm. 입식 아래폭 11.7cm, 대륜 현재 길이 33.6cm. 대륜 폭 2.7cm.
- 재 질 : 금동
- 조성연대 : 가야(5세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금동관은 1978년 고령 지산동 32호분에서 출토되어 발굴 경위와 출토지가 확실하고 공반 출토유물에 의해 밝혀진 5-6세기 가야시대 유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다. 무엇보다도 가야시대의 금동관은 그 출토예가 매우 적다는 점에서 이 유물의 희소가치나 학술적 가치는 매우 탁월하다.

이 금동관은 조형적으로 볼 때 독특하고 창의적인 형태와 특이하고 현대적인 문양으로 인해 신라나 백제 및 가야의 관모 중 보기 드물고 유일무이하다. 공예기술적으로는 얇은 동판을 두드려 만드는 판금기법이나 그 위에 도금하는 수은아말감기법, 점선 문양을 새기는 축조기법 등도 우수하여 예술적, 기술적인 가치가 매우 우수하다.

이상과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은 5-6세기대가야의 관모공예를 대표하는 문화재로서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지금까지 가야관은, 금관으로는 리움소장품 1점과 오구라컬렉션 1점의 두 점이 알려져 있고, 금동관으로는 지산동32호 금동관과 부산북천동 10,11호 주부곽식 석곽의 주석곽(11호)에서 출토된 1점, 지산동 30-2호와 성주가암동고분 출토 외관 각 1점씩, 합천옥전 23호의 내관, 반계제 가-A 분 출토 관모정부장식, 옥전 M6호분 금동관의 외관에 달린 출자형수지장식 파편 등이 있다.

이중에서 리움소장품, 오구라소장품, 북천동고분출토품 등 기 지정품과 지산동32호분출토품의 4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례들은 출토고분의 위상과 고고학적 중요성 및 공예적 기법과 장식적수준 및 희소성 등 제 측면에서 앞의 4점과는 일정한 수준에서 동일한 평가를 받을만하지만,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거나, 중요부위가 결여된 극히 일부분만이 잔존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일정수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하는 문화재지정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에 미달되어서 지정고려대상으로 간주하기가 어려운 예에 해당한다.

주지하다시피, 리움소장 금관은 이미 1971년도에 국보 제138호로 지정되었으며, 오구라소장 금관도 모든 면에서 리움소장품과 동격의 평가를 받고 있는 국보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두 예는 모두 정식으로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하지 않거나 그 입수과정이 불투명한 것이다. 반면 그 출토지와 고고학적 출토정황이 확실한 원위치(In Situ) 출토품인 북천동 11호 금동관의 경우 2016년도에 보물 제 1922호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기지정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그 형태적이고 형식적인 특징과 잔존상태 및 고고학적 제반배경과 특징에 있어서 기지정 사례와 등가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지산동 32호출토 금동관은 그 고고학적이고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의 평가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재 지정의 관점에서 최소한 복천동 11호 금동관과 동일한 수준의 평가를 받아야하며, 따라서 보물로서의 지정가치는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대가야 금동관으로 출토지가 명확하고 당시의 기술과 공예, 사회상을 보여주는 유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가치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가야시대의 보기드문 금동관으로, 독특하고 유일한 관 형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완전히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한 것으로, 현재 상태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가야시대의 고분에서 관모류가 정식 발굴조사에 의해 출토된 예가 매우 희소하므로 상당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금동관이 출토된 지산동 32호분은 대가야의 수장급 고분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석실 안에서 출토된 이 금동관은 대가야에서 상당히 신분이 높은 수장급 인물이 사용했던 관모이자 위세품의 일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관모 형식과 현존례가 드문 가야의 관모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이 금동관은 가야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물질문화적 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 금동관은 보물로 지정되어 보존 및 관리될 필요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금동관이 출토된 지산동 32호분은 대가야의 왕릉군을 구성한 고총고분으로 주곽과 부곽이 11자모양으로 배치되었다. 주곽과 부곽 모두 수혈식석곽이다. 주곽은 길이 564cm, 너비 90cm 내외로 매우 세장하다. 주곽 내부에서 수 십여점의 토기와 철촉·철모·대도 등의 무기류, 투구·견갑·판갑 등의 갑옷 일괄, 재갈·등자 등의 마구류와 함께 금동관이 출토되었다.

금동관은 주곽의 주피장자의 발치에 해당하는 남쪽 단벽 가까이에서 갑주·철모·철촉·재갈·등자 등이 부장된 곳에서 유개고배 위에서 출토하여 주피장자가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부장되었음을 나타낸다. 경주를 포함한 낙동강 동쪽지역에 분포한 신라 고분에는 금관 또는 금동관이 주피장자의 머리 부위에서 출토되어 매장시 주피장자의 머리에 착용한 모습과는 다르다.

이 금동관은 대가야의 장신구 문화를 상징하는 유물이다. 대가야의 왕릉군인 지산동

고분군에서는 32호분 주곽과 45호분, 30호분 1-3호 석곽에서 금동관이 출토되었고, 전고령 출토로 알려진 금동관 등 3점이다. 전고령 출토의 금동관은 금제로 화려하지만 출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뿐더러 공반된 유물의 구성과 특징과 유구의 구조와 형태와 시기 등을 알 수 없다. 이에 비해 32호분 금동관은 공반 유물과 유구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출토된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관 중에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있다. 신라의 금관 및 금동관에 비한다면 입식의 형태나 장식이 간략하지만, 출토지를 알 수 있는 가야의 금동관 중 가장 정교하여 대가야의 장신구 제작기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리고 금동관의 기본 도안이 경주 황남대총 남분 출토 은제관, 일본의 후쿠이현(福井縣) 니혼마쓰야마(二本松山)고분 출토 금동관과 유사하면서도 대가야 관만의 특징을 가장 잘 갖춘 작품으로 평가된다.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은 대가야의 최고지배층이 백제와 신라 최고지배층들의 착장형 장신구 디자인과 제작기술 등을 받아들여 대가야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도안을 창안하여 만든 작품으로서 대가야 최고지배층들이 백제와 신라의 최고지배층들과 대등한 권위를 나타내고자 한 상징물로서 국가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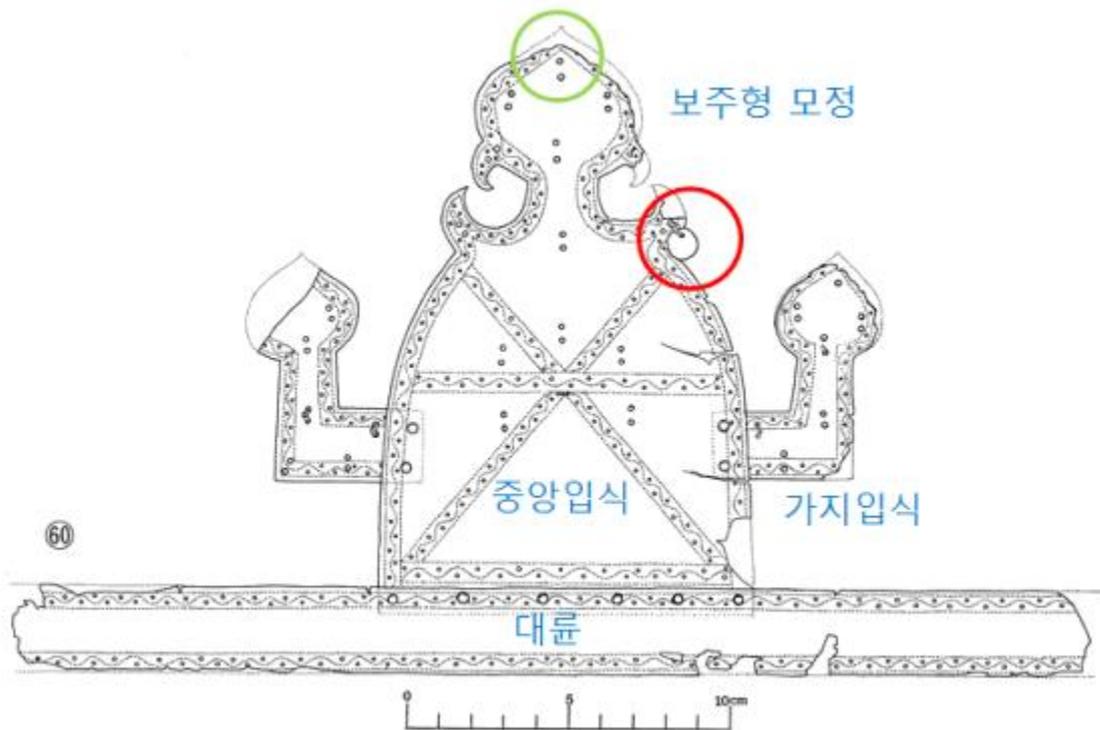
조사보고서

□

○ 형 식

금동관은 좁고 긴 대륜(臺輪) 위에 중앙의 광배형 입식판(立飾板)과 좌우 대칭의 가지형 장식판을 세운 독특한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외곽과 내부에 米자로 얇게 선새김한 테두리 문양이 세련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와 문양 장식의 관모는 국내외에서 출토한 것 중 발견할 수 없는 독창적이고 특이한 사례로서 희귀한 유물이다.

금동관은 하단의 대륜 위에 모자형 중앙 입식판을 6개의 원두정으로 고정시켰고, 중앙 입식판 좌우로는 ‘L’자형 가지판을 각각 2개씩의 원두정으로 고정시켰다.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의 실측도면과 부분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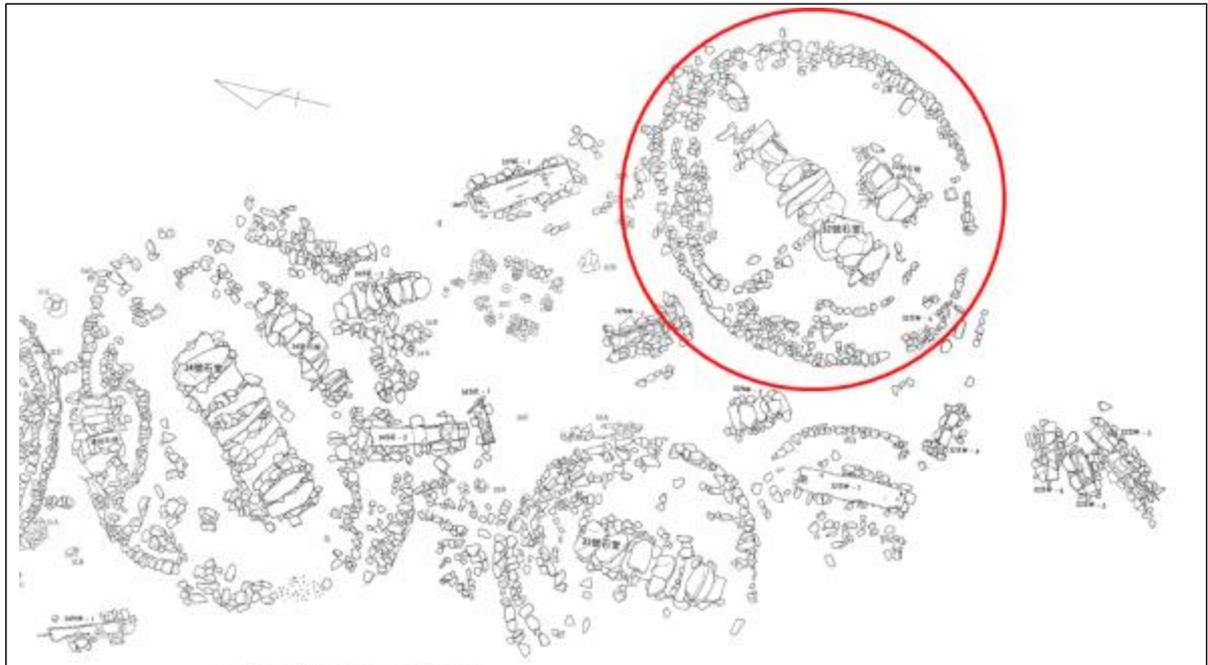
첫째, 대륜은 이마에 두를 수 있도록 원통형이었을 것이나 발굴 당시 부식으로 인해 이미 후반부가 없어진 상태이다. 대륜의 상하 가장자리에는 평행으로 점선을 배치하고 그 내부에 구불구불한 파상문과 점열문을 배치한 타날점선파상문대(打捺點線波狀文帶)로 배치하고 있다.

둘째, 중앙 입식판은 전체적으로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복발형 모자형태를 평면적으로 처리한 모습이다. 모자 위 모정(帽頂) 부분에는 큼직한 보주형 장식을 엮은 것이 특징이다. 중앙의 입식판은 그동안 불상의 광배와 비슷하다고 보았으나 본 유물은 그러한 종교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기 보다는 관모로서 금동관의 실용적 속성을 상징화시킨 것이어서 모자 꼭대기[帽頂]에 보주(寶珠)형 장식이 배치된 것이다. 보주형 보정을 비롯한 복발형 모자를 평면화시킨 중앙 입식판의 가장자리는 대륜의 가장자리와 마찬가지로 같은 형식의 점열문을 배치한 타날점선파상문대로 장식하고 있다. 복발형 입식판 내부의 넓은 면 또한 파상문대로 *형으로 장식하고 있다. 곧 대륜 부분과 맞닿은 복발의 하단과 평행하게 중앙을二字형으로 구획하고, 가운데 부분에서 X자형으로 구획하여 전체 여섯 방향, 방사선 방향으로 타날점선파상문대로 장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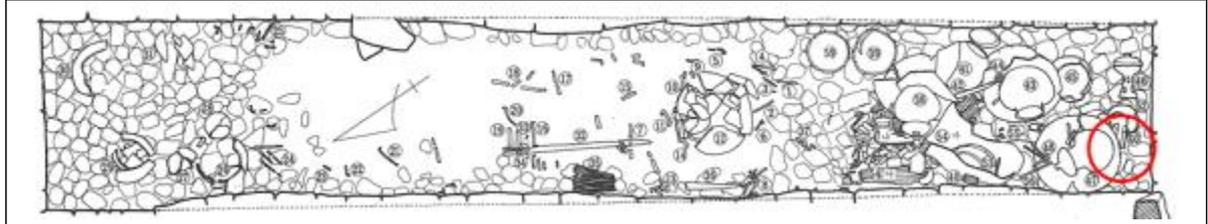
한편 중앙 입식판 부분은 대륜부분과 달리 달개쇠[瓔珞]를 달아 장식성이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달개쇠는 동판을 잘라서 만드는 판금(板金)기법으로 제작한 후 도금하여 조립하는 것이다. 모정 아래쪽 뾰족한 부분에 각각 1개씩 2개가 현존하여 나머지 상하 이중구멍에 이와 같은 달개쇠를 달아 화려하게 장식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달개쇠를 달기 위해서는 상하로 이중 구멍을 뚫었는데, 이 금동관에서는 중앙 입식판의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다. 상하 이중 구멍은 모정의 보주 부분에는 상하좌우 4군데, 모정 아래쪽의 상하에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4부분에는 2개씩 총 8개, 모정과 복발의 연결부위에 1개, 복발 중앙의 X자 부분에 5개가 뚫려 있어 총 18개여야 하는데, 모정 보주의 2군데 뾰족한 부분이 훼손되어 현재 16개가 확인된다.

셋째, 좌우 L자형 가지판은 복발의 X자 장식 아래쪽에 L자형 가지를 세우고, 위쪽 끝부분은 보주 형태로 만들어 세운 것이다. 좌우 가지판의 가장자리는 대륜이나 복발형 입식판과 마찬가지로 타날점선파상문대로 장식하고 있다. 좌우 가지판 내부에는 복발형 입식판과 마찬가지로 달개쇠를 달 수 있도록 상하 이중 구멍이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곧 보주 부분에는 상하 이중 구멍이 4개, L자 가지에는 4개가 뚫려 총 16곳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왼쪽 보주 끝 1부분이 잘려 있고, 오른쪽 L자 가지의 모서리 1부분이 훼손되어 상하 이중 구멍은 총 14곳이 현존한다.

이렇게 중앙 입식과 좌우 가지판에는 일정한 곳마다 상하 이중 구멍이 30개가 확인되며, 여기에 둥근 달개쇠가 매달려 있었다면 가야 금동관의 화려함이 배가되었을 것이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32-35호분)의 발굴 현장



고령 지산동 32호분 석실 내 금동관 출토 위치

○ 조성연대 : 금동관은 1978년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한 경상북도 고령군(高靈郡) 지산동(池山洞) 32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의 여러 고분 중에서 지위가 높은 신분의 인물들이 묻혔던 곳이며, 그중 지산동 32호분은 출토 유물로 미루어 볼 때 5-6세기 경에 축조된 가장 위상이 높은 고분이라 할 수 있다. 이 금동관은 출토지가 분명하며, 공반 출토된 유물에 의해 그 제작시기는 5-6세기 경 가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 지산동 32호분의 발굴 현장



금동관의 출토 상태. 1978년.



금동관의 출토 후 수습



금동관의 보존처리 과정. 1981년

○ 현 상

금동관은 지산동 32호분의 석실 서남쪽에 부장된 토기 아래에서 출토되었다. 발굴 당시부터 오랜 세월 땅속에서 산화되어 녹청색(綠靑色) 청동녹으로 덮여 부식되었고, 수십 편의 파편으로 깨지고 부서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머리 둘레 전체를 두를 정도로 긴 원형의 대륜은 발굴 당시에 부식으로 인해 이미 후반부가 없어진 상태이다. 복발형 중앙 입식과 L자형 좌우 가지도 훼손이 심하였다.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녹을 완전히 제거하되 워낙 약하여 뒷 부분에는 거즈로 부착시켜 복원한 후 현재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발굴 당시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금, 동, 수은 등이 확인되어 판금기법으로 동판을 제작한 다음 수은아말감기법으로 도금하여 금동관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을 이용하여 도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각 파편들은 원형을 고려하여 Cynoacrylate 접착제로 접합하여 복원했으며, 금속판이 약하여 뒷면을 Glass wool에 Epoxy계 접착제를 발라 길이 약 1.5cm, 폭 약 3mm의 크기로 강화처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동관의 안정적 보관을 위해 3mm 아크릴판으로 특수

밀폐용기를 제작하여 금동관이 바깥공기와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이다. 금동관은 1981년 보존 처리된 이후 현재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981년 보존처리된 이후 현재 금동관의 뒷면, 측면 모습

○ 내용 및 특징

금동관은 금관과 마찬가지로 고대시대에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위세유물이다. 그러나 가야시대의 고분에서는 신라시대나 백제시대의 고분과 달리 관모의 출토 사례가 많지 않은 편이다. 현재까지 출토된 대가야 관모류는 대가야의 도읍지였던 고령 소재 지산동고분군, 대가야 권역에 포함된 합천 옥전고분군 등 수장묘역에서 출토되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출토된 것들도 가야의 색채보다는 신라나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지산동 73호분 서순장곽 출토 금동제에서는 신라관의 양식을 띠는 금동관식이 출토되었다. 한편 합천 옥전23호분에서는 백제산으로 출토되는 관식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가야시대 관모로는 전세품으로 전해지던 고령 출토 금관[리움 소장]이 국보 제138호로 지정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은 대가야 지역에서의 출토지가 확실할 뿐 아니라, 공반 출토된 유물로 미루어 5-6세기 대가야로 시대를 비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이 유물에서는 5-6세기 가야만의 우수한 금속 세공기술을 엿볼 수 있다. 동판 위에 수은아말감기법으로 도금하여 금동관을 만드는 기술이나, 동판을 얇게 두드려 형태를 만드는 축조기술이나 점선을 눌러 파상점선문양대로 장식하는 공예기술의 성취가 뛰어나다. 무엇보다 이 금동관의 우수성은 특이한 구조와 조형성에서 찾을 수 있다. 금동관은 대륜, 중앙입식, 가지 입식의 구조이며, 중앙 입식은 복발형 모자 위에 보주형 모정을 평면화시켰고, 가지 입식은 L자형 가지 끝을 보주형으로 장식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관모는 신라나 가야의 것에서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한편 이 금동관의 문양은 다른 지역에서 발견할 수 없는 가야만의 색채가 분명

한 파상점선문양대가 전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동관 전체의 가장자리 부분, 그리고 중앙입식 내부 중앙에二字와 X자로 분할된 *부분에 장식되어 있다. 이 문양은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전체와 부분이 조화롭고 통일되어 우리나라 금관이나 금동관 중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이고 특이하다.

또한 중앙입식과 가지입식에는 일정한 위치마다 상하 이중 구멍을 뚫고 달개쇠 [영락]을 장식하였다. 보주형마다 상하좌우 4개씩, 뿔족 튀어나온 곳마다 2개씩, 연결 부위에 1개, 중앙의 *형 부분에 5개, L자로 꺾인 부분에 4개의 구멍 중 현재는 총 30가 확인된다. 현재 보주형 모정 아래쪽의 튀어나온 부분에 각 1개씩 2개의 원형 달개쇠를 끼어 단 것이 현존하여 그 흔적을 엿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상하 이중 구멍에 달개쇠를 달아 화려함을 극대화시킨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은 형태나 문양 및 달개 장식 등에 있어 이와 비슷한 관모가 신라나 백제 및 가야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관모이다. 특히 이 금동관은 발굴경위나 출토지가 확실한 유물로서, 가야시대 5-6세기 금속공예를 대표할 만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 기 타

금동관은 1978년 계명대학교에서 고령 지산동 고분을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산동 32호분 석실 안에서 출토되었다. 이 금동관은 발굴보고서가 간행된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귀속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참고문헌

金鍾徹, 1981, 『高靈池山洞古墳群 32~35號墳 · 周邊石槨墓』, 啓明大學校博物館.

李午熹, 1981, 「3. 高靈池山洞 第32~35號 古墳出土 金屬遺物の 保存復原處理」, 『高靈池山洞古墳群 32~35號墳 · 周邊石槨墓』, 啓明大學校博物館.

曹永鉉, 2012, 『高靈池山洞 第73~75號墳 高靈郡加耶博物館 · 大東文化財研究院.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6 『고령 지산동고분군 518호분 발굴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고령지산동 32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의 문화재지정여부에 대한 고고학적 배경과 제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유래와 배경

(지산동고분군: 사적 79호) : 금동관 출토지인 지산동고분군은 대형의 봉토석곽분이 밀집된 대가야 중심지역 최고지배집단의 고분군으로 고령읍의 주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주능선과 그 지맥을 따라서 봉분직경이 20m가 넘는 대형분과 10-15m의 중형분이 연이어 분포하고, 경사면에는 작은 중소형봉토분이 700여기가 밀집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고분입지방식은 가야 제국의 중심고분군의 일반적인 입지유형에 해당한다. 고분군 북쪽 산정상부에는 대가야 거점산성인 주산성이, 동쪽 구릉기슭에는 궁성지 추정건물지가 위치한다.

(고고학적 조사배경) : 지산동고분은 일제강점기인 1918년에 처음으로 7기를 조사하였고, 1976년에는 봉분이 뚜렷한 대형, 중형분 72기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1977년에 파손상태가 심한 44호와 45호 등 대형 2기를 조사하였으며, 이미 상당유물이 도굴로 사라졌으나 석곽의 규모와 주부곽배치상태, 잔존유물 등으로 대가야 최고지배자급고분임이 확인되었다. 1978년에는 중형분인 32-35호를 발굴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지역기관들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중이다. (1993년/경북대학교; 94년/영남문화재연구원; 99년/경북문화재연구원; 2002년/영남대학교; 2007년/대동문화재연구원; 2012년/가야문화재연구소 등).

이러한 발굴결과를 토대로, 지산동과 고령일대 대부분의 고분이 수혈식석곽에 해당하고, 독립된 소형단독곽도 있지만, 중형분의 경우 2개의 주부곽을 병렬배치하고, 최고위 대형분의 경우는 주곽을 중심으로 30여개의 소형석곽이 배치되는 다곽식임이 밝혀졌다. 또한 44,45호분은 주능선상의 위에 위치한 봉분직경 30m인 5기의 최대형분과 함께 지산동고분군 안에서 최고위계에 속하는 고분임을 확인하였다. 44호는 장축이 27m, 단축이 25m, 봉분높이는 3.6m, 주곽은 길이 9.4m, 너비 1.75m의 세장형석곽을 중앙에 배치하고 이보다 작은 부장품용 부곽을 주곽 옆에 배치한 후, 주부곽의 둘레에 순장곽 30여기를 배치한 구조이다. 부장유물은 대부분 도굴되었으나 다량의 토기류, 금제이식, 마구 등의 무기류가 수습되었다. 44호와 기본구조가 동일한 45호에서는 초화형금동관식, 금제이식, 마구류, 은제장식대도 등이 수습되었다.

지산동고분군은 5세기초에 축조를 시작해서 6세기중엽까지 지속적으로 무덤이 조성된 가야지역 최대고분군으로 대가야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유적이다.

(지산동 32호분) : 1978년에 33-35분과 함께 조사되었으며, 이들 고분은 대형분이 분포하는 주능선에서 내려온 구릉부에 자리잡은 봉분직경이 10-15m내외인 중형분에 속한다. 32호는 봉분규모가 13.1*12.6m*m, 주곽은 5.6*0.86m*m의 세장방수혈식석곽으로 주곽 주위에 소형의 순장곽을 배치하고 둘레를 호석으로 둘러 구조이다. 문제의 금동관과 함께 다량의 토기와 판갑과 투구가 발굴되었다. 한편 78년 조사시에 길이 3m내외 너비 1m내외의 소형단독석곽묘도 수기 발굴하였으며, 소형분임에도 은상감당초문환두대도와 금제이식이 출토되었다. 지산동고분군의 조성시기는 대체로 5세기전반에서 6세기대로 편년되며, 35호분은 5세기중엽에 비정되고 있다.

2. 금동관의 특징

관대중앙의 폭이 넓고 고가 높은 dome모양의 입식은 맨윗 부분은 연봉형태이며, 입식의 좌우에는 소형 연봉형태의 끝장식을 한 가지형 장식이 좌우로 하나씩 달린 형태로서 입식의 전체모양은 광배형상에 가깝다. 대륜부의 위아래 가장자리와 입식의 주연 전체를 돌아가면서 점열문과 파상선문으로 구성된 띠대문을 돌리고 있으며, 동일한 형태의 두 개의 띠대문을 입식의 중앙부위에서 서로 'X'자상으로 교차하고 다시 그러한 교차점을 지나가는 동일한 띠대문을 관대의 띠대문과 평행하게 표현하고 있다. 입식우측의 가지형장식 끝의 연봉일부가 일실되었고, 그밖에 자그마한 부분결실이 여러 지점에서 관찰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완형을 유지하고 있다.

○ 문헌자료

국립문화재연구소, 『오구라컬렉션 한국문화재』, 해외소재문화재조사보고제12책, 2005.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사전(고분편)』, 2009.

이한상, 『동아시아 고대 금속제 장신구문화』, 도서출판 고고, 2011.

박천수, 『가야문명사』, 진인진, 2018.



그림 184.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금동관



그림 185.
일본 오쿠라컬렉션 금동관



그림 186. 복천동 11호분 출토 금동관



그림 187. 지산동 32호분 금동관



도1. 加耶의 冠(①傳 高靈, ②東京國立博物館 소장, ③池山洞32號墳, ④星州 伽岩洞, ⑤⑥玉田23號墳, ⑦磻溪堤가-A號墳 冑上部 裝飾)



○ 내용 및 특징

고령 지산동32호분 주석실에서 출토된 관모로서 좁은 관테위에 불상의 광배모양 같은 손바닥 크기의 판판한 세움 장식을 세운형태로 신라의 출자형관과는 전혀 다른 형태이다. 대가야를 대표하는 금동관으로 단순한 듯하면서도 세련되고 그 문양과 더불어 더욱 화려하게 보이는 관이다.

금동관의 높이는 19.6cm, 관테는 33.6cm, 관테의 폭은 2.7cm, 입식의 폭은 11.7cm, 맞가지 폭은 17.9cm의 규모이다. 보주형의 양볼 밑에는 앵무새부리모양의 돌기가 아래로 향해 있고, 이에 대응하는 같은 모양의 약간 큰 돌기가 양어깨에서 위로 향해 돌아 상하좌우로 대응, 대칭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세움장식 좌우에 두 개의 둥근못으로 붙인 L자형의 맞가지 역시 위쪽 끝이 보주형으로 되어 있다.

이 금동관은 경북 고령군 지산리 지산동32호분 주석실에서 출토된 금동관으로 대가야의 수장(왕)급의 주피장자가 묻혀 있는 석실의 받치 부분 유물 속에 들어 있던 유물이다.

금동관의 재질은 청동관에 금을 도금한 금동제이며 규모는 높이 19.6cm, 관테 33.6cm, 관테폭 2.7cm, 입식폭 11.7cm, 맞가지폭 17.9cm 이다.

관테 위에 6개의 둥근 못으로 고정시킨 세움장식관은 위가 큼직한 보주형으로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넓게 퍼져 광배모양을 이룬다. 보주형의 양볼 밑에는 앵무새 부리모양의 돌기가 아래로 향해 있고, 이에 대응하는 같은 모양의 약간 큰 돌기가 양어깨에서 위로 향해 돌아 상하좌우로 대응, 대칭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세움장식 좌우에 두 개의 둥근못으로 붙인 L자형의 맞가지 역시 위쪽 끝이 보주형으로 되어 있다.

입식 장식판에는 파상점선문으로 장식하고 있는데 양어깨의 하단에서 맞은편 구석을 향해 X자형으로 교차시키고, 그 교차점에서 다시 수평으로 옆줄을 배치하였다. 이 X자형을 이루는 장선과 단선의 비가 황금분할을 이루고 있어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맞가지를 포함한 세움장식의 위쪽에는 직경 10mm의 동그란 영락 30여개를 일정하게 매달았던 흔적이 있으나 현재는 3개만 남아 있다.



○ 형 식

긴 대륜에 독특한 형태의 입식(立飾)을 세워 장식한 금동관이다. 국내외에서 이와 유사한 형식의 관모(冠帽)가 거의 없는 유일한 형식의 금동관으로, 매우 희소성이

높은 유물이다.

입식의 기본 형태는 위쪽이 좁고 아래 부분은 평평한 관 모양으로, 얼핏 보면 불상의 광배 형태와 비슷해 보이지만, 양쪽 옆에 두 개의 “L”자형 장식이 좌우대칭으로 달려 있어서 상당히 독특한 형상을 이룬다. 입식의 맨 윗부분은 끝이 뾰족한 보주(寶珠) 형상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좌우 양쪽에 둥글게 말아 올려진 뼈침이 있다(도 1). 둥그스름한 입식의 중앙 부분에는 X자형으로 선을 긋고, 그 중간에 다시 선을 넣어서 장식을 했다. 입식 중간을 가로지르는 세 줄의 장식선은 각각 점열문을 배치한 파상문대(波狀文帶)로 표현되었으며, 이 장식선은 입식 전체의 테두리 부분과 L자형장식 및 대륜 양쪽 아래 윗부분에도 돌려져 있다. L자형 장식은 각각 보주형상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세 개의 보주형 장식이 마치 “山”자 형상으로 배치된 듯한 인상이다.



도 1.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입식 윗부분에는 둥근 영락 30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매달려 있는데, 지금은 흔적만 남은 상태이다. 동관을 잘라서 조립하여 만드는 판금기법으로 제작한 후 도금한 것으로, 유사한 형식의 금동관이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가야지역에서만 확인된 매우 독특한 관모(冠帽)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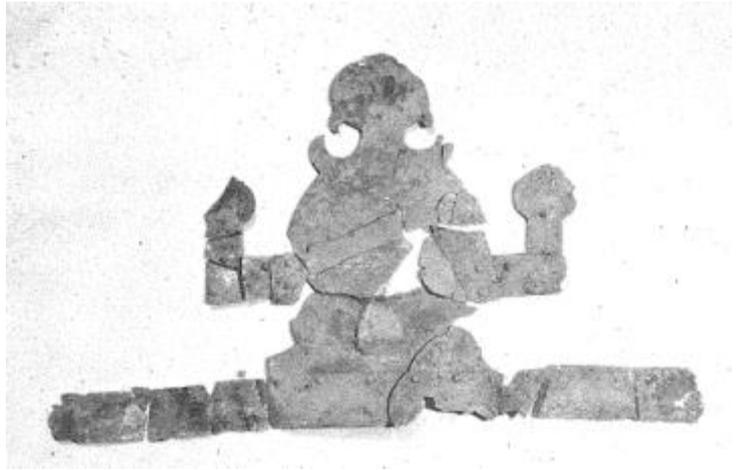
○ 조성연대

이 금동관은 1978년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경상북도 고령군(高靈郡) 지산동(池山洞) 32호분에서 출토되었다.²³⁾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 고분 중에서 상당히 위상이 높고 중요한 고분이며, 그중에서도 32호분은 가장 위상이 높은 고분으로 알려져 있다. 축조 시기는 대체로 5-6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이 금동관은 32호분 석실 서남부의 부장품 매장 공간 중 토기 위에서 상당히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도 2). 관의 제작시기는 지산동 32호분의 축조 시기를 하한으로 하는 것으로, 5-6세기경 가야시대에 제작 및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현 상

이 금동관은 발굴당시 완전히 초록색의 녹으로 수축된 수십여개의 작은 조각으로 파손된 상태였다. 보존처리를 통하여 녹이 완전히 제거된 후 복원되어 현재의 상태가

23) 지산동 32호분의 발굴보고서는 金鍾徹, 1981, 『高靈池山洞古墳群 32~35號墳 · 周邊石槨墓』, 啓明大學校博物館 참조.



도 2.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 도 3.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의 보존처리 과정.
관의 출토 상태, 1978년. 1981년 보고서에서 전재.

되었다. 당시 성분 분석에 의하면, 금, 동, 수은 등이 확인되어, 동판으로 제작한 후 수은아말감도금기법을 이용하여 도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각 파편들은 원형을 고려하여 접합하여(도 3) 복원했으며, 금속관이 약하여 뒷면에도 강화처리를 했다.²⁴⁾ 지금도 당시 보존 처리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얇은 동판에 축조기법과 점선조 기법으로 금동관 주위와 중간 부분에 파상문 장식문대를 표현해서 장식했으며, 입식의 보주형 장식 세 곳과 중앙관 등에 작은 구멍을 2개씩 연이어 뚫어서 원형의 영락들을 끼어 장식했다. 유사한 형태를 가진 관모가 국내외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지산동 고분에서만 확인된 유일한 금동관 형식으로 중요하다. 완전히 파손된 상태를 복원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다소 불안하며, 영락이나 금속관의 두께는 매우 얇지만 보존처리로 인하여 정확한 수치는 확인하기 어렵다.



도 4. 전 고령 출토 금관 및 장신구 일괄. 국보 제 138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가야시대의 금속제 관모는 현재 국보 제 138호로 지정된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전 고령출토 금관 및 장신구 일괄(도 4)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며, 출토예도 매우 적은 편이다.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은 전 고령 출토 금관과는 완전히 다른 양식을 보여주는 독특한 형태의 금동관이자, 출토 위치 및 발굴

24) 李午熹, 1981, 「3. 高靈 池山洞 第32~35號 古墳出土 金屬遺物の 保存復原處理」, 『高靈池山洞古墳群 32~35號墳 · 周邊石槨墓』, 啓明大學校博物館, pp. 222-223.

상태가 명확한 중요한 유물로서, 가야시대 문화를 대표할 만한 중요한 작품으로 생각된다.

○ 기 타

이 금동관은 1978년 계명대학교에서 고령 지산동 고분을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산동 32호분 석실 안에서 출토되었다. 발굴 경위와 출토 위치가 확실한 가야시대의 보기 드문 금동관으로서, 신라나 백제의 금속제 관모류와는 완전히 다른 형식을 보여준다. 이 금동관은 발굴보고서의 간행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귀속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 현 상

파손된 파편들을 복원하였음. 입식 꼭대기의 보주형 하단부의 우측 갈고리형 장식 결실. 입식 상부의 좌측 갈고리형 장식 결실. 우측 결가지의 보주 일부 결실. 입식 하단 좌측 일부 결실. 입식은 결가지가 부착된 곳을 경계로 횡방향으로 분리된 것을 뒷면에 천을 입히고 수지로 고정하였음. 입식과 결가지에 금사로 영락을 달아 매었으나 대부분 결실되었고, 1곳에만 있음

○ 내용 및 특징

너비가 좁은 대륜 위에 광배 모양의 얇은 판으로 된 입식을 세운 형태. 입식 꼭대기에 보주형 장식이 있고, 하부의 양측에 갈고리형 장식이 있음. 어깨 부위의 좌우측에 보주형 장식의 하부의 갈고리형 장식에 대응되게 각각 갈고리형 장식이 있음. 입식 하단부의 좌·우측에 결가지를 입식 뒷면에 대고 2개의 리벳으로 고정하였음. 대륜을 입식 위에 대고, 6개의 리벳으로 고정하였음. 입식에 X선문과 횡선문이 배풀어져 있음. 입식과 결가지의 주연 및 X선 및 횡선문에는 선조와 축조기법으로 파상점열문이 배풀어졌음. 대륜의 상·하 가장자리를 따라 파상점열문이 배풀어져 있음

○ 문헌자료

김종철, 1981, 『고령지산동고분군-32~35호분·주변석곽묘』 계명대학교 박물관 대가야박물관, 2015,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 기 타

금동관은 1978년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고령 지산동 32-35호분의 발굴조사 시, 32호분 주곽에서 출토한 국가귀속매장문화재임

10. 부산 북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 (釜山 福泉洞 二十二號墳 出土 靑銅七頭鈴)

가. 검토사항

‘부산 북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980~82년 부산 북천동에서 출토되어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된 ‘부산 북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이 2018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2차 소위원회에서 가야문화권 중요 매장문화재 지정조사 대상으로 추천됨에 따라(’18.3.28) 관계전문가 조사(’18.9.2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10차 회의(’18.12.13)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8.12.26~’19.1.28) 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부산 북천동 22호분 출토 칠두령(釜山 福泉洞 二十二號墳 出土 七頭鈴)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북천로 63 북천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길이 11.2cm, 폭 10.9cm, 본체폭 5.8cm, 본체 두께 1~1.5mm
- 재 질 : 청동
- 조성연대 : 가야(4~5세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칠두령은 가야시대 최고 수장급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동래 복천동 22호분에서 도굴로 인해 유구와 유물이 교란되지 않은 채 출토되었다. 이처럼 출토지가 명확하고 가야시대 무덤 구조와 의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 유물은 청동을 녹여 속이 빈 상태로 본체와 자루 및 방울을 주조하여 만들어, 이것들의 접합은 각각 안쪽에서 땀질하되 그 표면은 매끈하게 처리하고 있어 가야시대 공예기술의 우수한 성취가 엿보인다. 형태적으로 보면 도넛형 본체, 방울에 가늘고 긴 구멍을 내고 방울을 넣거나, 자루 부분에 나무로 손잡이를 끼우는 방식 등도 세련되어 가야시대 공예기술과 예술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고조선시대 의례의식에 사용되었던 청동제 방울은 팔두령을 비롯하여 여럿 있으나, 삼국시대에는 발견 사례가 없다. 따라서 이 가야의 칠두령은 이전 시기 하늘에 대한 제사 의식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하면서도 희귀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 또한 크다.

따라서 복천동 22분 출토 칠두령은 가야시대 의례문화와 청동 공예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로서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문화재지정의 관점에서 본 칠두령의 특징과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칠두령이 부장된 22호분은 입지와 석곽의 규모, 순장, 부장유물의 질적, 양적수준 등에 비추어볼 때 복천동고분군내 최고지위의 지배층에 속한 자의 무덤으로 간주된다.

둘째, 칠두령은 무덤조성당시 나무자루가 착장된 상태로 주피장자의 우측에 환두대도류와 나란히 배치하였는데, 환두대도는 피장자가 정치적으로 최고위권력자임을 상징하는 동시에, 칠두령은 동일인이 집단의 제의를 관장하는 제사장적인 권위와 역할을 지닌 자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칠두령의 매장 context는 금관가야 지배층의 본질과 성격 및 사회구조를 추론하는 중요한 고고학적 근거가 된다.

셋째, 칠두령은 원형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주역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령기가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금관가야인 들에 의한 독창적인 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칠두령 제작에 요구되는 수준의 발달된 청동주조기술은 이미 이전시기인 청동기시대후기(원삼국시대, 초기철기시대, 삼한시대 등)의 세형동검문화단계에 이미 영, 호남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의 광역의 여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팔두령, 쌍두령, 간두령 등의 각종 령구와 다뉴세문경 등의 세련되고 정교한 청동기를 제작했던 기술수준에 형태적 독창성만 가미하면 칠두령과 같은

령구는 얼마든지 자체제작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결론적으로, 칠두령은 그것이 상징하고 대변하는 최고위 수준의 정치적 권위와 사회적 기능, 원위치(In Situ) 발견과 고고학적 context, 형태적 완벽성 뿐만 아니라, 환두대도, 관, 이식, 경식 등의 금제품, 이형토기 등과 같은 보물지정대상물이 모두 복수의 발견품인 반면 칠두령은 동일품이 아직 없는 유일한 사례라는 독보적인 희소성까지 갖추고 있다. 이처럼 칠두령은 신라, 백제, 고구려 및 일본 등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야만의 독창적 금속공예품으로서 보물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대상유물인 칠두령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에 위치한 사적 제273호인 복천동고분군의 남북으로 긴 능선의 북구릉 정상부 해발 65m에 자리 잡은 21호분(부곽-목곽)과 22호분(수혈식석실-주실) 중 주곽인 22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이 고분은 도굴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아 매장원상을 잘 알 수 있는 고분이다.
- 주실은 장방형의 수혈식석실분이며 부곽은 토광목곽묘인데 이러한 묘실구성은 특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주실의 규모는 길이 475cm, 너비 160cm, 깊이 160cm로 묘실의 규모나 출토유물의 질과 양으로 보아 이 지역 고분 중 최고수장의 고분이다.
- 칠두령은 주인공의 머리맡인 목관의 밑에 깔은 남쪽 첫 번째 철정에서 30cm 떨어져 출토 되었는데, 손잡이부분이 발치 쪽인 북쪽을 향해 놓여 있었다. 자루 안쪽에는 목질흔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긴 나무자루를 끼워 주인공 옆에 가지런히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칠두령은 청동제주조품으로 본체부분과 방울부분, 자루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체부분은 단면 ㄷ자상의 얇은(두께 1mm내외) 청동판으로 된 타원형이며, 본체의 외경은 5.9cm, 내경은 2.2cm, 폭은 1.9cm, 두께는 1.0cm의 크기이다.
- 7개의 방울은 단면 장방형의 가지(길이 0.9cm) 끝에 각각 붙어 있는데, 가운데 능이 진 평면원형의 형태로 4방이 터져 있다. 방울은 직경 2.5cm, 길이 1.8cm의 규모이며, 방울의 가지 끝을 본체에 같은 간격으로 꿰어 완성하였다. 정면에서 시계방향으로 6번째 방울 속에는 현재 구슬이 들어 있는데, X레이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금속제품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단단한 열매와 같은 유기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 자루부분은 단면 방형으로 본체에 부착된 부분의 폭이 1.6cm로 가장 좁고, 말단부 폭이 1.8cm로 아래로 가면서 서서히 넓어지는 형태이다. 자루의 길이는 3.6cm, 두께는 1.2cm로 본체와 같이 얇은 판으로 본체와 같이 속이 비어 있는데, 여기에 긴 나무자루를 끼워 주인공의 우측에 대도류와 나란히 부장했던 것

으로 보인다.

- 이 칠두령의 정확한 용도는 확실하지 않지만 하늘이나 조상의 제사와 같은 제의나 국가의 특별한 행사에 사용하는 의기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 이와 비슷한 형태의 의기는 화순 대곡리에서 출토된 국보 제143호인 청동기시대 팔두령이 있으며, 2두령이나 간두령은 있으나 삼국시대의 의기로써 7두령은 유일한 유물로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7두령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북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제 칠두령은 7개의 방울 머리가 달린 독특한 의례용 방울로서, 7개의 방울이 달린 고대의 청동제 방울로는 유일한 예이다. 이 칠두령은 청동기시대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에 의거한 의례 및 수장(首長)의 성격과 연결되는 독특한 의례용 공예품으로서, 청동기시대 팔두령의 조형성과 간두령의 사용방식이 결합되어 형성된 독창적인 조형성을 보여준다. 이미 청동기시대부터 청동제 방울은 수장들이 각종 의례에서 사용하던 중요한 의기(儀器)로 이해되어 왔으며, 고대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이러한 수장들의 역할과 의기와 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논의해 왔다.²⁵⁾ 이 칠두령은 청동기시대의 의례문화적 전통이 4-5세기 경 가야시대의 부산지역에서도 계속 계승 및 변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 고대문화사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독특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문화사적 중요성으로 볼 때, 이 칠두령은 하루 빨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및 관리될 필요가 있다. 향후 이 칠두령에 대한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가 이루어져,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숨겨진 가야시대 문화의 여러 가지 측면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칠두령은 북천동고분군의 21-22호분의 주곽인 22호분에서 출토되었다. 22호분은 북천동고분군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구릉 정상부에 입지되었다. 22호분은 북천동고분군을 이루는 대형 고분 중 가장 빠른 수혈식석곽이고, 대형 철정 20매가 피장자가 안치될 공간에 깔았고, 그 주위에 환두대도·토기·금동제화살통·목가리개·마구류·유자이

25) 북천동 칠두령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청동기시대 이후 청동제 방울을 중심으로 한 각종 청동제 의기와 정치적 세력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 참조.

徐永大, 1991, 「韓國 古代 神觀念의 社會的 意味」,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李健茂, 1992, 「韓國青銅儀器의 研究」, 『韓國考古學報』 28.

金鐘一, 1994, 「韓國 中西部地域 青銅遺蹟·遺物의 分布와 祭儀圈」, 『韓國史論』 31.

權五營, 1996, 「三韓의 國에 對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李賢惠, 2002, 「한국 初期鐵器時代의 政治的 首長에 對한 高찰」, 『歷史學報』 180.

기·철모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부곽인 21호분에는 100여점의 각종 토기류와 금속 유물이 출토되었다. 칠두령이 출토한 21-22호분은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에 입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묘제에서 완비된 구조의 수혈식석곽이고, 내부에서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부장되어 5세기 전반 시기에 복천동고분군을 만든 집단 의 최고 수장의 모습이 표현되었다.

칠두령은 관대로 사용된 칠정군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놓여 있었다. 칠정군의 동쪽에 환두부가 남쪽으로 향한 환두대도로부터 남쪽 방향으로 약 25cm 떨어진 지점에 방울이 남쪽방향으로 향해 놓여있었다. 칠두령이 놓여 있었던 곳은 주 피장자의 머리 우측에 해당된 지점에 해당된다. 칠두령이 주피장자의 머리 우측에 부장한 점은 주피장자의 성격을 상징하는 유물임에 분명하다.

칠두령은 몸통·자루와 방울을 따로 주조한 후, 방울의 가지를 몸통에 끼워 다시 주조하여 삼국시대의 청동 주조 및 제작기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유일한 청동령이다. 우리나라의 초기철기시대에 호서·호남지역의 목관묘에서 쌍두령·팔두령 등의 청동령이 출토되었지만, 원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의 사례로는 복천동 22호분 출토품이 유일하며, 삼국시대 지배집단의 기능과 성격의 이해를 위한 의미와 상징성은 매우 중요하다.

칠두령은 출토 지역과 유구 및 지점 등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제작 및 사용 당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완형이다. 삼국시대의 청동 제작 기술을 잘 보여 주고, 매우 희소하고, 지배층의 고분에서 출토되어 당시 지배층이 의례주재자로서의 성격도 보지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유물로서 매우 특징적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 가치가 있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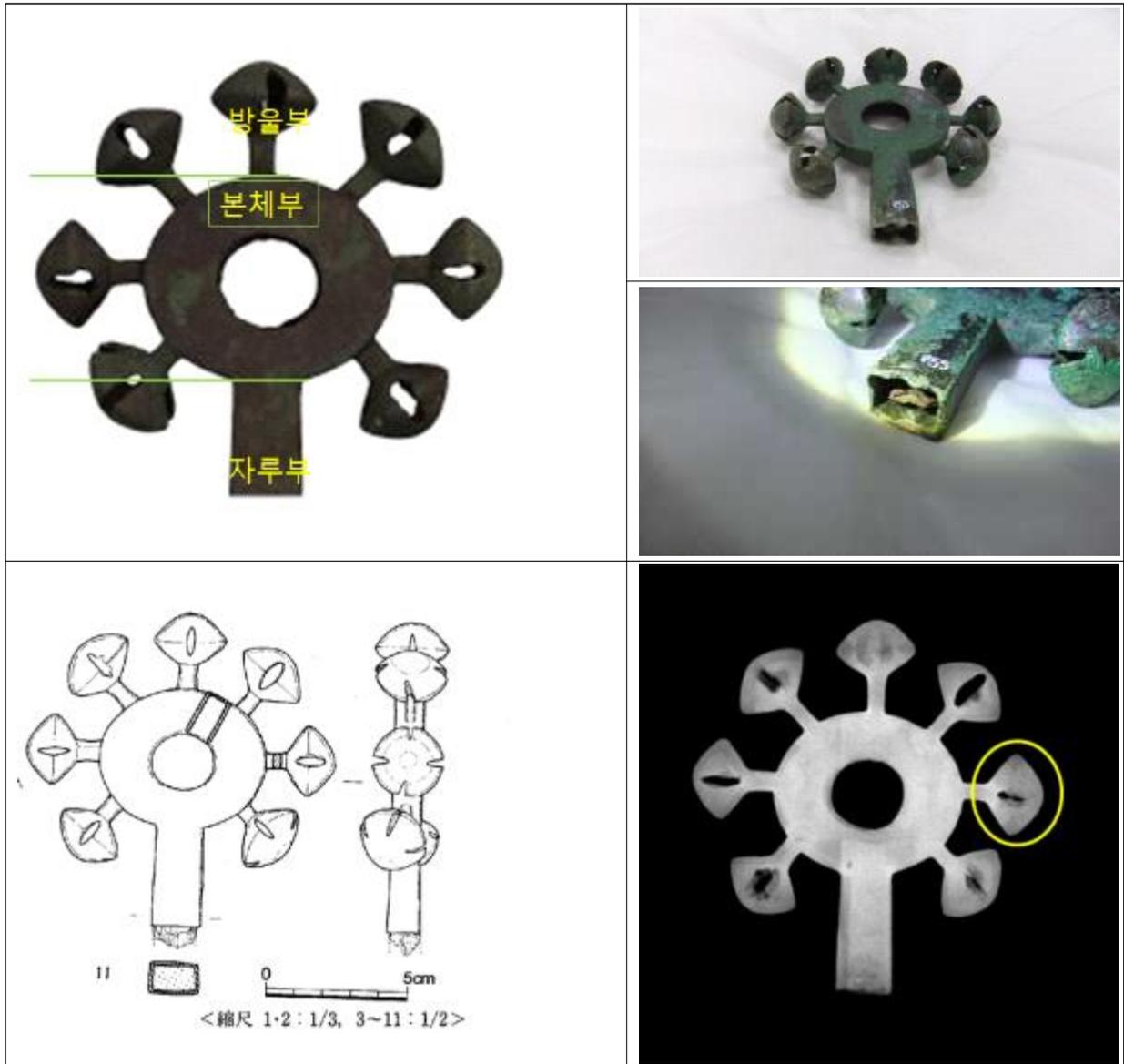
□ ○ 형 식

부산 동래구 복천동 22호분에서 출토된 칠두령은 가야시대 의식용 기물로서 청동제 주조품이다. 이 유물은 본체의 두께가 1-1.5mm 내외의 얇은 판[薄板]을 사용하여 안쪽이 빈 ‘ㄷ’자 형의 단면으로 만든 것이다. 칠두령의 형식은 크게 3부분으

로 나뉘어, 둥근 본체부분[本體部]과 자루부분[柄部] 그리고 7개의 가지의 끝에 방울이 달린 방울부분[鈴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체 부분은 둥글고 안쪽이 빈 도넛 형태이며, 바깥지름은 5.9cm이고 안지름은 2.27cm이다. 가로부분이 5.9cm, 세로부분이 4.77cm여서 좌우로 넓은 타원형을 띠고 있다. 자루 부분은 단면에 방형이며, 자루의 길이는 3.6cm이다. 본체와 자루와의 접속부는 폭 1.6cm이고 맨 아래쪽은 1.8cm, 두께는 1.2cm이다. 본체의 아래쪽 손잡이 부분에는 장방형의 자루를 붙이고 자루부분에 ▣형태로 목재를 끼워 넣은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방울의 규모는 길이 11.2cm, 폭 10.9cm이다. 도넛형 청동판에는 7개의 가지를 0.7-0.9cm 길이로 본체부에 꽂았으며 안쪽에서 뿔질을 하여 마감하였다. 가지의 끝 부분에는 4방으로 절개된 청동 방울이 등간격으로 꽂혀 있다. 7개의 방울은 전체적으로 좌우가 긴 마름모형 공모양이며, 가장 긴 지름이 2.5cm이다. 가지에 달린 방울의 가운데 부분의 상하로 가늘고 길쭉한 구멍이 뚫려 있다. 7개의 방울 중 중앙에 위치한 4번째 방울 1개에는 맨 위쪽에 구멍이 하나 있다. 7개 방울 중 정면에서 6번째 해당되는 방울에서는 내부에 방울이 1개 들어 있으나 X-ray 상으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금속제 구슬이 아니라 여겨지며 재료는 알 수 없다.



○ 현 상

칠두령은 복천동 고분군 중에서도 남북으로 긴 능선의 최정상부에 위치한 수혈식 석실분인 동래 복천동 22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이 고분은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되어 유물의 전모로 미루어 최고의 수장급이 매장된 것이 확인된다. 그중 청동방울은 주인공의 머리와 가까운 목관의 남쪽 첫 번째 못으로부터 30cm 부근에서 출토되었고, 손잡이가 북쪽을 향해 놓여 있었다. 칠두령은 자루 안쪽에 목재 흔적이 남아 있어 나무자루를 끼워 주인공 옆에 가지런히 놓았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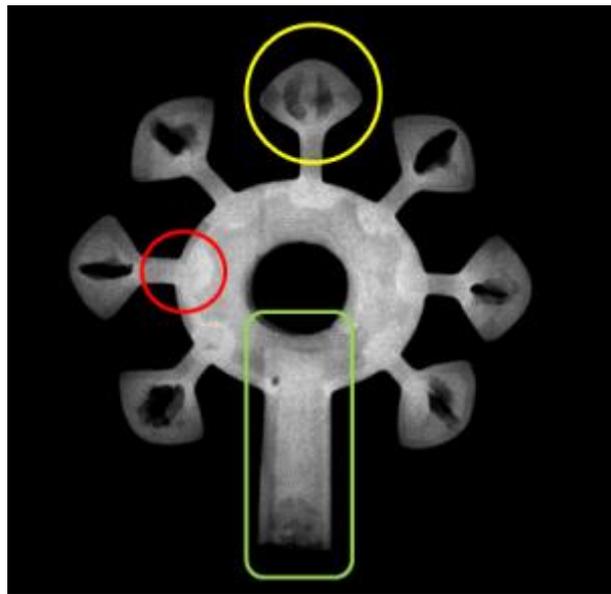
○ 내용 및 특징

칠두령은 청동을 재료로 하여 주물로 부어 도넛형 본체, 장방형의 손잡이, 가지, 방울을 각각 만든 다음, 본체와 자루, 가지와 방울, 본체와 가지를 뿔질하여 붙인 것이다. 각각은 속이 비어 있는 상태이며, 본체에 이들을 뿔질하여 붙인 기술이 확인된다. 본체에 7개의 가지가 달리고, 끝 부분에 방울을 넣었으며, 나무로 된 긴 손잡이를 흔들며 방울소리를 내며 고대 의례의식 때 사용했던 의기(義器)라 여겨진다.

이와 같이 방울이 여러 개 달린 유물은 고조선시기의 것으로 여럿 있다. 화순 대곡리에서 출토된 국보 제143호인 팔두령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밖에도 고조선 시대의 것으로는 2두령이나 간두령도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유물로 청동방울이 출토된 사례로는 북천동 22호분 출토 칠두령이 유일한 예로서 고대 의례생활사를 알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유물이다.



전남 함평 초포리 출토, 고조선시대 팔두령, 기원전 4세기,
팔두령 지름 12.8cm



○ 문헌자료

釜山大學校博物館, 1990, 『東萊福泉洞古墳群Ⅱ-본문』

釜山大學校博物館, 1990, 『東萊福泉洞古墳群Ⅱ-도판 도면』



○ 현 상

칠두령은 주곽의 남편에서 출토되었으며, 본체부와 령부와 병부로 구성되며, 총장 11.2cm, 최대폭(령포함) 11.0cm 이다.

본체부는 단면 ‘ㄷ’자상의 박판(두께1-1.5mm)으로 된 타원형이며, 횡외경 5.9cm, 종외경 5.0cm, 내경 2.0-2.2cm, 본체폭 1.6-1.9cm, 본체후 1.0cm 이다.

령부는 단면 장방형의 가지(장 0.7-0.9cm) 끝에 부착되었으며, 중앙에 능이진 평면 원형형태로서 외연을 돌아가면서 4군데가 절개되어 있다. 직경 2.5cm, 령장 1.8cm이다.

병부는 단면방형으로 본체에 접속된 부분의 폭이 1cm로 가장 좁고, 말단부 폭이 1.8cm로 아래로 가면서 아주 서서히 넓어지는 형태이다. 병장은 3.6cm, 두께는 1.2cm 로서 이 역시 박판(두께1mm 전후)으로 되어있고 속이 빈 상태인데 여기에는 병부잔흔으로 보이는 종향의 결을 가진 목질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목병의 존재와 무덤안에서의 배치로 미루어 칠두령은 나무자루가 착장된 상태로 주피장자의 우측에 대도류와 나란히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본체부와 령부와 병부로 구성되며, 총장 11.2cm, 최대폭(령포함) 11.0cm, 임. 본체부는 단면 ‘ㄷ’자상의 박판(두께1-1.5mm)으로된 타원형이며, 횡외경 5.9cm, 종외경 5.0cm, 내경 2.0-2.2cm, 본체폭 1.6-1.9cm, 본체후 1.0cm임. 령부는 단면 장방형의 가지(장 0.7-0.9cm) 끝에 부착되었으며, 중앙에 능이진 평면 원형형태로서 외연을 돌아가면서 4군데가 절개되어 있다. 직경 2.5cm, 령장 1.8cm임. 병부는 단면방형으로 본체에 접속된 부분의 폭이 1cm로 가장 좁고, 말단부 폭이 1.8cm로 아래로 가면서 아주 서서히 넓어지는 형태. 병장은 3.6cm, 두께는 1.2cm 로서 이 역시 박판(두께1mm전후)으로 되어있고 속이 빈 상태인데 여기에는 병부잔흔으로 보이는 종향의 결을 가진 목질이 검출됨.

(북천동고분군: 사적 273호) : 지정대상인 갑주 일습이 출토된 유적은 북천동고분군이며, 유구는 북천동 33호분의 매장주체부 내부이다. 북천동고분군은 3-7 세기 대까지 조영되었으며, 4-5세기가 그 중심연대이다. 이 시기에 부산일대에 수장급

세력의 대형묘가 밀집된 중심고분군이 축조된다. 복천동고분군은 동아대박물관(1969), 부산대박물관(1974), 부산시립박물관(1980-1994)이 발굴하였다.

발굴된 무덤은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옹관묘 등이며 목곽묘와 수혈식석곽이 가야시기의 중심고분이다.

수장묘인 대형묘는 구릉정상부를 따라 능선진행방향(등고선과 직교방향)으로 자리잡고 중소형묘는 구릉사면에 등고선을 따라 분포한다. 이러한 묘역조성원리는 가야의 여러 정치체의 중심지역인 울산하대, 김해대성동, 함안도항리 등지에서도 확인된다.

대형묘의 경우, 대체로 (주곽 목곽+ 부곽 목곽) - (주곽 석곽 + 부곽 목곽) - (단독석곽) - (횡구식 석실)의 순서로 형식이 교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묘에서 처음으로 순장이 나타나고, 출토유물은 토기, 철기, 금동관, 의례용기, 장신구 등 양, 질 양면에서 최고수준에 해당한다. 총 9,000점이 넘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단일고분군로서는 가장 많은 양의 갑주가 출토되었고, 판갑, 찰갑, 요갑, 경갑, 종장판주, 마갑, 마주 등이며 가장 많은 양의 갑주가 출토되었다.

총 9,800점의 유물이 출토된 복천동고분군은 함안말이산고분군과 고령지산동고분군과 더불어 가야지역 최대의 고분군이다.

(복천동22호분) : 주곽(22호)와 부곽(21호)가 일렬로 배치된 대형분으로, 복천동고분군의 구릉 최정상부에 위치한다. 22호를 포함하여 중심고분들이 순차적으로 능선을 따라 남에서 북으로 위치하며, 동서로는 소형급 고분들이 대형분들을 에워싼 형태로 조성되었다.

22호분은 1980-81년에 발굴되었고, 주곽과 부곽은 약 50-55cm 간격으로 남북으로 배치되었으며, 주곽은 길이 680cm, 너비 640cm, 깊이 290cm 크기의 방형의 묘광을 파고 그 안에 길이 475 cm, 너비 160cm, 높이 160cm의 석곽을 축조한 후, 그 위를 길이 270 cm, 너비 140 cm, 두께 40cm 정도의 4매 판석을 개석으로 덮었다. 매장주체부가 지하식인 수혈식석곽과 부곽은 길이 630cm, 너비 420cm, 깊이 210-270cm의 묘광안에 길이 450cm, 너비 220cm의 목곽을 설치하였다.

복천동고분군의 고분들의 상대편년에 입각하면, 최고위 수장급무덤의 주곽에 석곽을 채용한 것은 22호분이 처음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거대한 개석을 갖춘 것도 장법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장법은 이후 목곽을 대체하는 주류 묘제로서 지속되었다.

주곽의 바닥에는 철정 20매를 깔고, 주곽 안에는 주인공 외에 3인의 순장자와, 고배, 발형기대, 호 등의 토기류, 철촉, 철보습 등의 무기와 농공구류, 유자이기와 판상철모 등의 의기류와 재갈, 등자, 안고, 운주 등의 마구류 세트와 철촉이 담긴

호록금구세트 등이 부장되었다. 피장자의 몸 가까이에서 문체의 칠두령과 함께 3점의 환두대도와 도자, 경식, 이식이 출토되었으며, 관곽의 존재를 보여주는 꺾쇠가 일정범위에서 확인되었다.

22호분은 고분의 입지와 규모, 순장, 부장유물의 질적, 양적수준 등 모든 면에서 피장자의 위상이 복천동고분군내 최고지위에 속한 자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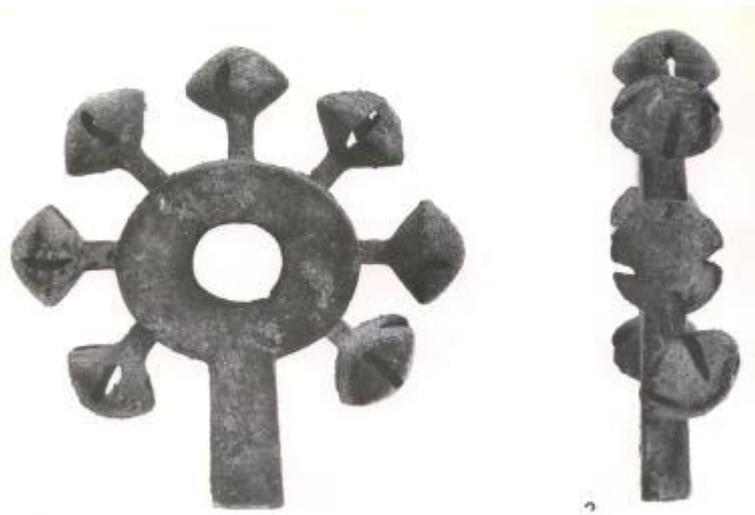


그림 204. 부산 복천동 22호분 출토 칠두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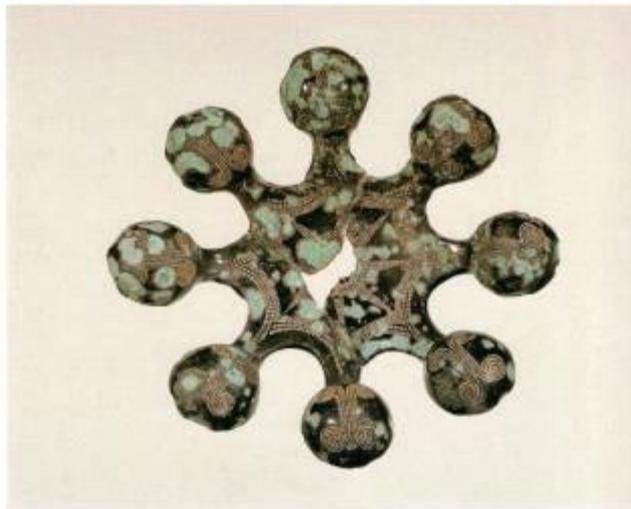
그림 205. 부산 북천동 22호분 주석곽 내부



그림 207. 부산 북천동 22호분 주석곽 칠두령 출토 상태



그림 208. 화순 대곡리 청동기 일괄



118 青銅八鈎鏃(其1) 有期 大谷里山土(一基). 國寶 143號(其1). 口径 12.3cm. 國立中央博物院藏
Bronze eight-padded spade (I) Hwasun Age (B.C. and 2nd century) National Treasure No. 143 (I) Diameter: 12.3cm National Museum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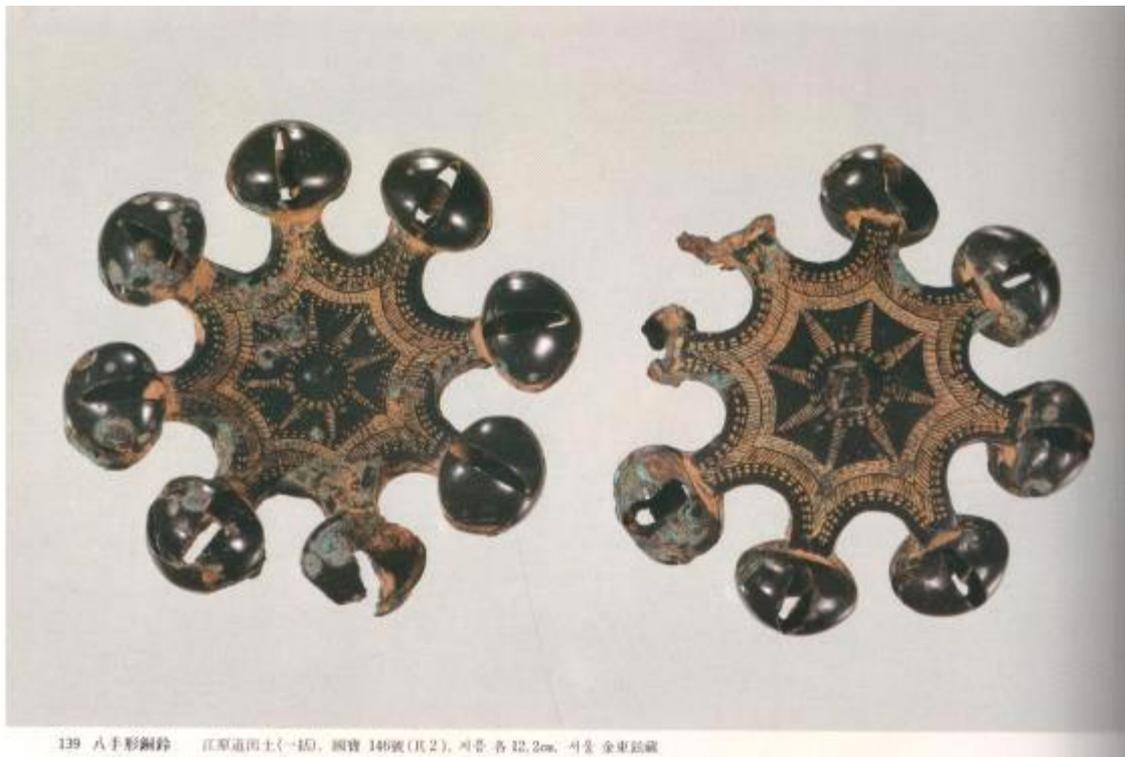


119 圖形 118의 側面
Side view of the Plate No. 118

그림 209. 화순 대곡리 팔두령



그림 210. 화순 대곡리 쌍두령



139 八手形銅鈴 江原道出土(一括), 銅寶 140號(其2), 径長 各 12.2cm, 所屬 金東銘藏

그림 211. 전 강원도 출토 팔두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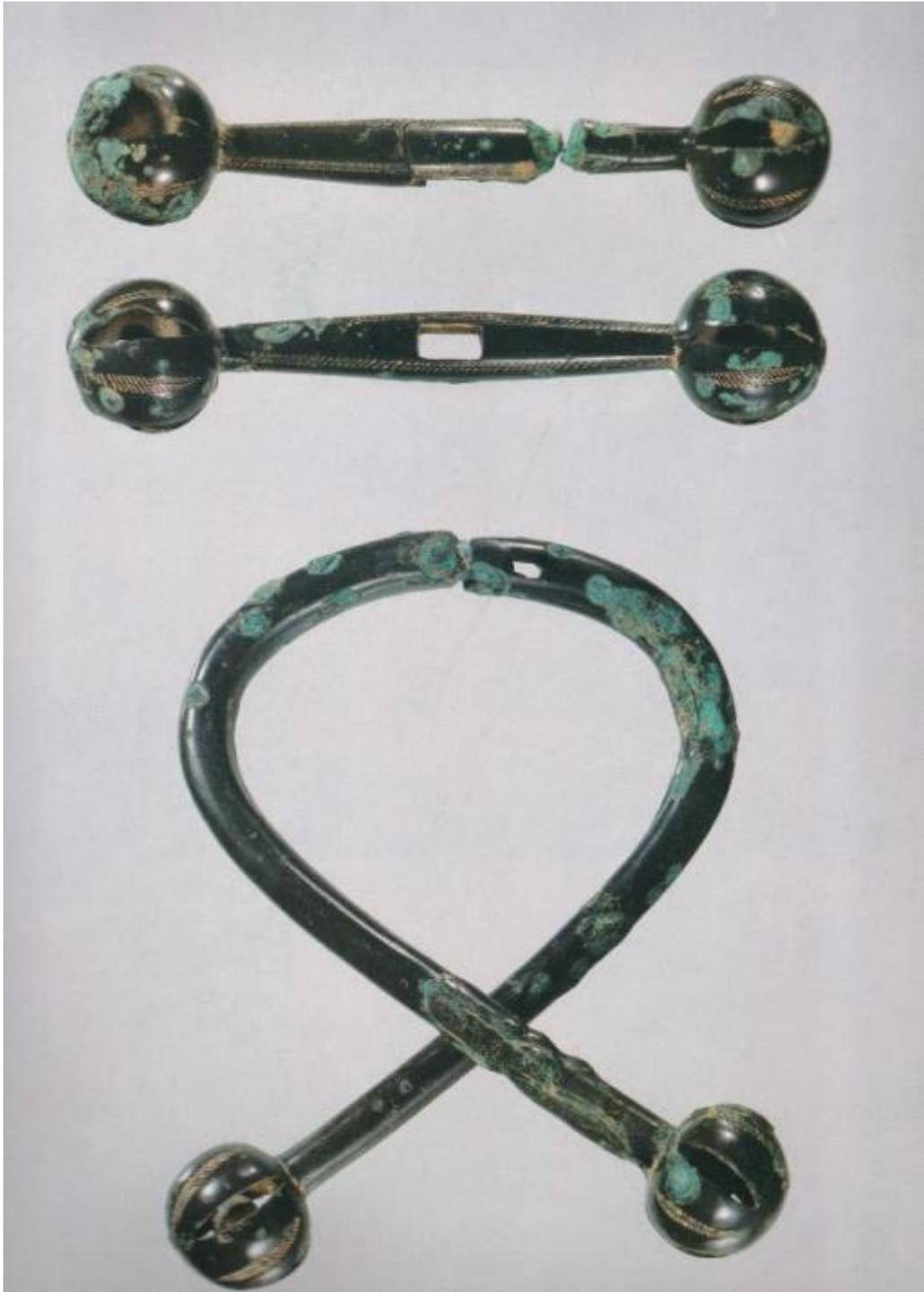


그림 212. 전 강원도 출토 쌍두령



○ 내용 및 특징

수혈식석실분인 동래 복천동22호분 주곽에서 출토된 청동유물로 삼국시대 의례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방울이 여러개 달린 유물은 청동기시대 8두령 외에 삼국시대 유물로는 유일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물이다.

방울의 규모는 길이 11.2cm, 폭 10.9cm 인데, 원형의 청동판에 7개의 청동 방울을 등간격으로 꽂아 소리가 나게 하고 본체 아래쪽에 장방형의 자루를 붙여 나무를 끼우는 구멍이 있는 형태이다. 본체의 폭은 외경 5.9cm, 내경 2.2cm 이다. 방울은 직경 2.5cm로 가운데 능이 있고 4방이 절개되어 있고 길이 0.9cm의 가지로 본체에 꽂혀 있다.

○ 문헌자료

釜山大學校博物館, 1990, 『東萊福泉洞古墳群Ⅱ』



○ 형 식

청동제 방울로, 둥근 원형의 본체부 주위에 7개의 방울이 달려 있고, 아래쪽에는 나무를 꽂아서 손잡이, 혹은 자루를 형성하는 장방형의 병부(柄部)가 달려 있다(도 1). 이렇게 7개의 방울이 달린 형식의 청동제 방울은 국내외의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존하는 유일한 형식의 작품이다. 표면에는 아무런 문양이 없다.

이 방울은 1980-1981년에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부산 복천동 22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석실 남쪽에서 발견되었다. 지금도 병부 안쪽에는 목제 자루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도 2), 발견 당시에 주인공의 안치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놓여진 것으로 볼 때, 피장자가 가지고 있던 의기(儀器)로 추정된다.²⁶⁾

○ 조성연대

칠두령이 부장되어 있던 부산 복천동 22호분은 복천동 고분군 중에서 최정상부에 있는 가장 중요한 수혈식석곽분의 주실(主室)이다. 복천동 22호분에서는 문자자료를 비롯한 절대연대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축조시기를 알 수는

26) 칠두령의 발굴상황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박물관, 『東萊福泉洞古墳群Ⅱ - 本文』, 부산대학교박물관, 1990, p. 5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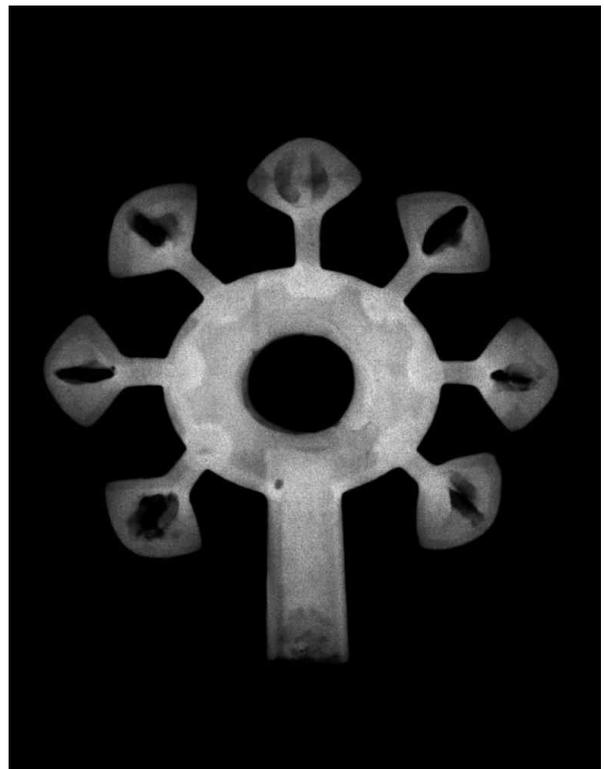


도 2. 청동제 칠두령의 병부 안쪽 세부.

없으나, 묘제 및 공반유물등의 특징으로 볼 때, 4-5세기경의 가야 시대 고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 칠두령은 복천동 22호분이 축조되었던 4-5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현 상

이 칠두령은 발굴 이후 지금까지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발굴 당시에는 본체부 안에 점토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당부분이 제거되어 있다. 본체부인 원형의 형태는 단면 “ㄷ”자 형태로 되어 있으며 속이 비어 있다. 내부는 점토 및 부식물 등으로 인하여 육안으로는 구체적인 구조가 확인되지 않는데, 각 방울이 달린 부분에 금속 덩어리가 확인되었다. 점토의 일부는 주물에 사용되었던 주물사(鑄物沙)로 추정되므로, 토범(土范)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물사의 존재만으로는 밀랍 주조기법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제작된 것인지, 아니면 토범을 이용한 분할주조를 한 것인지, 혹은 다른 주조기법으로 제작된 것인지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 유물에 대한 X선 촬영을 시도하였다. X선 결과에 의



도 3. 청동제 칠두령의 X선 사진.

하면, 본체부와 방울이 연결된 부분 마다 안쪽으로 다소 두터운 금속 덩어리가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된다(도 3). 한편, 한두개의 방울 안에는 소리를 내기 위한 딸랑이용 구슬이 들어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지만, X선 사진 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내부의 구슬은 금속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아쉽게도 현재 X선 촬영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주조기법을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유물에 대한 CT 촬영과 과학적 성분분석 조사 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청동기시대에서 삼국시대의 청동제 방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학적 조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전남 출토 청동기시대 동령(銅鈴)의 조사에 의하면, 그 방울은 구리, 주석, 납의 3원계 합금이며 납의 성분이 다소 높으며, 원료 산지는 중국 북부 요녕성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²⁷⁾ 그러므로 향후 이 칠두령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료 및 산지, 그리고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가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좀 더 심도깊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내용 및 특징

이 칠두령은 부산 북천동 고분군 제 22호분 석실 안에서 출토된 것으로, 가야시대 수장급 인물의 무덤에 매납되었던 독특한 청동제 의기(儀器)이다. 이미 청동기시대부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청동제 방울들이 제사장들의 의례용 기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청동제 방울은 의례에서 하늘과의 접신(接神)을 위한 소리를 내는 타악기이자 의식구(儀式具)로서, 근대기까지 시베리아의 샤만(Shaman)들이 사용했던 의기이다. 한국에서 청동제 의기로서의 방울이 발견되는 것은 기원전 4-3세기경부터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방울들의 정확한 출토예가 알려진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

청동기시대의 청동제 방울 중에서, 이 칠두령의 선행 형식으로 생각되는 것은 국보 제 143호로 지정된 화순 대곡리 유적 출토 팔두령(八珠鈴)과 쌍두령(雙頭鈴), 그리고 국보 제 146호인 전 논산 출토 팔두령과 쌍두령 등이 있다(도 4). 청동기시대의 팔두령들은 중앙에 고리가 있어서 끈을 걸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쌍두령이나 간두령(竿頭玲)은 자루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야시대의 북천동 22호분 출토 칠두령은 팔두령 형태의 영향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 맨 아래 부분의 방울 하나를 쌍두령이나 간두령과 같이 자루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병부(柄部)로 변형시켰다. 이는 팔두령의 조형성과 간두령의 사용방식을 결합시켜 변형시킨 것으로, 청동기시대의 전통 문화 의례가 가야시대의 부산 지역까지 계승 및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칠두령이 출

27) 崔柱 · 金秀哲 · 金貞培, 1992, 「韓國의 細形銅劍 및 銅鈴의 金屬學的 考察과 鎳 同位元素比法에 의한 原料產地 推定」, 『先史와 古代』 3, pp. 203-204.



도 4. 진 논산 출토 청동계 방울 일괄품. 팔두령, 쌍두령, 이형쌍두령, 간두령. 국보 제 146호. 청동기시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지 과학적 성분분석 및 조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보존처리 및 CT촬영과 성분 분석 등의 조사가 심도 깊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 현 상

전체적으로 부식이 진행되어 부분적으로 푸른색 녹이 수착되었고, 자루 끝부분 일부가 떨어져 나감.

○ 내용 및 특징

청동계 주조품으로 몸통(본체)부·구슬(영)부·자루(병)부로 구성. 앞과 뒤의 모양이 동일함. 몸통·자루와 방울을 따로 주조한 후, 몸통에 방울 뿌리를 삽입하고 재주조하여 만들었음. 몸통부의 전체 평면 형태는 횡타원형이고, 두께 1~1.5mm의 얇은 청동판을 단면 ‘ㄷ’자 모양. 몸통 안쪽에 주조 시 내형으로 추정되는 점토가 가득 들어 있음. 막혀 있는 몸통의 측면에는 일정 간격으로 7곳에 둥근 구멍을 뚫었고, 이곳에 방울 뿌리를 삽입하여 만들었음.

방울은 단면이 장방형인 가지 끝에 붙어 있는데, 가운데가 능이 저 그 형태가 은행나무 씨앗과 같은 모양. 방울 측면 4곳에 세로로 긴 타원형의 구멍을 뚫었음. 가운데의 방울에서 좌측에 있는 첫번째 방울에는 흙으로 만든 구슬이 들어 있음.

토된 복천동 22호분은 4-5세기경 부산 지역의 가야 문화권에서 수장이었던 인물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청동기시대 이후 전통적인 한반도 남부 지역의 샤머니즘, 혹은 제사 의례가 일부 변형되면서도 이 시기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중요하다.

○ 기 타

이 유물은 1980-1981년 부산대학교 박물관의 복천동 고분군 발굴조사 과정에서 제 22호분 주실 안에서 출토되었으며, 이후 복천박물관이 건립되면서 복천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 귀속되어 소장자는 국립김해박물관이지만, 복천박물관에서 상설전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자루는 몸통과 일체형으로 윗부분의 너비가 좁고, 아래로 가면서 서서히 넓어지는 형태. 단면은 장방형이고, 두께 1mm. 내부는 비어있고, 나무자루로 추정되는 목재가 들어 있음. 자루로 사용된 나무의 수종은 분석되지 않아 불명. 재료 분석이 되지 않아 구성물의 비율은 알 수 없음.

○ 문헌자료

釜山大學校 博物館, 1990, 『東萊福泉洞古墳群Ⅱ-本文-』

釜山大學校 博物館, 1990, 『東萊福泉洞古墳群Ⅱ-圖面·圖版-』

○ 기 타

칠두령은 1980~1981년도에 실시한 부산 북천동고분군 제1차 발굴조사 대상 유구인 22호분(21호분의 주곽)에서 부장품으로 출토된 국가귀속매장문화재임

11. 부산 북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 (釜山 福泉洞 三十八號墳 出土 鐵製甲冑 一括)

가. 심의사항

‘부산 북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994년 부산 북천동에서 출토되어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된 ‘부산 북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이 2018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2차 소위원회에서 가야문화권 중요 매장문화재 지정조사 대상으로 추천됨에 따라(’18.3.28) 관계전문가 조사(’18.9.2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10차 회의(’18.12.13)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8.12.26~’19.1.28) 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부산 북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
(釜山 福泉洞 三十八號墳 出土 鐵製甲冑 一括)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북천로 63 북천박물관
- 수 량 : 1건 3점(종장관주 1점, 경갑 1점, 종장관갑 1점)
- 규 격 : 종장관주 복원 전체 높이 34cm, 지름 17.3cm, 머리둘레 63cm
경갑 앞쪽 높이 11.5cm, 복원 뒤쪽 높이 29.3cm
앞쪽 복원 폭 30cm, 복원 최대 폭 44cm
복원 위 둘레 65.5cm, 복원 아래 둘레 60.5cm
종장관갑 복원 전체 높이 43cm, 복원 전체 직선 길이 59cm.
복원 아래둘레 107cm
- 재 질 : 철
- 조성연대 : 가야(4세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부산 북천동 38호분 출토 철제 갑옷 일괄품은 종장판주[투구], 경갑[목가리개], 종장판갑[갑옷]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물은 출토지가 분명하고 여러 공반 유물을 통해 4세기 가야 철제 갑옷으로서 제작시기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자못 크다.

공예기술적으로 볼 때 가야 철제 갑옷 일괄품은 철을 다루어 단조하는 기술이 우수한 점이 주목된다. 철판을 가늘고 길게 두드려 착장자의 머리 크기에 맞춰 둥그스름한 투구 형태를 만들고, 신체의 굴곡에 맞추어 목가리개나 갑옷을 곡선적으로 제작하였다. 이렇게 이 유물은 철제로 가야 갑옷을 제작하는 기술이나 철판에 구멍을 뚫어 가죽으로 꿰어 연결하는 착장방식을 확인할 수 있어 예술적인 가치가 높다. 더욱이 철제 갑옷은 재료의 특징상 부식으로 훼손되어 그 원형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인데, 본 유물은 비교적 보존상태가 좋아 갑옷의 복원이 가능하여 가야 철제 갑옷의 구성형식과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예기술적 가치 또한 충분하다.

철제 갑주는 가야 고분의 중요한 위세품으로 알려져 있다. 백제에서는 갑주가 출토되기는 하나 대형의 중요한 분묘에는 매납되지 않으며, 4세기 신라에서도 갑주의 부장이 있었으나 5세기 이후에는 거의 사라진다. 그러나 가야는 대형 고분의 중요한 부장품으로 매납되어 가야 철제 갑주가 단순한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권력의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대단히 높다.

철제 갑옷류 중에서, 찰갑, 판갑, 투구가 비교적 좋은 상태로 한 고분에서 출토된 예가 많지 않지 않다는 점에서도 북천동 38호분 출토 갑옷류 일괄품은 가야 문화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상과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천동 38호분 출토 철제 갑옷 일괄품은 가야의 철기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로서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대상유물의 출토상황을 포함한 출처의 투명성과 확실성, 사회, 문화, 정치적 배경과 역사적 가치, 희소성과 공예기술적 가치, 잔존과 보존 및 복원 상태 등 지정대상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제반 측면과 요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첫째, 출처와 입수경로 및 과거 당시의 원위치와 상황을 알 수 없는 기존의 일부 지정문화재들과 비교할 때, 북천동 38호분의 갑주일습은 과거 당시의 원래의 위치와 상황이 거의 완벽하게 파악되는 원위치(In Situ) 유물이라는 점에서 월등한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다.

둘째, 사회, 문화, 정치적 배경과 역사적 가치의 측면에서는, 앞서 기술된 복천동 고분군의 조영과정, 고분군 안에서의 38호분의 상대적 위치, 38호분 자체의 규모와 형식 및 축조방식, 순장을 비롯한 주, 부곽에서 출토된 유물의 최고 수준의 질적, 양적 규모와 성격, 가야사회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순장과 주부곽식 목곽제도의 시행 등이 제기하는 역사적 함의 등 모든 측면과 차원에서 볼 때 주곽에 묻힌 주인공은 부산일대를 장악한 금관가야권의 한 중심세력집단의 최고 지배자로 해석되며, 따라서 그러한 주인공을 위하여 부장한 갑주일습은 상응하는 수준의 평가 대상에 속한다.

셋째, 희소성, 공예기술적 가치, 잔존과 보존 및 복원 상태 등의 측면에서는, 한 무덤에서 투구와 판갑 및 찰갑이 함께 출토된 사례는 있으나, 38호분의 경우는 이 세 가지의 매장당시의 원위치를 비교하여 종장판주와 경갑과 판갑을 당시에 일습으로 매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상대적인 희소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철제갑주유물의 경우, 부식이 빠르고 무덤 바닥에 눌러서 원형이 변형, 왜곡된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과거 당시의 입체적인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지만, 38호분의 갑주일습은 지금까지 발견된 종장판갑 가운데 과거당시의 원형에 가장 가깝게 복원된 사례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복천동 38호분출토 갑주일습은 가야의 종장판갑, 대금판갑, 찰갑의 3대 형식과 종류 중 지금까지 발견된 종장판갑가운데 가장 상태가 우수하고 그 고고학적이고 역사적인 배경과 함의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 보물로서의 지정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이 갑옷일습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에 위치한 사적 제273호인 복천동고분군의 남쪽구릉 정상부에 위치하는 주부곽식 대형목곽묘인 제38호 주곽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 복천동 38호분은 남서로 길게 뻗은 복천동고분군의 해발 36.3m 남쪽구릉 정상부에 위치하는데, 풍화암반을 장방형으로 판 묘광은 길이 750cm, 너비 370cm, 깊이 135cm 규모이다.
- 종장판갑옷은 목곽내부의 할석으로 이루어진 ㅁ자형 시상대의 북동쪽 단편 쪽에서 출토되었고, 종장판투구는 반대편인 남서쪽 단벽 근처에서 출토되었다.
- 갑옷은 장방형 철판 7매를 세로로 가죽 끈으로 매어 붙이는 형식이며, 여기에 겨드랑이 판 2매, 소매판 2매, 도련판 3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철판은 가장자리에 0.3mm의 구멍을 뚫어 가죽끈으로 연결하는 방법이다.
- 현재 갑옷의 앞 높이는 40.3cm, 전체높이는 43cm, 소매판은 길이 18.5cm, 너비 13.5cm이다.

- 목을 가리는 경갑은 상단과 하단으로 이루어졌는데, 상단은 방형철판 9매, 하단은 5매의 철판으로 구성되어 있다(높이 29.4cm, 하단길이 60cm). 상단철판은 위쪽은 넓고 둥그스름하며 아래쪽이 좁고 각진 형태로 전체적으로 부채를 펼친 것 같은 모양이다.
- 종장판투구는 세장한 철판 20매로 구성되나 각 철판의 길이와 폭은 부위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위쪽은 약간 둥그스름한 방형이고(최대폭 1.7cm), 아래로 내려올수록 넓어지고 각이 진다(최대폭 40.2cm). 투구의 위를 덮는 복발은 반구체 형태이며, 직경 8.4cm, 높이 3cm이다. 연결방법은 갑옷과 같이 가죽끈으로 꿰매는 방법이다.
- 종장판갑옷은 4, 5세기 영남지방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갑옷형식이다. 이 복천동38호분 출토 종장판 갑옷일습은 정식발굴조사에서 출토되어 매장위치, 세트관계, 시기적으로 4세기대의 빠른 시기의 갑옷으로써 학술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 갑옷일습은 본체인 종장판갑옷과 여기에 함께 붙어 있는 소매갑옷, 동정과 목과 어깨를 가리는 경갑, 머리와 볼을 가리는 종장판투구 등 방어무구의 세트가 잘 갖추어진 것으로 갑옷의 대표라 할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갑옷제작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부산 복천동 38호분 주곽 출토 철제 종장판주, 경갑, 종장판갑, 찰갑 일괄품은 4세기 전반경 가야 문화권의 뛰어난 철기 제작기술과 무구 형식을 알려주는 중요한 작품으로서, 가야시대 철제 갑옷류 중에서 출토 위치와 공반 유물들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밝혀진 중요한 문화재이다. 가야시대의 수많은 고분에서 철제 갑옷류가 다수 확인되고 있지만, 대부분 철이라는 재료의 특성으로 인하여 부식이 심하고 보존상태가 매우 나쁜 편이다. 복천동 38호분 출토품은 비교적 보존이 잘 되고 원래의 형태에 가깝게 복원이 된 중요한 예이며, 갑옷의 형식으로 볼 때 가야의 철제 갑옷류 중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야 고분의 중요한 위세품으로 알려진 철제 갑옷류 중에서, 찰갑, 판갑, 투구가 비교적 좋은 상태로 한 고분에서 출토된 예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도 복천동 38호분 출토 갑옷류 일괄품은 가야 문화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상과 같은 점으로 볼 때, 복천동 38호분 출토 철제 갑옷 일괄품은 가야의 철기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로서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복원과 정확한 수량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인 철제 찰갑은 보물 지정에서

제외하고, 종장관주, 경갑, 종장관갑 3종만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철제 공예품의 특성상, 매년 철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처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하므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보물 지정 이후 보존처리 관련 절차상의 문제들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며, 지정 이후에도 유물 보존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행해야 한다.

○ (지정 가치 있음)

갑옷 일괄이 출토된 복천동 38호분은 고분군이 위치한 구릉의 남쪽 능선 정상부에 위치한 이혈주부곽식의 목곽묘이다. 주곽이 능선 앞쪽에 배치되었고, 부곽이 뒤쪽에 배치되었으며, 전체 길이가 17m인 대형이다. 주곽은 바닥 가운데에 크기가 작은 냇돌을 깔고, 좌우에는 규모가 큰 깎은 돌을 사용하여 가운데보다 높게 만들어 단면이 ‘U’자 모양이다.

주변보다 높이가 낮은 가운데의 바닥에는 70cm 간격으로 단면이 삼각형인 쇠화살촉을 5열로 깔았고, 주피장자의 머리맡에 환두부가 북쪽으로 향해 환두대도 1점이 놓였고, 환두대도의 환두부 서쪽에 환두대도와 직각으로 대도 1점이 놓였다. 대도의 북쪽인 깎은 돌 위쪽에는 20개의 덩이쇠가 놓였고, 서쪽과 동쪽에는 길이가 90cm 내외의 철모가 놓였다. 환두대도의 동쪽 깎은 돌 단 위에는 찰감 1벌이 출토되었다.

갑옷은 동쪽 모서리에서 목가리개와 갑옷이 놓였고, 서쪽 모서리에 투구가 놓여 있었다. 38호분에서 출토된 갑옷은 영남지역에서 출토한 갑옷중에서 그 시기가 가장 빠르고, 투구·목가리개·갑옷이 한 벌을 이룬 매우 희소한 사례이다. 이 갑옷 일괄은 앞 시기의 목제 또는 피혁제 등의 갑옷을 철제로 바뀐 모습을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철제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구의 발달을 나타내는 적극적인 자료이다. 철제 방어구가 완비된 형태로 등장한 점은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져 이 시기의 사회가 매우 불안하고 역동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38호분에 부장된 철제 갑옷을 통해 당시 신라와 가야지역에는 지역 통합을 위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배층들이 그들의 신변을 보호함과 동시에 무장으로서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음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우측 전동부의 지판 1매는 일부분에 구멍이 나자 이곳에 철판을 덧대에 수리하였는데, 이는 갑옷이 실제 사용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갑옷이 부장용이었음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목곽이 썩어 무너지면서 투구·목가리개·갑옷도 넘어져 원래 형태가 이완되고, 철판끼리 수착되어 완벽하게 당시의 형태로 복원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물론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원래의 철판으로 복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좌우 또는 상하의 철판을 연결하기 위한 구멍과 가죽끈의 모습이 잘 남아 있다.

이 갑옷 일괄은 방어구가 목재 또는 피제에서 철제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가장 빠른 사례로서 삼국시대 철제 갑주의 시작 시점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철제 투구·목가리개·갑옷의 초현 형태와 양상 및 제작기술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이자 고대국가 성립기의 지역 사회 양상을 적극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정 가치가 있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형 식

부산 동래구 복천동 38호분에서 출토된 가야시대 갑옷 일괄품이다. 철제 판을 두드려 엮어 만들었으며, 머리 가리개인 투구[冑], 목덜미 가리개인 경갑[頸甲], 몸체를 가리는 판갑옷[板鉞]의 3종이 일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을 총칭하여 중장판갑으로 명명하는 이유는 갑주를 이루는 철판들이 세로로[從} 긴[長] 철판[板] 형태를 이어 만든 갑옷과 투구[甲冑]이기 때문이다.





<중장판주의 세부명칭>, 이성훈(2012) 도판1

북천동 38호분 투구[중장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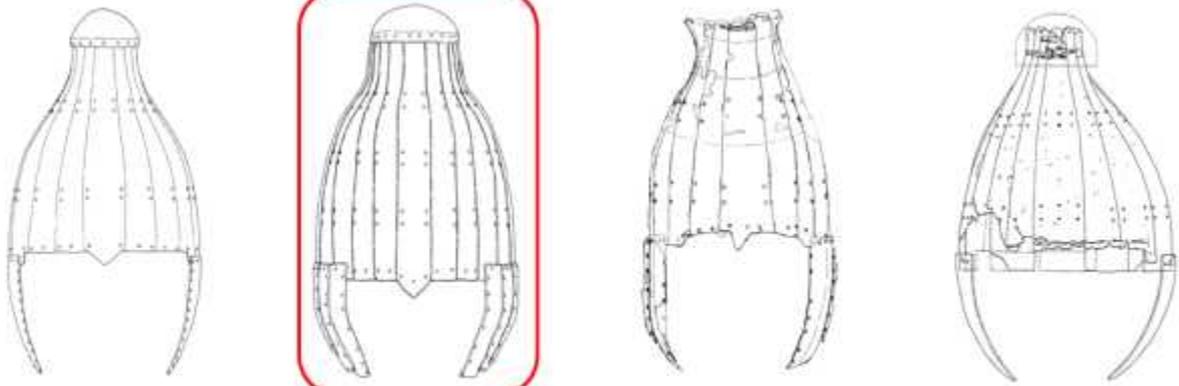
첫째,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가리개이다. 철판을 두드려 세로로 길고 폭이 좁게 만들어 여러 장을 서로 연결하여 만든 투구이기 때문에, 그 형태적 특징에 따라 중장판주(從長板冑)라고 부른다. 투구는 반구체 모양의 복발 1개와 20매 철판을 연결한 지판부와 2개의 불가리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복발은 지름 8.4cm, 높이 3cm 정도로 다소 파손된 상태였으나 지금은 'S'자형으로 복원되어 있다.²⁸⁾ 복발 아랫쪽에는 17-18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 지판부와 연결했을 것이다. 복발 상부와 지판부 왼쪽의 위쪽에는 투구를 장식했던 깃털의 흔적이 남아 있다. 다음, 지판부는 세장한 철판 20매로 구성되어 있고,²⁹⁾ 가장 넓은 둘레는 63cm이다. 이 철판은 위쪽이 좁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폭이 넓어진 형식이다. 판의 크기는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각 철판마다 0.2-0.3cm의 구멍이 뚫려 있어 가죽끈을 꿰어 연결하였을 것이다. 지판은 방형, 규형, 호형으로 분류되는데, 미액부(眉額部) 사이는 규형+사선형으로 조합되어 있다.³⁰⁾

한편 불가리개는 2개이고, 각각 2장의 철판을 연접하여 붙였다. 이것 또한 구멍을 뚫고 가죽끈으로 연결하였을 것이다. 주체부의 하단과 불가리개 가장자리의 연결도 마찬가지이다.

28) 복발이 'S'자형인 것은 북천동 38호분을 비롯하여 21호, 22호분 및 대성동 18분 등 다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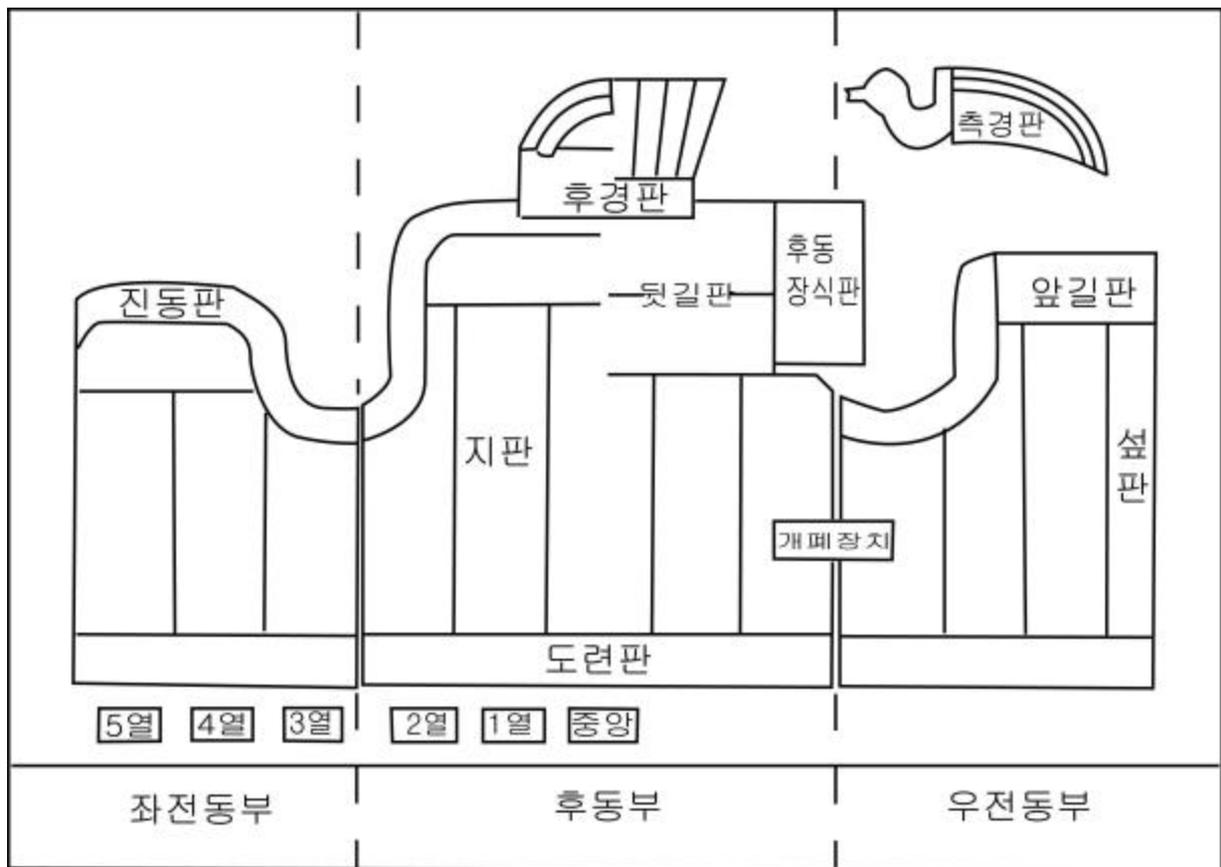
29) 지판부는 26매 이상과 이하로 구분되는데, 북천동 38호분은 20매로 26매 이하에 해당된다. 26매 이하에는 북천동 93호분, 대성동 18호분, 56호분 등이 있다.

30) 규형+사선형의 조합은 북천동 38호분 이외에 북천동 21호분, 22호분 및 대성동 67B에서도 발견된다.



김해대성동 18호분 / 복천동 38호분 / 포항 학천리 15호분 / 함안 도항리 36호분

복천동 38호분 형식의 투구는 김해지역권인 대성동 18호, 양동리 78호, 경주지역권인 울산 중산리 IB-100호, 포항 옥성리 나17호, 부산지역권인 복천동 69호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종장관감의 세부명칭도 (송정식(2003) 도면)

한편, 종장판갑은 세부 구조가 복잡하여 여러 학자들이 한복의 구성에 따른 명칭을 도입하여 <종장판갑의 세부명칭>을 정하여 부르고 있다. 여기서는 목가리개에 해당되는 경갑[혹은 후경판]과 갑옷에 해당되는 판갑으로 나뉜다.



둘째, 경갑은 착용자의 목을 보호하는 목가리개에 해당되며, 후경판이라고도 부른다. 목가리개는 한반도에서 철제비늘갑옷이 제작되면서 줄곧 만들어진 부속갑이며, 종장판갑의 초기부터 마치 나팔처럼 활짝 핀 모습으로 적에게 위압감을 주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웃 일본의 목가리개는 형태가 달라, 목 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연결되어 크기가 크고 작은 장방형 철판을 재단하여 만든다.

목가리개는 갑옷에 고정시켜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가 가능하고 구조도 단순하다. 지판은 경판의 연결 방식에 따라 이것을 갑옷의 뒷길에 못으로 고정시키는 것과 ‘T’자 형태의 철판을 대고 연결하기도 하고, 일정한 홈을 내어 끼우기도 한다. 복천동 38호 경갑의 경우 목의 앞쪽은 낮아 높이 11.5cm이고 5매의 철판을,

뒤쪽은 높아서 높이 29.3cm이며 9매의 철판을 이어 붙이고 있다. 뒤쪽의 경우 뒷머리에 닿는 윗부분이 바깥쪽으로 벌어져 마치 부채꼴과도 같은 곡선을 이루고 있다. 경갑 아래 둘레는 60.5cm, 위 둘레는 65.5cm로 위로 갈수록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경갑의 앞쪽 폭은 30.0cm, 곡면은 33cm, 최대폭은 44cm이다. 이러한 철판을 연결하기 위해 구멍을 뚫려 있어, 구멍에 가죽끈을 이용하여 묶었을 것이다.



갑옷 앞면 보수흔적, 혁포복륜 흔적

갑옷[종장판갑] 옆

셋째, 판갑은 가늘고 긴 철판을 이어 만든 갑옷이며, 착용자의 신체 곡률에 맞게 재단되었다. 복천동 38호 갑옷의 경우 아래쪽부터 살펴보면 도련판은 3매, 좌전동부 2매, 우전동부 2매, 후동부 3매, 협부무판 2매, 소매판 2매 등 16매의 철판으로 복원되었다. 복원한 갑옷을 살펴보면 전체 높이는 43cm, 가슴둘레는 111cm, 허리둘레는 108cm이다. 소매판은 너비 13.5cm × 길이 18.5cm이다.

각 철판은 일정한 간격으로 지름 0.3cm의 작은 구멍을 뚫은 후 연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형식의 종장판갑은 기원후 4-5세기경 영남지역에서 널리 유행했던 대표적인 가야시대 갑옷의 형식으로, 복천동에서 약 20여벌 이상이 출토되었다. 복천동 38호분 출토 종장판갑은 복천동 고분군 출토 철제 갑옷 중에서 가장 고식(古式)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제작된 철제 갑옷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제작기법은 연결기법, 복륜기법, 개폐장치, 밀착기법으로 구분된다. 본 유물은 철판마다 구멍이 뚫려 있어 두 철판을 가죽으로 연결하는 혁결법(革結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머리가 편평한 못으로 연결했을 가능성도 있다. 종장판갑에는 여러 부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들은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가죽과 연결

하거나 갑옷을 여닫는 개폐와 관련된다. 주로 어깨 부분의 구멍은 가죽으로 걸치도록 되어 있고, 앞쪽 가슴 부분의 구멍을 통해 갑옷을 착용하고 고정하여 밀착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본 유물은 구멍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종장판갑 a형의 방식으로 착장되었을 것이다.



표 84 <종장판갑의 착장방식 추정 모식도>, 최재현(2003)

이처럼 종장판갑은 한반도 고유의 갑옷으로 가야와 신라에서 출토되나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가야의 것은 목을 보호하기 위한 반원형의 목가리개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신라의 것은 마치 나팔을 연상하게 하는 목가리개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갑옷에 대한 인식이나 용도가 달랐음을 보여준다. 가야는 몸을 보호하는 용도를 넘어 새장식이나 깃털을 외연에 붙인 혼적도 확인된다.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하여 의례나 신분에 상징으로 활용한 것이다. 화려한 장식은 전투에서 몸을 보호하기 거추장스러워서, 신라는 장식 없이 실용적으로 종장판갑을 만들다가 비늘갑옷으로 일찍부터 바뀌었다.

○ 조성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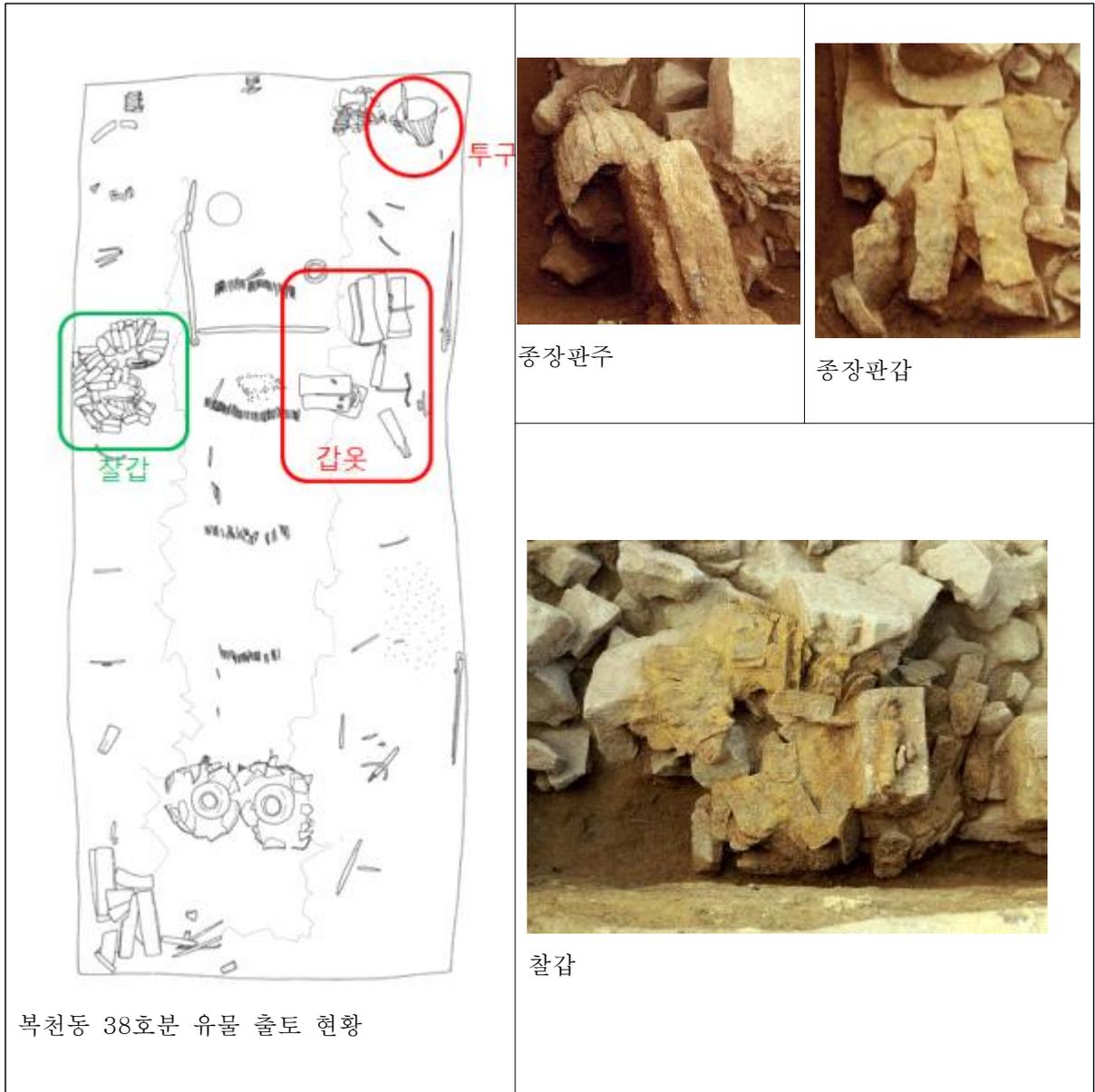
부산 동래 복천동 38호분의 연대와 갑옷의 형식 등으로 보아 가야시대 기원후 4세기 전반경으로 편년되어 왔다. 특히 종장판갑은 한반도에서 출토된 여러 철제 갑주 중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의 하나이며, 고고학적으로 출토 사례가 많지 않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와 특수한 장식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종장판갑은 가야의 이른 시기의 것으로서 철제 갑주의 원류가 일본이 아니라 한반도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 현 상

부산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은 1969년 택지공사 도중에 우연히 발굴되었으며, 가야 시대부터 신라시대의 고분들이 밀집해 있다. 이중 복천동 38호분은 1983년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부곽을, 1994년 부산박물관에서 주곽을 발굴하였다. 유적에서는 주곽 내곽의 주변부 서쪽에서는 종장관주가, 내곽 북쪽에서는 종장관갑이, 내곽 동쪽에서는 찰갑편들이 출토되었다. 이처럼 찰갑과 함께 종장관주와 종장관갑이 동, 서, 북벽에 부장되었다가 발굴되었으며, 상태가 좋지 않은 찰갑을 제외하고 관갑과 관주는 복원된 상태이다.³¹⁾

이처럼 관갑[경갑]과 관주는 비록 따로 떨어져 출토되었지만 가늘고 긴 첩판을 두드려 만든다거나[鍛造] 구멍을 뚫어 가죽으로 연결하여[革結] 사용하는 등의 제작기법이 일치한다. 양자는 갑주 일괄품으로 여겨진다. 발굴 후 보존처리하여 현재의 상태는 비교적 우수한 편이지만, 공기 중에서 산화되는 첩제의 특성상 부식이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첩제 유물이 그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31) 종장관갑과 종장관주 그리고 찰갑은 복천동 38호분을 비롯하여 58호분, 64호분에서도 출토되었다.



○ 내용 및 특징

갑옷은 고대 국가가 형성되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 다양한 무기가 발달하자 그에 수반하여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발달하였다. 특히 가야시대 고분으로 알려진 부산 북천동 고분군, 김해 양동리, 대성동 고분군 등에서는 철제로 만든 갑옷과 투구가 다수 출토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야 유적에서 출토되는 갑주의 대부분은 철제의 특징상 심하게 부식되고 오랜 세월 탓에 원형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런데 부산 북천동 38호분 출토 철제 갑옷 일괄품은 보존 상태가 좋아 복원하여 그 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하다. 이 유물은 판갑과 경갑 및 갑주가 잘 갖춰져 있고, 가야 초기 4세기 철제 갑옷의 구성과 형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

한 종장판갑 형식의 갑옷은 가야와 신라에서 출토된다. 이러한 갑옷은 동북아시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어, 한반도 남부에서 개발된 토착적인 것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더욱이 이 유물은 4세기 가야의 금속제작기술의 뛰어난 수준을 엿볼 수 있다. 철제 갑옷과 투구는 모두 철판을 두드려 제작하고, 착용자의 몸에 딱 맞도록 제작하고 있다. 세로로 가늘고 긴 철판을 연결한 투구[종장판주]와 몸에 맞게 갑옷[종장판갑] 및 목가리개[경갑]을 만드는 것에서 당시의 공예기술이 확인된다. 이것들이 착용자의 사회적 신분과 위의를 장엄하는 무구로서 고분에 부장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 문헌자료

福泉博物館, 2010, 『東萊福泉洞古墳群 -第5次發掘調査 38號墳-』.

福泉博物館, 2009, 『韓國의 古代甲冑』.

김영민, 1995, 「영남지방 판갑에 대한 일고찰」, 『古文化』 46輯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김혁중, 2008, 「嶺南地方 4~5世紀 縱長板甲의 地域性 研究」, 慶北大學校 碩師學位 論文.

서유나, 2017, 「三國時代 鐵製甲冑의 研究」

송계현, 1988, 「三國時代 鐵製甲冑의 研究」,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송계현, 2000, 「伽倻의 鐵器副葬樣相」, 『伽倻考古學論叢』 3, 伽倻文化研究所編,

송계현, 2000, 「伽倻의 金銅裝飾 甲冑에 대하여」, 『인문연구논집』 제5집.

송계현, 2001, 「4~5세기 동아시아의 갑주」, 『4~5世紀 東亞細亞 社會와 加耶』, 第2回 加耶史 國際學術大會.

송계현, 2004, 「伽倻古墳의 甲冑變化와 韓日關係」,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제110집.

송정식, 2003, 「伽倻·新羅의 縱長板甲 研究」, 釜山大學校 碩師學位論文.

송정식, 2009, 「삼국시대 판갑(板甲)의 특징과 성격」, 『학예지』 제16집.

신경철, 1997, 「복천동 고분군의 갑주와 마구」 『가야사복원을 위한 복천동 고분군의 재조명』, 제1회 부산광역시립복천박물관 학술발표대회.

오광섭, 2004, 「종장판갑의 조장」, 『영혼의 전달자』, 김해박물관.

禹順姬, 2006, 「古墳出土 臂甲 檢討」, 『石軒 정정원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이성훈, 2012, 「三國時代 縱長板冑의 研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경숙, 1999, 「영남지방 출토 縱長板冑에 관한 研究」, 東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장경숙, 2001, 「頸甲에 대한 小考」 『科技考古研究』, 7號.

□

○ 현 상

판갑, 경갑, 종장판주 모두 고고학적인 고증과 과학적 보존처리를 거쳐서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어 있음.

○ 내용 및 특징

(복천동고분군: 사적 273호) : 지정대상인 갑주 일습이 출토된 유적은 복천동고분군이며, 유구는 복천동 33호분의 매장주체부 내부이다. 복천동고분군은 3-7 세기 대까지 조영되었으며, 4-5세기가 그 중심연대이다. 이 시기에 부산일대에 수장급 세력의 대형묘가 밀집된 중심고분군이 축조된다. 복천동고분군은 동아대박물관(1969), 부산대박물관(1974), 부산시립박물관(1980-1994)이 발굴하였다.

발굴된 무덤은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옹관묘 등이며 목곽묘와 수혈식석곽이 가야시기의 중심고분이다.

수장묘인 대형묘는 구릉정상부를 따라 능선진행방향(등고선과 직교방향)으로 자리잡고 중소형묘는 구릉사면에 등고선을 따라 분포한다. 이러한 묘역조성원리는 가야의 여러 정치체의 중심지역인 울산하대, 김해대성동, 함안도항리 등지에서도 확인된다.

대형묘의 경우, 대체로 (주곽 목곽+ 부곽 목곽) - (주곽 석곽 + 부곽 목곽) - (단독석곽) - (횡구식 석실) 의 순서로 형식이 교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묘에서 처음으로 순장이 나타나고, 출토유물은 토기, 철기, 금동관, 의례용기, 장신구 등 양, 질 양면에서 최고수준에 해당한다. 총 9000점이 넘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단일고분군로서는 가장 많은 양의 갑주가 출토되었고, 판갑, 찰갑, 요갑, 경갑, 종장판주, 마갑, 마주 등 이며 가장 많은 양의 갑주가 출토되었다.

총 9800점의 유물이 출토된 복천동고분군은 함안말이산고분군과 고령지산동고분군과 더불어 가야지역 최대의 고분군이다.

(복천동 38호분) : 고분군의 구릉남쪽 정상부에 위치한다. 부곽을 갖춘 대형목곽분으로 주곽의 크기는 길이750, 너비350, 깊이150cm의 긴 장방형의 묘광안에 길이535,너비250cm의 목곽을 설치하였으며, 바닥은 전면에 할석을 깔았다. 할석 가장자리에서 안쪽에 큰 돌로 단을 만들고, 단의 가운데에 편평한 돌을 놓고 그위에 갈대로 엮은 멍석을 깔고 다시 그 위에 70cm간격으로 화살촉을 5열로 깔았다. 돌이 깔리지 않은 서북쪽 모서리에서 비취곡옥과 함께 순장자가 매장되었다. 목곽과 묘광 사이는 모래와 점토를 채웠다.

목곽안에서 400점 이상의 철촉, 마구류, 철정, 갑옷과 투구, 철부, 철검, 환두대도, 도자 등의 철기류와 노형토기, 단경호 등의 특징적인 토기를 부장하였으며, 주인공 머리 위쪽에는 철촉, 투구, 옥촉 등이 부장되었다.

38호분은 복천동고분군의 고분의 상대편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축조한 주인공의 주곽과 부장품을 넣는 별도의 부곽으로 구성된 주부곽식 목곽묘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한 가야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순장무덤인 동시에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 판갑, 찰갑, 투구 등의 갑주가 출토된 무덤으로 편년되고 있다. 따라서 38호의 주부곽식 목곽의 구조와 형식 및 축조방식, 내부의 시설, 순장, 갑주, 등은 가야목곽묘의 형식변천과 편년 및 부장품변화연구의 중요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문헌자료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천동고분군’, 『한국고고학사전』, 2001, 508-509 >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천동38호분’, 『한국고고학사전(고분편:홍보식)』, 2009, 515-516.

김혁중, ‘영남지방 출토 종장판갑의 분포와 의미’, 『영남고고학』 49호, 2009, 5-52.

김혁중, ‘중국중원·동북지방 갑주로 본 영남지방 갑주문화의 전개과정과 특징’, 『영남고고학』 72호, 2015, 5, 50-82.



그림 234. 복천동 38호분 갑주 일괄



그림 235. 복천동 38호분 매장주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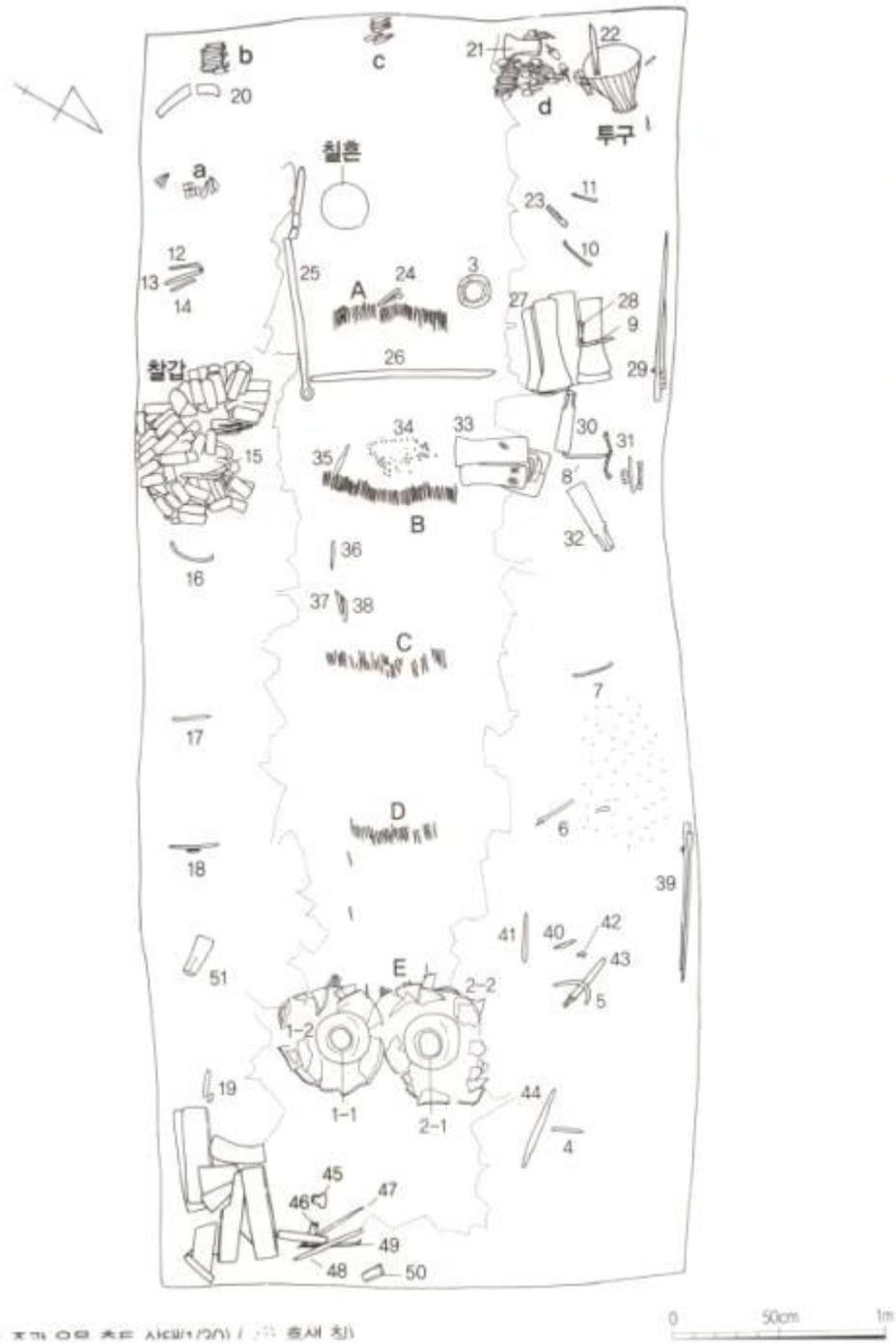


그림 236. 북천동 38호분 꺾내부실측도



○ 내용 및 특징

종장판갑옷, 경갑, 종장판발형투가 일습으로 갖추어진 이 갑옷은 동래복천동 고분군의 남쪽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한 주부곽목곽묘인 복천동38호분 주곽의 시상대북쪽부분(갑옷)과 남쪽부분(투구)에서 출토되었다. 이 갑옷 일습은 복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20여벌의 갑옷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갑옷이며, 목과 어깨를 감싸는 경갑이 세트를 이루고 있는데, 종장판투구의 불가리개와 이중으로 방어하는 형태이다. 갑옷의 가장 큰 특징은 등판에 장방형철판을 세로로 이어 소매판을 부착한 것이다. 이는 갑옷의 변화 발전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 문헌자료

福泉博物館, 2010, 『東萊福泉洞古墳群 -第5次發掘調査 38號墳-』.



○ 형 식

종장판주(縱長板胄), 경갑(頸甲), 종장판갑(縱長板鉞) 등으로 구성된 가야시대의 갑옷 일괄품으로(도 1), 부산 복천동 38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종장판주는 머리에 쓰는 철제 투구로서, 세로로 길고 폭이 좁은 철판 여러 장을 두드려서 서로 연결하여 만든 것이다. 복천동 38호분 출토 종장판주는 세장한 철판 20매로 구성된 주체부에 반구체 모양의 복발 1개, 그리고 두 개의 불가리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체부를 이루는 철판은 위쪽이 좁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폭이 넓어진 형식으로, 판마다 크기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각 철판에는 0.2-0.3cm의 연결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에 가죽끈을 꿰어서 서로 연결하였다. 복발은 지름 8.4cm, 높이 3cm 정도로 다소 파손된 상태였으나 지금은 복원되어 있다. 복발 하단부에는 17-18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서 복륜을 연결했던 것으로 보인다. 복발 상부와 주체부 왼쪽 위쪽에는 투구를 장식했던 깃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2개의 불가리개는 각각 2장의 철판을 연접하여 붙인 것으로, 역시 구멍을 뚫고 가죽끈으로 연결한 흔적이 보인다. 조체부의 하단과 불가리개 가장자리는 가죽과 천으로 마무리하였다.

복천동 38호분 출토 경갑은 종장판갑의 목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쪽의 낮은 하단부와 위쪽의 상단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하단부는 5매의 철판을 이어서 만들었으며, 상단부는 9매의 철판을 이어서 만들었다. 상단부의 윗부분이 바깥쪽으로



도 1. (향좌측부터) 종장관주, 경갑, 종장관갑 일괄품. 복천동 38호분 출토.

외반하며 부채꼴의 커다란 곡선을 형성한다. 철판들의 연결은 구멍을 뚫고 가죽끈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복천동 38호분 출토 종장관갑은 철판을 이어 만든 갑옷으로, 현재 저전동부 2매, 우전동부 2매, 후동부 3매, 협부무관 2매, 소매관 2매, 도련관 3매 등 16매의 철판으로 복원되었다. 복원후 가슴둘레는 111cm, 허리둘레는 108cm에 달한다.³²⁾ 각 철판은 일정한 간격으로 지름 0.3cm의 작은 구멍을 뚫은 후, 가죽끈으로 엮어서 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형식의 종장관갑은 기원후 4-5세기경 영남지역에서 널리 유행했던 대표적인 가야시대 갑옷의 형식으로, 복천동에서 약 20여벌 이상이 출토되었다. 복천동 38호분 출토 종장관갑은 복천동 고분군 출토 철제 갑옷 중에서 가장 고식(古式)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제작된 철제 갑옷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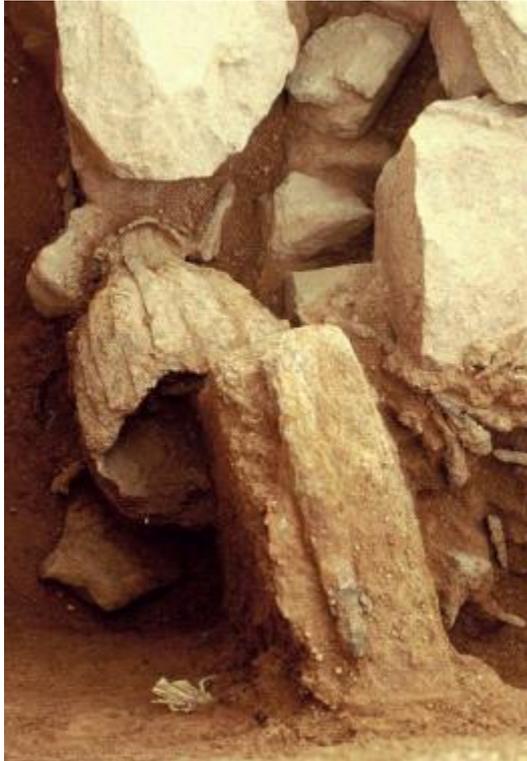
○ 조성연대

복천동 38호분의 연대와 갑옷의 형식 등으로 보아 가야시대 기원후 4세기 전반경으로 편년되어 왔다.

○ 현 상

32) 복천동 38호분 출토 갑옷류의 발굴 현황은 福泉博物館, 2010, 『東萊福泉洞古墳群 - 第5次發掘調査 38號墳』, 부산: 福泉博物館, pp. 82-124 참조.

부산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은 1969년 택지공사 도중에 우연히 발굴된 고분군으로서, 가야시대부터 신라시대까지의 고분들이 밀집해있다. 이중에서 본 철제갑옷



도 2. 종장관주 출토 상태. 부산 복천동 38호분. 도 3. 종장관갑 출토 상태. 부산 복천동 38호분.

일괄품이 발굴된 복천동 38호분은 1983년 부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서 부곽이 먼저 발굴되었으며, 주곽은 1994년 부산박물관에서 행한 복천동 제 5차 발굴조사 때에 발굴되었다. 철제 갑옷 일괄품은 주곽의 내곽 외부로 추정되는 주변부에서 출토되었다. 서쪽 목곽선과 할석단 사이의 공간에서 종장관주가 출토되었으며(도 2), 내곽 북쪽벽 쪽에서 경갑을 포함한 종장관갑이 출토되었고(도 3).

내곽 동쪽벽에서 찰갑편들이 출토되었다. 발굴 당시에는 모두 첩판이 흩어진 상태로 출토되었으나, 이후 보존처리와 복원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아쉽게도 동쪽벽에서 출토된 찰갑은 첩판 180여매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복원할 수 없는 상태이다(도 4).

발굴 상태로 보아, 찰갑, 종장관주, 종장관갑은 각각 동벽, 서벽, 북벽에 나누어 부장되었으며, 관갑과 관주는 따로 떨어져서 나왔으며 제작기법 면에서 관주와 찰갑이 일괄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피장자 1명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은 확실하다. 현재 종장관주와 경갑, 종장관갑은 일괄품으로 복원된 상태로 전시되고 있어서(도 5), 이 세 종만 원래부터 하나로 착용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는 투구, 찰갑, 판갑은 각각 필요에 따라 세트를 바꾸거나 단독으로 착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철제 갑옷과 투구는 모두 가죽과 천을 덧대어 옷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판갑의 일부에서는 수리해서 사용한 흔적도 확인된다.



도 4. 찰갑 출토 상태. 복천동 38호분.



도 5. 종장판주, 경갑,종장판갑의 복원 전시 상태.복천동 38호분 출토. 복천박물관 소장.

투구, 판갑, 찰갑은 모두 얇은 철판을 두드려서 만든 철제 단조 공예품이므로, 보존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은 아니며, 발견 당시에도 이미 해체된 상태였다. 또한 철의 특성상 계속 부식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꾸준한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 내용 및 특징

갑옷과 투구는 전쟁의 발달과 함께 발전한 무구(武具)의 일종으로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되는 전쟁용 특수 의복의 일종이다. 금속기 문화의 발전과 함께, 각종 무기들이 금속으로 제작되면서, 동시에 그러한 무기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서 갑옷이 제작되기 시작했다. 초기의 갑옷은 나무나 가죽과 같은 유기물질로 제작되었으며, 중국에서는 돌이나 뼈로 만든 예들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철기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원삼국시대부터 철제 갑옷이 본격적으로 제작되었으나, 유기질제 갑옷도 꾸준히 사용되었다.³³⁾

한국의 고대 철제 갑옷과 투구는 3-4세기경부터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

33) 갑옷과 투구의 역사에 대해서는 국립김해박물관, 2015, 『甲冑 - 전사의 상징』, 김해: 국립김해박물관 참조.

만, 정확한 제작연대는 알 수 없다. 가야시대 고분이라고 알려진 부산 복천동 고분군, 김해 양동리, 대성동 고분군 등에서는 철제 갑옷과 투구가 상당수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심하게 부식되거나 해체되어 원래 상태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철제 갑옷과 투구는 모두 철판을 단조해서 제작하여 착용자의 신체 크기에 맞도록 맞추어 제작하는 것으로서, 초기철기시대의 뛰어난 금속공예 제작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들이다. 특히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종장판주는 세로로 긴 철판을 단조하여 만든 독특한 단조 철기 공예품으로서, 착용자의 높은 사회적 위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복식품이자 무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부산 복천동 38호분 출토 철제 갑옷 일괄품은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고, 철제 갑옷 중에서 형식적으로 이른 시기의 것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하나의 고분 안에서 판갑, 찰갑, 투구가 모두 함께 출토되어, 피장자가 가지고 있던 철제 갑옷 일괄품의 전모를 비교적 자세히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갑옷이 출토된 복천동 38호분은 4세기 전반경 가야시대 고분을 대표하는 중요한 고분으로서, 당시 지배계층의 무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도 일괄품으로 출토된 철제 갑옷류는 가야의 뛰어난 철기 제작 기술과 무구 형식을 알려주는 중요한 작품에 해당한다.



○ 현 상

투구·목가리개·갑옷의 3 부분으로 구성. 투구의 복발은 1/3 가량 결실되었고, 수지로 복원되었음. 갑옷을 구성한 일부 철판이 부분적으로 결실되어 수지로 복원되었고, 오른쪽 가슴 부위(右前胸部)의 철판 1매에 철판을 덧대었음.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 투구·목가리개·갑옷의 3부분으로 이루어졌음.
- 투구는 세장한 형태의 철판 20매를 가죽끈으로 이어붙였고, 위쪽 끝에 반구형의 복발을 덧고, 아래에는 철판 2매를 가죽끈으로 연결하여 볼가리개를 이어붙인 만곡종장판복발 투구임.
- 목가리개는 위쪽 너비가 넓고, 아래쪽 너비가 좁은 9매의 방형 철판을 가죽끈을 횡으로 연결하고, 그 아래에는 장방형 철판 1매와 그 좌우에 소형 철판 2매를 가죽끈으로 연결하여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부채꼴임.
- 갑옷은 세로로 긴 철판에 구멍을 뚫고, 가죽끈을 사용하여 횡으로 연결하여 만들었음. 우전동부 2매, 좌전동부 2매, 후동부 3매 등 7매의 지판과 협부 무판 2

매, 상부의 양 측면의 소매판 각 1매와 도련판 3매로 구성되었음. 동체부를 구성한 각 지판은 오른쪽 협부의 무판을 중심으로 각 지판이 위로 향해 겹치게 연결하였음. 오른쪽 가슴 부위(右前胴部)의 첩판 1매에 첩판을 덧대었음.

○ 문헌자료

福泉博物館, 2010, 『東萊福泉洞古墳群-第5次發掘調査 38號墳-』.

福泉博物館, 2010, 『韓國의 古代甲冑』.

○ 기 타

갑옷 일괄은 1994~1995년도에 실시한 부산 복천동고분군 제4차 발굴조사 대상 유구인 38호분에서 부장품으로 출토된 국가귀속매장문화재임.

Ⅲ.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존처리 현상변경

안건번호 동산 2019-01-012

12. 보물 제1319호 ‘경진년대통력’ 보존처리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1319호 ‘경진년대통력’의 표면 오염물 제거 및 결손부 복원 등 보존처리를 위해 현상변경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민속박물관으로부터 보물 제1319호 ‘경진년대통력(庚辰年大統曆)’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국립민속박물관
- 수 량 : 1책
- 규 격 : 39.8 × 21.7cm
- 재 질 : 저지(楮紙)
- 제작연대 : 조선시대(선조 시기)
- 지 정 일 : 2001.08.03.
- 문화재내용 : 대통력은 명나라의 역법(曆法)으로, 고려말인 공민왕 19년(1370)에 수입되어 조선 효종 4년(1653)에 시현력을 채용할 때까지 근 300년간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역법이다.

조선은 태조의 즉위교서에서 명나라의 형률인 대명률의 사용을 천명한 이래로 형률은 대명률을 사용하고 역서는 대통력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지역적 차이로 시각과 절기가 중국과 잘 맞지 않고 역서가 도착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려 때맞춰 널리 알릴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독자적인 책력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경진년 대통력은 모두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첫 장은 정월에서 12월까지 윤4월을 포함한 13개월의 24절기에 관한 내용과 연신방위지도이고, 제2장~제14장은 책력의 본체인 1월에서 12월까지의 월력이다. 달력에는 날

짜별로 일상생활에서 그날그날 하기에 좋은 일과 해서는 좋지 않은 일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제15장은 부록격으로, 간지별로 피해야 할 일들을 열거한 부분과 이 책력의 편찬·인쇄에 관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목록이다. 이 책력이 만들어진 때는 조선 선조 13년(1580)이나 대개 역서를 편찬하고 인쇄하는 것은 새해가 시작되는 전년도에 동지이므로 이 대통력을 인쇄한 것은 선조 12년(1579)으로 추정된다.

라. 보존처리 전 현 상태

- 책은 끈 종이로 4군데 묶어 있으나, 제작 당시의 원형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 표지는 황변 및 표면 오염이 심하며 표면 균열, 박락, 결손 등으로 상태가 매우 불안하다.
- 오랜 기간 책이 반으로 접혀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접힌 부분의 약화로 인해 전이나 열람 시 취급이 어렵기에 보존처리가 시급하다.
- 책지는 전체적으로 황변화 및 산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로 가장자리의 약화 및 결손이 심해 손상부 처리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다.



앞표지



본문 마지막장



본문 첫째장

마. 보존처리 방침

- 처리 전에 책의 장황 형태와 손상 상태를 조사·연구하여 올바른 처리방침을 수립한다.
- 묶여 있는 책을 해체하면서 원래 책이 묶였던 방식에 대해 2차 분석하고 문화재 자문위원회의 자문으로 원래 책의 장황 형태에 따른 제책 방침을 세운다.
- 해체된 각 장은 번호를 부여하여 작업 중 책장의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한다.
- 습식 작업 전에는 반드시 SPOT TEST(먹 번짐 테스트)를 실시한다.
- 종이섬유분석을 통해 최대한 원래의 종이 재질과 유사한 종이를 선택한 후, 전통적으로 안정성이 인정된 소맥전분풀을 사용해 접합 및 결실부 복원을 진행한다.
- 보존처리 전 과정에 가역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보관상 안정성을 확보한다.

바. 보존처리 방법

- 보존처리 전 상태조사 : 보존처리 전 유물의 상태 및 종이섬유분석 등의 과학적인 조사를 하고, 결손부를 복원할 종이에 대해 연구한다.
- 해체 : 유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정 끈을 분리한다.
- 클리닝 : 해체된 각 장은 부드러운 붓으로 표면 오염물을 제거하고, 습식클리닝은 SPOT TEST에서 안정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실시한다.
- 접합 및 복원 : 소맥전분풀 또는 소맥전분 삭힌 풀을 사용하여, 종이섬유분석 결과에 따라 선정된 종이를 결손부를 복원한다. 책 중간에 접혀서 약화된 부분은 얇은 닥지띠로 강화한다. 보존처리 중 종이가 약해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4~6g/m² 평량의 얇은 기계를 닥지를 사용해 배접한다.

- 색맞춤 : 복원한 부분만 주변 색과 어울리게 색맞춤을 실시한다.
- 제책 : 보존처리 방침에 따라 제책한다.
- 보관 : 중성상자 제작 후,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 보존처리 기간 : 2019. 3. 25. - 2019. 10. 31.(약 7개월)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보존과학실)에서 자체 보존처리 예정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13. 보물 제1482호 '이시방 초상' 초상함 보존처리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1482호 '이시방 초상' 과 함께 지정된 초상함의 표면 이물질 및 장식 녹 제거 등의 보존처리를 위해 현상변경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전시립박물관으로부터 보물 제1482호 '이시방 초상(李時昉 肖像)' 초상함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 소유자(관리자) : 이**(대전시립박물관)
- 수 량 : 초상 1점, 초상함 1점 (※보존처리 대상 : 초상함 1점)
- 규 격 : 초상 전체 224×106.3cm, 화면 : 169×93cm,
함 길이 121.4cm, 너비 12.8cm, 높이 12.2cm
- 재 질 : 초상-비단, 초상함-나무
- 제작연대 : 초상-조선시대(인조시기)
- 지 정 일 : 2006.12.29.
- 문화재내용 : 李時昉(1594-1660)은 인조반정의 주역들인 연평부원군 李貴(1557-1633)의 次子이자 연양부원군 李時白(1581-1660)의 동생이다. 이시방은 아버지와 형을 따라 1623년의 30세 때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 2등으로 연성군에 봉해지고, 이후 여러 차례 판서를 지낸 뒤 현종 즉위년(1659) 가을에 판의금부사를 지냈다.
현재 대전의 후손가에 전하는 이시방의 초상은 모두 6점인데, 본래는 이시방의 후손들이 世居하던 洪城의 祠堂에서 주로 봉안해오던 것들이라고 한다. 이 중 이시방의 30세 때의 젊은 모습을 그린 것이 3점인데, 이 중에서 보물 제1482호 지정된 관복본 전신상 1점은 17세기 초반의 전형적인 공신도상의 형식과 화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초상함은 길이 121.4cm로 전체 표면이 흑칠되어 있으며 함 앞면에는 개폐장치로 2개의 금속 장식과 걸쇠가 있다.

라. 보존처리 전 현 상태

- 함 표면에 부분적으로 이물질에 의한 오염이 있으며, 모서리부 칠 박락이 있다.
- 함 내부에 부착된 배접지의 얼룩이 심하고 침수에 의해 들뜬 부분이 있다.
- 전체적인 목재의 형태가 약간 변형되어 있으며 앞판이 배부른 형태로 금속 걸쇠 잠금장치의 여닫음에 어려움이 있다.
- 금속제 장식의 부식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원래의 색을 잃었으며, 일부 고정 못의 탈락이 진행되고 있다.

- 전체 및 세부사진





내부에 부착된 종이 들뜸



목재 표면 이물질 및 칠 박락



금속제 장식 - 걸쇠 장금장치



금속제 장식의 변색 - 걸쇠 장금장치 안쪽



장식 문양 및 부식 진행



고정 못의 탈락 진행

마. 보존처리 방침

- 정확한 처리 전 상태를 조사하여 올바른 처리방침을 수립한다.
- 보존처리 전 실측, 사진촬영, 분석 등을 통해 유물의 현 상태를 기록한다.
- 건식·습식세척으로 목재의 표면 오염물을 제거하고, 금속 녹제거와 부식억제 처리를 통해 금속의 원래의 색과 문양을 되찾는다.

- 최대한 원 유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세척 및 표면강화를 실시한다.
- 보존처리 모든 과정에 대해 기록하며, 훈증처리를 통해 향후 보관 시 생물로부터 피해를 방지한다.

바. 보존처리 방법

- **보존처리 전 상태조사** : 유물 실측, 처리 전 사진촬영, 금속 성분분석 등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상태와 제작기법을 정밀하게 조사한다.
- **훈증** : 훈증처리를 통해 생물피해를 방지한다.
- **목재 건식 및 습식 세척** : 붓과 소도구를 이용한 건식세척과 용도에 맞는 용매를 선택한 습식세척을 통하여 표면 이물질을 제거한다.
- **금속 장식 이물질 제거 및 강화** : 장식 표면 부식물의 소도구 등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약품처리를 통해 부식의 진행을 억제한다. 또한 탈락이 진행 중인 곳은 안전한 방법으로 재고정한다.

- 보존처리 기간 : 2019. 3. - 2019. 10.(약 8개월)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자체 보존처리 예정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검 토 사 항

IV.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9-01-014

14.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靑磁 ‘淳化四年’銘 壺)

가. 검토사항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국미술사학회장으로부터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이 있어(‘16.12.28) 보존처리 포함 과학조사(‘17.5~’18.9) 및 관계전문가 조사(‘18.11.26)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237호(1963.1.21 지정)
- 명 칭 :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靑磁 ‘淳化四年’銘 壺)
- 소유자(관리자) : 이화여자대학교(이화여대 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대 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35.6cm, 입지름 20.1cm, 굽지름 16.8cm.
- 재 질 : 도자
- 형 식 : 구경이 넓고 구연이 직립한 立壺 계열 長身 향아리
- 조성연대 : 993년(고려 성종 12)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호는 청자 발생기의 제작양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편년자료로 기물의 용도 및 용처, 제작자, 제작년도를 알 수 있는 작품으로 원산리 가마 발굴을 통해 제작 가마까지도 알 수 있는 유일한 작품으로 국보로 승격하여 관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지정가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는 국보로 승격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거기준>

1. 현존 초기청자 가운데 조형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유일한 항아리다. 형태의 크기, 태토의 우수성, 명문 등이 인정된다.
2. 명문은 상기 내용과 특징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제작년도, 사용 장소, 항아리의 용도, 제작자 등의 내용을 알리고 있다. 더욱이 1990년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전축요에서 제작되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됨에 따라 본 항아리의 제작지까지 파악되었다.
3. 따라서 절대적인 학술적 가치와 완전한 형태의 고려 초기의 제기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명문에 있는 최길희, 왕공탁이라는 인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기에 더욱 국보로 승격 보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지정가치> : 있음

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물 제237호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는 학술적 측면에서 볼 때 현전하는 고려청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국보로 승격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근거기준>

- 초기 청자 중 명문을 통해 제작연대, 사용처, 대상, 용도, 제작자, 제작지, 생산지 등을 알 수 있는 대표적 편년자료임.
- 고려 초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유교를 통해 중앙집권을 이루고자 했던 성종의 통치 철학이 반영된 자료임.
-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제기류와 일치하는 유물로 고려 초 왕실제기의 특징을 잘 알려주는 자료임.
- 고려 초의 제기 항아리로 희소성에서 유일한 자료임.
- 청자의 발생시점, 전축요의 폐요시점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

○ (지정 가치 있음)

<지정가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는 국보로 승격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거기준>

상기 유물은 현전하는 초기청자 가운데에서 드물게 크기가 큰 대형 향아리로 태토의 품질이 우수하고 그 기형이 비슷한 사례가 없는 유일한 형태이다. 또한 고려왕실의 제기로서 위엄과 격식을 갖추고 있으며 조형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 유물의 조형적 가치가 재평가 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굽 안바닥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① 제작년도, ② 기명의 용도 및 사용처, ③ 제작자가 알려져 있었으나 1990년 황해남도 배천 원산리 가마터에서 발굴된 ‘순화’명 파편들과의 비교연구로 ④ 생산요장을 비롯한 다양한 제작여건이 추가로 밝혀짐으로써 초기청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절대편년자료로서의 가치와 위상이 향상되었다.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현 상

직립된 짧은 頸部와 긴 胴體를 가지고 있는 長身の 향아리로 口脣은 상면을 수평으로 처리하였다. 동체 외측선은 肩部에서 다소 벌어지다 서서히 줄어들며 거의 직선으로 굽에 이르고 있다. 바깥으로 벌어진 굽은 따로 붙였는데 굽바닥에 고운 백색의 내화토를 받쳐구운 흔적이 남아있다.

全面에는 失透性の 황색을 머금은 담갈색 청자유가 얇게 시유되었는데 미세한 빙렬이 있으며 여러 곳에 흘러내려 釉面은 고르지 못하다. 굽 안바닥에는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 반대방향으로 ‘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享器匠崔吉會造’라는 음각 명문이 돌려져있다. 고려의 태묘는 992년 준공되었으므로 명문에 의해 이 향아리는 태묘가 준공된 이듬해인 993년에 태묘의 제 1실에 소용되던 제기이며, 최길회

가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향아리는 성형시 이례적으로 물레 위에 평편한 바닥판을 놓고 흙띠를 위로 층층이 쌓아 올린 전통적인 테쌓기 기법으로 성형하였으며 외면은 整面하여 매끄러운데 반해 안쪽에는 물레흔적이 남아있다. 동체 상부에 소성시 다른 그릇과 붙은 것을 띠 흔적이 있으며, 경부 일부에 수리복원 흔적이 있으며, 동체와 굽에도 비교적 긴 균열이 있다.

1990년 황해남도 배천군 圓山里 가마터에서 ‘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享器匠王公托造’라는 음각 명문을 바닥에 새긴 豆形祭器를 비롯한 여러 편의 순화3년명편이 발굴되어 이 향아리 역시 동일 가마에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현 상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는 문양이 없는 장신호로서 구연이 넓고 직립되어 있으며 어깨 형태가 거의 없는 유선형이다. 치밀질 유백색의 밝은 태토는 육안으로 관찰할 때 청자와 백자의 경계선에 있다. 성형은 바닥판에서 흙띠를 쌓아올리는 테쌓기 수법으로 물레를 회전시켜 성형했고 표면은 물손질(整面)하여 외면이 매끄럽다. 안쪽에도 물레자국이 남아있다. 굽은 편평한 바닥면 둘레에 가느다란 흙띠를 붙여 굽을 만든 높이 1.5cm 가량의 안굽으로 굽 접지면에는 백색 내화토를 고르게 바르고 번조했다. 바깥으로 살짝 벌어져 굽은 안정감을 준다.

유면은 전체적으로 녹갈색을 띠는 반투명 유약을 고르게 입혔고, 회유계(灰釉系) 유약의 특성에 따라 유층이 얇고 부분적으로 유약이 흘러내린 자국이 있다. 유면에는 광택이 은은하고 미세한 빙열이 있으며 굽힌 흔적이 보인다. 몸체 상단 한쪽에는 제작 시 기물이 붙은 것을 떼어내면서 생긴 자국이 6cm 가량 남아있다. 굽 안 바닥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며 ‘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享器匠崔吉會造’라는 명문을 음각하였다.

○ 내용 및 특징

대형 제기 향아리로 초기청자를 대표하는 편년자료이다. 중국 절강성 월주요의 기술이 도입되어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소재 가마에서 제작된 향아리로 확인되었다. 당시 신기술인 자기식 물레성형기법과 도기식 성형기법을 두루 사용한 점은 토착의 전통 기술위에서 신기술을 접목시켰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특징 : 굽 안바닥면에 ‘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享器匠崔吉會造’의 18자는 계사년인 순화4년(993)에 태묘 제1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향기로서 장인 최길회가 만들었다는 내용이므로 제작년대, 기물의 용도, 제작자 등을 알 수 있는 편년 학술자료라는 특

정이 있다.

고려의 태묘는 성종 11년(992) 12월 황해북도 개풍군 영남면 용흥리에서 준공되었고, 이 향아리는 태묘 조성 직후 1실의 제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작을 주도한 장인 혹은 감독관으로 추정되는 최길회는 고려사회의 신분제와 공장제(工匠制)를 연구하는데 근거를 제공한다.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圓山里) 벽돌가마(塼築窯) 발굴조사에서는 2호 4차 청자가마에서 두형(豆形)제기의 굽바닥에 ‘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亨器匠王公托造’라는 명문이 있는 제기가 출토되고 그 외에도 ‘순화3년(992)’명 파편 수점이 출토되었다. 이 곳 발굴은 1989년 6월부터 1990년 7월까지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주관으로 발굴했다. 명문의 내용은 순화3년에 태묘 제4실의 향기로서 장인 왕공탁이 만들었다라는 내용으로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와 그 체제가 동일하다. 따라서 국보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는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벽돌가마에서 제작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

○ 현 상

무문의 이 향아리는 구경이 매우 넓고 구경이 직립하였으며 어깨 상부의 지름이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지름이 줄어드는 형태를 하고 있다(사진 1-1, 1-2). 제작방법은 모래가 거의 없는 치밀질의 태토를 테쌓기 방식으로 성형한 까닭에 내면에는 점토대가 서로 잇대어 붙은 흔적이 보인다(사진 2). 태토는 색조가 매우 밝은 편으로 청자토와 백자토의 중간에 해당하는 철분 함량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직에 가까운 구연의 상면부는 안쪽으로 살짝 도톰하게 살이 있으며 전체적인 기벽의 두께는 3.7~8.6mm 내외로 성형하였다. 이 향아리는 도기를 제작하는 성형법을 활용한 것으로 볼 때 굽은 성형 이후 따로 붙인 것이 확실하다. 외면에서 관찰되는 굽 부분은 살짝 벌어져 있으나 다리가 노출되지는 않은 반면, 굽 안쪽 내부에는 안쪽에 1.5cm 가량 직립한 굽다리가 확인되고 있어 다리를 붙인 후 내외면의 접합부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사진 3).

겉표면은 물질과 정면과정을 통해 매끄럽게 다듬었으며, 굽바닥 안쪽에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亨器匠崔吉會造’라는 18자의 명문을 음각하고 유약을 전면에 시유하여 번조하였다(사진 4, 5). 매우 얇게 시유된 유층은 전체적으로 미황색을 띠며, 표면에서는 미세한 빙렬과 사용과정에서 생긴 긁힘 흔적(스크래치)이 관찰된다(사진 6). 향아리의 외부 일부에는 시유 당시 유약이 아래로 흐른 흔적이 보이는데 이는 유약을 썩은 후 유층을 정리하지 않은

채 번조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굽의 접지면에는 유약을 닦아내고 백색내화토를 고르게 받쳤던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 1-1. 향아리 전면



사진 1-2. 향아리 배면



사진 2. 향아리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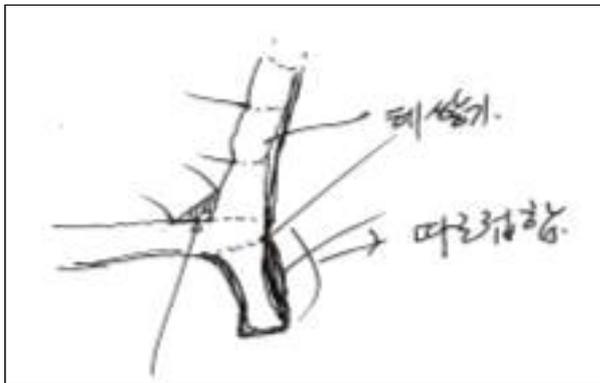


사진 3. 굽다리 접합상태



사진 4. 굽 내부의 명문



사진 5. 굽 내부의 명문 확대



사진 6. 동체부의 다른 기물 흔적

동체 어깨부의 한곳에는 번조과정에서 다른 기물이 붙었던 조각을 떼고 갈아낸 흔적이 남아 있다(사진 6). 또 구연부로부터 동체 중앙부까지는 여러 조각으로 크게 깨진 파편을 접합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망실된 부위는 거의 없다. 현재는 보수를 통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 내용 및 특징

이 향아리는 고려 성종대에 시조인太祖를 비롯하여 선대왕들을 제사지내기 위한 목적으로 宋朝에서 운영한 太廟제도를 본받아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이다. 태묘는 성종 2년(983), 博士 任老成이 송으로부터 가져온 大廟堂圖, 大廟堂記, 社稷堂圖, 社稷堂記, 祭器圖, 七十二賢贊記 등을 기초로 989년 4월에 착공하여 992년 12월에 완성하였다. 성종은 993년 3월 중국의 예를 들어 惠宗, 定宗, 光宗, 景宗을 한 사당에 모시라 하였고, 994년 4월에 親父 戴宗을 제5실에 모시도록 하고하였다(『高麗史』 世家 成宗).

현종 말년인 1031년, 태묘의 수축 기사와 신주를 다시 봉안한 내용에 따르면 각 실에는 봉안된 왕과 배향공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태조와 왕후는 1실, 혜종과 왕후는 2실, 정종과 왕후는 3실, 광종과 왕후는 4실, 부친 대종과 왕태후는 5실, 경종과 왕후는 6실, 성종과 왕후는 7실, 목종과 왕후는 8실로 규정하였다(『高麗史』 志15 諸陵 顯宗條).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때 이 향아리는 태조를 봉안했던 1실의 향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유물은 1989~1990년 사이에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한 황해도 배천군 원산리 유적 2호 가마출토품인 <순화3년명고배>이다. 이 고배는 발굴조사과정에서 2호 가마의 마지막 요업층인 가마바닥 최상부에서 발견되었다(사진 7). 동반품 중에는 ‘순화 3년’,

‘순화 4년’ 명 파편들이 여러 점 포함되어 있어 정황으로 볼 때 원산리 2호 가마는 순화명 청자와 동반품 제작을 끝으로 폐요되었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해준다. <순화3년명고배>는 굽 안바닥에 ‘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亨器匠王公托造’ 라는 동일한 패턴의 음각글자가 새겨져 있어 바로 원산리 요장이 고려 초 태묘에서 사용할 왕실제기의 제작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사진 8, 9).

이와 함께 가마의 축요재인 벽돌가마[塼築窯]의 존재와 상당한 두께의 퇴적층을 고려할 때 원산리 요장은 ‘순화명 청자류’ 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개시되었으며 우리나라 청자의 개시시점이 언제쯤인지를 추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순화사년명항아리>가 갖는 학술적 의미는 다른 유물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다.



사진 7. 원산리 2호 요지



사진 8. 청자 순화3년명 고배



사진 9. 고배의 명문

○ 문헌자료

- 南秀雄, 「圓山里遺蹟と開城周邊の青磁資料」, 『東洋陶磁』 Vol.22, 東洋陶磁學會, 1992-1994.
-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國書刊行會, 1944.
- 李鍾玟, 「韓國의 初期青磁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請求論文, 2002.
- 長谷部樂爾, 『陶器講座』, 雄山閣, 1971.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2, 1992.

○ 기 타

이 항아리는 1910년경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으나(長谷部樂爾, 1971), 누가 어떤 경로로 소장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후 노모리 켄(野守健)의 저서

(『高麗陶磁の研究』, 1944)에서는 伊藤槇雄의 유물로 소개된 바 있으며, 1957년에 와서 당시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고 김활란 박사가 이 유물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화재 지정에 관해서는 1945년 이전인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1963년 1월에는 보물 제237호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 유물은 1981년 기존 처리재료의 노화로 응급처리 하였으나 결손부위의 노화와 채색층의 박락 등으로 인해 2017년 5월~2018년 9월 사이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새로 보존처리를 의뢰하고 현재는 완료된 상태이다.

□

○ 현 상

상기 유물은 문양이 없는 장신호로써 구연이 넓고 직립되어 있으며, 몸통은 어깨 부분이 약간 넓은 유선형이다. 몸체는 미세한 기공이 있으나 비교적 치밀한 유백색의 점토를 사용하였는데 대형기물임을 감안하면 태토의 품질이 좋은 편이다. 성형은 바닥판에 흙띠를 쌓아올리는 도기식 테쌓기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물레를 회전시키며 표면을 물손질(整面)하여 외면이 매끄럽고 항아리의 안쪽에도 물레자국이 남아있다. 편평한 바닥면 둘레에 가느다란 흙띠를 붙여 굽을 만들었는데 높이 1.5cm 가량의 굽은 바깥으로 살짝 벌어져 있어 그릇에 안정감을 준다.

몸체 안팎으로 전면에 녹갈색을 띠는 반투명 유약을 고르게 입혔는데 나뭇재가 많이 섞인 회유계(灰釉系) 유약의 특성에 따라 유층이 얇고 부분적으로 유약이 흘러내린 자국이 남아 있다. 유면에는 은은한 광택과 함께 미세한 빙열과 군데군데 굵직한 듯한 사용흔이 보인다. 또한 몸체 상단 한쪽에는 그릇을 구울 때 옆에 있던 다른 기물이 붙은 것을 떼어내면서 생긴 자국이 길이 6cm 가량 남아 있다. 굽 안 바닥에는 가장자리를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享器匠崔吉會造’라는 명문을 가늘게 음각하였으며 굽 접지면에는 백색 내화토를 고르게 바르고 구웠다.

몸체 전면에는 구연부에서 크게 ‘人’자 모양으로 갈라진 곳과 굽언저리까지 길게 ‘J’자 모양으로 갈라진 곳, 구연부에 ‘V’자 모양으로 결손된 곳이 있으나 제작 및 사용당시 본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모두 수리복원되어 그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참고사진 1)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 사진



전체모습



굽안바닥 명문 및 접지면 내화토 받침



내면 테쌓기 흔적 및 상단 물레자국



유면 빙열과 사용흔, 다른 기물을 떼낸 흔적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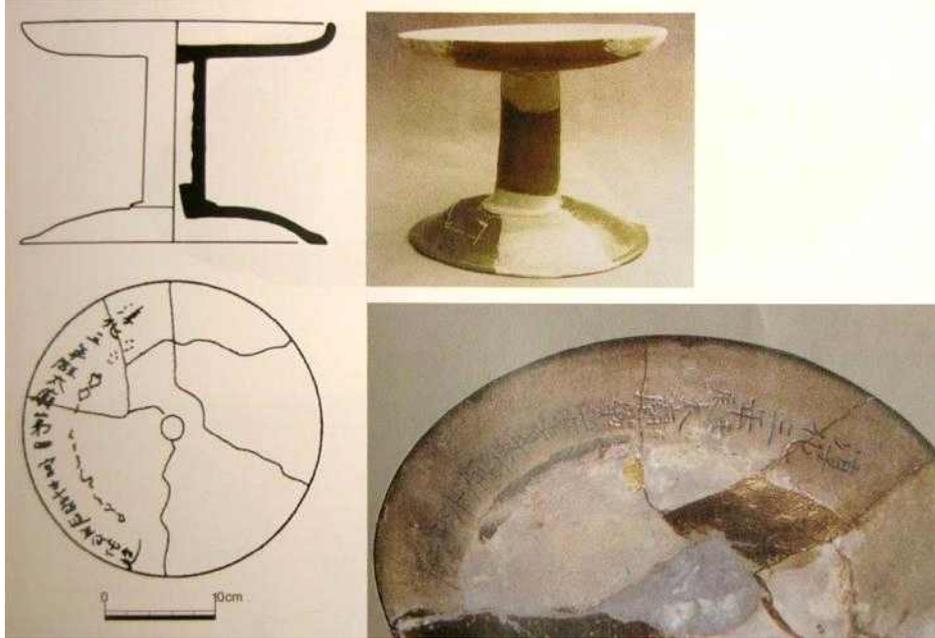
이 향아리는 월주요의 기술을 도입하여 만들기 시작한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하나로 알려진 유물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큰 크기이며 기형 또한 전례가 없다. 당시 신기술인 자기식 물레성형기법과 달리 도기식 성형기법을 사용한 것 역시 주목되는 점이며 그러면서도 굽을 따로 붙인 것은 의례용기로서 원형에 충실하여 단정함과 위엄을 살린 격식을 갖추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굽 바닥면에 ‘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享器匠崔吉會造[계사년인 순화4년(993년)에 태묘 제1실의 향기로서 장인 최길회가 만들었다]’는 명문이 있어 제작년대는 물론 기물의 용도, 제작자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즉, 고려의 태묘는 성종 11년(992) 12월 황해북도 개풍군 영남면 용흥리에 준공되었으므로 이 향아리는 태묘 조성 직후 1실의 제례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왕실 의례용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작을 주도한 장인 혹은 감독관으로 추정되는 최길회라고 하는 사람의 실명을 통해 고려사회의 신분제와 공장제(工匠制)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1989년 6월부터 1990년 7월까지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가 주관한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圓山里) 가마터 발굴조사에서는 2호가마 제4층에서 상기 유물과 유사한 ‘순화3년(992)’명 파편이 여러 점 발견된 바 있다. 출토품 가운데 두형제기(豆形祭器)의 굽바닥에 ‘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享器匠王公托造(순화3년에 태묘 제4실의 향기로서 장인 왕공탁이 만들었다)’라고 새겨진 명문은 글짜를 새긴 방법이나 배치, 내용의 전개가 동일하여 <청자 순화 4년명 향아리>역시 원산리 가마터에서 제작되어 태묘의 제기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

되었다.

(참고사진 2) 원산리 가마터 출토 두형제기



더욱이, 원산리 가마터에서 청자가마인 2호가마는 중국 월주요와 동일하게 벽돌을 쌓아 지은 전축요(塼築窯)이며 여기서 ‘순화’명 파편이 발견된 제4층은 이 가마의 운영 말기에 해당하는 최상층이다. 따라서 이 항아리를 포함한 일군의 ‘순화’명 청자는 중국기술이 도입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고려청자의 형식과 제작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초기청자의 발생 및 변천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 기 타

상기 유물의 출토 등 발견경위는 정확치 않으나 1945년 이전 일제강점기에 그 존재가 드러나 조선총독부에서 보물로 지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57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 구입·수장되었으며 1963년 1월 보물237호로 지정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입수 이전 이미 몸체의 균열과 구연의 결실부가 수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1981년 기존 수리 재료의 노화로 재발생된 균열부 이격 등으로 인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응급보존처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를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V.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9-01-015

15.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 (軍威 麟角寺 出土 供養具 一括)

가. 검토사항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12.8)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8.5.3)를 실시하고 2018년 제9차 위원회(’18.11.8)에 검토사항으로 부의하였으나, 지정명칭 및 지정수량 재검토 사유로 보류됨.
- 이에, 조사자 간 논의를 거쳐 지정명칭 및 지정수량에 대해 재검토하고 본 위원회에 다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軍威 麟角寺 出土 供養具 一括)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인각사(불교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
- 수 량 : 9종 18점
청동북(1점), 금동 사자형 병향로(1점), 청동탑형향합(1점), 청동정병(2점), 청동이단합(1점), 금동가릉빈가상(1점), 청동발(2점), 청동뚜껑(2점), 청자완(7점)
- 규 격

[금속공예] : 총 8종 11점

연번	명 칭	높이 (cm)	입지름 (cm)	바닥지름 (cm)
1	청동북(靑銅金鼓)	15.2	너비 40	
2	금동사자형 병향로 (金銅獅子形 柄香爐)	7.4	길이 37.6	
3	청동탑형 향합(靑銅塔形 香盒)	18.0	8.6	
4	청동정병(靑銅淨瓶) ①	39.7		8.2
5	청동정병(靑銅淨瓶) ②	35.2		7.5
6	청동이단합(靑銅二段盒)	14.3	8.9	
7	금동가릉빈가상(金銅迦陵頻迦像)	4.3		
8	청동발(靑銅鉢) ①	11.1	20.3	
9	청동발(靑銅鉢) ②	9.8	20.7	
10	청동뚜껑 ①	4.3	22.2	
11	청동뚜껑 ②	4.3	19.4	

[도자] : 총 1종 7점

번호	유물명	굽형식	높이 (cm)	口徑 (cm)	底徑 (cm)	굽 접지면 폭(cm)
1	청자완 ①	玉璧底	6.2	16.5	6.8	2.3
2	청자완 ②	玉璧底	5.6	16.1~16.5	6.5	2.0~2.2
3	청자완 ③	玉璧底	5.2	16.2~16.4	6.6~6.8	2.1~2.2
4	청자완 ④	玉璧底	5.6	16.5~16.9	6.8~6.9	1.8~1.9
5	청자완 ⑤	玉璧底	5.9	16.7~17.2	6.8	2.3~2.4
6	청자완 ⑥	玉環底	6.0	16.7	5.8~5.9	1.3
7	청자완 ⑦	玉環底	5.8	17.5~17.7	6.3~6.5	1.3

- 재 질 : 금동, 청동, 도자
- 조성연대 : 8세기 중반~10세기 중반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금속공예

○ (일부 지정 가치 있음)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은 8세기 중반부터 10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 초기에 제작된 유물이다. 그동안 이 시기의 금속 공예품들은 대부분 사찰이나 박물관 등지에 전해 내려오는 전세품인데 비해 인각사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보기 드문 금속기명과 청자 유물들이 한꺼번에 공반 출토되어 편년자료이자 출토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그 가치가 중요하다. 그중 사자형 병향로, 향합[탑형, 이단합], 정병 2점, 금고 등은 사찰에서 사용하는 청동제 의례용품들로서 조형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뛰어나다. 한편 금동 가룻빈가상은 그동안 출토예가 거의 없어 도상적으로 희귀한 것이고, 청동발과 청동뚜껑[접시]의 경우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전형적인 기형으로서 공예기술적인 가치가 높다. 이처럼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들은 전세품이 아닌 제작시기가 분명한 곳에서 출토된 공반유물로서 지금까지 문헌기록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군위 인각사와 통일신라시대 불교문화나 공예 기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군위 인각사 출토 금속공예품>

연번	명 칭	높이 (cm)	입지름 (cm)	바닥지름 (cm)	지정여부
1	청동금고(靑銅金鼓)	15.2	너비 40		가
2	금동 사자형 병향로(金銅獅子形柄香爐)	7.4	길이37.6		가
3	청동탑형향합(靑銅塔形香盒)	18.0	8.6		가
4	청동정병(靑銅淨瓶) ①	39.7		8.2	가
5	청동정병(靑銅淨瓶) ②	35.2		7.5	가
6	청동이단합(靑銅二段盒)	14.3	8.9		가
7	금동가룻빈가상	4.3			가
8	청동발(靑銅鉢) ①	11.1	20.3		가
9	청동발(靑銅鉢) ②	9.8	20.7		가
10	청동뚜껑 ①	4.3	22.2		가
11	청동뚜껑 ②	4.3	19.4		가
12	청동그릇편 각종	잔편	30.0		부

○ (일부 지정 가치 있음)

고려시대에 일연이 『삼국유사』를 저술했던 인각사는 구산문도회가 열릴 만큼 그 이전에도 선종사찰로 유명했을 것이며, 바로 이곳의 승탑지에서 의도적으로 매납한선종승려의 호지물과 의식구, 공양구가 출토된 점은 당연한 점이라 사료된다.

청동금고 안과 주변에서 출토된 금속기 11건 14점, 월주요 청자 7건 7점 모두 18건 21점의 제작시기는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사찰의 승탑지에서 출토된 점은 불교 매납의식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며 둘째, 청동정병과 청동사자진병향로 및 청동탑형향로는 선종승려의 호지물 조합 기명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이라는 점에서 승려의 공양구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크다.

셋째, 불교의식구인 청동금고와 공양구인 청동기명들이 현존 유물보다 가장 이른 것일 수 있어서 통일신라 불교금속공예 연구의 기준작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청동정병의 세장하면서도 안정감이 있는 조형미, 청동사자진병향로나 청동탑형향합의 각 부분에 반영된 장인의 뛰어난 솜씨는 그 이전이나 이후의 작품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넷째, 청동금고를 제외한 청동불구들과 청동발의 유형은 당 8세기 기명들과 같아서 국제양식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신라기명이 일본에 수출된 점은 통일신라 공예의 대외교섭사 연구(특히 ‘수용과 전파’)에 좋은 자료가 된다.

다섯째, 안압지 출토 햇무리굽 청자완들 보다 훨씬 유색이 좋은 월주요 청자들이 7점이 출토된 점은 통일신라사회의 청자수요를 알려줄 뿐 아니라 넓은 玉璧低, 좁은 옥벽저, 玉環底로 굽도 다양해 월주요 청자연구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와 같이 인각사에서 출토한 총 18건 21점의 유물들은 보존상태가完형인 것과 파손된 것도 있으나 한 장소에서 출토되었고, 통일신라 불교공예의 유형 및 국제성을 갖추고 있어 ‘군위 인각사 출토유물 일괄’이라는 문화재명으로 묶어 보물로 지정, 보존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 (일부 지정 가치 있음)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품은 통일신라시대 8세기 중후반부터 10세기 전반경까지 제작된 보기 드문 불교 공예품으로서, 병향로, 정병, 향합, 금고 등 불교 사찰에서 사용하는 각종 청동제 의례용품들이 한꺼번에 일괄품으로 발견된 중요한 예이다. 인각사에서 출토된 사자형 병향로와 정병, 탑형뉴합 등은 현존하는 예들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평가되며, 보기드문 양식의 금고와 함께 출토되어 통일신라시대의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귀중한 사례가 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불교 금속공예품들은 대부분 사찰이나 박물관의 전세품으로 전해지던 것이므로, 편년이나 용도 등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품은 함께 공반된 중국제 월주요 청자들을 비롯하여 어느 정도 상대편년이 가능한 유물들이 일괄품으로 발견되어, 각 공예품들의 제작 시기는 서로 다르더라도 매납된 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10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유물들은 보기드문 통일신라시대 후기의 불교 사찰에서 사용하던 불교 공예품들로서, 문화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특히 병향로나 탑형뉴합, 정병 등은 유사한 예들이 일본 정창원을 비롯하여 통일신라와 일본 나라시대, 그리고 중국 당나라때의 국제적 양식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통일신라 전성기인 8세기 중후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각사는 『삼국유사』를 찬술한 일연이 거주했던 고려시대의 사찰로 알려졌지만, 인각사 공양구 일괄품의 발견을 통해서 창건 시기가 적어도 통일신라시대로 올라감이 확인되었다.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품은 지금까지 문헌기록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군위 인각사와 통일신라시대 불교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보물로 지정하여 그 가치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다만, 일괄품 중에서 파손으로 인하여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고 제작 시기가 다소 불분명하며 복원이 어려운 청동그릇을 비롯한 일부 유물들을 모두 보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일부 지정 가치 있음)

인각사 공양구들은 방형집석유구의 하부에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고, 매납한 공양구로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양구 매납 사례 가운데 가장 이른 예에 해당한다. 특히 인각사의 공양구의 매납방식과 구성 등은 육조 혜능의 제자인 신회선사의 승탑 지하 석실에서 발견된 공양구와 거의 흡사하다. 신회선사탑의 공양구는 1982년 중국 섬서성 낙양에서 발견되었는데, 탑지에 의하면 758년에 입적하여 765년에 탑이 세워졌다고 하므로 발견된 공양구들은 765년이라는 절대 하한연대를 가지고 있다. 인각사지에서 발견된 공양구 대부분도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에 해당하는 것들으로써, 중국 선종 선사들에게 행해졌던 승탑 공양의식이 신라의 유학승들에 의해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된 기록이 발견된 바 없고, 공양구들이 발견된 방형집석유구에 대한 해석도 탑지인지 석탑지인지 구분하여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중국 신회선사탑의 예처럼 동아시아에서 행해졌던 불교 의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인각사 공양구들은 아직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기의 불교 의식과 관련하여 많은 단서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확한 조성 연대는 남기고 있지 않지만, 인각사 공양구는 의도적으로 마련된

공간 내에서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물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채 발굴조사를 통해 수습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지대하다. 한편 이들 공양구는 조형적으로 우수하고 시대적 특징도 잘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기법도 우수하여 당대를 대표하는 최상급 유물들이다. 또한 지금까지 발견된 사례도 드문 것들이어서 학술적 가치도 크다. 특히 청동 북은 현존 最古의 금고인 <함통 6년명 청동 북>에 비해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조형적으로도 진전된 양상을 보여줘, 함통 6년명 청동북의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청동 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청동 북’ 연구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금동사자형병향로는 제작 기술이 뛰어나고 구성과 조형이 국내외 남아 있는 통일신라 柄香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성을 보여준다. 청동 정병 2점도 통일신라 정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예술적 감각을 지니고 있어 통일신라 금속공예의 우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라 하겠다. 청자완은 월주요 계통의 碧玉底 청자로서, 중국과의 교류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주변에서 함께 출토한 청동유물 중 청동수반 편은 형태를 알 수 없을 만큼 잔편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동금고, 청동탑형향합, 금동가릉빈가상, 청동뚜껑 2점, 금동사자형병향로, 청동정병 2점, 청동발 2점, 해무리굽 청자완 7점만 일괄유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들만 묶어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도자

○(지정 가치 있음)

인각사 출토 청자완은 당대 월주요에서 생산된 것으로 월주요에서는 옥벽저굽 청자완은 8~9세기중엽에 유행하며 그 뒤를 이어 9세기 후반경부터 옥환저굽 청자완이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청자완은 당시 수입청자의 수요 양상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납된 금속유물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청동금고, 금동병향로, 청동정병 등 금속유물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군위 인각사 출토 일괄유물 가운데 청자 옥벽저완 7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모두 중국산 청자이다. 발굴시 포개진 채 출토되어 동반유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함께 출토된 금속유물의 제작시기등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용측면에서 본다면 금속제로 출토된 정병등과 함께 세트를 이루어 차공양 등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괄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들은 전형적인 중국 남방지역

(월주요계 추정) 청자완으로 높이 5.2~6.2cm, 구경 16.2~17.7cm, 굽지름 5.8~6.9cm의 크기이며 굽 접지면 넓이에 따라 2.0~2.5cm내외인 것과 1.3cm로 좁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前者는 ‘옥벽저’계통으로 後者는 ‘옥환저(玉環底)계통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현전하는 중국 유물가운데 비교할 만한 것으로는 현재 절강성 박물관소장의 唐의 ‘貞元十年(794)’명이 있는 청자완으로 유색이나 굽형식 등이 인각사지 출토완들과 유사하다. 한편, 五代의 天福4年(939) 馬氏皇后 康陵출토 청자완이 있으나 크기와 높이, 굽지름 등에서 작으며 특히 굽 접지면 너비가 좁은 후기스타일로서 국내의 10세기 초기청자 요장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유사하다. 실제 가마터 출토품들의 시간적 변화과정과 비교하더라도 이들 청자완은 8세기말부터 10세기 전반 사이에 제작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국내출토 중국도자의 편년기준을 제공하며, 국내산 청자의 제작시기를 추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자료들로서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지정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옥벽저형(玉壁底形) 청자완(靑磁碗)은 당(唐) 월주요(越州窯)에서 생산되어 8~9세기 중엽까지 유행했으며, 옥환저형(玉環底形) 청자완(靑磁碗)은 월주요에서 생산되어 9세기에 후반 경에 크게 유행하였다.

인각사에서 출토된 청자완 7점은 옥벽저형 5점과 옥환저형 2점으로 그 제작시기는 9세기 중엽~9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어 당시 중국청자의 수입 예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통일신라 8세기 후반~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비정(比定)된 靑銅淨瓶 등의 금속공예품과 동반 출토되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따라서 청자완 7점은 당(唐) 9세기라는 제작시기가 분명하며, 옥벽저형과 옥환저형 청자완 연구 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금속공예】

□

○ 현 상

본 유물은 2008년 군위 인각사 정비사업 발굴조사에서 1호 건물지 동쪽의 방형집 석유구 한쪽에서 출토된 나말여초 시기에 사찰에서 사용하던 금속 공예품들이다. 출토유물 중 금속공예품은 모두 12점이다.

○ 내용 및 특징

1. 청동금고(靑銅金鼓) : 지정가치 있음

금고는 금구, 반자, 쇠북이라 부르는 범음구(梵音具)로서 사찰의 일상적 불교 의례에서 사용하는 불교의식구(佛敎儀式具)이다. 인각사 쇠북은 청동으로 주조하여 비교적 크기가 크고, 앞면에는 34개의 꽃잎을 돌려져 있고, 뒷면은 일부 파손되었으나 지름 19.4cm의 커다란 공명구가 형성되어 있고, 원래 3개의 손잡이가 있는 형식이다. 현존 금고 중 가장 오래된 통일신라시대 함통 6년(865)명 청동금고와 형식적으로 유사하고 비교적 이른 시기인 나말여초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져 보물로서 지정가치가 있다.

2. 금동 사자형 병향로(金銅獅子形柄香爐) : 지정가치 있음

병향로는 긴 손잡이가 달린 휴대용 향로다. 인각사 병향로는 향로 몸체와 받침대, 손잡이, 여의두형(如意頭形) 장식판, 사자형(獅子形) 장식 등을 각각 주조해서 조립하였으며, 매우 뛰어난 주조기법을 보여준다. 병향로의 형식은 손잡이 끝 장식에 따라, 연미형, 사자형, 연봉형으로 나뉘는데, 인각사의 것은 그중 사자형 장식이 있는 사자형 병향로이다. 특히 인각사 금동 사자형 병향로는 리움이나 일본 정창원 소장 사자형 병향로와 양식적으로 유사한 8-9세기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이다. 제작기법이나 조형적 측면에서 현존하는 병향로 중 가장 우수하여 보물로서 지정 가치가 있다.

3. 청동탑형향합(靑銅塔形香盒) : 지정 가치 있음

청동금고 내부에서 발견된 청동탑형뉴합은 나팔형 받침, 둥근 그릇형 몸체, 탑형 꼭지가 달린 뚜껑 등을 각각 별도로 만들고 리벳으로 조립한 것이다. 표면에 음각으로 동심원대를 묘사한 이외에 별다른 문양은 없다. 그동안 알려진 탑형뉴합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종종 제작되었으나 대부분 출토지가 불명확하였다. 이에 반해 인각사 청동탑형뉴합은 출토지가 밝혀졌을 뿐 아니라 내부에 타다남은 향이 발견되어 향합으로 사용도 확인되는 등 보물로서 지정 가치가 있다.

4-5. 청동정병(靑銅淨瓶) 2점 : 지정 가치 있음

정병은 불교 의례에서 사용하는 정수(淨水)를 담아 놓는 불교 의례용 공예품이다.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오랜 기간 인도에서 전래된 독특한 기형이 만들어졌다. 그중 인각사 청동정병은 2점인데, 크기가 약간 차이가 난다. 동체 위에 나팔형 목, 팔각형의 첩대가 형성된 주구(注口), 동체 한쪽 어깨 위에 짧은 목을 가진 별도의 구부(口部), 그 위에 여닫는 뚜껑 등 전체 형태는 유사하다. 인각사 정병 2점은 부분적으로 파손된 점은 있으나, 출토지가 밝혀진 공반유물일 뿐 아니라 통일신라시대 정병으로서는 매우 희귀한 작품으로 중요하여 보물로서 지정 가치가 있다.

6. 청동이단합(靑銅二段盒) : 지정 가치 있음

청동금고 안에서 발견된 청동이단합은 뚜껑이 있는 2단의 원통형 향합이다. 뚜껑, 상단, 하단의 표면에는 모두 측면에 조밀한 음각선이 돌아가면서 장식되어 있으며, 그릇 위쪽의 구연부는 안쪽으로 도톰하고 하단 그릇은 안쪽 바닥에 얇은 굽이 형성되어 있다. 이 굽을 아랫단 위에 꽂아서 상하단의 그릇을 연결하고, 뚜껑 윗면에는 음각 동심원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청동이단합은 997년에 창건된 안성장명사(長命寺) 오층석탑에서 출토품을 비롯한 10세기 유적에서 종종 출토되는데, 인각사 유물은 그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나말여초의 유물로서 보물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

7. 금동가릉빈가상(金銅迦陵頻伽像) : 지정 가치 있음

가릉빈가는 불교에서 종종 표현되는 천상의 새로서, 사람 얼굴에 새의 몸을 한 상상의 동물이다. 인각사 가릉빈가는 피리를 불고 있으며 날개는 별도로 만들어 뒤쪽 축에 꽂아 붙였는데, 오른쪽 날개는 부러졌다. 본 유물은 그동안 발견된 적이 없는 도상이며 비록 크기는 작지만 해당 시기를 대표하고 기타 공양구와 공반 출토되어 보물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

8-9. 청동발(靑銅鉢) 2점 : 지정가치 있음

비교적 크고 속이 깊은 청동그릇이다. 구연부는 외반했으며, 동체의 중간 부분은 능형으로 처리된 양각 선이 형성되어 있으며, 바닥은 약간 외반한 낮은 굽이 있고, 내외부의 표면에는 얇은 동심원이 선각되어 있다. 그중 하나에는 바닥면에 “呑”과 비슷한 글자가 얇은 선각으로 새겨져 있다. 전체 형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유행한 전형적인 금속기 형식의 하나로서 약간의 파손되거나 녹이

끼어 있지만, 공반유물로 출토되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서 보물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

10-11. 청동뚜껑 2점 : 지정가치 있음

얇은 굽을 가진 접시 형태 2점은 합의 뚜껑일 가능성이 있다. 구연부는 외반한 후 끝 부분이 직각으로 처리되었다. 그릇은 문양이 없거나 있어도 간략한 선이 둘러져 있다. 비록 구연부와 몸체가 파손되거나 구멍이 나 있지만 당시의 접시형 그릇으로서 전형적인 금속 기형이며 공반유물로 출토되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서 보물로서의 지정 가치가 있다.

12. 청동그릇편 각종 : 지정가치 없음

파손상태가 심하여 그 원형을 알기 어려워 지정가치가 없다.

○ 기 타

군위 인각사 공양구 유물 일괄은 2008년 군위 인각사 5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1호 건물지의 남쪽이자 2호 건물지의 서쪽에 자리한 방형집석유구의 북서쪽 모서리에서 일괄품으로 출토되었다.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방형집석유구는 통일신라시대의 탑지와 비슷한 구조물이라고 하며, 유물들이 발견된 공간은 그 유구의 모퉁이 부분에 기와편과 암막새를 이용하여 바닥과 벽체, 그리고 덮개를 설치한 곳이다. 이곳은 발굴 당시에는 승탑지로 추정했으나, 근래에는 현재 극락전 앞에 서 있는 삼층석탑이 옮겨오기 전에 원래 서 있던 곳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유구의 성격에 논란이 있다. 이처럼 인각사 불교 공양구 유물 일괄은 탑지의 사리공양구일 가능성도 있으나, 퇴장유구나 진단구의 성격도 보이는 등 모호한 편이다.

○ 참고문헌

- 佛敎文化財研究所, 『麟角寺 - 君威 麟角寺 5차 발굴조사 보고서』, 불교문화재연구소, 군위군, 2011.
김진덕, 「군위 인각사지 5차 발굴조사 개보」, 『신라사학보』 15, 신라사학회, 2009
박지혜, 「경북 군위 인각사지 출토 청동유물의 금속학적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논문, 2011.
이용진, 「통일신라시대 獅子鎖柄香爐 연구」, 『신라사학보』 19, 신라사학회, 2010
최응천, 「軍威麟角寺출토 佛敎金屬工藝品의 性格과 意義」, 『先史와 古代』 32, 2010.

□

○ 현황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소재 麟角寺는 一然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곳으로 경내에는 일연의 부도탑과 탑비(1295년 건립)가 있다. 비문에 의하면 인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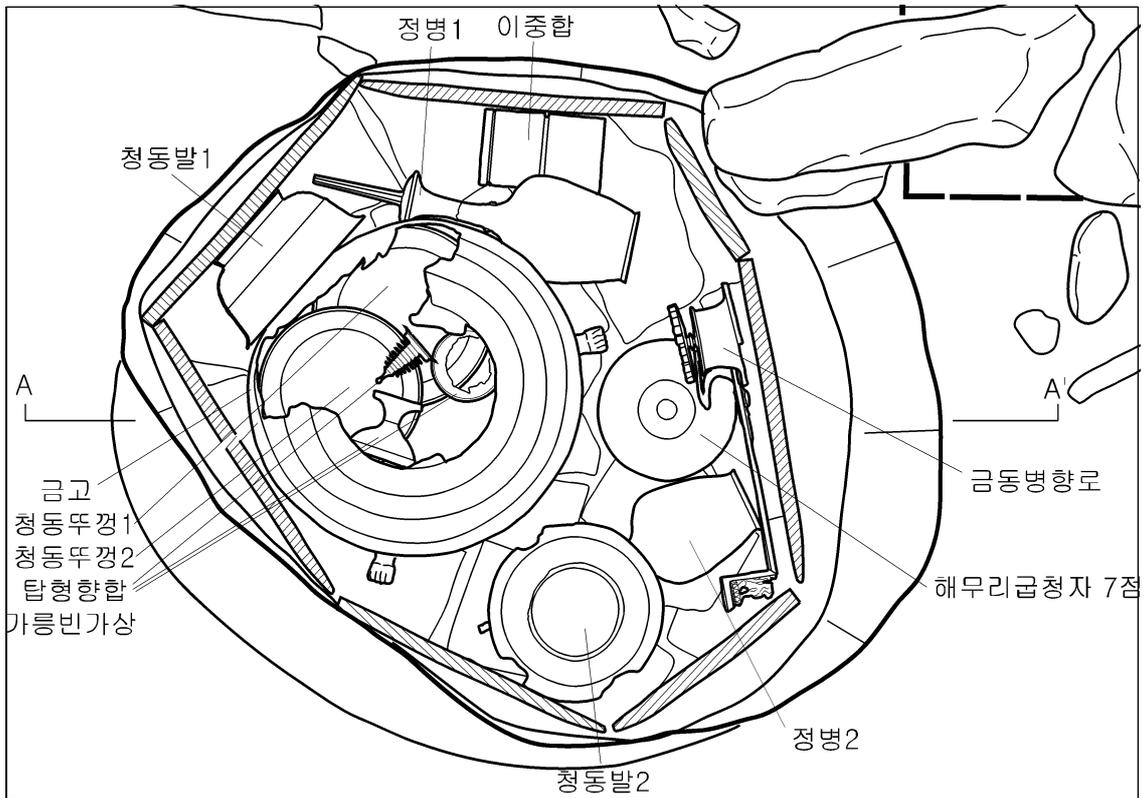
사는 고려 충렬왕 10년(1284)에 일연의 하안소로 지정되면서 전국의 禪宗系 승려들이 모여 법회를 여는 九山門都會를 2번이나 개최한 곳이었다.

2008년에 인각사 경내의 僧塔址로 추정되는 유구(지표 약 5cm 아래)에서 청동 금고 안에 청동탑형향합, 청동접시, 금동가릉빈가상 등이 담긴 채로 발견되었으며, 청동금고 주변에서 청동발(碗), 청동원통형이중합, 정병 2점, 금동병향로, 중국 越州窯産 해무리굽(넓은 玉璧底, 좁은 玉璧底, 玉環底) 청자완 7점이 발견되었다.^(도1)

일괄유물의 매납 방법은 땅을 원형으로 판 후 바닥에 기와를 깔고 벽에도 기와를 세워서 쌓았으며, 기물들을 매납한 후에 기와를 덮고 흙으로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승탑지 바닥을 다진 후 의도적으로 이런 佛具들을 매납한 이유는 승탑의 묘주가 생전에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도면1. 참조]

출토된 일괄유물들은 총 18건 21점으로 금속기는 11건 14점, 청자는 7건 7점이다. 14점의 금속기들은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불교 조합기명과 일상용기들인데, 일상용기는 불교에서도 공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불교 조합기명은 부처가 『摩訶僧祇律』, 『四分律』, 『五分律』, 『毘奈耶』 등 律部經典에서 가르친 ‘大乘比丘 18物’중 기본적인 4物만 추려 조합(세트기명)이 된 정병과 발우, 병향로와 향합이다. 이런 조합은 중국 남북조시기에 이미 정형화 되었는데, 1979년에 湖北省 當陽縣 長坂坡 古墓에서 출토한 조합기명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른 유물들이다.³⁴⁾

34) 宜昌地區考古隊, 「當陽長坂坡一號墓發掘簡報」, 『江漢考古』1983-1, pp. 57-59.



도면1. 불교 의식구 매납 복원도,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

당양출토 정병은 북조식 정병인 광견형세장경이며, 병향로의 형태는 남북조식인 鵝尾形, 향합은 寶珠形 꼭지여서 시대적 특징을 보여준다.(도2) 당대에는 이 조합의 양식적 변화가 있는데, 즉 정병은 雙口形인 軍持 I 식(고려시대 정병 형태), 발우는 안으로 오므라든 넓은 구연부에 좁은 원형 기저부 형태의 斂口圓低形, 병향로는 손잡이 끝에 사자가 올려진 獅子鎭形, 향합은 뚜껑이 塔輪 모양인 塔形으로 변했다. 이런 조합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神會墓 출토품들이다.(도3) 하남성 낙양시 용문 서산 寶應寺 내의 禪宗7祖 荷澤神會(684-760) 묘장에서 출토한 이 불구들은 탑비를 세울 때인 765년에 매납한 것이지만 신회가 생전에 사용한 것이어서 760년 이전에 제작되었으며, 가장 이른 선종선사 유물로 인정되고 있다.³⁵⁾ 8~9세기 유물로는 호북성 隨州 東城에서 征集한 일괄유물로 병향로 로신의 전에 獅子鈕가 달려있어 손잡이의 사자와 함께 2마리의 사자가 있는 모양이 특징적이며, 일본 白鶴미술관 소장 金銅獅子鎭柄香爐도 이와 같은 모양이다.³⁶⁾(도4) 또한 선종의 주요 傳布地인 강서성 瑞昌 范鎭 출토 병향로와 향합세트는 병향로의 손잡이 끝에 탑이 있는 塔式鎭柄香爐로 똑같은 예가 일본 동경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

35) 洛陽市文物工作隊, 「洛陽唐神會和尚身塔塔基清理」, 『文物』 1992-3, pp.64-67 및 p.75 ; 李學勤, 「禪宗早期文物的重要發現」, 『文物』 1992-3, pp.71-75.

36) 隨州市博物館 編, 『隨州出土文物精粹』, 文物出版社, 2008, pp.155-156.

다.37)(도5)

이렇듯 대승비구의 護持物 중 정병, 발우, 병향로, 탑형향로가 조합기명으로 당대 8~9세기에 禪宗僧의 기본적인 공양구로 유행하였으며, 인각사 승탑지 출토 일괄유물들은 이 계열에 속한다. 특히 중국 禪宗승려가 호지하는 조합기명의 국제적 양식을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병과 청동발의 완숙한 조형미, 탑형향합과 향로의 리베팅 부분에서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표현수법을 보이고 있어 통일신라 금속공예의 우수성을 전해주고 있다.

2. 내용 및 특징

1) 청동금고

두께 15.2cm, 구경 40cm 크기인 이 금고는 儀式具로 안에 매납유물이 담긴 채 발견되었는데, 통일신라 금고로는 함통6년명(865) 청동북(보물 제1907호)이 유일한 상황에서 출현한 것이다.(도6, 8) 그런데 2개의 금고는 일반적인 고려시대 금고보다 기복이 두툼한 편인데 전면에 문양의 유무와 현수하기 위한 고리모양이 달라서 어느 것이 선행작품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인각사 금고는 내구 중심에 마치 당 좌처럼 연판문이 양각되어 있고, 외구는 2줄의 굵은 선을 장식해 공간을 3분한 모양이다. 연판문 장식은 5세기에 축조된 고구려 약수리 고분 벽화에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도7) 금고 뒷면 공명구는 많이 부서진 상태이며, 주조 시 용탕이 새어 떡지로 붙은 흔적도 있고, 측면에는 鑄型이 일부 무너져 이를 때운 듯 커다란 흔적이 남아있다.(도8) 측면에는 원래 황으로 관통하는 고리가 3개 있었는데 현재 2개만 남아있다. 반면, 함통6년명 청동북의 고리는 보주형의 중앙에 구멍이 있어 앞뒤로 끼우는 방식이다.(도9) 인각사 금고는 연판문 중앙에 붙어있는 주조 후의 피막 같은 검은 떡지와 공명구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떡지, 파손된 공명구 모양을 고려하면 사용하던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2) 청동정병 2점

정병1 : 높이 39.7cm, 저경 8.2cm / 정병2 : 높이 35.2cm, 저경 7.5cm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전형적인 정병형태(軍持 I 식)인 이 유물들은 1점은 완형, 1점은 목부분이 파손된 채로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 검은 빛을 띄고 있으며 가늘고 긴 八角尖臺와 긴 목, 둥근 어깨에 뚜껑 달린 流(물을 넣는 注口)가 붙은 몸체로 구성된 細長形 정병이다.(도10) 군지형 정병은 주구가 2개인 쌍구형으로 원래 인도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수병을 입에 대지 않고 가늘고 긴 병목을

37) 江西省 文物考古研究所 編, 『塵封瑰寶』, 江西美術出版社, 1999, p.104 ; 張翊華, 「析江西瑞昌發現的唐代佛具」, 『文物』 1992-3, pp.68-70.

손에 쥐고 올려서 긴 침대로 가늘게 흘러나오는 물을 입안에 따라 넣기 위해 고안된 유형이다. 流에 경첩이 달린 이유는 벌레가 들어가지 않고 깨끗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이다.

가장 이른 중국유물로는 낙양시 용문 安菩墓에서 출토된 백자정병(709년 이전)이 있으며, 서안 경산사지에서 출토한 석조사리감(741년)의 左面 八王分舍利 장면에도 조각되어 있다.(도11) 금속제로서 인각사 정병과 같은 예는 하택신회 묘탑에서 조합기명으로 출토한 것인데, 신회의 정병은 침대가 분리되는 형식(ㄱ)만 다를 뿐이다.

군지형 정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시기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바와 같이 法藏賢首(643-712)가 勝詮을 통해 義湘(625-702)에게 전달한 ‘西國軍持澡罐(雙口形)’이 가장 이른 예이므로 7세기 말로 추정된다. 이후 석굴암의 범천상이 이런 정병을 들고 있어서 8세기에는 멀리 인식된 새로운 유형이다.³⁸⁾ 대표적인 유물로는 부소산 출토 정병(9세기)이 알려져 있고, 최근에 삼척 흥전리사지에서는 인각사 청동정병과 線形이 유사한 2개의 청동정병이 출토된 바 있다.

인각사 정병 2점의 제작기법은 주조한 후 류와 밀판을 밖에서 땀하여 붙인 방식인데, 날렵한 침대와 가늘고 긴 목이 몸체에 느슨한 ‘ㄱ’자형 곡선으로 연결된 몸체에서 原型제작부터 주조과정까지 빼어난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이 유물들은 흥전리 정병 2점과 함께 출토지가 분명한 통일신라 정병으로 선종승려의 호지물이라는 점에서 공양구 및 불교사 연구의 자료적 가치가 있다.

3) 금동병향로

높이 7.4cm, 길이 37.6cm인 이 병향로는 금고 주위에 햇무리굽청자 7점과 청동완, 정병과 함께 매납된 것이다.(도12) 전의 일부가 깨진 로신과 끝에 사자가 장식된 긴 손잡이가 연결된 형태인데 연결부분에는 투각 如意모양 장식판이 리베팅 기법으로 붙어 있다.(도12-1) 병향로는 감숙성 병령사 169굴 벽화(西晉)에서부터 보이기 시작, 남북조시기에는 손잡이 끝이 넓고 갈라진 鵲尾形이 유행하였으며, 당 8세기에 ‘ㄴ’자형 손잡이 끝에 연화대좌를 갖춘 사자가 올려진 사자진병향로가 출현한다. 두 유형은 공존하였고, 전에 작은 사자가 하나 더 올려진 쌍사자 병향로도 출현한다.

병향로는 탑형향합과 한 세트로 사용하였음이 初唐시기에 조성된 廣元 皇澤寺石窟의 가섭상이나 법륜사 옥충주자의 승려상, 석굴암의 10대 제자상에서도 확인된다.(도13, 14) 통일신라 금속제병향로로는 리움소장 금동사자진병향로, 창녕 말흘리사지 출토 연봉진병향로가 대표적인데, 인각사에서 금동사자진병향로가 출토되

38) 一然, 『三國遺事』卷第四, 「勝詮髑髏」條, “釋勝詮 未詳其所自也. 常附舶指中國. 詣賢首國 師講下... 並因勝詮法師抄寫還鄉. 頃新羅僧孝忠遺金九分. 云是上人所寄. 雖不得書. 頂荷無盡. 今付西國軍持澡灌一口...” ; 乙酉文化社, 1976년 版, pp. 340-341.

어 병향로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도15) 특히 인각사 병향로는 연화좌 위에 꼬리를 세운 채 앞발을 딛고 앉아있는 금동사자의 자세나 용맹스러운 얼굴은 8세기 작인 안압지 출토 사자상과 같은 위용을 느낄 수 있으며, 사자를 리베팅한 뒷면의 섬세한 방사선식 문양은 제작수법의 우수함과 8세기 통일신라 전성기 미술의 단면을 보여준다.(도12-2)

4) 청동탑형향합

높이 18.0cm, 구경 8.6cm 규모인 청동향합은 금고 안에 담겨 있었으며, 표면은 검푸른 빛을 띄고 있다. 塔形鈕와 뚜껑이 깨진 상태인데, 탑형뉴와 半球形 덮개로 구성된 뚜껑, 器身과 臺部로 구성된 몸체인 4개의 구조가 2개의 리베팅으로 연결된 것이다.(도16) 이 향합은 벌어진 [八]자형 대부가 달린 풍만한 하트형 몸체 위에 密檐式 7층탑이 연결되어 외형선의 조형미가 빼어날 뿐 아니라 각 부분의 제작수법도 매우 精緻한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장식적인 느낌을 준다. 특히 얇고 날렵한 옥개석 외연에 연주문을 돌린 후 안으로 밀집선을 음각해서 마치 꽃술 같아 보이는 점이나 내부의 리베팅 부분도 이단반구형으로 조각한 점에서 원형제작부터 구조까지 숨씨가 뛰어난 장인이 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각사 청동향합은 당대 향합과 똑같은 형태로 국제양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향합들보다 밀침식 탑형뉴가 가장 정교한 유물로 평가된다.

5) 청동원통형이중합

높이 14.3cm, 구경 8.9cm 크기의 청동원통형이중합은 사리용기, 經典, 香이나 茶를 넣는 용기 등 정확한 기능을 알 수 없으나 금산사 오층탑(982년 완공) 발견 사리장엄구와 청동원통형이중합, 안성 長命寺 탑 발견 청동원통형이중합(997년)을 기준삼아 10세기에 출현한 사리외합으로 추정되어 왔다.³⁹⁾ 원통형합은 안압지 K지구에서 금동원통형기가 출토된 바 있으며, 인각사 원통형이중합은 8세기 후반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 가장 이른 예로 생각할 수 있다.

二段으로 구성된 인각사 청동원통형이중합은 표면에 횡으로 매우 촘촘하게 음각된 밀집선이 특징적이다. 제작기법은 굵은 판재를 굵은 봉에 대고 말아서 정원을 만든 다음 땀한 다음 가질대에 고정, 끝이 아주 가는 칼대로 가질한 것으로 판단된다.[삽도1] 때문에 측면에 불규칙한 縱線이 있고 그 위에 밀집 橫線흔적이 있으며, 밀집선들도 자세히 보면 등간격이 차이가 있다.[삽도1-①] 하단 원통합의 구연부와 바닥면과 측면의 직각선은 구조법 제작 시 나오기 힘든 직각상태[ㄴ] 이

39) 최응천, 「軍威麟角寺 출토 佛教金屬工藝品の 性格과 意義」, 『선사와 고대』 32(2010), pp.94-96.

며[삽도1-②] 뚜껑도 판재를 안쪽으로 붙여서 상단 합이 턱에 꼭 맞게 제작했다.
 [삽도1-③]

칼대의 숨씨가 빼어난 이 청동원통형이중합의 기능에 대해서는 사리용기라는 설이 타당해 보이거나 供養器라는 의미로 본다면 향과 차를 각 단마다 넣을 수도 있겠다. 청동의 일종인 유기(주석 22%)는 공기순환이 되므로 안에 음식물을 넣어도 쉽게 변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삽도1] 청동원통형이중합의 제작기법

6) 청동기명류

인각사 출토 청동기명들은 일견해서 전형적인 8세기 기형을 보이고 있다.(도18) 청동발(완) 2점과 청동뚜껑은 청동합으로 쓰이기도 하고 뒤집어서 접시로도 쓰이는 臺付皿이다.

청동기명의 크기	
청동발1 : 높이 11.1cm, 구경 20.8cm 청동발2 : 높이 9.8cm 구경 20.7cm 청동뚜껑1 : 높이 4.3cm 구경22.2cm 청동뚜껑2 : 높이 4.3cm, 구경19.4cm	

呑

[삽도2] 청동기명 크기 및 명문

발의 크기는 대략 높이 10cm, 구경 21cm 정도이고, 청동발1의 내면에 ‘呑’자(?)인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이 명문이 사용자나 기명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어서 추후의 연구를 기대해 본다.

청동발의 조형적 특징은 풍만한 몸체는 구연이 살짝 외반되었고 하부에 1개의 돌출선이 있으며 굽은 [八]자형이다. 당-통일신라시대에 널리 쓰인 식기이며, 날개로 쓰일 때는 청동발 또는 청동완이라 부르며, 뚜껑이 덮여질 때는 청동합이라 부른다. 뚜껑에 넓은 전이 있어서 완에 덮일 때는 손잡이로 쓰이고 뒤집어서 접시로 쓰일 때는 굽이 되므로 臺付皿이라 부르는 다기능적인 기명이다. 그릇 이런 유형은 당대 ‘安史의 亂(755년)’ 때 묻어두고 피난갔던 何家村유물이나 黃冶窯 당삼채완, 邢窯 백자완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통일신라시대 유물로는 안압지, 인룡사지 등에서 여러 점이 출토된 바 있고, 일본 정창원에 소장된 신라 가반, 사와리완(佐波理碗)은 신라에서 수출한 것이다. 즉 그릇 하부에 한 줄이 있는 식기는 8세기에 중국이나 한국에서 유행했던 국제적인 기형이며, 신라는 이를 더 잘 만들었다.

인각사 청동용기들은 국제성과 함께 일상식기를 불교에서도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금속기 연구의 자료적 가치가 크다.

이 외에도 인각사 승탑지에서 높이 4.3cm 크기의 금동가릉빈가상이 출토되었는데 밑에 짧고 굽은 선이 있어 어떤 기물에 끼워진 장식품으로 생각된다.

【도판】



도1. 군위 인각사 출토 청동불구 일괄, 통일신라



도2. 湖北省 當陽 長坂坡 1호분 출토 세트기명(동계광견형장경병, 동계병향로, 향합, 잔, 다호), 南朝 6세기 초
※ 남하한 北魏 墓葬으로 추정되고 있음



도3. 荷澤神會墓 세트기명, 唐 760년 이전



도4. 湖北省 隨州 출토 세트기명(광견형세
장경용:北朝式 淨瓶, 향합, 獅子鎧柄香
爐), 唐 8~9세기, 隨州市博物館



도5. 江西省 瑞昌市 范鎮 출토 세트기명(金銅塔式鎧
柄香爐와 金銅香盒), 唐 8~9세기, 瑞昌市博物館



도6. 인각사지 출토 청동북, 통일신라

도7. 약수리 고분의 석복, 고구려 5세기



도8. 인각사 청동복의 뒷면



도9. 함흥6년경 청동복, 통일신라 865년, 직경31.5cm, 폭10.5cm. 국립중앙박물관



도10. 인각사 출토 청동정병 2점



도11. 慶山寺址 舍利石函 左面 八王分舍利 장면의 軍持 I 式形淨瓶, 唐 74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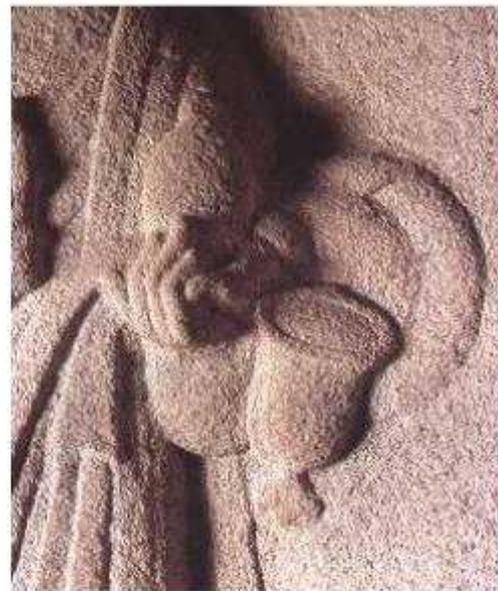
도12. 인각사 사자진금동병향로와 안압지 출토 사자상 비교



도12-1. 隨身과 손잡이의 如意形 연결장식 도12-2. 손잡이 끝의 리베팅 부분



도13. 法隆寺 玉蟲野子の 승려상(병향로와 답형향합)



도14. 석굴암 10대 계자상(오른쪽 첫 번째 상)의 병향로와 답형향로, 통일신라 8세기 중엽



도15 . 금동사자진병향로, 통일신라 8세기, 리움미술관



도16. 인각사 답형향합의 답형 세부분양, 펼친 상태, 리베팅 부분



◀ 안압지 K14구 출토 금동원통형기

도17. 인각사 청동이중합



도18. 인각사 청동완과 熏付皿(뚜껑 겸), 대부령의 상면



안압지 출토 청동완, 통일신라 8세기

안압지 출토 熏付皿, 통일신라 8세기



경창원 소장 新羅加盤, 통일신라 8세기

銀製鍍金盒, 西安 何家村 출토, 唐 8세기, 삼서성박물관

三彩碗, 黃冶窯, 唐 8세기

□

○ 형 식

군위 인각사 출토 불교 공양구 일괄품은 2008년 군위 인각사 정비사업 발굴조사에서 1호 건물지 동쪽의 방형집석유구 한쪽에서 출토된 일괄 유물이다. 나말여초기의 불교 사찰에서 사용하던 공예품들로서, 일괄 출토품 중에서 금속공예품은 모두 12점이다. 여기에서는 발굴보고서의 기술과 지정조사시에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 유물별로 명칭과 크기를 정리한 후(표 1),⁴⁰⁾ 각 유물별로 형식적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겠다.

표 1. 인각사 출토 금속공예품 목록

연번	명칭	크기	도면번호
1	청동금고(靑銅金鼓)	높이 15.2cm. 너비 40cm.	#38
2	금동병향로(金銅柄香爐)	높이 7.4cm. 길이 37.6cm.	#33
3	청동탑형뉴합(靑銅塔形鈕盒)	높이 18.0cm. 입지름 8.6cm.	#37
4	청동정병(靑銅淨瓶) 1	높이 39.7cm. 바닥지름 8.2cm.	#34
5	청동정병(靑銅淨瓶) 2	높이 35.2cm. 바닥지름 7.5cm.	#35
6	청동이단합(靑銅二段盒)	높이 14.3cm. 입지름 8.9cm.	#36
7	금동가룻빈가상	높이 4.3cm.	#40-①
8	청동발(靑銅鉢) 1	높이 11.1cm. 입지름 20.8cm.	#39-②
9	청동발(靑銅鉢) 2	높이 9.8cm. 입지름 20.7cm.	#39-④
10	청동뚜껑 1	높이 4.3cm. 입지름 22.2cm.	#39-①
11	청동뚜껑 2	높이 4.3cm. 입지름 19.4cm.	#39-③
12	청동그릇편 각종	복원 입지름 30.0cm.	#39-⑤

1. 청동금고(靑銅金鼓)

비교적 크기가 큰 청동금고로서, 원래 3개의 꼭지가 달리고 뒷면에는 지름 19.4cm의 커다란 공명구가 형성되어 있는 형식이다(도 1, 2). 청동을 주조해서 만들었으며, 뒷면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금고 앞면 중앙의 당좌는 지름 8.2cm이며 주위에 34개의 꽃잎을 돌려서 꽃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 주위에는 등간격으로 용기 동심원을 배치하여 3단으로 구획하였다. 뒷면의 구연부는 다소 두꺼우며, 중앙부터 측면까지의 공간에 2줄의 용기 동심원을 배치하여 3단으로 구획하였다. 현재 손잡이는 좌우에 하나씩 두 개가 남아

40) 표 1의 도면 번호는 佛敎文化財研究所, 2011, 『麟角寺 - 君威 麟角寺 5차 발굴조사 보고서』, 불교문화재연구소, 군위군, pp. 95-102 참조.

있지만, 원래는 위쪽에 한 개의 손잡이가 더 있어서 모두 3개의 손잡이가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번째 동심원 구간에는 가느다란 양각의 당초문이 장식되어 있는데, 문양이 매우 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다지 잘 보이지는 않는다.

금고는 금구, 반자, 청동북, 쇠북이라고도 하는데, 사찰의 일상적 불교 의례에서 사용하는 불교의식구(佛敎儀式具)이자 범음구(梵音具)이다. 현존하는 금고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통일신라시대 함통 6년(865)에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동금고인데, 표면에 동심원 이외에 별다른 문양이 없다. 인각사 출토 금고는 육중한 크기와 간단한 문양, 3개의 손잡이 등의 형식적 특징으로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인 나말여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 금동병향로(金銅柄香爐)

병향로는 통일신라시대 이후부터 종종 사용되었던 긴 손잡이가 달린 휴대용 향로 형식이다. 인각사에서 출토된 병향로는 향로 몸체와 받침대, 손잡이, 여의두형(如意頭形) 장식판, 사자형(獅子形) 장식 등을 별도로 주조하여 조립하여 만든



도 1. 청동금고 앞면.



도 2. 청동금고 2. 뒷면.



도 3. 금동병향로.

것으로, 매우 뛰어난 주조기법과 양식을 보여준다(도 3). 병향로는 손잡이 끝부분의 형태에 따라, 연미형 병향로, 사자형 병향로, 연봉형 병향로 등으로 나뉘는데, 인각사 병향로는 사자형 장식이 달려 있는 사자형 병향로 형식이다.

향로 몸체의 입지름은 12.2cm이며 아래쪽이 좁고 위쪽이 나팔형으로 외반한 형식이다. 그 아래에는 꽃 모양의 받침대가 있는데, 일부가 파손된 상태이다.

긴 손잡이의 윗부분에 달려 있는 여의두형 장식판은 가로 8.26cm, 세로 7.5cm의 크기이다. 여의두형 장식판은 두께 1-1.3mm의 얇은 판으로 만들었는데, 윗면에 두 개의 지름 1.36cm 크기의 검은색 원형 장식이 달려 있다. 이 장식들의 재질은 확실하지 않으나, 준보석 계통의 광물류로 추정된다. 이 검은색 원형 장식 아래에는 얇은 금색 판 3장을 겹쳐서 깔아 장식했는데, 각 판의 주위에는 세밀한 점열문을 타출해서 장식했다(도 4). 장식판 반대쪽 면에는 국화동 장식과 같은 형태의 섬세한 장식을 붙여서 고정하였다(도 5).



도 4. 금동병향로의 여의두형 장식판. 앞면.



도 5. 금동병향로의 여의두형 장식판. 뒷면.

손잡이 끝에 달린 사자형 장식은 높이 6.0cm인데, 표면에 도금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사자는 복련과 양련이 시문된 연화좌 위에 정면을 향하여 앞다리를 세우고 앉아 있으며, 뒤쪽에는 세 갈래로 갈라진 꼬리가 표현되어 있다. 사자와 손잡이도 여의두형 장식판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제작되어 조립된 것이다.

인각사 출토 금동병향로의 전체적인 형식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병향로나 일본 정창원 소장 병향로 등과 상당히 유사하여, 통일신라시대 8-9세기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제작기법과 조형적 측면에서는 국내 현존례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뛰어난 양식을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이다.

3. 청동탑형뉴합(靑銅塔形鈕盒)

청동탑형뉴합은 청동금고 내부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팔형의 받침, 둥근 그릇과 같은 몸체, 탑 모양의 꼭지가 달린 뚜껑 등을 별도로 만들어 리벳으로 조립하여 만들었다(도 6). 표면에는 음각의 동심원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양이 없다. 이와 유사한 탑형뉴합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종종 제작되었는데, 대부분 출토지와 출토 상황이 불명확하다. 인각사 출토 청동탑형뉴합은 유사한 탑형뉴합 형식의 그릇들 중에서는 매우 드물게 출토지와 출토 상황이 밝혀진 중요한 예로서 주목된다.

이 청동탑형뉴합은 아래와 위가 모두 나팔형으로 벌어진 받침대 위에 둥근 몸체를 얹어 놓았는데, 받침대에는 2줄의 음각선이 장식되어 있고 몸체에는 구연부 인근에 동심원대가 음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둥그스름한 뚜껑에도 역시 구연부 인



도 6. 청동탑형뉴합.



도 7. 향과 : 청동정병 1. 향우 : 청동정병 2.

근에 음각의 동심원대가 장식되어 있다. 뚜껑 중앙에는 높이 5mm, 지름 40.8mm의 원형 대좌를 만들고, 중앙에 독특한 원형탑 모양의 장식을 얹어서 장식했다. 이 탑모양은 각각 크기가 다른 원형판을 올려서 만들었는데, 가장 아래쪽의 큰 판은 지름 35.7mm이며, 맨 위의 원형판은 지름 23.1mm이다. 맨 위는 연봉형 꼭지 모양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뚜껑부분과 탑형 장식이 연결되는 부분은 부식이 심하여 다소 파손된 상태이다.

이러한 7단의 원형장식이 올려진 탑형뉴합 형식은 사리장엄구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혹은 향을 보관하는 향함(香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인각사에서 출토된 탑형뉴합은 내부에서 타다남은 향의 재가 발견되었다고 하며,⁴¹⁾ 병향로와 공반하여 출토된 정황으로 볼 때, 향함으로 사용되었던 것일 가능성이 있다.

4. 청동정병(靑銅淨瓶) 1

인각사에서 발견된 2점의 정병 중에서 조금 큰 크기의 정병이다(도 7-향좌). 정병은 불교 의례에서 사용하는 정수(淨水)를 담아 놓는 불교 공예품으로, 인도에서 전래된 독특한 기형을 따라 만들어진다.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다. 이 정병은 동체 위에는 나팔형으로 벌어진 긴 목 위에 팔각형의 첨대가 형성된 주구(注口)가 있고, 동체 한쪽 어깨 위에는 짧은 목을 가진 별도의 구부(口部)가 형성되어 있다. 구부 위에는 여단을 수 있는 뚜껑이 있는데, 지금은 닫힌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 표면의 색이 약간 황갈색을 띠고 있는 이 정병은 동체의 일부와 바닥 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이다. 특히 낮은 굽을 가진 바닥부분은 안쪽이 완전히 파손되어 내부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도 8).



도 8. 청동정병 1의 바닥 부분.



도 9. 청동정병 2의 바닥 부분.

5. 청동정병(靑銅淨瓶) 2

인각사에서 발견된 2점의 정병 중 크기가 조금 작은 정병으로, 형식은 청동정병 1과 큰 차이가 없다. 발견당시에는 목 부분이 갈색으로 산화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보존처리를 통해서 표면의 색이 모두 녹색조로 바뀌었다. 전반적인 보존 상태가 우수한 편이며, 굽이 형성된 바닥 부분도 잘 남아 있다(도 9). 다만, 어깨 부

41) 불교중앙박물관, 2013, 『인각사와 삼국유사』, 불교중앙박물관, p. 58.

분에는 일부분이 부서져서 구멍이 나 있다. 구부의 뚜껑은 원래 열고 닫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은 보존처리 과정에서 열린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

6. 청동이단합(靑銅二段盒)

청동금고 안에서 발견된 청동이단합은 뚜껑이 있는 2단의 원통형 그릇이다(도 10, 11). 뚜껑, 상단, 하단의 표면에는 모두 측면에 조밀한 음각선이 돌아가면서 장식되어 있으며, 지름은 8.86cm이다. 이 중에서 하단 그릇은 바깥쪽에서 보면 굽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안쪽 바닥에서 보면 얇은 굽이 형성되어 있다. 그릇 위쪽의 구연부는 안쪽으로 도톰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구연부의 두께는 2.8mm이다. 상단 그릇에는 바닥 부분에 두께 1.2mm, 높이 8.4mm의 굽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굽을 아랫단 위에 꽂아서 상하단의 그릇을 연결할 수 있다. 뚜껑 윗면에는 지름



도 10. 청동이단합 결합 상태.



도 11. 청동이단합 분리 상태. 측면.

3.5cm, 4.0cm의 음각 동심원이 새겨져 있다. 뚜껑 안쪽은 파란 녹이 남아 있다.

이러한 형식의 청동이단합은 고려시대 997년에 창건 안성 장명사(長命寺) 오층 석탑에서 사리장엄구로 봉안되었던 예가 알려져 있으며, 북한산 삼천사지, 진도 용장산성 등 고려시대 유적에서 종종 출토되고 있다. 청동이단합은 대체로 10세기 이후의 불교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인각사 출토품은 그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어 나말여초기의 유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합은 사리장엄구, 혹은 향합으로 해석되어 왔는데, 인각사 출토유물은 향합일 가능성이 크다.

7. 금동가릉빈가상

청동금고 안에서 발견된 소형의 금동상으로, 피리를 붙고 있는 가릉빈가를 표현한 것이다(도 12). 가릉빈가의 몸체는 청동을 주조한 후 도금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푸른색 녹이 심하게 나 있어서 도금 흔적은 얼굴의 일부분에서만 확인된다. 날개는 별도로 만들어, 가릉빈가의 뒤쪽에 마련된 축에 꽂아서 부착했는데, 향우측 날개는 부러져서 사라졌다(도 13). 배에는 작은 돌기가 남아 있으며, 바닥쪽에도 어디엔가 꽂았던 것으로 보이는 축이 남아 있다. 가릉빈가는 불교에서 종종 표현되는 천상의 새로서, 사람 얼굴에 새의 몸을 한 상상의 동물이다. 비교적 유례가 없는 귀중한 소형 조각의 예로서 주목되지만, 구체적인 제작 연대는 판단하기 어렵다.



도 12. 금동가릉빈가상. 앞면.



도 13. 금동가릉빈가상. 뒷면.



도 14. 청동반 1.



도 15. 청동반 1의 바닥 외면의 중심원과 받판.

8. 청동발(靑銅鉢) 1

복원 지름 20.8cm의 비교적 크고 속이 깊은 청동그릇으로, 현재 몸체의 절반 가까이가 결실된 상태이다. 구연은 외반했으며, 동체의 중간 부분에는 능형으로 처리된 양각 선이 형성되어 있다(도 14). 바닥에는 약간 외반한 낮은 굽이 있으며, 내외부의 표면에는 얇은 동심원이 선각되어 있다.. 약간 도톰하게 처리된 구연부의 두께는 2.4mm, 동체부의 두께는 1.8mm, 굽의 두께는 2.6mm이다. 바닥의 바깥쪽 면에 형성된 2중의 음각 동심원 옆에는 얇은 선각으로 “呑”, 혹은 “天”+“口”와 비슷한 글자가 새겨져 있다(도 15). 이 명문은 발굴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번 지정 조사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글자의 크기는 7.8 x 8.5mm 이다.

이러한 형식의 청동발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널리 사용되었던 금속기 형식이다. 이러한 금속기의 굽 부분에 명문이 새겨진 경우는 종종 찾아볼 수 있으나 대부분 1글자, 혹은 2글자에 불과하여,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표식을 위해서 새겨진 것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9. 청동발(靑銅鉢) 2



도 16. 청동발 2. 측면.



도 17. 청동발 2. 바닥면.

청동발 2는 청동발 1과 거의 유사한 형식의 그릇으로, 청동발 1에 비해서 훨씬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구연부 일부분이 파손되어 있으며, 내면과 바닥면은 두꺼운 녹이 수착되어 있다. 동체 외부에는 양각선 1조가 돌려져 있으며, 바닥면에는 역시 2중의 음각 동심원대가 돌려져 있다. 녹이 두껍게 붙어 있어서, 글자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는다.

10. 청동뚜껑 1

얇은 굽을 가진 접시 형태의 그릇으로, 합의 뚜껑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연부는 외반한 후 끝 부분이 직각으로 처리되었다. 굽의 두께는 2.1mm, 구연부의 두께는 2.4mm이다. 구연부의 일부분이 상당 부분 파손되었으며, 몸체도 일부 파손되어 구멍이 나 있다. 굽 안쪽에는 별 다른 문양이 없이 평평하게 처리되어 있다(도 18). 그릇 내면에는 별다른 문양이 없으며,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

11. 청동뚜껑 2

청동뚜껑 1과 거의 비슷한 형식의 접시, 혹은 그릇 뚜껑이다(도 19). 다만 어깨 부분과 굽 안쪽 부분에 두툼한 용기돌선과 음각선이 장식된 점이 다소 차이가 있다. 몸체 두 곳이 파손되어 구멍이 나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청동뚜껑 1보다는 양호한 편이다.



도 18. 청동뚜껑 1.



도 19. 청동뚜껑 2.

12. 청동그릇편 각종

인각사에서서는 청동수반으로 추정된 대형의 청동그릇편과 기타 소형 그릇의 일부분으로 보이는 그릇편들이 여러 점 출토되었다. 그중에서 파손 상태가 너무 심해서 구연부만 일부 남은 대형의 청동 수반편은 조사대상들과 함께 출토된 일괄품이지만 현재 상태가 너무 나빠서 정확한 복원 도면을 추정할 수도 없다(도 20). 한편, 지정 조사 당일에 확인했던 청동제의 소형 그릇편들은 조사 대상 일괄품과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출토된 것으로(도 21), 일괄 공양품에 속하지 않다.



도 20. 청동 수반 편.



도 21. 청동 소형 그릇 편. 일괄품 아님.

○ 조성연대

이상에서 조사한 12점의 청동제 공예품들은 각각의 양식적 특징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 8세기 후반경부터 나말여초기인 10세기 전반경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각 유물들의 제작시기는 유물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식적 특징으로 볼 때, 이 유물들 중에서 가장 제작시기가 올라가는 것은 사자형 병향로로 추정된다. 이 병향로는 일본 정창원 소장 병향로나 삼성미술관 소장 병향로 등과 유사한 형식이며, 창녕 말흘리 출토 연봉형 병향로보다는 제작시기가 올라가는 것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 전성기인 8세기 중후반 경에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동체가 가름하고 주구와 첨대가 날렵한 청동정병 2점도 역시 양식적 특징으로 볼 때, 현존하는 청동정병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제작시기는 역시 통일신라시대 8세기 중후반경일 가능성이 크다. 탐형뉴합도 정교한 탐형뉴의 형태 및 사자역시 통일신라시대 8세기 중후반경부터 9세기 전반경까지의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단합의 경우에는 이상의 3종보다 다소 늦은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반경에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크며, 금고도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름빈가상과 청동발 2점, 청동뚜껑 2점 및 청동그릇편 등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형식이므로, 정확한 제작연대를 파악하기가 다소 어렵다.

이 유물들 중에서 12번의 청동그릇편 중 일부를 제외한 다른 유물들은 중국제 청자 일괄품과 함께 인각사의 방형집석유구의 북서쪽에 마련된 독특한 공간에서 한꺼번에 출토된 일괄유물들이다. 이 중 탐형뉴합, 그릇, 가름빈가상 등은 금고 내부에 봉안된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일괄유물들의 매납 시기, 즉 하한 연대는 개별 제작 연대를 고려하여 9세기에서 10세기 전반 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현 상

군위 인각사 출토 일괄유물은 2008년 발굴된 이후 보존처리를 진행하여, 발굴 당시와는 색이나 상태가 다소 변화되었다. 대부분 파손된 상태로 발굴되었으나, 지금은 복원이 가능한 예들은 모두 안전하게 접합되어 있다. 12번 유물과 같은 청동그릇 파편들은 파손 상태가 심하고 원래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냥 파손된 상태로 보존처리하여 보관하고 있다. 현재 이 유물들은 모두 서울의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비교적 양호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인각사에서 일괄품으로 발견된 청동제 불교 금속공예품들과 중국제 청자 일괄 유물들은 보기드문 통일신라시대 후기의 불교 사찰에서 사용하던 공예품들이다. 특히 금고와 정병, 병향로와 같이 청동을 주조해서 제작한 불교 금속공예품들은 고려시대의 불교 사찰 유적에서도 종종 출토되고 있지만, 인각사의 경우와 같이 일괄품으로 발견된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인각사 출토 불교 금속공예품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2개의 검은색 준보석을 부착하여 장식한 사자형 병향로이다. 병향로는 행향(行香) 의례와 같은 불교의 공양 의례에서 사용하던 이동용 향로로서,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삼국시대 이후 향은 각종 불교 의례에서 널리 공양품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거의 모든 종교 의례는 정화(淨化)를 위한 향을 피우며 시작한다. 인각사의 사자형 병향로는 현존하는 통일신라시대의 병향로 중에서 보기 드물게 고고학적 발굴조사에 의해서 출토된 유물로서 중요하다. 인각사에서는 병향로와 함께 탐형뉴합과 이단합 등 두 종류의 향합으로 추정되는 그릇들이 발견되어, 향합과 향로로 구성된 불교 공양품 일괄품이 함께 매납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통일신라시대 불교 의례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인각사에서 출토된 정병 2점은 형태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형식은 두 점이 그다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전반적으로 계란형에 가까운 단아한 동체와 날렵한 주구, 표면에 문양이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창원이나 중국 당대 정병 등과 비교되어, 현존하는 한국의 정병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정병으로 추정된다. 정병은 원래 고대의 인도 불교계에서 비구들이 소지해야 할 주요 물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으며, 한국에는 통일신라시대에 중국을 거쳐 전해졌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일신라시대의 금속제 정병으로 추정되는 예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고, 현존례의 대부분은 고려시대의 작품이다. 그러므로 인각사 출토 정병 2점은 현존하는 보기 드문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인각사에서 발견된 청동금고는 명문이 남아 있지 않으나, 3개의 고리가 있고 공

명구가 좁으며 동체 측면 폭이 다소 두꺼운 점으로 볼 때,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청동금고들보다는 다소 제작 시기가 올라가는 작품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통일신라시대 청동금고의 현존례는 함통 6년명 금고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인각사 청동금고는 통일신라시대의 또다른 금고의 현존례로서 귀중한 자료가 된다. 양식적으로 볼 때에는 당좌부 주위에 꽃잎을 표현한 점이 특징이며, 문양이 거의 없는 함통 6년명 금고와 상당히 다른 양식을 보여준다. 금고는 통일신라시대 이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원은 자세하지 않다. 다만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호국불교의례를 거행할 때에 가장 중요시되었던 『금광명경(金光明經)』에서 금고를 참회 의례와 연결하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금속제 금고는 금광명경의 유행과 함께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3세기 이후 선종 사찰의 각종 의례 규범에서 금고는 공양 시간을 비롯하여 사찰내의 일상 생활에서 대중을 모으는 소리를 내기 위한 의례용품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불교 사찰에서 거행된 각종 불교의례에서 금고는 매우 중요한 범음구(梵音具)로 사용되었다. 아직까지 인각사의 청동금고와 유사한 양식의 금고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제작지와 제작연대에 대해서는 향후 비교 자료가 증가되어야 좀 더 심도있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인각사에서 출토된 각종 그릇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형식이므로, 그다지 특별한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그릇들은 불단(佛壇)에 공양품을 올릴 때에 사용하는 불기(佛器)이거나, 사찰의 승려들이 일상 생활인 공양의례, 혹은 다례(茶禮) 등에서 사용하는 공양구로 추정된다. 이중 몸체가 상당부분 파손된 청동발 1의 경우에는 바닥면에 “呑”, 혹은 “天口”와 비슷한 글자를 새겨 놓았는데, 향후 명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군위 인각사 출토 각종 금속공예품 및 공반 청자는 모두 불교 사찰에서 불단에 공양의례를 올리거나 승려들의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었던 공양구(供養具)들로서, 함께 사용되었던 공양구들을 독특한 공간에 한꺼번에 매납해 놓은 독특한 사례이다. 이와 같이 각종 불교 금속공예품들을 한꺼번에 일괄품으로 매납해 놓은 예들은 현재 경남 창녕군 말흘리 유적과 청주 사뇌사지, 흥천사지 등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여러 폐사지 유적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다. 인각사 출토 불교 공예품들은 통일신라 후기, 혹은 나말여초기의 독특한 사례이며, 발굴 과정이 명확하게 확인된 중요한 예로서, 통일신라시대 불교 문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문헌자료

군위 인각사는 고려시대 후기에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 스님께서 주석하던

사찰로 유명하다. 현존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후기의 건물이지만, 발굴조사를 통해서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인각사의 발굴조사는 2018년 봄과 가을에 행해진 제 6차 및 7차 조사까지 진행되었으며, 발굴보고서는 제 5차 조사까지 간행된 상태이다. 인각사에 대해서는 기록은 조선시대의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기록들에 남아 있지만, 통일신라시대의 인각사에 대한 기록은 매우 드문 편이다. 인각사의 발굴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 1>과 불교문화재 연구소의 제 5차 발굴조사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다.⁴²⁾

표 1. 조사연혁

조사대상	기간	조사기관
요사 신축예정지, 강설부 이전예정지, 대웅전지 시굴조사	1991. 11. 25.~12. 24.	경북대학교 박물관
		『華山 麟角寺』 1993
대웅전지, 극락전과 별부전 주변, 탕구변 마당, 대웅전과 강설부 사이, 현 강설부 서편 궁지 발굴조사	1992. 6. 15.~8. 14.	경북대학교 박물관
		『華山 麟角寺』 1993
사역확인 시굴조사	1998. 2. 18~4. 12.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華山 인각사 사역확인 시굴조사 보고서』 1999
인각사지 종합정비계획 지표조사	2000. 9. 1.~2001. 6. 27.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麟角寺-인각사지 종합정비계획 지표조사보고서-』 2001
사역확인 시굴조사	2002. 4. 4.~4. 29.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麟角寺-군위 화산 인각사 사역확인 시굴조사보고서』 2004
군위 인각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2차)	2004.11.4.~2005. 4.17.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麟角寺-軍威麟角寺 2·3·4차 발굴조사보고서』 2010
군위 인각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3차)	2005.11.21~2006. 6.9.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麟角寺-軍威麟角寺 2·3·4차 발굴조사보고서』 2010
군위 인각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4차)	2007.10.1~2008. 4.27.	(재)불교문화재연구소
		『麟角寺-軍威麟角寺 2·3·4차 발굴조사보고서』 2010
군위 인각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5차)	2008.10.16~2009.11.17.	(재)불교문화재연구소



도 22. 인각사 출토 청자 위의 묵서명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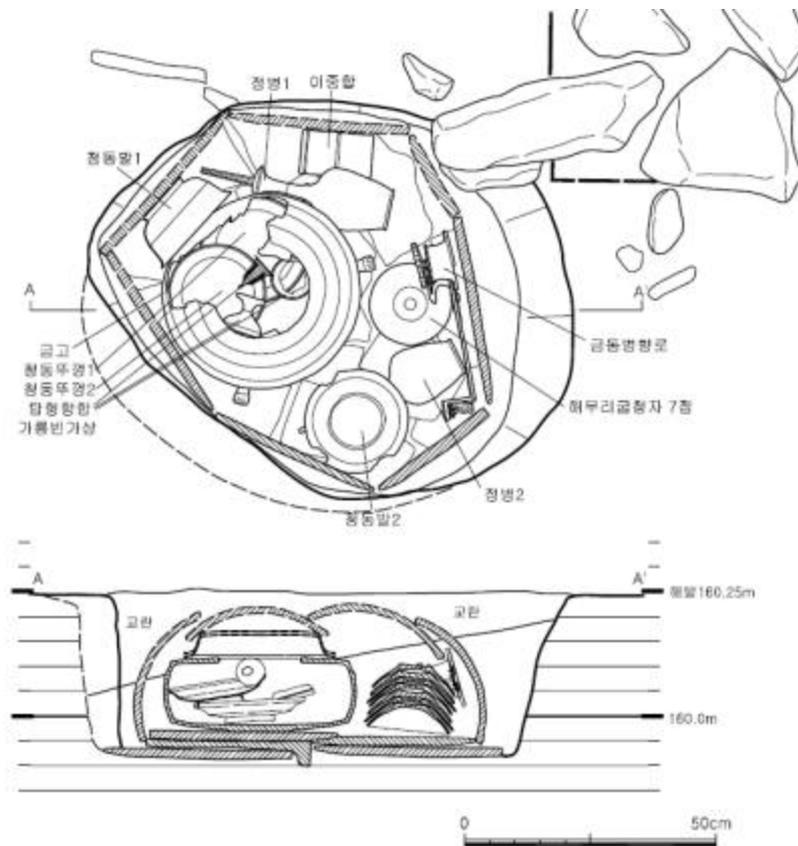
한편, 군위 인각사 출토 일괄 불교 금속공예품 중에는 명문을 가진 예가 청동발 1점에서만 발견되었으나, 함께 출토된 청자 중에는 묵서명을 가진 예가 확인되기도 했다. 아쉽게도 금속공예품의 명문은 알게 새겨진 글자 1개 뿐이며(도 15), 청자의 묵서명은 종이에 씌여진 명문이 청자 위에 늘어붙은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22), 글자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42) 표 1은 인각사 제 5차 보고서인 佛敎文化財硏究所, 2011, 위의 책, p. 26에서 전재.

○ 기 타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품 일괄 유물은 2008년 군위 인각사 5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1호 건물지의 남쪽이자 2호 건물지의 서쪽에 자리한 방형집석유구(도 23의 초록색 방형)의 북서쪽 모서리에서 일괄품으로 출토되었다(도 23의 붉은색 원형).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이 방형집석유구는 통일신라시대의 탑지와 비슷한 구조물이라고 하며, 유물들이 발견된 공간은 그 유구의 모퉁이 부분에 기와편과 암막새를 이용하여 바닥과 벽체, 그리고 덮개를 설치한 곳이었다(도 24, 25). 이 방형집석유구는 발굴 당시에는 승탑지로 추정되었으나, 최근에는 현재 극락전 앞에 서 있는 삼층석탑이 원래 서 있었던 곳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유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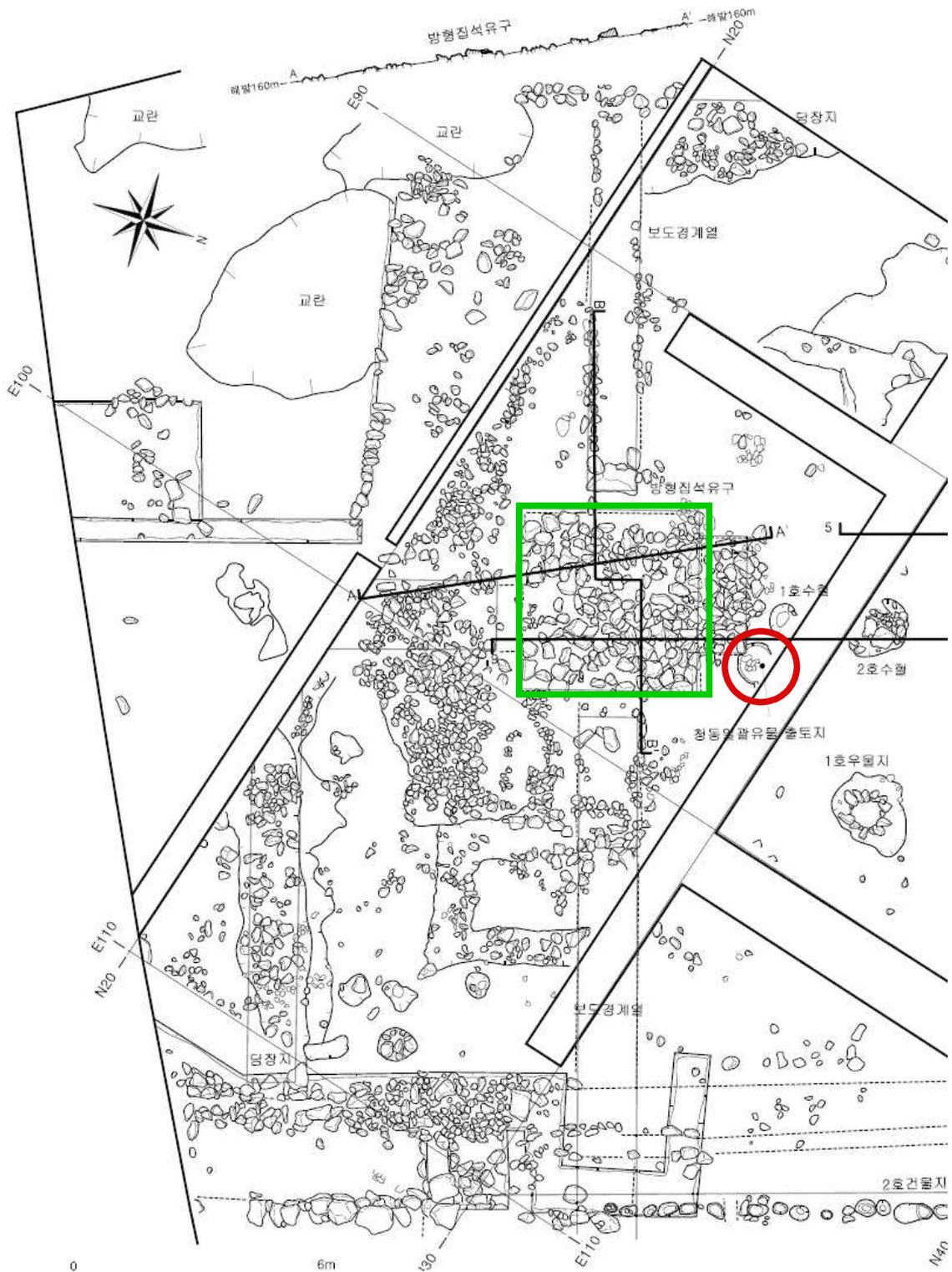
도 24. 인각사 공양구 일괄품 출토 상태. 유물 배치도. 인각사 5차 보고서, p. 244, 도 127을 전재.

발굴보고서 및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일단 탑지로 추정되는 곳의 인근에 기와장으로 마련한 특별한 공간에 불교 의례용 공예품들이 한꺼번에 봉안되어 있었으므로, 승탑지에 봉안된 유물들로 알려져 왔다. 발견 당시 상태를 보면, 기와장으로 마련한 공간 가운데에는 청동금고를 두었고, 그 주위에 청동정병과 청동발,



청동수반, 청자 일괄 등이 놓여 있었다. 청동금고 안에는 청동탑형뉴합과 청동접시 2점, 금동가릉빈가상 등이 들어 있었다.

도 25. 인각사 공양구 일괄품 출토 상태.



도 23.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품의 출토 위치. 인각사 5차 보고서, p. 63, 도면 16 전제.

지금까지 이 유물들은 통일신라시대 승탑지의 사리장엄구로 알려져 왔는데,⁴³⁾ 최근에는 방형집석유구가 승탑지가 아니라 석탑지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일괄품들이 승탑의 사리장엄구였는지는 다소 불확실해졌다. 그러나 발굴 위치로 볼 때, 탑지와 관련된 사리장엄구, 혹은 공양구일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한편, 이와 유사하게 다양한 불교 금속공예품들을 한꺼번에 땅 속에 매납한 예들은 창녕 말흘리사지, 청주 사뇌사지, 홍천사지, 서울 영국사지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는데, 이중 일부 유적은 전란이나 사찰의 화재 등으로 갑자기 기물들을 매납하고 퇴거한 유구인 “퇴장(退藏)” 유구로 보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일괄 유물 중에는 밀교 의례의 발전과 함께, 밀교 의례를 거행하기 위한 단(壇)을 세우기 위해서 거행하는 진단의례(鎭壇儀禮)와 관련되었거나, 민간에서 행하던 고사와 비슷하게 건물을 짓기 전에 땅을 위해 거행한 지진의례(地鎭儀禮)와 같은 독특한 불교 의례의 일환으로 거행되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지진의례나 진단의례는 건물을 짓기 전에 행하는 의례이며, 퇴장은 건물지의 멸망과 관련된 행위로서, 개념적으로는 그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제 유구나 유물에서는 그 차이를 구별할만한 단서가 많지는 않다.

이상과 같이, 인각사 출토 불교 공양품 일괄 유물들의 성격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탑지의 사리공양구일 가능성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퇴장유구나 지진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유사 사례들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43) 최응천, 2010, 「軍威麟角寺출토 佛教金屬工藝品の 性格과 意義」, 『先史와 古代』 32, 2010 참조.



○ 내용 및 특징

인각사는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번지에 위치한 사찰로, 현재 대한 불교조계종 10교구 본사 은혜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특히 인각사를 감고 도는 위천 변에 깎아 지듯 솟아오른 학소대의 비경과 함께 고려시대 普覺國師 一然 스님이 만년을 보내면서 『三國遺事』를 집필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인각사의 창건은 신라 원효·의상대사와 결부시키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물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학술조사에서 통일신라대의 귀면와당과 기와 편들이 寺域에서 발견되었고, 미륵당에는 통일신라 후반으로 편년되는 불상이 봉안되어 있어 늦어도 통일신라시대부터 사찰이 존재하였음을 추측이 가능하다.

고려의 국사를 지낸 일연스님의 하산소로서 역사적으로 사격이 높았던 인각사는 최근까지 가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극락전과 명부전, 강설루와 요사로 구성된 단출한 규모의 사찰이었다. 인각사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인 조사는 1991년 경북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고, 이 후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두차례에 걸쳐 대웅전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대한 불교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사와 여러 차례의 시·발굴을 조사를 통하여 인각사의 종합정비에 필요한 寺域과 寺格 찾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번에 신청된 금속유물과 도자유물 일괄은 2008년 10월부터 진행된 5차 조사 중 塔址 또는 승탑지로 추정되는 유구에서 발견된 것이며, 그동안 진행된 시·발굴 중 물적 자료로서는 최고의 성과품이라고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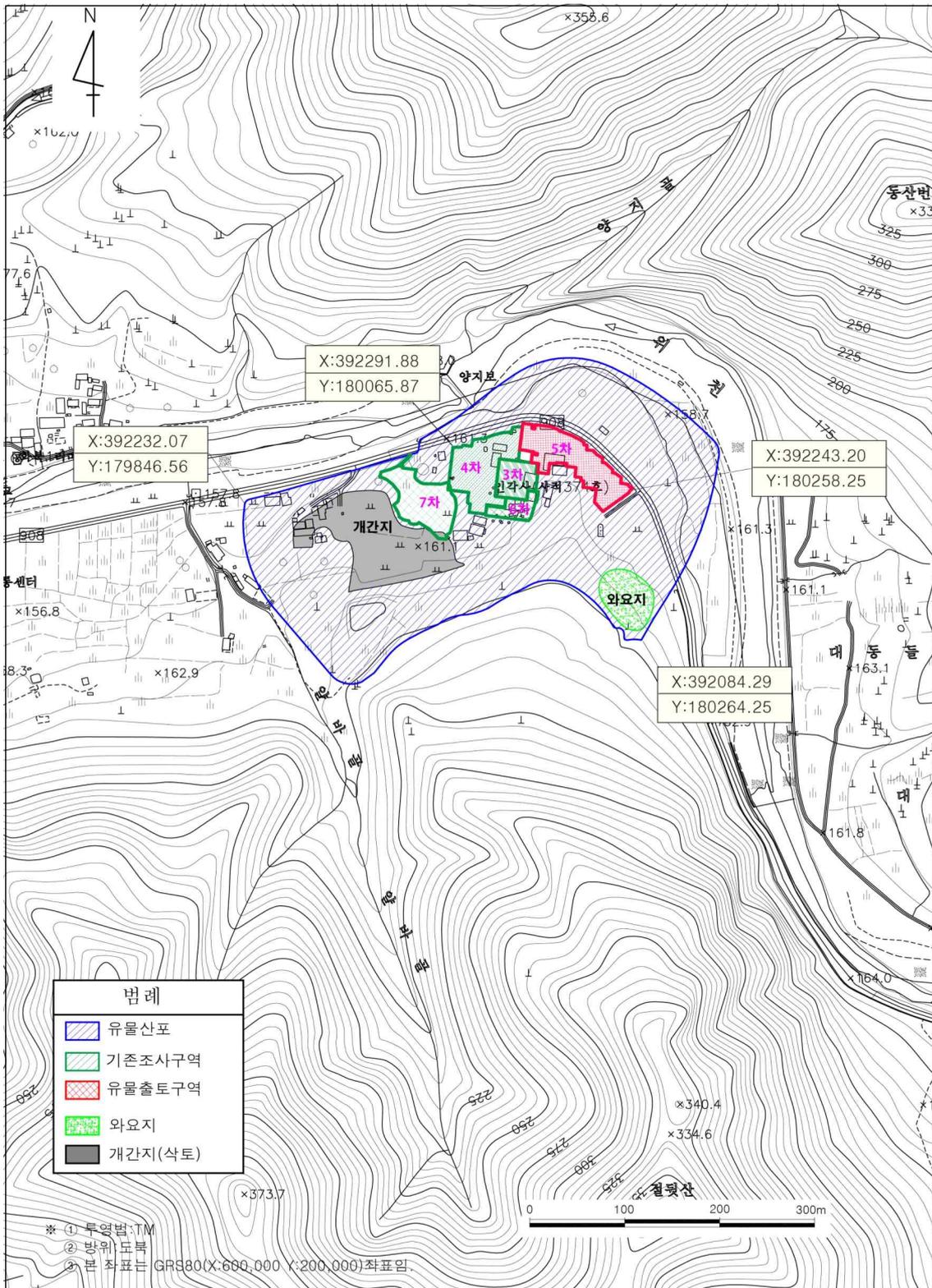
유물이 발견된 유구는 대형할석으로 地釘한 온통기초로, 이와 같은 형태의 기초는 석탑과 같이 비교적 비중이 크고 육중한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기초로 볼 수 있다. 일괄 유물은 매납시설 상부에 지정시설이 덮인 형태로 발견된 점으로 보아 유물을 먼저 매납하고 지정을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일괄유물의 의도적으로 매납된 것임을 의미한다.

매납 상태를 보면, 청동금고 안에 청동 탐형 향합, 청동 접시, 청동 가룻빈가상 등이 들어 있었고, 청동금고 바로 옆쪽에 청동원통형 합, 청동 발, 청동 정병 2점, 금동사자형병향로, 해무리굽 청자 등이 매납되어 있었다. 매납 방식은 원형으로 땅을 파고 바닥에 기와를 깔 다음 벽체에도 기와를 세워 쌓았으며, 그 속에 유물을 매납하고 다시 기와를 덮고 흙으로 마감하였다. 이러한 매납방식은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사례이며, 중국에서는 하남성 낙양시 용문 서산 북쪽 寶應寺 神會禪師(683-758) 僧塔 지하 石室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일괄유물이 발견된 바 있다. 신회선사 탑은 탑의 약 1m 지하에 석관으로 방형의 석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공

양구들을 매납한 형식이다. 석실 내에는 정병, 병향로, 향합, 동기 3종, 은기 1건, 도기 3건, 철기편 4건 등이 발견되었는데, 인각사지의 일괄유물의 종류와 매납방식이 거의 유사하다. 특히 신회선사탑의 석실의 석판 안쪽에 758년에 입적하여 765년에 세운 신회선사탑임을 밝히는 명문을 남기고 있어, 이들 공양품들의 하한 연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당대의 공예품 연구의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표 1. 인각사 발굴조사 연혁(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연번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구역
1	경북대학교 박물관	1991.11.25.~1991.12.24	요사채 신축예정지, 강설루 이전 예정지, 대웅전지 시굴조사 『華山 麟角寺』, 1993.
2	경북대학교 박물관	1992.06.15.~1992.08.14	대웅전지, 극락전과 명부전 주변, 탑 주변 마당, 대웅전과 강설루 사이, 현 강설루 서편 공지 발굴조사 『華山 麟角寺』, 1993.
3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1992.06.15.~1992.08.14	사역확인 시굴조사 『華山 인각사 사역확인 시굴조사』, 1999.
4	(재)불교문화재연구소 (前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0.09.01.~2001.06.27	인각사지 종합정비계획 지표조사 『麟角寺- 군위 인각사지 종합정비계획 지표조사 보고서』, 2001.
5	(재)불교문화재연구소 (前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2.04.04.~2002.04.29	사역확인 시굴조사 『麟角寺- 군위 화산 인각사 사역확인 시굴조사』, 2004.
6	(재)불교문화재연구소 (前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4.11.04.~2005.04.17	2차 발굴조사 해체된 극락전지 및 강설루지 발굴조사 『麟角寺-군위 인각사 2·3·4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0.
7	(재)불교문화재연구소 (前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5.11.21.~2006.06.08	3차 발굴조사 극락전지를 포함한 중심권역 발굴조사 『麟角寺-군위 인각사 2·3·4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0.
8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7.10.01.~2008.4.27	4차 발굴조사 사찰 진입권역 발굴조사 『麟角寺-군위 인각사 2·3·4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0.
9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8.10.17.~2009.11.17	5차 발굴조사 미륵당 주변권역 발굴조사(통일신라시대사역 1차) 『麟角寺-군위 인각사 5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1.
10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8.03.05.~2018.05.09	6차 발굴조사 국사전 및 명부전 권역 발굴조사 군위 인각사지 종합정비예정부지(6차)발굴조사 약보고서, 2018.5
11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8.10.23.~2018.10.25	7차 시굴조사 명부전 및 종무소 요사채 이권대상 성토지역 시굴조사 군위 인각사지(7차)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2018.10



군위 인각사 발굴조사 결과도(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1. 청동 북 내 발견 유물

① 청동 북

이 청동금고는 인각사지 출토 공양구의 외함으로 사용되었다. 뒷편에 일부 파손이 있고 구조상태도 약간 불량하다. 금고의 앞면은 막혀 있고 뒷면에는 구연이 도드라진 작은 공명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금구형 금고(金口形 金鼓)’이다. 전체 직경은 40cm, 폭 14.3cm이고, 뒷면에 공명구의 직경은 19.4cm이며, 금고를 거는 고리의 길이는 3.5cm이며, 귀모양으로 두 군데 남아 있다. 고 금고의 앞면은 3줄의 굵은 선을 이용하여 당좌구, 내구, 중구, 외구 4면으로 구획하였다. 특히, 당좌구에는 36개의 끝이 뾰족한 펜촉모양의 연화문을 도드라지게 새겨 놓았다. 중구에는 얇은 선으로 당초문을 시문하여 장식적 요소를 더하였다. 측면에는 원래 금고를 걸 수 있는 3개의 고리를 달려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재 중앙의 고리는 결실된 상태로 그 좌우에 2개의 고리만이 남아 있다. 고리의 형식은 뒷면에서 앞면 방향으로 뚫려 있는 일반적인 금고 걸이와 다르게 측면 방향으로 뚫려져 있으며, 그 형태도 사각형을 나타낸다. 특히 고리가 주먹 권 아이의 손모양을 하고 있어 특색이 있다. 금고의 뒷면은 2줄의 굵은 선을 이용하여 구획하였으며, 중앙에는 구연이 도드라진 공명구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크기가 작아 상대적으로 공명구가 좁아 보인다.

이 작품은 금고의 두께가 매우 두터우며, 당좌 부분에도 자방이나 당초문 등을 장식하지 않고 연화문만을 고부조로 새겨 놓아 이른 시기의 금고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이 작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기년명 금고로 알려져 있는 ‘함통 6년(865)명 금고’와 같이 늦어도 9세기 후반에는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② 청동 탑형 향합

청동 탑형 향합은 받침과 몸체, 그리고 탑형의 누가 달린 뚜껑이 달린 형태로 모두 별도 구조하여 리벳으로 연결하였다. 전체 높이 18cm이고, 향합과 굽의 직경은 8.5cm과 5.8cm이다. 향합의 가장 아래 부분인 받침은 상단에서 굽까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내려가 흡사 나팔꽃과 같은 형태를 보이며, 몸체는 타원형으로 상단에 2줄의 가는 음각선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탑형의 누는 탑 상륜부의 보륜과 같은 7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끝 부분에 보주를 장식하였다. 작품은 전체적으로 세장해진 기형이나 몸체의 음각선 표현, 그리고 상부 끝 부분에 보주 장식 등에서 중국의 신회선사탑(785년 조성) 지하 석실에서 발견된 청동 탑형 향합보다 정형화된 것으로 보여 그 제작 시기는 출토된 다른 공예품들과 같이 9세기 전반으로 여겨진다.

③ 금동 가룻빈가상

높이가 4.45cm가량의 소형 작품이다. 두 손으로 피리를 잡고 부는 형태로 묘사되었다. 얼굴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몸통에는 날개를 달고 있다. 날개는 별도로 주조하여 몸통과 축으로 연결하였다. 현재 왼쪽 날개가 결실되었다. 아래쪽에는 축이 달려 있어 원래는 어디에 부착했던 장엄물로 생각된다. 표면 곳곳에는 도금의 흔적이 관찰되므로, 원래는 금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가룻빈가가 공양구의 일부로 납입된 것은 이 유구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가령 쌍봉사 철감선사탑 등 나말여초기에 등장하는 여러 선사들의 승탑의 부조에서 가룻빈가가 장엄요소로 등장하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④ 청동 뚜껑 2점(지름 22cm / 지름 19cm)

청동뚜껑 2점은 청동금고 내에서 수습되었고, 원래는 금고 옆에서 발견된 청동발의 뚜껑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접시 같은 모양이며, 구연부에 일부 파손 흔적이 있지만 양호한 편이다.

2. '청동 북' 옆 발견 유물

① 금동 사자형 병향로

병향로는 손잡이가 달린 향로를 말하는데, 승려들이 각종 의식에서 직접 들고 사용하는 공양구(供養具)의 일종이다. 전체 길이는 40cm, 높이 10cm이고, 손잡이 부분에 장식된 사자의 높이는 7cm이다. 병향로는 가장 앞부분에 향을 담아 피우는 컵 모양의 노신, 그 사이에는 노신과 손잡이를 연결하는 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사자가 장식된 손잡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모두 별도로 주조하여 리벳으로 연결하였다. 병향로 노신의 받침대는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총 23개의 세장한 꽃잎으로 장식하였고, 그 위에 노신은 구연이 나팔처럼 벌어진 형태를 보인다. S자형 결구장식을 이용하여 받침대와 노신을 연결하였으며, 이를 다시 여의두 형태의 장식을 이용하여 손잡이 부분과 고정하였다. 노신과 손잡이를 연결하는 대는 양 옆에 각을 주어 도랑처럼 골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자가 장식된 손잡이는 끝부분을 L자형으로 꺾고 그곳에 당당하게 포즈를 취한 사자 한 마리를 장식하였는데, 사자는 꼬리를 곧추 세우며 양·북련의 연화대좌 위에 앉아 있다.

동아시아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금동사자형병향로의 예는 중국의 신희선사탑(785년 조성) 지하 석실에서 발견된 금동사자병향로이며, 일본의 경우에도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법륜사 헌납유물 가운데 금동사자병향로 2점을 헤이안시기인 9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

정되는 삼성리움미술관 소장 금동사자병향로가 1점 남아 있다.

인각사 출토 금동사자병향로는 균형 잡힌 외형과 세부 표현 및 장식이 중국과 일본의 작품보다 훨씬 더 정교하며, 사자의 표현은 8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주 안압지 출토 납석제 사자와 불국사 다보탑 석조사자상 등과 비교해보아도 조형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늦어도 9세기 전반에는 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② 청동 정병 2점

정병은 물병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승려의 여행 필수품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부처님 앞에 깨끗한 물을 바치는 공양구(供養具)로 주로 사용되었다. 총 2점이 출토되었는데, 하나는 전체높이 35cm, 몸체와 저부의 직경이 10.5cm과 7.5cm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전체높이 32cm 몸체와 저부의 직경이 9.5cm과 6.5cm이다. 인각사에서 출토된 정병은 크기의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낮은 굽을 갖추고, 몸체는 저부에 비해 어깨가 넓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형이 세장한 형태이다. 어깨의 상단에는 뚜껑을 여닫을 수 있는 주두를 부착하여 물을 따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긴 목에 둥근 테를 두르고 다시 가늘고 긴 8각의 침대가 날렵하게 솟아 있어 손으로 쉽게 쥘 수 있게 하였다. 인각사 출토 청동정병은 몸체가 둥글지 않고 어깨 부분의 주구도 매우 크고 굽으며 상단 부분에 침대 역시 가늘고 높게 솟아 있어 전체적으로 세장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정병의 형태는 8세기 중반에 제작된 석굴암 범천상이 들고 있는 정병이나 부여 부소산에서 출토된 9세기 정병과 유사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그 제작 시기는 늦어도 9세기 전반으로 여겨진다.

③ 청동 원통형 이중합

청동 원통형 합은 2개로 나누어진 몸체가 연결되어 2단을 이루도록 만들고 그 위에 납작한 뚜껑을 덮는 형식이다. 전체 높이는 14cm이고, 직경은 8.8cm이다. 몸체에는 가는 음각선이 반복적으로 돌려져 있는데, 이는 문양이 아니라 원통의 합을 제작할 때 틀을 반복해서 돌림으로써 외형 틀 안쪽 면에 생긴 주조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청동 원통형 합은 주로 고려시대 사리장엄구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10세기로 추정되는 김제 금산사 5층 석탑에서 발견된 청동 원통형 합과 997년 매납된 장명사탑 청동 원통형 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러한 예를 통해 청동 원통형 합은 사리를 담는 내사리기의 외사리합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인각사에서 청동 원통형 합이 부장용으로 새롭게 발견되면서 통일신라시대부터 이미 이러한 형식의 합이 제작되었으며, 그 용도도 사리용기보다는 향합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청동발 2점(길이 10.0cm, 구경 20.6cm, 저경 11.3cm, 굽 높이 1.2cm)

청동 금고 옆에서 발견되었다. 1점은 구연 일부에 약간 파손이 있을뿐 완전하고, 다른 한 점은 몸체가 반파되었다. 두 점은 바닥에는 외반한 낮은 굽을 갖추고 있으며, 몸통 중앙부분에는 날렵하게 날을 세운 1줄의 돌기 선을 돌렸고, 몸체의 측면을 돌아가며 녹로 성형에 의한 가는 음각선이 둘러져 있다. 구연은 밖으로 넓게 외반하였다. 반파한鉢의 밑면에는 ‘呑’자를 얇게 선각하였다.

⑤ 청자 해무리굽 완 7점

청자 완은 다른 불교공예품들과 달리 중국에서 직수입되어 사용되다가 매납된 것으로 보인다. 청자는 전형적인 중국 월주요 해무리굽 청자완으로 모두 7점이 출토되었다. 전체 높이는 5.4cm이고, 구경 및 굽의 직경은 17cm과 6.6cm이다. 인각사 출토 청자완은 유약의 색깔과 기형이 중국계 비색청자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의 작품으로 보이며, 경주 황룡사지 및 익산 미륵사지 유적에서 출토된 9세기 월주요 청자완과도 유사한 특징을 갖추고 있어 동반 유물의 연대 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인각사-군위 인각사 5차 발굴조사보고서』, 군위군·(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1.
최응천, 「군위 인각사 출토 불교 금속공예품의 성격과 의의」, 『선사와 고대』 32, 한국고대사학회, 2010.

이용진, 「통일신라시대 獅子鎭柄香爐 연구」, 『신라사학보』 19, 신라사학회, 2010.
최명지, 「군위 인각사 탐지출토 중국청자의 성격」, 『인문과학연구』 21,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도자】



○ 현 상 및 특징

청자완은 군위 인각사 5차 발굴시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방형집석 유구의 북서쪽 우측에서 청동금고 등 다량의 금속유물과 함께 출토되었다. 청자완은 굽 형식에 의해 옥벽저(玉璧底)굽과 옥환저(玉環底)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옥벽저굽 청자완은 5점 중 4점은 일부 결손이 있으나 완형에 가까우며 1점은 파손이 심하여 접착 복원하였다. 옥환저굽 청자완 1점은 완형이나 다른 1점은 접합하였다.

기형은 두 형식 모두 샷갓형으로 거의 비슷한 외형을 보이고 있다. 외측선은 낮은 굽에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거의 사선으로 뻗어 구연에 이르고 있다. 유색은

어두운 녹색으로 불투명하다. 내저는 넓고 평편하며 접지면은 안쪽으로 경사지게 깎았다. 접지면에는 유를 훑어내고 내화토 비짐눈을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있다. 옥벽저굽 완 1점에는 목서가 일부 남아있는데 내용은 알 수 없다.

□

○ 현 상

방형 집석유구내에서 함께 출토되었다고 알려진 7점의 중국제 청자완. 대부분 측선이 사선으로 벌어지진 이른바 두립형(頭笠形) 완이다.

○ 내용 및 특징

유색은 대개 올리브 그린색을 띠며 각자 짙은 녹색에서 황녹색등 차이를 보인다. 7점 모두 높이는 5.2~6.2cm이며, 구경은 16.2~17.7cm, 굽지름 5.8~6.9cm 이내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크기는 비슷하다. 다만 굽 접지면 넓이에서 2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일련번호 (1), (2), (5), (6), (7)의 경우 약 2.0~2.5cm내외이며, (3),(4) 경우는 굽접지면 너비가 1.3cm로 좁은 편이다. 굳이 이들을 나누자면 前者는 ‘옥벽저’계통이고, 後者는 ‘옥환저(玉環底)계통이라 할 수 있다.

일부 결실이 있고 또 일부에는 포개었을 때 접착된 유기물(?) 흔적들이 있다. 또 목서(?)로 보이는 글자들도 겹치고 침습되어 표면에 남아 있다. 한 두점을 제외하면 굽 안바닥과 접지면까지 시유한 후 고운 내화토를 받쳐 구웠으며, 완의 내저에는 圓刻이 없이 완만한 내면을 이루고 있어 전형적인 당~오대 중국 남방(절강, 강소 등) 지역 스타일의 청자완들이다. 또 내면에 다른 기물을 포개구운 흔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고급으로 변조된 기물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자기를 처음으로 제작하는 10세기 전반이래로 이같이 굽이 넓고 접지면도 넓은 완들을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서 한국 초기청자의 제작 시기보다는 앞서는 양식으로 파악된다. 현전하는 중국 유물가운데 비교할 만한 것으로는 현재 절강성 박물관소장의 唐의 ‘貞元十年(794)’명이 있는 청자완으로 유색이나 굽형식 등이 인각사지 출토완들과 유사하다. 한편, 五代의 天福4年(939) 馬氏皇后 康陵출토 청자완이 있으나 크기와 높이, 굽지름 등에서 작으며 특히 굽 접지면 너비가 좁은 후기 스타일로서 국내의 10세기 초기청자요장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유사하다. 실제 가마터 출토품들의 시간적 변화과정과 비교하더라도 이들 청자완은 8세기말부터 10세기 전반 사이에 제작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 연대를 알 수 있는 중국 청자완

			
貞元十年(794)'명 청자완	굽	天福4年(939) 馬氏皇后 康陵송토 청자완	굽

* 청자완 사진

		
(1)-내면	(1)-뒷면	(1)-굽
		
(2)-내면	(2)-뒷면	
		
(3)-내면	(3)-뒷면	(3)-내면부확대

		
(4)-내면	(4)-뒷면	(4)-뒷면
		
(5)-내면	(5)-뒷면	
		
(6)-내면	(6)-뒷면	(6)-굽
		
(7)-내면	(7)-뒷면	(7)-내면글자

□

○ 현 상

청자완(靑磁碗) 7점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 方形集石遺構(돌무더기, 路址) 북서쪽 우측에서 靑銅淨瓶(2점), 靑銅金鼓(1점), 靑銅圓形二重盒(1점), 金銅柄香爐(1점), 靑銅塔紐蓋香垵(1점), 迦陵頻伽像(1점)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청자완 7점은 전형적인 당(唐) 월주요(越州窯) 청자완으로 굽 접지면의 폭이 넓은 옥벽저형(玉壁底形) 5점, 굽 접지면의 폭이 옥벽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옥환저형(玉環底形) 2점으로 구분된다. 옥벽저형 청자완 5점 중 1점은 완형(完形)이며 4점은 구연(口緣) 1곳~3곳의 극히 일부분이 결실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옥환저형 청자완 2점 중 1점은 완형이며 1점은 외면의 굽과 그 주변 일부가 많이 파손되어 있으며 일부 결실된 상태이다. 옥벽저형 청자완과 옥환저형 청자완의 내·외면에 이물질이 붙어 있는 것은 오랫동안 청자완이 포개져있는 상태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특 징

□ 규격 <표 1 참조>

옥벽저형 청자완 5점은 높이 5.2~6.2cm, 구경(口徑) 16.1~17.2cm, 저경(底徑) 5.2~6.2cm, 굽 접지면의 폭 1.8~2.4cm 이다. 옥환저형 청자완 2점은 높이 5.8~6.0cm, 구경(口徑) 16.7~17.7cm, 저경(底徑) 5.8~6.5cm, 굽 접지면의 폭 1.3cm 이다. 옥벽저형 청자완이 옥환저형 청자완에 비해 굽 접지면의 폭이 넓음을 알 수 있다.

<표 1> 麟角寺 方形集石遺構 出土 靑磁碗 규격

번호	유물명	굽형식	높이 (cm)	口徑 (cm)	底徑 (cm)	굽 접지면 폭(cm)	비고
1	靑磁碗	玉壁底	6.2	16.5	6.8	2.3	
2	靑磁碗	玉壁底	5.6	16.1~16.5	6.5	2.0~2.2	
3	靑磁碗	玉壁底	5.2	16.2~16.4	6.6~6.8	2.1~2.2	
4	靑磁碗	玉壁底	5.6	16.5~16.9	6.8~6.9	1.8~1.9	
5	靑磁碗	玉壁底	5.9	16.7~17.2	6.8	2.3~2.4	내측 묵서명
6	靑磁碗	玉環底	6.0	16.7	5.8~5.9	1.3	
7	靑磁碗	玉環底	5.8	17.5~17.7	6.3~6.5	1.3	

□ 기형(器形) · 유색(釉色) · 내저원각(內底圓刻) · 굽받침 <표 2 참조>

기형은 굽에서 직사선으로 벌어져 구연(口緣)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유색은 진한 녹색을 띄고 있다. 그릇의 안쪽 바닥에는 원각이 없으며 굽 접지면에는 백색내화토빛음을 받쳤다. 이와 같은 특징은 옥벽저형 청자완과 옥환저형 청자완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며 국내 유적지에서도 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옥벽저형 청자완이 출토된 곳은 慶州 雁鴨池, 慶州 東川洞, 慶州 拜里 등이며 옥환저형 청자완이 출토된 곳은 夫餘 扶蘇山, 保寧 聖住寺址, 將島 淸海鎮 등이 있다.

<표 2> 인각사 방형집석유구 출토 청자완 관련 사진자료

		
측면	내면	외면
인각사 옥벽저형 청자완		
		
측면	내면	외면
인각사 옥환저형 청자완		
		
경주 안압지	경주 동천동	경주 배리
유적지 출토 옥벽저형 청자완		
		
부여 부소산	보령 성주사지	장도 청해진
유적지 출토 옥환저형 청자완		

○ 참고문헌

국립대구박물관, 『우리문화속의 中國 陶磁器』 기획특별전, 2004.

최응천, 「軍威 麟角寺 출토 佛教 金屬工藝品の 性格과 意義」, 『선사와 고대』 32권, 한국고대학회, 2010.

(財)佛教文化財研究所·군위군, 『麟角寺-軍威 麟角寺 5차 발굴조사보고서-』, 2011.

방병선, 『중국도자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2

최명지, 「軍威 麟角寺 塔址出土 中國靑磁의 性格」, 『인문과학연구』 21집,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16.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卷五~六)

가. 검토사항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10.1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8.9.11)를 실시하고 2018년 제10차 위원회에 검토사항으로 부의하였으나, 판본 재조사 사유로 보류됨.
- 이에, 관계전문가 보완조사를 실시하고('19.1.11) 본 위원회에 다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卷五~六)
- 소유자(관리자)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 량 : 2종 4권 4책(고려본: 2권 2책/ 조선본: 2권 2책)
- 규 격 : 고려본 : 전체 23.9×15.3cm 내외(반곽: 19.6×12.3cm)
조선본 : 전체 23.9×15.3cm 내외(반곽: 19.6×12.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
- 조성연대 : 고려본: 고려 말 추정/ 조선본: 조선 초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고려본’ 및 ‘조선본’ 모두 지정 가치 있음)

조사대상본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 권5~6 2종에 대한 것은 전 소장자가 구본의 경우 고려 서적원의 금속활자로 간행하였고 신본의 경우 조선시대에 들어와 간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보다 앞선 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계의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론도 있다. 또한 이 자료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간행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본이 금속활자본이며 현존 계미자본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으며 소위 구본과 신본 두 인출물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려시대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의 인출기록이나 비교 분석할 대조군이 확인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고려시대 인쇄에 대한 전 소장자의 주장이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조사대상본이 고려말 서적원의 금속활자와 조선초 계미자 주조에 대한 관련성을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는 자료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종합하여 보면 본 조사대상본은 활자나 지질의 상태로 보아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이르는 시기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보이나 현 상황에서는 그 내력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본의 희귀성과 추정되는 간행시기 등으로 인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선본’만 지정 가치 있음)

조왕기 외 3인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2종 4책의 『신간류편역거삼장문선대책』은 출간시기와 판종이 상이한 문헌이므로 이른바 구본 1종 2책과, 신본 1종 2책으로 분리하여 심의함이 온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이른바 ‘구본’에 대하여 고 조병순 선생은 고려서적원에서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헌기록이나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 판본을 제시하지 않아 학계의 공인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 책의 형태적 특징이나 자형(字形)등으로 미루어 현존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고려시대에 관한 문헌에서 『삼장문선』을 출간하였다는 기록과 고려서적원 활자로 인출된 다른 문헌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구본의 판종이나 인출연대 등에 대한 보다 치밀한 연구가 이루어진 뒤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온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구본1종2책: 지정보류)

‘신본’의 경우 보자(補字)가 혼입되었으나 조선 초기에 간행된 계미자본으로 밝

혀졌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금속인쇄사의 초기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헌일 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 과시(科試)대비용 교재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조사자는 이 서적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 (‘고려본’ 및 ‘조선본’ 모두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은 5~6의 동일 권차(卷次)를 지닌 2종의 다른 판본으로 舊 소장자의 주장에 따라 2종의 명칭을 각각 舊本, 新本으로 하여, 구분은 고려 서적원에서 인출한 금속활자본으로 추정하고 있고, 신본은 조선초에 인출한 계미중자본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구분에 대해서 고려 서적원에서 금속활자로 인출한 서적이라는 견해는 고려 금속활자를 조선에 들어와 계속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조사본과 관련하여 인출 기록이나 비교 분석할 직접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또한 이에 대한 학계의 검증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할 때, 조사대상본이 금속활자본이며 현존 계미자본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조사본은 활자나 지질의 상태로 보아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이르는 시기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해당 판본의 희귀성을 고려할 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연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고려본’ 및 ‘조선본’ 모두 지정 가치 있음)

『삼장문선』은 원 지정 1(1341)년 유인초의 서문을 수록해 간행한 원의 초간본이 고려에 전래되면서 보급되었다. 원의 제도를 본뜬 고려는 물론, 고려의 과거제도를 수용한 조선에서도 『삼장문선』이 과거수험서로 활용하기에 적합했으므로 조선에서 많이 열독된 것이다. 조선은 국가가 건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모범으로 삼을만한 과문의 답안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문작성에 대한 일종의 지침서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내용도 주자학적 세계관에 의거하여 작성된 답안지였기에 사상적 측면과도 부합한 것이다.

전래하는 판본을 토대로 추정하면 고려시대에는 『삼장문선』에 대한 기록과 전래본이 없으므로, 그 전래와 간행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른 판본으로 고려 충혜왕 2(1341)년 이후 고려가 원나라가 아닌 명나라로 과거 응시생을 파견하기 시작한 공민왕 19(1370)년 사이에 서적원활자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간본, 고려의 서적원활자에 보자를 넣어 조선 태종 3(1403)년부터 세종 2(1420)년 사이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활자본, 세종 3(1421)년부터 세종 16(1434)년 사이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자자본, 단종 2(1454)년 밀양에서 간행한 경자

자복각본 등이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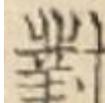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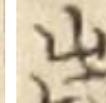
신청자의 선친인 성암(誠庵) 조병순(趙炳舜)은 수장의 2종 『삼장문선』을 고려 서적원에서 인출한 금속활자본은 구본, 선초에 인출한 계미증자본은 신본으로 칭하였다. 구본의 권5는 장1과 장27, 권6은 장36이 결락되었고, 신본 권5는 장1-9가 결락된 상태이다. 원표지가 결락된 상태에서 개장되었는데, 개장시 천두와 지각을 가로로 절단해 일부 손상되었고, 고정 등 다른 요소가 섞인 책지에 인출된 데다, 최적의 보관상태가 아니어서 열화된 상태이다.

구본과 신본에 있어 문자 배치를 위시해 몇 가지 차이가 있음은 이미 성암이 고증한 바 있다. 우선 구본의 특징은 판심서명은 ‘策’이고, 권차표기는 ‘六卷 壬集’이며, 이어 격행해서 편자는 ‘安成後學 劉仁初編輯’으로 표기되어 있다. 신본의 판심서명은 ‘文’이고, 권차표기는 ‘卷之六 任集’이며, 이어 격행해서 편자는 ‘成安後學 劉仁初編輯’으로 표기되어 있다. ‘任集’은 오자, ‘成安’은 도치된 것으로 보인다. 구본에는 원 황제에 대한 공경을 나타내 天朝·聖君·恩德·廟堂·聖天子·聖代 등을 대두하거나 공격을 두었으나, 신본에는 겨우 한 글자를 비우거나 무시되어 있다.

비어(批語)의 ‘초고(初考)’와 ‘복고(覆考)’란 용어를 통해서, 원대 향시의 채점은 2차를 행해서 공평을 기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비어는 채점관이 각 답안에 대해 비평한 것이다. 비어는 원대 과거의 구체적인 정황을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인재와 문장의 선발의 표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시대의 문풍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어 중요하다. 이런 원대의 과거 대비서가 고려시대에 간행되었다는 것은 고려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말 원대의 과거제도가 수용된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성암이 구본 『삼장문선』은 고려 서적원 활자로 인출된 것이라고 발표하자, ① 계미자 주성시 주석용 소자도 주성했다는 점, ② 자본이 된 『춘추좌씨전』 이외의 『시경』과 『서경』도 대조해야 한다는 점, ③ 3종의 자본은 목판본이므로 동일 글자체라 하더라도 크기가 서로 꼭 같지 않다는 점, ④ 동활자를 두고 목활자를 사용한 점, ⑤ 피휘자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점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동일 서적을 자본으로 대·중·소자를 주성했다면, 대자나 중소자의 자형이 같아야 한다. 그러나 <표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자와 중자의 형태가 완전히 이질적인 활자도 상당수이다.

〈표 1. 계미자 대자본에 나오는 대자와 중자의 자형〉						
대자						
	+	+	+	+	+	宋
	17280310	17120702	17580705	17460710	17590117	0702b0519
중자						
	+	+	+	宋		+17070110
	17280514	17190201	17310206	0702b0417	+0703b0508	
출처를 밝히다 보니 글자가 커졌으나, 형태만은 볼 수 있다. ‘+’은 『십일사찬 고금통요』, ‘宋’은 『송조표전총류』를 의미한다. 이어 권차, 장차, 행차, 자차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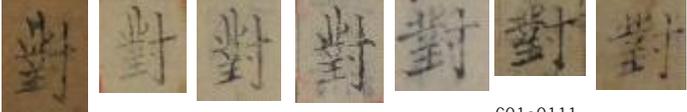
②③ 자본이 된 『시경』과 『서경』의 등재본의 서사자가 동일인이고, 동일자체로 필사했다면 서로 어울릴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서로 이질적이지 않았으므로 3종 서책을 자본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로 갑인자를 주성할 때 경언에 수장되어 있던 『효순사실(孝順事實)』·『위선음졸(爲善陰鷲)』·『논어』를 자본으로 하고, 부족한 글자는 진양대군(晉陽大君)이 써서 보충하였다. 진양대군이 쓴 글자가 있어도 갑인자 인본에서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미자의 대자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겠다.

④ 동활자를 두고도 목활자를 사용한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지만 정리자가 있는데도 근접한 기간에 생생자를 조성한 실례가 있기도 하다.

⑤ 피휘자의 문제는 일본 정가당문고(靜嘉堂文庫) 수장의 원나라 판본 『어시책(御試策)』과 대조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계미자의 모양이 크고 가지런하지 못하고, 또 인쇄하는 도중 자주 동요해 능률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년간에 새로 경자자(庚子字)와 갑인자(甲寅字)를 주조했다는 것은 통설이었다. 그러나 <표2>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에 있어서는 대자가 가지런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중자의 크기가 제일(齊一)하지 않으므로, 계미자의 모양이 가지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 것이었다. 이런 글자가 비일비재한 상태이다. 계미중자본의 경우 대개는 11행19자이지만, 행당 18자에서 21자까지 배자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보자가 섞이면서 자형의 변화도 한 몫을 한 것

이다. 몇 글자 예를 들면 麗과 麗, 眞과 眞, 습과 令·수, 凶·凶과 凶, 塩과 塩·鹽, 惡과 惡, 土와 土 등 상당히 많다.

<표2. 중자 가운데 서체가 동일하지 않는 글자>	
三 (麗)	 508b0408 512a0718 514b1018 514b0304 525a0418 622a0804
三 (鮮)	 512a0319 514b0602 514a0907 524b0702 526b0903 601a0111 622a1117
陶	 105a0907 205b0305 210a0407
洞	 111a1108 206b0903 210a0508
四	 208a0712 316a1105
출처를 밝히다 보니 글자가 커졌으나, 형태만은 볼 수 있다. ‘三(麗)’는 구본 『삼장문선』, ‘三(鮮)’은 신본 『삼장문선』, ‘陶’는 『도은선생시집』, ‘洞’은 『동림조담』, ‘四’는 『사시찬요』를 의미한다. 이어 권차, 장차, 행차, 자차의 순이다.	

또 고려할 요소는 재미자가 사용된 기간이다. 재미자는 태종 3(1403)년 주조하여 세종 2(1420)년 경자자를 주조할 때까지는 오로지 사용되었다. 그 기간은 17년, 경자자본 서문에 사용된 경우도 있어 세종 16(1434)년 갑인자 주조할 때까지 사용되었다고 하여도 도합 30년 남짓이다. 조선시대에는 합금술과 활자 주조술은 상당히 발전한 상태였다. 금속활자는 17년간 또는 30년간 사용해서는 개주하거나 보주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갑인자는 세종 16(1434)년 주조하였는데, 활자가 미려하여 개주·보주하면서 조선말까지 사용되었다. 초주갑인자를 개주하거나 보주한 최초의 기록은 중종 10(1515)년 11월4일 병술에 보이고 있다. 갑인자 주성 초기인 세종 20(1438)년 간행한 『당유선생집(唐柳先生集)』과 갑인자 주성 후 40여년 경과한 시점인 성종(1470-1494)년간에 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갑인자본 『당

유선생집』의 마모도를 비교하면, 재미중자의 경우 재미자와 동시에 주성되었다는 사실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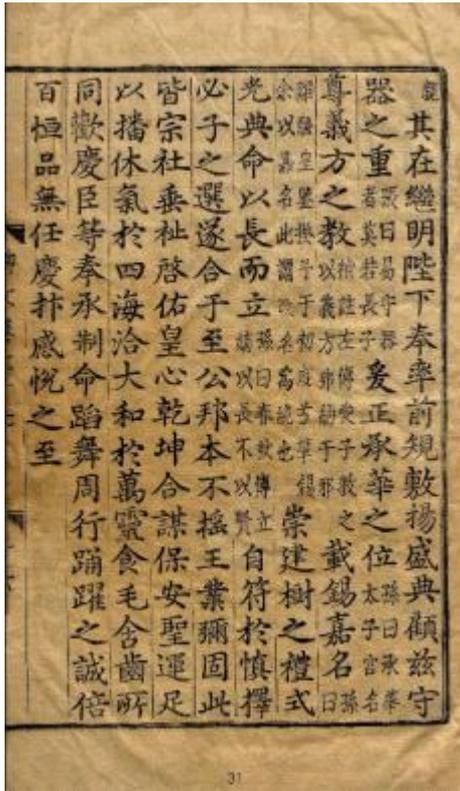


그림 347 唐柳先生集. 세종20년 간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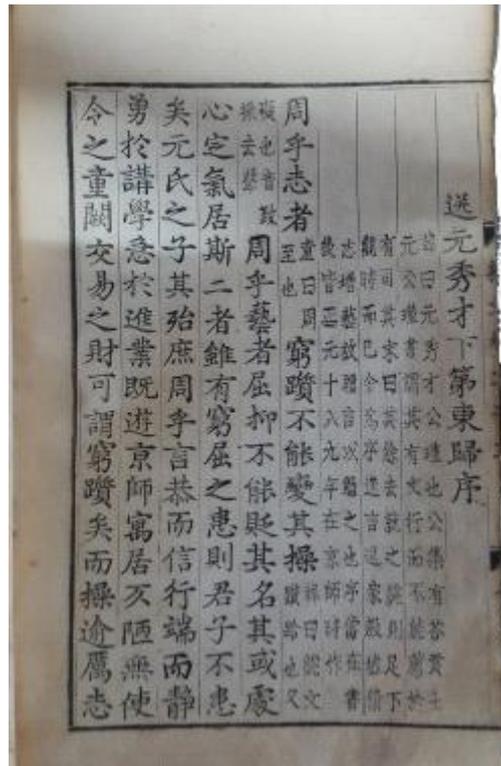


그림 348 唐柳先生集. 성종년간 간본.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려 서적원의 금속활자를 조선의 서적원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본은 고려 서적원에서 금속활자로 인출한 서적인데, 고려말 이미 마멸된 활자가 많아 보자가 상당수 보이고 있다. 신본은 조선 서적원에서 전승된 고려 서적원의 활자를 근간으로 하여 상당수의 보자를 더해 인출한 조선초의 간본이다. 『삼장문선』 신구본은 고려말과 조선초의 금속활자의 전승에 대한 연구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본서는 원대에 시행된 과시에서의 답안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문학 또는 사회, 정치방면의 연구자료로서도 가치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들 서적은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 보완조사자 검토의견

○ (‘고려본’ 및 ‘조선본’ 모두 지정 가치 있음)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2종 4책은 高麗(舊)本과 朝鮮(新)本の 2종으로 그 版種에 있어 (1) ‘癸未字 계열의 同版’과 ‘高麗(舊)本과 朝鮮(新)本の 異版’의 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근년에 들어 학자들간에는 점차 異版의 견해에 동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2종 4책은 異種版으로 판단하든 아니면 癸未字 계열의 同版으로 판단하든, 동일 권차의 2종류의 판본이 유일하게 전하는 늦어도 麗末鮮初의 金屬活字本임에 틀림이 없으며 2종 모두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도 부합되고 있다.

따라서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은 活字의 종류나 版本의 新舊와 관계없이 2종 모두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조선 초기의 癸未字·庚子字·甲寅字 등의 금속활자본은 모두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연구·보존·관리되고 있다.

○ (‘고려본’ 및 ‘조선본’ 모두 지정 가치 있음)

<지정 가치>

조사대상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2종은 1341년 원나라에서 과거 수험서로 편집한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 72권을 고려말기~조선초기 서적원자(書籍院字) 및 주자소(鑄字所) 계미자(癸未字)로 각각 찍어 만든 금속활자본으로 진단되고 있다. 영본(零本)이며, 표지의 개장과 함께 고려본(구본) 권5·6 및 조선본 권5의 일부 장차가 탈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찍은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정보도 남아있지 않고 고려본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비교지표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연구자들 사이에는 고려본과 조선본을 조선초기의 금속활자본(계미자본)이라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조사대상의 2종 판본은 조성시기에서 연구자들의 다른 견해에도 불구하고 조선초기 이전의 판본으로 진단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현전하는 고려말기~조선초기 우리나라 조성의 금속활자본으로 진단할 수 있는 등 역사·문화적인 희소성과 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2종의 판본은 상호 비교·검토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학술적 가치도 가진다. 아울러 판본 조성 당시의 현실정치철학 및 역사인식과 함께 출판인쇄문화의 실체와 역량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도 담고 있다.

때문에 조사대상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2종을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근거 기준>

조사대상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2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본의 종류가 현재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 그러면서 고려말기~조선 초기 우리나라에서 조성한 금속활자본으로 유일한 자료적 희소성을 가지며, 조성 당시의 현실정치철학 및 역사인식과 함께 출판인쇄문화의 실체와 역량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도 담고 있는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더구나 조선초기의 금속활자인 계미자(癸未字) 등으로 찍어 만든 상당수의 기록유산이 이미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연구·보존·관리되고 있는 상태이다.

때문에 조사대상본을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하여 역사·문화적인 희소성과 가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서지목록기술 * 목록작성 기준 : 한국목록규칙 제4판, 한국도서관협회, 2003

* 舊 소장자의 주장에 따라 2종의 명칭을 각각 舊本, 新本으로 하여 정리함.

<구본:고려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壬集 卷5-6 / 劉霖(元) 編 ; 劉仁初(元) 類編. -- 金屬活字本. -- [發行地不明] : [發行者不明], [高麗末-朝鮮初].

2卷2冊(零本) : 上下單邊 左右雙邊 19.8 × 12.2 cm. 有界, 11行20字.

上下內向黑魚尾 ; 23.9 × 15.3 cm.

版心題 : 策

楮紙

線裝

배접후 크기 26.7 × 16.7 cm

권5 2-26장, 권6 1-34장

11행17-21字

원표지 없음

<신본:조선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任集 卷5-6 / 劉霖(元) 編 ; 劉仁初(元) 類編.-- 金屬活字本. -- [發行地不明] : [發行者不明], [高麗末-朝鮮初].

2卷2冊(零本) : 上下單邊 左右單邊 19.6 × 12.3 cm. 有界, 11行19字.

上下內向黑魚尾 ; 23.9 × 15.3 cm.

版心題 : 文

楮紙

線裝

배접후 크기 27.0 × 15.1 cm

권5 10-26장, 권6 1-35장

11행17-21字

원표지 없음

○ 내용 및 특징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은 원나라때 사람으로 추정되는 유인초(劉仁初)가 원에서 시행한 鄉試·會試에서 입격한 대책문(對策文)들을 모아 편집한 것을 간행한 것이다. 유인초에 대한것은 ‘安成後學 劉仁初 輯’이라는 기록과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에 수록된 對策文들의 저작 시기 등을 통해 그가 길주(吉州) 안성현(安成縣) 출신으로 元代 후반기에 활동했던 인물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이력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이 자료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간행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8권으로 된 규장각 소장본(古 3431-16)의 목차에는 수록된 대책문의 수, 시행된 과거의 종류와 시기 등이 기록되어 있다. 우선 권1에는 1314년 鄉試 7편, 1315년 會試 3편, 권2에는 1317년 鄉試 6편, 1318년 會試 1편, 권3에는 1320년 鄉試 3편, 1321년 會試 4편, 권4에는 1323년 鄉試 3편, 1324년 會試 2편, 권5에는 1326년 鄉試 3편, 1327년 會試 3편, 권6에는 1329년 鄉試 6편, 1330년 會試 2편, 권7에는 1332년 鄉試 3편, 1333년 會試 2편, 권8에는 1335년 鄉試 5편 등이다. 또한 일본 정가당문고(靜嘉堂文庫)에 지정 4(1344)년 원말 건안(建安)의 우씨(虞氏) 무본당(務本堂)과 여씨(余氏) 근덕당(勤德堂)의 2종의 패기(牌記)가 있는 원대 간본 12책

본 완질이 소장되어 있다. 원간본에는 지정 1(1341)년에 유정이 쓴 서문이 있다. 본문의 기록 방식을 보면, 먼저 策問을 기록한 다음 그에 대한 對策文들을 차례로 수록하였다. 對策文을 기록할 때는 먼저 석차·성명·출신지 등을 기재한 다음 對策의 본문을 기록하였다.

조사대상본은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의 권5와 6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자료의 형태는 구본의 권5는 제1장과 제27장, 권6은 제35장이 결락되었고 권6 34장 후면의 일부는 보사(補寫)되었다. 신본의 권5는 제1-9장이 결락되어 있다. 또 원 표지는 결락된 상태에서 개장되었고, 개장할 때 상하를 가로로 절단하였고 사용된 배접지와 배접 방법에 대해서도 보존의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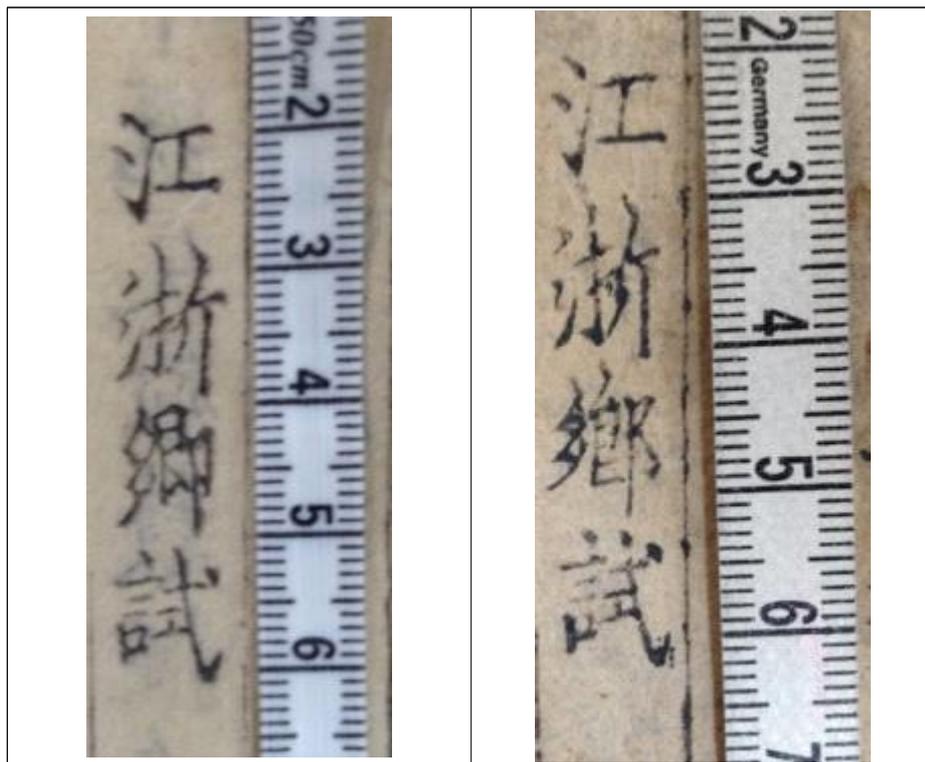
구본과 신본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전 소장자가 논문과 단행본을 통하여 밝힌바 있다 (趙炳淳, 「高麗 書籍院 活字에 대한 研究 ; 所謂 癸未小字 組版術을 중심으로」. 『季刊書誌學報』 18. (1996). 3-20. 趙炳舜, 高麗本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研究. (서울: 韓國書誌學會, 2006)

구본은 판심서명은 ‘策’이고, 권차표기는 ‘六卷 壬集’이며, 편자는 ‘安 成 後 學 劉 仁初 編輯’으로 표기되어 있다. 신본의 판심서명은 ‘文’이고, 권차표기는 ‘卷之六 任集’이며 편자는 ‘成安後學 劉 仁初 編輯’으로 표기되어 있다.

구본에는 天朝·聖君·恩德·廟堂·聖天子·聖代 등을 대두하거나 공격을 두어 원나라 황제에 대한 공경을 나타내고 있으나 신본에는 한 글자를 비우거나 혹은 공격을 두지 않았다. 전 소장자는 이것을 구본이 고려본이라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신본-구본 권6 권수제면 대조>



<신본-구본 활자대조>

□

○ 현 상

각기 다른 판본으로 인출된 동일권차 2종 4책의 고문헌이다. 주장자였던 고 조병순(趙炳舜)선생은 이 2종을 ‘구본’, ‘신본’으로 명명하고 구본은 고려서적원에서 인출한 금속활자본, 신본은 조선초기에 인출한 계미자본이라고 주장하였다. 구본의 권5는 장1, 장27, 권6은 장36이 결락되었고, 신본의 권5는 장1~9가 결락된 상태이다. 표지는 개장되었고, 개장시 책의 천두와 지각을 가로로 절단한 흔적이 있다. 책지 또한 습윤의 흔적이 남아 있고, 산화가 심한 편이다.

서지사항(구본)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 壬集 卷5-6 / 劉霖(元) 編, 劉仁初(元) 類編.

2冊(零本): 左右雙邊. 19.8 × 12.2cm. 有界, 11行17-21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3.9 × 15.3cm.(배접후 26.7 × 16.7cm.)

版心題 : 策.

楮紙.

線裝本.

서지사항(신본)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 任集 卷5-6 / 劉霖(元) 編, 劉仁初(元) 類編.

金屬活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鮮初]

2冊(零本): 左右單邊. 19.6 × 12.3cm. 有界, 11行17-21字. 內向黑魚尾. 23.9 × 15.3cm.(배접후 27.0 × 15.1cm.)

版心題 : 文.

楮紙.

線裝本.

○ 내용 및 특징

『신간류편역거삼장문선대책』은 중국 원나라 때 유정(劉貞)이 편찬한 『삼장문선』 중에서 대책(對策)을 모아 놓은 책이다. 유정의 『삼장문선』은 강절(江浙), 강서(江西), 호광(湖廣), 연남(燕南)의 향시(鄉試), 중서당회시(中書堂會試), 어시(御

試) 등 삼장(三場)의 답안을 모은 것으로 10집 72권이다. 조왕기 외 3인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책은 이 책의 5~6권이며, 판종이 상이한 2종 4책이다. 지정신청된 책의 권5에는 1326~1327년, 권6에는 1329~1330년 까지의 대책문이 수록되어 있다. 원나라에서 출간한 판본에는 1341년에 편자인 유정이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신청자의 선친인 고 조병순 선생은 이 두 판본을 구분과 신본으로 나누고 구분은 고려서적원에선 인출한 금속활자본, 신본은 선초에 인출한 계미자본이라고 주장하였다.

구분의 권5는 장1과 장27, 권6은 장36이 결락되었고, 신본 권5는 장1-9가 결락된 상태이다. 원표지가 결락된 상태에서 개장되었는데, 개장시 천두와 지각을 가로로 절단해 일부 손상되었고, 고정 등 다른 요소가 섞인 책지에 인출된 데다, 최적의 보관상태가 아니어서 열화된 상태이다.

구분과 신본에 있어 문자 배치를 위시해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구분의 특징은 판심서명은 ‘策’이고, 권차표기는 ‘六卷 壬集’이며, 이어 격행해서 편자는 ‘安成 後學 劉 仁初 編輯’으로 표기되어 있다. 신본의 판심서명은 ‘文’이고, 권차표기는 ‘卷之六 任集’이며, 이어 격행해서 편자는 ‘成安後學 劉 仁初 編輯’으로 표기되어 있다. ‘任集’은 오자, ‘成安’은 도치된 것으로 보인다. 구분에는 원 황제에 대한 공경을 나타내 天朝·聖君·恩德·廟堂·聖天子·聖代 등을 대두하거나 공격을 두었으나, 신본에는 겨우 한 글자를 비우거나 무시되어 있다.

이러한 두 판본의 특징을 근거로 고 조병순 선생은 구분의 간행 시기를 1341~1370년 사이로 보고 이 책이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학설은 학계에서 공인받지 못하였다. 신본의 경우 목리(木理) 나타나는 글자가 있고, 인출에 쓰인 저지의 표면이 거칠어(고정이나 정제되지 않은 섬유질이 보임) 국가소유 금속활자로 인출한 서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계미자본으로 판단할 만 한 제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선초에 인출된 계미자본으로 약간의 보자가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 문헌자료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 集部.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潘吉星, 중국, 한국, 유럽의 초기 금속활자 인쇄술 비교연구.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趙炳舜, 「癸未字 組版術의 殘影과 印出能力」. 『季刊書誌學報』 創刊號. (1990.6) 23-40.

趙炳舜, 「癸未字 字本에 對하여」. 『季刊書誌學報』 제7호. (1992.9) 3-34.

趙炳舜, 「癸未字 字數와 小字起源에 대한 考察」. 『季刊書誌學報』 제11호. (1993.12)

37-129.

趙炳淳, 「高麗 書籍院 活字에 대한 研究 ; 所謂 癸未小字 組版術을 중심으로」. 『季刊書誌學報』 18. (1996). 3-20.

趙炳舜, 高麗本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 研究. (서울: 韓國書誌學會, 2006)

千惠鳳, 「癸未字와 그印本」. 『古印刷文化』 제10호. (2003) 91-101.

千惠鳳, 『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과주: 범우, 2012)

○ 기 타

소유자가 선친인 성암 조병순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적이다.



○ 書誌事項(舊本)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 壬集 卷5-6 / 劉霖(元) 編, 劉仁初(元) 類編.

金屬活字本(癸未中字).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高麗末]

2冊(零本): 左右雙邊. 19.8 × 12.2cm. 有界, 11行17-21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3.9 × 15.3cm.(배접후 26.7 × 16.7cm.)

版心題 : 策.

○ 書誌事項(新本)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 任集 卷5-6 / 劉霖(元) 編, 劉仁初(元) 類編.

金屬活字本(癸未中字).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鮮初]

2冊(零本): 左右單邊. 19.6 × 12.3cm. 有界, 11行17-21字. 內向黑魚尾. 23.9 × 15.3cm.(배접후 27.0 × 15.1cm.)

版心題 : 文.

○ 현 상

『신간류편역거삼장문선대책(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은 소유자들이 선친인 성암 조병순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적이다. 권5-6만 남은 잔본 2종으로 재미자로 인출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종 가운데 구본(舊本)은 권5에서 1장과 27장, 권6에서 36장이 결락된 상태이다. 또한 신본(新本)은 권5에서 1장부터 9장까지가 결락된 상태이다. 원표지가 결락된 상태에서 개장되었고, 일부 손상된 부분도 보인다. 최적의 보관상태가 아니어서 열화된 상태이므로 보존에 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은 원(元)대의 유학자 유림(劉霖) 등이 편찬하였고, 그 뒤 유인초(劉仁初) 등이 주제별로 분류하여 새로 간행한 서적이다. 일반적으로 『삼장문선』이라 알려져 있다. 수록된 시문은 원대에 실시한江浙(江浙)·江西(江西)·湖廣(湖廣) 등의 강남 삼성(三省)의 과시(科試) 답안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연도에 따라서 연남(燕南)과 하남(河南)의 향시(鄉試)에 제출한 우수한 답안과 중서당회시(中書堂會試)에 제출한 우수한 답안도 수록되었다. 문체는 대책(對策)·경의(經疑)·고부(古賦)의 3문체로 분류해서 편찬한 것이다. 과거 시행 시기별로 같은 문체의 답안을 삼장(三場)으로 나누어 수록한 것인데, 삼장은 향시(鄉試), 회시(會試), 전시(展試)를 말한다.

유인초는 과거의 답안을 모아 10집(集)으로 분류해서 72권으로 편찬하였다. 10집은 과거의 주제를 말하는데, 순서만 나열한 것으로 명칭에 의미는 없다. 내용의 주제를 보면, 갑집(甲集 : 經疑 8과 8권), 을집(乙集 : 易義 8과 8권), 병집(丙集 : 書義 8과 8권), 정집(丁集 : 詩義 8과 8권), 무집(戊集 : 禮記義 8과 8권), 기집(己集 : 春秋義 8과 8권), 경집(庚集 : 古賦 8과 8권), 신집(辛集 : 詔誥章表 3과 3권), 임집(壬集 : 對策 8과 8권), 계집(癸集 : 御試策 7과 5권)이다.

‘대책(對策)’은 한문 문체의 하나로 주로 과거 시험에 쓰였는데, 고시관이 당면한 문제로 정치·경제·학문 등에 관한 문제를 응시자에게 제시하면, 응시자는 그 해결책을 구상하여 대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임금이 직면하고 있는 시정책을 물은 것이며, 응시생은 그 대안과 책략을 진술하는 것이다. 선비 또는 현직 대부가 과거시험과는 관계없이 사사로이 시무책을 논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것은 제책(制策), 시책(試策), 진책(進策)이라 한다. 시험문제는 책문(策問) 또는 책제(策題)라고 하는 조령체(詔令體)이고, 답안은 대책(對策)이라 하여 주의체(奏議體)에 속한다.

『삼장문선』의 편자인 유림과 주제별로 분류한 유인초에 대한 사적에 대해서는 상세하지 않다. 다만, 수록된 문장을 통해 볼 때 유림은 순제(順帝, 재

위:1333~1367) 년간의 인물로 추정된다. 또한 ‘安成後學 劉仁初 輯’이라는 기록을 통해 유인초는 강서 길주(吉州) 안성현(安成縣) 출신으로 유럽과 같은 시기에 활동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유인초는 인초(仁初)가 자이며, 명은 정(貞)이다.

원대에 간행되었던 간행본으로서 현재 알려진 것은 1344년(지정 4) 건안(建安)의 우씨(虞氏) 무본당(務本堂)과 여씨(余氏) 근덕당(勤德堂)의 2종의 패기(牌記)가 있는 간본 12책본이 일본 정가당문고(靜嘉堂文庫)에 수장되어 있다. 건안(建安)의 우씨(虞氏) 무본당(務本堂)은 1335년(원통 3)년 『삼장문선』을 간행하였다가 바로 이듬해인 1336년 과거가 없어지면서 동시에 간행을 중지하였다. 이후 1340년(지원 6)에 과거가 복설(復設)되면서 다시 간행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원간본에는 1341년(지정 1)년에 유정이 쓴 서문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유인초의 서문을 넣은 『삼장문선』 초간본이 전래되어 보급되었다. 전래하는 판본을 토대로 추정하면 충혜왕 2(1341)년 이후 고려가 원나라가 아닌 명나라로 과거 응시생을 파견하기 시작한 공민왕 19(1370)년 사이에 서적원활자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이 우리나라의 초간본이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삼장문선』에 대한 기록과 전래본이 없으므로, 그 전래와 간행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초간본 이후에 고려의 서적원활자에 보자를 넣어 조선 태종 3(1403)년부터 세종 2(1420)년 사이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활자본, 세종 3(1421)년부터 세종 16(1434)년 사이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자자본, 단종 2(1454)년 밀양에서 간행한 경자자복각본 등이 알려져 있다.

조사본 『삼장문선』은 권5~6의 동일 권차(卷次)를 지닌 2종의 다른 판본으로 舊 소장자의 주장에 따라 2종의 명칭을 각각 舊本, 新本으로 하여 이해되고 있다. 구본은 약간의 이견은 있으나 고려 서적원에서 인출한 금속활자본으로 추정하고 있고, 신본은 조선초에 인출한 계미중자본으로 판단된다. 구본의 권5는 1장과 27장, 권6은 35장이 결락되었고, 34장의 후면 일부는 보사(補瀉)되었다. 신본의 권5는 1장~9장이 결락된 상태이다. 원표지가 결락된 상태에서 개장되었는데, 개장시 천두와 지각을 가로로 절단해 일부 손상되었고, 열화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구본은 판심서명은 ‘策’이고, 권차표기는 ‘六卷 壬集’이며, 편자는 ‘安成後學 劉仁初 編輯’으로 표기되어 있다. 신본의 판심서명은 ‘文’이고, 권차표기는 ‘卷之六 任集’이며 편자는 ‘成安後學 劉仁初 編輯’으로 표기되어 있다. 구본에는 天朝·聖君·恩德·廟堂·聖天子·聖代 등을 대두하거나 공격을 두어 원나라 황제에 대한 공경을 나타내고 있으나 신본에는 한 글자를 비우거나 혹은 공격을 두지 않았다.



舊本과 新本 記述 比較

내용은 시험 종류 다음에 책제(策題)가 수록되고, 이어 대책문이 수록되었다. 대책 문에는 등차(等次)·성명·출신지·묵등(墨等) 속에 고관(考官)의 관직명·성명·비어(批語)에 이어 답안인 대책의 본문이 수록되어 있다. 때로는 고관의 관직명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비평도 있다. 비어는 묵등에 비(批)라 밝힌 소자쌍행의 비평이나 설명이다. 중서당회시에는 비평이 첨부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다.

○ 문헌자료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 集部.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潘吉星, 중국, 한국, 유럽의 초기 금속활자 인쇄술 비교연구.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裴賢淑, 癸未中字本 四時纂要의 書誌的 研究. 四時纂要. (醴泉, 예천박물관, 2018) 간행예정.

趙炳舜, 「癸未字 組版術의 殘影과 印出能力」. 『季刊書誌學報』 創刊號. (1990.6) 23-40.

趙炳舜, 「癸未字 字本에 對하여」. 『季刊書誌學報』 제7호. (1992.9) 3-34.

趙炳舜, 「癸未字 字數와 小字起源에 대한 考察」. 『季刊書誌學報』 제11호. (1993.12) 37-129.

趙炳淳, 「高麗 書籍院 活字에 대한 研究 ; 所謂 癸未小字 組版術을 중심으로」. 『季刊書誌學報』 18. (1996). 3-20.

趙炳舜, 高麗本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研究. (서울: 韓國書誌學會, 2006)

千惠鳳, 「癸未字와 그印本」. 『古印刷文化』 제10호. (2003) 91-101.

千惠鳳, 『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과주: 범우, 2012)

□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 (이하 삼장문선)은 원(元)

대의 유학자 유림(劉霖) 등이 편찬하였고, 그 뒤 유인초(劉仁初) 등이 주제별로 분류하여 새로 간행한 서적이다. 수록된 시문은 원대에 실시한 강절(江浙)·강서(江西)·호광(湖廣)의 강남삼성의 과시(科試) 답안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연도에 따라서 연남(燕南)과 하남(河南)의 향시(鄉試)에 제출한 우수한 답안과 중서당회시(中書堂會試)에 제출한 우수한 답안도 수록되었다. 문체는 대책(對策)·경의(經疑)·고부(古賦)의 3문체로 분류해서 편찬한 것이다. 과거 시행 시기별로 같은 문체의 답안을 삼장(三場)으로 나누어 수록한 것인데, 삼장은 향시(鄉試), 회시(會試), 전시(展試)를 말한다. 조사대상 자료는 그 가운데 재미중자로 인출한 대책의 권5-6만 남은 잔본 2종이다.

<서지사항(구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壬集 卷5-6 / 劉霖(元) 編, 劉仁初(元) 類編.
 金屬活字本(癸未中字).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高麗末]
 2冊(零本): 左右雙邊. 19.8 × 12.2cm. 有界, 11行17-21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3.9 × 15.3cm.(배접후 26.7 × 16.7cm.)

版心題 : 策.
 楮紙.
 線裝本.

<서지사항(신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任集 卷5-6 / 劉霖(元) 編, 劉仁初(元) 類編.
 金屬活字本(癸未中字).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鮮初]
 2冊(零本): 左右單邊. 19.6 × 12.3cm. 有界, 11行17-21字. 內向黑魚尾. 23.9 ×
 15.3cm.(배접후 27.0 × 15.1cm.)

版心題 : 文.
 楮紙.
 線裝本.

○ 내용 및 특징

『삼장문선』의 편자인 유림과 유인초에 대한 사적은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인명사전에 원대의 유림으로는 안복인(安福人)에 대한 기사는 있다. 그는 우집(虞集 1272-1348)에게 배워 오경에 통달했으며 원말에 적군이 안성(安城)을 함락시키자

태화(泰和)로 피난갔다. 『사서찬석(四書纂釋)』, 『태극도해(太極圖解)』, 『역본의(易本義)』, 『동자설(童子說)』, 『두시유주(杜詩類注)』를 저작했다고 한다. 아마 동일인일 수도 있을 것이나 단정할 수는 없다. ‘安成後學 劉仁初 輯’이라는 권두의 기록과 수록된 대책문의 저작 시기 등을 통해 유인초는 강서 길주(吉州) 안성현(安成縣) 출신으로 혜종(順帝, 재위: 1333-1368)년간에 활동한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 유인초는 인초(仁初)가 자이며, 명은 정(貞)이다.

원대의 과거제도는 태종 10(1328)년에 비롯되지만, 여러 원인으로 장기간 시행되지 못하였다. 인종 황경 2(1313)년에 이르러 조칙을 내려 과거를 정식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혜종 원통 3(1335)년말에 다시 폐지되었다가, 지원 6(1340)년 말 복설하여 원이 멸망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중국 역사상 원대의 과거는 가장 낙후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유럽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이 시기 과거 준비생을 위해 수험서를 간행했다는 것이다.

과거 응시생은 시험에 대비를 위한 준비서가 필요했을 터인데, 그 수험서로 편찬한 것이다. 유인초는 과거를 복설하자 선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과거 답안 가운데 좋은 글을 가려 수험서로 이 책을 편찬했다. 따라서 본서의 편찬 시기는 혜종 지원 6(1340)년 말 과거를 다시 복설한 직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원대 간본의 완질은 지정 4(1344)년 원말 건안(建安)의 우씨(虞氏) 무본당(務本堂)과 여씨(余氏) 근덕당(勤德堂)의 2종의 패기(牌記)가 있는 간본 12책본이 일본 정가당문고(靜嘉堂文庫)에 수장되어 있을 뿐이다. 건안(建安)의 우씨(虞氏) 무본당(務本堂)은 원통 3(1335)년 본서를 간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원통 4(1336)년말 조정에서 폐과하자 본서의 간행을 중지하였다. 5년이 경과해 지원 6(1340)년 과거를 복설하자 간행을 속개한 것이다. 원간본에는 지정 1(1341)년에 유정이 쓴 서문이 있다. 규장각에는 무본당 간행 고부(古賦)의 조선 번각본이 수장되어 있다. 특징은 반엽 14행24자본이다.

최치원이 당의 빈공과에 급제하면서 비롯되어, 고려시대에도 원의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출세에 있어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원의 과거에서는 『주자집주(朱子集註)』를 시험과목으로 채택하였으므로, 고려출신 급제자는 고려에 주자학을 도입하고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주자학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고려말에는 『삼장문선』을 간행할 필요가 있었다.

원 지정 1(1341)년 유인초의 서문을 넣은 『삼장문선』 초간본이 고려에 전래되어 보급되었다. 전래하는 판본을 토대로 추정하면 충혜왕 2(1341)년 이후 고려가 원나라가 아닌 명나라로 과거 응시생을 파견하기 시작한 공민왕 19(1370)년 사이에 서적원활자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이 우리나라의 초간본이라 할 수 있다.

유인초는 과거의 답안을 모아 10집(集)으로 분류해서 72권으로 편찬하였다. 10

집은 과거의 주제를 말하는데, 순서만 나열한 것으로 명칭에 의미는 없다. 내용의 주제를 보면, 갑집(甲集 : 經疑 8과 8권), 을집(乙集 : 易義 8과 8권), 병집(丙集 : 書義 8과 8권), 정집(丁集 : 詩義 8과 8권), 무집(戊集 : 禮記義 8과 8권), 기집(己集 : 春秋義 8과 8권), 경집(庚集 : 古賦 8과 8권), 신집(辛集 : 詔誥章表 3과 3권), 임집(壬集 : 對策 8과 8권), 계집(癸集 : 御試策 7과 5권)이다. 주제별로 과거 시행 시기별로 삼장(三場)으로 나누어 수록되었다.

선비 또는 현직 대부가 과거시험과는 관계없이 사사로이 시무책을 논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것은 제책(制策), 시책(試策), 진책(進策)이라 한다. 선비에게 책략을 묻는 제도는 중국 한나라 문제시대부터 시작하여 면면히 계승되었다. 대책은 한문 문체의 하나로 주로 과거 시험에 쓰였다. 고시관이 당면한 문제로 정치·경제·학문 등에 관한 문제를 응시자에게 제시하면, 응시자는 그 해결책을 구상하여 대답하는 것이다. 이는 임금이 직면하고 있는 시정책을 묻은 것이며, 응시생은 그 대안과 책략을 진술하는 것이다. 시험문제는 책문(策問) 또는 책제(策題)라고 하는 조령체(詔令體)이고, 답안은 대책(對策)이라 하여 주의체(奏議體)에 속한다.

8권본의 경자자 복각본 『삼장문선대책』의 권두에 목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권1에는 연우 1(1314)년 갑인-2(1315)년 을묘, 권2는 연우 4(1317)년 정사-5(1318)년 무오, 권3은 연우 7(1320)년 경신-지치 1(1321)년 신유, 권4는 지치 3(1323)년 계해-태정 1(1324)년 갑자까지 수록되었다. 권5에는 태정 3(1326)년 병인-4(1327)년 정묘, 권6에는 천력 2(1329)년 기사-3(1330)년 경오, 권7에는 지순 3(1332)년 임신-4(1333)년 계유, 권8에는 지원 1(1335)년 을해까지 수록되었다. 지정 신청된 『삼장문선』은 권5-6이므로, 권5에는 태정 3(1326)년 병인-4(1327)년 정묘와 권6에는 천력 2(1329)년 기사-3(1330)년 경오가 수록된 것이다.

원초 연우 1(1314)년 정식으로 과거를 시행한 후 원통 3(1335)년 폐지될 때까지의 모범답안을 편찬한 것인데, 이는 지원 6(1340)년 말 과거를 다시 복구함으로써 그 수험서로 편찬한 것이다. 따라서 완질본에는 지정 1(1341)년에 쓴 편자 유정(劉貞)의 서문이 있다.

수록된 형식은 시험 종류 다음에 책제(策題)가 수록되고, 이어 대책문이 수록되었다. 대책문에는 등차(等次)·성명·출신지·묵등(墨等) 속에 고관(考官)의 관직명·성명·비어(批語)에 이어 답안인 대책의 본문이 수록되어 있다. 때로는 고관의 관직명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비평도 있다. 비어는 묵등에 비(批)라 밝힌 소자쌍행의 비평이나 설명이다. 중서당회시에는 비평이 첨부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다.

○ 문헌자료

-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 集部.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 潘吉星, 중국, 한국, 유럽의 초기 금속활자 인쇄술 비교연구.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 裴賢淑, 癸未中字本 四時纂要의 書誌的 研究. 四時纂要. (禮泉, 예천박물관, 2018) 간행예정.
- 趙炳舜, 「癸未字 組版術의 殘影과 印出能力」. 『季刊書誌學報』 創刊號. (1990.6) 23-40.
- 趙炳舜, 「癸未字 字本에 對하여」. 『季刊書誌學報』 제7호. (1992.9) 3-34.
- 趙炳舜, 「癸未字 字數와 小字起源에 대한 考察」. 『季刊書誌學報』 제11호. (1993.12) 37-129.
- 趙炳淳, 「高麗 書籍院 活字에 대한 研究 ; 所謂 癸未小字 組版術을 중심으로」. 『季刊書誌學報』 18. (1996). 3-20.
- 趙炳舜, 高麗本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 研究. (서울: 韓國書誌學會, 2006)
- 千惠鳳, 「癸未字와 그印本」. 『古印刷文化』 제10호. (2003) 91-101.
- 千惠鳳, 『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과주: 범우, 2012)

○ 기 타

계미증자본 『三場文選』은 소유자가 선친인 성암 조병순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적이다.

보완조사보고서



○ 書誌記述 및 現狀

書誌記述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의 高麗(舊)本과 朝鮮(新)本の 2종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1. <高麗(舊)本>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 任集. 卷5-6 / 劉霖(?-?, 元) 編 ; 劉貞(?-?, 元) 類編 -- [高麗 書籍院] 金屬活字本. -- [發行地不明] : [書籍院], [高麗末 推

定].

2卷2冊(零本) : 上下單邊·左右雙邊, 19.8×12.2cm, 有界, 11行20字, 上下內向黑魚尾 ; 23.9×15.3cm. 韓紙(楮+藁精). 線裝(改裝).

版心題: 策

行字數: 11行 17-21字(有字數出入)

規 格: 26.7×16.7cm(襜接後規格)

張 數: 卷5(2-26張), 卷6(1-34張)

類編者: 類編者 劉仁初의 字는 仁初이며 이름은 貞임.

版 本: 舊藏者 故 誠庵 趙炳舜(1922-2013)은 高麗 書籍院活字本이라 주장.

現 狀: 表紙는 改裝되었으며, 改裝時 天頭와 地脚을 가로로 절단하여 일부의 손상이 있으며, 求得 이전의 보관상태가 최적이 아니었던듯 熱로 인한 酸化가 심한 상태임.

傳來歷: 故 誠庵 趙炳舜이 1972년에 卷5-6을 求得한 뒤,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터즈 아파트의 조왕기(조동기·조성은·조영기) 등이 先親인 誠庵翁으로부터 상속한 유물로 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관리되고 있음. (<遺物取得經緯書> 參看).

2. <朝鮮(新)本>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任集. 卷5-6 / 劉霖(?-?, 元) 編 ; 劉貞(?-?, 元) 類編 -- [朝鮮 癸未字] 金屬活字本. -- [發行地不明] : [鑄字所], [朝鮮初 推定].

2卷2冊(零本) : 上下單邊·左右雙邊, 19.6×12.3cm, 有界, 11行19字, 上下內向黑魚尾 ; 23.9×15.3cm. 韓紙(楮). 線裝(改裝).

版心題: 文

行字數: 11行 17-21字(有字數出入)

規 格: 27.0×15.1cm(襜接後規格)

張 數: 卷5(10-26張), 卷6(1-35張)

類編者: 類編者 劉仁初의 字는 仁初이며 이름은 貞임.

版 本: 舊藏者 故 誠庵 趙炳舜(1922-2013)은 朝鮮 癸未中字本이라 주장.

現 狀: 表紙는 改裝되었으며, 改裝時 天頭와 地脚을 가로로 절단하여 일부의 손상이 있으며, 求得 이전의 보관상태가 최적이 아니었던듯 熱로 인한 酸化가 심한 상태임.

傳來歷: 故 誠庵 趙炳舜이 1975년 봄에 卷5-6을 입수한 뒤,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터즈 아파트의 조왕기(조동기·조성은·조영기) 등이 先親인 誠庵翁으로부터 상속한 유물로 誠庵古書博物館에 소

장·관리되고 있음. (<遺物取得經緯書> 參看).

□ 現 狀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表紙는 改裝되었으며, 改裝時 天頭와 地脚을 가로로 절단하여 일부가 손상되고 求得 이전의 보관상태가 최적이 아니었던듯 熱로 인한 酸化의 상태가 심한 편이다.

○ 內容 및 特徵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은 중국 원조의 劉霖이 元朝 歷代의 江浙·江西·湖廣 등지의 鄉試·會試(中書堂會試)·御試(殿試) 등 三場의 科試答案인 對策을 모아 編輯한 「歷學三場文選對策」을 元朝의 劉貞(字 仁初)이 主題別로 分類編輯[類編]하고 자신의 序文을 수록하여 至正 1(1341)년에 새로이 간행[新刊]한 科學의 受驗書이다.

對策은 현직의 대부가 과거와 관계없이 時務策으로 올리는 制策·試策·進策 등과는 달리 선비에게 책략을 묻는 文體의 하나로 주로 과거시험에서 사용되었으며, 考試官이 정치·경제·학문 등의 시정을 물으면 응시생은 그 대안과 책략을 진술하는 것으로 試題는 策問·策題라는 詔令體이고 그 답안은 對策이라는 奏議體이다.

원조 至正 1(1341)년의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은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등의 10集으로 분류하여 72권으로 편집·간행되었다. 그 내용은 甲集(經疑 8科8卷), 乙集(易義 8科8卷), 丙集(書義 8科8卷), 丁集(詩義 8科8卷), 戊集(禮記義 8科8卷), 己集(春秋義 8科8卷), 庚集(古賦 8科8卷), 辛集(詔誥章表 3科3卷), 壬集(對策 8科8卷), 癸集(御試策 7科5卷) 등이다. 이에 수록된 試問의 범위는 원조에 실행된 江浙·江西·湖廣 등 江南 3성의 科試 答案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연도에 따라서는 燕南과 河南의 鄉試에 제출된 우수한 답안과 中書堂會試에 제출된 우수한 답안도 수록되어 있다. 그 文體는 對策·經疑·古賦의 3體로 분류·편집하고 과거의 시기별로 同一 文體의 답안을 鄉試·會試·展試 등 3場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編者인 劉霖(?-?)과 類編者인 劉貞(?-?)의 行歷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려진 바 없으나, 劉霖은 江西省 吉州(吉安)의 安福縣人으로 虞集(1272-1348)에게 수학하여 五經에 정통하고 성격이 剛直하였으며, 元朝 말기에 적군에게 安城(安城縣城)이 함락되어 江西省 吉州 泰和縣으로 移居하자 학자들이 많이 따랐으며, 저술로는 「四書纂釋」·「太極圖解」·「易本義」·「童子說」·「杜詩類注」 등이 있다고 한다. 類編者인 劉貞은 江西省 吉州(吉安) 安福縣人으로 字는 仁初이고 名은 貞이며, 編者인 劉霖과 同姓에 出身地와 居住地가 동일한 점으로 혹은 一

族이 아닌가 한다.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高麗(舊)本 卷5의 頭部에 수록된 類編者事項에 “安成後學 劉仁初 編輯”이라는 기록과 수록된 대책문이 저작된 시기 등을 통하여 그는 원조 말기의 順帝(재위: 1333-1368) 연간에 주로 활동한 인물이 아닌가 한다.

원조의 과거제도는 太宗 10(1238)년에 시작되어 여러 원인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仁宗 皇慶 2(1313)년 11월에 조칙을 내려 정식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뒤 北元의 惠宗(明朝의 諡號는 順帝) 元統 3(1335)년 이후 5년간 폐지되었다가 順帝 至元 6(1340)년에 復設되어 원조가 멸망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科擧制가 실시되는 동안 과거의 준비를 위한 수험서는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더욱이 順帝 至元 6(1340)년에 과거가 復設됨에 따라 수험서의 수요가 배가되었을 것이다. 이에 劉貞은 일족인 劉霖이 기왕의 과거 답안 중에서 좋은 답안을 가려 編輯한 「歷學三場文選對策」을 類編하였던 것으로 짐작되어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編纂과 新刊의 시기도 順帝 至元 6(1340)년에 과거가 復設된 직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의 최치원 이후로 中朝의 科擧에서 及第하는 것은 出世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원조의 지배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원조의 과거에서 「朱子集註」가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자, 고려 출신의 급제자들은 주자학을 고려에 도입·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朱子學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간행·보급도 필요하였던 듯하다. 따라서 高麗(舊)本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은 고려 충혜왕 2(1341)년 이후로 원조가 아닌 명조로 과거의 응시생을 과견하기 시작 이래로부터 공민왕 19(1370)년 사이에 書籍院의 活字로 初刊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조선은 開國하면서 勝國인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한편 科擧制度도 그대로 수용한 결과 개국 초기에는 모범으로 삼을만한 과문의 답안이 축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科文作成의 지침을 제시할 필요도 있어 과거의 수험서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이 초기부터 애독되고 간행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朝鮮(新)本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은 태종 3(1403)년에 이르러 癸未字가 鑄成된 후에 重刊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신청본의 舊藏者인 故 誠庵 趙炳舜은 이들 2종의 판본을 高麗(舊)本과 朝鮮(新)本으로 명명한 듯하다.

□ 高麗(舊)本과 朝鮮(新)本の 比較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은 서로 다른 2종의 판본 각 2책씩으로 舊藏者인 故 誠庵 趙炳舜은 이들 2종의 판본을 高麗(舊)本과 朝鮮(新)本으로 명명

하고 있다.

舊藏者인 故 誠庵 趙炳舜은 이들 두 판본에 있어 (1) 舊本에는 ‘大’와 ‘聖’ 등 敬意와 관계되는 글자를 改行한 데에 반하여 新本은 이를 무시하고 있어 출판의 歷朝가 다르다는 점, (2) 舊本에는 代·中·小字가 있을 뿐 아니라 大字의 본문에 小字雙行으로 註釋을 다는 등 완벽한 인쇄의 체제를 보여주고 있는 점, (3) 舊本에서 사용된 활자가 新本과 다르다는 점, (4) 舊本과 新本の 紙質이 서로 다르다는 점, (5) 舊本과 新本の 組版樣式이 서로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舊本은 고려 충혜왕 2(1341)년에서 공민왕 19(1370)년 사이에 書籍院의 금속활자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舊本에 사용된 활자는 고려 서적원의 금속활자가 아니라 조선의 癸未字라 하며 舊藏者와 견해를 달리하는 학자들도 있어 舊藏者의 서적원 금속활자의 간행 설에 대한 書誌學界의 즉각적이고 통일적인 동의는 없었으나, 故 安炳禧(1933-2006) 교수는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書籍院 출간의 서적임이 분명하여 큰 의의가 있다면서 고려본임을 인정하였다. 그 후로 서적원의 금속활자로 본서를 간행하였다는 기록이나 이와 대비할 수 있는 활자본을 더 조사할 필요가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近年에 들어서 점차 舊藏者의 견해에 동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지정신청본 高麗(舊)本 및 朝鮮(新)本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권5-6)의 권5에는 泰定 3(1326, 병인)-4(1327, 정묘)년이 수록되어 있고 권6에 天曆 2(1329, 기사)-3(1330, 경오)년이 수록되어 있으며, 수록된 형식은 시험의 종류 다음에 策題가 수록되고 이어서 對策文이 수록되었다. 對策文에는 等次·姓名·出身地 등을 비롯하여 墨等 속에 考官의 官職名·姓名·批語 등에 이어서 답안인 對策文이 수록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高麗(舊)本과 朝鮮(新)本の 2종의 版本에 나타나는 주요사항과 기타의 특징을 비교하면 <表 1>과 같다.

<表 1>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高麗(舊)本과 朝鮮(新)本の 主要事項 比較

事項	高麗(舊)本	朝鮮(新)本	同·異	備考
書名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同	
編輯者	劉霖(元) 編 ; 劉仁初(元) 類編	劉霖(元) 編 ; 劉仁初(元) 類編	同	劉仁初 字仁初 名貞
集次	壬集	壬集	同	新本: 第5卷尾 '任'
卷次	卷5-6	卷5-6	同	
版本	金屬活字本(高麗 書籍院字)	金屬活字本(朝鮮 癸未字)	異	學者間 見解相異
卷冊	2卷2冊(零本)	2卷2冊(零本)	同	
邊欄	上下單邊·左右雙邊	上下單邊·左右雙邊	同	
半郭	卷5: 19.6×12.3cm	卷5: 19.6×12.0cm	異	

	卷6: 19.6×12.3cm	卷6: 19.8×12.3cm		
界線	有界	有界	同	
行間規格	卷5: 1.2cm 卷6: 1.2cm	卷5: 1.1cm 卷6: 1.1cm	異	
行字數	11行20字(出入17-21字)	11行20字(出入17-21字)	同	
魚尾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內向黑魚尾	同	
規格	23.9×15.3cm	23.9×15.3cm	異	
紙質	韓紙(楮+ 藁精)	韓紙(楮)	異	
裝訂	線裝(改裝)	線裝(改裝)	異	
卷頭題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同	
版心題	策	文	異	
卷尾題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同	
敬意處理	改行(擡頭) 또는 空格	1字 空格 또는 無視	異	
卷集表記	卷頭: [五卷 壬集], 六卷 壬集 卷尾: 五卷 壬集, [六卷 壬集]	卷頭: [卷之五 壬集], 卷之六 壬集 卷尾: 卷之五 壬集, [卷之六 壬集]	異	新本: '任' 誤謬
編者表記	卷6: 安 成 後 學 劉 仁初 編輯	卷6: 成安後學 劉 仁初 編輯	異	新本: '成安' 誤謬
行別內容	不一致	不一致	異	
收錄範圍	卷5: 泰定 3(1326)-4(1327)年 卷6: 天曆 2(1329)-3(1330)年	卷5: 泰定 3(1326)-4(1327)年 卷6: 天曆 2(1329)-3(1330)年	同	
張數	卷5(02-26張, 張7·9 缺落) 卷6(01-34張, 張36 缺落)	卷5(10-26張, 張1-9 缺落) 卷6(01-35張)	-	

조사자는 <表 1>을 바탕으로 2종의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版種이 (1) 半郭의 規格이 相異한 점, (2) 行間의 規格이 相異한 점, (3) 紙質이 相異한 점, (4) 版心題가 '策'과 '文'으로 相異한 점, (5) 敬意의 처리법이 相異한 점, (6) 集次의 표기가 '壬'과 '任'으로 相異한 점, (7) 編者의 표기에서 '安 成 後 學 劉 仁初 編輯'과 '成安後學 劉 仁初'로 相異한 점, (8) 行別 本문의 내용이 相異한 점 등에서 이들을 高麗(舊)本과 朝鮮(新)本の 2종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나아가 朝鮮(新)本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에서 (1) 集次의 표기와 (2) 編者의 표기에 오류가 나타나고 있고 (3) 본문에도 誤字가 없지 않은 점 등에서 볼 때, 朝鮮(新)本은 혹은 校正刷本이 아닌가 한다.

결론적으로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은 高麗(舊)本과 朝鮮(新)本の 2종으로 판단하든 아니면 동일한 癸未字本으로 판단하든, 동일 권차의 2종류의 판본이 유일하게 전하는 麗末鮮初의 金屬活字本임에 틀림이 없고 2종 모두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도 부합되고 있다.

따라서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2종 4책은 高麗(舊)本과 朝鮮(新)本の 논란이 없지 않으나, 이들은 모두 늦어도 麗末鮮初의 金屬活字本에 해당

하는 만큼, 活字의 종류나 版本의 新舊와 관계없이 2종 모두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文獻資料

- 서울특별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서울 : 서울시장, 2016. 10. 10.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조사보고서> (송일기·오용섭·서정문 등의 조사보고서). 서울 : 서울시문화재위원회, 2016. 04. 29.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http://kyudb.snu.ac.kr/search/Search.do>)
-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 集部」. 京都 :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 潘吉星, “중국·한국·유럽의 초기 금속활자인쇄술 비교연구”. 「동서 고인쇄문화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서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7.
- 裴賢淑, “癸未中字本 四時纂要의 書誌的 研究”. 「四時纂要」. 醴泉 : 醴泉博物館, 2018.
- 沈俊平, “元代坊刻考試用書의 生産活動”. 「書目季刊」 第44卷 第2期(2010. 09). pp.43-80.
- 趙炳舜, “癸未字 組版術의 殘影과 印出能力”. 「季刊書誌學報」 創刊號(1990.6). pp.23-40.
- 趙炳舜, “癸未字 字本에 對하여”. 「季刊書誌學報」 제7호(1992.9). pp.3-34.
- 趙炳舜, “癸未字 字數와 小字起源에 대한 考察”. 「季刊書誌學報」 제11호(1993.12). pp.37-129.
- 趙炳舜, “高麗 書籍院 活字에 대한 研究 ; 所謂 癸未小字 組版術을 중심으로”. 「季刊書誌學報」 제18호(1996). pp.3-20.
- 趙炳舜, 「高麗本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研究」. 서울 : 韓國書誌學會, 2006.
- 千惠鳳, “癸未字와 그 印本”. 「古印刷文化」 제10호(2003). pp.91-101.
- 千惠鳳, 「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과주 : 범우, 2012.
- 현영아,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書誌的 研究”. 「인문과학연구논총」 제27호. pp.55-74.

○ 其 他 (소장경위 등)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2종은 故 誠庵 趙炳舜이 1975년 봄에 卷5-6을 입수한 뒤,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터즈 아파트의 조왕기(조동기·조성은·조영기) 등이 先親인 誠庵翁으로부터 상속한 유물로 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관리되고 있음. (<遺物取得經緯書> 參看).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2종의 表紙는 改裝되었으며, 改裝時 天頭와 地脚을 가로로 절단하여 일부가 손상되고 求得 이전의 보관상태가 최적이 아니었던듯 熱로 인한 酸化의 상태가 심한 편이다. 차후에 지류문화재보존처리가 요구된다.

현재 지정신청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과 동일 또는 유사한 版種이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 현 상

조사대상의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4권 4책은 중국 원나라의 유정(劉貞)이 1341년 편찬한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 72권 가운데 고려말기~조선초기 고려·조선사회에서 금속활자로 찍어 선장본으로 만든 권5~6의 고려본(구본)·조선본(신본) 2종으로, 조왕기(조동기·조성은·조영기) 등이 선친 성암(誠庵) 조병순(趙炳舜)부터 상속받아 성암고서박물관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다.

조사대상본은 표지가 개장되어 있으며, 개장 때 내지의 천두(天頭)·지각(地脚) 부분이 가로로 절단되어 일부가 손상되어 있다. 그리고 고려본·조선본 권5는 본문의 일부가 마모되어 있으며, 조선본 권6을 제외한 다른 판본은 일부 장차도 누락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온존하게 보존되어 있다.

서지사항

● 고려본(구본)

금속활자본(고려말기 書籍院字 추정)

상하단변(上下單邊)·좌우쌍변(左右雙邊)/ 반곽 19.8×12.3cm/ 유계(有界)/ 반엽 11행 19자(有字數出入 17~21자)/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선장본(線裝本 ; 오침안정/ 개장), 저지(楮紙)+고정지(藁精紙)

권 수 제 :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六卷 壬集

저술정보 : 安成後學劉□仁初編輯

판 심 제 : 策六 一

권 미 제 :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五卷 壬集

● 조선본(신본)

금속활자본(조선초기 鑄字所 癸未字 추정)

상하단변(上下單邊)·좌우쌍변(左右雙邊)/ 반곽 19.6×12.3cm/ 유계(有界)/ 반엽 11행 19자(有字數出入 17~21자)/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선장본(線裝本 ; 오침안정/ 개장), 닥종이(楮紙)

권 수 제 :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卷之六 任集

저술정보 : 成安後學劉仁初編輯

판 심 제 : 文六 一

권 미 제 :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卷之五 壬集

○ 내용 및 특징

조사대상의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4권 4책은 1341년 원나라의 문인지식인 유정(劉貞) 등이 원나라 때 중국 강절(江浙)·강서(江西)·호광(湖廣) 등지에서 시행된 향시(鄉試)와 함께 중서당회시(中書堂會試)·어시(御試·殿試) 등 삼장(三場)의 과거답안(對策)을 모아 과거 수험서로 편집한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 72권을 고려말기~조선초기 서적원자(書籍院字) 및 주자소(鑄字所) 계미자(癸未字)로 각각 찍었다고 추정되는 금속활자본으로, 「대책(對策)」 부분(壬集)의 전체 권1~8 가운데 권5~6의 고려본(구본)·조선본(신본) 2종이다. 조사대상의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에는 1326년(泰定 丙寅年)부터 1330년(天曆 庚午年)까지 출제된 책제(策題)와 대책문(對策文)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대상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2종(구본·신본)은 판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조사대상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고려본(구본)과 조선본(신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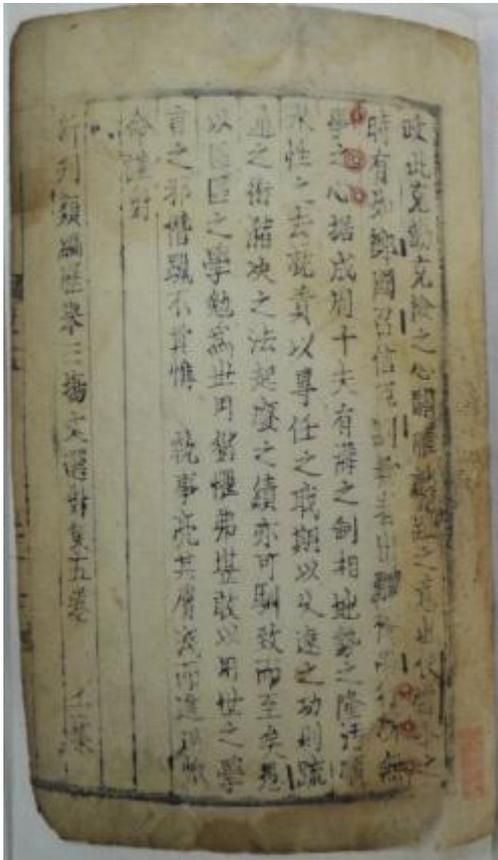
항목	고려본(구본)	조선본(신본)	비고
활자종류	금속활자본(고려 書籍院字)	금속활자본(조선 癸未字)	연구자들간 이견
반곽규격	권5: 19.8×12.3cm 권6: 19.6×12.3cm	권5: 19.6×12.3cm 권6: 19.8×12.3cm	
행간규격	권5: 1.2cm 권6: 1.2cm	권5: 1.1cm 권6: 1.1cm	
종이종류	닥종이(楮紙)+고정지(藁精紙)	닥종이(楮紙)	
권수제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관심제	策	文	
권미제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경의처리	改行(擡頭) 또는 空格	1자 空格 또는 무시	
권집표기	권수: [五卷 壬集], 六卷 壬集 권미: 五卷 壬集, [六卷 壬集]	권수: [卷之五 壬集], 卷之六 任集 권미: 卷之五 壬集, 卷之六 壬集	'任'자는 '壬'자의 오기
편집정보	卷6: 安成後學 劉 □仁初 編輯	卷6: 成安後學 劉 仁初 編輯	'成安'은 '安成'의 오기
행별내용	불일치	불일치	
장수	권5(01~27장 : 제1장 결락) 권6(01~35장 : 제35장 결락)	권5(01~26장 : 제1~9장 결락) 권6(01~35장)	권5의 전체 장수 차이

조사대상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2종(구본·신본)은 반곽·행간 규격과 종이종류 및 개행(대두)·공격(空格) 등의 경의처리와 더불어 행별 내용 및 권5의 장수(전체 27·26장)에서 차이를 보이며, 권수제·권미제의 글자 가운데 ‘장(場·場)’자의 형태, 관심제(策·文), 권집의 표기형태(五卷·六卷 및 卷之五·卷之六)와 글자(壬·任), 편집정보의 글자 간격 및 출신정보(安成·成安) 등에서도 다른 내용이 발견된다. 때문에 조사대상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2종은 별개의 주체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금속활자로 찍어 만든 기록유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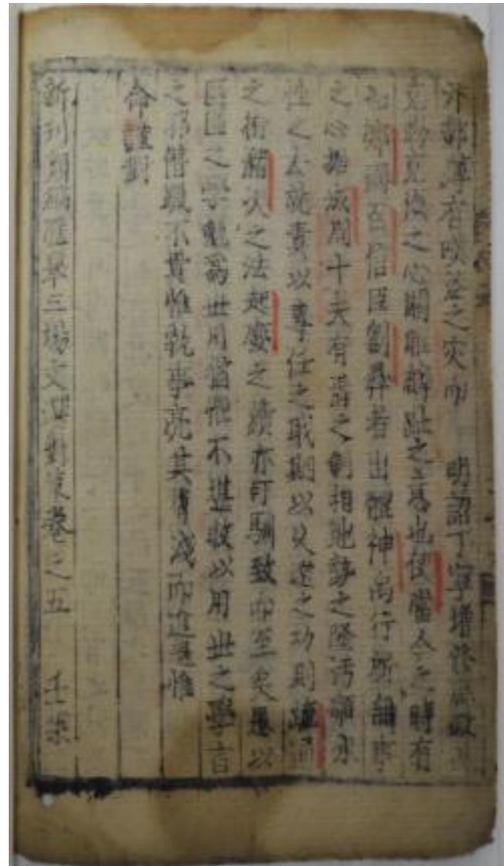
조사대상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2종은 이전 소장자인 고 성암(誠庵) 조병순(趙炳舜)이 개행(改行)여부, 활자와 종이 종류 및 조판양식의 차이 등으로 다른 시기에 각각 찍은 별개의 기록유산이며, 더구나 구본을 1341년(충혜왕 복위 2)부터 1370년(공민왕 19) 사이에 고려 서적원에서 금속활자로 찍은 고려 말기의 기록유산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비해 현재까지 조사대상의 구본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비교지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부의 연구자들 가운데는 구본의 활자를 고려 서적원의 금속활자가 아니라 조선초기의 계미자로 추정하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고 안병희(安炳禧)교수의 경우에는 국내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서적원 간행의 고려말기의 기록유산으로 진단하였다.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은 1374년(공민왕 23) 경 원나라의 판본이 고려사회로 유입되어 국학(國學)의 학생들에게 비장되면서 과거 수험서로 활용되고 있었고, 활

자나 종이 종류도 고려말기~조선초기와 관련되며 고려본(구본)에는 원나라 황실이나 황제에 대해 공경을 나타내는 글자(天朝·聖君 등)가 대부하거나 공격을 두고 있으므로, 고려사회에서도 간행되었을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사대상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2종은 금속활자의 동일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조사대상의 2종은 각각 다른 주체들이 각각 찍어 만든 기록유산이며, 더구나 국내에서 같은 권차의 2종 판본이 유일하게 현전하는 고려말기~조선초기 우리나라 조성의 금속 활자본으로 진단할 수 있는 등 역사·문화적인 희소성과 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2종의 판본은 상호 비교·검토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학술적 가치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권5 제27장 앞면의 권미제(고려본·구본)



권5 제26장 뒷면의 권미제(조선본·신본)



권6 제1장 앞면의 권수제·편집정보(구본 및 신본) 권6 제35장 뒷면의 권미제(신본)

○ 문헌자료

『세종실록』 권24, 세종 6년 6월 신미, 「관우군도총제부사치사조용졸기(判右軍都摠制府事致仕趙庸卒記)」.

서울특별시장,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2016.10.10.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편,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조사보고서((송일기·오용섭·서정문 등의 조사보고서)」, 서울시문화재위원회, 2016.04.29.

한국고전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현영아,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의 書誌的 研究」 『인문과학연구논총』 27,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趙炳舜, 「高麗本 『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研究」, 韓國書誌學會, 2006.

朴宣珪, 「조선 전기 『三場文選』의 수용양상에 관한 일고찰」 『고전과 해석』 22, 고전문학한문학회, 2017.04.

○ 지정사례

조사대상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2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본의 종류가 현재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 그러면서 조선초기의 금속활자인 계미자(癸未字)로 찍어 만든 상당수의 기록유산은 국보 제148호·제149호·제150호 및 보물 제1989호 등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연구·보존·관리되고 있는 상태이다.

17. 장응일 문과시권(張應一 文科試券)

가. 검토사항

‘장응일 문과시권’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부터 ‘장응일 문과시권’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12.2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8.6.22)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장응일 문과시권(張應一 文科試券)
- 소유자(관리자) : 장환호(한국학중앙연구원)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 수 량 : 1매
- 규 격 : 72.8×272.7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필사본
- 조성연대 : 1629년(인조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지정신청 고문서 <張應一文科試券>은 張應一이 인조 7(1629)년에 文科初試에 제출한 試券으로 文體는 對策이다.

지정신청 고문서 <張應一文科試券>는 ‘體天之道’에 관하여 “君主는 하늘의 道

理를 體得하여 그 순리에 따르고 百姓을 矜恤하게 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우수한 대책으로 조선시대 試券 및 古文書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나, 그 작성의 시기가 인조 7(1629)년의 文科初試의 試券에 지나지 않고 작성자의 명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방유형문화재의 지정을 권고하여 보존·관리하는 편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지정 신청 고문서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었던 장응일(張應一, 1599~1676)이 인조 7(1629)년에 문과초시(文科初試)에 제출한 시권(試券)이다. 형태적으로는 3장의 종이를 연결하여 61행으로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 일부가 결락되어 있으나 비교적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현존하는 시권 중 문과시권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시기적으로도 임란이전의 고문서이며 여헌 문중의 자료임을 감안하여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권 한 점만을 지정하기 보다는 장응일에게 발급된 녹패나 교지 등 관련 문서를 함께 지정하는 것이 향후 문화재의 보존이나 고문서 연구에 있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히 여헌종택에는 1653년 1월 병조(兵曹)에서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사직(行龍驤衛司直) 장응일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와 1675년 7월 이조(吏曹)에서 통정대부(通政大夫) 예조참의(禮曹參議) 장응일에게 발급한 녹패 등 장응일 관련 고문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이들 고문서를 일괄 재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조사본 『장응일 문과 시권(張應一文科試券)』은 1629년(인조 7)년 별시문과에 제출한 시권(試券)으로 문체(文體)는 대책(對策)이다.

답안을 작성한 장응일(張應一, 1599~1676)은 당시 명조(明朝)의 황태자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설행되었던 별시에서 병과로 급제한 이후, 1646년 헌납으로 있으면서 이미 사사(賜死)의 명이 내려진 민회빈(愍懷嬪) 강씨(姜氏)의 구명소(救命疏)를 9일 동안 계속하여 올렸고, 1649년에는 장령으로 대사간 김경록(金慶錄), 집의 송준길(宋浚吉) 등과 함께 훈신 김자점(金自點)의 탐욕, 방자함을 탄핵하는 등 청렴 강직하였던 인물로 평가된다. 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조사본 『장응일 문과 시권(張應一文科試券)』은 조선시대 고문서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나, 그 작성 시기가 17세기 전반으로 이미 고문서로서 일괄 지정된 자료들과 비교하여 시기가 늦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래 여헌종택(旅軒宗宅)에 소장되어 있었던 다른 장응일 관련 고문서, 녹패 등과 함께 자료적 가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 書誌記述 및 現狀

□ 書誌記述

지정신청 고문서 <張應一文科試券>의 서지기술은 다음과 같다.

文科試券 / 張應一(1599-1676) 對策.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筆寫者不明], [仁祖 7(1629) 推定].

連接1枚物(3枚連接) : 61行 字數不定 ; 72.8×272.7cm. 楮紙. 連接1枚物(補修).

試 題: ‘體天之道’

印 文: 吏曹/之印(6.7×6.4cm, 裏面 1處, 本文面 誤謬字8處)

連 接: 제1장(69.8cm), 제2장(101.0cm), 제3장(101.9cm)

現 狀: 頭部 數行에 磨滅字가 있으나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의 자체적 배첩 및 보존처리로 비교적 양호한 편임.

傳來歷: 경상북도 龜尾市 仁義洞 642-2의 仁同張氏 旅軒宗宅에 家傳되다가 2004년 종손 장환호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寄託하여 藏書閣이 수장·관리하고 있음.

既指定: 無

原 文:

[01] 臣對肆惟天享于克誠淳、然命之我

[02] 聖后恭惟我

[03] 聖后克艱于天位灼見于天心以一心之天求在天之天

[04] 而對越之誠深奉若之道盡其於天意可謂得[其]

[05] 於天德亦云配矣而猶且慊然於心爰命格汝于庭[丁]
[06] 寧乎體天之間反覆乎體天之要惟天明、明在上惟
[07]后穆穆臨下
[08]殿下其惟天乎愚臣無間然矣噫惟能達天德者爲能語天道
[09] 則臣固不達臣何足語然臣聞天以不息而運化君以體天而
[10] 道成體之如何不誠則無道臣嘗志治久願效之今言不
[11] 信請伏斧鑕臣伏讀
[12]聖策曰自天覆下土止歷言之歟臣圭復再三方寸自激臣窃
[13] 伏念覆冒下土天何言哉兆民寔衆不能自治聰明乃命
[14] 以代其職盖位是天位而非其位也工是天工而非其工也莅天
[15] 位而治天工者其必也體天而出治乎是以古昔帝王克知于此
[16] 體天心之仁而同其仁體天德之健而同其健天心交孚於己
[17] 心天德無間於己德則其所以享天心而保天命者有其道也
[18] 嗚呼無聲臭矣天之妙雖曰難見實無妄矣天之道亦可易
[19] 求苟能加不息之誠而參之於天盡無妄之實而合之於天則享
[20] 誠之天捷於應響而保佑之天申以永年矣若稽於古德莫
[21] 聖矣唐虞也三代也治莫盛矣唐虞也三代也體天之德而配己
[22] 之德則唐虞三代巍、乎爲大降而後世罔畏于天屑播天命
[23] 則其能體天而治安者無幾不克享天而亂亡者相隨可法非
[24] 三代乎可戒非後世乎惟明、
[25]后是法是戒臣伏讀
[26]聖策曰自予以否德止斯獲保佑歟臣圭復再三方寸自激臣伏觀
[27]殿下大得民之歸心斯獲天之眷命天位是莅天工是治願諛
[28] 乎乙丙時保乎夙夜凡所以著於施爲者無一不體乎天
[29]王欲恤民隱而以之體至仁於天
[30]王欲和朝廷而以之體無私於天施賞罰也則春生秋殺
[31]王其思法發號今也則風行水上
[32]王其思法宜乎天之至仁也天之無私也賞罰其天也號令其天也
[33] 而奈之何周鴻鳴澤鄒民填壑
[34]王不克於祇若耶虞庭不協宋朝傾軋
[35]王不克於祇若耶漢賞匪功楚獄多濫
[36]王不克於祇若耶秦令不行周命壅闕
[37]王不克於祇若耶嗚呼發一政而非天駿命難配於上帝有四者
[38] 而疵化維休何望於無彊今夫天之大動以威而變異之
[39] 迭見者盖不多怪也臣窃料
[40]殿下恤斯民之道不純於天之至仁故惠鮮之澤未究

- [41] 殿下正朝著之道不純於天之無私故寅協之風無期施賞用
 [42] 罰之不純於天故失勸懲之宜發號出令之不純於天故
 [43] 有廢閣之患以至敬天之不以誠弭災之不以誠則
 [44] 殿下之於體天之德可謂盡其道乎
 [45] 聖問有曰體之未得其要歟是
 [46] 殿下既已知之矣
 [47] 殿下其自今惕慮而奉若乎噫天人一理上下無間
 [48] 殿下其欲誠心體天則在天之天其有不感於
 [49] 殿下之心之誠乎所謂天德者一而無貳純而不雜合而言
 [50] 之則誠也必也動靜無違表裡交至純亦一心法乾之
 [51] 之健無妄一念體天之運事、而誠之念、而誠之則發於
 [52] 心者無時而非天著於事者無處而非天矣恤民隱而
 [53] 非天之至仁乎正朝廷而非天之無私乎施賞罰而非天
 [54] 之道乎發號令而非天之道乎臣恐此爲享天之道
 [55] 而永世之基也惟
 [56] 明、后尙鑑茲哉臣伏讀
 [57] 聖策曰自子大夫止予將親覽焉臣圭復再三方寸自激
 [58] 臣聞得乎民心則得乎天心天心之得當於何而見之乎
 [59] 觀乎民之欣感而可以知矣然則保乎民而得乎
 [60] 民者亦非體乎天而享乎天之道乎伏願
 [61] 殿下懋哉懋哉臣謹對

□ 現 狀

지정신청 고문서 <張應一文科試券>의 현상은 頭部 數行에 磨滅字가 있으나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에서 자체적으로 배첩 및 보존처리가 되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 內容 및 特徵

지정신청 고문서 <張應一文科試券>은 경상북도 龜尾市 仁義洞 642-2의 仁同張氏 旅軒 張顯光(1554-1637)의 宗宅에 家傳되다가 2004년 종손 장환호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寄託하여 藏書閣이 수장·관리하고 있는 유물이다.

仁同은 慶尙北道 龜尾地域의 古地名으로 旅軒家門은 宣祖朝·光海君朝·仁祖朝의 산림학자 旅軒 張顯光을 현조로 하는 가문으로 인동장씨의 여러 계파 중에서도 가장 현달한 가계의 하나이다. 이들은 仁同에 세거한 뒤 16세기 중후반부터 旅軒이 학자로 대성하면서 嶺南士林의 주요 가문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旅軒 이후로도 張應一(1599-1676), 張龢(1622-1705), 張萬紀(1635-1720) 등의 학자·관료들이 가문의 명성을 계승하였다.

張應一은 자가 經叔이고 호가 聽天堂이다. 증조는 張繼曾(1491-1557)이고 조부는 吏曹判書에 추증된 張烈(1510-1561)이며, 生父는 張顯道이고 生母는 星山李氏이다. 後嗣가 없던 旅軒의 뒤를 이어 家統을 계승하였다. 인조 7(1629)년에 別試文科에 丙科로 及第하고 正言·持平·弼善 등을 역임하였다. 인조 24(1646)년에 獻納으로서 이미 賜死의 명이 내려진 愍懷嬪 姜氏의 救命疏를 9일 동안 계속하여 올리고, 효종이 즉위(1649)하면서 掌書으로 대사간 金慶錄(?-?), 집의 宋浚吉(1606-1672) 등과 함께 勳臣 金自點(1588-1651)의 탐욕과 방자함을 탄핵하였다. 현종 14(1673)년에는 工曹參議로 寧陵의 變의 진상을 밝히려다가 誣告를 당하여 黃澗으로 귀양을 갔으나, 숙종이 즉위(1674)한 뒤에 풀려나 右承旨·副提學·大司諫을 지내고 嘉善大夫에 올랐다. 성격이 청렴하고 강직하였으며, 吏曹判書에 追贈되고 諡號는 文穆이다.

旅軒 宗宅에는 효종 4(1653)년 1월 兵曹에서 折衝將軍 行龍驤衛司直 張應一에게 발급한 祿牌와 숙종 1(1675)년 7월 吏曹에서 通政大夫 禮曹參議 張應一에게 발급한 祿牌 등 張應一과 관련 古文書들도 전래되고 있다.

지정신청 고문서 <張應一文科試券>은 張應一이 인조 7(1629)년에 文科初試에 제출한 試券으로 文體는 對策이다. 張應一이 生員試나 進士試에 入格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인조 7(1629)년의 文科別試에 丙科 1인으로 及第한 사실만 확인되고 있다. 당시의 別試는 明朝의 皇太子 誕生을 축하하기 위하여 設行되었으며, 일명 ‘六百別試’라 하여 京鄕에서 文科 初試에 600인을 시험하였다. 최종적으로 殿試에는 25인이 나아갔는데 試題는 ‘體天之道’이다.

지정신청 고문서 <張應一文科試券>은 3매의 韓紙가 연결된 連接1枚物에 포함 61행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크기는 세로 72.8cm 가로 272.7cm이다. 裏面 1처와 本文面에 誤謬字가 있는 8처 등 포함 9처에 ‘吏曹/之印’(6.7×6.4cm)의 印文이 있으며, 내용은 “君主는 하늘의 道理를 體得하여 그 순리에 따르고 百姓을 矜恤하게 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정신청 고문서 <張應一文科試券>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臣(張應一)은 다음과 같이 對策을 하옵나이다!

하늘은 오롯이 정성을 다하는 이들에게 歆饗를 하시니, 우리 전하(聖后)께서도 그러한 정성으로 下命을 하셨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의 지위(天位)를 어렵게 여기시고 하늘의 마음(天心)을 훤히 내다보시어 한마음의 하늘(一心之天)로 자연의 하늘(在天

之天)을 찾으시며 하늘에 제사하는 정성이 깊고 하늘을 받들어 순종하는 도리가 극진하시니, 하늘의 뜻(天意)에도 그 극진함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하늘의 덕(天德)에도 그 짝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하온대도 오히려 마음으로 만족하지 않아 하시며 이에 “그대들은 朝廷으로 나오라!”고 下命하시어 정녕 하늘을 체득하는 방법을 下問하시고 반복하여 하늘을 체득하는 요체를 下問하셨습니다. 생각하옵건대, 하늘은 위에서 더없이 밝게 존재하고 전하께서는 더없이 화목하게 아래로 임하셨사오니, 전하께서는 늘 하늘이신지라 어리석은 신하들이 사이를 갈라놓을 틈이 없사옵니다.

아아! 天德에 통달한 者라야 天道를 云謂할 수 있는 법인데, 臣은 아직도 天德을 통달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감히 天道를 운위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러하오나 臣은 “하늘은 쉬 없(不息)는 것으로 運行을 이루고 君主는 하늘을 본받는 것(體天)으로 道를 성취한다!”라고 들었사옵니다. 體得은 어떤 것이옵니까? 성실하지 않으면 道가 없을 것이옵니다. 臣은 일찍부터 다스림에 뜻을 두면서 오랫동안 그 효과를 소원하였사운데, 지금 드리는 이 對策이 미덥지 못하시다면 도끼날에 얹어지는 형벌이라도 받겠사옵나이다.

臣이 엿드려 “하늘은 下土를 덮어주고 … 차례대로 말하라!”라고 하신 聖策을 두세 번 반복하여 읽자 오니 마음이 절로 격동하옵니다.

엿드려 생각하옵건대, 下土를 덮어주는 하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사옵니까. 億兆蒼生은 그 수가 너무 많아 스스로 다스릴 수 없으므로 총명한 군주가 이를 명령하여 그 직책을 대신하는 것이오니, 대개 그 지위는 하늘의 지위(天位)이지 군주의 지위가 아니며 그 職任은 하늘이 내린 직임(天工)이지 군주의 직임이 아니옵니다. 이처럼 天位로 天工을 다스리는 이는 반드시 하늘을 체득하여 다스려야 하는 까닭에 옛적의 帝王들은 이를 잘 알아서 天心의 어짐(仁)을 체득하여 그 仁을 함께 하고 天德의 군셈을 체득하여 그 군셈을 함께하였사옵니다. 天心과 전하의 마음이 서로 같고 天德과 전하의 德이 서로 차이가 없다면 天心을 누려 天命을 보전하실 것이오니 그것은 道를 가지신 때문이옵니다.

아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하늘의 현묘함이시여! 비록 보기 어려운 일이라 하나, 실로 거짓이 없다(無妄)면 하늘의 道도 쉽게 구할 수 있사옵니다. 만일 쉽이 없는 성실함에 더하여 하늘에 동참할 수 있고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다하여 하늘에 부합될 수 있다면, 하늘이 그 정성을 흠향함은 메아리보다 빠를 것이며 하늘이 보우하여 긴 세월을 거둬 누리도록 할 것이옵니다. 옛적의 사적을 살피옵건대 德이 더없이 성스러웠던 때는 唐虞(堯舜)와 三代(夏殷周) 때였으며, 정치가 더없이 융성한 때도 唐虞와 三代 때였사옵니다. 天德을 체득하여 자신의 덕과 짝을 이루었던 唐虞와 三代 때에는 위대한 大命이 내려졌으나, 후세의 군주들은 하늘을 두

려위할 줄 모르고 天命도 하찮게 여긴 결과 하늘을 체득하여 다스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군주가 거의 없었으며 하늘을 누리지 못한 채 어지럽게 망한 군주들이 줄을 이었사옵습니다. 그러하오니 본받을 만한 것이 삼대가 아니겠으며 경계할 만한 것이 後世가 아니겠사옵니까! 오직 더없이 밝고 밝으신 전하께서는 이를 본받을 수 있으시고 경계할 수 있으실 것이옵니다.

臣이 “나에게 德이 없으니 … 하늘의 保佑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신 聖策을 두세 번 반복하여 읽자 오니 마음이 절로 격동하옵니다.

엿드려 살피옵건대 전하께서는 진심 어린 백성의 順從을 크게 얻으시고 나아가 하늘이 保佑하는 天命을 얻으셨사옵니다. 天位에서 天工을 다스리시어 늦은 밤에도 돌아보시고 아침저녁으로 보전을 하시옵니다. 무릇 施行하여 드러나는 것은 하늘을 체득하지 않은 것이 없으시어, 전하께서는 백성을 救恤하기 위하여 지극한 어짊(至仁)을 하늘에서 체득하시며 조정을 화목하도록 하고자 사사로움이 없음도 하늘에서 체득하셨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상벌을 시행하실 때도 봄에는 살리고 가을에는 죽이는 법을 본받을 수 있기를 생각하시며, 명령을 내리실 때도 바람이 물위로 불려가는 듯한 법을 본받을 수 있기를 생각하시옵니다. 마땅히 하늘처럼 지극히 어질고 하늘처럼 아무런 사사로움이 없으시므로, 상벌도 하늘이 내리신 것이며 명령도 하늘이 내리신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니 어찌하여야 하겠사옵니까? 周朝의 기러기는 못가에서 울고 鄒朝의 백성들은 죽어 구덩이를 메웠으니, 전하께서는 능히 공경하여 따라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虞庭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였고 宋朝는 갈등만 가득하였으니, 전하께서는 능히 공경하여 따라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漢朝의 상은 공로에 따라 주지 않았고 楚朝의 감옥은 함부로 사용한 적이 많았으니, 전하께서는 능히 공경하여 따라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秦朝의 명령은 실행되지 않고 周朝의 천명은 폐하여졌으니, 전하께서는 능히 공경하여 따라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아아! 한 가지의 政令도 하늘의 큰 명령(駿命)이 아니면 하늘(上帝)의 짝이 되기 어려우며, 모든 백성(四民)을 아름다운 교화로 나아가게 하는데 흠이 되니 어떻게 無彊하기를 바라겠사옵니까? 그러하오니 오늘날 하늘이 위엄으로 크게 警動하여 變異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도 그다지 괴이하지도 않사옵니다.

臣이 헤아리옵건대, 전하께서 백성을 救恤하는 도리가 하늘의 至仁에 純正하지 않아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은택이 지극하지 못하며, 전하께서 조정을 바르게 하는 도리가 하늘의 사사로움 없음에 순정하지 않아 君臣이 함께 공경하는 기풍을 기약할 수 없사옵니다. 상벌을 시행하는 데도 하늘에 순정하지 않아 권선징악의 적절함을 잃어버리시며, 명령을 내리는 데도 하늘에 순정하지 않아 업무를 내버려 두는 근심이 생겨났사옵니다. 심지어 하늘을 공경하는 데도 至誠으로 하지

않으시고 災變을 제거하는 것도 지성으로써 하지 않으시니, 전하께서 하늘의 덕을 체득하는 데에 그 도리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겠사옵니까. 전하의 聖策에 “체득하는 요체를 아직 얻지 못해서겠는가!”라고 下問하셨사오나, 이는 전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이옵나이다. 전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조심하고 염려하며 받들어 순종하여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아아! 하늘과 사람은 한 가지 이치이며, 上下의 사이에는 조금도 틈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시어 하늘을 체득하고자 하신다면 자연의 하늘이 전하의 정성스러운 마음에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이른바 天德은 하나일 뿐 결코 둘이 아니며 순수하여 잡스럽지 않아 이를 합하여 말하면 誠이며, 반드시 動靜에 어긋남이 없고 表裏가 서로 至純하실 것이옵니다. 또 하나의 心法은 乾의 굳셈(健)이며 거짓이 없는 일념은 하늘의 운행을 체현하는 것이니, 모든 일과 모든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신다면 마음에서 말하는 것이 하늘의 때가 아님이 없사오며 일에서 드러나는 것도 하늘의 장소가 아님이 없을 것이옵니다. 백성을 구휼하는 데도 하늘의 至仁이 아니겠으며 조정을 바르게 하는 데도 하늘의 사사로움이 없음이 아니겠사옵니까? 상벌을 시행하는 데도 하늘의 도가 아니겠으며 명령을 내리는 데도 하늘의 도가 아니겠사옵니까? 신은 이러한 것이야말로 하늘을 흠향하게 하는 도리이며 대대로 永續하도록 하는 기틀이라 생각하옵니다. 밝고도 밝으신 전하시어! 이러한 점들을 살피 주시옵소서!

臣이 엎드려 “그대 대부들이여 … 내가 장차 친히 볼 것이니라!”라고 하신 聖策을 두세 번 반복하여 읽자 오니 마음이 절로 격동하옵니다.

臣은 “民心을 얻는 것은 天心을 얻는 것”이라 들었사옵나이다. 天心을 얻었다는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사옵니까. 백성들의 喜怒哀樂을 보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니 백성을 보호하여 백성을 얻는 것도 역시 하늘을 체득하여 하늘을 흠향하도록 하는 도가 아니겠사옵니까! 전하께서는 이러한 점에 힘쓰시고 또 힘쓰실 것을 엎드려 바라옵나이다!

臣은 삼가 이상과 같이 對策을 드리옵나이다.

이상과 같이 지정신청 고문서 <張應一文科試券>는 ‘體天之道’에 관하여 “君主는 하늘의 道理를 體得하여 그 순리에 따르고 百姓을 矜恤하게 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우수한 대책으로 조선시대 試券 및 古文書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나, 그 작성의 시기가 인조 7(1629)년의 文科初試의 試券에 지나지 않고 작성자의 명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방유형문화재의 지정을 권고하여 보존·관리하는 편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文獻資料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古文書集成」 79 - 仁同張氏 旅軒宗宅篇.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試券」.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其 他 (소장 경위 등)

지정신청 고문서 <張應一文科試券>은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642-2의 仁同張氏 旅軒宗宅에 家傳되다가 2004년에 종손 장환호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寄託하여 藏書閣이 수장·관리하고 있다.

현재 지정신청 고문서 <張應一文科試券>과 유사한 시권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현 상

서지목록기술 * 목록작성 기준 : 한국목록규칙 제4판, 한국도서관협회, 2003

試券 / 張應一(1599-1676) 寫 -- 筆寫本. -- [發行地不明] : [發行者不明], [仁祖 7(1629)].

1張 : 61行字數不定 ; 72.8 × 272.7 cm

楮紙

印文: 吏曹之印

連接: 제1장(69.8cm), 제2장(101.0cm), 제3장(101.9cm)

○ 내용 및 특징

지정 신청 고문서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었던 장응일(張應一, 1599~1676)이 인조 7(1629)년에 문과초시(文科初試)에 제출한 시권(試券)이다. 장응일의 본관은 인동(仁同)이며 자는 경숙(經叔), 호는 청천당(聽天堂)이다. 장계증(張繼曾)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증 이조판서 장열(張烈)이고, 아버지는 장현도(張顯道)이며, 어머니는 정괄(鄭适)의 딸이다. 아들이 없었던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에게

입양되었다. 1629년(인조 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정언·지평·필선 등을 역임하였다. 1646년 헌납으로 있을 때, 이미 사사(賜死)의 명이 내려진 민회빈(愍懷嬪) 강씨(姜氏)의 구명소(救命疏)를 9일 동안 계속하여 올렸고, 1649년 장령으로 대사간 김경록(金慶錄), 집의 송준길(宋浚吉) 등과 함께 훈신 김자점(金自點)의 탐욕, 방자함을 탄핵하였다. 1673년 공조참의로 영릉(寧陵)의 변(變)의 진상을 밝히려 하다가 무고를 당하여 황간에 귀양을 가기도 하였다. 그 뒤 숙종이 즉위한 뒤에 풀려나 우승지·부제학·대사간을 지내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청렴 강직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인동(仁同)은 경상북도 구미 지역의 옛 지명으로 여헌 가문은 선조~인조조의 산림학자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을 현조로 하는 가문이다. 특히 16세기 중후반부터 여헌이 학자로 대성하면서 영남 사림의 주요 가문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다질 수 있었으며 여헌 이후에도 장응일(張應一), 장영(張兪, 1622-1705), 장만기(張萬紀, 1635-1720) 등이 학자와 관료로 가문을 이어나갔다.

장응일은 인조 7년인 1629년 문과 별시에 병과(丙科) 1인으로 급제하였는데 당시 별시는 명나라의 황태자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실시되었고 이때 시제(試題)는 ‘體天之道’였다. 장응일은 대책문에서 ‘군주(君主)는 하늘의 도리(道理)를 체득(體得)하여 그 순리에 따르고 백성(百姓)을 공휼(矜恤)하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정신청 고문서는 형태적으로는 3장의 종이를 연결하여 61행으로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 일부가 결락되어 완전한 형태는 아니나 비교적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현존하는 시권 중 문과시권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시기적으로도 임란이전의 고문서이며 여헌 문중의 자료임을 감안하여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권 한 점만을 지정하기 보다는 장응일에게 발급된 녹패나 교지 등 관련 문서를 함께 지정하는 것이 향후 문화재의 보존이나 고문서 연구에 있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히 여헌종택에는 1653년 1월 병조(兵曹)에서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사직(行龍驤衛司直) 장응일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와 1675년 7월 이조(吏曹)에서 통정대부(通政大夫) 예조참의(禮曹參議) 장응일에게 발급한 녹패 등 장응일 관련 고문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이들 고문서를 일괄 재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기타사항

지정 신청 고문서는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642-2의 인동장씨 여헌종택에 가전(家傳)되다 2004년 종손 장환호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탁하였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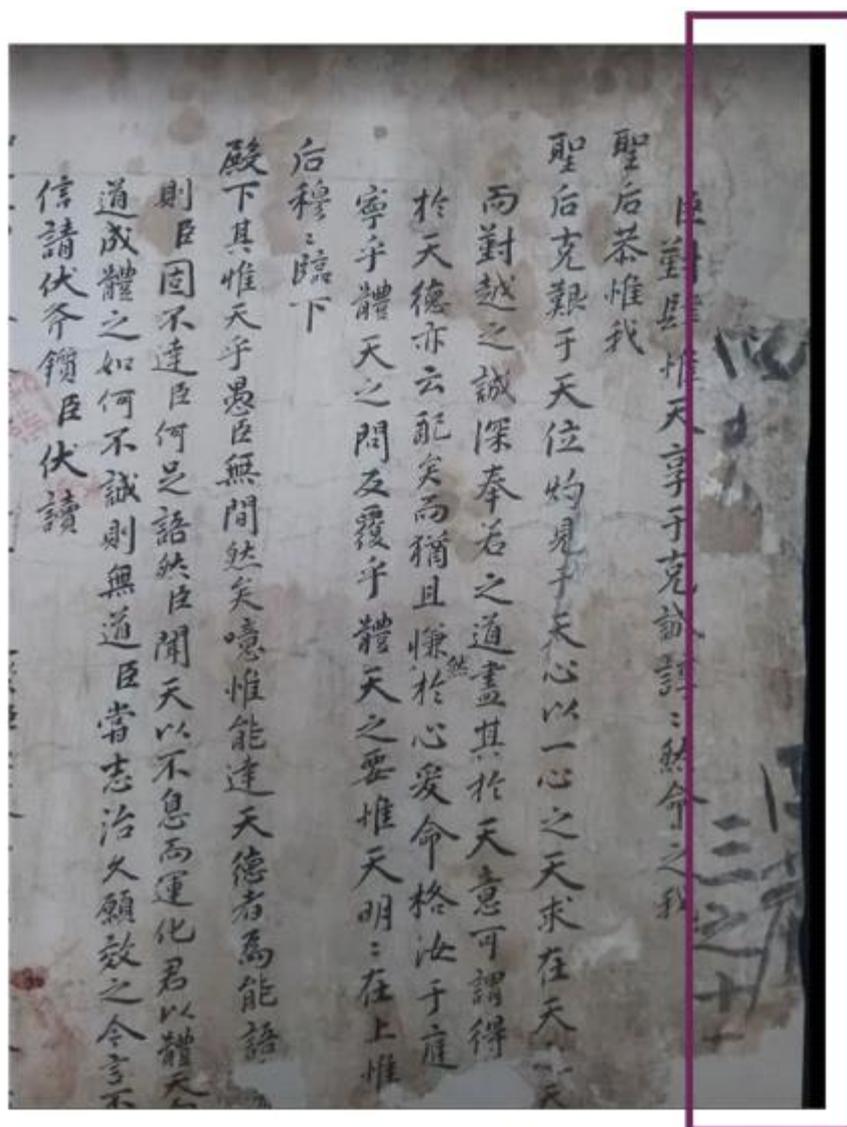
한국학중앙연구원(2005), 『古文書集成』 79-仁同張氏 旅軒宗宅篇

한국학중앙연구원(2015), 『試券』

김동석(2015), 「조선시대 문반 시권의 형태와 작성」, 『試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자료 사진

오른쪽 일부 결락



□

○ 書誌事項

文科試券 / 張應一(1599~1676) 對策.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筆寫者不明], [仁祖 7(1629) 推定].

連接1枚物(3枚連接) : 61行 字數不定 ; 72.8×272.7cm. 楮紙. 連接1枚物(補修).

印 文: 吏曹/之印(6.7×6.4cm, 裏面 1處, 本文面 誤謬字8處)

連 接: 제1장(69.8cm), 제2장(101.0cm), 제3장(101.9cm)

○ 現 狀

조사본은 인동장씨(仁同張氏) 여헌종택(旅軒宗宅, 경북 구미시 인의동 642-2)에 가전(家傳)되다가 2004년 종손 장환호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권은 문서의 앞부분 하단이 일부 결실되었고, 여러 행에 걸쳐 마멸된 글자들이 확인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 內 容 및 特 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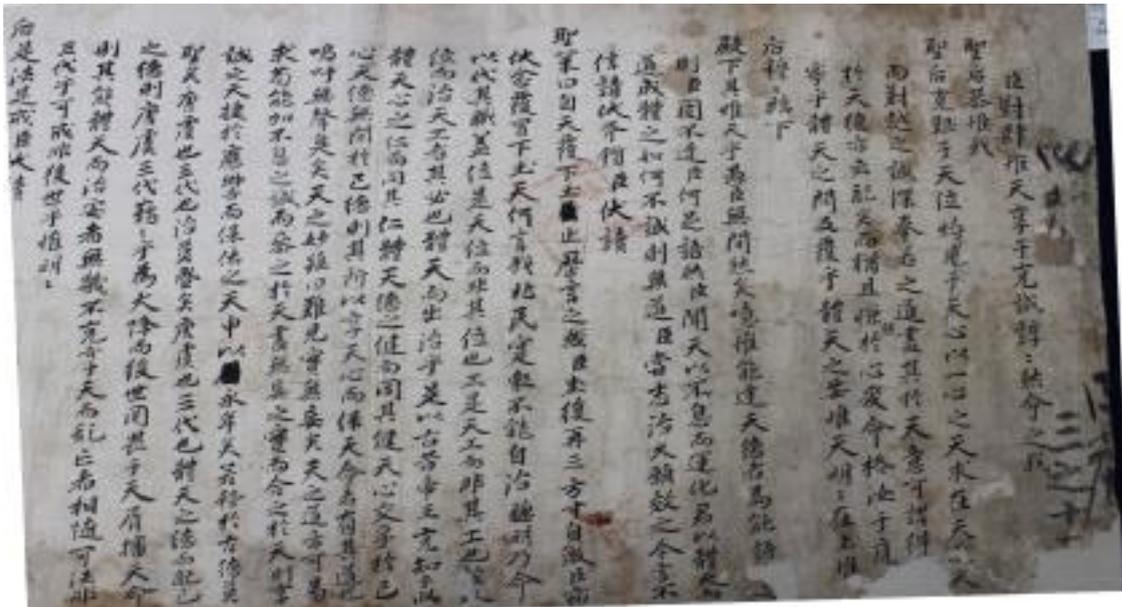
지정신청 고문서 『장응일 문과 시권(張應一文科試券)』은 1629년(인조7, 崇禎2)에

별시문과에 제출된 시권(試券)이다. 당시의 별시(別試)는 명조(明朝)의 황태자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설행되었는데, 9월 6일 정축(丁丑)에 서울과 지방을 통틀어 600인을 뽑았다. 당시 초장(初場)에는 부(賦)와 표(表)를, 종장(終場)에는 책문(策問)을 가지고 시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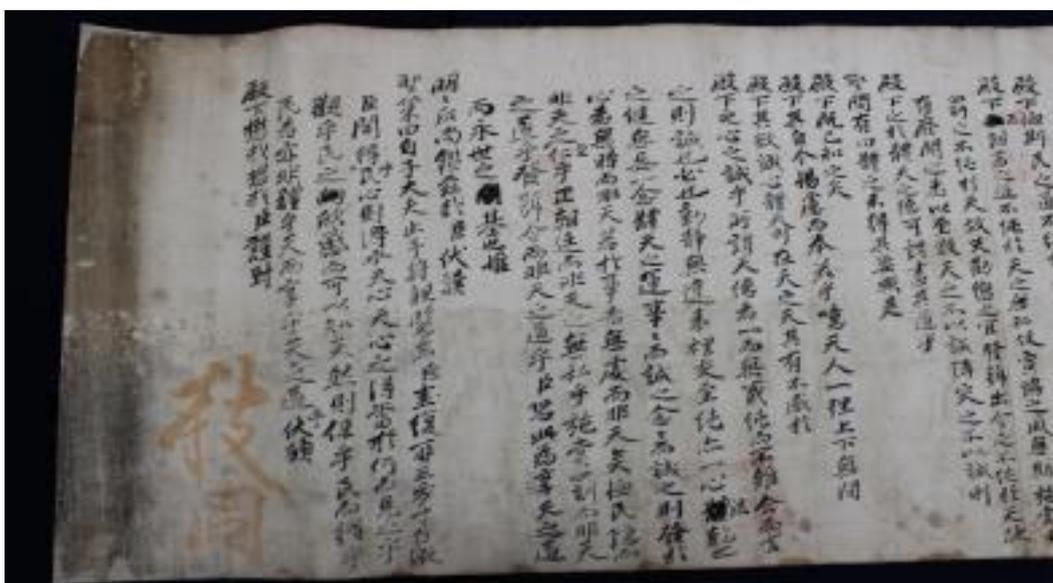
장응일(張應一, 1599~1676)은 자가 경숙(經叔), 호가 청천당(聽天堂)이다. 장계증(張繼曾)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증 이조판서 장열(張烈), 아버지는 현도(顯道)이며 어머니는 정괄(鄭适)의 딸이다. 1629년의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정언·지평·필선 등을 역임하였다. 1646년 헌납으로 있을 때, 이미 사사(賜死)의 명이 내려진 민회빈(愍懷嬪) 강씨(姜氏)의 구명소(救命疏)를 9일 동안 계속하여 올렸고, 1649년 장령으로 대사간 김경록(金慶錄), 집의 송준길(宋浚吉) 등과 함께 훈신 김자점(金自點)의 탐욕, 방자함을 탄핵하였다. 1673년 공조참의로 영릉(寧陵)의 변(變)의 진상을 밝히려 하다가 무고를 당하여 황간에 귀양갔다. 그 뒤 숙종이 즉위한 뒤에 풀려나 우승지·부제학·대사간을 지내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성격이 청렴 강직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조사본 『장응일 문과 시권(張應一文科試券)』은 본래 여헌종택(旅軒宗宅)에 소장되어 있다가 2004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 보관되었는데, 종택에는 현재 1653년(효종4)년 1월 병조에서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行龍驤衛) 사직(司直) 장응일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와 1675년(숙종1)년 7월 이조에서 통정대부(通政大夫) 예조참의(禮曹參議) 장응일에게 발급한 녹패 등 관련 문서들이 전하고 있다.

조사본 『장응일 문과 시권(張應一文科試券)』은 한지가 연접된 상태로서 문장은 모두 61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크기는 세로 72.8cm 가로 272.7cm이다. 작성자의 성명과 나이, 본관, 거주지 그리고 사조(四祖)의 직역과 성명 등을 적은 비봉(秘封) 부분은 현전하지 않는다.



본체부(本體部, 답안지)의 우측과 작성자의 인적 사항이 기록된 피봉부(皮封部)의 절취선에 ‘사장(四藏)’라는 자호(字號)가 상하로 묵서되었고, 하단의 자호 옆에 ‘삼지십일(三之十一)’이라는 시험 성적이 적혀 있어 병과 제11인으로 급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답안지에는 오류자(誤謬字)가 있는 8곳과 시권의 뒷면 1곳 등 모두 9곳에 ‘吏曹/之印’(6.7×6.4cm)의 인문(印文)이 찍혀 있다. 한편 답안의 말미에 주서(朱書)로 ‘지동(枝同)’이라고 적혀 있어, 이 시권은 과장에서 제출된 이후 시권(試券)과 역서(易書)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는 지동관(枝同官)의 심사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답안의 내용은 ‘체천지요(體天之要)’를 묻는 것에 맞추어 “군주는 하늘의 도리를 체득(體得)하여 그 순리에 따르고 백성을 긍휼(矜恤)하게 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답안의 서술 중에는 상례적으로 사용되었던 ‘신복독(臣伏讀)’·‘공유(恭惟)’·‘근대(謹對)’ 등의 문자가 확인된다.

조사본 『장응일 문과 시권(張應一文科試券)』의 원문과 역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원문)

- [01] 臣對肆惟天享于克誠諄諄然命之我
[02] 聖后恭惟我
[03] 聖后克艱于天位灼見于天心以一心之天求在天之天
[04] 而對越之誠深奉若之道盡其於天意可謂得[其]
[05] 於天德亦云配矣而猶且慊然於心爰命格汝于庭[丁]
[06] 寧乎體天之問反覆乎體天之要惟天明明在上惟
[07] 后穆穆臨下
[08] 殿下其惟天乎愚臣無間然矣噫惟能達天德者爲能語[天]道
[09] 則臣固不達臣何足語然臣聞天以不息而運化君以體天而
[10] 道成體之如何不誠則無道臣嘗志治久願效之今言不
[11] 信請伏斧鑕臣伏讀
[12] 聖策曰自天覆下土止歷言之歟臣圭復再三方寸自激臣竊
[13] 伏念覆冒下土天何言哉兆民寔衆不能自治聰明乃命
[14] 以代其職盖位是天位而非其位也工是天工而非其工也[莅]天
[15] 位而治天工者其必也體天而出治乎是以古昔帝王克知于此
[16] 體天心之仁而同其仁體天德之健而同其健天心交孚於己
[17] 心天德無間於己德則其所以享天心而保天命者有其道也
[18] 嗚呼無聲臭矣天之妙雖曰難見實無妄矣天之道亦可易
[19] 求苟能加不息之誠而參之於天盡無妄之實而合之於天則享
[20] 誠之天捷於應響而保佑之天申以永年矣若稽於古德莫
[21] 聖矣唐虞也三代也治莫盛矣唐虞也三代也體天之德而配己
[22] 之德則唐虞三代巍巍乎爲大降而後世罔畏于天屑播天命
[23] 則其能體天而治安者無幾不克享天而亂亡者相隨可法非
[24] 三代乎可戒非後世乎惟明明
[25] 后是法是戒臣伏讀
[26] 聖策曰自予以否德止斯獲保佑歟臣圭復再三方寸自激臣伏觀
[27] 殿下大得民之歸心斯獲天之眷命天位是莅天工是治顧諟
[28] 乎乙丙時保乎夙夜凡所以著於施爲者無一不體乎天

- [29]王欲恤民隱而以之體至仁於天
- [30]王欲和朝廷而以之體無私於天施賞罰也則春生秋殺
- [31]王其思法發號令也則風行水上
- [32]王其思法宜乎天之至仁也天之無私也賞罰其天也號令其天也
- [33] 而奈之何周鴻鳴澤鄒民填壑
- [34]王不克於祗若耶虞庭不協宋朝傾軋
- [35]王不克於祗若耶漢賞匪功楚獄多濫
- [36]王不克於祗若耶秦令不行周命壅闕
- [37]王不克於祗若耶嗚呼發一政而非天駿命難配於上帝有四者
- [38] 而疵化維休何望於無疆今夫天之大動以威而變異之
- [39] 迭見者蓋不多怪也臣竊料
- [40]殿下恤斯民之道不純於天之至仁故惠鮮之澤未究
- [41]殿下正朝著之道不純於天之無私故寅協之風無期施賞用
- [42] 罰之不純於天故失勸懲之宜發號出令之不純於天故
- [43] 有廢閣之患以至敬天之不以誠弭災之不以誠則
- [44]殿下之於體天之德可謂盡其道乎
- [45]聖問有曰體之未得其要歟是
- [46]殿下既已知之矣
- [47]殿下其自今惕慮而奉若乎噫天人一理上下無間
- [48]殿下其欲誠心體天則在天之天其有不感於
- [49]殿下之心之誠乎所謂天德者一而無貳純而不雜合而言
- [50] 之則誠也必也動靜無違表裡交至純亦一心法乾之
- [51] 之健無妄一念體天之運事事而誠之念念而誠之則發於
- [52] 心者無時而非天著於事者無處而非天矣恤民隱而
- [53] 非天之至仁乎正朝廷而非天之無私乎施賞罰而非天
- [54] 之道乎發號令而非天之道乎臣恐此為享天之道
- [55] 而永世之基也惟
- [56]明明后尚鑑茲哉臣伏讀
- [57]聖策曰自子大夫止予將親覽焉臣圭復再三方寸自激
- [58] 臣聞得乎民心則得乎天心天心之得當於何而見之乎
- [59] 觀乎民之欣感而可以知矣然則保乎民而得乎
- [60] 民者亦非體乎天而享乎天之道乎伏願
- [61]殿下懋哉懋哉臣謹對

(역문)

臣은 다음과 같이 대책(對策)을 하옵나이다! 하늘은 오롯이 정성을 다하는 이들에게 흠향하시어 간곡한 뜻으로 우리 전하(聖后)에게 천명(天命)을 내리셨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의 지위(天位)를 어렵게 여기시고 하늘의 마음(天心)을 훤히 내다보시어 한마음의 하늘(一心之天)로 자연의 하늘(在天之天)을 찾으시며 하늘에 제사하는 정성이 깊고 하늘을 받들어 순종하는 도리가 극진하시니, 하늘의 뜻(天意)에도 그 극진함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하늘의 덕(天德)에도 그 짝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하온대도 오히려 마음으로 만족하지 않아 하시며 이에 “그대들은 조정(朝庭)으로 나오라!”고 하명하시어 정녕 하늘을 체득하는 방법을 하문하시고 반복하여 하늘을 체득하는 요체를 하문하셨습니다. 생각하옵건대, 하늘은 위에서 더없이 밝게 존재하고 전하께서는 더없이 화목하게 아래로 임하셨사오니,

전하께서는 늘 하늘이신지라 어리석은 신하들이 사이를 갈라놓을 틈이 없사옵니다. 아아! 천덕(天德)에 통달한 자라야 천도(天道)를 말할 수 있는 법인데, 신은 아직도 천덕을 통달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감히 천도를 말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러하오니 신은 “하늘은 쉬 없(不息)는 것으로 운행(運行)을 이루고 군주는 하늘을 본받는 것(體天)으로 도(道)를 성취한다!”라고 들었사옵니다. 체득(體得)은 어떤 것이옵니까? 성실하지 않으면 도가 없을 것이옵니다. 신은 일찍부터 다스림에 뜻을 두면서 오랫동안 그 효과를 소원하였사운데, 지금 드리는 이 대책(對策)이 미답지 못하시다면 도끼날에 얹어지는 형벌이라도 받겠사옵나이다.

신이 엿드려 성책(聖策)에서 말씀하신 “하늘은 하토(下土)를 덮어주고 … 차례대로 말하라!”라고 하신 것을 두세 번 반복하여 읽자 오니 마음이 절로 격동하옵니다. 엿드려 생각하옵건대, 하토(下土)를 덮어주는 하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사옵니까. 억조창생(億兆蒼生)은 그 수가 너무 많아 스스로 다스릴 수 없으므로 총명한 군주가 이를 명 받아 그 직책을 대신하는 것이오니, 대개 그 지위는 하늘의 지위(天位)이지 군주의 지위가 아니며 그 공(工)은 하늘이 내린 직임(天工)이지 군주의 직임이 아니옵니다. 이처럼 천위(天位)로 천공(天工)을 다스리는 이는 반드시 하늘을 체득하여 다스려야 하는 까닭에 옛적의 제왕들은 이를 잘 알아서 천심(天心)의 어짐(仁)을 체득하여 그 인(仁)을 함께 하고 천덕(天德)의 군셈을 체득하여 그 군셈을 함께하였사옵니다. 천심(天心)과 전하의 마음이 서로 같고 천덕(天德)과 전하의 덕(德)이 서로 차이가 없다면 천심(天心)을 누려 천명(天命)을 보전하실 것이오니 그것은 도(道)를 가지신 때문이옵니다.

아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하늘의 현묘함이시여! 비록 보기 어려운 일이라 하나, 실로 거짓이 없다(無妄)면 하늘의 道도 쉽게 구할 수 있사옵니다. 만일 쉽이 없는 성실함에 더하여 하늘에 동참할 수 있고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다하여 하늘

에 부합될 수 있다면, 하늘이 그 정성을 흠향함은 메아리보다 빠를 것이며 하늘이 보우하여 긴 세월을 거둬 누리도록 할 것이옵니다. 옛적의 사적을 살펴옵건대 덕이 더없이 성스러웠던 때는 당우(唐虞, 堯舜)와 삼대(三代, 夏殷周) 때였으며, 정치가 더없이 융성한 때도 당우와 삼대 때였사옵니다. 천덕을 체득하여 자신의 덕과 짝을 이루었던 당우와 삼대 때에는 위대한 대명(大命)이 내려졌으나, 후세의 군주들은 하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천명(天命)도 하찮게 여긴 결과 하늘을 체득하여 다스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군주가 거의 없었으며 하늘을 누리지 못한 채 어지럽게 망한 군주들이 줄을 이었사옵니다. 그러하오니 본받을 만한 것이 삼대가 아니겠으며 경계할 만한 것이 후세가 아니겠사옵니까! 오직 더없이 밝고 밝으신 전하께서는 이를 본받을 수 있으시고 경계할 수 있으실 것이옵니다.

신이 “나에게 덕이 없으니 … 하늘의 보우(保佑)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신 성책(聖策)을 두세 번 반복하여 읽자 오니 마음이 절로 격동하옵니다. 앞드려 살펴

피옵건대
전하께서는 진심 어린 백성의 순종(順從)을 크게 얻으시고 나아가 하늘이 보우하는 천명을 얻으셨사옵니다. 천위(天位)에서 천공(天工)을 다스리시어 늦은 밤에도 돌아보시고 아침저녁으로 보전을 하시옵니다. 무릇 시행하여 드러나는 것은 하늘을 체득하지 않은 것이 없으시어, 전하께서는 백성을 구휼하기 위하여 지극한 어짘(至仁)을 하늘에서 체득하시며, 조정을 화목하도록 하고자 사사로움이 없음도 하늘에서 체득하셨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상벌을 시행하실 때도 봄에는 살리고 가을에는 죽이는 법을 본받을 수 있기를 생각하시며, 명령을 내리실 때도 바람이 물위로 불려가는 듯한 법을 본받을 수 있기를 생각하시옵니다.

마땅히 하늘처럼 지극히 어질고 하늘처럼 아무런 사사로움이 없으시므로, 상벌도 하늘이 내리신 것이며 명령도 하늘이 내리신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니 어찌하여야 하겠사옵니까? 주조(周朝)의 기러기는 못가에서 울고 추조(鄒朝)의 백성들은 죽어 구덩이를 메웠으니, 전하께서는 능히 공경하여 따라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우정(虞庭)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였고 송조(宋朝)는 갈등만 가득하였으니, 전하께서는 능히 공경하여 따라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한조(漢朝)의 상은 공로에 따라 주지 않았고 초조(楚朝)의 감옥은 함부로 사용한 적이 많았으니, 전하께서는 능히 공경하여 따라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진조(秦朝)의 명령은 실행되지 않고 주조(周朝)의 천명은 폐하여졌으니, 전하께서는 능히 공경하여 따라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아아! 한 가지의 정령(政令)도 하늘의 큰 명령(駿命)이 아니면 하늘(上帝)의 짝이 되기 어려우며, 모든 백성(四民)을 아름다운 교화로 나아가게 하는데 흠이 되니 어떻게 무강하기를 바라겠사옵니까? 그러하오니 오늘날 하늘이 위엄으로 크게 경동(警動)하여 변이(變異)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도 그다지 괴이하지도 않사옵니다. 신이 헤아리옵건대,

전하께서 백성을 구휼하는 도리가 하늘의 지인(至仁)에 순정(純正)하지 않아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가 지극하지 못하며, 전하께서 조정을 바르게 하는 도리가 하늘의 사사로움 없음에 순정하지 않아 군신이 함께 공경하는 기풍을 기약할 수 없사옵습니다. 상벌을 시행하는 데도 하늘에 순정하지 않아 권선징악의 적절함을 잃어버리시며, 명령을 내리는 데도 하늘에 순정하지 않아 업무를 내버려두는 근심이 생겨났사옵습니다. 심지어 하늘을 공경하는 데도 지성(至誠)으로 하지 않으시고 재변(災變)을 제거하는 것도 지성으로써 하지 않으시니,

전하께서 하늘의 덕을 체득하는 데에 그 도리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겠사옵니까. 전하의 성책에 “체득하는 요체를 아직 얻지 못해서겠는가!”라고 하문하셨사오나, 이는 전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이옵나이다. 전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조심하고 염려하며 받들어 순종하여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아아! 하늘과 사람은 한 가지 이치이며, 상하의 사이에는 조금도 틈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시어 하늘을 체득하고자 하신다면 자연의 하늘이 전하의 정성스러운 마음에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이른바 천덕은 하나일 뿐 결코 둘이 아니며 순수하여 잡스럽지 않아 이를 합하여 말하면 성(誠)이며, 반드시 동정(動靜)에 어긋남이 없고 표리(表裏)가 서로 지순(至純)하실 것이옵니다. 또 하나의 심법(心法)은 건(乾)의 굳셈(健)이며 거짓이 없는 일념은 하늘의 운행을 체현하는 것이니, 모든 일과 모든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신다면 마음에서 발하는 것이 하늘의 때가 아님이 없사오며 일에서 드러나는 것도 하늘의 장소가 아님이 없을 것이옵니다. 백성을 구휼하는 데도 하늘의 지인(至仁)이 아니겠으며 조정을 바르게 하는 데도 하늘의 사사로움이 없음이 아니겠사옵니까? 상벌을 시행하는 데도 하늘의 도가 아니겠으며 명령을 내리는 데도 하늘의 도가 아니겠사옵니까? 신은 이러한 것이야말로 하늘을 흠향하게 하는 도리이며 대대로 영속(永續)하도록 하는 기틀이라 생각하옵습니다. 밝고도 밝으신 전하시여! 이러한 점들을 살피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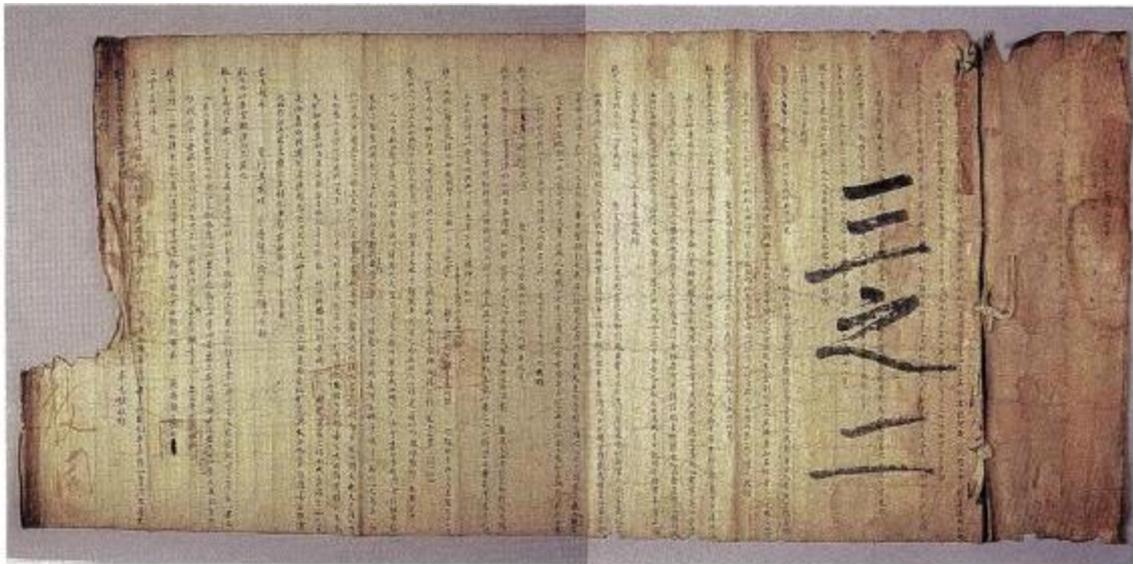
신이 엎드려 “그대 대부들이여 … 내가 장차 친히 볼 것이니라!”라고 하신 성책을 두세 번 반복하여 읽자 오니 마음이 절로 격동하옵니다.

신은 “민심(民心)을 얻는 것은 천심(天心)을 얻는 것”이라 들었사옵습니다. 천심을 얻었다는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사옵니까. 백성들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보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니 백성을 보호하여 백성을 얻는 것도 역시 하늘을 체득하여 하늘을 흠향하도록 하는 도가 아니겠사옵니까! 전하께서는 이러한 점에 힘쓰시고 또 힘쓰실 것을 엎드려 바라옵나이다!

신은 삼가 이상과 같이 대책(對策)을 드리옵나이다.

조사본 『장응일 문과 시권(張應一文科試券)』은 1629년에 작성된 별시문과에 제출된 시권으로 고문서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시권으로서 보물로 지

정된 사례는 보물 제901호 권벌 종가 고문서(權機宗家古文書) 가운데 확인되는 1507년(중종2, 正德2年)에 문과 병과 제2인으로 급제한 대책문 시권(對策文試券)을 포함한 20점, 보물 제876-6호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소장 고문서-시권 에 속하는 가운데 1609년(광해군1, 萬曆37年) 문과 병과 제15인으로 급제한 시권을 포함한 4 점, 보물 제906호 김성일 종가 고문서(金誠一 宗家 古文書) 가운데 확인되는 1568년 (선조1, 隆慶2年)에 문과 병과 제23인으로 급제한 대책문 시권(對策文試券)을 포함 한 7점 등과 같이 일괄 문서들이 확인된다. 시권으로서 단독 지정된 사례는 없다.



試券(4-①)

權機 對策文 試券 (1507년, 중종2, 正德2年) / 문과 병과 제2인 급제

○ 文獻資料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 79-仁同張氏 旅軒宗宅篇, 200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試券』, 2015년.

김동석, 「조선시대 문반 시권의 형태와 작성」, 『試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년.

○ 指定事例

보물 제901호 권벌 종가 고문서(權機宗家古文書) (1986.11.29. 지정)

보물 제876-6호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소장 고문서-시권(載寧李氏寧海派宗家古文書-試卷)(1986.10.15. 지정)

보물 제906호 김성일 종가 고문서(金誠一 宗家 古文書)(1987.03.07. 지정)

보물 제942호 황진가 고문서(黃進家 古文書)(1987.12.26. 지정)

18.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 (龜尾 大菴寺 三藏菩薩圖)

가. 검토사항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결과물 중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4.6.14)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8.8.27) 및 과학조사(’18.11.19~’18.11.2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龜尾 大菴寺 三藏菩薩圖)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둔사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090
- 수 량 : 1폭
- 규 격 : 238.0×279.0cm
- 재 질 : 견본채색
- 형 식 : 나무액자
- 조성연대 : 1740년(영조 16)

라. 조사자 검토 의견

(지정 가치 있음)

대둔사 삼장보살도는 1740년에 영산회상도, 제석도, 현왕도, 아미타불도와 함께 조

성되어 대법당에 봉안되었던 작품으로, 화승 月輪, 致欽, 雨平이 조성하였다. 세로 238cm, 가로 279cm의 대규모 화면에 천장보살과 지지보살, 지장보살 등 세 보살의 회상을 묘사하였는데, 천장보살을 중심으로 높은 수미단 위에 결가부좌한 세 보살과 각각의 권속이 질서 정연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배치되었다. 이 삼장보살도는 유려하면서도 세련된 필치와 정연한 구도, 적색과 녹색이 중심이 된 안정감 있는 색감 등에서 18세기 전반 불화의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1년 후에 조성된 남장사 삼장보살도(1741년)와 함께 18세기 전반 경상북도 지역 삼장보살도의 도상에 기준작이 되는 작품이다. 또한 세 보살과 함께 표현된 협시 및 권속들은 당시 대표적인 수록재의식집인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등에 의거하여 표현되었는데, 일부 권속들은 화승 나름대로 변용하여 도상에 반영함으로써 18세기 삼장보살도의 새로운 도상을 창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단에는 불화의 조성과 관련된 장문의 화기가 잘 남아있어, 18세기 전반 삼장보살도 조성에 참여했던 연화질과 시주질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

□(지정 가치 있음)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는 직지사를 거점으로 활동한 화승 月輪이 雨平과 함께 1740년에 제작하여 대둔사 대웅전에 봉안하였다는 화기를 분명히 남기고 있어 18세기 전반기 삼장보살도 도상 및 양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蟲害 등으로 인한 바탕천의 손상과 안료의 박락 등 전반적인 작품의 상태가 시급한 보존처리를 요망하고 있지만 세련된 필치로 묘사된 존상의 적정한 신체 비례와 세부 형태, 적록을 적절히 사용하여 안정되고 밝은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색감 등은 이 작품을 그린 화승의 기량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조선후기 화기에 기록된 출초화사 가운데 최초의 화승인 월륜이 그린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사료적인 가치는 충분하다.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는 18세기 삼장보살도 중 시기적으로 비교적 앞서고 화면의 구성, 존상을 표현한 화승의 기량,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직지사 화승의 교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인정된다. 시대적 양식과 작가의 미감으로 종교화로서 숭고함과 장엄함을 잘 표현하고 있어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충해, 오물, 안료 박락, 바탕질 꺾임현상 등 전체적으로 손상부위가 넓어 지정 이후 시급한 수리보수 작업이 요망된다.

□(지정 가치 있음)

대둔사 삼장보살도는 함께 제작된 것으로 나머지는 현존하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작품이다. 수화승 월륜은 직지사도 근거지로 활약한 世冠 流派의 주요 화승으로 파악되며, 초반에는 세관의 밑에서 보조화승으로 주로 참여하며 실력을 키워나갔던 畫僧이다. 이 작품은 월륜이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한 첫 번째 작품이다. 구도, 필선, 인물의 묘사 등은 스승 세관의 화풍을 잘 이어받았고 구도나 세부 표현에서는 月輪만의 개성도 엿볼 수 있다.

이 삼장보살도는 1661년에 간행된 『오종범음집』을 근거로 도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조선 후기 삼장보살도 도상연구에 기준 작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16세기 이전으로 올라가는 작품들은 대체로 일본 등 해외에 유존하고 있고, 그나마 17, 18세기 초에 제작된 석탑사 삼장보살도(1699)나 대구 파계사 삼장보살도(1707년)조차 도난으로 그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18세기 전반기의 연대를 가진 삼장보살도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삼장보살도는 대구 동화사 삼장보살도(1728년, 수화승 義均, 보물 제1772호),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1727년, 수화승 白基, 보물 제1885),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1776년, 수화승 華連, 보물 제1888호),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1739년, 수화승 密機, 보물 제1933호),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1767년, 작자미상, 보물 제1958호)이다. 이들은 모두 화승 개개의 개성과 특징, 그리고 당시의 시대성과 작품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들이며, 도상적으로도 중요한 작품들이다. 대둔사 삼장보살도 역시 月輪의 화풍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어서 18세기 전반기 불화연구 및 경북 지역 삼장보살도 도상 연구에 기준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회화사적 의의가 크다.

물론 화면 곳곳에 변색과 찢어짐, 산화가 확인되고, 안료의 박락과 박리 등이 진행되어 보존 상태가 썩 좋지 못한 편이지만 화면의 구도와 필력, 인물의 묘사력, 색채감각 등은 당시의 수준 높은 화격을 잘 갖추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대둔사 삼장보살도는 작가의 역량과 시대적 미의식 등이 잘 어우러진 우수한 불화로 볼 수 있고, 경북지역에서 일가를 이룬 卓輝, 性澄, 世冠, 月輪으로 계승되는 세관 유파의 畫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마. 의결사항

- 보 류 : 함께 일괄 제작된 불화 사례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

조사보고서

□

○ 현 상

대둔사 삼장보살도는 대웅전의 북벽 향우측 벽에 봉안되어 있다. 원래의 형태는 족자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유리액자로 표구되어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유리액자 형태로 봉안되어서인지 통풍이 잘 되지 않아 화면 전면에 걸쳐 곰팡이로 인한 폐해가 확인되다. 바탕이 찢어져 배접이 드러난 부분이 있으며, 안료의 박락과 변색 및 화면의 꺾임 등이 심하고, 촛농에 의한 오염 등으로 인해 보존 상태가 좋지 않다. 특히 하단부분은 오랫동안 불단에 가려져 있었던 듯 검게 변색되고 바탕이 떨어져 나갔다. 화면전체에 걸쳐서 광택으로 인해 번들거리는 현상이 보이는데, 이것은 과거 보존처리 시에 안료의 안정화를 위해 아교를 포수했던 흔



도1. 대둔사 삼장보살도, 1740년, 삼베바탕에 채색, 238cmX279cm, 경상북도 구미 대둔사 대웅전

적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봉안된 벽의 규모에 맞추어 액자들을 제작하여 무리하게 장황함으로서 불화의 사방 가장자리 부분이 잘려나가 원래의 형태에서 변형된 상태이다. 지정 후 신속한 보존처리가 요망된다.

○ 내용 및 특징

대둔사 삼장보살도(도1)는 1740년에 화승 月輪 등이 조성한 불화로, 현재 경상북도 구미 대둔사의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다. 이 불화가 봉안된 대둔사는 구미의 북우산 동쪽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의 사역은 원래 대둔사의 암자인 靑蓮庵 자리이며, 옛터는 현 위치에서 서남쪽 약 300m 지점에 남아있다. 446년(신라 눌지왕 30)에 阿度和尙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1231년에 몽고족의 침략으로 소실되었으나 충렬왕의 아들인 王小君이 출가하여 다시 세웠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1606년에 사명대사 惟政이 중건하여 승군을 주둔시켰다고 전해온다. 1614년에



도2. 천장보살과 권속

대웅전이 건립되었으며, 1761년에 후불탱(영산회상도)을 봉안하였으며 1766년에 새로 망와를 올리는 등 18세기 중엽에 활발한 불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삼장보살도는 바로 대둔사가 가장 번성했던 18세기 중엽에 제작, 봉안되었다.

대둔사 삼장보살도는 5매의 삼베(39+63+63+63+39cm)를 세로로 이어붙인 가로 279cm, 세로 238cm의 바탕에 그려졌다. 상단에는 上界敎主인 天藏菩薩을 중심으로 陰府敎主인 持地菩薩, 幽冥界敎主인 地藏菩薩과 권속이 배치되었으며, 하단에는 각 보살의 권속들이 2열로 배치되어 있다. 세 보살은 모두 높은 대좌 위에 놓인 연화대좌에 결가부좌하고 있는데, 세 보살 중 천장보살이 약간 높게 배치되고 지지보살과 지장보

살이 조금 낮게 배치되어 천장보살 중심의 구도를 보여준다.

상단 중앙의 천장보살(도2)은 二重輪光의 광배를 배경으로 화려한 보관을 쓰고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들어 첫째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마주잡고 왼손은 무릎 위에서 약호를 들고 결가부좌하였다. 두광은 녹색의 단색으로 채색된 반면, 신광은 좌우의 지지보살, 지장보살과 달리 여러 색으로 이루어진 구불구불한 색대로 이루어져 세 보살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존상으로서의 위계를 나타내었다. 천장보살은 통상 說法印 또는 위 아래로 손을 맞잡은 모습을 하고 손 위에는 아무 것도 들지 않거나 寶珠, 經卷, 藥壺 등을 드는데, 여기에서처럼 천장보살이 약사여래의 지물인 약호를 들고 정좌한 모습은 18세기, 특히 1740년을 전후한 경상북도 지역의 삼장보살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도상으로, 대둔사 삼장보살도 역시

그와 같은 도상을 따르고 있다.

어깨에는 청색의 술 같은 것을 들었으며, 안에는 붉은 띠 같은 것을 묶어 걸치고 있다. 목에는 커다란 영락으로 된 목걸이를 걸치고 양손에는 腕釧과 팔찌를 착용하고 있어 화려한 느낌을 준다. 천장보살 아래로 왼쪽에는 두 보살이 협시하고 있으며, 그 위로 두 보살과 천중 및 천녀, 동자가 천장보살을 향해 대칭적으로 시립하고 있다. 천장보살의 권속에 대해서는 의식집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 이 불화를 그럴 때 어떤 것을 참고하여 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⁴⁴⁾ 천장보살의 대좌 앞에 큼직하게 묘사된 보살형의 좌우 협시는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1709년 초간)에 기록된 大珍珠菩薩과 小珍珠菩薩로 추정된다. 또 그 밖의 권속들은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冊補』, 『天地冥陽水陸雜文』,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作法節次』, 『五種梵音集』 등 수록재 의식집에 기록된 천장보살의 권속인 欲界와 色界, 無色界의 33天 및 日月天, 星君衆, 五通仙衆의 일부를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도3. 지지보살과 권속



도3-1. 지지보살의 신광 부분

44)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에는 ‘五居五天 四禪四天 三禪三天 二禪三天 初禪三天 欲界六天 遊空天衆 北極眞君 大帝尊天 日月天子 五星九曜 三台七元 十二宮辰 二十八宿 列曜 一切星君 十類大仙 五百飛仙 一切眞仙’, 『作法節次』에는 ‘天藏菩薩 四空天衆 欲色諸天 九執大天 日月天子 三台九曜 十二宮神 二十八宿 五通天神 天女天男 十類大仙 五億婆羅門仙 五百飛仙’,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에는 ‘天道等衆 欲界色界無色界中天主 天男天人眷屬 日月天子 北極眞君 大星小星 列曜 十類大仙 明眞仙等衆’, 『五種梵音集』에는 ‘天藏菩薩 左補天衆 右補天衆 四空天衆 十八天衆 六欲天衆 日月天衆 諸星君衆 五通仙衆 諸金剛衆 八部神衆’,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에는 ‘天藏菩薩 三界天主 天人眷屬 日月天子 北極眞君 大星小星 列曜 十類大仙 眞仙等衆 天藏 四空天 五居天 四禪天 三禪天 二禪天 初禪天 欲界 遊空界 五通 天藏王菩薩 大眞珠菩薩 小眞珠菩薩 諸天仙衆’으로 기록되어 있다.

천장보살의 왼쪽[향우측]에는 지지보살(도3)이 배치되었다. 지지보살은 천장보살처럼 높고 화려한 보관을 쓰고 두 손으로 經冊을 위 아래로 마주잡은 채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하고 있다. 녹색의 두광과 잔잔한 꽃문양이 가득한 신광을 둘러는데, 녹색의 쇼을같은 것을 걸치고 화려한 영락장식의 목걸이, 腕釧, 팔찌를 걸친 모습은 천장보살과 거의 유사하다. 지지보살의 수인은 설법인에 경권을 든 모습이 가장 일반적인이지만, 여기에서처럼 두 손을 아래 위로 맞잡아 경권을 든 도상은 1700년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소장 삼장보살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며, 이후 경상북도 지역 지지보살 도상의 일반적인 도상으로 이어졌다.

지지보살의 좌우 협시로는 日月冠을 쓰고 홀을 든 제왕형의 인물[향우]과 몸을



도4. 지장보살과 권속

오른쪽으로 약간 비튼 채 오른손으로는 각대를 잡고 왼손은 밖으로 내밀어 홀을 들고 있는 문관형 인물이 배치되었다. 지지보살의 좌우협시에 대해 『五種梵音集』(1713년)에는 左補空衆과 右補空衆,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下(1739년)에는 儒童菩薩과 龍樹菩薩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처럼 지지보살의 좌우 협시가 제왕형으로 등장하는 것은 18세기 초, 중반 강원도와 경상도에서 제작된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로, 대둔사 삼장보살도 역시 그러한 전통을 따르고 있다. 천장보살의 협시가 주로 천중들인데 반하여 지지보살의 협시는 대부분 신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투구를 쓴 협상국은 모습의 신장들이 합장을 하고 지지보살을 에

위싸고 있다. 지지보살의 권속 또한 경전마다 차이가 있지만⁴⁵⁾ 지지보살의 왼쪽에

45)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에는 ‘金剛密迹 十大大明王八部天龍 護法神衆 諸善神王 大藥叉王四天王衆 羅刹衆羅刹女神 婆訶利帝母 后土聖母 五嶽帝君八大山王 保德眞君 下元水官 扶□大帝 婆竭羅等 諸大龍王一切龍君 安濟夫人 主風雨雷電 主藥神衆 主執諸神 主風雨雷電 主藥神衆 主執諸神 行病鬼王 行病使者諸大鬼王鬼師 五百鬼子人間幽現神祇 六齋八王六甲將軍 賞善罪惡正眞神衆’, 『天地冥陽水陸雜文』에는 ‘持地菩薩 堅牢地神 金剛座神 護法龍神 五方四海諸龍神王衆 阿修羅 五部等衆 巨擘拏衆 羅刹婆等衆 訶唎帝母 五百鬼子 江河淮濟溪洞各山主執諸神 大河大山王 帝王明王 古今先亡文勳宰僚一切官僚 古今一切孝順名賢 古今標名賢婦烈女 諸大鬼王 一切先亡人倫等衆 虛空地水諸有情’,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에는 ‘十方三世神道等衆 金剛密迹 四王八部護法神衆 婆竭羅等諸大龍君 阿素洛王各眷屬 幽顯神祇 主宰靈聰官僚等衆 五種梵音集- 持地菩薩 左補空衆 右補空衆 諸龍王衆 阿修羅衆 大夜叉衆 矩擘拏衆 羅刹衆 鬼子母衆 大河王衆 太山王衆, 『梵音集』에는 ‘(上)持地菩薩 金剛密迹 護法善神 婆竭羅龍王 諸大龍君 阿素洛王 幽顯神祇 官寮等衆 (中) 持地 守護神衆 藥叉 后土 下元水官 卒士 主執 六齋 社稷 (下)-持地王菩薩 儒童菩薩 龍樹菩薩

배치된 신장 중 흰 수염이 난 용왕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八部護法神衆 중 일부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장보살의 오른쪽[향좌측]에는 지장보살(도4)이 지지보살처럼 이중륜광의 두광과 신광을 지고 연화대좌 위에 앉아있다. 보살은 승려머리에 투명한 두건을 어깨 아래까지 넓게 쓰고 있는데, 양쪽 귀 뒤로는 두건장식이 표현되었다. 착의법은 오른쪽 어깨에 옷자락을 살짝 덮은 변형편단우견식으로 안에 균의를 입고 겉에 옷을 걸친 佛衣式 착의법을 취하였지만, 겉옷에 條線이 표현되어 있어 條衣袈裟임을 알 수 있다. 왼손은 무릎 위에서 백색의 보주를 들고 오른손은 어깨부근으로 들어 바깥쪽을 향해 손가락을 뻗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듯 한 모습이다. 이러한 손의 형태는 남장사 삼장보살도의 지장보살(1741년, 도5) 및 남장사 지장시왕도(1741년, 현 대구 서봉사소장, 도6)의 모습과 동일한데, 세 불화는 모두 月輪이 수화승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지장보살의 연화대좌 아래에는 왼쪽에 두 손으로 긴 석장을 든 도명존자, 오른쪽에 홀을 든 무독귀왕이 배치되었으며, 그 위로 일월관, 책관, 투구를 쓴 대왕을 비롯한 10명의 왕들이 배치되었다. 지장보살의 권속 또한 의식집마다 차이가 있지만,⁴⁶⁾ 지장보살도는 단독그림으로도 많이 그려져서인지 여기에서도 대응전이나 명부전에 봉안되는 지장보살도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판관, 옥졸, 천녀, 동자가 함께 묘사된 남장사 삼장보살도(1741년, 도5)과 달리 무독귀왕과 도명존자 및 시왕 만이 묘사된 간단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도5. 남장사 삼장보살도(1741년) 지장보살 부분 도6. 남장사 지장시왕도(1741년)

虛空地界神祇'이라고 적혀있다.

46)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에는 '焰摩大帝 諸位冥王 泰山府君 諸大冥王 冥府六曹諸大判官 冥府官僚 三元將軍 四直使者 牛頭馬面 卒吏諸班 冥司 五道大神 諸大獄王 二部童子 一十八掌獄之都官 諸大鬼王', 『梵音集』에는 '道明尊者 無毒鬼王 琰摩天子 諸位冥君 四直使者 卒吏諸班 一切宰輔 將軍童子 判官鬼王'이라고 적혀있다.

세 보살 모두 상호는 둥근 얼굴에 가는 눈썹과 가늘고 짧은 눈에 눈썹과 눈의 간격이 비교적 넓으며, 작은 입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인 색감은 붉은 색과 녹색이 주를 이루며, 명도가 낮은 청색 및 황색, 백색 등을 같이 사용하여 색감이 화려하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 문헌자료

대둔사와 관련된 자료로는 1618년 崔暉이 편찬한 선산군의 읍지(현 구미시)인 <一善誌>(1618)에 “大菴寺在大菴山北”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伏牛山大菴寺彌勒庵新設佛糧記>(1835년), <善山伏牛山大菴寺靑蓮庵重創記> 등 2개의 현판이 남아 있으나 삼장보살도와 관련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반면, 삼장보살도 아래에는 장문의 화기가 남아있는데, 바탕부분이 일부 떨어져 나가는 등 손상이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화기 대부분은 확인이 가능하여 삼장보살도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도7).

[화기]

乾隆五年歲次庚申七月」日敬畫三藏一器奉安于」嶺(南)一善嶺伏牛山大菴寺」
 (施)主秩」(婆頓大施主)嘉善熙淑」(後排大施主)宋牟芴兩主」(彩色大施主)李介弗兩主」
 後排大(施主)通政自俊保體」後排大施主通政瑞悅保體」後排大施主省日」(供養大施主)善訓」□靑大施主嘉善信戒」
 比丘就眠」比丘靈峯」通政朴自日兩主」通政金希斤□□」通政朴俊碩兩主」處士德律兩主」
 金遠奉兩主」通政梁甲仁兩主」處士文日兩主」通政白英達兩主」宋大芴屎兩主」
 朴今宗兩主」申命在兩主」安成老兩主」金命吉兩主」姜命占兩主」張厚邑種兩主」
 順龍伊兩主」曹夢□兩主」金介金兩主」嘉善李仁發」厚弼兩主」尹萬平兩主」
 金重碩兩主」李泰萬兩主」李泰元兩主」金夢葉兩主」劉正連兩主」金莫發兩主」
 金順發兩主」韓望種兩主」韓萬伊兩主」權時望兩主」宋氏愛裕」宋達萬兩主」
 朴英俊兩主」安世雄兩主」金貴碩兩主」柳世遠兩主」比丘卓融保體」比丘克英保體」
 通政辛敏」□□□□金命保兩主」通政□□」通政政欽」呂日尙兩主」金迪呂兩主」
 京城李召史」比丘思善」金尙建兩主」嘉善崔善□」居士信起兩主」通政性峯」
 大德性海」高氏召史」徐尙遠兩主」宋厚丘兩主」梁成伊(兩主)」朴幸發兩主」文應建兩主」
 南斗芳兩主」朴奉世兩主」文萬章兩主」鄭建伊兩主」李南伊兩主」玄□保體」
 贊敏保體」
 本寺秩」
 山中大德印澗」老德成就」老德淨□」老德卓□」前和尚竺□」判司前和尚通□」致

欽」時和尚英贊」三綱」三寶性卍」持事體淦」書記玄玉」

綠化秩」

證明大德玄□」(持殿)大德(宗)□」誦呪比丘法尙」畫員月輪」通政致欽」兩平」(供養)主呂尙」卓□」別座玄□」化主斗哲」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汝衆生皆共成佛道」偉哉信師自持愼勤聚(檀)」財而敬請良畫謹摹靈山三」藏帝釋現王彌陀各部掛安」于大法堂萬歲此人之功豈專□」於前也哉」

* () 부분은 글자가 박락되거나 확실치 않은 부분으로 추정하여 읽은 부분임.



도7. 화기



도7-1. 화기

화기는 모두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일 앞부분은 건륭5년(1740년)인 경신년 7월에 삼장탱 1궤를 조성하여 영남 일선군의 복우산 대둔사에 봉안했다는 내용으로, 1740년이라는 조성연대와 봉안사찰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탕화 1점이라는 의미로 1궤라고 표현한 것인데, 조선후기 불화의 화기 어디에도 수량을 의미할 때 궤라는 용어를 쓴 예가 없어 주목된다. 두 번째 부분은 시주질을 기록한 것이다. 시주는 승려 33인과 일반인 108명 등 141명에 달하여, 당시 삼장보살도의 조성이 얼마나 큰 불사였는가를 보여준다. 시주질에는 婆頓大施主, 後排大施主, 彩色大施主, 供養大施主, □靑大施主 등 대시주를 소임에 따라 열거하고, 이어서 승려와 일반 시주자의 명단을 적었다. 그런데 대시주 및 일반시주자 일부의 이름 앞에는 嘉善, 通政, 居士, 處士 등의 명칭이 붙어있거나 간혹 성 뒤에 召史라고 적혀있다. 嘉善과 通政은 각각 조선시대 從二品の 東西班文武官, 正三品 東班 文官에게 주던 品階로, 일종의 空名帖이다. 알다시피, 空名帖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열악해진 국가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급하였는데, 초기에는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지급되었으나 후에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자 승려들에게도 지급이 되었다. 승려에게는 특히 嘉善大夫와 通政大夫 같은 품계가 주로 지급되어 17세기 중반 이후 불화의 화기에는 嘉善, 通政의 품계가 눈에 띄는데, 여기에도 그러한 공명칭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18세기에도 승려에게 공명첩이 많이 발급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주자 중 ‘京城李召史’, ‘高氏召史’라는 이름이 보인다. 召史는 여자의 이름 또는 과부의 명칭으로 사용되던 용어로서, 여기에서는 여성 단독시주자를 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통상 시주자 중 부부를 지칭할 때는 兩主라고 쓰며 1인 시주자는 單身이라고 쓰는데, 여성 단독시주자를 召史라고 칭한 것은 1731년 수다사 석가모니불도(‘朴召史’), 1741년 남장사 아미타불회도(‘池氏召史’), 1744년 직지사 삼세불도(‘布施施主崔召史’) 등 18세기 전반 경북지역의 불화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사가 여성시주자를 가리키는 데 반해, 居士와 處士는 남성시주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17세기 후반이 되면 불화 뿐 아니라 불상의 化主나 시주자로 거사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해 18세기 이후가 되면 이들은 새로운 시주층으로서 자리잡았는데, 대둔사 삼장보살도의 화기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분은 삼장보살도 제작 당시 대둔사에 주석했던 승려들의 명단을 적은 本寺秩이다. 大德 또는 老德이라고 적혀있는 印澗, 成就, 淨□은 대둔사의 원로 승려이며, 竺□, 通□, 致欽은 전 주지, 英贊은 현 주지로, 사찰의 원로와 전, 현주지가 함께 삼장보살도 조성 불사에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부분은 불화조성에 직접 소임을 맡아 참여한 승려들의 이름을 나열한 緣化秩로서, 증명법사는 玄□, 송주법사는 法尙, 화원은 月輪, 通政致欽, 雨平 등 3인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 마지막 부분은 발원문인데, 발원의 내용에 이어 시주자들이 재물을 모아 화승을 청해 靈山, 三藏, 帝釋, 現王, 彌陀를 제작하여 대법당에 모셨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를 통해 당시 삼장보살도 뿐 아니라 영산회상도와 제석도, 현왕도, 아미타불도 등이 함께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재 삼장보살도 외에 다른 불화들은 남아있지 않다.

화기에서 밝혀져 있듯이, 대둔사 삼장보살도를 그린 화승은 月輪, 通政致欽, 雨平 등 3인이다. 수화승인 월륜은 18세기 중엽 경상북도에서 활동한 화승으로, 현존작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대둔사 삼장보살도 외에 화승 世冠과 함께 남장사 불화(1741년)와 직지사 삼세불도(1744년)를 조성하였다. 대둔사 삼장보살도는 월륜이 제작한 불화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1740년에 대둔사의 불화조성불사를 마친 후 다음해인 1741년에 당시 경상도지역의 최고 화승이었던 세관과 함께 남장사의 불화불사에 참여하였다. 월륜은 당시 세관과 함께 남장사에서 아미타불도, 삼장보살도(도8), 지장보살도 등 3점의 불화를 조성하였는데, 아미타불화

의 화기에 ‘出草月輪’이라고 적혀있어 월륜이 출초를 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불화 조성 시 출초는 대부분 수화승 또는 실력있는 화승이 맡아서 하는 것을 볼 때 월륜은 아마도에서 영산회상도와 제석도, 현왕도, 아미타불도 등 불화를 제작하면서 화승으로서 명성을 얻었으며, 이에 남장사 아미타불도의 출초를 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1744년에 세관 등이 그린 직지사 삼세불도는 月印이 출초를 맡았으며(‘起草弟子 月印’), 같은 해에 제작된 직지사 시왕도(變成大王圖)에도 月印이 함께 참여하였는데, 두 작품의 인물표현 등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직지사 불화 제작 시 월륜이 월인으로 범명을 바꾸어 출초화승으로 참여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즉늘게 곡선을 이루는 눈썹과 가늘고 작은 눈, 오목한 입 등 세관의 불화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존상의 안면표현이 대둔사 삼장보살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추정도 가능하다. 월륜과 함께 참여한 通政致欽과 雨平은 대둔사 삼장보살도 외에는 조성작품이 남아있지 않아 활동상황을 알 수 없다. 다만 致欽은 本寺秩의 ‘判司前和尚通□」致欽’과 동일인으로서 삼장보살도를 조성하기 전에는 대둔사 주지의 소임을 맡았던 인물로 추정된다.

□

○ 현 상



도8. 남장사 삼장보살도, 1741년, 삼베에 채색, 세로 301X가로 311.5cm, 경북 상주 남장사

구미 대둔사는 446년 아도화상이 세웠다고 전한다.⁴⁷⁾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45호인 대둔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을 한 다포계 건물로 삼장보살도는 현재 대둔사 대웅전의 향 우측 단에 모셔져 있다. 대둔사 삼장보살도는 삼베바탕에 채색하고 족자형식으로 제작된 불화이며 사찰 측에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가 있는 액자들을 마련하여 그 속에 봉안하고 있다.

대둔사 삼장보살도의 바탕천은 삼베이다. 63cm 폭의 삼베를 3매 이어 붙이고 좌우

47) 寺傳에 의하면 충렬왕의 아들인 왕자 왕소군(王小君)이 출가하면서 사역을 정비하고 전각을 중창하였다고 전한다. 하지만 왕소군이 출가한 사찰이나 주석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다. 『東史綱目』 제12상, 병자년 충렬왕 2년, 至元 13년(1276) ‘왕이 최의(崔瑄)의 첩 반주(盤珠)를 맞아들여 서를 낳았는데, 매우 총애하고 왕소군(王小君)이라 불렀다. 이때에 와서 서가 교만하고 방자해지니, 머리를 깎고 중이 되게 하였다’(한국고전종합DB). ; 대둔사 대웅전은 1614년(광해군 6)부터 1804년(순조 4)까지 총 다섯 차례의 수리가 있었다.

양측 가장자리에 각각 39cm 넓이 2매를 시침질로 덧대어 총 넓이 279cm에 길이가 238cm인 바탕질을 마련하였다. 길이 227cm, 넓이 267cm 크기의 화면 가장자리에는 붉은 선으로 테두리를 하고 사방을 흰색으로 변아(邊兒)를 둘렀다. 고정되어 통풍이 되지 않는 유리 액자에 오랜 기간 보관된 상태였기 때문에 화면 전반에 곰팡이와 蟲害가 있었고 안료의 박락과 변색, 바탕질의 손상도 심각한 정도를 보인다. 부분적으로 보채된 흔적이 보이고 있으며 화면에 나타나는 광택은 이전 수리 보수에서 안료 고정화를 위한 작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손상부위가 넓어 빠른 시간 내 보존처리 작업이 요망된다.

○ 내용 및 특징

삼장보살도는 天藏菩薩, 持地菩薩, 地藏菩薩과 권속들이 모여 天藏會, 持地會, 地藏會를 열고 있는 모습을 그린 불화이다. 이 불화는 조선시대 이전에는 찾아 볼 수 없는 양식으로 영가천도의 목적을 가진 수륙재의 영향을 받아 지장보살 신앙이 확대해석 되어 제작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⁴⁸⁾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에서 천장보살과 지지보살의 존재는 일찍부터 확인되어 왔지만 천장, 지지, 지장이 결합된 삼장보살 형식의 새로운 도상은 조선시대 이전의 유물로는 전해지는 바가 없다. 조선후기 <삼장보살도> 도상의 형성은 조선전기 삼장보살 신앙의 확대양상에 따라서 <삼장보살도> 관화의 간행과 새로운 의식집의 출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수륙재와 관련을 보이는 삼장보살 신앙은 天仙神에 대한 신앙으로 규정되어 천계, 지상계, 유명계의 모든 천선신을 도량으로 모셔 공양하고 기원한다.⁴⁹⁾

대둔사 삼장보살도는 1740년 영산도, 제석도, 현왕도, 아미타여래도와 함께 제작된 불화이다.⁵⁰⁾ 대둔사 삼장보살도는 화면 중앙에 천장보살의 무리를 배치하고 향우측에 지지보살, 향좌측에 지장보살과 권속을 포치하였다. 화면 상부 10cm 넓이의 벽아 부분에는 백토로 雷紋과 花紋을 그리고 그 위에 범자원문을 두었다. 3위의 보살은 높은 대좌 위 오른발이 위로 오는 형태로 결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다. 지장, 천장, 지지보살을 동일한 선상에 포치하는 <삼장보살도>의 일반적인 구성을 따르지 않고 천장보살을 약간 위로 올려 나지막한 삼각형 구도를 이루는 변화를 보인다. 모두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광배 둘레로 분출되는 瑞雲으로 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광배 좌우에 배치된 권속과 尊格의 구별을 두었다.

48) 김정은, 「조선시대 삼장보살도의 기원과 전개 - 중국 명대 수륙화와의 비교-」, 『동양미술사학』 8권, 2007, 1591년 일본 延命寺 소장 삼장보살도의 화기에는 中壇都幀라는 명칭이 있어 삼장보살도의 제작 목적은 수륙재 중단의례에 사용되었던 불화로 추정하고 있다. 126-128쪽.

49) 김정은, 앞의 논문, 136쪽.

50)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현왕도는 기림사(1718), 선암사(1730), 동국대박물관 소장(1741) 등으로 수량이 미미하다. 대둔사 삼장보살도는 화기를 통해 대둔사에 현왕도가 제작되었음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당당한 신체에 비해 이목구비는 전반적으로 오밀조밀하게 표현되었다. 둥근 얼굴에 버들 잎 같은 눈썹 사이로 백호가 그려졌고 아래로 내려 뜬 고요한 눈에는 속눈썹이 그려 있는 세심함이 보인다. 길게 뻗은 콧대 아래로 콧 망울이 뚜렷하고 그 아래 앵두 같은 작은 입술과 초록색으로 나타낸 수염 등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원만한 인상을 보여준다.

화면 상부에는 동자와 천녀의 모습이 보이고 제왕형 혹은 신장형 인물로 표현된 권속들은 홀을 가진 형태이거나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섬세하고 치밀한 필치로 표현되어 생동감이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인물이 협시로 등장하는 삼장보살도의 유형은 18세기 초중반 강원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제작된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1730년 雲興寺 삼장보살도 이전 작품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런 형태의 도상을 취하고 있으며 18세기 중반까지도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다.⁵¹⁾



삽도 1.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 세부 지장-천장-지지보살

왼손에 투명한 보주를 올리고 오른손은 들어 설법인 형태의 수인을 취하는 지장보살은 머리에 투명한 두건을 쓰고 있는 승상형으로 붉은 바탕에 녹색의 띠를 엇갈리게 그려 衲衣를 표현한 가사를 입고 있다. 지장보살의 권속으로는 석장을 들고 있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대좌 양측으로 마주보고 侍立하고 있으며 그 위로 일월이 그려진 경전을 머리에 이고 있는 염라대왕을 위시하여 10명의 명부시왕이 있다. 삼장보살도에서 대부분의 지장보살은 보주를 들고 석장을 쥐고 있는 僧形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제작시기가 가장 이른 新長谷寺 삼장보살도와 같이 보살형의 지장보살로도 그린 사례가 남아 있다.

51) 정승현, 「조선시대 삼장보살도 연구」, 동국대학교석사논문(2010), 68쪽.

화면 중앙 천장보살의 대좌 양옆에는 진주보살과 대진주 보살이 합장한 모습으로 시립하고 광배 좌우에는 天衆과 聖仙衆이 배치되었다.⁵²⁾ 천장보살의 수인도 지장보살과 유사하게 왼손에 원형의 지물을 올리고 오른손은 가슴께로 들어 설법인을 취한다. 천장보살은 짙은 녹색의 천의를 입고 붉은 빛이 선명한 군의를 입고 있다. 대둔사 천장보살과 같이 지물을 가진 천장보살 도상의 사례는 흔치 않은데 유사한 사례를 들자면 1739년 불국사 삼장보살도의 천장보살은 경책과 같은 지물을 가지고, 1741년 남장사 삼장보살도의 천장보살은 대둔사 천장보살과 유사한 형태의 보주를 지물로 들고 있다.

짙은 녹색의 천의와 푸른 빛이 도는 군의를 입은 지지보살은 오른손으로 절첩본 형태의 경책 아래를 잡고 왼손을 경책 위에 두고 있다. 조선시대 삼장보살도에서 지지보살은 천장보살과 같은 영락장식과 보관을 착용한 보살형이 대부분이고 시대가 이른 시기 작품에서는 경책을 가진 형태로 그려지는 특징을 보인다. 지지보살 신앙은 천장보살과 대비되는 地祇에 대한 신앙으로 오래전부터 민간 토속신앙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수용된 신들로 권속이 구성되어 있다. 지지보살의 권속은 화면 좌우 제왕형의 인물과 日月經을 머리에 이고 있는 인물로 대좌 양옆이 채워져 있고 그 위로 그려진 나머지 인물들은 팔부중을 묘사한 것이다. 지지보살의 협시는 대체적으로 신장형의 무장으로 표현된 사례가 많으며 시대가 올라갈수록 신중형상이 많다.<삽도 1>

○ 畫記(붉은 글씨: 손상부위 추정)

乾隆五年歲次庚申七月
日敬畫三藏一器奉安于
嶺南一善嶺伏牛山大菴寺
施主秩
婆頓大施主嘉善熙淑
後排大施主宋牟丕兩主
彩色大施主李介弗兩主
後排大施主通政自俊保體
後排大施主通政瑞悅保體
後排大施主省日

52) 정승현, 위 의 논문, 30쪽. 천장보살과 함께 그려지는 권속의 도상명을 알 수 있는 정통 텍스트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국 寶寧寺 <수륙화>에서 천장보살의 성중권속은 北極紫微大帝와 日宮天子, 月宮天子, 太乙, 九曜眞星君, 月孛星君과 12宮, 北斗七元 등 列曜一切星君으로 이들 성신은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에 중단으로 소칭되는 천부신중과 유사한 구성이다.

供養大施主善訓

□青大施主嘉善信戒

比丘就眠

比丘靈峇

通政朴自日兩主

通政金希斤□□

通政朴俊碩兩主

處士德律兩主

金遠奉兩主

通政梁甲仁兩主

處士文日兩主

通政白英達兩主

宋大芑屎兩主

朴今宗兩主

申命在兩主

安成老兩主

金命吉兩主

姜命占兩主

張厚邑種兩主

順龍伊兩主

曹夢□兩主

金介金兩主

嘉善李仁發

李厚弼兩主

尹萬平兩主

金重碩兩主

李泰萬兩主

李泰元兩主

金夢葉兩主

劉正連兩主

金莫發兩主

金順發兩主

韓望種兩主

韓萬伊兩主
權時望兩主
宋氏愛裕
宋達萬兩主
朴英俊兩主
安世雄兩主
金貴碩兩主
柳世遠兩主
比丘卓融保体
比丘克英保体
通政辛敏
□□□□金命保兩主
通政□□
通政政欽
呂日尙兩主
金迪呂兩主
京城李召吏
比丘思善
金尙建兩主
嘉善崔善□
居士信起兩主
通政性峇
大德性海
高氏召史
徐尙遠兩主
宋厚丘兩主
梁成伊兩主
朴幸發兩主
文應建兩主
南斗芳兩主
朴奉世兩主
文萬章兩主
鄭建伊兩主
李南伊兩主

玄□保體
贅敏保體

本寺秩
山中大德印澗
光德成就
光德淨□
光德卓□
前和尚竺□
判司前和尚通□
致欽
時和尚英贊
三綱
三寶性卞
持事體浚
書記玄玉

綠化秩
證明大德玄□
持殿大德宗□
誦呪比丘法尙
畫員月輪
通政致欽
雨平
供養主呂尙
卓□
別座玄□
化士斗哲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皆共成佛道
偉哉信師自持慎勤聚檀
財而敬請良畫謹摹靈山三
藏帝釋現王彌陀各部掛安

于大法堂萬歲此人之功豈專□

於前也哉

○ 畫師

1740년 구미 대둔사에서 삼장보살도를 그린 月輪은 <星州雙磎寺後佛三軸及三藏圖改造記>에 직지사 승려로 기록되어 있다. 월륜은 대둔사 삼장보살도를 그리기 이전 1739년 성주 쌍계사에서 畫僧 慧湜와 함께 공동으로 삼장보살도를 제작하였다. 1741년에는 대둔사에 삼장보살도를 같이 그렸던 우평과 함께 세관이 이끄는 화승집단의 일원으로 남장사 불화불사에 출초화승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대둔사와 남장사의 삼장보살도의 도상은 많은 부분에서 부합되는 점이 많다.

화승 월륜과 관련지어 살펴볼 인물은 직지사 화승으로 활동한 月印이다. 월륜과 월인은 모두 직지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화승집단의 소속 승려로 기록되어 있으며 1740년대 경상북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수화승 세관과 화연관계를 가지고 그의 화풍에 영향을 받고 있다.⁵³⁾ 화승으로 월륜의 작품활동은 1743년 의성 대곡사 대웅전 삼존불상 개금불사가 마지막 작품이고, 월인은 1744년 김천 직지사 <삼세불도>에서 처음 이름이 보이는 畫僧이다. 월륜이 출초한 남장사 <아미타회상도>와 월인이 출초한 직지사 <아미타불도>는 불보살 상호는 둔중해 보이는 어깨표현과 손의 묘사, 권속으로 표현된 인물 등이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월륜은 1741년 남장사 <아미타회상도>에서 ‘出草 執務 月輪’으로 기록된 현존하는 최초의 출초화사이며 월인 역시 직지사 <삼세불도>에서 ‘起草弟子’, ‘出草’라는 구체적인 소임을 맡고 있어 공통점이 있다.⁵⁴⁾ 불화를 그릴 때 소의 경전에 맞게 도상을 구성하는 출초라는 소임은 정확한 묘사력과 함께 필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출초화승은 수없이 많은 용필법의 단련을 필요로 하여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직책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화승 세관과 함께 직지사를 중심으로 1740년대 초반에 활동한 월륜과 월인은 동일인물로서 범명을 바꾸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⁵⁵⁾ <표 1, 2 참조>

53) 이용윤, 「조선후기 嶺南의 佛畫와 僧侶門中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86쪽.

54) 윤선우, 「朝鮮後期 佛畫 草本 研究」, 『동악미술사학』 12호(동악미술사학회, 2011), 175쪽. 1741년 남장사 <아미타여래도>의 화기에 출초월륜이라는 기록 이전 출초에 관한 기록이나 화기가 없고 작품도 없다. 18세기에는 월륜(月輪), 월인(月印)의 채색본과 화련(華蓮)의 초본만 남아 있고 다른 출초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55) 고인혜, 「18세기 화승 세관의 불화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16), 105쪽. 월륜이 1744년 월인으로 범명을 바꾸어 출초화승으로 직지사 불화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년 도	작품명	공동작업 화승	비 고
1739	성주 쌍계사 三藏畫	慧湜, 56) 等覺	<星州雙溪寺後佛三軸及三藏圖改造記> 三藏畫 慧湜 時禪石抱根 等覺 月輪 直指 寺 別座通政時海 化土山人雪岑
1739	김천 쌍계사	雪心, 喜心, 任閑, 世冠, 敏輝, 徹坦, 最賢, 慧湜, 抱根 等覺	쌍계사적비 1739년 김천 쌍계사의 불화 제작을 위해 모였다.
1740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	通政致欽 雨平 ⁵⁷⁾	수화사
1741	남장사 아미타회상도 남장사 삼장보살도	世冠, ⁵⁸⁾ 三玉, 瑞澄, 舞侃, 尊慧, 應岑, 宇平	出草 執務 月輪(아미타회상도) 화기에 직지사에서 청했다고 기록
1741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	世冠, 三玉, 瑞澄, 舞侃, 尊慧, 宇平, 應岑	남장사 무량수전에 봉안 보물 제1856호
1743	의성 대곡사 대웅전 삼존불상 개금	世冠, 신각, 月允, 尊慧, 宇平, 마연	영좌여천군태행산대국사대웅전삼존불상개금기현판(嶺左呂川郡太行産大國寺大雄殿三尊佛像改金記懸板)

표 1. 화승 月輪작 불화목록과 공동작업 화승.

년 도	작품명	공동작업 화승	비고 (월인의 소임)
1744	김천 직지사 삼세불도	世冠, 神角, 密機, 三玉, 瑞澄, 性贊, 舞侃, 尊慧, 宇平, 應岑, 有香, 自還, 天柱, 湜演, 謹軒 등	약사여래도의 起草弟子 月印 아미타불도 出草比丘 月印
1744	김천 직지사 시왕도	世冠, 性贊, 自還, 舞侃, 尊慧, 宇平, 應岑, 天柱, 有香, 湜演 등	出草 月印
1753	충북 영동군 반야사 지장보살도	天柱, 慕重	수화사 / 소재불명
1758	전북 무주군 안국사 소 장 감로도	贊澄, 慕重	수화사 / 소재불명

표 2. 화승 月印작 불화목록과 공동작업 화승.

56) 혜식은 ‘慧式’으로 쓰기도 한다.

57) 1741년 남장사 불화불사의 화기를 참조하면 宇平과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58) 18세기 황악산 직지사를 거점으로 활동한 화승. 卓輝, 性澄의 화맥을 잇고 있다. 1740년대 직지사 상주 하면서 직지사 소속 화승들과 불사를 주관하였다. 화승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龍眠은 성징, 세관. 월륜 등 황악산 직지사 수화승을 상징하는 특정용어였는데 18세기 이후는 경북에서 활동하는 수화승을 가리키는 보편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 참고논문

고인혜, 「18세기 화승 세관의 불화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6, 석사학위 논문.

김정은, 「조선시대 삼장보살도의 기원과 전개 - 중국 명대 수륙화와의 비교-」, 『동악미술사학』 8권, 2007.

윤선우, 「朝鮮後期 佛畫 草本 研究」, 『동악미술사학』 12호, 동악미술사학회, 2011.

이용윤, 「조선후기 嶺南의 佛畫와 僧侶門中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정승현, 「조선시대 삼장보살도 연구」, 동국대학교석사논문, 2010.

4. 사진

	
<p>그림 1. 대둔사 대웅전 전경</p>	<p>그림 2.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p>
	
<p>그림 3. 화면에서 제거 된 벌집</p>	<p>그림 4. 화면 하부 손상부위</p>
	
<p>그림 5. 지장보살 두광부위 안료와 비탄질 손상부위</p>	<p>그림 6. 화면 상부 변이 문양 세부</p>
	
<p>그림 7. 권속 세부형상과 안료 박락 현상</p>	<p>그림 8. 지장보살 권속</p>



○ 내용 및 특징

대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직지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로 446년 아도화상이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으며, 1231년 몽고침략 때 불타 소실된 것을 고려 충렬왕(재위 1275~1308)때 왕자 王小君(王湑)이 출가하여 중창하였다고 전한다. 사찰의 주불전인 대웅전(보물 제1945호)은 1614년에 건립되어 1804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중수를 거쳤으며, 주존불로는 건칠로 제작된 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33호)이 봉안되어 있고, 후불화로는 1761년에 제작된 영산회상도가 걸려있다.

삼장보살도는 중단불화로 조성된 것으로 좌측 북벽에 걸려 있는데, 원래의 상황 모습은 잃었고 현재 유리 액자형태로 제작되어 있다. 화기에는 “三藏一器”라고 표기한 점이 눈에 띄며, 화기의 말미에는 뛰어난 화사를 초청하여 靈山 三藏 帝釋 現王 彌陀 各部 탕화를 掛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 제작된 불화 중 남아 있는 것은 이 불화가 유일하다. 證明은 玄遠이며, 畫員는 月輪, 致欽, 宇平 등 3명이 참여하였다. 月輪은 대둔사 삼장보살도를 비롯하여 상주 남장사 아미타여래회상도(1741년, 首 世冠, 3위, 出草), 상주 남장사 아미타여래육존도(1741년, 首 世冠, 3위), 상주 남장사 삼장보살도(1741년, 首 世冠, 3위)를 그린 畫僧이다. 한편 직지사 대웅전 삼세불도 제작 때 首畫員 世冠을 도와 보조화원으로 참여한 月印을 月輪과 동일인으로 보기도 한다. 치흠은 북지장사 지장보살도(1725년, 首 碩敏, 3위)를 그렸다. 宇平은 상주 남장사 아미타여래회상도(1741년, 首 世冠, 8위)와 남장사 아미타여래육존도(1741년, 首 世冠, 8위), 남장사 삼장보살도(1741년, 首 世冠, 8위), 직지사 대웅전 석가여래삼세불도(1744년, 首 世冠, 10위), 직지사 시왕도 중 제4 오관대왕도(1744년, 首 世冠, 5위) 제작에 참여하였다. 이렇듯 월륜은 세관 유파의 화승으로 확인되는데, 이 삼장보살도는 스승인 世冠의 작품 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이어서 그가 이미 세관 유파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삼장보살도가 언제부터 그려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1550년에 그려진 일본 신장곡사(新長谷寺) 삼장보살도가 현존하기 때문에 16세기 무렵에는 삼장보살도의 도상이 성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른 시기의 작품들은 대부분 일본 등 해외에 소재하고 있고, 국내에 남아 있던 작품 중 시가가 오래된 석탑사 삼장보살도(1699년)나 파계사 삼장보살도(1707)도 현재 도난당하여 그 소재는 불명한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1727년에 그려진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와 이 보다 1년 후인 1728년에 그려진 대구 동화사 삼장보살도 정도가 국내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에 해당하며, 이를 이어 1730년~40년대 제작된 사례도 몇 점 전하는데, 그만큼 18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삼장보살도는 귀중하다고 하겠다. 한편 불교조각 작품

으로는 1665년에 조성된 칠곡 송림사 명부전에 봉안된 석조삼장보살상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삼장보살도는 천상과 지상, 지하를 관장하는 上界天主의 천장보살, 陰府界主의 지지보살, 幽冥教主의 지장보살과 그들의 권속을 그린 불화이며, 신앙적 근거는 수록재와 관련이 있다. 삼장보살도의 도상적 근거는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469년 간행)나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470년 간행), 그리고 『五種梵音集』(1661년 간행), 『梵音刪補集』(1709년 간행) 등을 들 수 있는데, 등장하는 권속의 명칭이나 수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⁵⁹⁾

대둔사 삼장보살도는 화면을 모두 5폭(39-63-63-63-39)으로 이어 붙인 삼베 바탕 위에 진채를 베풀어 그린 불화이다. 표면은 전반적으로 변색과 얼룩이 생겨 어둡고 탁한 느낌이며, 바탕 재질은 찢어지고 곳곳에 산화되어 삭은 곳이 많으며, 안료층도 박락과 박리 등이 진행된 곳이 두드러진다. 화면은 전반적으로 변색, 얼룩 등이 고착되어 있어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다. 더욱이 어느 시점엔가 안료 박락을 막기 위해 아교를 강하게 포수 한 듯 화면 전반에 번들거림도 눈에 띈다.

구도는 상·하 2단 구도로 상단에는 삼장보살과 권속을, 하단에는 각각 2구의 협시를 배치한 전형적인 모습을 띤다. 상단의 두 곳에는 낙영(혹은 風帶)을 그려 넣었고, 邊兒부분에는 9字의 梵字眞言圓文을 써넣었다. 천장·지지·지장 등 삼장보살은 방형의 수미단 위의 연화대좌에 단정히 결가부좌한 모습이다. 삼장보살이 자리한 대좌의 아래쪽에는 협시와 권속들이 배치되었고, 채운으로 가득 찬 하늘에는 天童들이 배치되었다. 중앙에 천장보살과 권속을 중심을 잡았고, 좌우측에 배치한 지지와 지장보살의 권속들은 좌우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지의 권속은 좌측 가장자리 쪽으로, 지장의 권속은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권속을 배치하여 화면 전체의 균형을 맞췄다. 지장보살의 권속은 다른 회상에 비해 이미 오래전부터 도상이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을 포함한 시왕들이 정확하게 표현되었고, 천장과 지지회상 장면은 지장회상의 권속에 비해 비교적 소략하게 표현되었는데, 아마도 이 무렵까지 삼장보살도의 도상이 확고하지 않은 탓이 컸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존인 천장보살은 지지보살과 지장보살에 비해 조금 높게 처리하여 主尊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었고, 여러 빛깔 색띠로 이루어진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결가부좌하였다. 頭光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황색계-적색계-녹색계(2톤)-흑색계-백색계통의 6빛 색띠로, 身光은 녹색계(2톤)-황색계-흑색계-적색계-백색계통의 6빛의 색띠로 구성하였다. 두광의 표면은 짙은 녹색으로 칠하였고, 신광은 오색 빛

59) 이용윤, 「팔공산 동화사 대웅전 삼장보살도」, 『동화사 대웅전 삼장탱 보존수리』, (고창문화재보존연구소, 발간년일 미상), pp.57-74 참조.

갈 색띠를 번갈아가며 채색하여 發光하는 찬란한 광배를 형상화 하였다. 오색 빛 갈로 발광하는 광배는 경북 지역에서는 1688년 김천 고방사 아미타여래설법도(수화승 敏圓)와 1699년에 제작된 대구 동화사 아미타회상도(首畫僧 義均) 등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있고, 18세기에는 직지사 삼세불도(1744년) 등 일부에서 확인되다가 19세기 불화에서는 폭넓게 활용된 광배 표현방식이다. 머리에 화염과 영락으로 장식된 보관을 썼고, 귀를 타고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신체의 윤곽을 따라 길게 흘러내려 허리춤까지 드리워졌다. 얼굴은 둥글넓적하며 이목구비는 작고 오밀조밀하게 표현하였다. 풀잎 모양의 눈썹과 잠긴 눈매는 짙막하게 처리하였고, 콧망울은 부드럽게 입술은 작고 양증맞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얼굴표현은 세관 유과의 특색으로 볼 수 있다. 오른손은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복부에 두고 독특한 형태의 藥壺를 받쳐 들었다. 약호의 형태는 1744년 作 김천 직지사 삼세불도 중 약사여래도의 약호와도 유사하며, 천장보살의 우측 상단에 배치된 天童도 천장보살과 꼭 같은 지물을 들고 있다. 이와같이 천장보살이 약호를 지물로 취한 점은 18세기 전반기 경북지역 삼장보살도에서 집중적으로 보이는 지역적 특색이다. 두 어깨에는 짙은 청색의 천의를 걸쳤고, 가슴에는 스카프처럼 별도의 붉은색 천의를 드리웠다. 치마는 붉은색이며, 무릎 부분에는 덧댄 녹색의 꽃무늬 장식을 끈으로 묶어 멋을 부렸다. 천의와 치마의 표면은 가는 적색, 백색의 색선으로 세밀하고 섬세하게 주름선을 그려 넣어 입체감을 부여하였다. 몸에는 팔찌, 비천, 목걸이, 영락 등 각종 장신구로 장엄하였다. 치마의 끝단에는 녹화결련금을 시문하였다.

천장보살의 무릎 바로 아래쪽 좌우측에는 상반신만 드러낸 인물 2구가 합장하고 섰으며, 그 인물의 바로 아래에는 두광을 갖추고 천의를 입은 두 구의 협시보살이 시립하였다. 頭光을 갖춘 협시보살은 『五種梵音集』에 보이는 ‘左補天衆’과 ‘右補天衆’을 시각화 한 것이다. 물론 『오종범음집』 이후에 간행된 자료에는 大眞珠菩薩과 小眞珠菩薩, 또는 대진주보살과 진주보살이 천장보살의 협시로 등장하고 있지만, 뒤에 언급할 지지보살의 협시가 아직 보살형이 아닌 제왕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五種梵音集』의 내용을 도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본다면, 천장보살의 상단에 공양물을 들고 있는 天人와 天童은 여러 天衆을, 仙人의 모습을 한 인물은 五通仙衆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화면의 좌측에는 지지보살이 팔각연화좌에 앉아 오른손으로 절첩본 형태의 經冊을 두 손으로 감싸 쥐듯 잡았다. 身光은 빛 격자의 꽃무늬 광배로 꾸몄는데, 이러한 화문 광배는 18세기대 世冠 유과를 비롯하여 경북지역에서 유행한 광배양식 중 하나이다. 보관과 이목구비의 모습은 천장보살과 꼭 같으며, 복식은 짙은 녹색의 천의와 녹색의 꽃무늬 장식을 덧댄 붉은색 치마를 입었다. 균의의 끝단은 화문

과 녹화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지물로는 經冊을 채택하고 있으며, 경책은 두 손을 위, 아래에서 받쳐 잡았다. 이와 같은 지지보살의 도상은 1700년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소장 삼장보살도에서 이미 보이며, 이후 경상북도에서 제작되는 지지보살의 일반적인 지물로 채용되고 있다. 지지보살의 무릎 아래에는 원류관과 일월관을 쓴 제왕형의 인물이 서로 협시하고 있는데, 아직 보살형으로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五種梵音集』의 ‘左補空衆’과 ‘右補空衆’을 상징화 한 것으로 생각된다.⁶⁰⁾ 좌보공중은 일월관을 쓰고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시립하였으나, 우보공중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오른손은 혁대를 잡았고, 왼손은 들어 올려 누구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화면의 중단과 상단에는 仙人形의 인물과 무장형의 護法神將들이 지지보살을 둘러싸고 있다.

지장보살은 녹색의 민머리에 투명의 두건을 쓴 모습이다. 오른손 어깨 바깥쪽으로 들어 설법인을 결하였고, 오른손은 복부에 두고 등근 구슬을 들었다. 두광은 녹색이며, 신광은 화사한 꽃무늬를 시문하였다. 천장보살의 광배에 비해 색 띠를 4빛으로 처리하여 차이를 두었다. 몸에는 팔찌, 비천, 목걸이 등 각종의 장신구로 장엄하였다. 적색을 가사를 걸쳤으며, 가사의 조(條)에는 연두색의 격자화문을 시문하였고, 가사의 깃에는 광두정화문을 시문하였다. 지장보살의 무릎 좌우측에는 석장을 쥐고 있는 무표정한 도명존자와 홀을 들고 도명존자에게 손짓을 하며 이야기를 하듯 리얼하게 묘사한 무독귀왕이 자리 잡았다. 도명존자가 묵묵히 무독귀왕의 이야기를 경청하듯 배치한 구도는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1741년, 보물 제 1856호), 상주 남장사 삼장보살도와 거의 같은 도상이다. 이들 두 작품도 월륜이 보조화원으로 제작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며, 같은 초를 반복적으로 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장보살의 좌측에는 2位の 시왕이 배치되었고, 우측에는 8位の 시왕을 배치한 지장시왕도의 구성에서는 사뭇 파격적인 구도 변화를 읽을 수 있고, 구도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사자, 판관, 옥졸 등 하위 권속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권속들 사이의 빈공간과 천공(天空)에는 검푸른 하늘을 최소화하고, 황갈색 계통의 채운(彩雲)을 가득 채워 넣어 상서로운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삼장보살도에서 지지보살과 지장보살의 하단 양대 협시들이 엄숙한 회상에서 살아 있는 표정과 몸짓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듯 드라마틱한 자세로 묘사되었는데, 이러한 포즈는 이 작품보다 1년 뒤에 世冠이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그린 남장사 삼장보살도(1741년, 首 世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月輪이 스승 세관의 작품에서 출초라는 소임이 특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세관의 작품 일

60) 범음산보집(梵音刪補集)에는 유동보살(儒童菩薩)과 용수보살(龍樹菩薩)로 나타나며, 1766년에 그려진 천은사 대웅전 삼장보살도의 화기에는 ‘좌보 용수보살(左補龍樹菩薩)’ ‘우보 다라니보살(右補 陀羅尼菩薩)’이 명기되어 있다.

부 또는 대부분을 그가 출초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구도적으로 보면, 이 시기 삼장보살도는 대체로 삼장보살이 나란히 앉는 수평병렬구도이지만 이곳에서는 主尊인 천장보살을 리듬을 타듯 약간 높게 배치하여 회상의 깊은 공간감과 원근감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도의 변화 이외에도 섬세한 필선과 다양한 색선을 사용하여 인물과 세부의 묘사력도 돋보이며, 머뭇거림 없는 붓질에서 화사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색감에 있어서도 물론 탈, 변색이 심해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지만, 대체로 이 시기의 색감인 명도는 낮고 채도가 높은 붉은색과 녹색, 황색, 옥색 계통을 주요 색으로 사용하여 깊이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구미 대둔사 대웅전 전경



그림 2 삼장보살도 봉안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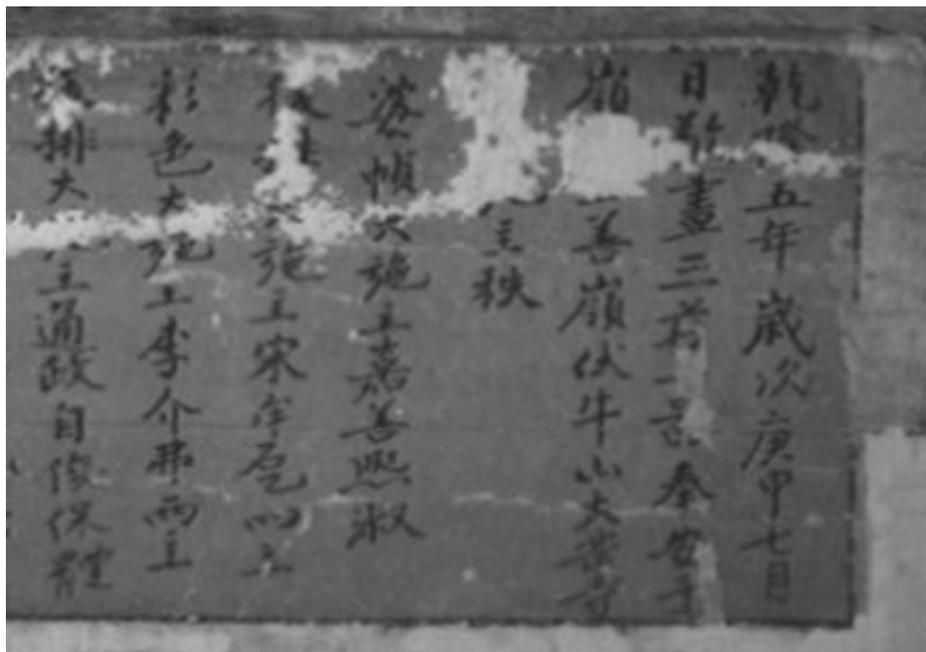


그림 377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 화기 첫부분
(적외선 촬영:국립문화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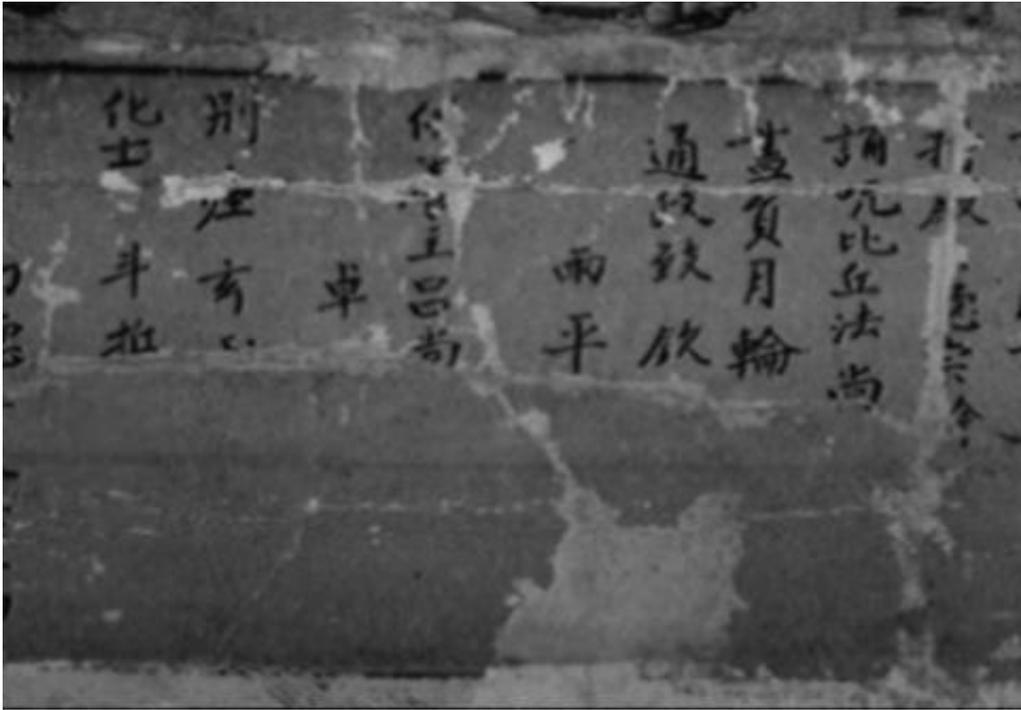


그림 378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 화기 화원부분(적외선 촬영 : 국립문화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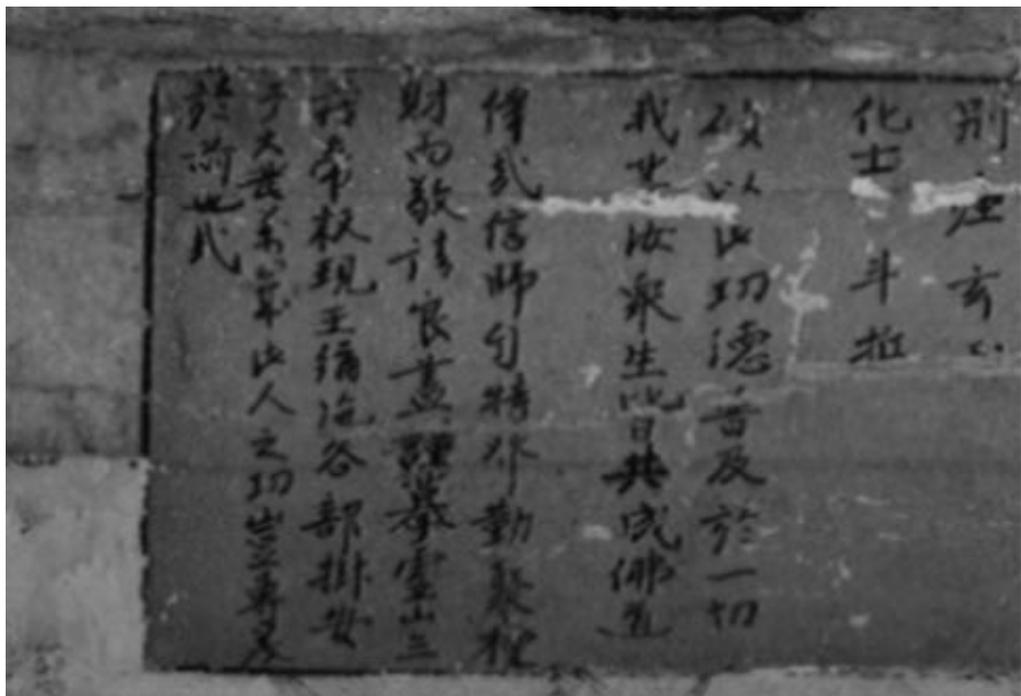


그림 379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 화기 끝부분(적외선 촬영: 국립문화재연구소)

[화기]

범례 : □ 결락자, (?) 추정자

화기

乾隆五年歲次庚申七月」

日敬畫三藏一器奉安于」

嶺□善嶺伏牛山大菴寺」

施主秩」

婆幘大施主嘉善熙淑」

後排大施主宋牟芻兩主」

彩色大施主李介弗兩主」

後排大施主通政自俊保體」

後排大施主通政瑞悅保體」

後排大施主省日」

供養大施主善訓」

□青□施主嘉善信戒

상단

□□□□

比丘靈(?)岑

□政朴自日兩主

通政金者斤老(?)味(?)

□政朴俊碩兩主」

處士德律兩主」

金遠奉兩主」

□政梁甲仁兩主」

處士文日兩主」

通政白英達兩主」

宋大芻屎兩主」

朴今宗兩主」

申命在兩主」

安成老兩主」

金命吉兩主」

姜命占兩主」

張厚邑種兩主」

順龍伊兩主」
曹夢□兩主」
金介金兩主」
嘉善李仁發」
李厚弼兩主」
尹萬平兩主」
金重碩兩主」
李泰萬兩主」
李泰元兩主」
金夢葉兩主」
劉正連兩主」
金莫發兩主」
金順發兩主」
韓望種兩主」
韓萬伊兩主」
權時望兩主」
宋氏愛粉」裕
宋達萬兩主」
安世雄兩主」
金貴碩兩主」
柳世遠兩主」
比丘卓融保体」
比丘克英保体」
通政幸敏

緣化秩」
證明大德玄遠」
持殿大德宗□」
誦呪比丘法尙」
畫員 月輪」
通政 致欽」
 雨平」
供養主呂尙」
 卓□」

別座 玄□」

化士 斗哲」

하단

金命傑兩主」

通政□□」

呂日尙兩主」

全迪呂兩主」

京城李召吏」

比丘思善」

金尙建兩主」

嘉善崔善□」

居士信起兩主」

通政性岑」

大德性海」

高氏召吏」

徐尙遠兩主」

宋厚正兩主」

梁成□□」

朴幸發兩主」

文應建兩主」

南斗芳兩主」

朴奉世兩主」

文萬章兩主」

鄭建伊兩主」

李南伊兩主」

玄□保體」

贊敏保體」

本師秩」

山中大德印潤」

老德戒訥」

老德淨□」

老德卓融」

前和尚竺英」
判司前和尚通政」
致欽」
時和尚英贊」

三寶性卞」
三綱 持事體洽」
書記玄玉」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佛道」
偉哉信師自特發勤聚檀」
財而敬請良畫謹摹靈山三」
藏帝釋現王彌陀各部掛安」
于大茆(?)萬歲此人之功豈專美(?)」
於前也哉」

19. 창녕 송현동 7호분 출토 금동투조안교 (昌寧 松峴洞 7號墳 出土 金銅透彫鞍橋)

가. 검토사항

‘창녕 송현동 7호분 출토 금동투조안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가야문화재연구소장으로부터 ‘창녕 송현동 7호분 출토 금동투조안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3.28)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8.12.1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창녕 송현동 7호분 출토 금동투조안교(昌寧 松峴洞 7號墳 出土 金銅透彫鞍橋)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56 가야문화재연구소
- 수 량 : 1건 2점(前輪·後輪)
- 규 격 : 전륜 최대너비 43cm, 높이 29cm 내외
후륜 최대너비 55cm, 최대높이 35cm 내외
- 재 질 : 목재, 금동
- 형 식 : 금동투조판
- 조성연대 : 6세기 초(가야)

라. 조사자 검토 의견

(지정 가치 미흡)

송현동 7호분 출토 금동안교 셋트는 출토유적과 유구 및 출토상황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전륜과 후륜 한 쌍의 안교로서 그 고고학적 가치가 크고, 전반적인 제작의 기법

과 수준 및 규모와 공예적 수준이 높은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히 후륜의 목심이 심하게 왜곡 변형되었으며, 그러한 왜곡변형이전의 상태로의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고형화되어 버렸다. 이로 인하여 일정한 수준의 원형유지 또는 원형복원이 전제되는 보물지정대상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으로서 보물지정가치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이 금동투조안교는 창녕 송현동 7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로서, 목심 구조와 투조 형식 및 문양 등에 있어 신라 황남대총 남분과 유사성이 있는 5세기 중엽 이후 6세기 전반 가야시대 안장 유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 안교는 형태를 만든 목심 부분이 상당히 잘 남아있는데, 이러한 점이 다른 삼국시대 안교와 비교되는 가야의 뛰어난 목공예의 기술적 성취로 여겨 주목된다. 아울러 전륜과 후륜에 금동판을 두드린 다음 투조하고 축조기법으로 점열무늬를 장식하고 ‘C’형 복륜으로 마감한 위에 못을 박아 마감하는 방식 등은 공예 기술적으로 우수하다.

이처럼 이 안교는 가야시대 안장(鞍裝)의 일부로서 삼국시대 마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발굴 당시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그 원형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 안교의 형태를 이루는 목심 부분이 수축되어 금동으로 이뤄진 복륜 본체와 이격이 심한 점, 금동투조판의 부식이 심하여 뒷면을 조사하기도 어려웠다는 점은 아쉽다. 따라서 본 유물에 대해서는 목심의 변화나 철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금동 투조판의 부식 방지 및 보존처리 및 보존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요구되며, 게다가 신라시대 안교와 비교할 때, 이 안교를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미흡)

1)이 금동투조안교는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산92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송현동7호분 석실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송현동7호분은 사적 제514호인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속해 있는 고분으로 6호분과 7호분이 붙어 있는 쌍분중 하나로 2004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6호분과 함께 발굴조사 되었다.

2)먼저 6호분이 남쪽에 먼저 축조되었고 7호분은 6호분의 북쪽 호석에 붙여 축조한 횡구식 석실분이지만 추가장은 없었던 고분이다.

3)석실 목관 서편에서 출토된 금동투조안교는 전륜과 후륜만 남아 있고 다른 부분은 거의 멸실되었다.

- 4)전륜은 ‘ㄱ’자형의 판재 2점을 중앙에서 접합시켰으며 전체적으로 역 ‘U’자상을 취하고 있다. 목판을 심으로 한 위에 변형용문을 새긴 금동투조판을 덮은 후 가장자리에 금동판으로 고정시켰다. 고정판인 복륜(覆輪)은 단면 ‘C’형인데 금동투조판 바깥 가장자리에 축과 같이 일부를 돌출시킨 후 복륜 안으로 끼워 고정하였다.
- 5)복륜의 양 끝에는 목판, 금동판과의 결착을 위해서 못을 한 개씩 박아놓았다. 안쪽 가장자리는 폭 0.4cm의 금동띠를 2줄로 붙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못을 교차되게 박았다.
- 6)후륜은 전륜보다 크기가 약간 클 뿐 제작 방법이나 형태가 거의 같다. 전륜 금동투조판의 오른쪽 상단과 후륜 왼쪽의 많은 부분이 탈락되고 결실되었다.
- 7)현재 전륜의 최대너비 43.4cm, 높이 29.8cm이며, 후륜은 최대너비 53.8cm, 높이 35.8cm이다.
- 8)이 안교는 금동투조의 제작수법으로 만든 안교로 전륜과 후륜의 나무판은 비교적 잘 남아 있으나 중요한 금동투조가 전륜은 우측 상단의 3분의 1이상 탈락되어 멸실되었고 후륜의 왼쪽의 3분의 2가 탈락되어 멸실된 점으로 보아 국가 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여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이 금동투조안교는 안교의 앞과 뒷부분에 해당하는 전륜과 후륜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금동제 투조장식판으로 목심을 장식한 예로서, 삼국시대 신라 및 가야 고분에서 흔히 출토되는 안교 형식이다. 다만 내부에 목심이 상당히 잘 남아 있으며, 투조된 문양이 신라 고분 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의 고분인 황남대총 남분 출토 금동안교와 비슷한 형식을 보여준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러나 금속판이나 목판의 부식 상태가 심하고, 발굴 때부터 이미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하여 상당 부분이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원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유물을 뒤집어 조사를 할 수도 없을 만큼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전시나 활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동투조안교는 삼국시대 마구(馬具)의 연구에는 매우 귀중한 새로운 자료이다. 그러나, 현재의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보존 상태 및 비슷한 형식의 다른 기존 유물들과의 관계나 지정 현황 등을 비교하여 고려해 볼 때, 이 유물을 보물로 지정할만한 중요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목심의 보존 상태나 최근 발굴품이라는 특수성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생각한다. 보물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와 연구가 진행되어, 지방 문화재로라도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지정 가치 미흡)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5~6세기 창녕지역 최고지배층의 묘역으로 송현동 7호분은 그 규모가 중형에 해당한다.

송현동 7호분에서 출토한 안교는 지금까지의 신라·가야지역에서 출토한 안교중에서 판재의 지판이 남아 있어 안교의 제작기법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성이 있으나 용문이 투조된 금동투조판 사례는 영남지역의 고분에서 출토된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잔존상태가 불량하고, 좌목선금구가 결실되었고, 판재도 수축되어 상태가 좋지 않은 등의 사유로 지정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 내용 및 특징

1. 출토 배경

사적 제81호인 송현동고분군은 경남창녕군창녕읍송현리 산 92일원에 위치한다. 1917년에 그 소재가 파악된 후 1919년 조선고적조사보고서에 그 개략적인 분포상황이 보고되었으며, 2001-4년에 발굴을 포함한 정밀분포조사가 실시되었다. 고분의 분포양상은, 목마산 구릉 일대에 세 군을 이루고 있으며, 이중 북서면의 고분군에 속하는 6호분과 7호분 및 소형분 수기가 발굴되었다.

송현동 7호분은 6호분의 북측호석과 봉토일부를 깎아내고 붙여서 축조하였으며, 따라서 6,7호분은 표형분의 외형을 이루고 있다. 잔존봉분의 높이는 5.6m, 봉분의 평면은 남북이 긴 장타원형으로 봉분 가장자리의 둘레는 약 20m이다. 석실은 남북장축이고, 평면은 길이 840, 너비 180, 높이 240cm 내외의 세장방형이다. 석실4벽은 할석으로 축조하였고, 개석은 9매의 판석으로 조성하였다. 석실바닥중앙에는 길이 330, 너비 8-90cm의 단면이 둥근 목관을 안치하고 목관과 석실바닥의 틈을 할석으로 고정하였다. 목관의 내외에서는 칠기, 목기, 무기 및 각종 토기와 함께 안교를 포함한 마구가 출토되었다.

2. 형태와 특징

발굴당시 안교는 전륜과 후륜 한 쌍이 연접하여 잔존하고 있었으며, 목제좌목은 남아있지 않았다(사진3 : 전, 후륜 출토당시 상태). 출토당시의 모습은 결실과 탈락된 부분에도 불구하고 전륜과 후륜 모두 복륜, 목심, 내연금구 및 금동투조판장식 등 기본적인 제 요소와 전체 구조의 복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출토당시의 상태와 잔존수준으로 추정할 때, 일실되거나 탈락된 부분들에 대한 보충을 포함한 적정한 보존처리과정을 진행할 경우, 원형의 복원과 복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특히 후륜의 경우, 발굴이후 노출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목심이 일정한 수준의 원형회복 불능 상태로 왜곡 변형됨으로서 복륜과 내연금구 및 금동투조판 등과의 재결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사진4 : 후륜현존상태). 이러한 후륜의 현존상태는 그 고고학적이고 공예적인 측면의 상당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보물급의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하는 원형에 가까운 잔존상태, 또는 보존처리를 통한 원형의 복구나 복원의 가능성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고분군에 속한 송현동7호분은 6호분과 표형분을 이루고 있으며(사진1 : 봉분발굴 상황), 세장방형의 횡구식 석실 중앙부에 단면이 반원형에 가까운 기다란 목관을 안치하였고(사진2 : 석실내부목관), 목관의 내외에서 안교 등의 마구와 칠기, 목기, 무기 및 각종 토기가 출토되었다. 발굴당시 안교는 전륜과 후륜 한 쌍이 연접하여 잔존하고 있었으며, 목제좌목은 남아있지 않았다(사진3 : 전, 후륜 출토당시 상태). 출토당시의 모습은 결실과 탈락된 부분에도 불구하고 전륜과 후륜 모두 복륜, 목심, 내연금구 및 금동투조판장식 등 기본적인 제 요소와 전체 구조의 복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출토당시의 상태와 잔존수준으로 추정할 때, 일실되거나 탈락된 부분들에 대한 보충을 포함한 적정한 보존처리과정을 진행할 경우, 원형의 복원과 복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특히 후륜의 경우, 발굴이후 노출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목심이 일정한 수준의 원형회복 불능 상태로 왜곡 변형됨으로서 복륜과 내연금구 및 금동투조판 등과의 재결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사진4 : 후륜현존상태). 이러한 후륜의 현존상태는 그 고고학적이고 공예적인 측면의 상당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보물급의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하는 원형에 가까운 잔존상태, 또는 보존처리를 통한 원형의 복구나 복원의 가능성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문헌자료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사전, 2001 >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사전(고분편), 2009 >

< 류창환, 가야마구의 연구, 서경문화사, 20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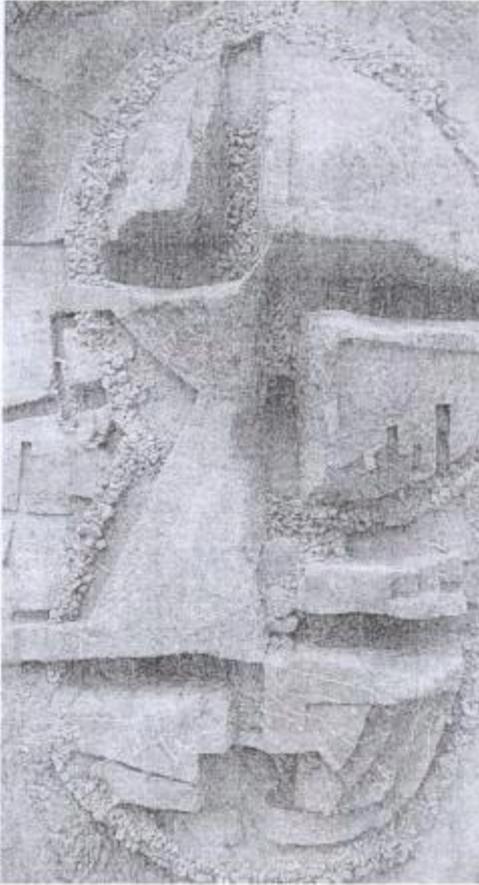


그림 380. 송현동 6,7호분 발굴상황



그림 381. 석실내부 목관



그림 382. 전륜 및 후륜 출토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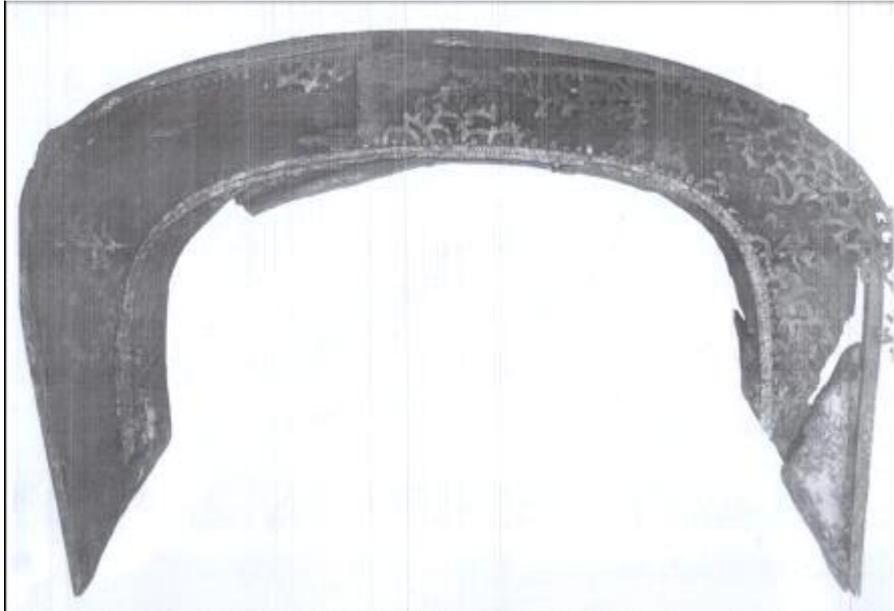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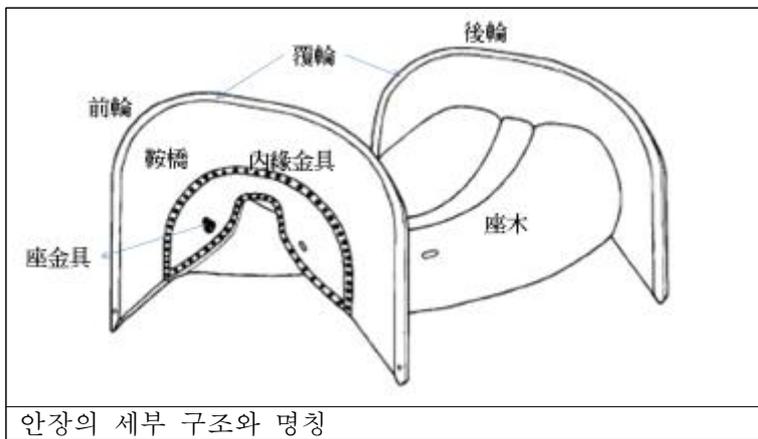
그림 383. 후륜 현존상태

□

○ 형 식

창녕 송현동 7호분에서 출토된 안장의 일부인 안교(鞍橋)에 해당되는 전륜(前輪)과 후륜(後輪)이다. 이 전륜과 후륜의 재료는 목심으로 만든 형태 위에 테두리와 내부를 금동으로 투조하여 만든 경식안장[硬式鞍]의 일종이다.

안교(鞍橋)는 일반적으로 안장(鞍裝)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안장의 앞뒤로 한정하도록 한다. 대체로 안장은 크게 전교와 후교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여 앉는 자리인 좌목(座木)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안교는 구조상 앞과 뒤로 나뉘어 전교(前橋)와 후교(後橋)로 부르거나 전륜과 후륜으로 부르기도 한다. 안교의 세부는 복륜(覆輪)과 내연금구(內緣金具), 좌금구(座金具) 등으로 구성된다.



이 송현동 출토 금동투조안교는 전륜과 후륜 1쌍이며, 이것들은 목심으로 형태를 만든 위에 복륜과 내연금구로 구성되어 있다. 목심 부분은 중앙에서 좌우로 ‘ㄱ’자 붙여 안교의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는 금동으로 투조한 것을 부착한 다음, 바깥쪽 가장자리를 ‘C’형 복륜(覆輪)으로 감싸 빙 두른 테로 장식하고, 그 하단의 양쪽 끝은 못을 박아 마감한다. 내연금구는 안교의 안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는 금구로서 여기서는 두 줄이 돌아가고 있다. 폭이 좁은 금구에는 못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이렇게 못을 박음으로써 안교 금구와 좌목선금구를 결합하는 동시에 이 못이 안교의 목심을 관통하여 좌목에 박혀져 안교와 좌목을 결합하고 보강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못은 목심 뒤편까지 관통하지는 않아 내연금구의 못이 안교와 좌목을 연결하는 기능은 아니라, 목심을 보강하기 위한 기능이었다.



테두리의 복륜에는 금속제 못을 박아 목심 위에 금동투조판을 고정시켰다. 전륜의 아래쪽 내연 금구는 높이 22.2cm이며, 여기에는 여러 개의 작은 못이 남아 있다. 못의 길이는 1.2cm 정도이며, 못 구멍의 크기는 지름 1.5mm 정도이다. 전체 크기는 전륜보다 후륜이 약간 크며, 보존상태는 전륜이 후륜보다 좋은 편이다.



이 송현동 안교의 특징은 삼국시대 안장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전륜과 후륜 모두 목심 부분이 잘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국시대의 안교는 여러 고분에서 다수 출토되었다. 신라에서 출토된 안교는 금관총에서 2쌍, 식리총에서 2쌍, 천마총에서 5구, 금령총에서 3쌍, 호우총에서 1쌍, 황남동 110호분에서 2쌍. 황남동 98호분에서 7구, 황오동 14호분에서 1쌍, 미추7추 5호에서 1쌍, 월성로가-6호에서 1쌍 등이다. 가야에서 출토된 것으로는 지산동 35호분 1쌍, 지산동 44호분 1쌍, 지산동 45호분 2쌍, 옥전 42호분에서 1쌍, 옥전 70호에서 1쌍, 옥전 M3호에서 2쌍 등이 출토되었다. 이중 목심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것은 동래 복천동 21,22호분 것과 경주 미추왕7구 5호분이며 여기에는 내연금구에 박은 못이 내연금구와 같은 방향의 목심에 박혀있다. 하지만 이렇게 목심이 잘 남아 경우는 거의 드문 편인데, 이로 미루어 안교의 표면에는 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나, 발굴 조사 등에서 이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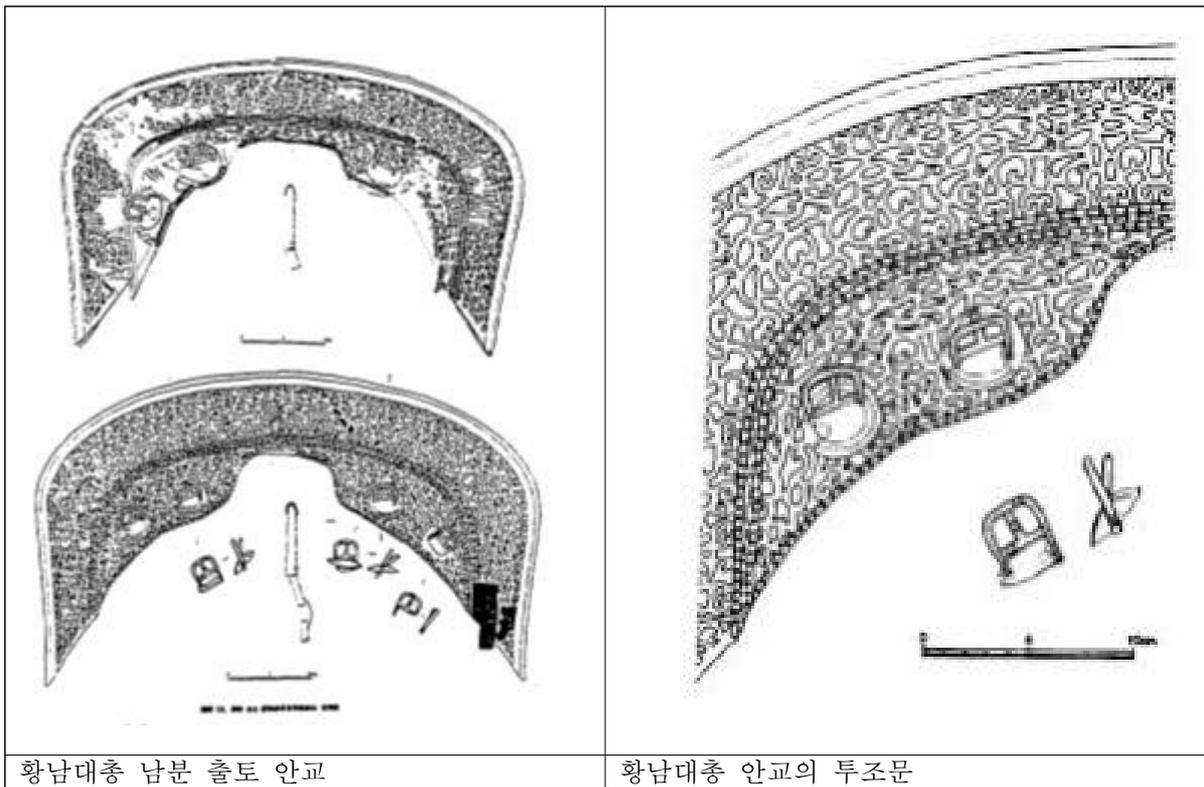
표면과 테두리를 장식한 금동관은 두드러져 만들었으며, 그 위에는 금 도금의 흔적이 보인다. 비교적 상태가 좋은 앞면의 금동관에 투조된 문양은 운기문과 유사한 초룡문(草龍文)이다. 투조된 금동관의 가장자리에는 축조기법(蹴彫技法)을 사용하여 잔잔한 점열무늬가 새겨져 있다.



금동 판 투조와 축조기법으로 새긴 점열무늬

금도금의 흔적

전반적으로 안교의 형식이나 투조된 금동장식관의 문양은 경주 황남대총 남분 출토 안교와 유사하다. 이로 미루어 비교적 이른 시기의 가야시대에 제작된 안장으로 주목된다.



황남대총 남분 출토 안교

황남대총 안교의 투조문

○ 조성연대

이 안교는 목심 위에 금동투조판을 붙인 제작 형식이나 투조된 문양 등 여러 면에서 경주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안교와 유사하여 제작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황남대총 남분의 경우 편년에 이견이 많아 정확한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5-6세기 경 가야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 현 상

이 안교는 가야를 비롯하여 삼국시대 출토 안교 유물 중 목심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것으로 주목되며, 이로 미루어 표면에 칠이 되어 방부나 방습을 해주는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안교의 목심 부분이 금속제 테두리보다 줄어 본체에서 이격(離隔)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발굴 당시의 상태 그대로인지 아니면 이후 보존상태에서 줄어들거나 아니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정기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아울러 금동으로 투조된 문양판의 경우에도 보존처리가 되었음에도 부식이 심하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내용 및 특징

안교는 말을 타는 기수의 몸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전륜과 후륜아 거목(居木)으로 연결된다. 안장은 재질의 경도에 따라 딱딱한 경식안과 부드러운 연식안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목재와 금속제로 이뤄지고 후자는 가죽과 천 등으로 이뤄진다. 가야 시대의 안교는 시기에 따라 재료가 달라지는데 5세기 전반까지는 대체로 나무와 철제가 결합된 안교가 제작되었고 5세기 중엽 이후에는 금동 합금과 같이 화려한 재질로 만들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안교는 창녕 송현동 7호분에서 출토되었는데 단단한 나무로 뼈대를 삼은 경식안에 해당되며 그 외곽을 금동을 투각하여 만든 5세기 중엽 이후 6세기 전반기에 해당되는 가야시대 말안장의 일부이다. 안장은 2매의 좌목이 말등에 얹혀지고 그 좌목 위에 안교가 앞뒤로 놓이는데, 이 유물은 안교의 전륜과 후륜만 남아 있다.

삼국시대 안장 중에서는 목심까지 남은 예가 많지 않은데, 이 안교 유물은 목심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라시대의 안교 중에는 황남대총, 금관총, 식리총, 천마총, 금령총 등에서 출토되었고, 그중 금관총 안교의 경우 비록 온전하지는 않지만 안쪽 목재 부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이 안교와 구조나 형태 및 투조 문양 등에서 가장 흡사한 것은 신라의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안교이다. 이를 통해 이 유물이 제작된 시기를 추정할 수 있으나 안교의 출토 사례가 많지 않아 제작연대를 정확하게 편년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 참고문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창녕 송현동고분군 I - 6·7호분 발굴조사 보고 본문·도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창녕군, 2011.

강현숙, 「고분 출토 갑주와 마구로 본 4,5세기의 신라, 가야와 고구려」, 『신라 문화』32, 2008.

김두철, 「한국 고대 마구의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류창환, 「가야 마구의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내용 및 특징

창녕 송현동 7호분 석실 목관 서편에서 출토된 금동투조안교(金銅透彫鞍橋)로 전륜(前輪)은 ‘ㄱ’자형의 판재 2점을 중앙에서 접합시켰으며 전체적으로 역 ‘U’자상을 취하고 있다. 목관을 심으로 한 위에 변형용문을 새긴 금동투조판을 덮은 후 가장 자리에 금동판으로 고정시켰다. 후륜(後輪)은 전륜보다 크기가 약간 클 뿐 제작

방법이나 형태가 거의 같다. 전륜 금동투조판의 상단왼쪽의 반 이상과 후륜 왼쪽의 많은 부분이 탈락되고 결실되었다.

○ 참고문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창녕 송현동고분군 I-6·7호분 발굴조사보고』.

□

○ 형 식

창녕 송현동 7호분의 목관 서편 구간에서 출토된 금동투조장식 안교(鞍橋)의 일부으로, 현재 전륜(前輪, 그림 1)과 후륜(後輪, 그림 2)이 남아 있다. 전륜과 후륜은 각각 “ㄱ”형 판재 2점을 중앙에서 집합한 후, 위에 금동투조판을 얹고, 바깥 테두리 부분에 단면 “C”자 형태의 복륜(覆輪)을 끼워 고정한 형식이다. 전륜이 조금 작고 후륜이 조금 크며, 보존 상태는 후륜이 좀 더 좋지 못하다.



그림 1. 전륜.



그림 2. 후륜.

이 금동투조안교 일괄품은 삼국시대 안장 중에서는 보기드물게 목심이 잘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면과 테두리를 장식한 금동판은 동판에 금 도금한 것으로 추정되며 두드러져 만들었다. 현재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여 뒷면은 조사하지 못했다. 앞면을 장식하고 있는 얇은 금동판에는 변형용문(變形龍文)을 투각했다고 하는데, 문양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투조판의 테두리에는 모두 축조기법(蹴彫技法)으로 삼각형의 점열문을 새겨서 장식했다(그림 3).

전륜 아래 남아 있는 내연금구는 높이 22.2cm이며 목심에 고정했던 작은 못들이 여러 개 남아 있다. 남아 있는 못 중에서 제일 긴 못은 길이 1.2cm이며, 못 구멍의 크기는 지름 1.5mm이다. 표면에는 칠을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하지 않다.

전반적인 안교의 형식이나 투조된 금동장식판의 형식은 경주 황남대총 남분



그림 3. 전륜 세부. 투각문과 축조 점열문 세부.

출토 안교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가야시대 안장의 실물로 주목된다.

○ 조성연대

이 안장은 형식상 경주 황남대총 남분 출토 안교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황남대총 남분의 절대 편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

이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5세기-6세기 초반 경으로 추정되고 있다.⁶¹⁾

○ 현 상

목심은 비교적 잘 남아있으나, 금동투조장식판은 부식이 심하고 이미 파손된 부분도 많다. 부식 및 파손으로 인하여 현재 보존 상태는 그다지 좋지 못하다. 보존 및 관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뒷면 및 세부에 대한 조사 및 보존처리도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내용 및 특징

가야시대의 금동제 말 안장의 일부로서, 현재 안장 좌우에 올리는 전륜과 후륜 부분만 남아 있다. 신라 고분 중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고총고분인 황남대총 남분 출토 금동안교와 형식 및 문양이 유사하여,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지만, 정확한 제작연대를 비정하기는 다소 어렵다. 삼국시대 안장 중에서는 목심까지 남은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목심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 하다.

□

○ 현 상

전륜과 후륜으로 이루어졌음. 전륜은 2매의 판재 2매를 중앙에서 접합하였고, 전·후면에 흑칠하였음. 전면에는 변형용문을 새긴 금동투조판을 덮었으나 오른쪽 일부와 중간 일부 등 전체의 1/3정도가 떨어져 나갔음. 내연금구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못을 교호로 박았음. 좌목선금구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부식된 것으로 추정

6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창녕 송현동고분군 I-6·7호분 발굴조사 보고 본문·도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창녕군, pp. 261-264.

됨. 좌목선교구도 이탈되었음.

후륜은 2매의 판재 2점을 중앙에서 접합하였고, 전·후면에 흑칠하였음. 그 위에 변형용문을 새긴 금동투조판을 덮었으나 좌측 대부분과 중앙과 우측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음. 내연금구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못을 교호로 박았음.

○ 내용 및 특징

전륜과 후륜의 지판은 흑칠한 판재 2매를 중앙에서 접합하였고, 그 위에 변형용문을 새긴 금동투조판을 덮은 후, 단면 ‘∩’형의 복륜을 끼워 고정하였음. 복륜의 좌·우 가장자리에 못을 박아 복륜·금동투조판·판재를 고정하였음. 투조문의 가장자리에는 축조기법의 점열문이 시문되었음. 금동투조판의 상단에는 일정간격으로 장방형으로 돌출시켜 복륜 안쪽에 삽입시켰음. 내연금구는 너비 4mm의 금동띠를 2줄로 붙이고 일정 간격으로 못 머리 지름이 5~6mm 크기의 못을 교차되게 박았음. 좌목선금구는 완전히 결실되었고, 좌목선교구도 이탈되었으나 주변에서 출토된 금동교구가 좌목선교구일 가능성이 있음. 지판으로 사용된 판재의 측면에는 가공흔이 남아 있음. 이 안교는 지금까지의 신라·가야지역에서 출토한 안교중에서 판재의 지판이 남아 있어 안교의 제작기법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나 금동투조판의 잔존상태가 불량하고, 판재도 수축되어 상태가 좋지 않음.

○ 참고문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창녕 송현동고분군 I』 6·7호분

○ 기 타

금동투조안교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창녕 송현동고분군의 발굴조사 시, 7호분에서 출토한 국가귀속매장문화재임

20. 고령 지산동 518호분 출토 금은제귀걸이 (高靈 池山洞 518號墳 出土 金銀製耳飾)

가. 검토사항

‘고령 지산동 518호분 출토 금은제귀걸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으로부터 ‘고령 지산동 518호 출토 금은제귀걸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3.28)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8.12.1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고령 지산동 518호 출토 금은제귀걸이
(高靈 池山洞 518號墳 出土 金銀製耳飾)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56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수 량 : 1점
- 규 격 : 전체길이 7.9cm, 주환 : 직경 2.3, 두께0.2cm
중간식(구체) : 길이 0.8, 너비 1.0cm
수하식 : 길이 2.85, 너비 1.5, 두께 0.8cm
- 재 질 : 금은합금
- 형 식 : 대가야 세환이식(細環耳飾)
- 조성연대 : 6세기(가야)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지산동 518호분은 대가야전성기인 5세기말-6세기 초로 비정되는 대가야 유력수장의 무덤으로서 문제의 금은제 이식뿐만 아니라 안교와 금동제관모장식, 환두대도를 포함한 500점에 이르는 넘는 유물이 수습되었다. 극심한 도굴을 겪은 고분의 잔존상태로 미루어 도굴이전에는 더 많은 유물뿐만 아니라 금동관과 같은 귀중한 부장품이 묻혀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가야고분의 도굴사례에 해당한다. 금은제수하부이식의 경우, 가야지배층의 대형고분에서는 통상 한 쌍의 이식이 부장되고, 출토되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문제의 금은제이식과 쌍으로 부장되었던 다른 한 점은 도굴과정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518분 출토 금은제수하부이식의 경우, 전성기 대가야의 전형적인 이식의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대가야의 이식출토사례 가운데 모양이 화려할 뿐만 아니라 금은합금제라는 점에서 학술적인 측면에서 그 독특한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 그러나 보물지정의 차원에서 볼 때, 518호분 이식의 경우, 심한 도굴을 겪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고, 매장위치도 다른 가야고분의 이식부장방식으로 일정한 추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위치에서 이동되어 도굴로 교란된 토중에 섞인 상태로 발굴되었다는 사실과, 통상 이식의 경우 온전한 한 쌍을 지정대상으로 간주하여 온 관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정가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 가치 미흡)

이 금은제 귀걸이는 2012-2013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고령 지산동 518호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발굴된 고분은 도굴로 인해 매장 유물이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유구가 교란되어 출토된 유물의 현상이 명확하지 않다. 이 귀걸이 또한 도굴통로에서 발견되어 1짝만 발견되었는데, 매장 당시부터 1짝이었는지 혹은 원래는 1쌍이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도굴로 교란된 위치에서 출토되어 그 원형을 알기 어렵고 역사적 가치 또한 미흡하다.

이 귀걸이는 세환식 주환과 둥근 공 형태의 중간식과 산치자형 수하식으로 이뤄진 가야 귀걸이의 전형이다. 이 귀걸이는 금과 은의 실용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금제품[엘렉트럼]이라는 점에서는 기술적인 가치가 높다.

이 귀걸이는 금은합금으로 금빛과 은빛이 교차하면서 사슬형 연결고리를 만들고 은빛으로 중간식 둥근 공과 수하식 산치자형[혹은 펜촉형] 및 맨아래 금알갱이를 배치하는 등 가야의 산치자형 귀걸이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이지만 공예기술적으로 조형적으로 이보다 뛰어난 것들이 많이 존재하여 예술적 가치가 높지 않은 편이다.

이처럼 이 귀걸이는 가야시대에 금은 합금기술을 엿볼 수 있다는 공예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주목되나 출토 유구가 교란되어 유물의 출토상태가 원형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유물은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지정 가치 미흡)

- 1) 금은제 수하부이식은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8번지 일대에 분포하는 사적 제76호인 고령지산동고분군에 속한 제518호분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발굴조사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하였다.
- 2) 이 유물은 518호분 주곽안의 도굴통로인 남서단벽 쪽의 교란토에서 금동제 관장식 등과 함께 출토되어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 3) 이 유물은 은이 혼입된 금제품으로 주환과 중간식, 수하식이 연결된 이식으로 완형이다. 주환은 가는 금봉을 구부려 둥글게 제작하였다. 중간식은 속이 빈 반타원체 2개를 접합하여 제작하였는데, 반타원체는 상하에 각목문대를 부착하고 금립을 장식하였다. 상·하 각목문대 사이에는 구체를 부착하고 외연을 각목문대로 돌리고 그 위에 금립을 부착한 장식을 달았다.
- 4) 수하식은 변형된 표주박형 혹은 산치자형으로 속이 빈 금판 두 개를 접합하여 제작하였다. 가장자리로 각목문대를 부착하였다. 금판 가운데는 뒷면에서 타출하여 산치자 문양을 볼록하게 장식하고, 세로로 눌러 양분하였다.
- 5) 주환, 중간식, 수하식은 연결금구와 금은사를 구부려 사슬형태로 연결하였다.
- 6) 유물의 크기는 전체길이 7.9cm, 주환의 직경 2.3cm, 두께 0.2cm이며, 중간식(구체)은 길이 0.8cm, 너비 1.0cm이다. 그리고 수하식은 길이 2.85cm, 너비 1.5cm, 두께 0.8cm의 규모이다.
- 7) 이 금은제 수하부이식은 재질이 특별하고 모양은 매우 아름다운 귀걸이장식이다. 그러나 정식 발굴조사에서 출토되었지만, 위치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야유물 중 이보다 더 우수한 금제이식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지정은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이 금은제 귀걸이는 2012-2013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고령 지산동 518호고분에서 출토된 가야시대의 보기드문 엘렉트럼제 귀걸이로서, 학술적으로는 상당히 독특하고 중요한 문화사적 의미를 가진 귀걸이이다.

그렇지만, 고분 자체가 도굴되면서, 원래의 매납 위치에서 발견되지 않고 도굴갱으로 추정되는 주곽의 남동단벽에서 다른 유물들과 교란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한 짝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원래 피장자가 어떻게 착용했던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귀걸이의 상태는 그다지 완벽하지 않고 일부 찌그러진 부분이 확인되며, 양식도 전형적인 가야 양식에서 다소 변형된 양식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출토 상태 및 현재 귀걸이의 상태 등으로 볼 때, 이 귀걸이는 보물로 지정할만한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정 가치 미흡)

지산동고분군은 대가야의 최고지배층의 묘역이고, 518호분은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중간 능선에 위치하는 중형분이다. 518호분에서 나온 금은제수하부이식은 상태가 양호하고, 은 위에 도금을 한 특이한 사례이나 가야 이식의 장식이나 화려함, 세공기법 등에서 지산동고분군의 여타 고분 출토품과 합천 옥전고분군 출토 금제이식에 비해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가치 미흡으로 판단한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 내용 및 특징

지산동 518호 고분

고령지산동소재 사적 제79호 대가야고분군의 총 704기고분중하나로서 남군에 속하며 가야문화재연구소가 2012-3년에 발굴하였으며 5세기말-6세기 초로 추정된다. 발굴이전에 이미 대규모의 도굴을 당한 고분으로서 발굴을 통하여 금동제관모장식, 금은제수하부이식, 금동제안고, 행엽, 사행상철기, 마주 등자, 찰갑, 광형관주, 환두대도 토기류 등 482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고분의 규모는 봉분의 크기가 동서17.8m, 남북15.5m이고, 매장주체부는 주곽과 부곽이 병렬로 배치된 수혈식 석곽이다. 매장주체부 주변으로 5기의 순장곽과 3기의배장묘가 위치한다. 주곽은 장축6.7m, 단축 1.2m, 높이 2.06m이며, 할석조이며 도굴과 개석붕괴로 벽석이 심하게 붕괴되었다. 주곽양단벽을 제외하곤 도굴로 인하여 부장당시의 양상을 알수

없다. 도굴통로로 쓰인 남서장벽 붕괴지점 주변에서 유물이 집중 출토되었는데, 바닥면에서 10-20cm 위의 교란토 안에서 문체의 금은제수하부이식을 비롯한 조익형금동제관모장식, 금동판, 종장판주, 찰갑, 금동제안고, 철제마주, 철제안고, 철제등자, 사행사철기 등 다량이 수습되었다.



그림 393. 고령 지산동 518호 발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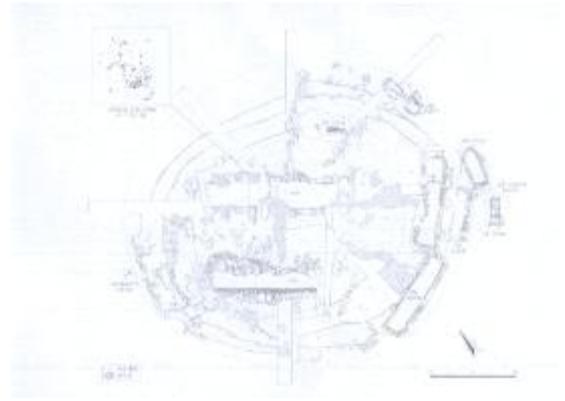


그림 394. 고령 지산동 518호분 발굴도면

2. 금은제수하부이식

전체길이 7.9, 주환, 직경 2.3, 두께0.2, 중간식(구체) 길이 0.8, 너비 1.0, 수하식 길이 2.85, 너비 1.5, 두께 0.8cm이다. 주환, 유환, 연결금구, 중간식, 수하식을 갖춘 전형적인 대가야양식의 이식이다. 1쌍중 1점만이 수습되었는데, 재질은 금은합금이며, 주환과 유환의 금함량은 79.82-83.22%이고 중간식 공구체가 47.86으로 낮은 편이다. 주환은 지름 0.2cm의 금은사를 자른 다음 둥글게 휘어서 만들었다. 주환 아래에는 자그마한 유환이 걸려있으며 유환과 중간식사이에도 사슬형 장식이 부가되어있다. 공구체의 중간식아래에 사슬형장식이 한 개 걸려 있으며, 그 아래에 다시 둥근 고리1개와 수하식이 달려있다. 공구체의 중간식은 반구체를 상하로 배치한 다음 접합하였다. 접합부의 상하, 연결금구를 끼워넣기 위한 작은 구멍 등에 새김눈테(각목대)가 부착되어있다. 공구체의 상하에는 모두 6립의 금알갱이가 장식되어있다. 수하식은 이른바 산치자형의 범주에 속하는 형태이고, 이면타출로 산치자의 씨앗처럼 돌출시킨 금판2매를 연접한 후 표면에 새김눈테를 붙였고 하부에는 4과의 금립을 붙여서 장식하였다. 이와 같이 518분 출토 금은제수하부이식의 경우, 세환의 주환, 공구체의 중간식, 산치자형 수하식 및 사슬형 연결금구 등의 제반특징은 대가야의 전형적인 이식의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대가야의 이식출토 사례 가운데 모양이 화려할 뿐만 아니라 금은합금제라는 점에서 그 독특한 가치를 인정받을 만하다.



그림 395. 고령 지산동 518호 금제이식



그림 396. 고령 지산동 518호 금제이식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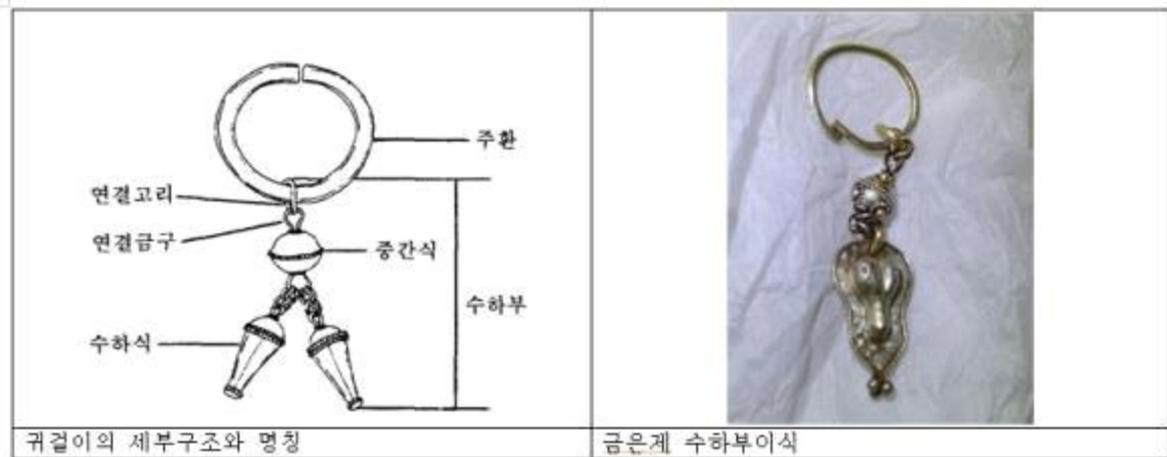
○ 참고문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고령지산동고분군: 518호분 발굴조사보고서』, 학술조사보고서 제68집, 20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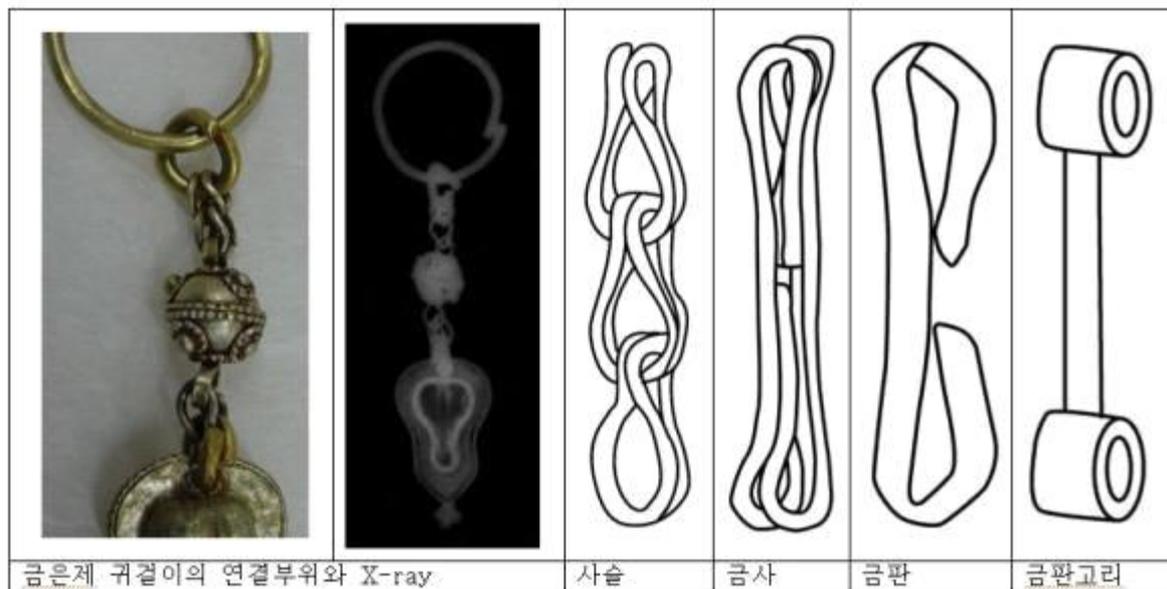
○ 형 식

고령 지산동 518호분에서 출토된 1점의 귀걸이로서 주환(主環)과 중간식[中間飾] 및 수하식(垂下式)의 3단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환의 두께가 가느다란 가야 시대의 전형적인 세환식(細環式) 귀걸이이다.



우선 주환은 금봉(金棒)을 굵기 1.7-1.9mm 두께로 가늘게 늘린 후 구부려서 만들었다.

다음 중간식은 속이 빈 둥근 공구체[空球體]가 주체인데, 이것의 상하로 주환과 수하식에 연결하여 매단 형식이다. 위쪽의 주환과 연결시킨 부분은 주환의 두께와 비슷하나 크기가 작은 고리[두께 1.7mm]이고, 그 아래쪽으로는 좀더 가늘고 얇게 [0.8-1mm] 사슬 2개를 꼬아 연결하고 있다. 중간식의 공구체는 반구체(半球體) 2개를 뿔뿔로 집합하여 만들어 가운데가 비어 있으며, 빈 곳을 폭 1.6mm의 얇고 긴 금선을 관통시킨 다음 아래 위에서 살짝 구부려 긴 S자 형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환과 수하식의 사슬과 연결시켰다.



가야의 귀걸이에서는 고리와 사슬과 금사 및 금판의 연결금구가 사용되는데, 이 귀걸이에는 이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난다. 우선 주환 아래에 있는 첫 번째 고리는 주환과 마찬가지로 금봉을 늘려서 만든 고리이고, 여기에 금사를 가늘고 길게 늘려 만드는 2개의 사슬(roman-chain), 그리고 다시 중간식 공구체의 빈 사이에 금판을 길게 늘려 고리형을 만들어 S자로 연결한 고리가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가야의 여러 귀걸이들에서는 이러한 연결형식이 다양하게 변주되어 나타난다.

공구체는 중앙을 반으로 나누고 가운데를 땀해서 붙였는데, 그 부분을 가리기 위해 각목으로 된 금선을 2줄 돌려 장식하였다. 상하의 반구체 부분에는 각각 3개의 금알갱이와 주위를 원형으로 돌린 장식으로 장식하였는데, 상하가 서로 엇갈리도록 배치하고 있다.



원형장식은 지름 1.9mm 정도의 금알갱이와 지름 3.8mm 정도로 외곽을 빙 두른 새김금사로 장식하고 있다. 금알갱이 또한 주체인 둥근 공과 마찬가지로 속이 비어 있어 표면이 약간 찌그러져 있는 것이 확인되지만, X-ray 상으로는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다.



아래쪽의 수하식은 가야 귀고리의 전형적인 형식인 산치자형이다. 수하식은 3부분으로 구성되어, 위쪽은 중간식과의 연결 부분, 중앙의 산치자형, 아래쪽은 금알갱이가 그것이다. 우선 위쪽 중간식과 연결하기 위해 수하식의 위쪽에 구멍을 뚫고, 주환과 연결된 고리와 거의 비슷한 크기와 두께의 고리를 매달아 연결하고 있다. 중앙의 산치자형은 얇은 금판 2장을 오리고 타출하여 가운데가 약간 배가 부르게 튀어나와 있는데, 산치자나무 열매처럼 좌우가 나뉘어 볼록하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이 산치자형의 경우 앞뒤 2장의 금판을 붙이면서 땀질한 테두리 부분을 가리기 위해 폭 0.9mm 두께의 새김눈금선을 빙 둘러 장식하여, 중간 주체의 공처럼 땀 부분을 가리기 위해 장식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수하식의 가장 아래쪽에는 지름 2.5mm의 원형 금알갱이 4개를 서로 맞붙여 장식하고 있다.

이렇게 금알갱이나 새김눈금선을 붙여서 장식하는 기법은 고대 금속공예기법 중에서도 상당히 발전된 누금세공기법(鏤金細工技法, filigree)을 사용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다소 거칠고 마무리가 깔끔한 편은 아니다.

○ 조성연대

이 금은제 귀걸이는 고령 지산동 518호분에서 출토되었으며, 출토 유구의 성격이나 귀걸이의 형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6세기 경 대가야에서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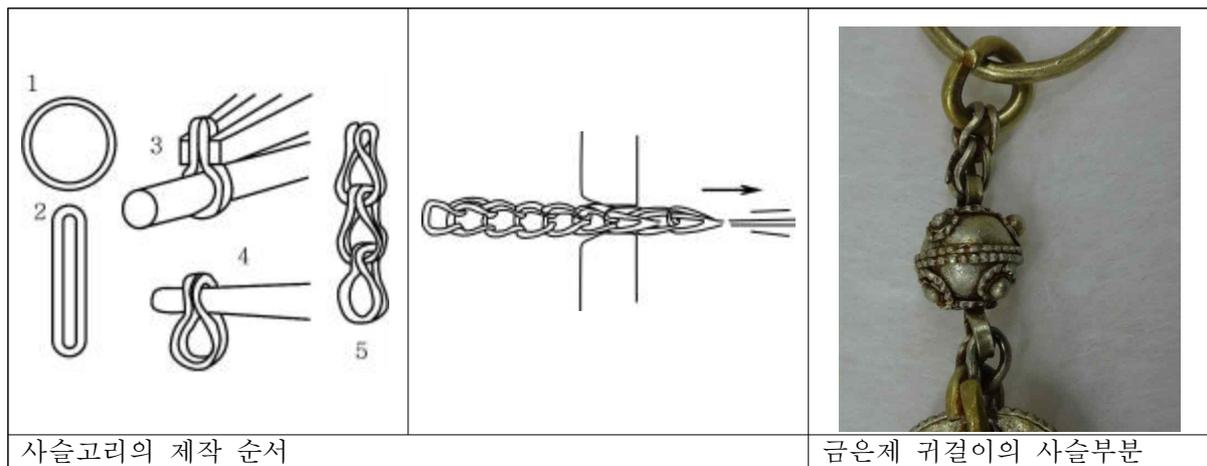
○ 현 상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고령 지산동 518호분을 발

굴하였는데, 이 고분은 심하게 도굴을 당하여 유구가 교란된 상태였다. 이 금은제 귀걸이는 도굴 당시 통로에 해당되는 주곽 남동쪽 부분에서 한 점만 발견되었다. 이렇게 귀걸이 1짝만 발견된 경우는 가야 고분 출토 유물에서는 여러 사례가 있다. 지산동 40호묘, 전남 순천 운평리 2호분, 익산 입점리 1호묘, 옥전 72호묘, 옥전 82호묘, 도항리 11호묘, 진주 중안동, 장수 봉서리 출토 귀걸이 등이 그러하다.

이 귀걸이는 발굴 후 성분 조사를 통해 주환과 중간식 및 수하식이 각각 금은의 합금비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주환과 연결고리처럼 금빛이 강한 부분은 성분 분석 결과 주환의 합금비가 금 79.82%과 은 20.17%였고, 각 연결고리의 합금비는 금 89.03-83.22%와 은 10.97-16.78%였다. 중간식과 사슬, 연결금구의 경우 은색에 가까운데, 이것들의 합금비는 금 47.86-52.25%과 은 47.75-52.13%였다. 이렇게 금과 은을 합금한 금속은 엘렉트럼(electrum)이라고 하며 합금을 통해 경도가 높아져 귀걸이로서 실용적인 기능이 강화된다. 이 귀걸이의 경우 실용성 뿐 아니라 고리 부분의 금빛과 중간식의 공 부분이 은빛으로 교차하여 조형적인 면모도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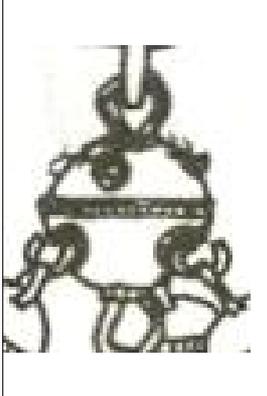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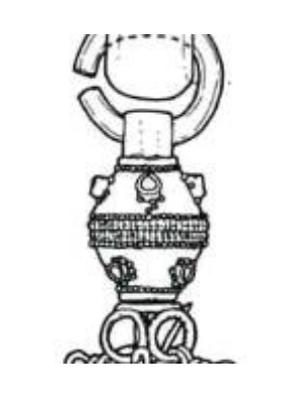
금속공예 기법 면으로 볼 때 연결고리를 사슬형으로 만드는 것에서 가야 귀걸이의 보편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가야에서 사슬을 만들 때에는 원형 고리를 연결부위에 접한 후 집계를 이용하여 원형 고리를 타원형으로 구부리고, 같은 방식을 연속하여 제작한다. 마무리 단계에는 부드러운 인발판에 사슬을 다시 한 번 통과시키는데 이것은 사슬들이 일정한 굵기를 가지게 하며 사슬 표면을 부드럽게 다듬는 기술이 사용되었다.

X선 사진에서 보면, 이 금은제 귀걸이는 중간식의 둥근 공 부분의 위아래와 수하식 산치자형 부분의 앞뒤는 속이 비어 있다. 둥근 공의 위아래와 산치자형 앞뒤를 접합하면서 뿔질을 한 다음 각목형 새김눈금선을 붙여 뿔 부분을 가리고 장식하

고 있다. 이때 필리그리(Filigree)와 그라놀레이션(Granulation)이 사용된 것이 발견된다. 전자는 장식 선이 강조하는 세선세공이고, 후자는 금알갱이가 강조되어 세립세공이라 할 수 있다. 이중 중간식의 둥근 공이나 수하식의 산치자형의 가장 자리를 장식할 때에는 새김눈테[刻目] 기법을 사용하여 정으로 가는 선의 표면에 일정한 눈금을 새겨 표면을 장식한다다. 서양에서 ‘구슬선(beaded-wire)’을 제작하는 형틀이 있었는데, 가야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형틀을 사용했을 것이다.

			
<p>금은제 귀걸이의 중간식</p>	<p>지산동 45-1호 귀걸이 중간식</p>	<p>지산동 45-2호 귀걸이의 중간식</p>	<p>옥전 M4 출토 귀걸이의 중간식</p>

세립세공은 알갱이를 만들어 표면에 뿔뿔로 부착하여 장식하는 기법으로 전자보다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다. 금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 녹여 표면장력을 이용하거나 불대를 이용하여 만들고, 이 입자들을 뿔뿔을 이용하여 붙인다. 이 금은제 귀걸이에는 이러한 가야 귀걸이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이 확인된다.

○ 내용 및 특징 : 이 귀걸이의 수하식은 가야시대 귀걸이 중에서 ‘산치자형 수하식’ 계열로 분류되어 왔다. 산치자형 귀걸이는 세부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세환식 주환과 중간식의 둥근 공에 보이는 새김눈테, 그리고 연결고리의 사슬, 수하식의 산치자형 등이 보여 가야 귀걸이의 양식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금은제 귀걸이	지산동 44-11	장수 봉서리	진주 중앙동	
				
교동 31호	계성A지구 1호묘	장수 봉서리	전 거창 출토	옥전 M6호분

이 귀걸이에 해당되는 산치자형 수하식은 지산동 44-11호분, 장수 봉서리, 진주 중앙동, 傳거창 출토·창녕 교동 31호분·창녕 계성 A-1호분, 옥전고분군에서 M4호에서 2쌍, M6호에서 1쌍이 출토되어 가야귀걸이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산치자형 열매 모양의 귀걸이는 가야 고분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형식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산치자형은 입체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한 경우가 많은데, 이 수하식의 형태는 길게 늘어뜨린 하트 모양의 형태와 더 유사하여 가야 지역에서 종종 출토되는 입체펜촉형과 조형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금은을 합금하는 기술적 성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주목되지만, 가야시대 산치자형 귀걸이를 대표할 만한 조형적 특성이나 독자적 우수성은 발견하기 어렵다.

○ 참고문헌

고령군, 『대가야고분 발굴조사보고서』, 1979.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6, 『고령지산동고분군 518호분 발굴조사보고서』, 2016.

김종철,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계명대학교 박물관, 1981.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외, 『고령 지산동 30호분』, 1998.

이은영, 「가야시대 이식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은혜, 「합천 옥전고분분 출토 가야 이식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이한상, 「가야 금속공예품의 특색과 변화양상」, 『퇴계학과 한국문화』제46호, 2009.

□

○ 내용 및 특징

주환과 중간식, 수하식이 연결된 이식으로 완형이다. 재질은 은이 혼입된 금제품으로 주환은 가는 금봉을 구부려 둥글게 제작하였다. 중간식은 속이 빈 반타원체 2개를 접합하여 제작하였는데, 반타원체는 상하에 각목문대를 부착하고 금립을 장식하였다. 상·하 각목문대 사이에는 구체를 부착하고 외연을 각목문대로 돌리고 그 위에 금립을 부착한 장식이 3조 확인된다.

수하식은 변형된 산치자형혹은 표주박형태로 속이 빈 금판 두 개를 접합하여 제작하였다. 가장자리에 각목문대를 부착하였는데, 금판 가운데는 뒷면에서 타출하여 산치자 문양을 볼록하게 장식하였다.

○ 참고문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6, 『고령지산동고분군-518호분 발굴조사보고서-』.

□

○ 형 식

굵기 1.7-1.9mm의 가느다란 금봉을 구부려서 만든 주환 아래에, 사슬로 연결고리를 만들고 둥근 원형의 속이 빈 중공구(中空球) 형식의 중간식을 매달고 맨 아래에 다시 변형된 산치자형의 수하식을 매단 전형적인 삼국시대의 세환식(細環式) 수하부이식 형식이다(그림 1). 주환과 사슬을 연결하는 작은 고리는 주환의 크기와 비슷한 굵기인 1.7mm이다. 그 아래에 매달린 두 개의 사슬은 좀더 가는 금속선을 사용했는데, 굵기 0.8-1mm 정도이다.

중간식인 원형의 중공구 안에는 폭 1.6mm의 얇고 긴 금선을 관통시킨 후, 아래 위에서 S자 형태로 구부려서 만든 연결금구를 이용하여 각각 아래 위의 사슬과 연결시켰다. 중간식의 표면에는 중간 부분에 각목금선을 2줄 돌려서 장식했으며, 아래 위에는 다시 새김눈



그림 1. 금은계 귀걸이.

금선으로 지름 3.8mm 가량의 원형으로 만든 장식을 각각 3개씩 돌아가면서 배치하였고, 그 새김눈금선의 원형 장식 위에는 다시 지름 1.9mm의 조금 굵은 금알갱이를 붙여서 장식했다(그림 2). 이 금알갱이는 완전한 원형이라기보다 아래 부분이 잘려서 반구에 가까운 형태이다. 이 반구형의 금알갱이는 일부 찌그러진 부분이 확인되어, 속이 비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그림 2. 중간식 세부.

맨 아래에 매달린 수하식은 얇은 금판 2장을 변형된 서양배 모양의 형태로 오리고 타출하여 가운데 부분을 불룩하게 만든 후, 겹쳐서 붙인 것이다. 금판 2장을 붙인 테두리 부분에는 폭 0.9mm 두께의 얇은 새김눈금선을 돌아가며 붙여 장식하였다. 수하식의 앞면과 뒷면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연결고리를 매달기 위해서 뚫은 구멍을 보면, 앞면에서 뒷면으로 뚫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4). 앞면의 구멍은 깔끔하고, 뒤쪽으로는 구멍 뚫린 부분의 거스러기가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수하식 맨 아래 부분에는 지름 2.5mm의 조금 큰 원형의 금알갱이 4개를 붙여서 장식하였다. 이렇게 금알갱이나 새김눈금선을 붙여서 장식하는 기법은 고대 금속공예기법 중에서도 상당히 발전된 누금세공기법(鏤金細工技法, filigree)을 사용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다소 거칠고 마무리가 깔끔한 편은 아니다.

○ 조성연대

이 금은제 귀걸이는 고령 지산동 518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출토 유구의 연대 및 귀걸이의 형식으로 볼 때, 6세기 경 대가야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현 상

이 금은제 귀걸이는 2012년-2013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고령 지산동 518호분의 주곽 남동단벽에서 출토되었다. 이 고분은 중앙부가 심하게 도굴을 당하여, 원래의 매장 상황을 알 수 없었다. 이 금은제 귀걸이는 당시 도굴 통로로 쓰인 남동단벽 쪽에서 교란된 상태로 한 점만 발견되었다.⁶²⁾

62) 발굴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6, 『고령지산동고분군 518호분 발굴조사보고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p. 57 참조.



그림 3. 수하식 앞면.



그림 4. 수하식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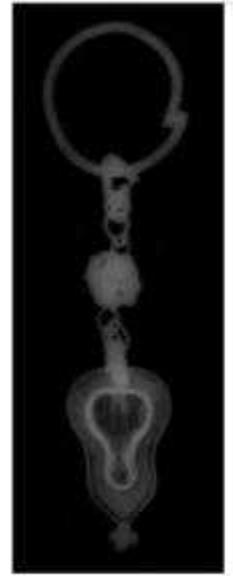


그림 5. 금은제 귀걸이의 X선 사진.

이 귀걸이는 발굴 후 보존처리와 성분 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각 부분이 모두 제각기 다른 합금으로 제작된 점이 특징이다. 주환은 금 79.82%, 은 20.17%의 합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주환과 중간식, 그리고 중간식과 수하식을 연결하는 작은 고리는 각각 금 89.03%, 은 10.97% 및 금 83.22%, 은 16.78%의 합금으로 이루어진 금속을 사용하였다. 육안으로 보기에 이들은 금색이 조금 많아 보인다. 한편, 중간식과 사슬, 연결금구는 육안으로 보기에 노란 빛이 적어서 은의 함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성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간식, 사슬, 연결금구 부분은 금 47.86-52.25%, 은 47.75-52.13%의 비율로 제작된 것이다.⁶³⁾

이렇게 금에 은 30-70%의 비율로 합금한 금속은 ‘엘렉트럼(electrum)’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금과 은이 비슷한 비율로 합금된 금속을 사용한 경우가 지금까지 그다지 많이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출토예로서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금과 은을 합금하는 이유는 금속의 색상 변화와 경도 변화, 가격 절하 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순금이나 순은에 비해 엘렉트럼은 경도가 높아지므로, 실용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이 금은제, 혹은 엘렉트럼제 귀걸이는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야 지역에서 개발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X선 사진에서 보면, 이 금은제 귀걸이의 수하식은 완전히 속이 비어 있음이 확인된다(그림 5). 이는 수하식이 얇은 두 장의 금판을 두드리고 오려서 붙여 만들었음을 알려준다. 수하식의 형태를 보면 가운데 부분이 양쪽 모두 타출기법으로

63) 이예지, 2016, 「부록 3. 고령 지산동 출토 금속유물의 과학적 분석」, 『고령지산동고분군 518호분 발굴 조사보고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pp. 373-374.

형성하여 불룩하게 올라와 있는데, 한쪽(앞면) 끝 부분에는 작은 점이 하나 찍혀 있다. 이 점은 어딘가에 눌러 찍힌 것으로, 속이 비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사용 흔이거나 혹은 매장이나 도굴시에 우연히 찍힌 흔적일 수 있다. 이러한 흔적이 점으로만 남아 있는 것은 이 금속판의 재질이 금과 은의 합금인 엘렉트럼제라 경도가 높아서 찌그러지지 않고 흔적만 남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귀걸이는 타출 기법으로 제작된 속이 빈 귀걸이들의 경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은제 합금을 사용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수하식 끝부분을 보면 바탕 금속판과 테두리를 돌아가면서 붙인 새김눈 금선 사이에 땀이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 남겨진 구멍이 확인된다(그림 7). 이러한 예로 볼 때, 새김눈금선과 바탕 금속을 붙일 때에는 땀납을 이용한 땀(soldering)기법을 이용했다고 추정된다.



그림 6. 금은제 귀걸이 수하식의 앞면 세부. 불룩한 부분의 끝 부분에 작은 점이 찍힌 것이 확인된다.



그림 7. 금은제 귀걸이 수하식의 끝부분.

○ 내용 및 특징

이 귀걸이의 수하식은 가야시대 귀걸이 중에서 ‘산치자형 수하식’ 계열로 분류되어 왔다.⁶⁴⁾ 산치자형 열매 모양의 귀걸이는 가야 고분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형식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산치자형은 입체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한 경우가 많은데, 이 수하식의 형태는 길게 늘어뜨린 하트 모양의 형태와 더 유사하여 산치자형 수하식과는 다소 조형적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수하식 형태는 신라 및 가야 지역에서 종종 출토되는 금낭화형(혹은 입체펜촉형) 수하식 형태와 더 가까운 조형성을 보여주므로,⁶⁵⁾ 이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64)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6, 앞의 책, p. 195.

65) 금낭화형 수하식 귀걸이에 대해서는 주경미, 2018, 「보물 지정 노서동 금귀걸이와 황오동 금귀걸이의 연구」, 『고고학지』, 24, pp. 45-48 참조.



○ 내용 및 특징

전체적으로 은 위에 도금을 하였음. 주환, 주환과 중간식의 사송을 연결한 고리, 중간식과 수하식을 연결한 고리는 금도금이 박락되지 않았음. 아래 위의 사슬 사이에 ‘∞’ 형태의 금선을 연결하였고, 그 외부에 속이 빈 반타원체 2개를 아래위로 접합하여 구체로 만들었음. 구체의 접합면과 아래 위에 각목문대를 부착하고, 위 아래의 각목문대 사이에 각목문이 있는 고리를 부착하고 가운데에 금립을 부착한 장식이 3조 있음. 수하식은 형이고, 중앙부는 속이 빈 은판 2매를 접합하여 만들었음. 금판은 안쪽 면에서 타출하여 볼록하게 하였다. 수하식 끝에는 직경 2mm 크기의 금립 4개를 붙여 장식하였음.

○ 참고문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6, 『고령지산동고분군-518호분 발굴조사 보고서-』

○ 기 타

금은제 수하부이식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고령지산동고분군의 발굴조사 시, 518호분에서 출토한 국가귀속매장문화재임

보고 사항

VI. 보고사항

안전번호 동산 2019-01-021

21.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 관련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2017·2018년 사업대상) 하반기 결과보고

가. 보고사항

2017·2018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대상 현상변경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하반기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2017·2018년도 국가지정동산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대상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 결과를 보고하는 것임
 - ※ 2018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 관련 현상변경 소위원회 운영계획 보고(18년 1차 위원회/18. 2. 8)

다. 추진경과

1) 회의운영 방식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안전 심의
 - ※ 사업 수행 보존처리계획 작성 또는 보존처리 담당자와 지자체 담당자 등이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개요, 사전조사 내용, 보존처리 계획의 주안점 등에 대해 PPT 설명

2) 2018년 제5, 6, 7차 소위원회 개최 결과

○ 회의개요

차수	회의날짜	회의내용	결과
제5차	'18.6.20.	2017년 국고보조사업 '보물 905호 '김성일 종가 전적 보존처리' 등 7건	원안 가결 8건
제6차	'18.7.26.	2018년 국고보조사업 '국보 209호 보험인석탑 기록화, 해체 복원 및 보존처리' 등 7건	원안 가결 6건, 조건부가결 1건
제7차	'18.9.20.	2018년 국고보조사업 '국보 제71호 동국정운 권1, 6' 보존처리 등 4건	원안 가결 4건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붙임. 2017·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 대상 목록(제5~7차) 1부.

[붙임]

2018년도 제5차 소위원회 현상변경 심의대상 목록

연번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명칭	사업내용	수행업체/지자체	결과
1	제주 서귀포시	보물 547-2	김정희 종가유물 일괄 보존처리	보존처리(5점)	(주)동해건설/ 제주시 세계유산문화재부	원안 가결
2	경북 안동시	보물905	김성일 종가 전적	보존처리(6책) 및 포갑 제작	계획업체 : (주)엔가드/ 안동시 전통문화예술과	원안 가결
3	경북 안동시	보물906	김성일 종가 고문서	호적단자(20점) 보존처리 및 굵게말이 축 제작	계획업체 : (주)엔가드/ 안동시 전통문화예술과	원안 가결
4	서울 마포구	보물 745-1	월인석보 권1~2	보존처리	고창문화재보존/ 마포구 문화진흥과	원안 가결
5	경북 안동시	보물1018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보존처리(소지 3점) 및 보관함 제작	계획업체 : 고창문화재보존/ 안동시 전통문화예술과	원안 가결
6	경북 안동시	보물1019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전적	보존처리(3책) 및 보관함 제작	계획업체 : 고창문화재보존/ 안동시 전통문화예술과	원안 가결
7	경북 안동시	보물1202	이현보 종가 문적	보존처리(4점) 및 보관함 제작	계획업체 : 고창문화재보존/ 안동시 전통문화예술과	원안 가결
8	경북 경주시	보물 524-2	여주이씨 옥산문중 유목 - 원조오잠, 사산오대	보존처리, 영인본 및 보관함 제작	계획업체 : 고창문화재보존/ 경주시 문화재과	원안 가결

2018년도 제6차 소위원회 현상변경 심의대상 목록

연번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명칭	사업내용	수행업체/지자체	결과
1	서울 중구	국보 209	보협인석탑	기록화 및 학술조사, 석탑 해체 복원 및 보존처리	담원문화유산/중구 건축과	원안 가결
2	서울 강북구	보물 1822	서울 화계사 목조지장 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담원문화유산/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	원안 가결
3	전남 강진군	보물1841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	보존처리 및 복원품 제작	(주)금강문화재/강진군 문화관광과	원안 가결
4	경남 통영시	보물 440	통영 충렬사 팔사품 일괄	홍소령기(2점) 및 독전기(2점) 보존처리, 남소령기, 홍소령기, 독전기 및 깃대 복제품 제작	경남문화재/통영시 문화예술과	조건부 가결 (계획재수립)
5	대구 동구	보물 1241	대구 파계사 영산회상도	기록화 및 응급 보존처리, 영인본 제작	(주)해성문화재보존/동구 문화관광과	원안 가결
6	대전 유성구	보물 1519	묘법연화경삼매참법 권상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한켄문화재보존/유성구 문화관광과	원안 가결
7	경남 김해시	보물 961-1	묘법연화경 권4~7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두영문화재/김해시 문화재과	원안 가결

2018년도 제7차 소위원회 현상변경 심의대상 목록

연번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명칭	사업내용	수행업체/지자체	결과
1	서울 성북구	국보 71	동국정운 권1,6	보존처리, 영인본 및 보관함 제작	한국전통문화대학교(계획), 지음문화재보존(처리)/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원안 가결
2	서울 성북구	국보 149-1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 권4, 5	보존처리, 영인본 및 보관함 제작	담원문화유산/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	원안 가결
3	서울 성북구	보물 283	금보	보존처리, 영인본 및 보관함 제작	(주)금강문화재/강진군 문화관광과	원안 가결
4	경남 진주시	보물 1816	청곡사 영산회괘불탱	보존상태 조사 및 응급 보존처리	두영문화재/진주시 문화예술과	원안 가결

22. 2019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추진 및 현상변경 검토회의 운영 계획보고

가. 보고사항

2019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대상 현황 및 그에 따른 현상변경 승인에 대해 ‘동산문화재 현상변경 검토회의’를 운영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1)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지정 문화재 중 원형보존 등을 위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 매년 문화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보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2) 2019년 국고보조사업 대상사업 개별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 및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동산문화재 현상변경 검토회의’를 운영하고자 보고하는 것임
 - 추진경과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현상변경 심의 소위원회 구성안 보고(16년 제2차 위원회 보고/ '16. 4. 14)
 - 2017년도 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 관련 현상변경 소위원회 구성·운영(17년 1차/ '17. 2. 9.)
 - 2018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 관련 현상변경 소위원회 운영(18년 1차/ '18. 2. 8.)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보물 1073호 초조본아비담팔건도론 권24’ 등 74건[붙임 1]
- 2) 사업추진방법
 - 문화재청 : 국고보조금 교부(자치단체 보조), 보존처리계획(현상변경) 검토 및 승인, 사업추진 점검
(총액 8,645,704천원/ 국비 6,051,994천원, 지방비 2,593,710천원)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추진(감독관) 및 예산집행
 - 해당문화재 분야의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3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자문을 받아 실시(자문회의는 착수 전, 중간과정, 완료 시 등 3회 이상 개최)
- 3) 현상변경 검토회의 운영 계획
 - 개요 및 목적 : 개별 사업 보존처리계획서 내용(공정·재료·산출내역 등)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보존처리 시행을 유도하고자 함
 - 구성인원 : 유형문화재과 담당직원, 해당문화재 분야 관련전문가 3인 이상으로 검토위원 구성

- 개최주기 : 매 홀수달 2째주 목요일(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 현상변경 검토회의를 거쳐 승인된 2019년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국고보조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같음하고자 함
- 사업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진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붙임 1.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 국가지정문화재 대상목록 1부.
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지침」 시행 내용 1부.

[붙임 1]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 국가지정문화재 대상목록

연번	시도	기초	지정번호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9년 예산액 (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계
1	서울	관악구	보물 제1073호	초조본아비담팔견도론 권24	보존처리(1권 1축) 및 보관함 제작	6,738	2,887	9,625
2	서울	관악구	보물 제1074호	초조본 아비담팔견도론 권23	보존처리(1권1축) 및 보관함 제작	6,738	2,887	9,625
3	서울	관악구	국보 제266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75	보존처리(2권 2축) 및 보관함 제작	13,979	5,991	19,970
4	서울	동대문구	보물 제763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 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연해) 권78, 9~10	수능엄경(4권2책) 보존처리 및 보관함 제작	53,900	23,100	77,000
5	서울	성북구	국보 제249-1호	동궐도	동궐도 보존처리 및 보관함 제작	210,000	90,000	300,000
6	서울	성북구	보물 제463-4호	용비어천가 권1~2, 78	보존처리(2책) 및 보관함 제작	35,000	15,000	50,000
7	서울	성북구	보물 제1533호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보존처리(1점) 및 보관함 제작	53,200	22,800	76,000
8	서울	종로구	보물 제877호	금강반야바라밀경	보존처리(1권 1축) 및 보관함 제작	22,750	9,750	32,500
9	서울	종로구	보물 제745-7호	월인석보 권22	보존처리(1권 1책) 및 보관함 제작	21,000	9,000	30,000
10	서울	종로구	보물 제1681호	이한진 전예 경산전팔쌍절첩	보존처리(1점) 및 보관함 제작	23,800	10,200	34,000
11	서울	중구	보물 제742호	삼존불비상	정밀상태진단(1점)	9,800	4,200	14,000
12	서울	중구	보물 제59-10호	안중근의사유묵-세한연후지송백지부조	보존처리(1점)	22,873	9,803	32,676
13	세종	세종	보물 제650호	세종시 연화사 칠존불비상	보존상태 정밀진단 및 기록화	11,550	4,950	16,500

연번	시도	기초	지정번호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9년 예산액 (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계
14	세종	세종	보물 제649호	세종시 연회사 무인명 불비상 및 대좌	보존상태 정밀진단 및 기록화	11,550	4,950	16,500
15	경기	용인시	보물 제569-21호	안중근의사유묵- 옥보동양선개정락 시과실기추회하급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39,200	16,800	56,000
16	경기	용인시	보물 제1622호	서거정 필적	보존처리	25,900	11,100	37,000
17	강원	강릉시	보물 제1220호	명안공주 관련유물	전적 및 족자(총7점) 보존처리	96,481	41,349	137,830
18	강원	강릉시	보물 제1625-1호	황기로 초서- 이균옥시	보존처리(1점)	18,123	7,767	25,890
19	충북	단양군	보물 제1164-1호	묘법연화경 권3~4	보존처리	12,432	5,328	17,760
20	충북	음성군	보물 제1236-1호	구급간이방 권6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28,000	12,000	40,000
21	충북	음성군	보물 제1234호	의방유취 권201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28,000	12,000	40,000
22	충북	음성군	보물 제1111호	찬도방론맥결집성 권1, 3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56,000	24,000	80,000
23	충북	청주시	보물 제1407호	범망경보살계본 및 수보살계법	범망경보살계본 및 수보살계법 보존처리	21,000	9,000	30,000
24	충남	공주시	보물 제1719호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 복장유물(67건77점) 계획수립	39,900	17,100	57,000
25	충남	공주시	보물 제1720호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	복장전적(7종8책)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 계획수립	16,100	6,900	23,000
26	충남	부여군	보물 제1860호	부여 무량사 삼전패	보존상태 정밀진단 및 기록화	63,000	27,000	90,000
27	충남	서산시	보물 제1915호	달마대사관심론 목판	과학적 조사분석 및 보존처리계획 수립(8판)	13,470	5,773	19,243
28	충남	서산시	보물 제1916호	달마대사혈맥론 목판	과학적 조사분석 및 보존처리계획 수립(7판)	12,490	5,353	17,843

연번	시도	기초	지정번호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9년 예산액 (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계
29	충남	서산시	보물 제1961호	묘법연화경목판	과학적 조사분석 및 보존처리계획 수립(111판)	80,140	34,346	114,486
30	충남	서산시	보물 제1962호	계초심학인문목판	과학적 조사분석 및 보존처리계획 수립(8판)	13,630	5,841	19,471
31	충남	서산시	보물 제1963호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	과학적 조사분석 및 보존처리계획 수립(4판)	12,040	5,160	17,200
32	충남	서산시	보물 제1964호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	과학적 조사분석 및 보존처리계획 수립(6판)	11,990	5,139	17,129
33	충남	서산시	보물 제1965호	예수시왕생칠재의 찬요목판	과학적 조사분석 및 보존처리계획 수립(26판)	28,890	12,381	41,271
34	충남	서산시	보물 제1966호	성관자재구수육자 선정목판	과학적 조사분석 및 보존처리계획 수립(26판)	12,960	5,554	18,514
35	충남	서산시	보물 제1967호	오대진언목판	과학적 조사분석 및 보존처리계획 수립(9판)	14,890	6,381	21,271
36	충남	서산시	보물 제1619호	서산 개심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대좌 (1점) 보수	35,000	15,000	50,000
37	충남	아산시	보물 제1815호	홍가신 청난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	홍가신 청난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 영인본 제작	15,400	6,600	22,000
38	충남	예산군	보물 제1381호	예산 수덕사 목조 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연화대좌 및 복장유물' 학술 조사, 보존상태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 계획 수립	126,000	54,000	180,000
39	충남	천안시	보물 제1261호	광덕사노사나불괘불탱	괘불탱 및 괘불함 보존처리	210,000	90,000	300,000
40	충남	청양군	보물 제986호	청양 운장암 금동 보살좌상	보존상태 진단 및 기록화	49,000	21,000	70,000
41	전북	고창군	보물 제1752호	고창 선운사 소조 비로자나삼불좌상	보존처리	455,000	195,000	650,000
42	전북	군산시	보물 제1718호	군산 동국사 소조 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보존상태 진단 및 기록화 (불단 및 복장유물 포함)	84,000	36,000	120,000
43	전북	남원시	보물 제942호	황진가 고문서	황진가 고문서(분재기3점, 소지1점, 유지1점) 보존처리 및 보관함 제작	105,000	45,000	150,000
44	전북	남원시	보물 제421호	남원 실상사 약수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보존상태 진단 및 기록화	70,000	30,000	100,000

연번	시도	기초	지정번호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9년 예산액 (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계
45	전북	부안군	보물 제739호	고희 초상 및 문중유물	고희 초상 및 문중유물 영인본 제작	100,100	42,900	143,000
46	전북	부안군	보물 제900호	부안김씨 종중 고문서 일괄	부안김씨 종중 고문서 일괄 영인본 제작	175,000	75,000	250,000
47	전북	부안군	보물 제1268호	내소사 영산회괘불탱	내소사 영산회괘불탱 보존 처리 및 모사도 제작	325,500	139,500	465,000
48	전북	완주군	보물 제1274호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 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복장유물(후령통 3점, 조성기 3점) 보존처리 및 보관함 제작	42,000	18,000	60,000
49	전북	익산시	보물 제651호	연안이씨 종중 문적	연안이씨 종중 문적 보존 처리 및 보관함 제작	35,000	15,000	50,000
50	전북	익산시	보물 제651호	연안이씨 종중 문적	연안이씨 종중 문적 보존 처리 및 보관함 제작(추가)	56,000	24,000	80,000
51	전북	정읍시	보물 제437호	김회련 개국원종공신 녹권	보존상태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 계획 수립	28,000	12,000	40,000
52	전북	정읍시	보물 제726호	장관 개국원종공신 녹권	보존처리	45,080	19,320	64,400
53	전남	구례군	국보 제301호	화엄사 영산회괘불탱	괘불탱 및 괘불함 보존처리	210,000	90,000	300,000
54	전남	구례군	보물 제1888호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	천은사 삼장보살도 모사도 제작	105,000	45,000	150,000
55	전남	담양군	보물 제260호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	미암일기(6책) 보존처리 및 보관함 제작	105,000	45,000	150,000
56	전남	보성군	보물 제875호	상교정본자비도량 참법 권7~10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42,000	18,000	60,000
57	전남	순천시	국보 제314호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	송광사 화엄경변상도 모사도 및 보관함 제작	280,000	120,000	400,000
58	전남	여수시	보물 제1332호	홍국사 수월관음도	보존처리	78,400	33,600	112,000
59	전남	여수시	보물 제1862호	여수 홍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벽화 보존처리 및 보호막 제작	30,800	13,200	44,000
60	전남	여수시	보물 제1331호	홍국사 노사나불괘불탱	보존처리	210,000	90,000	300,000

연번	시도	기초	지정번호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9년 예산액 (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계
61	전남	여수시	보물 제1550호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보존처리	210,000	90,000	300,000
62	전남	해남군	보물 제1342호	미황사 괘불탱	괘불탱 및 괘불함 보존처리(2차)	105,000	45,000	150,000
63	경북	구미시	보물 제1638호	구미 수다사 영산회상도	보존처리	91,000	39,000	130,000
64	경북	구미시	보물 제1633호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보존상태 정밀진단 및 기록화	70,000	30,000	100,000
65	경북	김천시	보물 제1854호	김천 고방사 아미타 여래설법도	보존처리	105,000	45,000	150,000
65	경북	김천시	보물 제1854호	김천 고방사 아미타 여래설법도	보존처리	105,000	45,000	150,000
66	경북	봉화군	보물 제896호	권벌 증가 전적	권벌 증가 전적(25책) 보존처리	189,000	81,000	270,000
67	경북	봉화군	보물 제901호	권벌 증가 고문서	보존상태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 계획수립	15,400	6,600	22,000
68	경북	봉화군	보물 제1919호	봉화 청량사 건칠 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학술조사, 보존상태 정밀진단 및 기록화(복장유물 포함)	105,000	45,000	150,000
69	경북	영주시	보물 제881호	장말손 유품	패도 복제품 제작 타당성 조사 및 복제품 제작 계획 수립	70,000	30,000	100,000
70	경북	칠곡군	보물 제1605호	칠곡 송림사 목조 석가여래삼존좌상	삼존좌상(대좌, 수미단 포함) 보존처리	380,800	163,200	544,000
71	경남	남해군	보물 제1736호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53	보존처리 및 보관함 제작	35,000	15,000	50,000
72	경남	양산시	보물 제1351호	통도사 괘불탱	통도사 괘불탱 모사도 및 보관함 제작, 초본도 작성	280,000	120,000	400,000
73	경남	창녕군	보물 제1816호	창녕 관룡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벽화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2차)	56,000	24,000	80,000
74	제주	제주	보물 제547-2호	김정희 증가 유물 일괄	보존처리 및 보관함 제작 (21점), 관련 유물 영인본 제작	175,000	75,000	250,000

[붙임 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지침」(2019.1.1.) 시행

- 목적 : 유형별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행정 혼선을 줄이고, 체계적이고 명확한 보존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바람직한 보존처리를 실시하도록 함
- 추진경과
 - 지침안 작성 및 내외부 관계전문가(문화재전문위원, 보존과학업계 등) 의견수렴 : '18. 8.~11.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지침」 마련 : '18. 12.
 - 언론 보도자료 배포('18.12.27.) 및 지침 시행('19.1.1.)

<지침 주요내용>

- 보존처리계획서 '필수 작성항목' 제시 및 동산문화재 유형별 보존처리 기본항목표 안내
 - 문화재 상태조사분석 결과(현 보존상태, 손상부위, 손상원인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 자료, 손상도면)
 - 보존처리 공정(보존처리 방안 및 세부공정별 처리계획 및 적용가능한 재료와 방법)
 - 보존처리에정공정표, 내역서(원가계산서, 공종집계표 등),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견적서/ 현황사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건조물 문화재에 적용되는 '설계도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수리법에 보존처리 계획서를 추가 규정하는 개정 작업 추진 중

23. 2019년도 동산문화재 보수정비(동산문화재 주변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 보고

가. 보고사항

2019년도 <동산문화재(국보·보물 대상) 주변정비 국고보조사업> 대상 현황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2019년도 국보·보물 대상 동산문화재 주변정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동산문화재 주변정비 국고보조사업 대상
 -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수장고 신축 설계비 등 64건 183억(국비 117.6억)
 - 사업내용 : 유물 수장고 건립 설계, 보호각 등 주변환경 정비 공사 시공 등
 - 유형별 세부사업

구분	전시실·수장고 보수 정비	보호각 정비	주변 환경 보수 정비	문화재 관리시설 정비	소계
사업건수	14	13	33	4	64
소요예산(억)	31.6	64.9	74	12.5	183

* 주변환경 보수 정비 : 문화재 안전관리(석축, 지반, 담장설치 공사) 및 관람편의 시설 공사 등

** 문화재 관리시설 : 사찰 공양간, 요사채 정비사업 등

- 지역별 세부사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계
건수	6	1	2	1	2	3	6	9	17	10	7	64건
예산액 (국비)	1,360	140	620	70	175	687	557	1,381	4,380	1,522	872	11,764백만원

2) 사업기간 : 2019. 3월 ~ 12월

3) 사업추진방법

- 문화재청 : 국고보조금 교부(자치단체 보조) 및 사업추진사항 점검
- 지방자치단체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24. 2019년도 동산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2019년도 동산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2019년도 동산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 대상 및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및 계획

구 분	건 수	계 획	비 고
지방자치단체장 신청	49건 (증가예정)	접수 순으로 지정조사 실시	
국보 승격	20건	분야별 선정 순으로 조사 실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58건	보존상태 등 열악한 대상 우선 순위로 조사 추진	
환수·매장 문화재 (가야유물 포함)	33건 (증가예정)	'19년 상반기: 조사 및 지정조 사보고서 작성 및 지정 추진	하반기 추가 신청 접수 예정 *별도의 지정조사 단 구성·운영
국립중앙박물관	신청 예정 *기 신청건은 조사완료	'19년 상반기 : 기 조사 대상 조사보고서 작성 및 지정 추진	상반기에 추가 지 정신청 예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신청	10건	지방자치단체장 신청건과 함께 접수순으로 지정추진	'19년도 이후 시·도 위원회 통해 신청
국보 제151호 조선왕조실 록 누락분 추가 지정 (실록계 포함)	1건 (실록계 : 36점)	'19년 상반기 : 지정조사보고서 작성 및 지정 추진(실록 우선 추진)	*별도의 지정조사 단 구성·운영
총 계	171건		

※(참고) 조선왕조실록 기 지정현황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소장처
국보 제151-1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	1,181책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보 제151-2호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848책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국보 제151-3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74책	국립고궁박물관
국보 제151-4호	조선왕조실록 기타산엽본	21책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합 계	2,124책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붙임] 2019년도 동산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 추진 대상

※ 보완조사 대상 및 환수문화재 등은 미포함

□ 지자체 : 49건

연번	신청일	신청자	종별	대상 문화재
1	2016.08.30	경기도지사	보물	훈개통헌의
2	2017.01.03	경북지사	보물	구미 대둔사 소조십육나한상 및 권속 일괄
3	2017.01.10	부산시장	보물	목조보살입상
4	2017.02.01	서울시장	보물	대반아바라밀다경 권534(묘법연화경관세음보문품)
5	2017.02.01	서울시장	보물	백자철화매죽문시명호
6	2017.02.01	서울시장	보물	백자청화매죽문호
7	2017.05.04	경북지사	보물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
8	2017.08.28	부산시장	보물	백자대호
9	2017.09.04	경북지사	보물	경주 옥산서원 소장 심원록 및 집사기
10	2017.09.04	경북지사	보물	안동 도산서원 소장 유가경서 언해본
11	2017.09.04	경북지사	보물	음식디미방
12	2017.09.20.	서울시장	보물	안동권씨세보
13	2017.10.20	부산광역시장	보물	관북여지도
14	2017.12.14	서울특별시장	보물	묘법연화경
15	2017. 12. 29	충청남도지사	보물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16	2017. 12. 29	충청남도지사	보물	부여 무량사 극락전 아미타삼존도
17	2017.12.29	충청남도지사	보물	공주 감사 소조석가여래삼불상, 사보살입상, 복장유물
18	2018.01.02.	경기도지사	보물	무예제보
19	2018.01.02.	경기도지사	보물	경국대전
20	2018.01.08.	경기도지사	보물	남구만 초상(3점)
21	2018.02.02.	부산시장	보물	이덕성 인
22	2018.04.25.	서울시장	보물	백자대호
23	2018.06.11.	서울시장	보물	간이벽온방
24	2018.06.12.	경기도지사	보물	윤승길초상과함·함받침
25	2018.06.13.	대구시장	보물	남명천화상승증도가
26	2018.06.18.	부산시장	보물	고불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27	2018.07.02.	전남지사	보물	해남 약수사 불교 전적
28	2018.07.20.	부산시장	보물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29	2018.07.23.	경북지사	보물	고령 반룡사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 및 복장유물

연번	신청일	신청자	종별	대상 문화재
30	2018.08.01.	서울시장	보물	연행화첩
31	2018.08.01.	서울시장	보물	청구영언
32	2018.08.01.	서울시장	보물	고열녀전
33	2018.08.01.	서울시장	보물	이담명 승정원사초
34	2018.08.20.	전남지사	보물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복장유물
35	2018.08.20.	전남지사	보물	장성 백양사 극락전 아미타회상도
36	2018.09.21.	제주도지사	보물	초조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37	2018.09.21.	제주도지사	보물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
38	2018.11.14.	대구시장	보물	대승기신론소 권하
39	2018.11.14.	대구시장	보물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4-7
40	2018.12.11.	서울시장	보물	감지금니묘법연화경사경 권2
41	2018.12.11.	서울시장	보물	정조어필 한글편지첩
42	2018.12.11.	서울시장	보물	효의왕후 곤전어필
43	2018.12.11.	서울시장	보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
44	2018.12.11.	서울시장	보물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1-2
45	2018.12.14.	충북지사	보물	송시열 초상
46	2018.12.14.	충북지사	보물	권상하 초상 및 초본
47	2018.12.24.	경남지사	보물	달마대사관심론
48	2018.12.24.	경남지사	보물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49	2018.12.24.	경남지사	보물	미륵원명 청동북

□ 불교문화재연구소, 규장각 등 : 58건

연번	신청일	신청자	소유자(관리처)	종별	대상 문화재
1	2015	불문연	은적사	보물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2	2015	불문연	송림사	보물	익산 송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
3	2015	불문연	동화사	보물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4	2015	불문연	흥국사	보물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나한상 일괄
5	2015	불문연	금탑사	보물	고흥 금탑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6	2015	불문연	금탑사	보물	고흥 금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7	2015	불문연	도장사	보물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목조보살좌상
8	2015	불문연	김룡사	보물	문경 김룡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9	2015	불문연	봉암사	보물	문경 봉암사 마애보살좌상
10	2015	불문연	반룡사	보물	고령 반룡사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
11	2015	불문연	안정사	보물	통영 안정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연번	신청일	신청자	소유자(관리처)	종별	대상 문화재
12	2015	불문연	관룡사	보물	창녕 관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13	2015	불문연	한산사	보물	여수 한산사 지장시왕도
14	2015	불문연	흥국사	보물	여수 흥국사 삼장보살도
15	2015	불문연	흥국사	보물	여수 흥국사 제석도
16	2015	불문연	남장사	보물	상주 남장사 아미타회상도
17	2015	불문연	남장사	보물	상주 남장사 삼장보살도
18	2015	불문연	은해사성보박물관	보물	영천 부귀사 아미타회상도
19	2015	불문연	은해사 백흥암	보물	영천 은해사 백흥암 아미타삼존도
20	2015	불문연	벽송사	보물	함양 벽송사 지장시왕도
21	2015	불문연	전등사	보물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수미단
22	2015	불문연	마곡사	보물	공주 마곡사 순치 11년명 범종
23	2015	불문연	무량사	보물	부여 무량사 송정9년명 범종
24	2015	불문연	대복사	보물	남원 대복사 송정8년명 범종
25	2015	불문연	송광사	보물	완주 송광사 목조삼패전
26	2015	불문연	파계사	보물	대구 파계사 원통전 수미단
27	2015	불문연	대둔사	보물	구미 대둔사 경장(經幟)
28	2015	불문연	직지사	보물	김천 직지사 철제은입사향로
29	2015	불문연	봉정사	보물	안동 봉정사 대웅전 수미단
30	2015	불문연	선석사	보물	성주 선석사 대웅전 수미단
31	2015	불문연	불영사	보물	울진 불영사 불연(佛輦)
32	2015	불문연	운문사	보물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수미단
33	2015	불문연	운흥사	보물	고성 운흥사 대웅보전 수미단
34	2015	불문연	원각사	보물	고양 원각사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 수능엄경 권1,2
35	2015	불문연	용화사	보물	영천 용화사 유가사지론 권71
36	2015	불문연	용화사	보물	영천 용화사 태전화상주심경
37	2015	불문연	대성암	보물	양산 대성암 지비도량참법집해 권상, 하
38	2017.04.06	불문연	쌍계사	보물	하동 쌍계사 묘법연화경
39	2017.04.06	불문연	쌍계사	보물	하동 쌍계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40	2017.04.06	불문연	쌍계사	보물	하동 쌍계사 원돈성불론(합각)
41	2017.04.06	불문연	쌍계사	보물	하동 쌍계사 선원계전집도서
42	2017.04.06	불문연	쌍계사	보물	하동 쌍계사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43	2017.04.06	불문연	쌍계사	보물	하동 쌍계사 반야심경약소연주기회편
44	2017.04.06	불문연	쌍계사	보물	청도 운문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45	2017.04.06	불문연	쌍계사	보물	청도 운문사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연번	신청일	신청자	소유자(관리처)	종별	대상 문화재
46	2017.04.06	불문연	쌍계사	보물	청도 운문사 치문경훈
47	2017.04.06	불문연	쌍계사	보물	청도 운문사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48	2016.12.2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중연	보물	월인석보
49	2016.12.2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중연	보물	송조명현오백가파방대전문수
50	2016.12.2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중연	보물	문원영화
51	2016.12.2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중연	보물	본영도형 및 평면도안(일괄)
52	2016.12.2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중연	보물	효경
53	2016.12.21	한국학중앙연구원	개인	보물	이종악유물(일괄)
54	2016.12.21	한국학중앙연구원	개인	보물	임청각 가전 조선전기 고문서
55	2016.12.21	한국학중앙연구원	개인	보물	손소적개공신교서
56	2016.12.21	한국학중앙연구원	개인	보물	지정조격
57	2016.12.21	한국학중앙연구원	개인	보물	최립송서첩
58	2017.09.14	서울대 규장각	국유	보물	서울대 규장각 실록계(36건)

□ 가야유물 등 매장문화재 : 33건

연번	신청연도	관리자	보관처	대상 문화재
1	2014 ~ 2015	인천광역시	강화역사박물관	인천강화군강화여고 기숙사건립부지유적-청자투각화형접시3점
2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여수GS칼텍스공장확장에정부지내유적-비파형동검2점
3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나주복암리유적3차-목간13점, 태극목제품
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백문화재연구원)	김포양촌택개발사업지구(2단계) 1차- 옹
6	2018 (2차 선정)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김해 대성동 2호분-판갑옷
7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함안 마갑총-말갑옷과 고리자루큰칼
8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부산 북천동 10호분-말머리가리개
9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함안도항리 419-3번지 일원 10호분, 415-4번지 13호분 - 미늘쇠
10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김해 대성동 1호분-뚜껑 있는 긴목항아리와 그릇받침
11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함안말이산4호분(구 34호분)-각종토기

연번	신청연도	관리자	보관처	대상 문화재
12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부산 북천동 10·11호분-원통모양 그릇 받침과 긴목항아리
13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김해 양동리 235호분-목걸이
14		국립김해박물관	부산동의대박물관	김해 양동리 322호분-목걸이
15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김해 양동리 462호분-금박구슬목걸이
16		국립진주박물관	경상대박물관	합천 옥전 M3호분-용봉문양 고리자루칼
17		국립진주박물관	경상대박물관	합천 옥전 M3호분-용봉문양 고리자루칼
18		국립진주박물관	경상대박물관	합천 옥전 M3호분-용봉문양 고리자루칼
19		국립진주박물관	경상대박물관	합천 옥전 M3호분-용봉문양 고리자루칼
20		대성동고분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김해 대성동 91호분-장식마구일품
21		대성동고분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김해 대성동 47호분-청동술
22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합천 옥전 28호분-귀걸이
23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합천 옥전 M4호분-귀걸이
24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합천 옥전 M6호분-귀걸이
25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합천 옥전 M11호분-귀걸이
26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산청 하촌리 IB-삼국시대 7호 주거지- '이득지'명 파수부완
27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합천 저포 E지구 4호분-‘하부사리’명 단경호
28		국립김해박물관	부산 북천박물관	부산 북천동 53호분-신발모양 토기
29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창녕 교동 11호분-유명한두대도
30		국립김해박물관	부산북천박물관	북천동 86호분-종장갑판
31		국립김해박물관	부산북천박물관	북천동 22호분-화살통 장식
32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고성 동외동유적-조문청동기
33		대성동고분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김해 대성동 76호분-목걸이

□ 국보 승격 : 20건

연번	신청일	신청자	종별	대상 문화재
1	2016.12.27	조계종 총무원장	국보	보물 제175호 순천 송광사 경패
2	2016.12.27	조계종 총무원장	국보	보물 제277호 부안 내소사 동종
3	2016.12.27	조계종 총무원장	국보	보물 제1548호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불좌상
4	2016.12.29	충청남도지사	국보	보물 제337호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5	2016.12.30	충청북도지사	국보	보물 제1654호 신편산학계몽
6	2016.12.30	충청북도지사	국보	보물 제1360호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연번	신청일	신청자	종별	대상 문화재
7	2017.03.14	2차 소위원회 추천	국보	보물 제41호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8	2017.05.02	5차 소위원회 선정	국보	보물 제547-1호 김정희 초상
9	2017.05.02	5차 소위원회 선정	국보	보물 제613호 신숙주 초상
10	2017.05.02	5차 소위원회 선정	국보	보물 제1487호 서직수 초상
11	2017.05.02	5차 소위원회 선정	국보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
12	2017.5.23	6차 소위원회 선정	국보	보물 제670호 직지사 대웅전 삼존불탱화
13	2017.5.23	6차 소위원회 선정	국보	보물 제1237호 해인사 영산회상도
14	2017.5.23	6차 소위원회 선정	국보	보물 제1364호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탱
15	2017.5.23	6차 소위원회 선정	국보	보물 제1260호 마곡사 석가모니불 괘불탱
16	2017.5.23	6차 소위원회 선정	국보	보물 제1268호 내소사 영산회 괘불탱
17	2017.5.23	6차 소위원회 선정	국보	보물 제1551호 진천 영수사 영산회 괘불탱
18	2017.5.23	6차 소위원회 선정	국보	보물 제1368호 송광사 영산전 후불탱·팔상탱
19	2017.12.14	서울특별시장	국보	보물 제561호 금영축우기
20	2018.10.1	부산광역시장	국보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25. 2019년도 불교회화 분야 국보·보물 지정명칭 개선 소위원회 운영 보고

가. 보고사항

2019년도 불교회화 분야 국보·보물 지정명칭 개선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2019년도 동산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 개선의 일환으로, 불교회화분야 명칭 변경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고하는 것임.

•관련근거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소위원회 구성)

- ①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추진경과

1) 동산문화재 국보·보물 지정명칭 변경(2011년)

- 회화·조각·공예·전적 분야 348건 명칭변경 예고('11.11.8)

(결과) 257건만 명칭변경 완료 ⇨ 불교회화 91건은 명칭 변경 추진 못함

- 조계종 등 불교계에서 '탱(幀)'을 '도(圖)'로 변경하는 원칙에 대해 이의 제기

- 미술전적문화재(가칭) 조사지표 및 명명기준 개선방안 1차 마련('17.12월)

- 회화·조각·공예 등 지정명칭부여 지침 포함

※불교회화는 19년도에 우선 변경 추진하기로 함

2) 불교회화분야 국보·보물 지정명칭 변경(2018년~)

- 불교회화 분야 국보·보물 지정기준 명칭변경 1·2차 검토회의('18.7.31/9.14)

- 불교회화 분야 국보·보물 지정기준 명칭변경 3차 검토회의('19.1.25)

- 용어 및 지정명칭 부여지침 세부 기준 등 협의(붙임 1참조)

라. 소위원회 구성 및 수행업무(불교회화 분야)

- 구성범위(안) : 불교회화 관련 전·현직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관계전문가 6~7명

※ 진행상황에 따라 관계전문가 1~2명이 추가될 수 있으며, 추가 구성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에 위임받고자 함

- 수행업무 : 불교회화 지정명칭 부여지침 검토 및 개선안 확정
- ‘국보 제46호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등 132건 개선명칭 확정

마. 향후계획

- 불교회화 분야 지정명칭 개선 소위원회 개최(‘19. 3월)
- 소위원회 결과 동산분과위원회 보고(‘19.4월)
- 동산분과위원회 심의 및 변경 추진(‘19년 상반기 예정)

※ (19년) 불교회화 명칭변경 시행⇒(20년) 일반회화·서예·조각분야 추가변경 추진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붙임 : 불교회화 분야 국보·보물 지정명칭 개선 3차 검토회의 결과 1부.

[붙임]

불교회화 분야 국보·보물 지정명칭 개선 3차 검토회의 결과

□ 기본 원칙

- ① 불화를 통칭하는 탕, 탕화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 ② 부처의 존격(~여래)은 명칭에 표현하며, ‘비로자나’, ‘노사나’ ‘미륵’의 경우 오랜 관행을 감안하여 ‘~불’로 표기한다.
예) 석가여래, 아미타여래, 미륵불
- ③ 벽화는 제목에 이어 장르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명칭에 ‘벽화’를 넣는다.
- ④ 주존도와 권속의 그림이 주존도와 대등하게 그려져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경우 ‘주존도 및 권속도’로 명명한다.(단, 삼존, 오존, 구존 등은 표기)
예) 지정보살도 및 시왕도/ 영산회도 및 십육나한도

⑤ 괘불도의 표기

- ※ 존명이 명확한 경우에는 존명을 밝히고 불명확한 것은 ‘사찰명+괘불도’로 표기
- ◆ 향미축지인 등 석가여래의 도상이 명확한 괘불도 중 독존 형식은 ‘석가여래 괘불도’로 표기하고, 군상일 경우 ‘영산회 괘불도’로 표기한다. 다만 도상이 명확하지 않고 존명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괘불도’로 명명한다. 도상과 화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도상을 우선한다. (예) 공주 신원사 노사나불 괘불도/ 청량사 괘불도
- ◆ 괘불도의 화기(畫記) 또는 방제(傍題)에 ‘영산회’ 또는 주존명이 기입된 경우 일반화된 명명기준을 따른다. 예) 대영산·영산탱·영산대회→영산회, 미륵존불→미륵불, 미타불무량수불→아미타여래 등 방제와 화기의 존명이 다르게 표기되었을 경우 방제를 우선한다. (예) 청양 장곡사 미륵불 괘불도(방제: 미륵존불, 화기 : 영산회괘불탱)

- ⑥ 보살그림은 명칭에 ‘보살’을 넣는다.
예) 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 ⑦ ‘석가팔상도’는 ‘팔상도’로 하고, ‘감로왕도’는 ‘감로도’로 한다.
- ⑧ ‘백의관음도’ 및 ‘수월관음도’는 ‘관음보살도’로 통칭한다.

- ⑨ 여러 권속, 복장물 등 종속 관계 유물이 있는 경우 ‘일괄’ 용어를 쓴다.
 예)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일괄 *사자도 등 부속물이 딸린 경우
- ⑩ ‘괘불함’ 또는 ‘괘’는 ‘함’으로 명명한다. 예) 고성 운흥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

□ 세부 원칙

▲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관련

- ① 괘불형식의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의 경우, 영산재(靈山齋)를 위한 고유의 괘불임을 감안, 기존 ‘석가여래 설법도’에서 ‘영산회 괘불도’로 표기
- ② 단독으로 그려진 향마촉지인의 괘불도는 ‘석가여래 괘불도’로 표기하고, ‘영산회’ 등 화기와 관련기록이 남아 있으면 기록에 따라 명명

▲ 독존(獨尊) 이상의 불보살이 그려진 경우

- ① 독존 : ‘존명+여래도’로 표기 (예: 아미타여래도)
- ② 삼존(三尊), 오존(五尊), 구존(九尊)
 ☞ 여래와 본존이 중심인 경우 : ‘~삼존도’ / ‘~오존도’ / ‘구존도’
 ☞ 그밖에 신중으로 구성된 경우 : ~회도
- ③ 주존불을 포함한 여러 부처를 그린 회도(會圖)의 경우, 주존불의 존명을 따라 ‘~회도’로 표기 (예: 석가여래회도/ 비로자나불회도)
- ④ 주존불의 협시처럼 주존 보다 작게 여러 부처들이 분신불처럼 삼존, 오존 등을 구성할 경우 주존불의 존명을 따서 표기
 (예: 비로자나불오불회 괘불도 → 비로자나불 괘불도)
- ⑤ 삼신불(三身佛)은 그대로 표기, 삼세불(三世佛)은 ‘~삼불회도(三佛會圖)’로 표기
 (예: 비로자나불삼신불회도/ 석가여래삼불회도)

▲ 기 타

- ① 같은 사찰 내 동종 불화가 있을 경우 전각명 표기
 (예: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 벽화)
- ② 전적을 제외하고 숫자는 한글로 표기 (예: 십육나한도/ 오백나한도)
- ③ 존명/지명/봉안처 확인되지 않을 경우, 명칭에서 해당부분을 제외할 수 있음
 예: 보물 제1210호 청량산 (존명) 괘불도 → 보물 제1210호 청량산 괘불도
 *봉안사찰 미상의 경우

□ 재검토 사항

① 고려시대 불화는 조선시대 불화와의 혼란을 피하고 차별성을 위해 작품명 앞에 '고려'라는 명칭을 넣는다.

☞ 명칭에 특정 시대를 표기하는 것은 기타 시대 유물 지정명칭과 형평성이 어긋나며, 전반적으로 볼 때 어색하므로 재검토 필요

② 사찰 이외 원 봉안처를 떠나 있는 불화는 화기의 기록된 “봉안처 + 명(銘)”을 함께 표기하여 명명한다. 예) '회암사' 명 약사여래삼존도

☞ '명(銘)'의 사전적 의미는 돌이나 금속에 새긴 글을 뜻하므로, 그림이나 전적 등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관계전문가 의견 확인 필요